2004 가을 反성매매학고 열린 세미나 켜리집

2004 겨울 反성매매학교 열린 세미나 커리집

- 목 차 -

◇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 윤미혜
◇ 한국 성매매피해여성의 실태 및 대안연구 / 김현선

◇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 한국 기지촌 여성운동사, 1966-1996 / 정희진
◇ 공창제 -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 김주영

◇ 섹슈얼리티의 이중화 / 케슬린 배리
  - Ch. 2 성적 권력
  - Ch. 4 성의 산업화
  - Ch. 9 인권과 전지구적인 여성주의 행동

◇ 용감한 여성들, 녹대를 타고 달리는 / 막달레나의 집 역술
  - 녹대를 타고 달리는 여자들과 함께 / 윤미혜
  - '갈보' 혹은 '성노동자'의 인권론 / 염상미
  - 어떤 역사: 성매매와 여성들의 자치 조직, 기나리회 / 염상미

우리는 왜 성매매를 반대해야 하는가

윤덕혜 (한국여성연구원 연구원)

1. 무엇이 문제인가

성매매는 새로운 이슈도 새삼스런 역사도 아니다. 없는 듯이 존재되다가 한 번씩 선정적으로 떠벌려지기도 하면 언제나 우리 곁에 존재해 왔고 문두희의 만큼 늘 '문제'가 되고 있다. 존재를 막아는 사람들은 말한다. "매춘(買春)은 남성의 중동적인 성욕 때문에 존재하는 사회의 필요악"이라고, "재생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데 이제 와서 어쩌겠냐"고 말이다. 그렇다면 한 번쯤 '왜 그토록 성적 능력이 탁월한 남성들이 매춘부라는 직업을 당당하지 않는가' 반문도 해 볼 만하다. 왜 대부분의 매춘부들은 여성이냐고까 왜 그러한 성적 행위가 필요한가를.

사실 다른 성적 행위와 마찬가지로 성매매는 고정 불변한 특성을 갖거나 동일한 사회적 의미를 갖는 것은 아니다[1] 그 자체로 여성 억압적인 것도 아니다. 그러나 현재의 성매매는 고대 가정폭력의 상스러운 예적도 아니며, 매춘부들은 중세 르네상스시기의 아녀자 인형의는 존재도 아니다. 지금 '성매매'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주변 뒤로 떠오르는 단상들을 생각해 보자. 정욕을 참은 시뻘건 동이 퍼런 사창가뿐 아니라 이발소, 여관, 목욕탕, 술집, 안 고속도로 등 상업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이루어질 수 있는 행위, 그 화려한 무명을 떨면 거리는 골목이나 영지된 혼혈 아이들, 제3세계에서 온 여성들, 업과 착취의 늪, 인신 매매적 학대, 폭력과 살인, 희춘을 위해 매매되는 어린이들 그리고 에이즈로 죽어 가는 여성들이 떠오른다.

성의 거래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주선하는 신종 상품들이 끊임없이 개발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성욕은 원색적을 넘은 듯 새로운 자극적 패스의 방식을 찾기시키는 상업성의 배커니즘 속에서 고무되고 있다. 다방에서도, 전화방에서도, 메뚜에서도 성을 사서 판다. 한중이 멀적한 국가의 여성들은 브로커에 의해 싸다 전너 이 나은 국가로 거래된다. 이제 성매매는 개인과 개인간의 거래나 단순한 생물학적욕구의 문제를 넘나 거대한 산업화의 메커니즘 속에 존재하고 있다.

다양한 방법의 성매매 형상을 염두나 보면, '도대체 무엇이 문제인가'하는 의문이 든다. 우리는 왜 성매매를 문제시해야 하는가? 성매매의 무엇이 여성에게 해로운 것인가? 무엇이 문제인가를 아는 것, 그것은 성매매로부터 파생되는 다양한 문제들의 원인과 대안을 가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다양하게 얽힌 성매매 형상의 실타래를 풀고 새로운 역사를 써 는 데 '관점'의 설정이야말로 그 출발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질문에 앞서 우리가 우선해야 할 것은 성매매가 '왜 여성에게 억압적인가'라는 질문을 여성 내부의 문제로 돌려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사실 성매매를 문제로 다루어 온 연구들이나 사회적 시각은 매춘부에게 초점이 맞추어져 왔다. 이러한 시각에서 도출된 전통적인 물음들은 왜 여성들이 다른 직업이 아닌 성매매를 선택하게 되었는지에 관한 것이었다. 사회학적 상징적이 관점은 성격학자나 정신심리학자라는 그 말을 매춘부들이 정리적적 초소나 일탈적 속성에서 발달으며, 사회 구조적인 문제로 접근하려는 시장들은 경제적 · 심리적 행동을 할 드러내 준다고 말하기도 성매매의 전적 구조를 밝기에는 '여준 여성'에 초점이 맞추어진 초자 그림에 불과하며 나아가 근본적인 문제의 초점을 흐리게 할 위험성을 안고 있다. 예나하면 성매매라함으 이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 의해 존속되고 유지되기 때문이다.

2. 성매매에 대한 기본 관점 검토

1) 용어 읽기: 성매매에 대한 다양한 용어의 규정들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prostitution)는 일반적으로 호칭(娼妓), 윤락(淪落), 매춘(賣春), 매음(賣淫), 매매춘(賣買春), 매매음(賣買淫)등의 용어로 불린다. 이러한 용어의 규정에는 성매매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어디에 두는가, 누구의 눈으로 다양한 성매매의 현실을 보는가 등의 관점이 그대로 투영되어 있다. 성매매 문제의 원인과 책임, 그리고 대안을 모색할 때 용어 사용은 중요한 정치적 의미를 갖는다[2] 따라서 우리가 기존의 용어들을 검토하고 새로운 관점을 담을 수 있는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 것은 이 문제에 대한 관점을 드러내게 되며 그 자체로 하나의 실천적을 갖게 된다.

먼저 서양에서 주로 사용되어 온 용어들의 의미를 살펴보자.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윤락이나, 매춘이나, 매음 등은 '성을 파는 행위'만을 규정하는 용어들이다. 물론 이러한 용어들에서 '성을 사는 행위'는 배제되어 있다. 이러한 용어들은 성을 사는 행위에 문제의 초점을 맞추고 도덕적인 비난을 동반하는 점에서 문제를 안고 있다. 세를 들어 일적인 용어로 사용되는 '윤락'이란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린다'는 의미를 갖는데, 이런 무시무시한 낙인은 성을 파는 사람에게만 찌인다. 우리 사회에서 많이 일하는 윤락 행위자, 즉 스스로 타락하여 몸을 버리는 자는 성을 파는 사람이며, 손님은 윤락 행위자가 아닌 그저 '상대방'일 뿐이다.

대부분의 매춘부가 여성임을 감안할 때 윤락이란 말이 여성에게 부과되는 용어이며 성

---

1) 예를 들어 뉴기니아의 한 부족(Basu)은 아이가 성 자체하면 입하의 남을 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정치한 남자아이에게 성인 남성(대부분 친척)의 성기를 빨라고(Gisbasu)하도록 하는 관습이 있다. 우리 사회의 관점에서 볼 때 이 관습은 끈한 성인, 여성이라의 일관계, 동성애 등으로 여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그들에게는 '섹스'가 아닌 '아이 키프기'의 방주에 속해 있는 자연스러운 행동이다. 이렇듯 한 문화에서 섹스라고 규정하는 행위는 다른 문화에선 전혀 다른 의미를 갖기 때문에 성적 관습에 도덕적 절대성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Strage, 1985, 390-393쪽). 성매매 역시 역사적으로 그 의미가 주일이 변화되어 왔고 사회 문화적인 의미가 사프기 때문에, 성매매의 문제를 논할 때 성이 일반 사회 문화적 맥락을 배제하고 성적 '욕구'만의 문제로 단순화하거나 고정된 도덕적 틀로 평가하는 관점들은 지양해야 한다.

2) 예를 들어, 복수적인 한 사건이 어떠한 맥락으로 묘사되는가는 역사적 의미를 새롭게 하는 것이다. '성주 인주화 운동'이 광주 학살, 광주 시민 항쟁으로 불렸던 시대에 그 의미에 대한 재평가 작업이 중요했고 명칭을 규정하는 것이 정치적인 목표로 다뤄졌듯이, '성매매'의 용어 또한 현재의 맥락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다.

대가 되는 자는 도덕적 면죄부를 받는 셈이다. 이는 성을 사는 사람이 매우른 남성임을 확인하고 돈을 낸 뒤 시중군임을 면책하고 있는 셈이다.

이렇듯 윤락,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성매매의 문제를 '여자는 피해만 조장을 받주고 성을 파는 행위에에 대한 도덕적 비난을 집중하고 있는데, 실제 성매매는 성을 파는 사람이 아니라 성을 사는 사람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의 핵심을 놓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수재이피(L. Steiger, 1999, 349쪽)는 성매매를 "남성이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제 관련된 행위"로 정의하기도 하였는데 그것은 성매매 문제의 근원을 성을 사는 남성의 문제로 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의 페미니스트나 매춘 여성을 위해 일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성매매가 '팔고 사는 행위'라는 점을 강조하고 '매매춘(賣買春)'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을 권한다.

이에 앞서 매매되는 행상에 굳어 '윤(淫)'이란 온유적인 표현을 사용해야 하는지 의문이 생길 수 있다. 음란 '음'자는 음화(淫畫), 외설(猥褻) 등 일반적으로 성을 가리킬 때 널리 사용되는 말이다. 그러나 이러한 용어의 문제는 그것이 일본식 한자어이라는 사실을 문제 삼지 않더라도 성을 고정 틀변의 차별적인 행상으로 간주하는 시각을 담고 있다는 점이다. 왜 성을 음에 이루하게 되었을까? 준성(淫聖), 즉 성욕이란 음에 대 생명이 돌아나올 이러히 순환적이고도 자연적인 현상임을 내포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결국 성욕을 병변적인 또, 고정된 것으로 프장하는 용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고 파는 행위의 대상인 '성'을 왜 생명의 예를 지우는 음에 빗대어 '윤(淫)'으로 표기하는 것은 성매매로부터 발생하는 문제들을 강주게 될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러한 용어 사용의 정치적 의미에 성을에 성이 '매매'보는 '거래'되고 있다는 측면을 부각시키는 점은 의미가 있을 것이다. 매니화면 성매매는 법문화적이고 초역사적인 내용을 담기보다는 시로 다른 역사와 문화의 조건에서 생성되고 변화되어 왔으며 앞으로 변화될 수 있는 산물로 다루어지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 사회에서 성매매가 일어나는 특수한 맥락은 성이 상업화되어 있으며 자본주의 심산업의 메커니즘 속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매춘, 매음 등의 용어는 이런적 행위자 중심의 개념이므로 이러한 메커니즘을 담는 데는 한계가 있다. 매매춘이라는 용어는 기존의 많이 쓰인 매춘에 '성을 사고 파는' 의미보다는 성을 파는 의미, 즉 매춘(賣春)의 의미로 사용될 때가 많다.

'성매매'라는 용어는 이후 매매, 인신매매 등과 같이 '거래'되는 측면을 강조하여 살을 수 있는 용어이다. 만약 우리가 '성매매적'이라고 한다면 누구를 비롯될지 생각해 보라. 여기에는 성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 그리고 이들을 연결하는 중간 매개자, 성산업 등 성이 거래될 이루게 하는 총체적인 맥락이 드러날 것이다.

여러이 필자는 '성매매'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자 권하고 싶다. 두 말이 의미한 강조될 특정한 용어의 사용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을 그대로 반영하며, 그 자체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하나의 실천이기 때문이다.

---

3) 그러나 이 글에서는 '성산업 종사자, 성매매를 하는 여성'의 의미로 '매춘 여성'·'매춘부'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어 사용은 많이 일거한 정치적 의미를 약화시키더라도, '성산업 종사자'가 가지는 너무 포괄적이고,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란 말을 사용하면 의미는 잘 전달되나 어울적이고 너무 길어 가독성도 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새로운 용어가 도래되기 전까지는 어느 정도 보편적이기는 해도 매춘 여성 또는 매춘부라는 용어를 사용해고자 한다. 또한 매춘 여성에 대해서는 많도 성을 사는 '매춘 남성'이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남성 손님'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성매매 공간에서 손님과 종사자간의 권력 관계를 드러내기 위해서이다. 이부는 이러한 차이를 담을 수 있는 대안적인 용어를 함께 고민해 보자.

2) 성매매에 대한 환상 벗기

가. 성매매는 성폭력을 해방한다?

많은 사람들은 성매매가 없어진다면 남성들의 성폭력이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있다. 성매매는 남성들의 넘치는 성욕을 해소하는 장(場)이고 여성의 순결을 보호하는 사회적 기능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성매매는 성적 행동의 한 주변으로만 파악되고, 남성의 성충동을 수용하기 위한 사회적 필요로 다루어진다.

이러한 환상이 문제는 성매매를 단지 생물학적인 욕망 표현만으로 설명하고 성매매의 정치적 - 경제적 맥락을 무시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의 다른 사회적 요구들(예를 들어 살인, 이혜, 폭력의 욕구 등)을 욕구 자체로 인정하는 것과 같이, 성매매에 대한 욕구 역시 생물학적으로 결정된 것이므로 남성의 성적 충족성을 성산업에서 한다는 것이다. 이는 성매매의 사회적 기능만을 강조하여 그 역기능을 간과하는 위험성을 갖고 있다.

남성의 성욕을 자폭과 이분시키고 욕구의 일면적인 문제로 보는 관점에 대해 페이트만(C. Pateman, 1988, 207~208쪽)은 욕망에 대한 인간의 필요는 텍스의 필요와 다르다는 점을 강조한다. 즉 남성적인 예를 들면, 인간은 손이라는 수단으로 성적 욕구를 만족시킬 수 있으므로 성적 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성관계를 가질 필연적인 이유는 없다는 것이다. 즉 성욕의 충족은 문화적 습관에 따른 것이고, 성매매를 통해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사는 것으로 성욕을 분출하는 것은 남성의 사회정적 권력을 실행하는 것이라 주장한다.

"성매매가 성폭력 범죄를 예방한다"는 누구나 믿고 있는 이 신념에 대한 근거는 어느 곳에서도 찾아진 적이 없다. 성매매를 합법화한 국가와 성매매를 엄격히 처벌하는 국가 사이의 성폭력 발생 비율은 어떤 상관성이 있을까? 이러한 통념의 논리에 따르면, 성매매를 억제하는 국가의 성범죄 비율은 성매매가 적은 국가에 비해 당연히 높게 나타나야 할 것이다. 그러나 결론은 그 반대이다. 일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성매매가 만연한 국가의 성매매가 거의 나타나지 않는 국가 중 성매매가 거의 없는 국가에서 성폭력 비율이 오히려 더 낮게 나타났다.

물론 성매매가 성폭력을 예방한다거나 여성을 보호한다고 믿는 것은 성매매와 성폭력이 밀접하는 원인을 모든 채 갖게 되는 환상일 뿐이다. 이러한 환상은 단순한 환상의 차원을 넘어서 더 큰 피해를 일으킨다는 점에서 반드시 비판되어야 한다. 페니화면 성매매는 성폭력을 감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남성들은 성매매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품화된 여성의 몸에 쉽게 접근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 자신의 욕망과 이익을 위해 여성을 예방화하고 여성을 이용도 취급하는 성매매의 경험은 결국 여성을 대상화, 사물화하는 성폭력의 경험과 일치한다. 이은 성폭력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다.(S. Wyatan, 1992, 269쪽) 남성에게 "포르노는 이론이고 강간은 실천"이라는 드워킨, 1989)이라면, 성매매는 돈을 주고 행하는 '연습 강간'이 되는 셈이다.

나. 성산업을 관광 산업으로 육성하는 것은 국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

한국의 기생 관광, 태국의 매춘 관광, 카리비 해에 등 많은 개발 도상 국가들은 경제적 부를 위해 성산업을 육성하였다. 그러나 동남 아시아를 비롯하여 성산업으로 관광 산업을

---

3) 사례 제인들(토마체, 1997, 56~57). 서울 보신역의 사창가 주변에 있는 화장소에서 근무하는 30대 중반 업주의 말이다. 그는 보신역 사창가가 없어지니 한국의 관광 사업에 기여하고 있는 지오 강조하면서 '공로'라는 용어를 써 가면서 특히 일본인에게 관광 홍보가 잘 된 것을 자랑하기도 하였다.

4) 사례 제인들(토마체, 1997, 76쪽).

이렇듯 경제가 호황일 때 손은 공룡의 성산업과 성매매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사회적·경제적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역시 성산업으로의 여성 유입이 증가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은 경제적 폐해의 첫 번째 희생이 남성이며, 피해의 유일 출구는 인체나 여성에의 입법등을 보여 준다. 이는 국가의 위해 여성의 주가 없는 성산업은 남성보다 낮으며 여성은 남성에 비해 거남될 수밖에 없음을 의미한다. 또한 사회의 경제적 주의 정도와 성매매 발생의 상관성이 적다는 것은 경제 논리만으로는 성매매 문제에 접근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결국 성매매가 존재하는 것은 남성이 여성의 몸을 살 수 있다는 때문이기 때문이다.

물론 매춘 여성이 개인적으로는 가정 폭력, 가난, 강간 등으로 돌아갈 가족이 없거나 가출할 수밖에 없는 구조 속에서 자신이 살았던이 살았던이나 경제적 궤멸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갖지 못하고 유입된다는 점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다는 논리는 문제가 있다. 또한 대부분의 매춘 여성은 대안이 없다면 성매매에서 벗어나길 원한다. 그러나 성매매를 경험한 여성은 사회통계 그것들 수 없는 깊이 성매매의 구조이다.

대부분의 매춘 여성들은 가장 사랑, 보주, 업주러들에 의해 사적인 문제나 빚, 폭력으로 묶여서 있는데 특히 포주에 의해 몸매되어 오랜 시간 집적으로 이용되는 매춘 여성은 자포자기의 노예 상태에 빠지게 된다. 더구나 여성이 매춘에서 벗어나기를 원할 때는 폭력과 학대가 따르기 때문에 심산업의 구조 속에서 빠져 나오기 힘든 상황에 놓여 있다.

사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는가 아닌가의 논하는 성매매 피해의 정당성을 평가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다. 예를 들어 노예 노동은 근존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빼앗기 때문에 정당화될 수 없는 것이다. 여기서 노예가 스스로 노예 되기를 결정한다고 하더라고 노예제는 일반의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에 대한 위반이다. 특히 노예 제도가 존재하는 상황에서는 노예 스스로가 인간의 존엄성과 인권에 대해 인식하지 못하는 상황이나 억압적 이데올로기를 내면화했을 경우가 많은데, 행위자의 자발성으로 노예 제도가 유효될 수 없듯이 여성의 자발적인 선택으로 성매매가 유효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자본가와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득을 얻는 것은 매춘 여성이 아닌 자본가와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자발적으로 선택했든지, '업'이라고 여기든지 간에,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체제와 성매매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다.

3. 성매매의 특징과 문제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도 '노동'일 뿐만 아니라 여성은 '직업'이라고 말한다. 생산 중심의 '노동' 개념에서 생각해 보면 성매매는 여성의 다른 노동과 본질적을 갖지보다는 더 많은 유사성을 갖는다. 그러나 성매매가 추상적 개념 차원에서 노동인가 아닌가를 결정하기 전에, "성매매가 노동이라면 어떤 노동인가, 우리는 그러한 노동을 사회적으로 정당한 '노동'으로 이해 할 수 있는가"의 문제로 시각을 돌려야 한다. 예나하면 '노동'이란 개념에는 사회적인 가치에 기반을 둔 '윤리', '직업'의 문제가 결부되어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필도, 사기 등을 사회적인 노동으로 인정할 수 없는 것은 경제적 목적인으로 어떠한 행위를 노동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노예 노동을 정당한 '노동'으로 이러해석할 수 없는 것처럼 매춘 여성의 성노동은 흔히 '노예 노동', '일곱 노예'에 비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가 어떻게 노예 노동과 비슷한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살펴보자.

1) 몸에 대한 지기 통제권의 상실

남성 손님과 매춘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의 일반적인 상황을 관찰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매매는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일정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성매매의 문제에 매춘 여성을 억압의 트릭에 놓이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자.

먼저 성매매는 화대 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 여성은 자신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남성 손님과 관계 문제에 놓이게 된다. 남성 손님은 여성의 선택에서부터 계획, 콘돔 사용 여부 등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매춘 여성은 성행위의 조건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통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춘 여성은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손님 앞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일 스트레 성병이나 에이즈 등 각종 성질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 매춘 여성이 콘돔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화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콘돔 거부로 인해 매춘 여성 가운데 14%만 콘돔 사용을 적극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미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1993, 54쪽). 그러나 남성 손님이 성매매에서 콘돔을 벗어나 거부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내버려두고라도 콘돔 사용 여부를 선택으로 나설 손님이 결정하고 매춘 여성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매춘 여성이 남손의 재량권 '성기'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보호권을 선택으로 남성에게 위임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콘돔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남성 손님은 화대 지불을 빌미로 광폭적인 성폭력나 폭력 따위를 매춘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주나 포주가 매춘 여성의 화대를 지급 문제에는 절두밀소에 들어온 손님에게 화대를 돈 받을 때는 매춘 여성 자신이 포주나 뽀프에게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들어하는 하기 때문에 화대를 받기 위해 손님이 요구하는 많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흔히 매춘 여성에게 '매춘(賣春)'은 단지 신체의 일부인 성기를 손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성매매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노동'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매춘 여성이 자신의 상품화된 성을 분리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자아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들은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을 '손님'으로, 성행위를 손을 받는 '일'로 생각하며 하고, 손님과의 관계에서 배운과 감기 1세를 들어 키스 거부, 삽입적인 체위 거부 등을 만든다. 그러나 성행위를 강제 행위로 취급하려는 매춘 여성은 화대를 받지 못한 '강간' 매춘에 이러한 공기를 적절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들이 '일'로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체한 · 공기의 장식가 허지된다는 것은 육체에 대한 손상, 즉 자아에 대한 폭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매춘 여성 스스로 만드는 이러한 체한이나 공기는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 성매매 공간에서 쉽게 무너지는데, 흔히 남성은 많은 화대로 또는 회장적인 폭력으로 공기나 체한을 쉽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춘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한 후에도 폭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는 신체에 대한 학대에 보상이 이루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성매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

21) Suzanne Kappeler(1995), "The Repercussions of the Condition of Prostitution on Their Physical and Mental Health", Prostitution, 61, Barry, 23쪽 재인용.

22) '화대 지불'이 매매춘과 강간을 구별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주 사회에서도 나타난다. 매춘 여성의 구술사를 보면 이들은 강간을 당한 '손님이 성행위 하게 화대 지불을 거부하거나 돈을 다시 빼앗아 가는 일'으로 정의하고 있다. (Barry, 1995, 36~38쪽)

23)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매춘 여성이 업어들어는 주된은 다른 직종보다 많이 받을수록, 성매매 만족에 도움 많을수록 복지의 당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여성개발원, 1994, 63쪽). 매춘 여성의 수입은 성매매의 유형이나 개인의 특징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나지만 매매춘은 특별한 기술이나 능력을 필요로 하기보다는 남성의 성적 서비스 '제공'을 필요로 하는 점이기 때문에 30여가 넘으면 흔히 '퇴계'하고 돌아본다. 심할 때에는 단 하루도 업어들어는 날이 없다.

매춘 여성의 성노동은 흔히 '노예 노동', '일곱 노예'에 비유될 수 있다. 그렇다면 성매매가 어떻게 노예 노동과 비슷한지를 구체적인 방법을 통해 살펴보자.

1) 몸에 대한 지기 통제권의 상실

남성 손님과 매춘 여성 사이에 이루어지는 성매매 행위의 일반적인 상황을 관찰하게 설명할 수는 없을지라도 성매매는 남성 손님이 여성의 몸을 일정적으로 통할 수 있다는 성매매 특징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이 어떻게 성매매의 문단에서 매춘 여성을 억압의 트릭에 놓이게 되는가를 보도록 하자.

먼저 성매매는 화대 지불을 매개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에 매춘 여성은 자신에게 화대를 지불하는 남성 손님과 관계 문제에 놓이게 된다. 남성 손님은 여성의 선택에서부터 계획, 콘돔 사용 여부 등 성매매 행위 전반에서 '선택권'을 가지고 있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매춘 여성은 성행위의 조건을 자발적으로 선택하지도 통할 뿐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통제권을 상실하게 된다.

예를 들어 매춘 여성은 콘돔 사용을 거부하는 손님 앞이들일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일 스트레 성병이나 에이즈 등 각종 성질환에 무방비하게 노출되고 있다. 매춘 여성이 콘돔 사용 여부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남성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화대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한 조사 연구에 따르면 남성들의 콘돔 거부로 인해 매춘 여성 가운데 14%만 콘돔 사용을 적극 선호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미연세대학교 보건정책 및 관리 연구소, 1993, 54쪽). 그러나 남성 손님이 성매매에서 콘돔을 벗어나 거부하고 있는가의 문제를 내버려두고라도 콘돔 사용 여부를 선택으로 나설 손님이 결정하고 매춘 여성이 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현실은 매춘 여성이 남손의 재량권 '성기'를 부분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대한 보호권을 선택으로 남성에게 위임하게 하는 것임을 보여 준다. 콘돔 사용 여부뿐만 아니라 남성 손님은 화대 지불을 빌미로 광폭적인 성폭력나 폭력 따위를 매춘 여성에게 요구하고 있다. 특히 업주나 포주가 매춘 여성의 화대를 지급 문제에는 절두밀소에 들어온 손님에게 화대를 돈 받을 때는 매춘 여성 자신이 포주나 뽀프에게 문제에서 해방되는 것을 들어하기 때문에 화대를 받기 위해 손님이 요구하는 많은 무엇이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형편이다.

흔히 매춘 여성에게 '매춘(賣春)'은 단지 신체의 일부인 성기를 손님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성매매가 정당화될 수 있는 '노동'으로 이해되기보다는) 매춘 여성이 자신의 상품화된 성을 분리시킴으로써 최소한의 자아를 지키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그들은 성매매에서 남성 손님을 '손님'으로, 성행위를 손을 받는 '일'로 생각하며 하고, 손님과의 관계에서 배운과 감기 1세를 들어 키스 거부, 삽입적인 체위 거부 등을 만든다. 그러나 성행위를 강제 행위로 취급하려는 매춘 여성은 화대를 받지 못한 '강간' 매춘에 이러한 공기를 적절 기회를 박탈당한다.

이들이 '일'로 인식하기 위해 만들어 놓은 체한 · 공기의 장식가 허지된다는 것은 육체에 대한 손상, 즉 자아에 대한 폭손으로 이해될 수 있다. 그러나 사실 매춘 여성 스스로 만드는 이러한 체한이나 공기는 남성이 주도권을 갖는 성매매 공간에서 쉽게 무너지는데, 흔히 남성은 많은 화대로 또는 회장적인 폭력으로 공기나 체한을 쉽 것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매춘 여성들은 성폭력을 당한 후에도 폭력에 대한 대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는데 이는 신체에 대한 학대에 보상이 이루어 정당화될 수 있다는 성매매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2) 익명적 성 : 성매매의 비가시성과 사회적 관계의 단절

남성들이 성매매를 이용하려는 욕구에는 '여성 모두'와 '새로운 여성에 대한 호기심'이 존재하여 있다. 익명적 성을 원하는 남성의 욕구와 관계는 남성들이 성매매를 필요로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 때문에 성매매의 성격과 매춘 여성의 삶의 동향을 구성한다. 남성이 돈을 지불하고 성을 사는 이유는 익명의 상대로 지배가 가능하기 때문인데 바로 그 익명성 때문에 성매매는 공적의 성격로 존존·유지된다. 따라서 성매매가 법적으로 양성화된다고 하더라도 성매매 피해의 공적의 성격으로 인해 법적 규제가 이질 수 없는 영역은 각적 제한될 수밖에 없다.

남성의 새로운 여성에 대한 욕구는 구매력을 바꾸려는 원동력인데 이러한 원칙은 매춘 여성의 모든 이동을 통일한다. 특히 제한된 지역에서 집일한 남성 손님을 대상으로 영업하는 윤락업소의 경우 업주는 남성의 익명성과 새로움에의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여성을 잘 입업이 교체해야 하는 것이다.

매춘 여성은 법제 업태적으로 그들이 유지해 왔던 사회적 관계나 문제점으로부터 분리·고립되어 주변화된다. 이러한 분리는 성매매의 익명성과 매춘 여성의 많은 이동에 투자를 두고 있다.

성산업의 업주가 남성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것은 매춘 여성에게 가해지는 폭력이나 문제들이 사회적으로 드러나지 않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 익명의 공간에서 남성이 사회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진 만큼 그 안에 있는 여성은 모든 사회적 보호로부터 배제된다. 또한 성매매의 경험은 가족과 사회로부터 자신을 분리시키게 한다.

그들이 유지해 온 정체성에서의 분리는 성매매 배제의 결론 원형이 되기도 하는데, 매춘 여성 개인도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낙인을 의식하고 자신이 익명으로 일탈일의 공간에 존재하기를 원한다. 매춘 여성은 성매매를 하는 동안에는 거주지나 업소 등 자신의 정체성이 사회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혼자 외로 보험이나 의 신분이 드러날 수 있는 사회적 서비스를 거부하고, 익명적 공간인 성매매의 배제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한다.

그들은 업주나 일반적들이 만들어 주는 가짜 신분증이나 보조증을 사용하고 가명을 사

동원의 도구에 의해 유흥을 즐기는 존재로 가면을 쓰면서 자신을 성적 상품화와 분리시킨다. 이러한 분리의 과정으로 인해 성매매 종사에는 성적 대상물로서 가장된 여성의 정체성 안에 존재할 뿐이다. 특히 여성이 가족 관계에서 고립되어 있는 조건은 이렇게 폭력에 무방비하는 것으로 성산업의 착취자들에게 주요한 이유가 된다. 예를 여성의 대부분은 자신들이 받는 무상한 학업이나 폭력을 거부할 수 없을 것으로 올라올 없는 가족 출신이거나, 폭력적인 환경 속에 우리에게로 노출되어 온 여성들이다[10] 이뿐이나 남편의 폭력, 근친 강간, 성폭력의 경험 등 여성을 가정 밖으로 내모는 상황들은 여성이 성매매 종사를 억압적 '노예적'으로 이용하게 되는 동기가 된다. 예를 여성들의 많은 사례에서 드러나듯이 가출과 같은 상황은 여성이 성산업으로 유입되는 중요한 동기가 되고 있다.[11]

한편 유입 여성의 경험들은 성산자들에 대해 편입감을 가지는 이유가 되고 예를 여성에 대한 통제, 착취를 가중시키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 업주는 남성 손님의 적법성을 보장하고 자신의 통제를 쉽게 하기 위해 예를 여성들의 보호막이 될 수 있는 친밀한 관계, 사회적 관계로부터 그들을 '고립화, 원자화'하는 전략을 취한다. 사회적 관계나 친밀한 관계로부터 차단되고 고립된 예를 여성은 쉽게 폭력이나 착취의 대상이 되지만 성매매의 억압적 특성 때문에 모든 사회적 관심의 영역 밖으로 밀려나게 된다.

결국 성매매의 '억압적 공간'으로서의 특징은 '존재하는' 성매매를 사회적으로 보이지 않게 하고 여성을 사회적 관계로부터 차단, 고립시켜 여성들에 대한 손님과 포주의 통제, 착취를 더욱 쉽게 하는 전제가 되고 있다. 사회적 관계로부터 분리된 억압적 공간에서 '억압'으로 존재하는 예를 여성은 자신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따라서 정체성으로부터 단절된 여성들은 시간성을 갖지 못한 무력한 존재가 되어 남성의 업무에게 희준하게 되는 것이다.

3) 성산업의 억어 사슬 : 성매매의 성산업

현재 우리 사회의 성매매는 유흥업소나 방인 업체 등의 성산업을 매개로 하지 않는 것부가 드문데 이는 예를 여성이 남성 손님과 일 대 일의 관계로 계약을 맺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여성은 포주업주의 용업통, 나이트클럽 등의 유흥업소, 남성 손님과 각 업소에 여성을 알선하는 직업 소개소나 보도 사무소 등에 고용된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이들 업소에서 예를 여성이 생활하는 형태는 나이와 외모, 키모, 경제성 등에 따라 업주 형식에서, 유사하는 여성, 출퇴근하는 여성, 일시적인 서프라이즈하기 다양하다. 여성이 이들 업소에서 인신매매나 감금에 의해 강제적으로 존재하는 경우 형제적 착취는 극도로 심화에 나타난다. 그러나 예를 여성 개인에게 그 동기가 자발적이든, 강압에 의한 것이든, 성산업은 여성을 성적 · 경제적으로 착취하고 성산업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없도록 그들의 삶을 옭아매는 구조를 갖는다는 점에선 공통적인 성격을 갖는다.

---

10) 예를 여성 대부분이(90.8%) 가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데(박은정, 1994, 63쪽) 이러한 경험은 성산업의 착취 구조를 유지하기 위한 토대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영업 활동자 '가'의 조사에 따르면 성산업에 유입되기 전에 강간을 경험한 예를 여성 가운데 80% 이상이 강간 강간을 경험한 것으로 밝혀졌다.

11) 한국보호여성선업협회 조사에 따르면, 예를 여성의 가출 동기 중 30%가 돈을 벌기 위해서였고, 남자 친구로부터 손을 당겼거나 근친 강간 또는 강간이 24%에 이르렀으며, 가정 불화는 20%로 나타났다(김기원, 1996, 10쪽) 이와 같이 가출한 여성의 많은 경험을 이용하여 이들을 유혹하는 성산업의 광고 문구 가운데 하나인 '속지 마공'은 여전히 광고한 역사가 되고 있다.

형식적으로 볼 때 업주와 예를 여성 사이에서 맺어지는 계약은 상당히 높은 금액을 상정하고 있고 매도 형태적인 고용 관계처럼 보인다. 그러나 내부를 들여다보면 예를 여성들은 돈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놓여 있거나 빚을 지고 있는 현실을 알 수 있다. 예를 여성에 대한 성폭력 피해는 화대에 대한 지불방인 피해나 업소에서 부과하는 벌금,[12] 시설 사용에 따른 비용 등 여러가지인 착취 형식을 갖는다. 또한 업주와 알선 업자가 예를 여성에 대한 통제와 착취를 통한 빚에 의는 것은 빚과 그에 따르는 이자이다. 예를 여성들이 빚을 지는 첫 번째 이유는 가출 등으로 인해 최준을 마련하기 위해서이고, 많은 이들까도 관련된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보보다도 포주나 업주 등이 이들에게 쉽게 빚지게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예를 여성들에게 빚을 만드는 것은 여러한 구속을 프레임하기도 하지만, 상당한 돈을 번 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이익도 이용되고 있다. 대부분의 예를 여성은 업체준이 이유로 가장 큰 원인을 빚 때문이라고 대답했는데, 많이는 예를 여성의 빚으로써 이른 문이하기보다는 업주가 예를 여성을 효율적으로 묶어 두기 위한 장으로 상징일을 알 수 있다.[13]

(그 유명 존 쿵 포함이요?)

은글 포이? 윤문이 하나 새로 나서 있으면 다행이냥? 저건 온 쿵 포이. 포글 수가 없어. 일단 그 쿵에 올라가면 빚을 지게 되거든. 쿵 다른 애들이 하기 싫어 한 푼문이야. 쿵 세, 자궁, 쿵.... 내 말이지 애들 이후 윤락하지. 쿵에 들어 있어 윤문의 대장 문이니 주인이 애일 바라 다니는 거지. 그러니 누가 주인문에 바라 바치면, 쿵이 좋지 않으면 다행이지.[14]

빚은 여성을 저렴적으로 성산업 종간에 묶어 두도록 강제하는 중요한 장치일 뿐 아니라, 업주관이 인신 매매 같은 폭력적이고 가능해게 하고 있다. 한 소개업자의 말을 들어보자.

사진 공주가 없을이, 별별이 '분기'라는 이야기였는데, 노골적 빠진 거야. 노골적 빠지니면 처근해서 다방에도 팔 곳 나가고, 팔을 곳 나가니까 고스란히 빚이 되는 거지. 노골빚에, 다방 주인에게 빚지 준 곳 있지, 쿵 이니까지 소개소에도 빚이 있지.... 예시 300만원 쿵 도 팔을 곳 거야. 그런데 도망을 간 거야. 애들을 풀어서 찾게 했지. 돈 달란게 문제야. 찾아

---

12) 예를 들어 외출 다방의 경우, 여성과 다방 업주는 보통 한 달 단위로 계약을 맺는다. 이 기간 동안 여성이 하루 평균할 경우 15-20만 원을 들어내야 한다. 업주와 계약한 월급은 100만원에서 180만 원이지만, 정말한 사장이라도 12시간(오전 8시-오후 12시)의 노동을 30일 동안 하기는 힘들다. 몸이 아프거나 이용을, 목욕탕을 가야 하는 등 개인적인 시간을 내야만 대가를 지불해 하고, 노동 시간이 많이 예를에 대부분이 3-4일은 대가를 지르고 온다.(문미혜, 1997, 42쪽)

13) 한 업장 활동가(34) 지역에서 3년 동안 예를 여성을 위해 일해 온 30대 중반의 여성이 '다'에 따르면, 업이 많은 여성은 다른 예를 여성과 서로 '언제 보준'을 해야 하는데, 만약 한 여성이 일이 힘들어 도망을 치게 되면 언제 보준을 산 여성이 이를 책임져야 한다고 한다. 그리고 도망업자가 업체은 업주는 묻는 게 는 이유으로 보통 하루당 10만 원 이상의 벌금 부과한다고 한다.

14) 30대 중반의 여성으로 가난 예문에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남의 집에서 아무살이를 하다가 강간을 당한 뒤 가출하여 포업의 권식, 사업가, 운동 업소를 거치면서 에이즈에 감염되었다. 이제 재단동(문미혜, 1997, 46쪽)

우도 주변의 폭력 조직이나 업주로부터 받기 때문에 막을, 아무 증독은 예를 여성을 조직적으로 통제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기도 한다. 예를 여성이 일단 술집업 작업이나 노동, 술, 마약 등에 빠지면 정체적 독립이나 이외에 대해 이유 무력하게 되어 자포자기 상태가 되고 무절제한 남자에 빠지는 경우다.

성산업의 여가시적인 특징 구조 때문에 예를 여성은 가시적으로 머는 문에 비해 적게 하는 돈의 여주이 고라는 사실에 문감해지면서 오히려 쉽게 빚에준이 가능하다고 인식하게 된다. 특히 성산업 주변의 먹이사슬은 예를 여성을 '머도'에 대한 무서나 외에 문화에 쉽게 물이들게 하여 정체적 '자발'을 불가능하게 하고, 성산업에 심들어지게 함으로써 마치 '무력한 존재'로 만들고 있다. 결국 성산업은 여성의 육업 동기(자발적/비자발적 선택)와는 별개로 예를 여성을 '건을 벌 수 없는' 구조 속에 몰아넣음으로써 유지되고 있는 것이다.

심지 많은 예를 여성들이 그 생활을 머나지 못하는 것이 '빚 때문'이라고 이적하고 있으나 업적으로는 '돌업 원인으로 인한 최준 부족'이므로 예를 여성은 포주에게 큰 빚을 갚은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예를 여성들이 그들에게 빚을 갚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빚의 시작이 무서나 여행의 두려움도 있으지만 많은 경우 포주나 중간 매개자와 복짜 또는 업소로 시작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인간적 관계는 예를 여성이 착취를 인식하지 못하게 하는 비가시적인 기제로 이용된다. 예를 여성에 대한 정체적 착취는 화대에 대한 문제와 별도, 빚과 이자 등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예를 여성에게 지우는 빚과 이자는 정체적 착취의 수단일 뿐 아니라 인신 구속과 예매를 가능하게 하는 중요한 기제가 되고 있다.

한편 성산업 주변에 형성된 먹이사슬은 예를 여성이 성산업에 이용되는 문제 이외에도 성산업을 유지, 보호하고 예를 여성의 일예준을 방해하는 데 공통의 이해 문제를 갖고 있다. 이러한 착취 구조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착취자들이 가족이나 사회적 관계로부터 단절된 예를 여성의 상태를 이용하여 단절된 관계 또는 예방 문제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4. 성매매 관계의 정치학

이상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예를 여성은 몸을 주고 받아내도 사용될 수 있는 성적 존재로 취급되고 있다. 그러나 그 이유는 예를 여성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전체 '여성'의 정체성을 구성하는 중요한 기제로 작용하고 있다. 그렇다면 먼저 여성이 성적 존재로 취급되는 것이 어떠한 의미와 문제를 갖고 있는지를 살펴보자.

여성이 남성의 성적 대상으로 취급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예에서 뚜렷이 된다. 먼저 우리 사회에서 남성의 성과 여성의 성에 대한 생각는 서로 다르다. 일단 남성은 성욕의 '대상'이나 성적 '존재로 규정되지 않는다. 남성의 정체성은 사회에서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 우월되지 않게적 기능에 따라 결정되지 않는다. 남성들은 제일적으로나 심리적으로 대상화된 욕복로 인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정책이나 성적 욕망은 오히려 '당연시되거나 중요한다. 이와 대조적 남성은 커뮤적인 역할에 제한받다고 인식된다.

반면에 여성은 하고 있는 일이나 업적에 따라 평가되기에 앞서 신체적 기능에 따라 '여성'으로 분류된다. 여기서 '여성'이란 남성에 의해 정의되고 위독, 소유될 수 있는 존재이다. 이러한 이중 규범의 사회에서 여성이 성적 대상이 된다는 것은 남성과는 다른 의미를 가질 수밖에 없다. 남성의 성교는 '여자는다', '갖는다' 같은 표현에서 볼 수 있듯이 여성을

---

15) 20대 후반의 여성으로, 가정 불화로 고등학교 때 가출하여 업기도 지역의 유흥 업소, 미성 다방에서 일을 하다가 현재 이들 업소에 여성을 알선해 주는 직업 소개소에서 일하고 있다. 이화 재인용(문미혜, 1997, 45쪽).

16) 예매춘에 종사한 기간이 1년 미만인 집단에서는 18.7%가 빚을 지고 있는 반면, 1년~3년인 집단은 27.1%, 5년 이상 된 집단에서는 37.5%가 빚을 지고 있었다. (박정은, 1994, 63쪽)

17) 예를 여성의 성관념 중독성 약물 사용은 예후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환각 약물을 일으키는 본래 카탈렉, 펜트론, 코카인, 데카트, 콘드, 러스 등에 의한 습관적 중독의 이들은 예매춘에 종사한 지 오래될수록 사용률과 남용률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박정은, 1994, 64쪽). 이주적 경우, 포주에 의한 협박나 폭력가 없고 남성 손님의 동에로부터도 비교적 자유스러운 것으로 보이는 거리의 예춘(street prostitution)여성들의 경우, 화대는 그날의 손님인 끝으로 결정되기도 해서 아직 거래당에 이를 본질하는 주변의 폭력 조직에 의해 통제되고 있는 형실이다(Miller, 1995, 427~452쪽).

생산하고 소유하고 집행하는 행위이다. 이렇듯 남성에 의한 성교가 여성을 지배하는 형식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남성과 성교는 여성 존재에 대한 침해로 읽힐 수 있다.

거리(Ann Garry)의 비판적인 남성들은 성을 '여성을 침해하는 행위'로 인식하고 있다. 여기서 여성적 역할은 해를 입는 대상으로 상정되기 때문에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 대하는 것은 인간 이하로 대하는 것이 된다. 이것이 여성의 성은 남성과는 달리 '지배당함', '자기 욕의'의 욕구를 가지고 있으며 남성의 성적 욕구에 지배되는 대상이 됨으로써 자신을 상실한다는 맹간 신화의 논리이다. 그러한 신화 속에서 공식적으로 거부이 당연을 대신 당하는 존재가 '착한 여성'인 셈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매춘 여성의 존재는 아무런 인격적 의미를 갖지 않는, 그야말로 존재 그 자체가 남성을 위한 '성적 대상'인 셈이다. 안드레아 드워킨은 남성들이 필요로 하는 매춘 여성의 존재를 '순는 질구멍'에 비유하기도 했다. 남성들은 자로의 자아 소멸적 만족을 위해 일단 공간과 상대에를 통해 여성의 육체를 사용한다. 여기서 여성들의 존재는 남성성을 위한 도구일 뿐, 그 이상의 아무 것도 아니다.

여느 문예이나 매춘 여성은 그렇게 희생되고 그렇게 타락하기를 원하는 남성들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해 존재한다. 매춘 여성은 무엇을 '하는 것'에 의해서가 아니라 '존재한다'는 자체로 비인격적인 존재로 취급된다. 우리 중 누가 또는 어떠한 집단이 우리를 아무 것도 아닌 인간으로 취급하는 것을 상상해 보라. 어리분이 자리에서 상주행을 당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너무도 당연하다는 듯 그냥 스쳐간다고 생각해 보라. 매춘 여성들에게 이것은 매일 반복되는 일상적인 삶의 형태이다.

상대에가 말로만 같은 여성의 운명, 도덕적으로 타락되면 성과 같은 사회적 존중에 의해서가 아니다. 당연함에서 매춘 여성들이 생계적으로 희생되거나 사회적인 낙인이 찍히기 때문만도 아니다. 더욱 근본적인 문제는 상대에가 여성이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가부장제의 신념들을 생산하고 있다는 사실에 있다. 예를 들어 레스비언 문제는 매춘 여성과 마찬가지로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지만 그 이유가 남성에 의한 여성의 종속을 유지시키기 위해 존재하기는 않는다. 현재와 같이 정착한 매춘 여성의 지위는 지배이 될 공포를 상실한 집단에게 얻어지는 남순한 낙인이 아니다. 그녀의 지위는 철저 지향으로 남성의 특권을 용인하고 여성의 사회적 종속을 정당화하는 데 기여하는 가부장제의 신념에 기반을 둔 것이다.

돈을 얻기 위해 남성들이 원하는 대로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여성들은 결국 남성에게 종속되어 성적 상품으로 대해지기 때문에 남성보다 열등한 지위를 감수할 수밖에 없다. 여기서 매춘 여성의 시민권을 보장하는 문제와 여성 비하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의 지위는 별개의 도대 위해 동반 문제라 할 수 없다. 남성의 권력 관계 속에 상대에가 존재하는 한, 매춘 여성의 열악한 지위는 여성이 공공의 성적 대상이 될 때의 필연적인 결과물인 셈이며 매춘 여성에 대한 성희롱, 강간, 살인, 폭력, 인신 구속적 에에는 여성이 성적 대상화하는 먼저선상에 존재한다.

남성들은 생물학적 본능을 강조하면서 여성의 몸을 시 삼아, 남성들은 결코 매춘부의 한 사람의 몸을 사는 행위로도 그 욕구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았다. 몸을 사는 것, 그 행위에는 단순히 생물학적인 문제로 해명될 수 없는 다른 근본적인 '인격'의 문제가 내포되어 있다. 그렇다면 남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성매매가 남성 지배의 사회에서 당당하는 역할은 사회의 성차억을 확립한다는 것이다(안드레아 드워킨, 1993). 성매매를 통해 모든 여성들은 용인되는 희생되는 경험을 한다. 그

에 대한 단속과 처벌이 이전에 비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현실에서는 여전히 '여성' 에게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19) 1994년 국가의 공식 집계에 따르면 기지촌 및 성매매 업종 지역의 수는 56지역, 여기에 있는 여성들의 수는 5622명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여성특별위원회, 1994).

고 모든 남성들은 그 죄에 서 있다. 성매매는 남성이 지배적인 권력의 정통을 이어 나가려는 수단이다. 이 사회에서 모든 남성들은 그 남성이 실제로 매춘을 하든 안 하든 '여성들이 매춘을 한다'는 사실 그 자체로도 이익을 본다.

성매매는 단순히 사회의 '일탈적 행위'가 아니라 사회적 · 경제적으로 여성을 주변화하는 가부장적 신념과 가치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는, 매 조직적 사회적 행위이다. 매춘 여성은 성매매를 통해 막간의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여성이 이러한 개인적 이유와 의도에서 성매매를 선택하든지간에 성매매를 하는 모든 결국 지배적인 가부장적 논리에 편승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여성을 위한 여성으로 성매매를 용호하려는 논리는 남성에 의해 강요되어 온 이미지를 필요로써 여성이 다른 방식에서 생계비를 벌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는 것에 불과하다.

남성에게 공공의 성적 대상으로 존재하는 매춘 여성은 '여성'의 주변화 된 정체성을 구성하는 데 중요한 업에이다. 여성의 정체성을 '성에화 된 육체'로 규정하는 가부장적 권력은 성매매를 통해 여성을 생물학적 존재로 환원시킨다. 이로써 여성을 사회적 권력과 의사로부터 배제하고 주변화함으로써 이를 보는 여성에게 보편화시킨다. 여성이 성적 존재로 규정되는 사회에서 여성은 개별 존재가 아닌, 남성과는 구별된 단일한 별동과 집단으로서 '여성'이 된다. 여성이 남성의 성적 존재로 대상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여성은 자유로울 수 없으며, 성매매의 존재는 이러한 가부장적 신념을 확립하고 영속화하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맥락에 놓여 있는 성매매는 여성에게 해만적 노동이 될 수 있거나 합법화적 재구성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5. 성매매에 대한 개혁과 고집 변화기

법이란 객관적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와 윤리에 기초를 두고 있다. 법이란 생활을 같은 것이 아니라 인간들간의 관계를 조직이 구축될 수 있도록 하는 제재관이다(Watanabe Tatsuki, 1993). 성매매에 관련된 법률도 사회적 가치에 규범을 의거하고 지속시킨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세계적으로 성매매에 대한 국가의 정책은 성매매 허용을 하는 허법주의(penalization), 성매매를 합법화하여 국가가 이를 규제하는 규제주의(regulation), 인신 매매나 강간 목적 구조는 처벌하되 성매매 자체에 대한 처벌이나 규제는 완화하거나 없애는 폐지주의(abolition)등으로 구분된다.

우리 사회에서는 일제 시대의 공창이 폐지되고 1961년 '윤락 행위 등 방지법'을 제정하여 포괄적 성매매에 대한 금지 조치가 취해졌다. 1982년 8월에 성매매 행위의 성매매를 목적으로 하는 인신 매매에 머프는 하이어 인간의 존엄성의 가치에 부합하지 않으며 개인과 가정, 공동 사회의 복지를 위태롭게 하는 것으로 규정한 '인신 매매 금지 및 피인의 성매매 행위에 관한 특별 법령'이 시행되었다(한국여성개발원, 1990, 90쪽). 그러나 이 법이 폐정된 이래로 1989년 4월이 되어서야 처에 이탈스에서 성매매를 요구한 남자 손님 두 명이 입건되었을 뿐이다(『동아일보』, 1989년 8월 26일자).

성매매를 합법화한 후, 매춘 여성은 단속과 처벌의 대상이었고, 합법적인 화생장이 되었던 특히 여성들은 성도 모르, 사회 복귀하는 경우에에 10개월 이상 형무한 보호소에 강

---

20) 1961년 제정법은 성을 팔고 산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양벌 규정'을 명시했고 남성 손님

서 위협 수 있는 대안은 사무 없다. 일본군은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에서 여성들이 성매매를 통해 생존해서 보기 때문이다. 장미인의 노래 속에서 어떠한 질문에 이르더라도 여성의 '인권'에 대한 논의가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 배후하는 여전히 '여성' 자신일 뿐이다.

성매매에 대한 공세주의적 정향이 대두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성매매 행위 자체의 문제, 혹은 논쟁에 대한 심층보다는 성매매에 대한 근본적인 관점과 규범을 만들어 내는 것 속 성매매가 왜 인간의 존엄에 양립될 수 없는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가장 의미 있는 작업이 될 것이다.

6. 맺는 말

성매매는 여성의 문제라기보다는 남성에 관한 문제이다. 그러나 여성들의 입장에서 성매매의 문제를 가시화하지 않는 한, 언제나 그래왔듯 '보이지 않는 문제'로 남아 있을 것이다. 보이지 않는 성매매 공간에서 매춘 여성들은 어디로도 갈 수 없고 어딘가 가서 말을 수도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그 여성들을 피해자로서 옹호해야 할 것은 '법과 특별'이지 그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도 법과 특별이다. 그러나 법을 방관할 대안이나 도움을 구할 곳도, 그에 대한 정보도 없지 않은다. 이제껏 그들은 사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복제의 대안의 가능성을 실현 기회를 한 번도 가져 보지 못한 여성일 수 있다.

한 발짝 물러가는 매춘 여성은 사회의 소외 계층이 아니라 단일 계층이라고 지적한다. 집지하게 등재된 그들 대부에 특별이 남루하고 성매매의 비가시성 속에서 행사하는 특별은 매춘 여성과 여성들에게 그대로 행사되고 있다. 그 여성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동시대 여성들의 삶의 방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적절 눈으로 보고 느끼는 것은 중요하다. 그것은 동시대인으로서 갖는 의무적인 또는 호기심에 동하한 문성 때문이 아니라 매춘 여성의 삶의 조건이 '나'를 '여성으로 분류하는 인식에 핵심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들의 대부분은 매춘 공간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히 남편이 지적하는 그것이 타인에게 위협이 되지 않듯이 성매매 공간 또한 그러하다. 특히 남편이 하기 이내에 대한 특별을 이유 없이 타인에게 행사하기 않듯이 지나가는 사람에게 특별을 지행하진 않는다. 그리고 이러한 통제와 특별이 사회나 의외로 '이해 관계'로 행사되는 것이 일 일요 여성들의 오우, 특별에의 관계는 일 빠져든 사적인 동해 관계로 인식되고 있다. 또한 사장자의 입구에는 여성들이 지역의 주위성이랑 촉술소가 세워져 있고 일 구조화된 조직 특별체들에 의해 통제되고 있다.

성매매는 본질적으로 여성의 육체에 대한 학대이다. 그러한 측면에서 안드레아 드워킨의 말은 우리 여성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우리일 자신의 몸에 대해 생각하기를 촉구한다. 우리들의 몸이 그러한 방식으로 이용되어 폭력에서 번져, 반복될 때의 느낌을 느끼기를 촉구한다. 그것이 성매매의 실체이다"(안드레아 드워킨, [1983]. 성매매를 이야기할 때 일이 일어서 될 한 가지 사실은 성매매는 성산업의 새로가로 남성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이며 여기서 이익을 얻는 것은 매춘 여성이 아닌 새로가의 남성이라는 사실이다. 여성들이 성매매를 피해적으로 선택했든지 우리가 그것을 어떤 종류의 '일'로서 간주하든지 간에 성매매는 이를 필요로 하는 남성 손님과 업주, 그리고 이를 구조화하는 가부장제의 억압에서 벗어날 수 없는 여성들이 존재하는 한 계속될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 모든 문 일을 명심한다. 왕소한 모든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서나 희귀가 아니라 문제를 최소화할 심층한 태도와 준비,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는 용기이다.

여성의 인권을 좀 먹는 성매매, 그 가부장제의 비생명이가 우리의 몸 속에 누적되어 숨통을 막게 될지, 우리 인식의 구석구석을 점령하는 일부의 시각에서 본다. 성매매 반대는 인권을 향한 동일들이며 그 과제가 될이다. 여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가 자각 한 자리에서 풀어 가야 할 과제이다.

나는 여러분이 여성의 문제에 대한 문제당기의 동일들으로 주변의 사람기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3~4명 정도가 한 조가 되면 좋다. 지나가는 남성들의 모습이 소매, 동생, 여인, 아버지처럼 일어나 우리에게 친숙한지를, 성매매가 남성들에게 멀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인지를 느껴 보자. 성매매라는 특정한 성행위를 문제 삼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존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성과 매춘 여성의 성은 최가 다른지, 성매매가 더 이상 별도의 공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슴에 안아 보자.

전국 성매매피해여성의 실태 및 대안연구 1)

김현선(새움터 대표)

I. 연구의 중요성

최근 들어 우리사회에 성매매(prostitution)의 심각성을 제기하는 시민들이 많아져 발생하였다.

2000년 9월 23일 군산시 대명동의 한 성매매업소에 발생한 화재로 감금되어 있던 업주의 여성들이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망했다. 2002년 2월 14일에는 부산의 윤철동의 성매매업소에서 화재가 발생해 감금되어 있던 여성 4명이 사망하였고, 2002년 1월 20일에는 군산의 개복동의 성매매업소의 화재로 역시 감금되어 있던 여성 14명이 사망하였다. 이 화재사건들의 희생자들은 업소에 감금되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인신매매와 성매매강요, 폭행, 학원 등에 시달려 왔다는 것이 경찰수사결과 밝혀졌다.

이렇게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심각한 인권침해실태가 언론의 보도되고, 2002년 7월 12일에는 미국무성이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한국을 인신매매(trafficking)국가로 규정한 것이 우리 사회에 일파만파로, 성매매를 방지하고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는 대책마련이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었다. 그리고 해결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들은 한국사회에서는 성매매는 '드러내놓고 이야기 할 수 없는 문제로서 비가시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적인 논의는 이전에는 거의 찾아 볼 수 없는 일이었다.

성매매에 관련한 최근의 논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어진다. 그 하나는 한국여성단체연합에 매매춘근절을위한 본소의회, 새움터 등의 여성단체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이 단체들은 '성매매는 여성에 대한 폭력이며 인권침해이고 규정하고 성매매방지특별법제정의 필요성을 주장하였다2) 이에 대한 근거로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피해경험을 제시했다. 그 대표적인 예가 군산대명동화재참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서 드러난 피해여성들의 현실이었다3)

포주는 건물을 두 사람이 지켜 누설 수 없는 폭행으로 나누어 놓고, 모든 창문에 두꺼운 쇠창살을 설치하고, 창문은 못으로 박아 열지 못하도록 봉쇄하고, 출입문은 안에서는 열 수 없고 밖에서만 문을 열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설치해 놓고, 감금한 여성들에게 하루에 적게는 4-5명, 많게는 20명 이상의 남자를 상대로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하고, 화대를 전부 기로해서 착취하였다. 포주가 시키는 대로하지 않는 여성들은 폭행을 당했고, 도망갔다가 잡혀온 여성들은 심지적으로 인신매매 시켰다. 병원에 가거나 특특방에 갈 때에도 항상 감시인이 따라다녔다.

성매매에 대한 다른 견해는 일부 행정관료 및 경찰공무원, 학자 등에 의해 제시되었다. 이들은 주로 인권을 통해 '성매매는 직업이라고 규정하여 공창제를 주장하였다. 공창제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유는 다양하다. '누구의 없이나 일일국민 의무 노동이들 중 성욕을 못 참는 남자들 때문에 윤리가는 필요하다고 말하면서 사회적 필요악으로서의 공창제만의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사실을 바꿀 수는 없다는 것이다.

우리가 어떠한 행위가 일어나는 맥락을 파악하고 이해하게 될 때 그 모든 문 일을 명심한다. 왕소한 모든 어떠한 문제도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로서나 희귀가 아니라 문제를 최소화할 심층한 태도와 준비, 그리고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그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갖는 용기이다.

여성의 인권을 좀 먹는 성매매, 그 가부장제의 비생명이가 우리의 몸 속에 누적되어 숨통을 막게 될지, 우리 인식의 구석구석을 점령하는 일부의 시각에서 본다. 성매매 반대는 인권을 향한 동일들이며 그 과제가 될이다. 여는 여성이나 남성 모두가 자각 한 자리에서 풀어 가야 할 과제이다.

나는 여러분이 여성의 문제에 대한 문제당기의 동일들으로 주변의 사람기를 방문할 것을 권한다. 3~4명 정도가 한 조가 되면 좋다. 지나가는 남성들의 모습이 소매, 동생, 여인, 아버지처럼 일어나 우리에게 친숙한지를, 성매매가 남성들에게 멀어나 아무렇지도 않게 일어나는 일상적인 일인지를 느껴 보자. 성매매라는 특정한 성행위를 문제 삼기 전에 우리 자신이 어떤 사회 속에 살고 있는지, 우리가 어떻게 존급될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들 자신의 성과 매춘 여성의 성은 최가 다른지, 성매매가 더 이상 별도의 공포의 문제가 아닌 우리 자신의 문제라는 사실을 가슴에 안아 보자.

서의 공창제만의 필요성을 주장하기도 하고, 공창제의 폐업 큰 목적을 '여성인권의 증대를 꾀해 윤락녀들을 보호해주며, 공창이 아닌 지하에서는 모든 마음껏, 주부, 학생들의 매춘을 확산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공창제는 성매매를 직업으로 인정하게 됨으로써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공제협회로 성매매를 허법화하려는 것으로서 일부 유럽국가의 제제를 받아들여 도시의 특정지역으로 성매매를 제한하는 구획화를 실시하고, 성매매여성들의 보건행위를 허법하는 대신 특정지역으로 제한하여 허용하려는 의견이다.[4]

그러나 최근에 조사결과에 의하면 성매매피해여성들은 포주의 공창제도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5]. 이 조사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연구자로 참여하여 30명의 응답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것으로서 응답자들의 90.7%가 공창제를 반대하고 있었다. 응답자들은 성매매가 허용되는 지역에서 포주의 인권착취가 줄어들기는커녕 여성들은 더 심각한 성매매의 폭력, 착취에 시달릴 것이라고 말했고, 국가가 특정 특정지역을 만들고 관리함으로써 성매매를 조직적으로 관리할 수는 없을 수 없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남아프리카공화국의 해국, 아이티, 미국, 캐나다의 420명의 성매매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응답자들의 70%가 합법화를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 그 이유로서 응답자들은 성매매의 합법화가 성매매에서 폭력을 감소시킬 것을 믿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이러한 주장은 성매매는 직업이 아니며, 폭력지역이라고 하더라도 허용되거나 직업화할 수 없는 사회 통념이 아님을 제시한다.

위의 논의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성매매의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의 경험을 밝혀내는 작업이 필수적이다. 우리사회는 그동안 무시되거나 비본질적인, 성매매피해여성들은 구타나 강간, 감금, 인신매매 등 심각한 폭력에 시달려 왔다. 본 연구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겪는 폭력의 심각성을 밝혀내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을 규명하고자 한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매매피해여성들이 경험한 폭력을 조사방으로써 성매매에서 폭력은 본질적인 요소이며, 그 특성상 심각적 피상을 내재하고 있다는 것을 밝힌다.

둘째,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외상후 스트레스장애의 심각성을 조사함으로써, 성매매의 결과로서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신체의 영신에 남기는 상처를 드러내고,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을 드러낸다.

셋째, 성매매에서 벗어나기 위하여 피해자들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조사한다.

II. 연구방법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면접조사는 2003년 1월에서 2003년 5월 사이에 새움터[7]의 현장지원서비스와 피해신고, 문화상담, 면접상담 등의 프로그램에 참여한 300여명의 성매매피해여성들 중에서, 마지막 성매매업소의 경험이 1년을 넘지 않는 여성들로서 비임적으로 조사에 응한 여성 100명을 조사하였다.

---

1) 본 글은 이승희 두 가지 연구를 정리한 것이다. 새움터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성매매피해여성의 본격적인 성매매 실태 분석(김현선 외(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피해여성의 회상된 스트레스장애, 성문화대학교 석사학위) 및 경기도의 지원으로 이루어진 경기도지역 성매매실태에 관한 연구(새움터(2003), 경기도 지역 성매매 실태조사 및 정책방안 연구)이다.

2) 한국여성단체연합(2001), 성매매방지입법제정을 위한 토론회자료집, 한국여성단체연합, 10쪽.
3) 새움터(2002), 대명동사건 국가배상청구소송 종합분석자료, 5-6쪽.

4) Graves, L. & Fenichel, G.E.(1997), Sex morality and the law, Routledge, 130쪽.
5) 김현선, 김현선, 정신옥(2003), 성매매방지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제입포지업 자료집, 새움터, 80쪽.
6) Farley, M. & Baral, I.(2000), Prostitution in five countries: violence and PTSD, San Francisco Women's Centers, 12쪽.
7) 새움터는 동두천시의 기지촌 및 평택시의 기지촌, 평택적 일의 성매매업소 집결지에서 정기적 상담소를 설치하고, 현장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여성단체이다. 성매매피해 여성들에 대한 센터운영활동과 관련하여 이 사회적인 지원활동을 벌이고 있는 단체로서 한국으로부터 성매매피해신고를 접수하여 피해여성들의 일일성매매를 위한 법률지원 및 의료지원, 생활지원, 직업훈련 등을 제공하고 있다.

두 번째 설문지는 연구자가 만들었으며,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연구목적 특성 및 상해에 유입변량 및 정도, 경험한 상해에의 유형 및 지역, 법률적인 문제, 상해에의 결과로서 나타난 불법행위에 대한 처벌의 유무에 내용 등을 질문하였다. 이 설문지는 면접자가 상담을 통해 상해에의 피해에 대한 건술을 필드법이 작성하였다.

두 번째 설문지는 Farley의 동일한 척도[1]이며 10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해에 이전의 신체적 특징에 주안의 성별, 상해해결으로 있는 동안의 신체적 특징과 같은 건강문제, 일상생활을 위해서 필요한 지원내용 등을 질문하였다. 이 설문지는 응답자가 직접 기입하였다.

III. 결과

1. 응답자의 특성

1) 연령 및 거주지

<표 1>과 같이, 응답자들의 연령은 10대에서 50대까지이며, 평균연령은 32.2세이고, 표준편차는 12.25세이다. 연령별로 보면, 30-39세가 300명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10-19세가 22%, 30-39세가 18%, 40-49세가 13%, 50-59세가 12%였다. 또한 응답자들의 거주지는 전국의 10개 시·도에 걸쳐 분포되어 있으며, <표 2>에 같이 경기 30.0%, 서울특별시 20%, 충청북도 12.0%, 전라남도 9.0% 순이다 상대적으로 많았다.

<표 1> 연령분포

	10-19	20-29	30-39	40-49	50-59	합계
인 원(명)	19	39	66	15	11	100
누적비율(%)	19.0	58.0	76.0	89.0	100.0	100.0
평균연령(세)	18.79	24.09	35.33	46.80	54.18	32.79
표 준 편 차	0.71	2.81	3.33	3.27	2.64	12.25
연령범위(세)	16-19	20-29	31-39	42-49	52-59	16-59

<표 2> 연령별 거주지역

	연령별					
	10-19	20-29	30-39	40-49	50-59	합 계
경기도	8(8.0)	12(12.0)	11(11.0)	3(3.0)	3(3.0)	30(30.0)
서울시	4(4.0)	13(13.0)	3(3.0)	1(1.0)	1(1.0)	20(20.0)
충청남도	1(1.0)	2(2.0)	6(6.0)	1(1.0)	2(2.0)	12(12.0)
충청북도	2(2.0)	1(1.0)	6(6.0)	2(2.0)	1(1.0)	12(12.0)
부산광역시	1(1.0)	1(1.0)	3(3.0)	1(1.0)	1(1.0)	7(7.0)
대구광역시	0(0.0)	0(0.0)	0(0.0)	0(0.0)	0(0.0)	0(0.0)
대전광역시	0(0.0)	1(1.0)	0(0.0)	1(1.0)	0(0.0)	2(2.0)
울산광역시	0(0.0)	0(0.0)	1(1.0)	0(0.0)	1(1.0)	2(2.0)
인천광역시	0(0.0)	1(1.0)	3(3.0)	1(1.0)	0(0.0)	5(5.0)
전라남도	0(0.0)	0(0.0)	3(3.0)	3(3.0)	2(2.0)	8(8.0)
경상북도	0(0.0)	0(0.0)	1(1.0)	0(0.0)	0(0.0)	1(1.0)
제주도	2(2.0)	0(0.0)	1(1.0)	1(1.0)	1(1.0)	5(5.0)
충청남도	2(2.0)	0(0.0)	0(0.0)	1(1.0)	1(1.0)	5(5.0)
충청북도	2(2.0)	0(0.0)	0(0.0)	1(1.0)	0(0.0)	3(3.0)
합계	19	39	66	15	11	100

(%)

2) 응답자들의 면접시 상황

응답자들은 <표 3>과 같이 세들의 임시보호센터나 가족에 의해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 여성(22%)이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현재 상해해결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20%), 일상생에 복귀 희망으로 정착의 지원을 이른 여성(22%), 상해해결소에서 도움에서 숨어 지내는 여성(22%), 상해해결소로부터 인권 구조된 상해의 여성(22%)이었다. 상해해결소에서 일하고 있는 여성들(20%)보다 최근 1년 이내에 상해해결소로부터 일출하거나 구조된 여성들(42%)의 비율이 더 높았다.

<표 3> 면접시 응답자들의 상황

	연령별					
	10-19	20-29	30-39	40-49	50-59	합 계
상해해결소에서 일하고 있다.	3(15.79)	7(17.95)	4(25.00)	0(00.00)	3(27.27)	20(20.00)
인권구조	1(5.26)	2(5.13)	0(0.00)	0(0.00)	0(0.00)	3(3.00)
도움처에 숨어있다.	7(36.84)	12(30.77)	1(6.25)	0(0.00)	0(0.00)	22(22.00)
보호조두의 인권처에 요청.	8(42.11)	12(30.77)	4(25.00)	0(0.00)	0(0.00)	22(22.00)
일상생에의 일반복귀희망(희망)	0(0.00)	2(5.13)	7(43.75)	8(40.00)	8(72.73)	23(23.00)
합 계	19	39	16	15	11	100

(%)

응답자들의 이전의 일으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상해해결소에서 일하고 있는 응답자들은 현업장이 일하고 있던 일소유형을, 일으에서 도망친 응답자들은 이전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사업자(22%) 및 기타(28%)와 같은 상해해결소 업종이외의 일으(50%)가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은 단란주점(18%), 티켓다방(13%), 유흥주점(12%) 순이었다.

<표 4> 현업별 이전직업소 유형

	연령별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유흥주점	1(5.26)	7(17.95)	0(0.00)	3(20.00)	0(0.00)	11(11.00)
단란주점	4(21.05)	8(20.51)	0(0.00)	0(0.00)	0(0.00)	14(14.00)
룸싸롱	0(0.00)	1(2.56)	0(0.00)	0(0.00)	0(0.00)	1(1.00)
티켓다방	5(26.32)	2(5.13)	4(25.00)	2(13.33)	0(0.00)	13(13.00)
마사지	0(0.00)	1(2.56)	7(43.75)	1(6.67)	1(10.00)	10(10.00)
식당가	7(36.84)	17(43.59)	5(31.25)	0(0.00)	0(0.00)	29(29.00)
여관업	0(0.00)	1(2.56)	0(0.00)	0(0.00)	0(0.00)	1(1.00)
요도방	0(0.00)	1(2.56)	0(0.00)	0(0.00)	0(0.00)	1(1.00)
나이트클럽	0(0.00)	1(2.56)	0(0.00)	0(0.00)	0(0.00)	1(1.00)
합 계	19	39	16	15	11	100

(%)

2. 상해에 실태

1) 유입변량

<표 5>에서도 알 수 있듯이 응답자들의 평균유입연령은 18.5세이고, 표준편차는 3.64세이다. 응답자들 중 72%가 13세에서 19세 사이에 상해해에 유입된다. 그리고 13세에서 20세 사이에 상해해에 유입되는 응답자들은 98%에 이른다.

<표 5> 유입연령과 종사기간

	연령별					
	10-19	20-29	30-39	40-49	50-59	합계
19세 이전에 상해해에 유입된 여성수(%)	19(100.00)	21(53.85)	11(68.75)	2(66.67)	1(50.00)	72(72.00)
20세 이전에 상해해에 유입된 여성수(%)	19(100.00)	39(100.00)	14(87.50)	2(100.00)	1(100.00)	98(98.00)
유입연령의 범위**	13-18	13-26	13-31	16-33	16-38	13-31
평균유입연령**(SD)	16.79(1.35)	19.49(3.14)	20.81(5.32)	18.73(1.79)	19.00(2.00)	18.81(3.64)
종사기간의 범위***(년)	1-4	0.5-14	3-20	2-9	2(5-40	0.5-40
평균종사기간***(SD)	2.00(1.45)	5.04(3.53)	14.25(5.71)	27.67(12.66)	25.00(14.00)	12.79(12.38)

*: 명, **: 세, ***: 년

위의 조사결과는 상해에가 세계로 여성남시기가 성년초기에서 경험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상해에의 유입이 여성년후기나 성년초기에 집중되어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가장 취약한 시기에 가장 많이 여성적 시간에 노출되어 있는 여성들의 현실을 반영한다. 즉 여성들이 성인사회가 역할해인 독립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면접별 평균종사기간을 볼 때, 상해해결소에서 일하는 기간도 면접이 많아질수록 길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상해해에 유입된 초기, 선물상의 매수가 적을 때, 보호자의 도움으로 빠져나오거나, 성공적으로 도망치기 힘든데, 응답자들은 놓아난 일이 상해에 들어서 장기간 상해해에 매여있는이 많다.

2) 상해에유입경로

상해에유입경로에 대한 조사결과는 <표 6>에 같다.

<표 6> 상대배업소 유업경로

	업체연령					
	10-19	20-29	30-39	40-49	50-59	합 계
직업소개소	3169.520	13530.789	4035.000	980.000	505.000	18218.309
미소개소	105.260	205.129	900.000	500.000	500.000	2210.389
인신매매조직	2169.520	912.580	109.254	3000.000	109.000	6300.354
개인 인신매매자	2025.759	5212.825	2012.000	8140.000	7102.040	22502.009
남자본구	105.260	500.500	109.254	500.000	500.000	2210.009
종업원을 통한 업주의 모집활동	5226.325	8220.521	500.000	2012.000	170.000	16510.009
자기광고	5226.325	11238.321	8050.000	4036.875	2018.181	30030.000
합 계	19	39	18	11	11	100

(명)

종업자들이 상대배로 유입된 경로 중 가장 많은 비율은 시기생20.0%입니다. 이러한 시기생20는 인종이나 종족, 문화정도의 회장성 등에서 쉽게 접할 수 있었다. 가출한 청소년들이나 실직한 여성들은 빈곤 때문에 이러한 시기생20에 취약하였고, 포섭인들의 거짓말에 쉽게 속아넘어갔다.

그 다음으로 많은 비율이 개인 인신매매자22.5%입니다. 이들은 포주와 연결되어 있으면서 상대배업소에서 일할 여성들을 비공식적으로 포섭해주는 사람들이다. 이들의 신분은 매우 다양하다. 업소주변에서 상대배와 관련된 일을 하는 택시나 폭력배일수도 있고, 비정원하나 카페, 룸카페의 주인일수도 있다. 이들은 상대배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해주고 일정한 소개비를 받는데, 주로 인신에서 주택 인신까지 소개비의 액수도 매우 다양하다. 소개비 대신 자신의 가게의 물건을 상대배종배여성들에게 구입하게 하는 방식으로 사례를 받기도 하는데, 이 과정에서 포주는 상대배종배여성들에게 물건구입을 강요한다. 포주는 종배여성들에게 카드를 만들어서 물건을 구입하도록 하는데 이는 나중에 여성들이 도망을 치거나 다른 업소로 옮겼을 때 업주 여성들이 갚을 돈을 남게 된다. 즉, 상대배종배 여성들에게 물건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종배여성들에게 자신에 대한 인신매매의 대가를 본인이 직접 지불하도록 하는 일종 이중가이다.

합법적인 직업소개소도 상당 인신매매에 가담하고 있다(18%). 직업소개소는 상대배업소에 여성들을 소개할 뿐만 아니라, 아예 보도방을 차려놓고 직접 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상대배를 하기도 했다.

업주들은 자신의 업소에 고용되어 있는 상대배종배여성들에게 윤구들을 유인할 것을 강요하기도 한다. 이런 방법으로 유입된 여성들은 20%에 이른다. 박업되어 있는 상대배서 업주의 요구를 거절하기란 매우 어렵고 위험한 일이다. 많은 여성들이 이별 수 없이 윤구들에게 반하을 하게 된다.

인신매매를 전문으로 하는 조직에 의해 납치된 여성들도 8%에 이르며, 직업소개소로 위장해서 사무실을 차려놓고 윤업행위를 하는 미소개소에 의해 인신매매를 당하는 여성들도 20나 된다. 남수친구에 의해 상대배를 강요당하고, 업소로 팔렸던 여성들도 2%였다.

2) 상대배업소의 유형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윤업자들은 상대배에 유입된 후 업주나 소개업자에 의해 계속 다른 업소로 옮겨 다닌다. <표 8>에서와 같이, 상대배업소에 유입된 기간이 1년 이만인 윤업자들이 인신매매 되는 업소의 평주는 4개 이상이었다. 그리고 윤업자들은 보통 상대배에 유입된 지 6개월에서 1년이면 티켓다방이나 사창가라의 대부분의 성

매배업소 유형들을 경험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빈번한 인신매매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일어난다.

첫째, 포주들의 경제적 이득 때문이다. 포주는 다른 상대배업소로부터 우백 인원에서 우월한 된 업소의 빚을 갚아주고 여성들을 사온 후에 몇 개월간 상대배를 시키면 빚을 갚은 돈 이상의 수입을 얻어들이게 된다. 그런 다음에 된 업소에 갚아준 빚의 배수를 올려서 다른 업소로 팔아버린다. 이런 인신매매는 포주에게 막대한 이득을 주기 때문에, 포주들은 지속적으로 상대배종배여성들을 사고판다.

둘째는 소개업자들의 경제적 이득 때문이다. 소개업자들은 여성들을 계속 인신매매 업소로의 막대한 소개비수입을 챙길 수 있다. 특히 인원이 적은 여성일일수록 소개비 액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젊은 여성들에 대한 인신매매는 더욱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인신매매의 최절에서 윤업자들의 체주는 처음에 50~300만원이었지만, 6개월에서 1년만 지나면 평균 투 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하였다. 이러한 빚은 여성들을 상대배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굴레로 작용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빚 상에서 피해여성들이 적절 받아 이용한 금액은 거의 없으며, 대부분은 인신매매의 과정에서 소개비나 빌금 등으로 날아난 액수였다.

업주들이 빚의 액수를 올리는 방법은 매우 교묘했다. 상대배업소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접근하는 경우, 활동의 30분의 1이 아닌, 하루에 이 여성들이 벌어들이는 액수만큼의 빚금을 내야 했다. 그 액수가 가장 적은 티켓다방의 경우에는 20~40만원이고 가장 많은 사창가의 경우에는 100~200만원이다. 상대배피해여성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들리고 있었고, 단 하루의 휴업으라 없는 업소로도 옮아서 점근은 불가능했다. 이러한 빚금부방만으로도 빚은 계속 불어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표 7> 인신별 경험한 상대배업소의 수

	업체연령		
	10-19	20-29	30-39
상대배업소수의 범위(개)	1-22	3-30	4-50
평균 상대배업소수(20)	7.3(65.30)	10.8(59.33)	22.3(612.50)

<표 8> 상대배업소에 유입된 기간이 1년 이만인 윤업자들이 경험한 상대배업소의 수

	20-29세
상대배업소에 유입된 기간이 1년 이만인 여성의 수	65
경험하는 업소수 평균(20)	4.8(55.50)
경험하는 업소수의 범위	1-8

윤업자들이 경험한 상대배업소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표 9>와 같다. 윤업자들이 가장 많이 경험한 상대배업소의 유형은 유흥주점(70.0%)와 티켓다방(52.5%)이었으며, 그 다음이 사창가(38.5%)였다.

상대배피해여성들이 많이 경험하는 업소의 유형은 본 업소의 수가 더 많고 업주배자들의 우호가 더 많은 유형일 것이라다. 그러므로 이 조사결과에 따르면, 일반적으로는 상대배업소의 대부분이 사창가에 있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이보다 많은 수의 유흥주점과 티켓다방에서 상대배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이에도 숙박업소

(42%)나 안마시술소(33%), 이발소(8%) 등의 상대배도 심각했다.

상대배업소가 밀집해 있는 인근의 주택가에 속소를 얻어놓고 상대배피해여성들을 관리하는 보조방 상대배(32%)도 이미 성업화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보조방의 포주들은 주변에서 수십명까지 상대배피해여성들을 관리하면서 인근의 상대배업소에 출퇴근을 시키기도 하고, 필요하나 인터넷을 이용하여 성구매자에게 직접 상대배를 알선하기도 한다. 특히 이성년주에 대한 단속이 강해지면서, 이성년자를 직접 고용하기 힘고, 성구매자의 요구가 있을 때에만 공급받는 식으로 상대배를 하는 업소들이 늘어나면서, 보조방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윤업자들이 경험한 상대배업소의 유형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20대에서 가장 많이 경험하는 업소유형이 티켓다방이라는 것은 예전과 비교해서 크게 달라진 상황이다. 티켓다방은 90년대 말까지만 해도 포함 30대 이상의 여성들을 고용했는데, 지금은 대부분이 20대들로 바뀌었다. 이것은 청소년성보호여관한법률의 제정 이후에 상대배업소들에 대한 미성년자 고용단속이 강해지자, 상대적으로 단속이 적고 업주에게 고용이 가능하게 되어 있는 티켓다방에 미성년자들을 투입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상대배와 관련한 현행법률들의 연령규정이 서로 일치하지 않고, 명칭과 지속해로부주원들이 상대배업소를 사업기로 필요하게 보면서, 미성년자 상대배가 가장 심각하게 발생하는 티켓다방과 같은 업소들을 단속대상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를 보호하겠다는 현행법의 취지는 그 의미를 잃고 있는 것이다.

둘째, 여성들이 유입되는 업소유형이 연령별로 차이가 있다. 30대는 다방(티켓포함)(20.0%)에 주로 유입되어 있었다. 20대 초반의 여성들은 다양한 상대배업소에 고용되어 있었으며, 상대배에 고용되어 있는 가장 일반적인 연령대였다. 20대 후반에서 30대의 윤업자들은 빈곤한 인신매매의 희생에서 살수 사정하나 기타존재 같은 집합적적으로 일어났다. 윤업자들은 사업가나 기타존으로 팔려 가는 것을 두려워했지만, 상대배업소 종사자인에 놀아나면서 살게의 증가한 세무로 인해 본인의 의사에는 상관없이 업주가 시키는 대로 윤여할 수밖에 없었다. 40대 이상이 되면, 윤업자들은 기타존이나 지방의 다방이나, 배주·업주집의 같이 고연령의 여성들을 고용하는 업소로 팔려가게 된다.

<표 9> 인신별 경험한 상대배업소의 유형

	업체연령					
	10-19	20-29	30-39	40-49	50-59	합 계
유흥주점	1647.371	29074.369	1338.254	1173.331	1681.821	71171.869
단란주점	1002.630	19140.725	1237.365	1140.869	1105.869	43143.869
룸싸롱	423.000	3004.289	1696.254	4036.875	1140.000	27207.869
티켓다방	12663.160	22156.421	1338.254	1173.330	4036.360	62162.000
기지촌	1105.869	1815.389	15662.509	14780.329	10130.000	43140.096
사창가	1647.371	21153.863	1338.254	7140.875	1681.821	33138.000
이발소	1105.869	1215.331	1236.254	1140.875	1130.000	1815.000
안마시술소	1105.869	4210.260	2012.369	4036.875	1105.000	13116.000
보도방	1140.131	1846.159	4035.000	2013.330	1101.000	12133.000
호텔	2010.530	7121.053	1105.254	1130.875	3045.451	1815.000
나이트클럽	2035.530	7121.053	1105.000	3036.000	4036.360	1815.000
숙박업소	4021.053	1814.1.000	12135.000	1990.000	4036.360	43145.000
기타	1105.000	1121.360	1105.254	1105.000	1105.000	1121.000

(%)

3) 업체 문제

<표 10>과 같이, 윤업자들의 52%가 업체 문제를 호소했다. 이 윤업자들의 20%가 상대배로 인한 제무관계 때문에 포주나 소개업자로부터 폰인이나 가족들이 협박을 당하고 있었다. 23%는 포주나 소개업자로부터 고소협박을 당하고 있었고, 업주나 소개업자의 고소로 인해 기소중지가 되어 있는 여성도 2%나 되었다. 7%의 윤업자들은 피해사업에도 불구하고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벌금리도 처벌될 상황에 놓여 있었다.

현행 윤락행위등방지법의 제 4조와 제 20조에는 '윤락업인, 경요, 윤락장소 제공, 윤락이득을 취득하는 자와 이에 업조하는 자의 윤락여성에 대한 제공은 그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이를 무효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이것은 2002년 이 법률이 최초로 제정된 때부터 이미 규정되어 있었다[1]. 따라서 업주나 소개업자들이 상대배와 관련한 윤락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될 경우, 피해여성들과의 채무관계는 원인무효가 되며, 형사나 민사를 통해 이 법을 방어내려는 활동 자체가 불법인 것이다.

그러나 이글하기 이 규정이 적용된 예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 상대배업소에서 피해여성들이 도망을 시면, 업주나 소개업자들은 경찰서에 이 여성들을 시기로 고소한다. 경찰은 고소인의 상대배업소의 업주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이러한 고소를 상대배관련 범죄로 처리하지 않는다. 한번 아니라 고소장에 적힌신청업주나 윤락행위등 방지법과 관련된 고소인의 위법사실이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처리하지 않고 상대배피해여성들을 찾아내어 처벌하는 경우도 없다. 포주의 고소장이 접수되는 대로 경찰은 윤구에 수배령을 내려 이 여성들을 찾아내고, 경찰에 의해 긴급 체포된 여성들은 경찰서에서 풀려나는 동시에 경찰서 앞에서 업주나 소개업자들에게 넘겨지곤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피해여성들은 시기와나 윤락행위로 인한 전과를 가지게 되었고, 업주에 빚금을 내야 했으며, 업소로 끌려간 후에는 도망은 기간에 대한 벌금으로 수천만 원 빚이 업혀진 상태에서 이 상각한 업소로 팔려온 것이다. <표 11>과 같이, 윤업자들 중에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 업주나 소개업자에게 시기적으로 고소당하거나 경찰에 긴급체포가 되거나, 전과를 가지게 된 윤업자들은 40%에 달했다. 전과의 경우는 시기, 윤락행위위반, 절도, 폭력, 마약 등이었다.

<표 10> 인신별이 업체 시원을 초점한 윤업자들의 문제

	업체연령					
	10-19	20-29	30-39	40-49	50-59	합 계
업주의 폰인에 시무에 대한 협박	3018.750	13041.940	2036.000	000.000	000.000	18034.690
업주에 소개업자에 협박	000.000	205.403	000.000	000.000	000.000	203.403
업주의 시기에 고소협박	4025.000	5018.139	1125.000	11000.000	000.000	11025.139
업주와 소개업자에 고소협박	000.000	4012.900	000.000	000.000	000.000	417.000
업주에게 시기로의 고소당함	3018.750	4012.900	000.000	000.000	000.000	7133.400
업주의 시기에 고소로 기소중지당함	000.000	103.220	000.000	000.000	000.000	613.000
소개업자에 시기에 고소로 기소중지당함	2012.500	000.000	000.000	000.000	000.000	203.000
윤락행위등방지법위반 이별의 체별	4025.000	205.403	1125.000	000.000	000.000	7133.400
합 계	10	20	4	1	0	50(100.00)

[1] 예공욱, 2002년 2월 김일주 무변일보 참조.

(%)

<표 II> 성매매의 경력으로서 알아낸 불법행위에 대한 법적 처우 경험

	평균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사기절취	0(0.0)	0(0.0)	0(0.0)	1(20.0)	0(0.0)	1(1.3)
윤락행위등방지법 위반 전과	6(66.6)	5(35.7)	2(22.2)	0(0.0)	0(66.67)	13(16.5)
사기에 인공폐포의 경험	1(11.1)	2(14.2)	2(22.2)	0(0.0)	0(0.0)	5(11.5)
사기폐포 고소당한 경험	2(22.2)	5(35.7)	4(44.4)	2(40.0)	1(33.3)	14(18.0)
협도전과	1(11.1)	1(7.1)	0(0.0)	0(0.0)	0(0.0)	2(2.5)
폭력전과	0(0.0)	1(7.1)	0(0.0)	0(0.0)	0(0.0)	1(1.3)
마약전과	0(0.0)	0(0.0)	1(11.1)	1(20.0)	0(0.0)	2(2.5)
합 계	9	14	9	5	3	80

(%)

3. 성매매의 특징적 특성

<표 II>와 같이,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당하는 특히 심각하다. 응답자들의 80%가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 · 성적 폭력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표 II> 성매매업소에서 일하는 동안 경험한 폭력

	평균연령					합계
	10-19	20-29	30-39	40-49	50-59	
신체적 위협	16(84.2)	34(87.18)	18(100.0)	13(86.67)	11(100.0)	90(90.0)
무기를 사용한 위협	7(36.84)	17(43.59)	11(68.75)	8(53.33)	6(54.55)	49(49.0)
신체적인 폭행	14(73.68)	29(74.36)	14(87.50)	11(73.33)	8(72.73)	76(76.0)
강간	11(57.89)	30(76.92)	15(93.75)	13(86.67)	11(100.0)	80(80.0)
5번 이상의 강간	8(42.10)	19(48.72)	8(50.0)	8(53.33)	6(72.73)	55(55.0)
성구매자에 의한 강간	11(57.89)	24(61.54)	13(81.25)	9(53.33)	10(90.91)	66(66.0)
성구매자가 아닌 이들에 의한 강간	12(63.16)	23(58.97)	13(81.25)	12(80.00)	9(81.82)	69(69.0)
포르노그라피 제작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강간 비디오 촬영	11(57.89)	23(58.97)	12(75.00)	7(46.67)	5(45.45)	60(60.0)
포르노그라피에 이용당함	0(0.0)	5(12.82)	10(62.50)	3(20.00)	4(36.36)	22(22.0)
폭력과 협박(신체적 위협,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인 폭행, 강간)	18(94.74)	36(92.31)	16(100.0)	14(93.33)	11(100.0)	94(94.0)

(%)

성매매업소에서 경험하는 폭력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신체적인 위협

90%의 응답자들이 신체적 위협을 당했고, 49%는 협박이나 칼, 총 등의 무기로 위협을 당했다. 포주나 인신매매 업자들은 여성들을 통제하고 착취하고 무력화하기 위해서 주로도 신체적 위협을 가했다. 이들은 여성들을 초토적으로 위협하기 위하여 가학적을 일삼았다. 가학에 대한 위협은 피해자들을 이후 더 비포자기하게 만든다. 한 응답자는 위협을 당한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 저를 때리거나 살에 생어버리겠다거나 죽어버리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런데 그런 협박보다 더 힘들었던 것은 언니의 이름이나 주소까지 다 대면서 제가 말을 듣지 않으면 저희집 찾고 초등학교 협박이었어요. 정말 주 도망은 제도 없었죠. 업주는 겁으로 제속 협박선화를 했어요. 업주에게 저를 내놓거나 손을 잡으라고 협박했죠. 업주는 폭력을 썼어서 쓰러지고, 저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어요. 제 방도 다른 방으로 옮겨가서 손톱같을 썼어서 방을 없앴어요.

다른 여성들을 감금하고 구타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다른 여성들을 두렵게 하고 무력하게 만드는 수단이다. 도망했다가 잡혀온 여성들은 종종 다른 여성들이 보는 앞에서 구타당하고 감금된다.

2) 신체적인 폭력

응답자들의 30%가 얼어맞고, 차이고, 질질이로 맞는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
이러한 구타는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성매매를 거부하였을 때 주로 일어났다. 응답자들은 생리를 하거나 몸이 아플 때에도, 심지어는 성매매로 인해 생리기에 심한 상처를 입었을 때에도 성매매를 강요당했다고 대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성매매를 거부할 수 없었다. 성매매를 거부하는 것은 포주에 대한 반항으로 받아들여졌고 이러한 행위에 대해 포주나 감시인들은 즉시 폭력을 써부었고, 구타를 했다. 응답자들은 구타 이후에 몸 이곳 성매매를 강요당은 했다고 진술했다. 한 응답자는 이러한 구타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 아이에게 놀아간 정보부터 손님을 받아서 했어요. 머릿이 아프니까 일이 없고 해서도 서있기조차 힘들었어요. 한번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손님앞에서 나와서 포주에게 돌연이 부탁했어요. 하지만 포주는 제 말을 묻지도 않고 저에게 발길질을 하면서 욕을 했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저를 끌어넣었어요. 그 다음부터는 저는 아무리 힘들어도 포주에게 용기나 부탁하지 않았어요.

포주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규칙을 어겼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한 응답자들도 있었다. 포주들은 업소의 규칙을 만들어서 여성들에게 강요하는데, 이러한 규칙은 포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성들을 효과적으로 착취할 목적으로 사용된다. 규칙은 보통 벌금규정이나 일하는 시간을 규정하고 있고, 여성들에게의 알리를 금지나 포주에 대한 일체무 금지, 심지어는 결혼을 금지하는 규정들도 있었다. 이러한 규칙을 어기면 응답자들은 벌로써 구타를 당했다고 진술했다.
가장 심각한 폭력은 응답자들이 탈출을 시도하다가 잡히거나 도망했다가 돌연했을 때 일어났다. 그리고 다른 여성들의 탈출을 도와주었다가 발각되는 경우에도 여성들은 심각한 폭력을 당했다. 여성들은 이러한 행위에 대한 벌로써 심한 구타를 당했고, 무기로 구타를 당하기도 했다. 이러한 구타는 보통 감금이나 음식제한, 인신매매와 함께 가해졌다. 한 응답자는 이러한 경험에 대하여 이렇게 말했다.

> 제가 일한 업소는 좌문에 있는 인천주문이었어요. 저는 다른 여기저기와 함께 업소에서 팔려지는 숙소에서 생활했어요. 놀아나는 방을 전달 수가 없어서 도망하기 쉽으로 없는데, 포주가 항해들하고 자기 지킬 물건이 없어요. 장하기 위로 팔려질 때에도 맞았고, 업소에 도착해서도 맞았죠. 업소 안에는 저 같은 사람들을 가두어 두는 방이 하나 있었는데, 그 방은 밖에서 문을 잠글 수 있게 되어 있어요. 저는 다른 업소로 팔릴 때까지 방안이 갇혀진 그 곳에 갇혀 있었어요.

3) 강간

응답자들의 80%가 성매매업소에 유입된 후 강간을 당했고, 55%는 5회 이상의 강간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65%의 응답자들은 성구매자에게 강간을 당했고, 60%는 성구매자 외의 포주나 소개업자, 감시인, 폭력배 등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 이러한 업소 안에서의 강간은 대부분 구타와 함께 일어나기 때문에 응답자들에게 심리적으로 큰 충격을 주었다. 포주나 감시인에 의한 강간은 피해여성이 그 업소에 있는 기간 동안 지속되었다. 업소가 옮은 곳은 이기 때문에 많은 피해여성들은 다른 여성들이 강간당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함께 안대하여 대처하지 못하고 오히는 책 임 우리에 없었던 것에 대하여 두려움과 무력감, 피해감 등을 느꼈고 있었다.

4) 포르노그라피

60%의 응답자들이 포주나 소개업자, 감시인, 폭력배, 성구매자으로부터 포르노비디오나 책에 나와있는 것을 따도록 강요당했으며, 22%의 응답자들은 포르노비디오나 책을 제작하는 데 이용당하였다고 응답하였다. 사창가의 포주들은 이러한 업소에 자술으로 유입된 응답자들에게 포르노그라피 비디오나 책에 나와있는 것을 보여주며 성구매자에게 해야 하는 성적 서비스를 교육하고 강요하기도 했다. 응답자들은 교육받은 대로 성구매자을 알해서 '나체쇼'를 하거나 '성적 서비스'를 해야 했다. 성구매자들 중에는 비디오를 설치하고 성매매를 강요하거나 강제로 사진을 찍는 사람들도 있었다. 이러한 강요에 수반되는 신체적 위협이나 구타는 응답자들이 이행 수 없이 많주나 성구매자들의 요구에 따르도록 만들었다.

5) 성매매업소 감금시역

응답자들은 감금시역의 성매매업소에서 이 많은 성적 · 신체적 폭력을 당했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매일 상대해야 하는 성구매자의 수도 감금시역과 그 외의 시역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었다. 감금시역 외의 성매매업소에서 대표적인 유흥주점과 티켓다방 등에서 일하는 응답자들이 성구매자를 상대해야 하는 숫자는 보통 2~3일에 한 명이고, 많아도 하루에 2명을 넘는 경우는 혼하지 않았다. 그러나 감금시역에서는 하루에 적은 날이 2~3명, 많은 날은 20명 이상의 성구매자를 상대해야 했다. 응답자들은 감금시역의 성매매가 매우 크롭스러웠다고 진술했다.
<표 III>을 보면 응답자들의 76%가 가지본과 사창가를 포함하는 성매매업소 감금시역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여성들은 주로 20대 중반에서 30대에 감금시역의 성매매업소로 팔렸다. 10대에서 20대에 성매매업소에 유입된 후, 몇 년 사이에 많은 금액의 늘어났고, 포주들은 늘어난 빚을 이유로 여성들을 감제로 성매매업소시역으로 팔아버렸다.

<표 III> 인신매매 감금시역 경험

	평균연령					합 계
	10-19	20-29	30-39	40-49	50-59	
감금시역 경험 있음	9(47.37)	22(56.97)	10(100.0)	15(100.0)	11(100.0)	74(74.0)
감금시역 경험 없음	10(52.63)	16(41.03)	0(0.0)	0(0.0)	0(0.0)	26(26.0)

(%)

응답자들이 설명하는 성매매업소 감금시역은 전국에 걸쳐 분포하여 있었다. 2002년 경기도시역에 대한 설제조사에서, 파계 시 · 군중 16개 시 · 군에 총 32개의 성매매업소 집결시역이 발견된 것으로 볼 때이, 성매매업소 집결시역은 전국에 걸쳐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을 것으로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응답자들이 보고한 성매매업소, 파계 시 · 도 모두에 하여도 1개 이상의 성매매업소 집결시역이 형성되어 있었다. 집결시역의 수로 볼 때, 경기도와 인하북도, 서울특별시가 가장 심각했다.

4. 성매매피해여성들의 욕구

응답자들에게 현재 필요로 하는 것에 대하여 질문하였다. 90%가 성매매로부터 벗어나기를 원한다고 대답하였고, 85%가 포주로부터의 보호를, 80%가 의상비를, 80%가 개인상담을, 75%가 건강보호를, 70%가 법률적 지원을, 65%가 정보지원을, 47%가 직업훈련을 원하였다. 공통적으로 인상하는 응답자는 12%였다. 조사결과는 <표 IV>과 같다.
공통적으로 인상하는 여성들은 성매매를 적응하는 특성시역을 갖으는 것이 성매매피해여성들에 대한 인권침해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점을 많이 말했다. 한 응답자는 공통적에 인상하는 이유를 이렇게 말했다.

> 아니라도 아니라 정말의 같은 데는 공통시역이나 이전가서입니다. 이런 데가 더 힘들어요. 이런데 들어가면 우리들은 더 가족이나 친구들과 연락하기도 어려워요. 밖도 힘들고 손님과 상관계를 많이 해야 하는 데 시고기고예요. 이런 곳에서 포주들이 많은 밥이나 아프기이예요. 공통시역에서 우리들이 인권을 보호할 수 있다는 것 만을 수가 없어요.

본 연구의 결과를 다른 도계조에 대한 조사결과인 <표 III>과 비교했을 때, '법률적 지원'과 '포주로부터의 보호'의 항목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우리가 월한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법률적 지원'에 대한 욕구에서 한국이 70%인데 비해, 남아프리카 공화국과 태국은 50%, 캄보디는 54%, 미국은 42%였다. '포주로부터의 보호'에 대한 욕구에서 한국인 85%인데 비해, 캄보디는 40%,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33%, 미국은 28%, 태국은 23%였다.
이러한 차이는 우리나라에서 성매매 법처와 관련하여 법률적 · 사법적 장벽가 거의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래 우리나라에서는 인신매매 상태고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으로 생각하고 있고, 경찰은 피해자신고를 받고도 여성들을 법처하도 하급하는 하여, 경찰은 인신매매나 성매매와 관련한 법처처들을 거의 기소하지 않는다. 또한 검찰도 경찰도 인신매매법처조차이나 성매매 법처조처조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활동의 중요성을 보고고 있다. 따라서 한국의 성매매피해여성들에게 법률적 지원이나 포주로부터의 보호는 매우 절박하고 시급한 욕구이다.

---

[1] 여성부(2001), 61쪽.

건강보호에 대한 욕구도 다른 5개 국가에 비해 한국이 비교적 높았다. 캐나다(88%)를 제외하면, 한국(82%)이 남아프리카공화국(69%)나 미국(68), 독일(68), 타이완(63%)보다 높았다. 한국의 상해예방해야성들은 의료보호체계에서 소외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감수나 감금상태에 있는 여성들은 병원을 이용할 자유조차 박탈당한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표 10> 상해예방해야성들의 욕구

	연령별					합 계
	15-19	20-25	26-30	40-49	50-59	
정신적인	10234.740	38737.440	60.000.000	13286.671	11100.000	59036.000
살 또는 안전한 장소	14673.680	33934.629	13000.750	13286.671	10000.561	80085.000
재정문제	9647.371	30651.285	11666.750	4726.671	3237.371	47147.000
아동/양육지원	3015.759	13033.329	6237.500	6140.000	159.000	29125.000
건강보호	11157.860	32002.054	15700.750	14793.329	10090.561	83002.000
일요일까지	11157.859	25506.453	6237.329	4726.671	3245.451	66.46.000
개인상담	13389.671	39074.360	14697.500	13286.671	11100.000	84854.000
사기방어훈련	9647.371	27169.220	8750.000	7146.671	5245.451	59256.000
법률적 지원	13389.671	38697.440	15662.500	7146.671	4726.360	79.26.000
경찰개입	3145.529	9615.389	600.000	2513.329	945.000	16319.000
여가보호	8142.111	19128.233	8026.000	5600.000	4154.551	45.51.000
포주로부터의 보호	13386.671	33689.740	14700.000	13286.000	7452.640	81937.000

(N)

<표 11> 5개국 상해예방해야성들의 욕구

	국 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캐 나	미국	독 일	한국(N)
정신적인	80%	94%	90%	88%	90%
살 또는 안전한 장소	72%	80%	60%	78%	94%
재정문제	75%	57%	46%	73%	97%
아동/양육지원	46%	53%	6%	67%	57%
건강보호	69%	43%	38%	56%	80%
일요일까지	58%	69%	34%	53%	63%
개인상담	61%	68%	46%	69%	53%
사기방어훈련	61%	60%	12%	49%	41%
법률적 지원	58%	58%	표시 안함	43%	54%
탈법화	36%	39%	4%	44%	8%
여가보호	46%	45%	23%	34%	63%
포주로부터의 보호	33%	27%	표시 안함	28%	42%

<표 10>에서 알 수 있듯이, 응답자의 대부분이 배우자 상담소의 현장지원서비스(ISIS)나 상담소에서 지원을 받은 동료의 준구의 소개(22%)를 통해 상담소에 접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피해자를 위한 지원체계가 이원된다 하더라도, 피해여성들을 적절 한국사회 지원체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하는 현장지원서비스가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준다. 포주들이 상해예방소를 찾아와서 사회도덕이 문제시에 통제하고 있고, 상해예방해야성들 대부분이 감수나 감금상태에 놓여있어서 피해자들이 정보에 접근하는 것이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표 12> 만성별 상담소를 찾게 된 경위

	연령별					합 계
	15-19	20-25	26-30	40-49	50-59	
상담소의 현장지원서비스	1(3.3)	4(33.3)	8(38.0)	3(30.0)	1(100.0)	39(39.0)
상담소의 이용을 받은 친구소개	4(21.05)	13(33.33)	4(25.00)	0(0.00)	0(0.00)	21(21.0)
인터넷 정보검색	0(0.00)	0(0.00)	1(6.25)	0(0.00)	0(0.00)	1(1.00)
TV	8(42.11)	7(17.95)	0(0.00)	0(0.00)	0(0.00)	15(15.00)
1366	4(21.05)	6(15.38)	0(0.00)	0(0.00)	0(0.00)	10(10.00)
타 여성단체의 연계서비스	1(5.26)	5(12.82)	3(18.75)	0(0.00)	0(0.00)	9(9.00)
여성부	0(0.00)	2(5.13)	0(0.00)	0(0.00)	0(0.00)	2(2.00)
경찰	1(5.26)	1(2.56)	0(0.00)	0(0.00)	0(0.00)	2(2.00)
타 여성복지상담소	0(0.00)	1(2.56)	0(0.00)	0(0.00)	0(0.00)	1(1.00)
합 계	19	39	16	15	11	100

(N)

IV. 대안

V. 결론 및 토론

본 연구는 서문에서 언급하였듯 본 상해예방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이 연구가 규명하고자 했던 것은 상해예방 필요 '여성의 상해예방'이나 '여성의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연구는 상해예방에서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는 관점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는 상해예방해야성들이 경험하는 폭력의 심각성을 보여준다. 상해예방해야성들이 겪에서 신체적·성적 폭력은 매우 심각했다. 응답자들의 30%가 신체적인 위협이나 무기를 사용한 위협, 신체적 폭력, 강간의 피해를 경험하였다. 30%의 응답자들이 신체적 위협을 당했고, 45%가 맞았거나 벌, 칼 등의 무기로 위협을 당했다. 20%는 얼어맞고, 차이고, 물렸거나 또는 신체적인 폭행을 당했다. 특히 조정을 시도했거나 폭력당한 경우가 많아서,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응답자들의 85%가 상해예방소에 유입된 후 강간을 당했고, 50%는 5회 이상의 강간을 당했으며, 65%의 응답자들은 성구매자에게 강간을 당했고, 65%는 성구매자 외의 포주나 소개업자, 남자친, 폭력배 등에 의해 강간을 당했다. 65%의 응답자들이 포르노비디오나 매체 나타났는 것을 비도록 강요당했으며, 25%의 응답자들은 포르노비디오나 책을 제작하는 데 이용당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상해예방해야성들이 어려운 일이도 상해예방 유입되었으며 단에 상해예의 재발에서 여성들은 심각한 폭력의 피해를 입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이 여성들은 보호하고 지원해야 할 대상이며, 결코 처벌할 대상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한다. 그러므로 상해예방해야성들은 여성피해자이어야 하고, 포주나 인신매매자, 그리고 이에 협조하는 자들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기소되어야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85%의 응답자들이 상해예방에서 방어하는 것을 원했고, 95%가 공정재도에 반대했다는 것은 공정재도가 상해예방 인권침해를 줄이는 효과적인 방안이 아님을 증명한다. 상해예방 대한 접근법은 기본적으로 성매매피해여성들이 아닌 포주와 성구매자들에게 이익을 주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드러났듯이, 상해예는 여성에 대한 심각한 폭력이기 때문에 결코 합법화될 수 없다.

마지막으로, 상해예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으로서, 상해예가 여성에 대한 폭력임을 알리고 교육하는 것과 상해예를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률을 제정하는 것, 그리고 이러한 폭력피해자들 중합적으로 지원하고 보호하는 지원체계를 만드는 것을 제주 중요하다. 연구결과에서도 알 수 있듯이, 상해예방해야성들을 위한 지원프로그램은 단순한 성교육이나 정보제공, 혼돈 나누어주기만으로는 효과가 없다. 따라서제공 및 법률지원, 여성문제, 의료서비 등이 포함되는 종합지원프로그램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러한 프로그램들은 상해예방해야성들에게 직접 접근하여 제공하는 현장지원프로그램이어야 한다.

* 이 글은 『한국여성민권운동사』(한국여성의전화연합 편, 한울아카데미, 1991 제 5장의 내용으로서 이번 전체우리(2)에 맞고 수정을 한 것입니다.

죽어야 사는 여성들의 인권 - 한국 기지촌 여성운동사, 1986-1998

정 희진[1]

1. 들어가며
2. 기지촌,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3. '현장' 출신 기지촌 여성운동가들
4. 두레방의 시작
5. 기지촌 여성의 이야기
6. '기물' - 기지촌 여성운동의 확장운동
7. 행위 하나 - 일 세운 선언 시위
8. 기지촌 여성의 아메리칸 드림 - 동두천 사건
9. 운동이론 일치된 정치학
  9-1. 허물린 족쇄
  9-2. 18개월간의 투쟁
  9-3. 운동이, 당장주에서 민족의 상징으로
  9-4. 운동이 투쟁의 성별 문법
10. 기지촌 여성운동의 미래

1. 들어가며

1968년 한 일간 언론은 당시 우리나라의 매춘여성이 30여만 명이라고 보도하였다. 그 중 내국인을 상대하는 매춘여성이 40.5%, 특별부를 고객으로 하는 소위 '양공주'가 23.1%를 차지하고 있다고 했게 시장에서 보면, 외국군 상대 매춘여성의 비율이 높아지 않을 수 없다. 여군이 주둔한지 50년이 넘는 지금 기지촌은 여럿째 변모되었으며 기지촌 여성과 기지촌 여성운동의 상황은 어떠한가.

해방 이후 기독교 계열 부흥을 제외하면, 우리사회에서 여성운동이 '본격' 민족민주운동과 의식성을 가지고 본격적으로 여성의 고유한 문제를 드러내기 시작한 것은 80년대 중반부터라고 할 수 있다. 우리사회의 여성운동계를 성별적(gender)인 관점에서 해석하고자 하는 독자적인 여성운동 조직체들이 80년대 초, 중반에 창립되었다.(1983년 여성의전화/여성평우회, 1984년 또 하나의 문화 창립) 한국사회에서, '민족' 사회운동의 구도 속에서 여성 문제를 제기하는 태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어왔다. 한국의 여성운동가들은 이제까지 '여성운동은 민족민주운동의 분열 혹은 기변해야 한다 문제 운동의 부분이며, 부차적인 사회운제, 여성운동은 중간층 부르조아 운동'이라는 비판에 끊임없이 시달려왔다. 계다가 민주화운동(사회운동) 내부의 성별 문법제, '민족'운동도 하고 여성운동도 해야 하는 이중 부담은 여성운동가들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하였다.

이러한 상황에서 매춘 여성운동은 여성운동 내부에서도 주변적이다. 그건 한국의 여성운동은 매춘 문제에 대한 관심, 여력이 거의 없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매춘 여성운동은 '주변부의 주변부'로서 매우 열악한 상황에 있다.(이 책 민정자의 매춘여성운동사 참조) 어느 여성운동가의 고백대로, "우리는 페미니스트이면서 여성 어성, 어른 여성, 성폭력 피해 여성일 수는 있어도 매춘여성일 수는 없었다."

[1] 기지촌여성운동의 계승자, 운영위원, 여성과인권연구회 간사, 한국여성의전화연합 인권위원

이 글에서 기지촌 여성이란 주한 미군 주둔 지역에 살고 있는 여성들 중 매매춘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을 말하며(이에 상응), 기지촌 여성운동이란 현장 출신 여성운동가를 포함하여 기지촌 여성운동가들의 기지촌 여성을 위한 제반 활동을 말한다. 매매춘 산업 중에서도 가장 천시되어 낸 나중에 하게 되는 매춘이라는 점인 '여성 성별' 기지촌 여성들. 일반(국내) 매춘여성들보다 기지촌 매춘여성에게는 '부월감'(7)을 갖는다. 외국 군대에 몸을 파는 '양공보'로서, 우리 사회의 성윤리(sexual ethic)를 거칠 수 없었던 기지촌 여성의 삶은 그래서 더욱 오랜 기간 침묵되, 사회운동화 되지 못했다. 사실 기지촌에서 '운동'이 존재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은 거의 없었다.

기지촌 여성운동은 매매춘 문제 자체의 복잡성과 해결의 어려움, 외국군의 주둔, 분단, 군축, 인종, 기억, 계급 문제, 사회운동권의 무관심이라는 중첩의 어려움을 안고 있다. 기지촌은 군사주의와 매매춘, 외국군대의 주둔과 분단의 핵심 고리다. 분단 상황은 군사주의를 정당화하고 그에 기반해 가부장적 성별 이해관계기를 강화한다. 1998년 주일(日本)예산을 기준으로 우리나라 국방 예산은 전체 예산의 23.3%(98년에는 22%)였다. 국가 예산의 1/5 이상을 군사비로 쓰고 있는 셈이다. 이에 더해 여성 관련(부녀)까지 국가 전체 예산의 0.03%(92년)'0.02%(93'96년)에 불과하고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다. 군사주의, 민족주의, 분단은 여성 억압을 기초로 유지되고 있다. 군사주의는 폭력적인 남성성을 이화하여 성적인 이미지(sexual image)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기지촌은 한국사회 뿐 만 아니라 현재 인류가 직면하고 있는 모든 모순의 덩어리를 응축한 공간이다. 기지촌 여성운동은 인권과 평화라는 새로운 세기의 화두를 이런 방식으로 고민하고 해결해야 하는가를 질문적으로 보여주며, 여성 인권에 대한 상황 없이 인권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음을 입증해준다.

대부 부분의 사회운동이 대부분 남성들의 주도로 이루어진 반면, 기지촌 (지역)운동의 경우는 예외적이 여성들의 주도로 이루어져, 기지촌 여성의 이슈를 중심으로 활발히 일어났다. 기지촌 여성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을 두레방이 개원한 1986년부터 본다면, 현두륜 새로 시점인 98년 당시 우리사회에서 만이나 미군기지 문제를 언급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웠다. 또 남성 중심적인 반미운동은 기지촌이라는 구체적인 공간을 중심으로, 그 속에서 가장 고통 받는 여성을 중심으로 접근하지 않기 때문이다. 기지촌 운동은 여성운동에 의해 먼저 시작되었고, 여성주의 시각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이제 우리사회에서 기지촌 운동은 곧 기지촌 여성운동을 의미하게 되었다. 이는 기지촌이라는 말 자체가 이미 매매춘 체적이라는 성차별적(gender)인 공간을 의미하기 때문이며, 기지촌 지역운동을 하는 남성운동가들은 대체로 자신을 기지촌 활동가라기보다는 반미운동가, 지역운동가라고 정체화 하기 때문이다. 또한 다른 매매춘(기내 매춘) 현장 중에서 가장 열악한 기지촌에서 매춘여성운동이 가장 활발히 일어난 점도 재기할 만한 부분이다. 이 문제는 한국사회에서 여성운동이 소위 민족민주운동과 맺는 관계를 성별체론적(gendered)에 분석해 보는 하나의 사례(Mark market), 성폭력상, 조주, 이주원, 매춘소, 일회성, 일종성, 사진관, 기념품점, 호텔화원, 양구원, 국제결혼 중개업 이루소, 변역소 등을 무대로 기지촌 문화가 형성되었다.(김현선 외 1997)

주한의 시한 일대의 소위 '하리하우 무대'(Camp Hialeah)와 매춘대의 단각무대, 방일동의 미 5보공병, 보광동 기역의 군산의 이태리가 바로, 행복군 동두천을 선정의(행복는 의), 무형 등은 대표적인 후방의 기지촌 도시였다. 포천, 동두천, 의정부의 캠프, 파주의 용주골, 군산의 신흥리, 서울 용산의 미 8군 기지, 이태원, 부평동 등도 기지촌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캠프촌은 기지촌을 일컬적으로 표현한다. 캠프촌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생기도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Camp Stanley)주변의 기지촌 매매춘 집결지를 일컫다. 캠프촌은 의정부 시내 버스를 타면 정거장 이름으로도 표시 된, 이 지역 에서도 공식화된 지명이다. 현재 시행의 캠 기지촌들은 단속이 심한 서울을 피해 대체한 국내 매매춘 업주들이 정착하여 국내 매매춘 집결지로 유명하다. 매매춘 업소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포주들은 매춘여성을 감시, 통제하기 쉽고, 행정당국은 단속하기 쉽기 때문이다. 매매춘 집결지는 다른 사회와 구분되어 매춘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

기지촌 여성들의 주변에 의해면,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정국 정부의 미군 당국의 통제는 1950, 60년대보다 70, 80년대가 더 심했다고 한다. 50, 60년대 한국 정부는 기지 내 매매춘 문제를 일차적으로 미국의 문제로 보았다. 90년대처럼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제다가 분루의 극심한 가난은 한국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는 매춘여성을 이난했지만 일정 정도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 60년대 한국의 베트남 참전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계기가 되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미국은 주한 미군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우선할 수 없었다.(Moon 1998)

그러나 베트남과 아시아의 전쟁 상황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위하는 낙은 독트린과 아시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감소는 상황을 역전시켰다. 주한미군의 감군은 곧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위기를 의미했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에게 기지촌의 문제 재선을 양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군간의 폭력 강탈, 미군과 한국인간의 인종적 갈등, 미군 병사들에게 만연한 성병, 기지촌 시설의 비위생적인 상태, 일수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는 1972년부터 1996년까지 '군기지 정화 운동'을 벌이게 된다. 1971년 여름 미군들의 만행과행로 인해 여론이 날을 때, 미군 당국이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의 폭언이 바지 나왔다. '기지촌 여자들이 매우 더럽다. 우리는 한두을 구하러온 YMCA들인데 대접이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 정부는 체각적으로 기지촌 여성들을 관리하게 된다. 기지촌마다 성병 진료소를 만들고 매주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게 하였다. 기지촌 여성에게는 보건증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의 기지촌 매춘을 직접 관리, 단속하게 되면서 정부는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민물매트"의 같은 관계 의식 기구를 조직한다.(김현선 외 1997)

정부가 매매춘을 묵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으로는 미군의 건강을 위해 기지촌 여성들을 관리, 통제하는 것은 매매춘에 대한 이중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기지촌 여성들을 '가장 더러운 여자들'로 낙인찍으면서도 동시에 '피해를 받는 애국자들', 심지어 '민간 외교관'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지촌 매춘 여성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지촌 매춘 여성 중 합법에서 일하는 성년 여성들만 정부 검사 해당이기 때문에, 이들만 공식 통계에 포함된다. 일명 '언니'(국내 매춘을 업하는 주동적인 매춘 여성), '선화양'(아직 등에 대기하다가 선화도 호출받고 매춘하는 여성), 미성년 매춘여성, '미빠리'(나이 들어 매춘업소에 고용되지 못하고 거리에서 직접 손님을 찾아 매춘하거나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 미군과 계약 동거하는 여성의 숫자를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 해방 후 기지촌 매춘여성의 총 인구를 25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김현선 1998) 현재는 보건소에 등록한 여성들의 경우 최소 5,000여명에서 최대 15,000명으로 추정하며 그 외 약 5,000명의 여성들이 관할 바깥에서 매춘을 하고 있다고 본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Moon 1997, Sturdevant & Stoltzfus 1992,

여성들로의 확장에 주안점 있었다. 이 글은 이들 여성운동가의 관점에서 이들의 기지촌 여성운동에 대한 고민과 문제 의식을 중심으로 서술되었다. 때문에 기지촌 현장에서 일상적으로 투쟁하고 있는 매춘여성 출신 현장활동가들의 목소리를 거의 드러내지 못한 한계가 있으며 이는 이후의 연구 과제로 남겨 둔다.

2. 기지촌, 다시 나올 수 없는 곳

현재 미남(以南)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가 어느 곳에 몇 개인지 정확히 알기는 매우 힘들다. 1992년 '주한미군의 용산이전 설계시안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래가 되어 만들어진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와 '우리 땅 미군 기지 이전기 전국 공동 대책위원회' 등 관련 단체들으로 미군기지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기 문제고 있다. 국가 기밀, 군사 기밀에 해당된다고 하여 정부나 주한미군 관계 당국으로부터 자료를 구할 수 없기 때문이다.

1998년 현재 미남의 미군 기지는 서울, 부산, 대구, 울주, 인천 등 전국 주요 도시와 충남 당진의 평택선, 경기도 화덕성, 세주도 송악산 등 총 36여 곳으로 추정된다. 주한미군은 지속적인 감군(1992)으로 지금은 36,400명의 미군이 근무하고 있고 미군 기지의 기지 시설 면적은 총 8,026만평에 이른다.(정유진,김동성 1997) 이는 1987년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가 국방장이 자료에 근거하여 밝힌 것이다. 1990년 동아일보 특별취재반의 자료로는, 미남의 미군 기지 면적은 약 1억 만평으로서 이는 정서, 전남을 제외한 여기 면적으로는 보면 전체 남한 영역 17.3%에 해당하는 크기이다. 분국민의 주거 면적(1억 2, 800만평)에 버금가는 땅을 한국 정부의 정책적 지원 아래 미군이 무상 점유하고 있는 셈이다.(주한민족연구센터, 1990) 1990년대부터 미국의 예도남 전쟁 예책, 미국 내 반전운동, 소련 백 선택의 중상, 미국 정책적의 상대적 약화 등의 영향으로 주한미군 철수설이 나돌았다. 1990년 7월 20일 당시 미국의 나순 대통령은 '윤 독트린'(나순 독트린)을 발표, 박정희 정권을 통한에 들어넣었다. '아시아의 방위는 아시아인의 힘으로'라는 말로 압축되는 윤 독트린은 주한미군의 철수를 예고하는 것이었다. 1990년대 말에 약 8만 2천명이던 주한미군은 7년 3개, 2만 여명이 철수해고 이후 지속적으로 감군과 보강(90년대 페이진 정책)을 거쳐 오늘에 이르렀다.(강성철 1999)

어느 시대, 어떠에나 매매춘의 매매춘 업종기는 없었다. 그러나 한국사회에서 현재와 같이 매매춘이 구조화, 정책적으로 인정하게 된 것은 일제 시대의 식민지 정책과 한국 전쟁, 미군의 주둔 때문이다. 특히 군대의 주둔은 국가가 정책적으로 매매춘 지역을 만들고 관리하게 되는 계기가 된다. 근대 한국 매매춘의 역사적 뿌리와 대중화는 일본 제국주의의 공창(公娼) 정책이다. 일본은 조선을 침탈하면서 자국의 매춘여성을 대거의 조선사회에 유입을 형성하고 업체 확대시켰다. 이에 국가는 1910년 '유곽업 장기 허제 규정'이라는 매매춘에 관한 법을 만들어 공창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서후 1916년 일제는 경무총감부령으로 '유곽업 장기 단속 규정' 실시하였다.(김영우 1998) 일본의 합법적 공창 제도의 폐실은, 매춘업 국가허가(公許)제와 매춘여성에 대한 성병 검사제도 실시이다. 일제는 식민내에 조선내 일본인 거류지에는 이로 유곽을 설치했지만, 조선에는 주택가에 산재한 매춘업소를 공인함으로써 결국 조선사회 전반에 매매춘을 확산시키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였다.(송연옥 1992)

공창 제도 확립 과정에서 매춘여성에 대한 성병 검사가 일관되게 중요시 된 것은 성병 예방이나 매춘여성의 건강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성적 도구'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동시에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의 통제를 용이하게 하려는데 있었다. 현재 기지촌 여성에 대한 성병 검사 제도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성을 사는 사람에게는 성병 검사를 하지 않고 파는 여성에게만 검진을 의무화, 강제하는 것은 성매성병을 전혀 예방할 수 없다. 이 같은 성병 정책의 이중성은 미군의 AIDS 예방책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기지촌 여성들은 에이즈의 원인이 아니라는 결과일 뿐이다. 그러나 매춘(業務)을 하는 남성들에 대한 성병 검사는 세계 어느 나라에도 없다. 미군 당국과 한국 정부가 기지촌 여성의 에이즈 검사를 확산해 두어, 기지촌 여성들도 남성들에게 검진을 요구할 권리가 없다.

해방 후 미군이 새로운 점령군으로 주둔하면서 기지촌에는 미군의 기지촌 여성, 그들을 고객으로 하는 서비스산업이 미후하며 성변을 형성하였다. 외국인 전용 술집, 미군 부대에서 흘러나오는 물건을 거래하는 일명 아케이드(dark market), 양갈비집, 호주, 이발원, 세탁소, 일회일, 양품일, 사진관, 기념품점, 호텔화원, 양구원, 국제결혼 중개업 이루소, 변역소 등을 무대로 기지촌 문화가 형성되었다.(김현선 외 1997)

주한의 시한 일대의 소위 '하리하우 무대'(Camp Hialeah)와 매춘대의 단각무대, 방일동의 미 5보공병, 보광동 기역의 군산의 이태리가 바로, 행복군 동두천을 선정의(행복는 의), 무형 등은 대표적인 후방의 기지촌 도시였다. 포천, 동두천, 의정부의 캠프, 파주의 용주골, 군산의 신흥리, 서울 용산의 미 8군 기지, 이태원, 부평동 등도 기지촌으로 유명한 곳이다. 특히 캠프촌은 기지촌을 일컬적으로 표현한다. 캠프촌은 '한번 들어가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곳'이라는 뜻으로 생기도 의정부시 캠프 스탠리(Camp Stanley)주변의 기지촌 매매춘 집결지를 일컫다. 캠프촌은 의정부 시내 버스를 타면 정거장 이름으로도 표시 된, 이 지역 에서도 공식화된 지명이다. 현재 시행의 캠 기지촌들은 단속이 심한 서울을 피해 대체한 국내 매매춘 업주들이 정착하여 국내 매매춘 집결지로 유명하다. 매매춘 업소가 한 곳에 모여 있는 것은, 포주들은 매춘여성을 감시, 통제하기 쉽고, 행정당국은 단속하기 쉽기 때문이다. 매매춘 집결지는 다른 사회와 구분되어 매춘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한다.

기지촌 여성들의 주변에 의해면, 기지촌 여성들에 대한 정국 정부의 미군 당국의 통제는 1950, 60년대보다 70, 80년대가 더 심했다고 한다. 50, 60년대 한국 정부는 기지 내 매매춘 문제를 일차적으로 미국의 문제로 보았다. 90년대처럼 국가와 국가간의 문제로 여기지 않았다. 제다가 분루의 극심한 가난은 한국 정부나 일반 국민들이 기본적으로는 매춘여성을 이난했지만 일정 정도 공감하고 동정할 수 있는 사회적 배경이 되었다. 60년대 한국의 베트남 참전은 한국이 미국과의 관계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하는 계기가 되었고 베트남 전쟁에서 한국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미국은 주한 미군에 관한 협상에서 한국 정부의 입장을 우선할 수 없었다.(Moon 1998)

그러나 베트남과 아시아의 전쟁 상황으로부터 미국의 이익을 위하는 낙은 독트린과 아시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감소는 상황을 역전시켰다. 주한미군의 감군은 곧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의 위기를 의미했다. 주한미군은 한국 정부에게 기지촌의 문제 재선을 양당하게 요구할 수 있게 되었다. 미군간의 폭력 강탈, 미군과 한국인간의 인종적 갈등, 미군 병사들에게 만연한 성병, 기지촌 시설의 비위생적인 상태, 일수 등에 공동대처하기 위해 주한미군과 한국정부는 1972년부터 1996년까지 '군기지 정화 운동'을 벌이게 된다. 1971년 여름 미군들의 만행과행로 인해 여론이 날을 때, 미군 당국이 이를 중재하는 과정에서 미군들의 폭언이 바지 나왔다. '기지촌 여자들이 매우 더럽다. 우리는 한두을 구하러온 YMCA들인데 대접이 너무 소홀하다'는 것이다. 이때부터 한국 정부는 체각적으로 기지촌 여성들을 관리하게 된다. 기지촌마다 성병 진료소를 만들고 매주 정기적으로 성병 검사를 받게 하였다. 기지촌 여성에게는 보건증이 주민등록증과 같은 역할을 하게 된 것이다. 한국 정부의 기지촌 매춘을 직접 관리, 단속하게 되면서 정부는 기지촌 여성을 대상으로 "민물매트"의 같은 관계 의식 기구를 조직한다.(김현선 1998)

정부가 매매춘을 묵인으로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현실으로는 미군의 건강을 위해 기지촌 여성들을 관리, 통제하는 것은 매매춘에 대한 이중 정책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기지촌 여성들을 '가장 더러운 여자들'로 낙인찍으면서도 동시에 '피해를 받는 애국자들', 심지어 '민간 외교관'이라고 정의(?)하였다.

기지촌 매춘 여성의 정확한 숫자를 파악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기지촌 매춘 여성 중 합법에서 일하는 성년 여성들만 정부 검사 해당이기 때문에, 이들만 공식 통계에 포함된다. 일명 '언니'(국내 매춘을 업하는 주동적인 매춘 여성), '선화양'(아직 등에 대기하다가 선화도 호출받고 매춘하는 여성), 미성년 매춘여성, '미빠리'(나이 들어 매춘업소에 고용되지 못하고 거리에서 직접 손님을 찾아 매춘하거나 구걸로 생계를 이어가는 여성), 미군과 계약 동거하는 여성의 숫자를 모두 파악하기 힘들다. 해방 후 기지촌 매춘여성의 총 인구를 25만에서 30만 명으로 추산하기도 한다.(김현선 1998) 현재는 보건소에 등록한 여성들의 경우 최소 5,000여명에서 최대 15,000명으로 추정하며 그 외 약 5,000명의 여성들이 관할 바깥에서 매춘을 하고 있다고 본다.(한국여성개발원 1992, Moon 1997, Sturdevant & Stoltzfus 1992,

3. '현장' 출신 기지촌 여성운동가들

조직의 외부에서 기지촌 여성운동의 본격적인 시작은 1986년 3월 17일 외정부시 가능동에 '두레방'이라는 단체가 생기면서부터 이다. 최초의 기지촌 여성운동은 1970년대부터 송탄과 군산 기지촌에서 활동해 온 김연자로 부터 시작되었다고 봐야 한다. 김연자는 1960년부터 1980년까지 20년간을 기지촌 매춘여성으로 살아온 소위 '현장'출신의 여성운동가이자, (이제까지 알려진 바로는) 최초의 기지촌 여성운동가이다. 그 동안 자활 여성단체대표, 학술대회를 돌아다니며 자신의 삶을 증언하였다. 그러는 그 동안 몇 번도 기지촌 외의 일반인 기지촌 매매춘의 실태와 기지촌 여성들의 삶을 세상에 알렸다. 현재 알려진 대부분의 기지촌 여성 관련 증언과 생애사(life history)는 김연자의 증언과 두레방 활동에의 제목된 상당 부분에 의한 것이다. 정신대 문제의 최초의 증언자가 윤정옥순 이었다면 '현대판 정신대'라는 기지촌 성매매는 그녀가 최초의 증언자이다.

그러나 그녀의 활동은 '증언자'의 존재를 넘어선다. 그녀는 한국사회에서 기지촌 여성이 마주치는 다양한 장벽에 대해 문제 제기한다. 기지촌 여성을 '선량 시민'로 보는 것, 동정하는 것, 언어적 상징으로 이미지화 하는 것, 배우주의 집착의 가장 큰 희생자로 보는 것에 모두 반대한다. 오히려 그녀는 한국 사회 내부의 기부장제와 계급 문제를 비판한다. 시회운동권과 여성운동 세력에 대해서도 비판적이다. 그녀는 스스로 말하고자 한다. 그리하여 기지촌 여성도 한국사회의 일원으로 주체화되기를 원한다.

"내가 기지촌에서 25년을 살아왔지만 단 한 번도 그들이(여성운동가) 찾아온 적이 없었어요. 현장의 목소리, 현장을 목소리 없고 서양에 여성운동을 돌아갈 수 있겠어요. 여성운동, 나는 그것이 뭔지 모르지만 우선은 여성운동가고 보면, 섹스트라는 현장여성들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성상실별을 제구하나 우리가이가 아니에요. 기지촌 여성들을 연구 자료에 으려고만 하지 말의 광호한 개인적에는 일하나 노력해 주었나요?" 한일순(1993), "기지촌 생활 25년 김연자씨의 본의 증언 – 내가 겪은 양공주, 미군범죄의 세계" 월간 말지 1993년 12월호[3]

그녀는 우선의 기지촌 여성들에게도 조직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기지촌 여성 자치회가 심해 기지촌 여성들의 권익을 대변하기는커녕 '합법적인 최종 기구'라는 것을 해달스면서 자치회를 개조하기 위해 직접 나서게 된다. 자치회는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직접적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고 조주 등에 의해 만들어진 경우도 있다. 기본적으로는 정부의 과급 지원 하에 운영되어 지역 특지와 포주들이 기지촌 여성들을 통제하기 위한 기구였지만, 조직구성원의 성격, 특정이 누구냐에 따라 기지촌 여성들의 권익을 위한 기구가 될 수도 있었다. 30년대 동두천 지역의 자치회에서는 기지촌 여성들을 위한 직업 훈련을 조직하려기도 했고 기지촌 여성자치회 전국회의가 열리기도 했다.

1971년 송탄에서 미군들이 화대와 기지촌 물가가 비싸다며 인하의 손 타임(short time) 화대를 5불로, 롱 타임(long time) 화대를 20불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는 폭언들을 배포한 적이 있었다. 그녀는 미군들의 화대 배제기에 화대 인하 요구에 대항하였다. 한 명이 낮은 장로 배운 여성들을 조직하여 '우리는 인형이 아니라 인간이다!(We are not stoves! We are human beings!)'를 외치며 미군 부대 앞에서 데모를 벌였다. 살벌했던 혹은 시절, 기지촌 여성들의 작은 권익을 찾기 위한 노력으로 '목청까지 번째'로 불리는 정들이에 살려갔다. 이 때 알린 힘에, 구타, 고문의 경험은 그녀에게 이후 큰 트라우마 울분을 안겨주었다. 그녀는 오랜 기간 자치회 활동을 하면서 포주와 미군들의 끊임없는 폭력, 살인 사건이 아무런 처벌 없이 지나가는 것을 직접 지켜보았다.

1990년부터 그녀는 군산의 아메리칸 타운에서 일하는데 군산은 송탄이나 동두천의 기지촌과는 달리 기지촌 여성에 대한 통제가 심했던 곳이었다. 민간인과 기지촌 여성이 한 동네에 살았던 다른 기지촌과는 달리, 기지촌 여성들을 양 번호가 붙은 소위 '닭장 집'에 집단 수용해놓고 밤 근무제로 높은 담을 치고 경비가 지켰다. 일명 '살이 하얀'이라고 불리는 이곳은 정부가 세워을 시범의 일환으로 50%의 원하고 포주가 50%를 부과한 일제 주식회사 형태의 "여자 파는 회사"였다. 그녀는 그 때 수입은 동료들의 죽음을 지켜보았는데, 드러나지 않은 '총살'이었다.

1977년 8월 12일 동료 이복순(당시 25세)은 목에 칼에나 찔려 심한 상태에서 함께 차 살해되며, 현장 바로 옆에 살던 이영순(당시 28세)이 함께 칼에 살해 당했다. 당시 자치회 회장을 맡고 있던 김연자는 이복순이 죽었을 때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 범인을 못 잡았다고 생각했다. 그래서 이영순의 시체를 발견하자마자 문을 잠이 잠그고 경찰에 신고하였다. 그래서이 수많은 기지촌 여성들이 비군에 의해 비참한 죽음을 당했음에도 세상로 드러난 적이 없었다. 범인은 이 중군 스미콘 해변 타워맨(Steven Warren Townsend, 당시 20세)일명으로 이복순과 이영순을 먼저이 살해한 것으로 밝혀졌다. 스티콘은 이영순 살해한 인정하고 이복순 사건에 대해서는 끝내 무인하였다. 그는 주한미군으로는 최초으로 한국 법정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이후 하루 만에 여러들이 돌에 빠져죽고, 변문가스에 중독 되고, 칼에 마족는 등 별 별 이상이 변당이 목숨을 잃어버렸다.

동료들의 죽음 이은 죽음에 충격을 받은 그녀는, 반도남과 여주병으로 자해를 일삼던 홍순직(가명, 당시 24세)과 함께 살는 집을 모두 팔아 마을 근처 공터에 분막을 치고 일종의 쉼터를 만들었다. 그녀는 분막 안에 '여성인교회'를 만들어 매일 밤 기지촌 여성들을 모아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로 고통을 나누었다. 이들 주민들이 이지들의 활목소리가 시끄럽다고 경찰에 신고하여 경찰이 분막을 철거하라고 압력을 가했으나 끝까지 버텼다. 이후 그녀는 선목신학교에 들어가 본격적으로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가 되어 1985년, 송탄에 '참사랑 선교원'이라는 기지촌 여성 쉼터를 마련한다. 초창 마을들을 위한 공부방, 어머니 영어교실과 문글교실, 선교 활동을 준비하다가, 1986년 3월 하생운동가들과 두레방 개원 활동가 출신들이 공동하여 '참사랑 쉼터'라는 이름으로 정식 개원하게 된다. 김연자는 실질적으로 기지촌 여성과 혼합 마을을 위해 여성을 보호소로서 뿐만 아니라 상담과 증언 활동을 계속하고 있다.

80년대 후반 경기도 의정부 캠프 시역의 5평짜리 일하던 서경어(가명, 당시 20대 후반)의 활동은 기지촌 여성들의 주체성과 능동성, 기지촌 여성에 의한 기지촌 여성운동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5평짜리 허름 주택이도 가장 작게 놀은 포주로 운영하였다. 주로 탁적이 낮고 정자 앞에가 있는 여성들을 고용하여 다른 클럽보다 훨씬 적은 월급을 주면서 이주 장부를 만들어 착취하였다. 서경어는 포주의 폭력에도 굴하지 않고 동료들을 설득하여 이주 장부에 대해 조주에게 항의하였다. 또한 다른 여성들과 함께 몇 갈 기 계를 조직하였다.(기지촌 여성들이 몇개존하는데 있어 가장 큰 어려움은 밤과 친밀 문제이다) 자신은 아는 것을 이야기면서 존중 모아 10명이 넘는 여성들의 번돈 갈아주었다. 이후 여성들이 친밀(酬酌)하기나 결혼할 때 다른 여성들과 함께 도달하(김형선 외: 1997)

일부에서는 김연자나 서경어의 활동을 기지촌 여성들의 '저생적' 투쟁으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 같은 평가는 서생적인 투쟁을 '목적 의식적인' 투쟁의 새림, 콘리시키기나 혹은 특히 의식적 투쟁의 전(前)단계로 보는 시고 방식에서 나온 것이다. 80년대 한국 사회운동의 일부에서는 사회운동을 계급적 투쟁과 목적 의식적 투쟁으로 분리하여 목적 의식적 투쟁의 우월성, 중요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있었다. 물론 여성주의는 이러한 사회변혁 모델 자체가 남성 중심적이며 여성의 경험을 무시하고 소외시켜 온다는 관점이라고 비판해왔다. 운동 방식을 중심으로 한 기존의 사회운동 이론은 여성, 장애인, 동성애자 등 사회적 주변인의 일상적 투쟁을 운동의 주요 영역에서 배제시키게 된다.

기지촌 여성 운에는 이름은 일반적의 일탈적인 시로 몰고 고통을 나누면서 자신의 새로 환경에 대해 일상적인 저항을 해가고 있는 예2, 예3의 김연자, 서경어가 살아 있다. 이들의 투쟁을 기존의 '주류' 여성운동권의 이념과 대가, 방법, 지원해서 될 것인가 고민해야 한다.

3) 한일순(1993), "기지촌 생활 25년 김연자씨의 본의 증언 – 내가 겪은 양공주, 미군범죄의 세계" 월간 말지 1993년 12월호.

4. 두레방의 시작

1986년 3월 17일, 두레방은 문혜림의 후원금에 의해 개원했다. 두레방은 '동두이, 두레'를 세의 두레로 여성들이 서로 돕는 로, 살아라는 의미이다.(영어 명칭은 My Sister's Place) 문혜림은 원래 미국인으로 미국 유학 온 한국 남성과 결혼하여 한국에서 살게 된 여성이다. 그녀는 남편(인중산학과 운동한 학사)이 반주회 운동 관련으로 구속되며, 이프하이트로 이 과정에서 국제 결혼한 여성들을 상담한 것이 계기가 되어 두레방을 열게 되었다. 한국인과 결혼한 미국여성으로서, 여성운동가로서 기지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그녀는 미국 교회 안에서 지원금을 받아 존의적으로 이 일에 뛰어들었다. 문혜림은 90년 12월 미국에 돌아가서도, 미군과 결혼하여 미국으로 건너온 한국여성들을 위해 일하였고 송송순 사건(이 글 으 기지촌 여성의 이해이라 으일 참조) 때도 원선적으로 활동하였다. 그녀의 종교성(기독인)으로서의 동성과 여성을 사랑하는 마음은 많은 기지촌 여성운동가들에게 깊은 영향을 주었다.

당시 문혜림은 같이 일할 상근자를 구하려고 여기저기 사람을 알아보았다. 주위에서 오명생 스타일의 여성들을 추천했으나 문혜림은 이를 모두 물리치고 현장 여성들과 문화적이 뛰어난 유목성을 선택하였다. 유목성은 원산에 출신으로 70년대 민중신학의 영향을 받은 교회활동가이자 뛰어난 여성운동가였다. 두 사람의 상근자를 얻은 두레방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여신도회 전국연합회 산하의 특수선교센터로 출발하게 된다.

한국 여성운동사에서 교회여성들의 두생적 노력은 잘 드러나지 않거나 소홀히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 교회 여성들은 70년대부터 장신대, 에큐온, 여성노동운동, 민민운동, 빈민, 반핵 운동, 통일운동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였다. 특히 장신대, 에큐온 문제는 교회여성들의 선구적 노력에 의해 확산된 광주대프 두레방 역시 교회여성운동의 일으로 시작된 단체다. 두레방은 기지촌 매춘여성들의 곡해 결혼한 여성들의 스스로를 해방하며, 외국남이 주인 존재의 인간다운 삶을 양하기도록 돕는 것을 선교의 사명으로 하였다(초기 창립초에서 인용) 초기 후원자들은 거의가 교회여성들이었다. 개별 교회, 지방 여신도회 회원들과 이후엔, 이화요, 김경희, 박순금, 박용심 등 당시 교회여성운동의 지도자들이 거의 모두 참여하였다.

이러 교단 중 특히 한국기독교장로회는 인종신학의 근거지로서 선교적 교단으로 유명했다. 그래서 이는 누구도 예춘여성을 '선교의 대상'으로 생각한 교회는 없었다. 기지촌에서 교회를 운영하는 대부분의 (로우커인)목회자들은, 매춘여성을 회개해야 할 죄인으로 취급하고 회개하게 열등감을 양교하였다. 심지어는 어떤 목사는 매춘여성은 가장 죄를 많이 지은 인간이므로 가장 많은 헌금을 내야 한다며 거난한 매춘여성들에게 심일로 헌금을 양요하기도 하였다.

두레방을 의정부 지역에 세운 많은 이정부의 동두천이 대표적인 기지촌으로 기지촌 여성의 수가 가장 많았기 때문이다. 또 서울에서 가장기 때문에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가 용이할 것이라고 생각했다. 두레방은 처음부터 선교적 이명과 동시에 매춘여성운동, 제 3세계 인권운동, 여성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했다.

"기지촌 여성들의 문제는 그들만의 문제가 아닌 모든 여성의 문제... 우리나라 여성을 뿐 만 아니라 미국의 여성들도 손잡고 노력해야... 한국과 미국의 교회 교육이 필요합니다. 제 3세계 인권문제, 특히 매춘여성 문제에 관심을 가진 피국인, 특히 미군 기지가 있는 제 3세계의 운동가들과 자료를 주고받으며 공동대처하고자 합니다... 두생보다도 현장 출신의 실무자 양성을 위해 애씁니다. 자신의 삶적은 경험을 통해 이 의식화된 여성 실무자야말로 이 일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다고 믿어 때문입니다."(두레방 회지 1호 후에서)

4) 교회여성운동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서형숙(1992), [한무교회여성연합회 20년사]와 한국여성단체연합(1995), [열린 희망 – 한국 여성 10년사] 중 연미영, 김은숙, 심미영의 "교회여성운동"과 한명숙의 "통일 평화운동"을 참조.

두레방의 주요 사업은 상담, 영어교실, 공동 마사, 학습, 회 매춘을 위한 쉼터(緩衝) 사업, 기지촌 활동이었다. 그 동안 두레방에 기지촌 여성들은 자신의 사연을 털어놓을 만한 대화 상대자가 없었다. 이들을 '인간'으로 존중하며 동등한 자격에서 얘기 할 수 있는 사람은 많지 않았다. 기지촌 여성들이 주이의 폭력, 살인, 주독, 자기 학대, 자포 자기 속에서 자신을 스스로 어둠에 갇은을 알기란 아주 쉽게 이뤄졌다. 두레방 활동 초기에는 두레방을 찾아오는 기지촌 여성들을 포주들이 가로놓고 얘기하나 협박했기 때문에 기지촌 여성들은 심지어에서 두레방 활동가를 만나도 입부터 포주는 적극이도 하였다.

두레방의 프로그램 중 특히 상담은 기지촌 여성들이 자신을 객관화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되었다. 상담을 통해 인간적인 존재의 고무이 의미를 알게 되었고, 자신의 경험에 대한 재해석이 가능했다. 자신의 뜻 없고 가구한 인생이 '운명적' 숙명적 자신의 탓만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비로소 자기 존중감을 회복할 수 있었다. 두생보다도 많은 기기도 하였에게 재정과 운동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프레레가 이들에게는 새로운 경험이었다. 두레방의 회원들은 일반 여성운동 단체처럼 회비를 내고 활동하는 회원이 아니라 두레방의 번째를 맞고 도움을 주고받는 여성들이다.

영어교실은 영어를 통해 미군들에게 희해를 배우는 등 돌이적을 방지하고, 국제 결혼한 여성들이 남편과 대화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었다. 미군들을 위한 한국어 교실도 시도했으나 호응이 없었다. 공동식사는 생계가 막연하거나 식사를 제때 못하는 기지촌 여성들과 함께 식사 준비와 식사를 하는 프로그램이다. 이밖에 초창 마을들을 위한 공부방, 놀이방 운영과 대학생들의 기지촌 활동, 성병 프로그램으로의 두레방 백 사업, 기지촌 여성의 삶을 알리는 각종 강연과 회의 발간 등이 있었다.

5. 기지촌 여성의 사망기

두레방은 상담을 통해 기지촌 여성의 삶을 구술하거나 수기를 회지에 실었는데, 그 내용은 실로 충격적이었다.

"어느 날 갑자기 결단하면 한 달에 300만원을 벌 수 있다고 했다. 빚 때문에 포주에게 꼼짝 못하고 있던 나는 포주를 따라 포함마을 내려갔다. 한 겨울이었는데 눈이 배기에 촌락을 한 가건물에 들어가 하루 20-30명을 상대했다. 맛날 큰 룸라(텔스파시장)일을 때 그런 식으로 미군들의 술집 포스를 따라다니며 장사를 했다. 나는 그 유혹에 넘어들 하고 자연유산을 해서 심하게 하혈을 했지만 때춘을 계속했다. 그때 몸을 많이 망쳤다..." – 김현선 (1997), [기지촌, 기지촌아보, 존할아줌 살아온 사회](미간행), p.61-62.

"내 이름을 해외 첫 번째 기지촌 업체를 찍어 먹인 업이어요. 나를 낳자마자 우리 친부모는 고아원에 보냈는데 저이만을 먹고 나면 보모들이 돌을 던 주는 거예요. 돌을 먹이면 업에 오줌을 먼이니요... 내가 여섯 살 때부터 고아원에서 뛴 일은 모난 돌덩이들에게 주먹을 먹이는 일이었어요. 보모들이 주는 돌을 주고 나가면 아기들이 돌고 있던 주먹 먹기를 멈춘 때서 내 업에 넣었어요. 나는 항상 배가 고팠어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선아도의 어느 교장 선생님 집으로 입양되었는데 고해들은 생인 입양이었어요. 내가 그 집에 가보아야 입해한 가정부의 비슷을 내보내고 또한 입한 일을 내게 시켰어요. 학교에 가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 되었어요. 고아원 에 다닌 국민학교 3학년 (학기가 지났하여 내 학해의 전부예요. 남의 집일도 많이 해주었어요. 그래야 주어 쉽 일할 때 이웃집 일손을 빌릴 수 있으니까요. 봉사부 회장이요 우업이 많았어요. 나는 스물 일곱 먹은 지금까지 돌을 제주하랑 무루이고 있죠. 영어 일은 입어있는데 나에게는 영어 같았어요. 지금도 변호하게 누루면 돌란해서 생어 언은 달니다. 스무 살이 되던 해에 나는 [달이에게지에게 강간당했어요. 영어가 눈치를 볼 것 같은데 저만 혼일 난 생일이 되지는 하얗에 서울로 와서 살에 언도는 공장에 취직했어요. 그때 동해 오빠가 세 월급에서 2,000원만 빼고 다 가져갔어요. 나는 20살이 되어서야 월경을 했어요. 2,000원은 생리대 살이었어요. 2년 동안 월 십하 일했지만 존은 한푼도 저축하지 못했어요. 그 공장 사장님이 내를 기독하게 보아 서기 공장주일

결혼시켜줘서 그에 보답으로 무언동족생을 만들었어요. 알고 보니 그 남자는 이미 동거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그리고 집행하던 저를 무릎에 꿇고 쓰기은 각형을 얼굴에 붓고... 저는 갈 곳이 없어 울기만 했어요. 남편은 제 돈을 빌어오기 없느냐며 성화에서 임신한 몸으로 아을 먹어가며 공장 일을 했어요. 돈 달라 해서 너무 싫어 욕이 아을 많이 먹었는데 정확히 아이가 배어났어요. 남편의 폭는 이후 심해지고 병은 어이를 낳은 나는 고제를 될 수 없었어요. 두 달 동안 집에서 부당한 돈 10만원을 아이 앞에 두고 무작정 올라 집을 나갔어요. 여성 월간지에서 본 광고에 영도 제목주로 찾았요. 투쟁다가에 문학하니 여성 이용이가 목이 저를 이른 남자에게 넘어지군요. 그렇게 해서 가게 된 곳이 한산, 기지촌 이었어요." - 두레방 회지 3호 "살지 말라 할것이다?"중 발췌

"현재 그녀는 법술대까지 다녔고 영어도 보로큰이 아니라 해도 될 정도에요. 고등학교 때 가출을 반복했던 부모님의 전일투가 부모님이 없는 사이에 그녀를 강간했어요. 고등학교 졸업 후 혼모가 될만 하산을 숨길 수 있는 곳, 과거를 아무도 모르는 곳을 찾다가 기지촌까지 왔게 되었어요. 기지촌에 와서는 물랐보다도 두려운 사람들과 더 친하게 지냈고 적응하면 해준은 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미군 한사를 만나 사랑에 빠져 혼인신고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 미군은 부대를 그날 나와서 발령 받목도 이슨하게 되었고, 돈도 빌지 않고 늘 그녀앞에는 못산다고 해달라는 사람이었어요. 그럼부터 그녀는 서울로 나오서 막노일이 돈을 벌었어요. 아무고고 생활하여 경험한 그녀는 아이가는 몸병 그 미군을 찍어 살아야 될 것 같아서 미국에 있는 시어머니에게 전화해서 도와달라고 했어요. 시어머니가 자골양에 동정이고 거짓말로 아들을 설득해 귀국하도록 했어요. 그녀는 다시 한국 미군을 들어갔는데 아버지는 알아 놓고 임신가 생계를 무리 거는데 아들은 본명은, 될이 많아서 집안 형편이 어려웠어요. 어느 날 아버지가 그녀를 부른이니 돈을 달라오라고 소리를 지르면서 '어지된 너는 그런 될 아니니'라 다정을 나가르지, 술집에 가라고 했어요. 그녀는 그날로 집을 나와 다시 기지촌으로 들어와 매춘을 시작했어요. 거기서 미군 흑부남을 만나 동거가 위험에처하도록 만해를 받는데, 물론 그 미군은 아픈했다고 늘 그녀를 안심시켰어요. 그녀는 미군을 사이에서 누구와 아이은 적하면서 돈을 벌 수 없게 되었어요. 문제는 그 미군이 변곡을 하나면서 그녀에게 물급을 선언한 거예요" - 기지촌 활동가들의 인터뷰에서.

"결혼에서 일하는 동안 가장 큰 문제는 폭행이다. 한 번은 도개월 째 남대를 한 적도 있었는데 그 아이를 보니 사람이 멀해를 다 당주고 없어서 무척 비슷이 아팠다. 나는 남대를 열 여섯 번 정도 했다. 폭지인 남대를 하는 것보다 이 지도은 것은 일인 중에는 물론이고 남대한 다음 남대도 다시 해준을 하는 일이다." - 김정선 열아(1990), "나의 살아온 이야기" [포대한 군대, 한대한 이야기], 정유진/유대희 공편 (미간행)

기지촌 여성들의 남대 문제는 심각하다. 한국여성개발원의 조사에 의하면 조사 대상(877명) 기지촌 여성 중 성병 감산경험 경험이 없는 경우는 23.5%, 1회가 40.9%, 2회가 20.1%, 3-4회가 30.5%, 5회-10회가 7.6%, 10회 이상이 1.9%이다(나은국여성개발원,1992). 이런 여성은 우리 25회의 남대를 했는데, 그 이유는 '회기기지촌에서는 혼할 이동을 'ball-person'이라 부른다]를 이 때문에 때라도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Moon,1997)

"혼혈아의 엄마인 유선아씨(가명, 30세)는 동두천의 D클럽에서 18만원의 월급을 받아 10만원은 방이소에 내고 8만원을 가지고 여성과 생활하는 매춘여성이다. 그녀는 96년 5월 20일 4시에 미군 집 앞에 찌는 시고를 당했다... 그녀는 몇 분간 기절했다에 운전을 하던 미군은 그녀가 깨어나자 곧에 약 30분간 인공호흡 하여주고 그날 가버렸다. 그녀는 남편지면서 아이를 다돌고 온 몸에 이빠상을 입었다. 그녀는 자신이 술을 마신 상태였기 때문에 자신의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가해 미군 또는 경찰 조기했다. 두개골 은 사고 넷 미군을 잡고자 했으나 그녀는 거부했었다. 그 당시 기지촌에서는 성범죄 매춘여성들이 미군 범죄를 신고하면, 미군들이 신고한 여성들을 협로 폭도하거나 구타, 강간하고 클럽의 주인가 만에드록 요 폭해왔다. 여성들이 당해도 포주들은 여성들의 편이 되는 것이 아니라 경식을 방관하고 협신적, 폭해적으로 괴롭히거나 다른 기지촌에 팔아버렸다. 심신적하는 이런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다." -두레방 회

이 13호 "교통사고도 신고할 수 없이니..." 중 발췌

"20대 초반 기술한 후 클럽에서 일했다. 같은 클럽의 여성들과 미군 손님을 서로 뺏고 뺏기는 갈등이 있어서 힘들어 하다가, 술에 취한 포주에게 구타당한 다음날 도망쳤다. 빈 배준에 다른 방법이 도움을 받을 수 없어서 성매매기지촌 활동가)의 함께 여관을 전전했다. 이후 제과점 등에서 일했으나 새로운 직업에 적응하지 못하고 본 일을 해주지 못했다. 결국 미군은 한국 술집에서 일하고 있다. 많은 노동을 주체 두려워한다. 성매매는 동안 가족 사람들은 주고 볼 만나서 힘든 일 해지 않고도 놀면서 사는데 나는 왜 그렇 수 없느냐, 나도 그런 사람들처럼 살고 싶다'는 말을 많이 해했다. 그녀는 가난이 배준원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배준을 통해 만족하는 미군들과 안전관계로 맺고 싶어했다. 미군들은 이런 심리를 알고 회재를 이용하지 않고 동거하면서 그녀를 이용했다. 심정적이 성장과하 자신을 비교하면서 열등감에 시달린다. '대학을 졸업했다, 부모가 부자였다' 등의 거짓말도 자신을 다른 기지촌 여성과 구별하고자 한다." - 80년도 제승의 시절 정가 사회(미간행) 중에서.

그들의 인생 역정은 한국사회의 가치 모든 작업을 드러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모순의 총 집약이다. 그들이 살은 기지촌 여성운동이 여성운동이라 해제한 관점 운동, 성폭력 반해운동, 가족운동, 빈민운동, 택시운동, 노동운동, 군축, 반미, 통일운동, 혼혈인의 인권운동이라는 대명하고 특정한 과제를 동시에 안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특히한 그들의 생활한 목소리를 과제의 들어보면 기존적으로 여성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게 된다. 한국사회에서 고정된 여성의 역할(gender)과 이중적인 성(sexuality)등이가 이 여성들에게 얼마나 폭력적 고통을 주는가를 여실히 보여준다.

6. '기지촌현장활동' - 기지촌 여성운동과 학생운동

기지촌 여성운동의 시발을 아반하고 지속적으로 제정적, 조직적 도움을 주었던 세력이 교회여성운동이라면, 사람을 확산시키는 데에는 1세대학생운동권의 반대가 큰 역할을 했다. 두레방 활동 중 가장 주목할 만한 것은 기지촌 활동(이하 기활)과 최 매준을 위한 연합(網羅) 사업이다. 기활은 노활(농촌 활동), 민활(빈민 활동), 문활(문화 활동)처럼 새학생활이 처음 기지촌을 방문, 기지촌 여성단체(두레방, 새움터)의 활동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운동의 변화 사업을 말한다. 기활은 80년 여름 이화여자대학교 학생들이 처음 시작하여, 90년부터는 서울지역대학생대표자협의회(서대대협)에서 '프로사업'의 일환으로 공식 참가하였다. 이후 전국 각지의 대학으로 확산되어 운학생회, 총여생학회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90년부터 96년까지 9년 동안 남녀학생 연인원 2,000여명이 참가하였다.[9]

기활은 기지촌 문제를 대학가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고 이는 곧 기지촌 여성운동의 새로운 확산과 기지촌의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 이때부터 두레방에는 대학생 상담의 원고, 많은 프랑이 몰릴 등 들어왔다. 기활을 통해 기지촌 여성운동은 두레방 뿐 만에였어 여러 활동가, 후원회원을 조성할 수 있는 장소만 새로 마고를 마련할 수 있었다. 또해 기지촌 여성운동가들도 새로운 기활을 통해 기지촌 여성운동을 또 성하게 된 경우다.

운해방, 송목남에 이어 90년부터 기지촌 여성운동을 맥으로 있는 김행선(새움터 대표, 前 두레방 이우국장)은 87학번으로, 90년대 학생운동이 전형적인 세대에 속하면서도 기존 학생운동문화와는 다른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다.

"4 학년 때 저는 학생운동을 정리하려고 했어요. 그때는 3학년, 4학년 운동(출방 투쟁도 학생운동에 남아 후배들을 지도하거나 시중한, 전략할 등 상당 학생회에서 일하는 것)이 운동이었는데 4학년 시작하려하는 활동을 그만두니 생경의 특별없고. 저는 문제점이 출발 후에 많과 행동이 다르게 하는 데 많이 실망했어요. (노동)현장 들어갔다가 실망 나오고, 공장 이후 생각 없이 시집가고... 저는 제생 할 수 없는 운동을

---

10. 두레방은 기초이라 기활을 포함, 주기장

"우리는 왕왕 우리사회가 비극에 비해 정치, 경제, 문화적으로 퇴지우기 당하는 사건사람을 많게 되지만 기지촌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기지촌 사람에 대한 예정 이전 논일에서 출발해 인격사람의 마음을 찌르고 주변이군들의 막말한 언행을 통해 미국 논들의 존경과 반이기 때 이시대 최고의 예국인지를 배워 줍니다."[11]

이들처럼 아직도 일부 학생운동 세력은 (여성적이 대학 내에서 이는 정도 대중성을 확보하고 있는 90년대 후반에도) 한국사회의 가부장제, 민산에에, 상록에서 '이 세국주의'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이 등 세는 90년 운동이 이런 인행 과정에서도 발생하게 드러났다.

'한국전쟁의 기원'으로 널리 알려진 미국의 역사학 한국학자 브루스 커밍스(Bruce Cumings)는 1997년 평화통일심판원 라격으로 한국을 방문하였다. 당시 그는 '미국 남북'에 당선한 연사로서 '한국 여성'의 성적 서비스를 공유하는 한국사회의 문화기를 도시하면서 기업하느라 예를 먹었던 경험을 기술하였다[12] 초밥에 투숙할 때, 방이 정식 될 때, 미군 부대를 방문할 때, 연구를 위해 방지조사 갈 때 등등 기는 곳마다 "여자가 필요하지 않느냐, 여자를 불러다 주겠다"는 한국인, 미군들의 강권을 받았다. 그는 후고에 "한국 주미(Confucian Immaturity)가 강한 한국에서 왜 그도록 항력, 여성 문화가 번영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는 한국의 미국의 중속 관계를 남녀의 성적 중속 관계에 비유했다. 미군이 절주하면 한국의 미군은 이를 존중하는 문화가 될 것이며 "언제든지 돈만 주면 될 수 있는 한국 여성(available women)"을 놓고 미국의 많은의 남자들이 더 많은 특권을 가질하였다고 경멸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보았다. 당대국은 남성이고 약소국은 여성이기 때문에, 두 나라가 평등해진다면 매매준은 없어질 것이라는 것이다. 동맹, 제3세계, 약소국을 여성화(feminize)하는 이 같은 언제는 전보적 남성들이 기지촌 매준을 바라보는 일반적인 시각을 대변한다.

그러나 기지촌 여성운동가, 기지촌 여성들의 주인은 위와 같은 관점을 명백으로 반박한다.

"언제 오순이 없다는 데 아니라 문제는 통일이 되어도 이 여성들(기지촌 매준여성)이 매학을 포함느냐, 매준이 없어지겠느냐 이죠. 한미제인 조정을 받은 (남자)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우리가 도울 받은 점도 많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기지촌 여성운동이 '매준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지촌 매준과 국내 매준의 차이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많이한 사람들이 미군기지 반환 운동을 열심히 해서 기지가 없어진 대신 더 큰 할하산업이 생겼는데 저는 우리도 이럴 수 있다고 생각해요. 미군이 철수한다고 이 여성들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고, 10년째 미군 철수 반대 데모를 기지촌 여성들이 했던 것도 당장에 이 여성들은 미군이 철수하면 생존의 근거지를 잃게 됩니다. 기지촌 여성운동은 우리사회의 매준문제부터 해결해야 해요." (기지촌 여성운동가와의 인터뷰에서)

"...그녀는(김선자) 한이 주장에 기지촌 여성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을 해할 때 공분한다. '미군은 나쁘고 양공주는 불쌍하다' 그러한 단세포적 시각으로 미군 범죄를 보면 논리의 비약을 가져온다... 결국은, 백이신하이로, 당기로, 이어으로, 미국도 이여름을 이런속에게 하지는 동안 조선의 시대부들은 만명에서 사람을 가느리고 하내를 해외의 팔았는가? 매산들은 군대가기 전에 하지 뱃다고 사동가로 돌려가면서 정남방 신부의 이너하을 비방하는 사람들은 누구인가?...정해니, 최준에 등보신에 우방인 남자들, 멀이고 싸게고 어린이고 가리지 않고 강탈하는 그들의 정책... 조금 큰 실에 피멍다고 매국으로 몰으로 목에에든의 대생에 전 남자들...기지촌을 매해시킨 구조적인 문제에 많이, 레에스 카를(초군이 살해했)에에 돌을 던지기 앞이 나는 이 나라 남자들이 먼저 눈으기 바란다."[13]

---

11. 전남해/조선대기지촌탈방단운비위원회(1996), [기지촌 탈방단 자료집 - 너희가 돌아나서 우리가 산다!](미간행) p.3
12. Bruce Cumings, "Silent But Deadly : Sexual Subordination in The U.S - Korean Relationship", [미대한 군대, 한대한 이여지], 정유진/동대희 공편(1996),(미간행)
13. 안일순(1993), "기지촌 생활 20년 김연자씨의 몸의 증언 - 내가 쓰은 양공주, 미군병의의 세계" 월간 말엔 1993년 12월호

문제이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클럽보다나와 식당에도 여성 아니야 보니, 여성운동이 여성의 갈등이요. 4학년 끝에 우연히 한기예신문에서 김어경 기자가 쓴 두레방에 관한 기사를 보았고, 막연한는 여성들이 회생을 갖고 산다는 데 너무 감명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두레방에 찾아가서 자원활동을 했고 그렇 여름에 학생회 아인을 이용해서 회날 만나랑 비는데 3주 동안 기활을 처음 시작한 거예요. 당시에는 여대인데도 여성문제에 관심 있는 여동이 별로 없었어요. (여성운동은)시시해서, 왜 노동운동을 해야지 그런 질하나는 거죠. 학생운동 하면서 여성문제에 관심있는 여동, 운동권은 아니지만 화학고 양심적으로 살려는 여동이 주로 참가했고 호응이 대단했어요."

기활에 참가하게 된 학생들의 동기의 과정을 정확히 제작하는 문제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여학생과 남학생, 대학의 소재 지역, 각 대학 기활의 역사, 여성위치에 따라 다양한 차이가 있다. 기활에 참가하기 전에 학생회 리중에서 심각하는 사회 교육은 관련적으로 반이에 대한 내용이 많으면다. '송가하이 우리 사도 여국 해결'이라는 식으로 모든 문제를 여국 방으로 돌리는 경향이 강하다. 교육 자료집을 만드는 사람들은 학생 운동가인 반면에 실제 기활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소위 일반 학우들인 경우가 많다. 학생운동에서 반미운동은 여국의 주장하이고 반면적이기 때문에, 사실 기지촌이라는 구체적인 현장을 통해 반미를 고민하는 학생운동가들 조차도 극소수지만 이미미나하게도 등시에 학생들은 반미의 의문에서 기활에 참여한다. 예준에 학생들은 같은 매준운동단체라면 '윈스의로'에 참동에 대해서는 거의 무관심하다. 따라면 기활에 참가하는 학생을 대다수가 여학생들이고 남학생들은 주로 학생운동권이 아닌 상대적으로 적하고 운한 '여성적인' 학생들이다. 이들은 모두 여성문제에 관심이 많은 경우이다. 이들은 반미 문제 외에는 기지촌 매준은 정당에 심근할 여인 계상 활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자신들이 기활에 참가하는 이유를 제대로 정지회시키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대학과 기활 경험이 많은 대학을 중심으로 기활을 여러모는 기존의 시각에 대해 스스로 문제 제기하는 학생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 이들은 일상적인 문제와 정치적인 또, 여성문제를 분리하지 않으면서 90년대 초반까는 다른 모습을 보인다고 한다.

농활에 이어 기간은 짧지만 기활은 많기 학생들에게 많은 영향을 미쳤다. 그들은 우리사회의 '가장 낮은 곳'에서 여로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다. 이제까지 정리한 모르로만 생각했던 성(sexuality)이 기지촌에서는 적나라한 일상이 되고 공존하 되는 것을 경험한다. 남녀 학생 모두 기지촌 여성을 앞에서 비난적인 자기 모습을 발견하고, 성폭력 (미제, 기해)경험 등 이제까지 심과 관련한 자신의 경험을 새해석하게 되는 경우다. 이들은 기지촌 여성들에 동는다, 교육하여 끝다가 오히려 자신과 우리사회의 모습을 배우고 여성문제에 대해 생각하는 입중의 여성의식향상 경험을 하게 된다. 기활 프로그램은 우리사회의 성문화와 여성문제를 생각하게 하는 대중운동이 되었다. 기활에 참여한 많은 학생들에게 기활은 대학생활 중 가장 인상적이고 중격적인 경험이었다.

사실 우리사회의 반미운동, 민족주의 운동에서 기지촌이라는 현장은 별로 주요하게 인주되지 않는다. 이 같 방법에 대한 관심으로 '기지적인 것, 문화적인 것'을 놀적하려는 시소한 것으로 취급받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80-90년대 대학가에서 그토록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반미 운동, 통일 운동이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운동의 성격가 기지촌 여성운동의 역량 강화로 이어지지 못한 것이다. (사실 80년대 학생운동세력은 두레방의 존재조차 몰랐다) 그래서 기지촌 여성운동의 현장은 반미운동이, 활발했던 80년대에도, 소위 '여성운동이 없다'는 90년대에도 여전히 열악하다. 이러한 관점은 여대생들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90년대 초 중반 들어 여학생 운동을 학생 운동부터가르치는 대학내 '여성'운동으로 규정하는 새로운 주체들이 등장하고 있으나, 아직 전국적이지는 못하다.

'여학생 운동은 두분 계열 운동... 65년 이후 이제가 남편을 강점하면서 가해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분할 통치를 고안했고, 이중 하나가 여성업을 구실로 해서 순종적이게 하는 이데올로기를 만들어냈고... 여학생들은 20대 초반이기 때문에 많이 희생 운동의 무산물인 민산세력, 성폭행의 위협에 노출되어..." [1]

---

[1] 정지아(1998), "지주적 여학생 운동이란 무엇일까요?", [송 정치학총여일문주한회개로집](미간행)

7. 빛과 희보 – 딸 매춘 전업 사업

두해방은 1989년 10월부터 기지촌 여성들의 딸 매춘을 위한 전업사업으로 뽕 사업을 시작한다. 매춘여성운동의 중요한 목표 중의 하나는 매춘여성의 매춘을 그만 두고 다른 직업을 가지도록 돕는 일이다. 매춘업(買春業) 자체를 퇴치시키고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을 강화하면서 여성들을 압박 수용하는 기존의 정책은 딸 매춘 정책이 아니라 매춘여성 처벌 정책이었다.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한국여성개발원 1992), 이 책적은 우리사회의 매춘여성에 대한 일반적 통념을 그대로 함축하고 있다. 매춘업(買春業)을 윤락(淪落)으로 표현, 도덕적 기준으로 가치 평가하면서 딸 매춘을 사회복귀로 보고 있다. 매춘여성을 사회로 '복귀'시킨다는 의미는 이미 매매춘 지역을 우리사회의 한 부분으로 보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매매춘 지역은 사회가 아닌 장이다. 매매춘 지역을 우리사회로부터 단절하고 그리한 지역에 종사하는 사람(여성)들에게 사회적 성원권을 부여하지 않는 것이다. 이는 곧 매매춘 지역에서는 아무리 문제한 인권 유린 사태가 일어나도 '사회'와 무관한 기준으로 개입할 수 없다는 논리가 숨어 있다. 더구나 여성들은 그런 일 하도록 하는 게 아니냐', '거기는 원래 그런 일이 일어나는 곳'

기지촌 여성운동가들은 딸 매춘에 대한 기존의 입장을 바꾼다. 두해방은 뽕 프로그램에 당시 40여 두 번의 기지촌 여성을 노동자로 고용하고 이후 현장 여성 3명을 더 고용했다. 순 우리말로 만든 무명무개 뽕과 과자를 교회와 학생회를 중심으로 판매하였다. 우리 사회 최초의 매춘 여성 전업(轉業) 프로그램이었다. 상근 실무자들은 장동식사, 상담, 공무업, 놀이방 등 일상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직업 뽕을 돌고 주도자를 일일이 찾아다니며 판매망을 개척했다. 주로 교회에 다는 사람을 중심으로 판매했기 때문에 일요일도 없었다. 안정적인 판매망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매춘여성들이 만든 뽕이니까 더 잘 팔리고 안 먹겠다는 사람도 있었다.

당시 두해방은 노래주 일본의 시장과 일반 소비자 들에 대한 구속 피켓, 서간 주석 및 탄압을 받고 있었는데, 그 표면적인 이유는 뽕공장이 불법(식품위생법 위반)이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업종은 뽕 만드는 현장 출신 여성에게 급료를 주어 생산을 하내는 이른바 프로적 활동을 시켰다. 질문은 '두해방 실무자들이 돌일 에 대해 알하지 않았는가, 미국이 나쁘다고 말하지 않는가'를 묻고, '대학생들이 하지 무슨 일을 하고 가는가' 등을 조사하였다. 이후 이 여성은 두해방 상근자들과 신뢰가 생기면서 프로적 활동을 그만두었지만 이 같은 사실은 업체상 절루 예하지 제목되었다.

조선동안 기지촌에서 매춘을 해온 여성들이 기지촌을 떠나는 것은 쉽지 않다. 그나마 기지촌 밖에서 이 여성들은 사회적 성원권이 없다. 이런 딸 매춘에 기지촌 여성운동은 더 열려할 수밖에 없다. 최나면 문제가 생겼을 때 쉽게 다른 여성단체의 도움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지촌 여성들은 자신들이 구타당할 때 사무의 기지촌 여성단체의 문간이 좁아도 서울에 있는 여성단체의 힘이로 가려고 하지 않는다. 90년 여름 경기도 동두천에서 수해가 났을 때도 이 여성들은 다른 지역으로 피난가기 힘하고 2일 문간의 매춘의 사무실에서 20명이 함께 지냈다. 매춘여성이 딸 매춘하는데 어려움은 없자 포주로부터 통장(독촉, 협박), 사회적 낙인, 경제적 어려 기반 없음, 건강 문제 등이다. 혼혈 아동이 있을 때 기지촌을 떠나는 것은 더욱 어렵다. 결혼이나 전직 등으로 딸 매춘에 성공했을 경우라도 기지촌에서 알았던 여성들을 만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한다. 과거의 '손님을 만나지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 극대 매춘 여성들의 공포이면, 기지촌 여성들은 자신이 기지촌에 있었다는 것, 자신의 매춘 사실을 아는 사람들을 만나게 될까 두려워한다. '기지촌' 자체가 너무나 큰 사회적 낙인이다. 매춘에 이들은 딸 매춘 이후에도 늘 소외으로 부터 시달려 왔다. 자신의 과거를 아는 남자와 결혼 생활에 성공한 예는 거의 없다

이처 같은 우리 현장 여성들을 고용하지는 합법적인 두해방의 전업 사업은 매춘여성 정책에 문제한 대안을 제시했다. 당연히 실무자 해서 딸 일을 실무의 공식, 단일적의 분야기면서 인간 여성운동 단체가 해온 여성 전업 프로그램을 제시한 것이다. 2000년 경기도여자기술학원의 영화 시간에서 두명희의 드라마 남동이 이제까지 국가의 매춘 여성정책은 강제 수용, 처벌의 수준을 크게 넘어나지 못했다. 두해방의 뽕 프로그램은 매춘여성들에서 대안한 우리진이면 일어든지 딸 매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물론 기지촌, 기지촌특구라는 특정성과 '2000년 이후 기지촌은 존재하는 곳이기 보장 [illegible]

두해방프로서는 그런 중심적으로 성해왔던 많은 활동가들이 그만두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시설을 통해 목표하였던 자립 활동가, 학생운동하의 대표하고는 많은 다른 활동 프로그램의 노하우가 활동가의 이동과 함께 모두 새롭하로 이동했기 때문이다. 현재 두해방은 문제됐, 여성해 방향에 어어 유적남의 만나 유명남에가 주고하고 있다.

8. 기지촌 여성의 아메리칸 드림 – 송꽃순 사건

1992년은 기지촌 여성운동이 우리사회에 대중적으로 알려짐과 동시에 매우 처절하게 전개된 해이다. 송꽃순 사건과 윤금이 사건이 연이어 터졌다. 이군과 결혼하여 매춘여성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일단'하고, 존재의 적절성이 보장되는 미국으로 가는 것은 많은 기지촌 여성들의 꿈이자, 스스로 기지촌에 들어오게 하는 가장 강력한 이유이다. 그러나 매춘여성에 대한 경제적, 문화적 차별이 미국이라고 해서 크게 다르지 않음은 우리 결혼한 기지촌 여성들의 삶에서 그대로 증명된다. 만이가 함께서 많고 특별한 기술이 없고 하는 사람도 없는 기지촌 여성이 이국 생활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많지 않다. 게다가 이군사업 년 남편이 아닌 정독이거나 생활 무능력자, 구타하던 경우가 많다. 사회적 연결망이 전혀 없는 시골의 마을을 살 아는 미국인 남편들의 학대와 (매춘으로)돈을 벌어오라는 강요는 다시 여성들을 매춘으로 돌아넣는다. 대부분 기지촌 여성의 국제결혼은 이혼으로 끝났을 뿐고 미국에서 이혼 당한 한국여성들은 심리적인 빈곤 상태에 놓이게 된다.

송꽃순 사건은 기지촌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 실태를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송꽃순은 어려서 부모가 모두 남아 사업하다, 오빠의 생계를 담당하고자 오빠와 동생들을 위해 기지촌으로 오게 되었다. 그녀는 영국군과 결혼하여 아이를 하나 낳았으나 영국군은 아이만 데리고 돌아갔다. 그후 영국 기지촌에서 만난 미군을 따라 1990년 미국으로 건너갔다. 그 미군과는 미국에 온지 2년만에 이혼 당했다. 이후 다른 미국인과 결혼하여 모텔, 세스리하는 이들의 두 남녀를 낳았는데, 영어와 미국의 사회제도를 몰라 아들을 뺏긴 경험을 했던 그녀는 몸무 언모도 하지 않고 아이도 없게서 낳았다. 87년 남편의 구타와 가난을 견디다 못한 그녀는 두 아이를 데리고 가출하여 목부 레몬타이나의 메리빌(Jacksonville)이라는 마을 쉼집에서 일하게 되었다. 두 아이를 맡길 돈이 없었기 때문에 밤이 되면 아픈방에 아이를 가두고, 다른 사람들이 아이들 소리를 못 듣도록 TV를 크게 틀어놓고 출근하곤 했다. 그러기를 두 달여, 세탁에 집을 비우고 귀가한 송꽃순은 세 살 짜리 아들 도세가 TV가 남아서 밤새 죽어있는 것을 발견하였다. 경찰과 보도진이 이 사실에 들어 마음을 쓰 그녀는 더 참인이 아니었다. 제속되는 질문 공세와 사실을 많은 충격으로 도로서가 상해가 된 그녀는, "내가 자식을 죽인 셈이었습니다. 도무 내 양이어요(My baby)"라는 말을 반복

적도'로 매춘 또의 기지촌 매춘을 극단적으로 조직된 노동이다. 그 만큼 딸 매춘의 처벌은 가난할 수밖에 없다.

뽕 프로그램은 최초의 전업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다른 매춘여성운동들과 국가의 매춘정책에 충격한 도발을 제공했다. 그러나 국가의 체계적 지원과 매춘여성에 대한 낙인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상황에서 개별 단체의 전업 사업은 상당히 어려울 뿐아니라 어려웠다. 특히 전업 프로그램은 어느 정도 경영 마인드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기초 경제적 여건이 빈약한 여성운동들의 힘만으로 꾸어가기에는 어려움이 많았다.

두해방은 여성부에 이어 1999년 동두천시 보산동에 사무실을 내고 두 곳을 운영했으나 2000년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동두천 두해방은 폐쇄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두해방의 활동 주체의 두 축이라고 할 수 있는 교회여성 활동과 학생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갈등을 빚게 된다. 이는 운동 노선상의 갈등을 포함하여 지도력 부재, 재정 활동가들의 경험과 개성, 사업 방식, 정서적 차이 때문이다. 크지 않은 조직에서 개인의 문제는 운동 조직의 존폐 여부를 결정짓기도 한다.

학생운동 출신의 젊은 실무자들은 이 시점 두해방에서 기지촌 여성운동을 하기 어렵다고 판단 하여 '20년 21세기의 새로운 기지촌 여성운동에 '새로이'를 창립하기 위한 준비에 들어간다. 새롭이는 두해방 활동가의 뽕 '새롭'에서 이름을 딴 것인데, '새롭시대에'라는 뜻은 '어려하는 의미이다. 새롭이는 동두천에 사무실을 두고 딸 가지 운영원칙을 정했다. 기존의 실무 여성운동 조직적인 방법주나 소위 '이론'을 이론만 앞의 대로도 하지 않는다. 실제 일하는 활동가를 대로도 두어 일하는 사람과 이론나는(?) 사람을 분리하지 않는다. 또 운영비를 확실히 내고 함께 여성운동의 경험이 있는 사람을 운영위원으로 하여, 일부 단체처럼 운영위원이 사람의 지원과이기보다는 실무자들의 업무만 가중시키는 구조가 되지 않도록 한다는 것 등이었다. 그 결과 당시 25세의 김혜선을 대로도 하고, 장사랑 양미, 두해방, 여성회관의 등 젊은 에서 일했던 젊은 활동가들을 운영위원으로 선정하였다.

새롭이는 96년 가을 동두천시 생연동에 약 15평 정도의 가정집에 전세로 입주하면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딸 포축과 전업 프로그램인 비브(bevb) 사업이다. 다른 화업 여성들과 달리 기지촌 여성들은 주로 딸에 살하기 때문에 저시(주로 혼혈아)가 있는 여성들은 아이를 맡길 곳이 없었다. 아이를 양육에 대리고 가거나, 혼을 얻기놓고 가두기나, 아이를 맡에 해치우고 혼은 이어가 보는 일에서 매춘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이 같은 상황에서 뽕 포축 프로그램은 기지촌 여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이었으나 2년 정도 운영하다가 문제는 점이 운영을 멈춘 상태이다. 상근자들이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24시간 근무를 해야 했기 때문이다. 새롭이 상근자들은 갖아는 딸 30여명 정도인데 그녀이 저절이 많아서 새롭이 근무를 위연이 서울과 동두천을 오가며 이프아이프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프아이프와 같은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뽕 포축을 지속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예약의 한계를 가지기 때문이다.

새롭이는 96년 '기지촌동지생기금'(2000만원)과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딸 매춘을 위한 전업 프로그램 사업으로 지원금(3000만원)을 받아 96년 9월30일 동두천에 비브 가운 가게를 열고 현장 출신 여성 1명을 고용하였다. 이 가게는 지역에서 '여성 센터' 라고 하는데 비브 포토, 공기 및, 향기 나는 주머니 등을 직접 만들어 팔고, 전시한다. 이후 '성일국제국민운동본부'라는 민간단체로부터 '기지촌 지역 성적여성 다이 서기 딸 공동체'라는 프로젝트로 기금(81,862,500원)을 지원 받아 현장 여성 10명(상근 5명, 반상근 5명)을 고용하였다. 물론 외의 지원금으로 새롭이 활동가들의 급여 지급은 물가능하고 비브 가게를 지속적으로 무리가기에는 적절이 부족한 액수이다. 그러나 이번는 새롭이의 전업 프로그램이 여성특별위원회로부터 지원 액수 1위 사업으로 선정된 것은 몇 년 전에 정부로부터 사업을 받은 것과 비교하면 매우 큰 변화이다. 현재 집에한 정부는 기지촌 여성운동 단체들 '언어 단체'로다는 '물주 여성 회사'일도 인식하고 지원금을 주거나, 여성특별위원회의 상담 사무관이 '우리 지역는 없었느냐'고 먼저 전화를 할 정도로 상황이 변했다. 정부나 학계는 기지촌 여성, 매춘 여성을 위한 상담 프로그램이나 전업 프로그램을 실시해 온 경험과의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여성운동의 성과를 배우고 지원하여

해왔다. 한국의 특징적인 여러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는 미국 계관법에서 그 말은 '상인에 대한 과학'으로 하리되었다. 이후 법에서 통역도 없이 1일 동안 독점으로 진행된 재판에서 그녀는 징역 20년형을 선고받고 복역 새롭이시나 일리(Dalegh)교도소에 수감되었다.

이 여러구니없는 사건이 90년부터 교포사회에 알려지면서 법리전이 법리전의 논쟁시를 중심으로 두번째의 여성대책위원회가 부여됐다. 당시 미국에서 살고 있던 두해방 장원과 문혜정에 여성평 목사, 인정숙, 박혜정, 김혜선, 등순자 등은 거의 결사적으로 석방운동에 참가하였다. 정문화를 열어 이 사건의 억울함을 알릴 기회를 얻기 위해 변호로사와협회에 수 차례 찾아가 상황을 반복하여 설명하였다. 92년 두해방에 이 사건이 알려지면서 충격은 세계에 먼저 보내기, 성금 모금운동 달리를 모금하여 송꽃), 주지사에게 편지 보내기, 한국투로회 조직, 석방을 위한 서명 운동, 언론 홍보 등 구명운동을 펴게 된다. 그 결과 이 사건은 당시 한창 인기 있었던 TV방송 프로그램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녀는 그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도중 사건을 학대한 남편에게 "그동안 너를 때리셨어요"라고 말해 많은 시청자들을 가슴 아프게 했다.

송꽃순은(만 33세) 92년 12월 25일 오후 3시 수감된 지 8년만에 석방되었다. 무려 사면 운동을 벌였으나 가석방 조치로 풀려났다. 대통령가 누속시에 있는 여성평 목사가 운영하는 국제 결혼한 한인 여성들의 쉼터 '무지개의 집' 보호 아래 2년 동안 살아는 이방이를 제출하였다.

만이 장애와 문화적 차이, 피해감, 불안과 우포, 가족 사회의 보수적 분위기 속에서 통역없도 없이 진행된 재판은 국제 결혼한 한국여성의 실상을 그대로 드러냈다. 이런에도 이해 이순한 사건은 우없이 많을 지만, 송꽃순 사건은 기지촌 여성의 '아메리칸 드림'의 실상을 세상에 널리 알렸고 이후 김분임 사건이 의의 피정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다.

9. 윤금이를 돌아본 정치학

9-1. 적절한 죽음

일반인들도 기지촌 여성문제 하면 윤금이가 머리를 맞도록 윤금이 사건은 '희생자로서 기지촌여성', '인격 주년의 당첨으로서 윤금이' 문제를 우리사회에 대중화시켰다. 윤금이는 자신의 죽음으로 '주한미군 범죄자의 문제성'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 또한 이 사건은 해방 후 기지 최초로 한국의 사회운동 세력이 미군 범죄를 문제화, 정치화한 사건이었고 국제적으로도 널리 알려졌다. 윤금이 '여성에 대한 폭력' 특별보고관인 라디카 쿠마라스와미(Radhika Coomaraswamy)는 '무명에 제출한 1996년 1월 26일자 '무력 갈등시 여성에 대한 폭력(Violence Against Women In Times Of Armed Conflict)' 보고서에서 라이티, 보스니아, 미얀, 르완다 등의 사례와 함께 윤금이 사건을 다루었다. '두해방'과 '새롭이', '주한미군 범죄 근절 운동본부'는 여성인권 관련 국제회의가 있을 때마다 윤금이 사건을 소개하고 문제를 보스하였다.

그러나 윤금이 사건이 기지촌 여성문제, 매춘 여성문제가 아니라 인권문제와 미군 범죄의 문제로 일반화된 것은, 이 사건을 둘러싼 우리사회의 편역 관계를 반영한다. 이 사건은 민족민주운동 중심의 사회운

---

[8] 이군과 국제결혼하여 이민 간 김분임과 그녀의 두 남매가 94년 8월 13일 오후 2시 30분경, 미국 플르리다주 포크 웹튼 소재 자택에서 시체로 발견된 사건이다. 당시 김씨의 시신은 생전최지를 남겨두지 않았고 3구의 시체는 전혀이 남자하여 속으로 덕하여 있었는데 주시를 당당했던 경찰은 18년간의 수수께끼 로 보아온 이번 현장 중 가장 충격적이고 표현했다. 집안에서는 범행도구라고 짐작되는 86센치 이하의 날는 사람수수법을 많이 발견되었다. 경찰은 김씨와 남편 에드워드 게크레프스키 공군중사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전국에 수배령을 내렸다. 1982년 생당 선수생에서 해어난 김씨는 한주선문에학을 졸업하고 82년 댈러를 해주면서 서울대학 미군과 결혼한 후 미국으로 건너갔다. 미국으로 간 직후 바로 이혼하였고 게크레프스키를 만나 재혼하였다. 게크레프스키는 술, 마약중독자였으나 김씨의 도움으로 재적해서 바지고 김씨에게 고맙다는 메기를 자주 했다고 한다. 정유신/김분임 살인(2007), [추리의 선이를 따랐기 위하여 - 주한미군 범죄 자료집](미간행). p. 9-10.

동체의 여성 문제가 어떻게 다루어지는가와 여성운동이 다른 사회운동과 맺는 관계, 사회 운동 내부의 차우성에를 어떻게 보아주었다.

1982년 10월 11일, 자신의 생일 전날 운급어는 동두천시 보산동 420-50번지 18호 집앞층계 밑으로 떨어져 생명을 잃었다. 월세 4만원을 선불로 내고 2개 남짓한, 비슷한 처지의 '양색시'14명이 함께 사는 방을 이었다. 그로부터 17일 후인 28일 운급어는 바로 이 집에서 시체로 발견되었다. 1986년 전북 순창에서 5남 2녀 중 막둥이로 태어난 그녀는 가난으로 중학교를 제대로 마치지 못한 채 17살 때 서울로 올라왔지. 몇해동안에 위자료나 생활고를 견디지 못하고 이곳을 상대하러 시작했고 생계의 안정이 기지촌에서 좋아들게 되었다. 기지촌을 전전하다 동두천 보산동으로 온 그녀는 사진 생생 2년 전 동거하던 미군에게 버림받은 후 폭음과 자살제를 자주 복용하고 술맛이 자주 떨어를 두었다. 그로 인해 미군 상대 양공주로부터 자연 당했고 몇 장사(최하층의 퍼폐위들이 하는 장사로서 변인적인 보이는 매매춘 남녀에게 업에 걸리기에서 한 장사적 몫을 하는 것), 구걸, '퍼폐비'로 생계를 이어갔다.

10월 27일 저녁 7시부터 경찰을 쉽게 퍼폐 변전하다 미군 한 명과 몸싸움 하다 이 2시간 후으로 끝났다. 그는 이 2시간 새 20프랑전대 10대의 소속의 이광 메세스 미(Mable Kenneth Lee, 22년 생, 당시 20세)이었어었다. 집 앞에서 두 사람은 미군 메이슨 앨버트(21세) 상병과 상당이를 발했다(앨버트의 주장에 따르면 그녀는 전날 밤 술값이 최초이 계산 문제로 시비했으나 몸싸움 전날 구별 피지가 없었고 폐쇄을 조속히 종결하는 데 제한 감금했다). 앨버트는 전날 밤 술값이와 같는데 그날 다른 기지촌 여성과 가격 문제로 티격태격하다가 '여성방 비우'가 다른 미군의 몸에 맞진 것을 보고 시비를 걸어왔다. 새벽 1시 30분 계속 귀찮게 하는 앨버트와 한바탕 싸운 이후는 술값이의 머리채를 휘어잡고 땅만으로 들어갔다. 이후은 몸싸움으로 군이의 이마을 여러 차례 밟발 투려했다(이정부 경찰서에서 발행한 '사건발생사실확인서'에는 4회 가격 했다고 나와있다).

이어에서 피가 흥구치고 술값이의 반항이 멈추자 이후은 방안에 있던 우산을 술값이의 항문으로 주어 넣어 직장 안으로 20cm까지 들어가게 했다. 그녀의 몸에 투려진 세해는 '스파프'였다. 항동 상태로 피멍든 그녀의 손목은 피멍이 들어 있었고 허벅 속에는 매우병 2개가, 질 안으로는 콜라병이 1개 박혀 있었다. 사체 부검 때 매우병에서 발견된 지문은 범인 검거에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다. 술값이의 사인(死因)은 '손두부(質陷部) 혈장(腸腹)에 의한 실혈(失血)로 판찍했다. 사망 시간은 28일 새벽 2시로 판정되었고 10월 29일 오후 4시 30분경 주인 김성출씨에 의해 발견되었다. 경찰은 술값이의 시신을 가족 없이 하여 10월 31일 화장하였으며 이 2시간 만에장은 피프랑으로 60만원을 선달하였다.

술값이 시신을 처음에 알아보게 하고 범인을 잡히된 것은 동료 기지촌 여성이었다. 김성출씨에게 최초의 발견하는 김순자(가명, 당시 30대 초반)씨로 술값이가 사는 '월집'에 놀러왔다가 경찰들이 몰려와서 사진을 찍고 증성거리는 것을 보고 동두천의 기지촌바닷, 아동들의 절터인 '아비와의 집' 선우섭 목사에게 알렸다. 사건 발생 3주일 후에야 이 사실이 '동두천인주시민회'에 알려졌고 '동두천인주시민회'는 무대 앞으로 반박하였다. 경찰에 참수한 사건 신고자에는 신고자가 김주인 김성출씨로 되어있으나 실제 경찰에 신고한 사람은 '양공할'이라는 30대 초반의 기지촌 여성이었다. 자신이 범인의 동한 기지촌 여성이기 때문에 김주인 이름을 빌려 신고한 것이다.

기지촌 여성이지회 '인동대회'의 일인 직책을 보두 감찰이라고 하는데 사람들은 그녀를 그냥 장하게 일하 '양공할'로 불렀다. 그녀는 오랜 기지촌 생활을 통해 새롭여성이 미군에게 죽어도, 수사를 해지나 미군이 처벌받지 않는다는 것을 피부적으로 알고 있었다. 이 사건은 그런 의도로 몰락하는 것 같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이 2시간[1]' 집에서 아물을 기다렸다. 이물이 된 안에지에 피가 묻어 있었는데도 씻어 한명은 아물을 들여보내고 그녀를 막았다. 당시가 없던 그녀는 순사간에 달려들어 아물의 허물을 잡고 나와 경찰에 넘겼다. 그녀는 전날 술값이의 아물이 때우는 것을 직접 보았고, 아물이 범인이라는 데 결정적인

1) 주한미군의 주에 부대인 이 2시간은 미군 범죄를 가장 많이 일으키는 부대이다. 이 2시간의 조작는 _____

기지촌 여성·삶에 지면이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여성운동가들은 일반시민과 세이 운동가들에게 기지촌 여성운동과 기지촌 여성의 존재을 알렸고, 세이운동가들이 기지촌 문제를 보는 관점을 변화시켰다. 또한 운급어 무명 에 학생들이 감자기 몰려와게 된 것이 아니라 그 전에 기월이나 세학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 등을 통해 기지촌 여성운동이 학생운동을 견인한 측면도 크다.

하지만 전반적으로 술값이 사건은 기지촌 여성의 인권 침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미군 범죄, 인족 차별의 문제로 집중되었다. 술값이 사건에 참여한 운동 주체들이 상으로 같은 여성 인권 측면 문제가 아니었다. 피해자의 인권 침해 사실이 중요하기보다는, 가해자가 주한(인족)을 대표하는 미군이었다는 점이 이 사건의 주요한 의미였다. 그들이 강조한 점은 기지촌 여성의 존재와 그들이 그런 우리사회에서 어떻게 산주되었는가가 아니라, 해방 이후 발생한 미군 범죄가 약 10만 여건이었다는 점, 미군 범죄에 대한 한국 정부의 1차 재판권 행사율이 0.7%에 불과(참고로 같은 22%, 일본 32%, NATO는 52%)했다는 점이었다. 즉, 이 사건은 우리 인족이 미국의 식민지임을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물론 술값이 투쟁은 남성 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의 대표적인 사건이 되었다. 미군 기지 문제를 주한미군 범죄 문제를 중심으로 이고하는 점은 그 안에의 여성에게 일어나는 문제를 비가시화 시킨다. 이러한 점근에서 여성은 민족의 주권을 상실하는 존재일 뿐이다.(Enloe1989) 기존적으로 기지촌은 성 착별이 없다면 성립할 수 없는 공간이다. 군대와 기지가 성공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가부장제 사회가 요구하는 전형적인 남성성과 여성성에 기반한 성의 정치가 필수적이다. 기지촌에 주변의 매매춘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매매춘 자체가 기지촌을 가능하게 하는 가부장제 사회의 메도이다.

남성 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에게 기지촌 여매춘은 민족 주권의 상실을 상징한다. 미국군에게 몸을 파는 여성들의 존재는, 그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자격이 할 제안으로 간주하는 남성들의 정체성에 상처를 준다. 남성 중심적인 민족주의 운동가들은 기지촌 문제를 매매춘의 문제로 보지 않는다. 이들은 기지촌 매매춘의 기우성적 성격을 곡해하지 못한다. 기지촌 매춘여성의 문제가 술값이 사건에서는 '기지촌'여란 명칭이 퍼짐으로서 매춘여성의 인권측면 문제가 조명되거나, 이 사건이 여성인권 운동으로 인식될 여지는 매우 적었다. '퍼폐'여폐이라는 명목으로 기지촌 여성들이 '남성 손님', 포주, 지역 업배, 경찰, 클럽 주인 등 한국 남성들로부터 당하는 강간과 폭력은 문제 문제화되지 않았다.

"(질해보) 여성운동을 업하시가 아니라 술직히 이 사건을 여성 중심으로 보고 감아면 그렇게 고치 될 수 없었다고 봅니다. 이 사건이 인족문제나와 그녀의 그렇게 대중화된 겁니다. 내가 여러 가지 운동단체 일을 할이 때 보았지만 이 사건처럼 시민들이 호응을 받은 적은 없었어요... 이 사건이 여성문제가 아니라는 게 아니다. '윤일'은 사회 구조적인 문제(그러니까 인족문제라는 얘이요!) 그렇고! 그것이 구체화된 '현상'이 술값이를 통해 나타난 거요. 가시적인 문제가 아니적으로 드러난 것... 물론 내가 여성운동가들하고 일한 것은 처음인데 예은 게 많아요. 나는 그 여성들이 그렇게 사는지 정말 몰랐거든요." (당시 '술값이 공대위'에서 주도적으로 활동했던 제이단체 활동가와의 인터뷰에서)

인족문제가 '본질'이고 여성문제는 그 본질이 피복되는 형태일 뿐이라는 생각, 이시적인 모든 기지적인 것을 분리하는 이 활동가의 시고 방식은 당시 술값이 사건에 참가했던 거의 모든 활동가들의 문제의식이었다. 별별 여성운동가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지만 어떻 수 없었다. 여성운동이 민족나 '선복'운동의 부문운동으로 폭우되는 분단 국가에서, 민족주의패이와 여성운동가로 사신의 정치학을 실현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한때 우리는 이 사건 실무자를 무일 때 제하나 학생운동 세들을 무르지 않았어. 군에 여성계 있었는지 우리 사무실도 먼저 찾아 왔더라구. 한마디로 '선수' 같았다 이거지. 나는 정말당 학생운동 출신 남자들에 대해 별로 좋지 않은 인상을 가지고 있었어. 왜 알잖아, 이렇게 늦게 나오고 이때 힘들어 안 가. 그런데 개네들이 실제 사람 동원을 다했고 '명학'이 되기 때문에, 군 2년 동안 운데했[2]년동안 인데했, 61년부터 운동한 – 실의 주)에서 동원은 다했으니까. 실무일이 많다 하고 결회를 하는데 학생들 앞으로만 돌아놓아지. 우리(여성운동가)는 (동원)책임이 반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 나라 여자가 여성에 억압당하는

2) 1987년 11월 1일 당시 동두천시의 전체 인구는 71,469명이었다.
3) 이 글 전용사, 김은희, 이미, 경은숙, 최인선, 윤순철, 윤영희, 정현미) 주최 여성 인권 세미나에서 발표한 사은이다.

것에 관심을 가지니까..."(술값이 공대위)에 참관한 여성단체 활동가들의 인터뷰에서)

당시 이 사건에 대한 각계의 반응은 정상 학생의 성추 문이 특별의 측면으로(그것도 출이학생회 중심, 총학생회는 없다 할 때할정 선거투쟁에 주력), 경로계는 인권, 인족 주권의 문제로, 시민운동 세력은 민이, 인족 주권의 문제로 여성계는 여성인권, 성폭력의 문제로 바라보았다. 물론 공통적인 것은 관심한 상태에 대한 분노였다. 한편 공무원, 경찰, 보수적인 정부 시민들은 '양공주라니 폭압이고 여성이 왜 이런 시고할나, 하물은 여자 죽음으로 한의 문제에 금이 가게 될 수 없다, 그런 여자은 비노 정도 적으로 고는 것 아니다, 정확한 말이으로 여명라서는 안 된다' 는 반응을 보였다.[3]

3-2. 18개월간의 투쟁

이후 사건의 진행 과정은 투쟁 주체들이 '아주라 생각한 감서의 대상'이는 말을 그대로 폭발한 기간이었다. 에네스 이광의 유족가 폭압상에 따라 56년 5월 17일 한국 정부가 아물의 신병을 미군 당국으로부터 인도 받아 정산 소년교도소에 수감하기 시간이 일산하 지기까지 18개월 동안 배우지 않으면 피는 일이 하나도 없었다. '대책위원회'의 전행은 세관하다 '주한미군의 송급사에 살해당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송급이 공대위)는 에의 300-1,000명의 방청객을 조직하였다. '살해 미군 구속 처벌과 공정한 재판은 행사를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벌여 사건 발생 후 5개월 동안 매주 토요일 오후 서울역에서 집회를 가르고, 사건을 전국적으로 여론화하였다. 그 과에도 여주 정부와 미군 당국, 한국 정부, 한국 검찰에 항의 편지 보내기, 전화, 단식 농성, 예장공 점구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였다.

처음 동두천인주시민회를 중심으로 동두천시 에지기사들의 미군 송치거부 운동, 상인들의 미군 손님 안 받기 운동이 벌어졌으며 12월 7일 송급어 추모의 주최로 시민궁림대회가 경찰의 원천봉쇄를 뚫고 2,000여명의 동두천 시민(이) 모인 가운데 이 2시간 정은 업에의 열렸다. 기지촌 여성, 진보, 초월사능 등 기별 성 없이 참여한 이 이외는 동두천 주서 이외 거의 없은 시민이 모인 날이었고 오후 4시에 시작된 집회는 저녁 늦게까지 계속되었다.

당시 언론은 이렇게 대중적인 호응과 분노가 주 이유를 너무 왕폭한 시민이었다는 점과 한국 정부의 미굴한 태도가 주된인이라고 보도하였다. 시민 관점이 열린 최정부경찰서는 피의자 신문 조서로 받지 않은 채 아물을 미군범죄주시대(CID)로 인도하였다. 한별 한미행정협정은 재판 후로 시민측이는 미군 범죄자의 인별을 미군 당국의 관할 하에 두게 되어 있어, 주한 미군 피의자를 체포하면 한국 경찰이 먼저 피의자 신문 조사 작업 등 기초 조사를 마친 뒤, 미군에게 범인의 신병을 넘겨주기도 하여 있으나 한국 경찰은 이 권리마저도 포기한 채 미군에 아물을 넘겨주었다.

당시의 언론 보도들은 모두 세 두 가지 문제를 중심적으로 다루었다. 특히 1990년 부분적으로나마 개정된 주이행정협정(피무무씨 공식 명칭은 '한미 주둔군 지위 협정', SOFA, Status Of Forces Agreement)으로 한국 정부가 미군 범죄에 대해 초창 주시권을 행사할 수 있었는데도, 그것을 모두 포기하고 미군의 눈치를 본 것에 대해 국민들이 분노하였다는 것이다. 사건 발생에서 재판정에서 판결까지 18개월 동안 핵심적인 쟁점은 '공정한 수사'였고 이는 한국의 인족적 자존심과 세 3세계에서 미국이 패권주의가 많동하는 양상으로 인식되었다. 이 같은 사례는 93년 3월 10일 법 공판정 이후 대통령의 명한을 받아 정정에 일했는데, 술값이 사건과 미국의 법 개정 일하이 얼음이면서 문화 콘콘에서 반미이론가 일어났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 형세하여지도(89년 4월) 많은 기지촌 여성이 미군에 의해 강간, 살해되었다.(이기순, 양은경, 서혜선, 이주연, 정경희, 전지나, 박순아(화전방), 선희군에 등)[4]

3-3. 술값이, 양공주에서 민족의 상징으로

술값이 사건에 대한 평가는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하다. 하나는 반미운동으로서의 인족담론이 여성운동을 잠식하여 여성운제를 비가시화 시켰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기지촌 여성운동의 성과를 강조하는 시각이다. 즉 이제까지 주장은 기지촌 여성들이 미군에 의해 살해되었어만, 그간 기지촌 여성운동이 성과로 인해 술값이 사건이 '드러날 수 있었다'는 것이다. 기지촌 여성운동가들은 기존의 추상적인 반미운동을 '평당'으로 받아내었고, 당정 반미운동가들을 미군의 주둔으로 가장 고통받는 구체적인 인권들의·

4) 1991년 6월 30일, '여성과인권연구회'(대표 김은실, 윤정혜, 정현미) 주최 여성 인권 세미나에서 발표된 이 발표문(미군 범죄와 여성인식에 일체.

관)에도 사로잡 일었으면 안 될 여성이었다'는 피관이었다. 공격을 반대하는 입장은 '우리목도 당이었는데 준중하다, 그것은 고인을 두 번 죽이는 일, 너무 강력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날 뜻, 공격 안 해도 시민이 피녀 심리해 시민들이 분노할 것이다'라는 피관이었다. 많은 공세회기로 결정되던 했으나, 공세회자는 입장 반대서도 고인이 여자이기 때문에 때문들에게 이런 성적인 이미지를 둘이 당으입적에 우이했다. 남성 운동가들에게 출금이지 시민은 세종의 분노를 폭발시키는 촉매제가 되기도 했지만, 동시에 '우리' 여성의 것은 것, 강해당한 것은 인족의 상처, 우지심기 때문이다. 과국 여성에 대한 피국 군대의 강간과 제국준은 남성의 민족주의적 동기를 부추기는데 중요한 요인이 되기 때문에 기지은 여성은 '민족' 이라는 이름 아래 동제되어야 했다.

출금이 시민에서 여성은 주체가 아니라 대상이었다. 출금이 투쟁에서 기지은 여성들은 상징적인 주체, 정치적인 동여자원을에도 불구하고 운동의 주체로 사고되기보다는 '여록자'로 간주되었다. 이런 공동체가 외부의 침략에 노출되었을 때 여성에 대한 양육적 기정들이 있다. 그것은 1)여성은 공동체나 민족의 가장 가치 있는 재산이며 고인에 강간에 공동체의 가치를 다음 세대로 이전하는 수단이며 2)공동체의 미래 세대의 세정상자이고 4)여성적인 외부 침략에 의한 폭행과 파괴에 '상처받기 쉬운 구성원'이며 3)여우세력에 돌수, 동화(파괴)되어 이은 집단이라는 생각이다. (Enloe1988) 이 같은 생각은 필연적으로 여성이 운동의 주체가 되는 것을 가로막는다.

운동의 대상인 여성은 운동 주체의 미지세로 동제되어야 했다. 남성은 민족의 주체이지만 여성은 민족의 성원이 아니라, 단지 민족 수난을 상징하는 표식이다. 여성이 특정 일단의 성원이 아니라 그 집단의 재산, 혈과 문화를 상징하는 입들은 주변에 무수하다. 일단에 문제를 제기할 때 한국의 일부 남성들이 "우리도 당했으니 이제 일본여자들을 강간해야 한다"는 반응이나 출금이 3주기 추모제 때 모 대학 교정에 걸렸던 플래카드 "우린이군 여러분, 일하는 모국에서" 같은 표현이 대표적이다.

민족은 개인의 존엄성을 중심으로 사고한다. 등해당한 개인보다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을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 같다. 많은 이랑들이 개인간의 폭력은 나쁜 것으로 생각한다. 물론 그렇도 그 개인이 남성이냐 여성이냐에 따라 다르다. 남성과 남성간의 폭력은 같등이고 투쟁이지만, 남성이 여성에게 행하는 폭력은 언제나 성적인(sexual)문제가 되어 '가변스러운 것'이 된다. 이별은 개인의 폭력은 나쁜 것이고 생각하는 반면, 국가의 민족의 이름으로 행해지는 집단의 폭력은 능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정복자, 침략하는 남성성을 과시하여 영웅이 되고 그가 속한 집단의 자부심이 된다. 그러한 폭력은 '가장에 의한' 폭력이라기보다 집단에 의한 폭력으로 인식되고 폭력은 본연되거나 없어된다. 우리에 의한 폭력은 적법성을 띠기 때문이다. 개인도 이기적이지만 집단은 더 이기적이고, 개인의 이기심보다 더 큰적 힘이 된다. 여는 사회에서 집단을 대표하는 논리는 언제나 남성 중심적이다. 국가나 민족 집단 내부의 남성에 의한 여성억압은 드러나지 않고, 여성의 권리는 남성 중심적으로 개념화된 '인제' 국가 이해(利害)나는 이름으로 남성들에게 포함, 흡수(흡화)된다. 때문에 개인의 자원의 가해자에 의해지기 된다. 민족은 사람(개인, 인간)의 권리이지 민족이나 국가의 권리가 아니다. 특히 여성에 대한 폭력이 그녀가 속한 집단의 명예나 도덕에 관련됨으로 의해지는 일단의 명예를 위해 자신의 의해이익을 드러내기 어렵다. 또 집단은 보호해서 여성은 언제나 일차적인 희생자가 되기 쉽다. 여성을 민족을 가진 개인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남성 집단의 권익 거름을 에워하는 일종의 교환물, 재산으로 보는 이러한 관점은 현재 보스니아, 르완다, 동티모르 등지에서 벌어지고 여성에 대한 집단 성폭력의 근거가 되고 있다.(Van Boven 1993)

이 같은 관점에서 여성문제는 언제나 민족모순으로 환원되고, 우리 사회 내부의 성차별과 성폭력은 중요하지 않들다. 이 문제를 에를 여성의 인권 문제를 중심으로 접근했다면 이 운동에 참가한 남성들에게 자기 존엄을 지키할을 생하다. 이러한 이유은 특히 '출금이 문제화'보다 학생운동권에서 이 정책한 유인들에 더욱 두드러졌다.

3-4. 출금이 투쟁의 성별 문법

[illegible]

문제는 학생운동가에의 인식론에서!

일상적인 운동은 여성들이 하고 그것을 기준으로 사회문제화 하는 일은 남성들이 해야 한다는 성별 분업 논리는 노동현장, 가족, 지역 생산 현장과 마찬가지로 사회운동에도 있었다. 여성운동가가 리무회의나 연대회의에서 주도권을 잡으려면 일상노동에 준숙한 기존 회장하성적인 이중의 역할을 감당해야 했다. 그러나 이 같은 상황은 젊으면 세운여성운동의 일지의 기지은 운동의 정적한 문경 속에서, 기지은 여성운동가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또한 여성운동가 스스로 받아들이려는 일에 익숙하고 지도자의 되거나 '나서는 일'에 대한 두려움, 자무감도 문제다. '현장'을 지키는 것은 나의 일이지만 그것이 정치회의 사회적 이슈로 등장했을 때는 내 일이 아니라 상위 일(남자들의 일)로 되는 것이다. 이렇게 빠지 기지은 여성운동가들은 출금이 문제의 활동에서 복지게 되었다.

사실, 출금이 사건에 대한 당시 기지은 여성운동가들의 관심은 '예은 여성의 인권을 옹호하자, 기지은 여성의 현실을 알리자' 에 있지 않았다. 당시 기지은 여성운동가들이 가장 우려했던 것은 이제까지 이룩 없이 쌓아온 수많은 기지은 여성들처럼 이 사건이 묻혀버리는 것이었다. 기지은 여성들이 당하는 폭력과 학습에 대한 사회의 무관심은, 이루에도 계속 비군들에게 당한 언제였을 주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사건을 드러내는 것 자체, 반드시 비군이 처벌되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주된 목표였다. 한국 사회의 가부장제나 해온 문제를 드러내기에 그들의 힘은 너무 약했고, 출금이 운동에 남성들의 주도적인 참여를 동제할 수 없었다.

출금이 투쟁에서 빠질 수 없는 주체가 교회운동세력이다. 당시 교회운동세력(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은 출금이 폭거적이 해명금을 받아내는데 중요한 역의 협상력을 발휘했다. 90년 8월 이우 정부는 출금이에 유족에게 7천 1백 만원을 지급하였다. 이 사실 자체는 비군법회사에서 배우 회기적인 일이었다. 또한 교회운동세력은 '여자한' 제이, 학생운동에 대한 일본의 양해하이 학합과 사회적 여론을 동원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위원회 사무국장이었던 김경남 목사, 한국교회여성연합회 운영위 윤우가 특히 예를 받다. 언론 중에서도 기독교계인 국민일보가 가장 많은 지면을 할애해 출금이 사건을 기사화하였다.

출금이가 죽은 지 1주기가 되는 91년 12월 28일, 이재명, 조세형 등 일부자들이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교회계, 여야 서도자의 주도로, '출금이 문제화'는 비군 법회에 대처할 상설 조직이 필요하다는 인식 아래 '우린이군 법의 군일 운동본부'로 전환하게 된다. '우린이군 법의 군일 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기지은 여성운동 출신의 여성 실무자와 학생운동 출신의 남성 실무자가 참여 일하게 되었다. 비군 기지 문제를 바라보는 남성과 여성의 시각 차이가 '운동본부' 활동에서도 무드러지게 나타났다. '운동본부' 산하에 여성인권위원회를 두는 문제와 사업의 방향을 비군 기지 문화, 평이행할 계정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 아니면 법의 제재과 처벌을 중심으로 할 것인가를 놓고 갈등을 겪게 된다. 여성에 대한 비군의 폭력을 놀리한 상징적(symbolic)인 갈등은 법리론과 일본 오키나와의 비군기지에서도 확인이 나타났다.

오키나와(沖縄)은 일본 전국토의 0.6%를 차지한 일본 내 비군기지의 75%가 집중되어 있다. 1995년 그 땅의 비군이 오키나와 소녀를 강간했는데, 이 사건에 대해 여성들이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분노하자, 남성들은 '이 사건을 여성 문제로 축소하지 말라. 이 사건은 일본과 미국의 문제'라고 아우하였다. 이에 대해 여성들은 '이 사건은 여성 인권 문제인 동시에 민포의 문제입니다'라고 맞받아, 여성들에게는 성의 문제나, 여성 인권의 문제냐 라는 이분법적인 질문은 의미가 없었다. 여성들은 그렇게 사고하지 않는다.(하구수롱구 2000)

10. 기지촌 여성운동의 미래

기지촌 여성운동가들은 대부분 80년대 학생운동의 성장과 함께 한 사람들이다. 기지촌 소의 인족해방 여성(여)그의 학생운동 경험을 가지고 있다. 민족해방 세력이 반미와 분단 문제를 주요 이슈로 삼기 때문

에 기지촌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된 경우다. 반미운동을 하려고, 학생운동 권력으로 무해생활 문제 있는 투쟁할 최적의 너무 강철력이어서, 여성운동을 '현장에서 가장 억압받는 '민중'의 함께 하고 싶어서', 이로지 이 복적인 여성들은 많을 것 같아서, 아무도 관심을 안 갖는 분야라고 생각되어서 등등 기지촌 여성운동에 인입 최제 된 계기는 다양하다. 대적 세적 중 경험했던 이들이 이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이들은 공통적으로 80년대 학생운동에서 반미운동이 활발했음에도 불구하고 '반미의 가장 약한 고리'인 기지촌 문제가 우리사회에 크게 부각되지 않은 것은 그만큼 반미운동이 남성 중심적이었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현재 기지촌 여성운동의 가장 큰 어려움은 1-2명을 빼고 대부분 활동에서 2년 이상을 '버티지' 못한다는 점이다.

"한 마디로 나의 인권과 그 여성들의 인권이 따로분다는 생각. 나도 내 생각이 있고 욕구가 있는데 그것 보다 높아야 하고_ 00만나가 계속 버티는 이유는 그 여성들과 자신을 동일시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저는 그게 도저히 안 되더라구요."(2년 근무 활동가)

"밥 지을 의욕은 대안없이만 나무 의욕고 누구랑 저는할 시간도 없고 (사회모무하)고정되었다는 생각_ 같이 지내는 사람과 문화가 틀리다는 게 그렇게 힘든지 몰랐어요. 그리고 폭력적으로 심했어요. 우리 집이 00두이었는데 동두천하지 않다갔다 우이간 것했어요. 예일, 월급은 하여도 다녀기고_"(1년 9개월 근무 활동가)

"이렇게 일상적인 일이 운동인가 실망이요. 신혼 몇 시간도 없고, 하루종일 하는 게 싫거지, 지이 준비, 공동 식사당번이었거든요. 그렇게 1년을 지내다가 운동이 무엇인가? 라는 의문 이게 1-2년 해야 하는 일이 아니고 이 운동의 본질이 어떤 일의 반복이라는 것을 알았을 때 그만둘 수밖에 없었어요."(2년 6개월 근무 활동가)

학생운동 출신이 생각하는 사회운동의 일반적인 모델은 '일상적인 활동을 기반으로 자신들이 하는 일이 사회적, 정치적인 이슈가 되어, 문제가 해결되는 역동을 보이는 변화'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제까지 사회운동론이 정의한 프로적인 사회운동의 개념이기도 하다. 그러나 이들은 기지촌에 들어와서, 기지촌 여성의 삶은 다른 사회 운동과 같은 방으로 발전 않는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 일상을 조직화해 나가는 것, 아니 일상을 견디는 것 자체가 힘겨운 운동임을 깨닫게 된다. 이러한 기지촌 여성운동은 기존 사회운동의 틀에서 보았을 때는 운동이 되지 않을 것 같고, 운동이 아니게 된다. 다른 운동처럼 운동을 제속하여 조직이 확대되고 '영향력'이 되는 것까지는 바라지 도 않는다. 기존적인 같이의 활동 시간이 보장되지 않고(직업을 갖지만 노동), 하기 중인이 안 되는 소모적과 과로, 보상 없음, 일상 노동의 지겨움은 '나'(활동가)와 '만나들'(기지촌 여성)의 인권이 대립하는 게 아닌가 하는 갈등에 빠지게 된다.

다른 여성운동은 운동의 주체의 대상이 일치한다. 나를 위한 여성운동인 것이다. 그러나 기지촌 여성운동은 이루의 누구를 위한 운동은 아니라 해도, 기지촌 활동가가 기지촌 여준여성은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현재 당신에 기지촌 현장 활동을 해오고 있는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초의 일반적인 여성운동, 사회운동의 방법, 목표, 아인드를 가지고 기지촌 여성운동을 하기는 힘들다고 해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하는 일이 운동이 아니라 봉고 사업 같다고 해요. 우리 일이 너무나 일상적이기 때문에 보통 생각하는 사회운동의 이미지-일적 모니터하고 이슈 파이널 하는 것-가 우리와 맞지 않는 것이지요. 물론 기지촌 여성들을 '노력준다'와 '같이 한다' 이이에 분없는 공동이 있어요. 그동에 인의를 받는 것 자체에 실패하기가 쉬워요. 비슷 일이 아닙니다."

기지촌은 변하고 있다. 기지촌 에에준의 일반 에에준의 정체가 사라지고 있고, 명래형 에준에서 전화방이, 양키시 업 등 다양한 형태의 에준을 공업하는 여성들이 늘고 있으며, 비군의 출기가 짧에 짧아질 에 우기 때문 '에업로' 기지촌을 찾는 젊은 여성들이 늘고 있다. 이러적인 관군과 법의 에방, 같이의 피이즈로 인해 20년에 주한부터 비국은 에지이이에 비군을 에지에고 기독자 일반 기무에 하는 일 비군 주둔

공창제 -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이 될 수 있는가?

공주영 (성매매피해여성지원센터 새움터 간사)

최근 몇 년 동안, 성매매 문제의 심각성을 체감 실제하주는 사건들이 연이어 발생하였다. 지난 2000년 5명의 여성이 목숨을 잃은 군산 대명동 화재사건을 시작으로, 부산 완월동과 군산 개복동에서 발생한 화재 참사로 인해 모두 30명이 넘는 성매매 피해여성이 짧은 삶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다. 이러한 사건들과 더불어 이 국부성의 국가별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가 국내에 전해지면서, 늦은 감이 없지는 않지만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한 대안 마련이 공론화되기 시작하였다.

현재,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제시되고 있는 대안은 크게 두 갈래로 나눌 수가 있는데, 하나는 공창제 또는 성매매 합법화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선택적 비범죄화이다. 공창제와 같은 특정 지역을 지정하여 성매매 행위를 국가에서 관리함으로써, 일선업 종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포주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고, 선택적 비범죄화는 성매매 피해여성을 성폭력의 피해자로 재인식하여 성매매 처벌을 면제하여 성매매, 폭력적 성적을 피동하고 대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자는 주장이다.

이 글에서는 성매매 해결 방안으로서 공창제가 가지는 문제점을 지적하고, 일차적이고 근본적인 해결 방안으로서의 선택적 비범죄화를 이야기하고자 한다.

공창제 주장이 가지는 가장 근본적인 문제점은 성매매가 가지는 성폭력으로서의 본질을 외면하고 있다는데 있다. 성매매 행위 자체는 하나의 노동으로 인정받은이 그 과정에서 무수히도 여성들에게 가해지는 폭력, 특별 등이 범죄를 근절하면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이 보호된다는 주장은, 성매매 경험 자체가 여성에게 어떠한 심리적, 육체적 상처를 남기는지에 대해서 전혀 고려의 필요한 문제로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은 마치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강간, 강도와 같은 범죄를 합법적인 것으로 인정하면서 그 피해자나 돌보는 주장과 다를 바가 없다. 공창제 주장 역시 범죄자를 위해 특정 지역을 만들어서 피해자가 필요한 사람이라는 돌아남고 범죄 피해를 입었을 때 정부에서 보상금이나 위로해주는 주장과 무엇이 다르가. 공창제가 다른 지역의 성매매를 없앨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 역시, 범죄 특정 지역을 만들면 다른 지역에서는 범죄가 발생하지 않을거라고 믿는 것과 다르지 않다.

성매매 피해가 피해여성에게 크나큰 상처를 남기는 성범죄로 폭력으로서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성매매 문제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 '자발적'인 성매매는 단지 직업이며 노동일 뿐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그 '자발적' 성매매 여성들의 손목에 무수히 그어진 칼자국을 본 적이 있을까. 나는 여성들이 피해당하고 폭행당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렇게 죽음을 선택하라고 믿기 않는다. 사랑결과 폭주 자동서가 없는 업소에서 일하는 성매매 여성들은 자유로운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매일는 아내가 남편으로부터 쉽게 도망치지 못하는 이유를 생각해보세요!!

1) Melissa Farley, 1998

1년에 평균 10번 강간을 당하는, 지금까지 역사상 가장 많은 강간을 당하는 계층이 성매매 피해여성이라고 한다면 성매매 피해여성의 62-80%가 강간을 당한 경험이 있고, 59%가 5회 이상의 강간을 당했다는 사실은 어떻게 이야기할까. 성매매를 직업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이런 일의 피해를 '안일재해'라고 이야기한다. 그렇다면 또 다른 어떤 직업에서 이렇게 강간과 같이 피도적이고 성별특정 범죄가 재해로 존재하는가?[2] 성매매 피해여성이 이런 범죄에 돌린 이 같이 노출된 이유가 정부에서 보호해주지 않았기 때문인가?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 보호를 위해 노동3권을 보장하자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에게 묻고 싶다. 성매매가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한 여성이 강간을 당하는 이유가 노동권을 덜 보장받기 때문인가? 성매매는 그 피해가 범죄이며, 동시에 범죄의 원인 이며 결과이다.

성매매를 분류하는데 '자발성'을 기준으로 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도대체 '자발성'을 결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성매매에 대한 왜곡된 정보만이 가득한 세상에서, 여성들을 성산업으로 유인하는 화려하게 포장된 광고들이 만연해있는 사회에서, 성 구매자들이 상처나고 찢긴 몸에 가해하는 폭력적들이 일상인 수익을 올리는 상황에서, 자신의 성을 상품화하는 것 외에는 다른 선택의 기회가 거의 없는 현실에서, 상처적의 경험으로 심리적 상처와 소외를 겪고 있는 여성들이, 단지 서명함에 동의하지 않았으면 자발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성매매의 실상을 폭로하고 피임에는 여러 일상난 무제와 폭력과 절망감,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다른 어떤 선택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누가 자발성을 이야기할 수 있는가? 사랑받지 못하던 상처, 그리고 세워질 자존심에 상고 싶다는 일기를 남기고 목이간 여능한 시계가 얼마나 더 필요한가? 고상하고 순결한 여자 자신은 도저히 그럴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자기 스스로 판매의 성매매를 선택한 여성이 이 땅에 적어도 100만 명은 있을 거라고 믿는 그들은 도대체 누구란 말인가? 그들은 신문 기사에 난 '윤락이 될 평균 수입 300만원'이 아니라 포주 입장에 적혀진 '인플공 매주 3,000만원'을 본 적이 있을까. 오피스텔에서 자유롭게 출퇴근하며 명품으로 치장하고 다닌다는 소위 잘날 룸싸롱 성매매 여성들의 이야기로 가득한 형에 저널리즘의 기사 몇 줄이 아직 성병 구렁이라도 되는 것처럼 비웃고 다니는 사람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싶은 것일까. 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남성들은 왜곡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믿고 싶고 싶은걸까. 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은 도대체 무엇을 믿고 싶은 것일까. 성매매를 하는 사람의 절대 다수가 여성이라는 사실을 보면서 남성들은 왜곡 도덕적으로 우월한 존재라고 믿고 싶고 싶은걸까. 성매매는 불평등한 성별 권력 관계에 기반하며, 성매매의 존재는 그 불평등성을 재생산한다.

일부 공창제 옹호론자가 자신의 논리에 대한 근거로, 독일 등 일부 국가에서 공창제 혹은 성매매

21 Susan Kay Hunter and K.C. Biard, July, 1995 "Taking the side of fought and sold rape," speech at National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Washington, D.C.

31 Melissa Farley, Isin Baral, Merab Kiremire, Ufuk Sezgin, "Prostitution in Five Countries: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998) Feminism & Psychology 8 (4): 405-426
Susan Kay Hunter and K.C. Biard, July, 1995 "Taking the side of fought and sold rape," speech at National Coalition against Sexual Assault, Washington, D.C.
오창은,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M Silbert, "Compounding factors in the rape of street prostitutes," in A.W. Burgess, ed., Rape and Sexual Assault II, Garland Publishing, 1988
Melissa Farley and Howard Barkan, "Prostitution,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998, Women & Health., Susan Kay Hunter, Council for Prostitution Alternatives Annual Report, 1991, Portland, Oregon

41 오창은,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공회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51 예동비, 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Sex Trafficking Eradication Project 2000" 성매매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참가자의 발언 중에서

61 군산 대명동 화재참사 특별법의 입법안 참조

문란 행위를 실시하였다는 진술 거부나 성관계에 동의하는 여성을 대우한이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고 공동체를 위하고 있다는 일부 자부기관의 실태조사 결과를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주장을 증명 해낸 어떤 독립이 통우 통일을 이루었으니 한국에서도 그렇게 하자는 의미 주장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또한, 성매매 피해여성을 위한 지원센터를 '인간 리조를 위한 감금시설'이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이 오히려 그 여성들에게 사회의 낙인을 찍어 공동의식에 가두어 두려고 한다는 사실은 참으로 아이러니하다.

외국에서 공동체 실시 이후에 법정화였던 부적응이나 자기별 성매매 경험의 차이 등에 대해서 함께 고려한다면 합법화 주장은 설득력을 잃을 수밖에 없다. 특별히 성매매 합법화가 가지는 대표적인 허점을 이야기하고 싶다면, 그 합법화 이후 실시된 한 조사에서 70% 이상의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여전히 포주의 통제에 놓여 있다는 결과가 나온 것 역시 절대 간과해서는 안된다.[7] 한국에서 이미 상대적으로 공권력의 집행 목적이 될 강화된 특별에서조차 성매매에 대한 국가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훨씬 더부정적이고 폐쇄적인 정부를 가진 한국에서의 상황은 충분히 이루어 질지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법정상 수익이 되는 성매매 업소를 정부가 관리한다고 해서 절대 포기될 순진한 포주가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선행 조사로 1998년 미국, 태국 등 5개국 성매매 피해여성 475명에 대해 실시된 설문조사[8]와 2001년 서울이에서 30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현장 설문조사[9]가 있는데, 이 조사에서 각각 78%와 96.7%가 성매매 합법화에 반대하였고 그 이유로 합법화로 인한 공동체가 성매매에서 폭력을 감소시키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답변하였다. 성매매의 현장에 있는 여성들의 의견을 직접 들어야 한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또한, 일부 국회연구기관에서 성매매 종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고 있으며 공동체를 지지하는 여성이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도[10], 그 조사 방법의 적절성과 결과의 신뢰성에 대해서 한 번의를 필요가 있다. 성매매 문제의 진실을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정기간동안 전문적인 관련 활동 경험이 있는 상담원이 대상자의 인권과 비밀이 보장되는 분위기에서 상담과 병행한 조사를 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이 자신의 경험에 대해서 낯선 타인에게 솔직하게 말하놓는다는 것을 기대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게이도 자신의 '성목적' 피해 경험을 누군가에게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가에 대해서는 우리도 약한의하나가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게이가 경험과 공부된 데 대한 부의감은 물론의 성매매 행위자로서의 삶에 대해 수치심을 가지도록 강요당하는 사회 문화의 속에서, 누군가 물어 들어오는 질문지에 자신이 감금되어 있고 성매매를 강요당하고 있다고 대답할 수 있는 여성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는가? 지발적인 선택에 의해서 성매매를 하고 있다는 그 대답 속에 많은 경우이 "내 상황에 대해서 당신에게 솔직하게 말할 수 없어요. 날선 당신에게 사실대로 말하는 것이 너무나 수치스럽고, 포주가 알게되면 저는 더 큰 폭력을 당하게 될거예요"라는 공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성매매 피해여성의 인권을 지켜줄 자격이 없다.

---

7) Kathleen L. Barry, 1995, "The prostitution of sexuality"

8) Melissa Farley, Isin Baral, Merab Kiremire, Ufuk Sezgin, "Prostitution in Five Countries: Violence and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1998) Feminism & Psychology 8 (4): 405-426

9) 정선욱, 김세은, 강혜은, 2001, "성매매 방지 특별법에 대한 인식조사 보고", 서울여, 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Sex Trafficking Eradication Project 2001" 성매매 피해 여인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자료집 중에서

10) 한국여성개발원, 1999, "윤락여성의 사회복귀를 위한 지원방안 연구"

일부 언급한 5개국 조사에서 92%의 여성들이 성매매가 싫은 다른 직업을 택하고 싶다고 대답하였고, 동일한 방법으로 2002년 국내에서 100명의 성매매 피해여성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11]에서도 90%가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고 답변하였다.[12] 심지어는 성매매 합법화를 주장하는 의자 단체에 속한 성매매 피해여성들조차 성매매를 하는 것은 너무나도 끔찍스러운 경험이고 다른 직업을 가질 수만 있다면 성매매를 영영 그만두고 싶다고 대답하였다.[13] 너무나 당연한 답이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지만, 단편적인 연관 보도나 부적절한 방법으로 이루어진 실태조사 결과를 들이밀면서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실제 상황을 왜곡하는 것은 성매매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매매는 공권력 대가가 지불되기 때문에 성폭력이 될 수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많이 있다. 과연 우리 사회 어디서나 존재하는 일종의 거래 관계이기 그게 어떻게 일방적이고 강제적인 폭력이 될 수 있느냐고. 만약 성매매 피해여성이 우리와 그리 다르지 않은 여성이라고 생각한다면, 여러분이 성매매를 하고 있다고 상상해보자. 당신 손에 마이마는 지폐 몇 장-결코 당신 주머니로 들어가지는 않겠지만 시뻘건-이 성매매 행위를 무능함이 느껴지는 그 어떤 것(노동)으로 느껴지도록 할 수 있겠는지. 성매매를 하는 여성은 나와 다른 종족의 사람이라고 생각한다고? 사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성폭력의 온상 속에서 사회의 편견 속에서도 살았던 최장의 용돈을 얻지 않고 살아가는 그 자체는 정말 특별한 존재이라고 생각한다.

여성 인권 보호라는 명목으로 난무하고 있는 공동체 주장이 여성에 대한 폭력인 성매매를 정당화시키려는 주장과 다르지 않음을 깨달아야 한다. 또한, 성매매 문제의 논의 과정에서 피해여성의 목소리를 최대한 담아내고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에 대해 공인지적 관점으로 접근하는 것이 이 문제가 가지고 있는 본질을 찾아가는 가장 중요한 방법론이 되어야 한다. 지난 수천년동안 성매매가 존재해왔다고 해서 그것이 성매매가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존재해야 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많은 이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노예제를 없애고 참으로 나는 성매매 역시 반드시는 그러할 것이라고 믿는다.

---

11) 강혜은, 2002, "성매매의 폭력적 특성과 성매매 피해여성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성문화대책과 사회복지학과 석사 학위논문

12) 이 두 조사는 모두 일반의 관심집을 높이기 위해 정부, 정치, 종교계 등 인권위로 주요적인 문제의식 있으세이 관문적인 상담 경험이 있는 인권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졌다.

13) 서울여, 이주여성인권센터 주최 "Sex Trafficking Eradication Project 2001" 성매매 피해 여인을 위한 국제 심포지엄 [illegible]

2장 성적 권력

필리핀의 시골 농촌에서 태어난 리사 메렉Lea Marsch은 자기가 자라 온 가난한 환경, 결혼을 하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는 운명에서 벗어나고 싶어했다. 산업화로 인해 농촌에서 도시로 이주한 많은 여자들처럼 리사도 도시에 가서 학교를 다닐 생각이었다. 가부장적인 전통 사회에서 여성들은 결혼이나 가족 밖에서는 거의 설 곳이 없기 때문에, 이농은 여성들과 소녀들을 사회적으로 이탈시킨다. 이런 조건하에서 여성들은 특히 성적인 착취에 쉽게 노출된다. 고향을 떠나 혼자가 된 리사는 사랑에 빠졌고 임신하게 되었지만 상대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녀는 버림받은 후 혼자서 아이와 버텨 보았지만, 아이는 8개월 되었을 때 죽고 말았다. 학교를 다시 다니려 해도 돈이 없었다. 집국 학교를 보내 주겠다고 나선 어떤 남자와 관계를 맺었지만 그도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1981년 10월에 리사는 그 지역의 검사장chief prosecutor을 만났다. 그는 네덜란드에 있는 최고급 호텔의 접수계에서 고소득으로 일할 수 있다며 그녀에게 일자리를 주선했다. 자국의 산업화 과정에서 주변화되는 여성들은 아주 유일한 생존 방법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에에춘으로 불법 거래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농촌 출신인데, 이들은 한동안 남자와 결혼 관계나 애인 관계를 맺고는 버림받는다.[1] 리사는 네덜란드에

도착하자마자 매춘업소로 보내졌다. 물론 거래된 여성들의 일반적인 경우처럼 리사가 탈 수 있는 항이라곤 도망치기 위해 구매자에게 도움을 호소하는 것밖엔 없었다. 1983년에 한 구매자가 리사의 이야기를 듣다니 도와 주겠다고 했다. 이것은 경찰이 현장을 불시 단속하기 2년 전의 일이다. 리사 에백은 자유의 몸이 되자 네덜란드에 있는 필리핀 단체들, 그곳의 여성 단체들 그리고 필리핀 여성 단체들의 후원을 받으며 1985년에 법정 투쟁을 시작하였다. 1988년에 얀 쇼먼Jan Schoonman은 필리핀에서 추방되어 네덜란드 법정에서 불법 거래에 대한 유죄 판결을 받고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필리핀 법원은 1991년, 그의 필리핀 거래 상대자였던 전직 국가 공무원 네스토리아 플레어서(Nestoria Flaer)를 석방시켰다. 담당 판사는 도리어 "부정한 성에 대한 멸난 취향 때문에 나타난 그녀의 명백한 비도덕적 행동"이라고 리사 에백을 비난하였고, 반대로 플레어서에 대해서는 "그의 성적은 트집잡을 데가 없고 그의 공적 생활에는 오점이 없다"고 하였다.[1] 1993년에 그 사건은 항소심에 있었다.

시골의 가난을 벗어나 온 여성들이 처한 취약한 조건에서 리사 에백은 매춘으로 에워싸였다. 그와 동시에 그녀의 나라에서 매춘은 산업화되어 가고 있었다. 군대, 특히 미국의 수비Subic 해군 기지와 클라크Clark 공군 기지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차원에서 성 산업이 개발되고 있었다. 리사는 필리핀에서 네덜란드로 에워싸였는데, 네덜란드는 후기 산업 국가들에서 매춘을 합법화시키는 데에 앞장섰던 서구 나라들 중의 하나이다. 리사 에백이 매춘을 통해 당한 착취는 이 책에서 밝히는 성 착취의 네 가지 단계, 즉 ① 여성에 대한 불법 거래, ② 군대에서의 매매춘, ③ 성의 산업화, ④ 매춘의 정상화를 모두 포함하고 있다.

1) Linda Richardson, From Slave Girl to Bought Woman: Current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93, p. 23.

성 착취의 역사적 단계

가부장적 권력은 여성을 성으로 환원시킨다는 측면에서는 단일하지만 성적 종속을 발생시키는 정치적 · 경제적 전략면에서는 다양함을 보여준다. 성 착취는 각 지역의 경제 발전 정도에 따라 다르게 형성되어, 여성을 종속시키기 위해 성이 어떻게 구성되고 전개되는지를 결정한다. 따라서 가부장적 권력과 성 정치학에는 단일한 전략만 있는 것이 아니다.[1] 성 착취의 네 가지 단계들은 한 나라의 특정 경제 발달 단계나 역사적 시기에서 발견되지만, 경제 발전 및 변형과 더불어 서로 아어지는 점진적 전행의 의미를 갖기도 한다.

여성에 대한 매매

이것은 특히 일차적으로 농경 사회로서 여성이 공적 영역에서 배제되어 있는 전前 산업 사회 및 봉건 사회에서 우세하다. 여성이 성으로 환원되는 것은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지위를 갖기 때문이다. 이런 조건하에서는 남편의 권리에 의해 집에서 무임 노동, 재생산 기능, 성 관계로 착취된다.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사적 존재가 되며, 집 밖에서의 노동도 공적 경제에 포함되지 않는 비공식 경제 부문으로, 배치된다. 남편의 소유물이라는 지위에 기인하는 성적 종속과 경제적 의존은 결혼 봉건제marital feudalism라고 할 수 있다. 봉건 제하에서 남성은 아내를 성적으로 착취하고 힘을 주고 매춘부를 사도 벌을 받지 않는데, 이는 그들의 발종을 보장해 주는 남성 지배 체제의 특권이다. 반면에 여성은 남성의 성적 소유물이기 때문에 결혼과 정해 매춘을 포함하여

1) 성적인 종속이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문제임을 무시한 채, 여성의 성애Sexuality를 문화적인 현상으로 오인하에서는 안 된다. 성 정치의 복합성을 포괄적으로 통합하시키는 입이나 성 정치를 문화적 현상으로 독소시키는 것은 모두 남성 지배 질서과 여성에 대한 시구적인 착취의 의미를 축소시키는 입이다. 급진주의적 페미니즘을 문화적 페미니즘으로 환원시키는 전통적 사회주의 페미니즘에 근거하여 가부장제를 문화적 [illegible] 에 대해서는 Thanh-Dam Truong, Sex, Money and Morality: Prostitution and Tourism in South-East

단계에 이르면 주요한 성 착취는 여성에 대한 매매가 아니라 물리적 강제가 별로 없는 성 산업으로 나타난다. 이주 과정에서의 경제적 궁핍과 고용 기회의 부재로 여성에게 모든 가능성은 닫히고 만다. 성 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일부 여성들에게 그것은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으로 다가온다.

매매춘의 정상화

이는 후기 산업 사회에서 보다 높은 수준의 경제 발전과 더불어 자리잡는다. 발전된 후기 산업 사회에서 여성이 경제적 독립을 이루어 감에 따라 남성은 결혼에서 여성에 대한 법적 · 경제적 소유권을 잃을 위기에 처한다. 이러한 통제권을 회복하기 위해 가부장적 권력은 공적 세계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종속시키는 사회적 조건들을 만들어 낸다. 경제적으로 독립적인 여성을 지배하기 위해 성 착취는 개별화된다. 성 과학자들이 고무하는 포르노그라피로 가득 찬 사회는 공적 영역에서의 개별화된 성 착취를 지명시킨다. 이러한 남녀 불평 사회에서는 여성의 성적 종속에 대한 공공연한 이미지가 필요하지 않다. 왜냐하면 성은 결혼에 의한 사적 소유의 문제였고, 여성에게는 결혼 외의 다른 경제적 · 사회적 대안이 없었기 때문이다. 또한 여성이 남편의 정당한 소유물이었을 때에는 여성의 동의라는 이슈도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포르노그라피로 가득한 사회에서는 여성들의 종속을 유지하기 위해서 여성의 동의가 아주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산업 부문에서 노동하는 여성들은 가족 내 남성의 통제로부터 멀어져 나온다. 그 대신 여성들로 하여금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에 동의하게 함으로써 공적 세계에서의 여성들에 대한 사회적 통제가 강화되는 것이다. 경제 발전과 여성의 경제적 힘들에의 잠재력이 증대함에 따라 새로운 공적 · 사회적 착취가 생겨나는데, 이것은 이전에 결혼에서 행해졌던 성 착취에 기반한 것이다. 특산이며 경제적으로 독립적이고 정서적으로 자율적인 여성이 역사적 현실로 등장했을 때, 성 착취의 공적 제도들이 그녀를

다시 성적 존재로 귀결시킨다.

이것이 바로 아니타 힐(Anita Hill)이 경험한 것이다. 저명한 아프리카계 미국인 변호사인 그녀는 클라렌스 토머스(Clarence Thomas)라는 사람에게 성희롱을 당했다는 사실을 국회 위원회에 보고하여, 1991년 그를 미국 대법원에 서게 하였다. 힐이 국회에서 증언했을 때 국회는 이 아프리카계 미국인 여성이 성으로 환원되고 성애화된 몸이기를 거부한다는 것으로 받아들였다. 성적인 대상이 되기를 거부하는 그녀의 태도는 하나의 도전이었다. 즉 역사적으로 특권 여성 노예가 백인 남성의 성적 소유물로 환원되었던 인종 차별주의의 성 권력에 대한 도전이었다.[9]

아니타 힐에 대한 위원회의 심문, 특히 펜실베이니아 주의 상원의원 스펙터(Specter)의 위압은 단지 한 명의 여성에 대한 커밍아웃이 아니었다. 전원 남성으로 구성된 위원회는 텔레비전을 통해 아니타 힐을 모든 여성의 본보기로 삼았다. 미국 여성들을 향해 던지려는 메시지는 바로 후퇴하라는 것이었다. 그녀의 주장에 대해 진실을 알아내려고 노력하기보다 강도 높은 교화 심문을 통해 일말의 저의를 찾아내려고만 하는 가차없는 노력에 그녀가 용감하고 꿋꿋하게 버텨 냈을 때, 전 미국의 여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음과 같은 사실을 각성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타 힐과 같은 여성의 말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자신들 중 어느 누구의 말도 받아들여지지 않으리라는 사실이다. 이것이 바로 클라렌스 토머스를 보호하던 남성 국회의원들의 끈끈한 유대가 만들어 낸 인종 차별주의적 메시지였다. 힐의 사건이 이토록 유명해질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성적으로, 인종적으로 차별받는 육체로 환원되기를 거부하는 여성의 전형이 되었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그녀가 아프리카계 미국인이었다는 사실로 인해 이러한 거부는 하나의 커다란 도전이 되었다.

9) Patricia Hill Collins, *Black Feminist Thought: Knowledge, Consciousness, and the Politics of Empowerment* (New York:

성문화와 섹슈얼리티의 구성

성적 권력은 사적이고 봉건적인 형태나 공적이고 산업적인 형태로, 또는 이 두 가지 모두의 형태로 여성의 삶을 조건 짓는 정치적인 것이다. 각각의 역사적 시기마다 결혼 봉건제에서 성 산업화와 상상화된 매춘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경제적 조건들의 기반하에서, 섹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고 또 사회적 규범과 가치들을 통해 그 사회의 특정한 거부장적 조건에 부합하도록 형태 지어진다. 사회가 섹슈얼리티보다 선행하며(생물학이나 충동, 필요, 욕구가 먼저 있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성 경험을 구조화·백악화시키는 것이다.

섹슈얼리티는 사회적으로 구성되기 때문에, 성적 교환의 행위들 속에서 지배 관계가 생산되며 이러한 행위들은 생리적 성 충동, 욕구 등을 형태 짓고 만들어 낸다. 심리학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그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다. 즉 성 충동이 선험적인 현상으로 먼저 나타나서 성 행동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다. 크리스틴 델피가 지적했듯이 "여성이 섹슈얼을 만들어 내고 젠더는 다시 해부학적 성을 만들어 냈는데, 이것은 하나의 물질적인 것을 두 개의 위계적인 것으로 나눔으로써(그 자체로서는 사회적 합의가 결여된) 해부학적 차이를 사회적으로 유의미하게 구분되는 단위로 변화시켰다."[10]

산업화된 사회에서는 성 과학 및 그 반대 급부, 즉 매매춘의 시각적 재현물인 포르노그라피를 통해 '섹슈얼리티'라는 사회적·문화적 생산물, 즉 정상화된 매매춘의 섹슈얼리티가 발전하고 전개된다. 푸코는 "19세기 이래로 성 과학(scientia sexualis)이…… 적어도 어느 정도까지는 성애술(ars erotica)로 기능했던 것은 아니었을까" 하는 의문을 제기한다.[11] 성은 공적·사회적 섹슈얼리티로서 전개되어 "육체들을 만연시키고, 혁신시키고, 병합하고, 창조하고, 정

10) Christine Delphy, *Close to Home*, trans. Diana Leonard (Amherst: University of Massachusetts Press, 1984), p. 144.
11) Michel Foucault, *History of Sexuality*, vol. 1 (New York: Vintage, 1980), pp. 70–73.

정 세부적인 방식으로 침투하고…… 점점 포괄적인 방식으로 인구를 통제하여"[12] '담론'들을 만들어 내었는데, 이를 통해 사회에 선행하는 정의나 의미가 없던 성이 성 차별적 권력의 조건으로서의 섹슈얼리티가 되었다.

한 세기에 걸쳐 서구의 개방적인 지역에서 성에 관한 공적·사회적 관심이 확산되면서, 성에 대한 사회적 기대는 남편의 권위하에 여성을 사유화하는 결혼이라는 것에서 남성에게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여성을 공적으로 식민화하는 선으로 옮겨졌다. 후기 산업 사회의 보수적인 지역에서는 여성을 가족 내의 재생산 및 성적 통제하에 가두어 놓으려는 노력을 보여준다.

쿨링(cooling, 냉방 문화—옮긴이)이라는 말에 대한 성적 차원에서의 강요가 등장했다. 20세기 말에는 이 말이, 지난 몇 세기 동안 여성에 대한 통제라는 차원에서 결혼이 의미하던 바를 의미한다. 여성이 더 이상 아내로서만 규정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이제 여성은 누군가와의 성적인 결합에 의해서 정체성을 드러내기를 기대받는다. 커플링(짝짓기 문화)은, 여성이 누군가와 성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그리므로 더 이상 결혼에 의해 보장되지 않는 통제하에 있다는 사회적 의미 작용을 하게 되었다. 여성은 성적 존재이며 또 그래야 한다는 명령은, 여성을 더 이상 결혼이나 경제적 의존으로 통제할 수 없게 되자 남성 지배를 유지하기 위해 역사적으로 최근에 구성한 사회적 전략이다.

1960년대의 성 혁명은 성 과학자들과 포르노그라피 제작자들의 작업을 경전으로 삼았는데 실라 제프리스가 지적했듯이 이들 두 집단은 1960년대와 1970년대의 여성 해방에 적대적이었다.[13] 결국 1980년대에 이르면 이들은 여성 '해방'의 뜻과 의미를 포르노그라피로 환원시키게 되었는데, 이때의 '해방'이란 전통적인 남성주의적 성 규범들을 깨고 여성을 섹스로 환원시키는 근대적·공적인 남성주의적 규범들로 대체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 과학과 포르노 담론에서 등장한 성 해방 문화는 섹스를 획득하는, 위해지는, 얻어지는 그 어떤 사물화된 '물건'으로 만들어 버린다. 그 '물건'은 오르가슴 속에서 사물화되었다. 스태튼 히스가 지적했듯이, 오르가슴은 "성행위에서의 주요 작전이다."

> 오르가슴이 무대의 중앙을 차지하는 한, 우리는 성 규범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남녀의 '본성적' 차이에 따라, 여성과 남성은 상품으로서의 성을 실현시키는 교환의 주체로 되지 않는다.[14]

서구에서 한 세기 동안 남성주의적 성 문화가 발전하는 동안, 섹슈얼리티는 상대적인 것이 되었으며 아직 강제적 성이 '정상적' 성인 것처럼 위장되었다. 섹슈얼리티의 전개는 일반적으로 1960년대 초에 대량 생산을 위해 출현한 포르노그라피의 발전을 따라간다.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법적 집행이 세거되자, 그 주제는 아직 나체 사진에서 점차 더욱 도전적인 포즈들로 확대되었다. 1963년에는 소비자들이 성적 명확성을 더욱더 요구하게 되었고,[15] 결국에는 하드코어적이고 가학적이며 비하적인 섹스와 여성이 성행위 중에 살해되는 스너프 필름 등이 생겨났다.

오늘날 남성 지배는, 인간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강화하는 공평적인 인간 경험으로서의 성을 착취로서의 성과 구별하는 데 실패한 사회에 의해 많은 부분이 유지되고 있다. 페미니즘은 이러한 가부장적 성의 구성에 개입했다. 드워킨과 매키넌은 시민적 권리의 차원으로 접근하면서, 포르노그라피가 "섹스에 기반한 착취 및 종속화의 체계이며 여성들에게 차별적으로 해를 끼치는 것"이라고 재규정하였다.[16] 드워킨과 매키넌이 포르노그라피를 해로운

12) Stephen Heath, *The Sexual Fix* (New York: Schocken, 1983), p. 85.
13) Richard Ben Veniste, "Pornography and Sex Crime: The Danish Experience," *United States Commission on Obscenity and Pornography Technical Report*, vol. 7, pp. 245–267.
14) Andrea Dworkin and Catharine MacKinnon, *Pornography and Civil Rights: A New Day for Women's Equality*

것으로 규정한 것은 단지 그것이 난폭하기 때문만이 아니라 포르노에서 여성은 물건이나 동물에 의해 삽입당하는 것으로 제시되고, 상처입고 피 흘리고 멍든 모습으로 보여진다. 그 핵심에 있어서 포르노그라피가 invariably 하는 성격을 갖기 때문이다. "여성들은 탈인간화된 성적 대상, 물건이나 상품으로 제시된다."[10]

법적으로, 드워킨과 매키넌은 포르노그라피의 주제가 "사진 그리고/또는 단어들을 통해 여성의 종속을 생산하는 성적으로 명확한 그래픽 표현"이라고 규정했다.[11] 그 조례 안에서 여성 종속의 시각적 재현은 살아 움직이게 된다. 매춘의 정상화는 사적인 삶과 관계들 속에서 포르노그라피가 전개되는 것을 입한다. 매춘의 정상화는, 하나의 계급으로서 여성들이 남성에게 상업적인 성적 서비스로서 이용된다는 것이 확인되는 일상적 · 주관적 경험일 뿐 아니라,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를 통한 경험이기도 하다.

성을 자유의 한 형식으로서, 그리고 그것이 인간적 경험을 중대시키든 해롭게 하든 상관없이 그저 개인적 선택의 문제로서만 강조하였던 성의 자유론자들은, 남성 지배를 옹호하기 위해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시민권적 접근을 비난하려고 움직였다. 1980년대에 이르면서 포르노그라피가 점차적으로 확대되어 매매춘이 성적 행동의 정상적 모델로 자리 잡는 남성주의적 성 문화가 등장했다. 그러나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여성의 육체를 식민화하는 이러한 서구 남성주의적 성은 서구적 헤게모니의 주요한 자원이 되었다. 미국 · 유럽 ·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성들은 군대에서, 시업에서, 관광객으로서 이러한 성을 제3세계 여성에 대한 시장 수요의 형식으로 요구한다. 미국, 유럽 또는 여타의 성형군들이 제3세계 여성들을 강간하고 매춘을 하게 할 때 그들이 이런 종류의 섹스를 처음 발견한 것도 아니고, 이들이 고향의 애인과 아내에게로 돌아갔을 때 이것이 끝나는 것도 아니다.

여성이 성적 대상으로 환원되는 각각의 역사적 시기(봉건제, 산업 사회, 후기 산업 사회)마다 여성의 종속은 다음의 세 가지를 통해 이루어진다. ① 여성을 생물학으로 환원시킨다, 즉 여성을 자신의 몸이 박탈되어 사물화되는 계급적 조건에 놓이게 하며, 여성의 성을 사회의 현실로서가 아니라 본질적 현실로 취급한다. ② 인간을 육체적 기능으로 환원하여 여성을 역사 밖으로 내몬다. ③ 초시간성. 여기서 여성은 시간 속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된다. 성 착취에서 여성은 보편화되므로 역사적이지 못하게 되고, 생물학으로 환원되므로 사회적이지 못하게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캐서린 매키넌은 성이 종속의 조건이 아닐 경우에 가능해지는 법적 · 사회적 현실을 다음과 같이 요약하고 있다.

> 만일이 평등하다면 여성들은 성적으로 예속되지 않을 것이다. 성적 관계은 예외적일 것이고, 성 관계에 동의하는 일은 일상적인 현실일 것이며, 성폭행당한 여성의 말을 믿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만일이 평등하다면 여성은 경제적으로 예속되지 않을 것이고, 그들의 절망과 주변성이 배양되지 않을 것이며, 그들의 강요된 의존이 성적 · 경제적으로 착취되지 않을 것이다.[12]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매춘이 정상화되면 돈의 교환이나 상대를 불과 10분 정도 대했다는 점에서의 익명성만으로는 더 이상 매춘 여성이 경험하는 성 관계를 일반 여성들, 십대들, 소녀들의 경험과 구별할 수 없다. 1990년대에 이르면 매춘 행위로

[10] Catharine MacKinnon, *Toward a Feminist Theory of the State*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89), p. 211.

[11] Catharine MacKinnon, *Sexual Exploitation, Rape, Child Sexual Abuse, and Workplace Harassment* (Beverly Hills, Calif.: Sage, 1988), pp. 139–56.

구매되는 섹스나 포르노그라피로 조정되는 섹스는 강간에서의 섹스, 십대들이 데이트에서 강요받는 섹스 그리고 많은 사적 관계들에서 지배적인 것으로 보이는 섹스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 이는 서구에서 강간, 매매춘, 사적인 성 관계 사이에 정상성의 구분선이 흐려졌다는 결론에 이르게 한다.

1960년대의 성 해방 운동과 포르노그라피의 합법화가 남긴 유산은 여성의 해방이 아니라 오히려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였다. 1990년대에 비디오카세트 녹화기는 포르노그라피를 집 안의 침실과 사적인 성 관계에 끌어들인 것 이상의 역할을 하였다. 캠모더는 침실(또는 포르노그라피, 즉 매춘화된 섹스가 행해지는 어느 곳이든) 포르노 제작의 장소로 만들어 버렸다. 매달 새로 나오는 대략 75개의 성인용 비디오의 3분의 1은 집에서 아마추어에 의해 만들어졌다는 보고가 있다.[13] 그리고 남편과 애인 또는 집에서의 내밀한 개인적 경험들을 찍는 것이 시장 가치가 있다고 보게 됨에 따라, 여성들은 성 관계 상황들이 점점 더 고문처럼 느껴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다이애나 러셀은 강간을 연구하면서 인터뷰한 여성 930명 중 10퍼센트에게 포르노그라피가 실제의 성적 경험 속으로 파고 들어왔다는 것을 발견했다.

> C 여인: 애인이었어요. 그는 포르노 영화관에 가곤 했는데 집으로 와서는 "영화에서 그런 걸 봤어, 한번 해보자"고 말했어요. 난 어떤 틀 속에 갇히는 것처럼 싫고 하기 싫은 기분이었어요.
>
> D 여인: 내가 그 남자 집에 머물 때였어요. 그는 나한테 오럴섹스를 하게 하려 했어요. 그는 영화 속에서 이보다 훨씬 더한 것들을 봤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여자를 성산적으로 육체적으로 고문하는 게 재미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
> F 여인: 그는 포르노 책에서 무언가를 읽었는데, 그것을 나와 해보고 싶어했어요. 그런 것은 너무 폭력적이었어요. 아주 거북한 것만 빼고 성관계를 해보는 것이었어요. 그가 나쁜 놈은 아니었어요. 나는 그렇게 하기를 거부했어요.
>
> H 여인: 그 커플은 막 포르노 책을 읽고 나서 내 앞에서 그룹섹스를 시도해 보려고 했어요. 그들은 내 남자친구에게 나를 설득하라고 했어요. 그 남은 밤 기억은 세 명이었다고 난 절대 믿지 않아요.
>
> I 여인: 사도마조히즘에 관한 것이었어요. 책 읽는 일에 참여해 보겠느냐고 물어 봤어요. 재미있을 것이었고 실제 그런 일은 없었어요. 난 그런 생활이 싫었어요.

인터뷰자: 당신을 화나게 하는 다른 것들이 있었나요?

> I 여인: 많은 성교요. 그것을 요구받았어요. 하지만 전혀 즐기지 않았어요. 그것을 해야만 했죠. 아주 아팠죠.
>
> M 여인: 많은 성교. 처음엔 나를 상당 설득하려 했고, 그와 대여섯 시간이 좀 됐고 몇 번 자기도 했죠. 한 번은 나더러 항문 성교를 해보자고 설득하려 들었어요. 처음엔 싫어 했고, 나중엔 동의를 하면서 그랬죠. 내가 "싫어"라고 말했는데도 그는 그 짓을 했어요. 난 너무 아팠어요. 정말 미치도록 아팠어요.[13]

사회과학자 릴리 갬블습다인과 페미 슈와르츠는 1980년대 초에 이성에 및 동성애 커플 1만 2,000명에 대한 연구에서 결혼한 사람들이 더 많은 성 관계를 더 규칙적으로 가진다는 것을 발견했다. 성적 활동이 가정 내에서 증가하는 한편, 섹슈얼리티는 성적 신호/지향보다는 오히려 성별을 중심으로 분할되었다. 상적인 면에 있어서 "남편과 남성 동거인들은 아내 또는 여성 동거인보다

[12] Diana E.H. Russell, *Sexual Exploitation: Rape, Child Sexual Abuse, and Workplace Harassment* (Beverly Hills, Calif.: Sage, 1984), pp. 175–76.

[13] Dana Rush, May 17, 1992.

는 게이 남성과 더 유사하다. 레즈비언이나 이성애 여성이 자기 게이나 이성애 남성과 비슷한 정도보다 오히려 레즈비언이 이성애 여성과 유사한 정도가 더 크다."[16] 이들의 설문은 권력·통제와 관련된 성행위에 대한 선호도에 상당 부분 기반해 있었다. 섹슈얼리티의 성별화에 있어서 남성들은 자신들의 성기를 성행위의 주요 포커스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섹스는 보다 많은 성적 대상화를 가져오고 이는 다른 사람과의 상호 작용적인 경험과 섹스를 분리시킨다. 어떤 섹슈얼리티가 보르노그라피에 의해 모습을 드러냈는데, 특히 "목구멍 깊숙이(Deep Throat)가 그렇다. 여기서 린다 러브레이스는 실제로 포주/포르노 제작자인 척 트레이너에게 성적으로 노예화되어 있었다.

서로에게 상호적이지 않으며 상대로부터 분리된 섹스는 경우에 따라 여성을 관계로부터 이탈시키고 분리시키고 탈신체화되도록 할 것이다. 따라서 여성들이 성적 관계에서 상호성을 중시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커플 연구에서 이상에 여성들은 성 관계를 상호적 참여를 포함하는 것으로서 선호한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이 점이 그들의 성적 만족에 중요한 점이었다. 그러나 안드레아 드워킨이 지적하듯이,

> 여성들은 성 관계가 자신들에게 쾌감과 열정, 관능과 친밀성의 경험이 되기를 바랐다. 여성들이 사랑에 대해 갖는 비전에는 인간으로서의 남성도 포함된다. 여성들은 남성의 <u>인간적인 특성이</u> 성 관계 행위 속에 포함되기를 원한다. 동등한 권력을 통해 존엄성을 얻지 못할 때조차, 여성들은 사랑의 구원적 잠재력을 믿었다.[17]

[16] Philip Blumstein, Pepper Schwartz, *American Couples: Money, Work, Sex* (New York: William Morrow, 1983), p. 305.
[17] Andrea Dworkin, *Intercourse* (New York: Free Press, 1987), p. 126.

사회의 상품화 과정에 참여하는 데 있어서, 그리고 사생활에서 성 작위가 심화되는 과정에 있어서 여성과 남성은 상이한 지점에 도달해 있다. 드워킨의 말을 계속 인용하면, "쾌감에 기반한 인간의 관능에 대한 어리석은 비난이 여성들의 열망 속에 있다. 그리고 성적 혐동함의 악몽조차도 이것을 사라지게 하지는 못하는 것 같다."[18] 선택과 욕망에 있어서 남성 섹슈얼리티는 관계가 소원한 섹스, 인간적 경험과 상호 작용으로부터 분리된 섹스 그 자체를 위한 섹스 등을 중심으로 배치된다. 이것은 성적 상호 작용을 파괴하여,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의 원인이 되는 대상화된 섹스를 고무한다. 이것이 사회적으로 구성된 섹스로, 바로 섹슈얼리티가 성 차별주의적인 권력 관계의 요소가 되도록 하는 조건이다.

만약 자아가 성적 사물로 환원되는 섹슈얼리티의 매춘화가 성인 여성에게 점점 많이 요구되고 있다면, 십대들에게는 이것이 훨씬 더 강한 압력으로 부과된다. 사회가 상품화되면서 보다 이른 나이인 십대에 첫 섹스를 하게 된다. 고등학생과 대학생들의 데이트에서 성적인 용어들은 매매춘 용어로 표현되고 있다. "후리다, 낚아채다(hooking up)"라는 말은 섹스를 목적으로 하는 데이트를 의미한다. 1981년에 미혼 소녀의 19퍼센트는 15살 전에 성 관계를 가졌다. 1988년에 그 수치는 27퍼센트로 증가하였다. 1991년에 15~19세의 미혼 여성 50퍼센트와 미혼 남성 60퍼센트는 성 관계 경험이 있었다. 성적으로 활동적인 15~19세 소녀 3명 중 1명이 임신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19]

에이즈에 대한 두려움과 십대 임신의 위기로 인해 1990년대 십대 중반 청소년들의 성적 행태를 관장하는 새로운 프로그램들이 나타났다. 이 같은 접근 방식은 소녀들에게 섹스에 대한 압력과 "낚아채기"에 저항하는 방법을 가르친다. 이것은 젊은이들에게 마약을 권하는 압력에 어떻게 저항할 수 있는지를

[18] Ibid., p. 139.
[19] "Teenage Sexual and Reproductive Behavior," in *Facts in Brief* (New York: Alan Guttmacher Institute, 1993).

가르치는 마약 예방 프로그램과 유사하다. 소녀들은 그들 자신의 목표가 확실하게 세움으로써 섹스에 대한 압력에서 벗어나는 법을 배운다. 이러한 시도들은 흑인 아프리카계 미국인 공동체와 '도시연맹(Urban League)'과 같은 단체들에 의해 장려된다. 이 프로그램들은 십대들의 성적 자율성, 성적 자기 결정권을 증대시킬 수는 있다. 하지만 인간 발달에서 조기 섹스의 해로움에 직접적으로 맞서지는 않는다. 질책나 순결 프로그램들은 도덕주의적인 경우가 많고 부시-퀘일(Bush-Quayle) 행정부에서 촉진된 반동적인 '가족 가치'를 대표하는 것으로서 거부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실제로 일부는 에이즈에 대한 공포와 십대 임신의 위기를 이용하여 성을 억압한다. 이와는 달리 인간 발달 단계상 성숙해질 때까지 성적인 활동을 조절하는 것을 통해 성적·개인적 자율성을 부과시키려는 것에 초점을 둔 프로그램들은 십대 여성의 발달을 장해하기 일쑤인 성적 권력 관계에 도전하는 잠재력을 갖는다.

조기 성 관계의 빈도에서 인종적 차이가 있긴 하지만, 앨런 굿마허 연구소(Allan Guttmacher Institute)에 의하면 "1980년대의 여성의 성적 활동 증가의 대부분은 고소득층 백인 십대 여성층에서 발생하였다."[20] 이러한 경향은 여성과 소녀 들에 대한 차별을 통한 부르주아 상류 계급의 조기 성적 행동이 정상화되는 경향을 반영한 것인데, 이는 동시에 만들어진 기준은 점차적으로 노동계급과 빈곤층에서도 차별을 생산해 낸다. 1993년 동부 해안의 시립 여자에서 고등학교 십대생들에 대한 조사에서 (100명의 응답자 중에서 67명을 전체로 해서) 40.3퍼센트는 섹스 경험이 있었고, 이들의 92.5퍼센트는 첫 섹스를 13~17세 사이에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 백인이며 중·상류층 집안 출신인 이 학교 십대 소녀들의 1993년 성 행동 양식은 플롬슈타인과 슈와르츠가 1983년 성인들에게서 보았던 양식을 따르고 있다. 이 연구에 따르면 여학생의 63.2퍼센트는 남학생을 오르가슴에 이르도록 한 반면, 여학생의 50.7퍼센트가 남학생에 의해 오르가슴을 느꼈다. 여학생의 43.6퍼센트가 남학생에게 만족스러운 성적 구강 성교를 해준 반면, 36.8퍼센트가 커닐링거스(남성의 여성에게 하는 구강 성교)를 경험하였다.

페미니스트들이 오래 전에 확립해 놓았던 내용과 일관되는 연구들이 시작되고 있다. 브루스 암무엘과 줄리앙 라파포르는 "성적으로 적극적인 청소년들의 상당수는 단지 강요를 받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것"이라고 말한다. 이들은 다음의 연구를 인용하였다. "14세의 백인 소녀 3퍼센트와 아프리카계 소녀 9퍼센트가 성 경험이 있었는데, 이들 중 백인의 2퍼센트 그리고 아프리카계의 6퍼센트만이 자발적으로 섹스를 하였다."[21] <u>이처럼 강제가 정상적인 성 생활의 내용이라고 여겨지는 곳에서 성의 사회화는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를 통해 이뤄진다.</u> 이것이 바로 강요된 섹스가 자발적으로 신택한 섹스가 되는 기초 조건이다. 전미여대생협회(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AAUW)가 행한 최근 연구에서 밝혀졌듯이, 이것은 섹스 경험을 넘어서는 영역에서의 성취까지 줄어들게 한다는 점에서 교육적·경제적·정치적 종속을 만들어 내는 조건이다. 전미여대생협회의 연구에서 중학교 3학년~고등학교 2학년 학생의 81퍼센트가 학교에서 원치 않은 성행위를 경험했다고 답했다. 여학생의 36퍼센트와 남학생의 56퍼센트는 성적 언사와 시선을 받았다고 했고, 여학생의 65퍼센트와 남학생의 42퍼센트는 성적인 접촉, 몰카링, 모집됨을 당했다고 말했다. 이러한 수치는 어떻게 십대의 성적 발달이 조기에 여성의 성적 종속을 가르치는지, 그리고 여성 발전의 잠재력을 잘라 버리는지 보여준다. 현재 십대들의 규범적 성 행동의 부정적 효과는 소녀들의 학교 생활 경험과 성공에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성애화에 종속된 소녀들 중 33퍼센트와

[20] Ibid.
[21] Bruce Ambuel and Julian Rappaport, "Developmental Trends in Adolescents' Psychological and Legal Competence to Consent to Abortion," *Law and Human Behavior* 16, no. 2 (1992), p. 140, citing K. A. Moore, C. W. Hood, J. L. Peterson, "Nonmarital Sexual Activity among Adolescents," *Family Planning Perspectives* 21, pp. 110–114.

소년의 12퍼센트는 학교에 가고 싶어하지 않으며, 소녀의 32퍼센트와 소년의 13퍼센트는 자신의 신변 때문에 하루 내에서 맘을 하지 않으려 한다. 10대 여학생들에게 많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성적 괴롭힘을 당하고 나서 학교 생활에 집중하는 것이나 공부하는 것이 힘들어졌다는 점이다. 여학생들의 20퍼센트는 점수가 떨어졌고 17퍼센트는 전학을 생각하고 있다.[23]

고등학교 교사인 에드 도넬란Ed Donellan은 매년 14~17세 연령대의 여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한다.[24] 도넬란은 성 착취에 대한 의식을 고양하는 데 이 조사를 활용한다. 1992년에 조사한 70명의 학생 중에서, 17퍼센트는 그들의 의지에 반하는 섹스를 해야만 했다고 대답했다. 57퍼센트는 원치 않는 키스를 당했고, 25퍼센트는 자신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누군가에게 성기 접촉을 당했다고 보고했다. 1993년에는 여학생의 9퍼센트가 원치 않는 섹스를 당했고, 78퍼센트는 억지로 넘적다리나 가랑이에 신체 접촉을 당했다.

도넬란의 조사에 학생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인다. 14살 먹은 한 여학생은 개인적으로 도넬란에게 와서 자신이 지난 9개월 동안 13명의 남자아이와 섹스를 했지만, "전 그 짓을 좋아하지도 않는 걸요"라고 말했다. 포르노그라피와 언론 매체를 통해 잘못된 여성의 성애화는 십대 남자아이들의 섹스에 대한 기대를 극대화시켰고, 십대 여자아이들에게는 자신들은 "싫어"라고 말할 수 없다는 믿음 속에서 성적으로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의 정점을 극대화시켰다.

내가 도넬란의 학생들과 이야기하는 중에, 몇몇 학생들은 아이 돌보기 아르바이트를 할 때 포르노그라피를 발견하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물어 왔다. 나는 친구나 신뢰할 만한 가족 중 누군가를 진화로 불러 그들에게 같이 있어 달라고 하거나 집에 같이 가 달라고 해서 성적 착취자가 될 만한 가능성이 있는 사람과 단둘이 있지 말라고 강조했다. 몇몇 소녀는 이런 보호가 극단적인 반응처럼 보이거나 자신들을 약하고 긴장된 모습으로 보이게 해, 도리어 성적인 압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우려했다.

초기 섹스 경험이 청소년기의 정체성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에 대한 증거 자료는 거의 없다. 그러나 강제가 압수록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면 여기서 우리는 여성 의존의 뿌리를 찾아볼 수 있다. 자율성, 독립심 그리고 깊은 관계를 위한 기초로서 소녀와 여성 들이 그들만의 개별적인 정체성을 계획하기가 어려운 것은 자연적이거나 본질적인 여성성 때문이라기보다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조건들 때문이다. 이것이 현대의 성적 종속과 관련 불평등의 모델이다.

성 착취를 촉진시키는 사람들이 매춘과 포르노에 참여하는 여성의 선택을 강조하는 한편, 다른 한편에서는 성폭력에 대항하는 캠페인이 여성의 동의를 중요한 이슈로 다루고 있다. 이 두 접근은 모두 남성의 성적 권력을 가부장적 억압의 체계, 즉 계급으로서의 남성들이 여성들을 섹스 계급으로 분류하여 종속시키고 있는 체계로부터 분리시킨다. 동의의도적인 승낙이든 거부든가 억압을 규정하거나 그 원인이 되는 것은 아니다. 폭력을 여성으로부터 분리시켜서 이해한다면, 여성이 피해자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동의의 위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피해자 개념은 가부장제의 정치적인 억압을 인식하는 데 실패하면서, 여성과 소녀 들을 끊임없이 야만적인 힘에 의해 동작이고 폭력당하는, 비성호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로서 성폭력을 담하는 위치에 배치한다. 그러나 이런 종류의 폭력에 종속되는 것은 성 착취와 억압의 연속체 속에서 발견되는 한 측면일 뿐이며, 아주 빈번히 발생하는 내용은 아니다. 폭력에 동의했다는 것은 억압이 존재한다는 증거이다. 그것이 어떤 식의 억압이든 간에, 모든 억압에는 폭력에 대한 동의가 있다.

23)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Women Educational Foundation, "Hostile Hallways: The AAUW Survey on Sexual Harassment in America's Schools," researched by Louis Harris and Associates, June 1993, p. 7 - 8 - 13 - 14.

노동으로서의 섹스?

매매춘은 여성을 섹스로 환원시키는 가장 체계적인 제도이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모든 성 착취의 토대이다. 이것은 다른 모든 종류의 성 착취를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원형이며 모델이다. 다시 말해 만일 매매춘이 성 착취와 여성의 성적 종속의 모델로서 인식되지 못한다면, 다른 모든 종류의 성 착취들도 효과적으로 다루어지지 못할 것이고, 그 중의 많은 것은 아예 성 착취로서 인정되지조차 못할 것이다.

섹슈얼리티의 매춘화가 정상화되는 과정에서, 매춘이 단지 새로운 노동의 한 형태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놀랍지도 않다. 매춘을 또 하나의 노동으로 본다면, 그렇다면 그것은 어떤 종류의 노동인가 하는 질문이 제기될 수 있다. 노예 노동인가, 봉건제의 착취 노동인가, 자본주의의 계급 착취인가?

노예 노동은 보편적으로 인간의 자유를 박탈하고 노동의 결과물을 박탈하기 때문에 비난받고 있으며, 어린이 노동은 자유에 대한 무정어리 인간 발달상 너무 어른 시기의 노동이라고 여겨진다. 만일 동의를 기준으로 노예 제도가 인간의 존엄성과 권리를 침해하는지 여부를 가늠한다면, 노예 제도는 인권 침해가 아니라고 여겨졌을 것이다. 왜냐하면 노예 제도의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바로 노예 스스로 자신의 조건을 수용한다는 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인종차별주의와 성 차별주의의 지배 형오가 매우 깊이 각인되어 있다.

수많은 노동 이론과 노동 시장 분석은 불평등과 이중 노동 시장을 폭로하면서 자본주의적 노동을 일에 가치를 적취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대인서비스 서비스 상품 생산에서의 노동을 생각해 보자. 감정 노동을 포함하여 무보수이면서 착취된 가사 노동과 개인적인 섹스 교환 사이에는 시장 상품화된 일련의 개인적 서비스들(심리 치료, 상담, 물리 치료, 마사지 등)이 존재한다. 대인 서비스는 무엇이 판매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정계를 구분 짓는 것에서 시작한다.

24) See Ada Russell Hochschild, The Managed Heart: Commercialization of Human Feeling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3).

심리 치료와 마사지는 특정 상황에서 가격에 따라 제공되는 적절한 치료로 규정된다. 이 행위들은 정서적 · 개인의 삶을 풍요시키기 위한 것일 수 있으며, 구매자는 이러한 서비스를 통해 정서적인 그리고/또는 개인적인 만족과 쾌락을 얻을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심리 치료사는 자신의 감정이나 욕망, 충동 또는 그 밖의 인간으로서의 자신의 일부를 파는 것이 아니다. 이런 서비스들이 매춘과 다른 점은 섹스를 연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다. 사실상 이 분야에서의 직업 윤리는 서비스 제공자들에게 손님에게 행하는 서비스가 성적이지 않도록 모든 보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한다.

매춘이 노동으로서 작취되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질문은 특정한 정황과 행동들이 과연 노동이 될 수 있는가 여부의 문제를 충분히 다루지 않고 있다. 위험하게도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가 노동에 대해 행한 연구들 페미니즘은 성에 대해 아직까지 행하지 않고 있다. 마르크스주의자들은 궁극적으로 자본가의 착취에서 해방된 노동, 그리고 노동자가 자신의 노동력을 소유하는 것을 이상한다. 그렇다면 페미니즘은 그러이 따라는 해방과 모순 없이, 미래 언젠가 여성들이 자유로운 성 노동자가 되는 것을 꿈꿀 수 있는가? 매춘이 가부장제의 성적 권력 관계의 모델이 되어 가고 있는 시점에서 이대까지 제기되지도 탐구되지도 않았으며 거의 없이 곤경에 빠져 있는 듯이 보이는 질문이 떠오르고 있다. 여성으로서 우리는 섹스가 어떤 것이기를 바라는가? 우리는 해방의 조건으로서 섹슈얼리티를 어떻게 사회적으로 구성해야 하는가?

여성의 무불 가사 노동과 그것의 일부분인 감정 노동을 다루는 최근의 연구는[25] '성적인 일' 또는 '성 노동'이라는 단어를 채택함으로써 위의 질문들에 대한 이슈의 답을 혼동하는 경향이 있다. '성적인 일' 또는 '성 노동'이라는 용어는, 만약 섹스가 인신 매매나 포주 그리고 성 산업에 의해 작취되지

않는다면 누구나 사회 보장과 임금을 충분히 받으면서 참여할 수 있는 직업 또는 노동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가와 남편들이 자행하는 노동 착취에 대한 정치적 의식이 깊어질 때 '성 노동'이라는 용어는 정상적인 어감을 부여받는다.

이 논쟁의 기저에는 보다 거대한 질문이 깔려 있다. 감정 노동이 착취적인 것은 무보수이기 때문인가 아니면 정서적·성적인 생활이 단순한 서비스로, 즉 권력 관계를 유지시키는 노동으로 전락하였기 때문인가? 이것이 바로 일반적으로 여성 종속, 특수하게는 성 착취가 이분법으로 제기해 온 질문이다. 광범위한 인간 경험의 나열에서 우리는 무엇을 노동으로 간주할 수 있는가?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착취적이지 않은 노동 조건을 획득할 수 있는가?

섹스를 노동으로 환원시키는 문제를 남겨서, 성 노동의 촉진은 특별히 성별화되어 있다. 서비스는 남성들에 의해 구매되고 남성들을 위해 제공되는데, 성적 서비스는 남성 지배의 특권일 뿐 아니라 지배의 억압적인 원인이기도 하다. 경제적인 발전과 더불어 공동체, 가족 그리고 개인 들을 위한 물질적 조건이 좋아짐에 따라 생활 내부, 감정, 개인적인 것이 강조되고 있다. 자아는 생활 내부의 질서적인 관계 속에서 이해되고 발전된다.[39] 감정, 내부 생활, 개인적 영역은 성별화되어 남녀에게 각기 다른 의미를 갖게 되었다. 감정 노동과 성적 서비스는 남자가 여자에게 요구하는 것의 일부가 되었다. 남성의 정서적 이탈과 성적 요구는 단순히 남성주의적 사회화의 문제가 아니다. 오히려 남성의 정서 생활 발육 부진과 성생활의 대상화가 권력의 배치 속에서 생산되고 있다. 이러한 권력의 배치 속에서 감정과 섹스는 노동으로 전락되고, 이것이 바로 여성에 대한 착취이다.

섹스가 가정의 의무라는 맥락에서 요구될 때, 그것은 일종의 노동이자 결혼 생산되는 계급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억압이 제거되는 것은 아니다.

이 연구의 논리는, 그리고 여성에 대한 폭력과 포르노에 대항하는 여성 운동의 모든 가정들은 새로운 가능성을 전제하고 있다. 즉 섹스가 해방의 조건이 되었을 때, 그것은 인간적인 경험이 될 것이고, 폭력과 해방 그리고 인간적 존엄성을 가지다주는 개인적인 상호 작용이 될 것이며, 원하는 이들에겐 재생산의 경험이 될 것이다.

매매춘 옹호론

소수이지만 최나 시끄러운 매매춘 옹호 운동에서, 일부 여성들은 그들의 매춘을 '성 노동'이라고,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으며 억압되지 않은 섹스 경험이라고 적극적으로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은 사도마조히즘을 여성들을 위한 성적 욕망의 형태로서 옹호하는 일부 아성애자와 레즈비언들의 주장과 다르지 않다. 포르노그라피를 조장하기 위한 이 운동 그룹은 F.A.C.T.가 이끌고 있으며, 캐롤 벤스와 같은 이들이 이러한 관점을 전개하고 있다.[77] 많은 여성들은 그들 삶의 선택된 영역으로서 포르노그라피의 세슈얼리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며, 동시에 또 다른 여성들은 '매춘 정체성'을 긍정적으로 주장한다. 이들은 이런 분리를 통해 비인간화된 것인가 아니면 다만 자발적으로 선택한 정체성을 주장하는 것인가? 만약 여성들이 적극적으로 포르노그라피와 매매춘의 섹스를 선택했다면, 우리는 그 섹스가 선택된 것이라는 이유로 아무런 해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들은 매매춘에서 교환의 해악을 비가시화시키고 섹스를 삶 속에서 경험되는 물무함으로부터 분리시키며, 그것을 오로지 인간의 의지 안에 위치시키면서 해로움의 경험을 동의의 문제 안에서 해체시킨다. 이것은 소비주의가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의 선택을 강조

[77] Carol Vance, *Pleasure and Danger: Exploring Female Sexuality* (Boston: Routledge & Kegan Paul, 1984).

내 성적 권력의 차원의 문제가 된다. 그러나 섹스가 또 다른 노동의 형태로 수용될 때, 인간은 인간의 성적 경험이 파괴되는 것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인간의 몸은 자아가 머무는 곳으로서 그 연약함과 취약성 때문에 보호가 필요하다. 몸은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내면 세계에서 외부 세계로, 자아에서 타자에게로, 스스로를 넘어서 현실에까지 확장되며, 이러한 인간의 몸에는 연약함이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것(우리)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기준을 만들어야 하는가? 여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지배와 국제적으로 상호 의존적인 자본주의 시장은 우리를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로 인도한다. 감정, 섹스, 재생산 활동이 (상품화되는 것이 가능한가를 물을 것이 아니라) 상품화되어야 할 것인가?

나의 작업 원칙은, 여성 착취로서의 매매춘에 대항할 때 여성의 섹스와 재생산이 노동과 시장 교환의 범위로 환원되는 것으로부터 여성을 해방시키는 일에 대해서도 함께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니스 제이콥스는 「자궁으로서의 여성(Women as Wombs)」에서 재생산의 마케팅을 비판하였다.[78] 페미니즘이 여성을 해방시키려면 여성의 섹스와 재생산이 그들 스스로의 선택인 수 있도록 해야 하는 동시에 인간의 연약함과 취약성을 침해하기보다는 그것을 보호하는 경험으로서 섹스와 재생산을 다루어야 한다. 나는 성적인 돌봄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들이 존엄성을 가진 인간적인 경험으로서의 섹스 안에 있어야 하며 존중과 기쁨을 누리는 것이 되어야 한다고 제안하고 싶다. 하지만 가부장적 지배 구조로서 결혼이나 매매춘은 제도적으로 이러한 것들을 제공해 주지 못한다. 따라서 남녀가 인간적 존엄성과 개인적 존중을 침해하지 않는 섹스를 경험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경험은 구조화된 가부장적 권력의 외부에 놓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들 때문에 섹슈얼리티의 매매춘에서

함으로써 시장 경제를 이끄는 자유주의 이데올로기의 변형이다. 이렇게 본다면 매매춘의 섹스는 여성의 계급의 조건이 아닌 개인의 사적인 선택으로 축소되어 버린다. 개인의 선택을 공공의 선보다 우선시하는 다락한 세상에서, 선택된 가부장적 폭력은 자본주의적 시장 교환에 이바지한다.

성 착취에 대한 여성주의 분석은 실제의 살아 있는 경험 속에서 여성들의 계급 조건을 분석할 것을 요구한다. 인권에 대한 여성주의의 관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질문을 본래의 행위로, 살아 있는 경험으로, 섹스가 행해지는 그곳의 조건으로 되돌려서 그것이 인권 침해 요소를 가지고 있는지 물어야 한다. 인권에서 해로움이라는 것은 그 행위, 그 경험과 재현에 따라 결정해야 하며, 이는 개별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여성의 계급적 조건이라는 집단적인 차원에서도 검토되어야 한다. 만약 그 행위가 억압적이라면 그것은 그 자체로서 인간의 삶과 복지와 존엄함과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이며 따라서 그것은 폭력이다. 그리고 그것이 성별화되어 있어서 수많은 여성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서 자행되고 있다면 그것은 억압이다.

그런데 일부 매춘 여성들은 자신들의 성 착취를 옹호하고 그것을 여성의 자유 혹은 자기 결정권의 조건으로 다룬다. 에리히 구드가 지적했듯이, "우리들 중 많은 수가 그 일을 하고 싶을 만큼 그 행위가 매력적이라고 여기고 싶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행위의 부정적인 측면을 '중성화'시키거나 거기에 우리가 참여하고 있다는 느낌을 없애 버려야 한다."[79] 바꾸어 말하면 "스스로를 정당화하는 일은 너무 고통스럽다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이다."[80] 그러므로 매춘의 일탈적인 지위와 그것이 만들어 내는 해악을 중성화시키는 것과 그 해악을 섹시하고 재밌고 스릴 있는 것으로 취급하는 것은 그것을 안정화시키

[78] Ellen Cronan Rose, "On the Cult of Pelvis: Some Thoughts on the Social Function of Cunnilingus," in Koedt, Levine, and Rapone, eds., *Radical Feminism*, pp. 68–75. Based on Gershon M. Legman, *Oragenitalism: Oral Techniques in Genital Sexuality* (New York: Julian Press, 1969).

[79] Erich Goode, *Deviant Behavior: An Interactionist Approach* (New York: Prentice-Hall, 1978), p. 72. Based on Gresham M. Sykes and David Matza,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A Theory of Delinquency," *American Sociological Review* 22 (Dec. 1957), pp. 664–670.

[80] Ibid., pp. 664–670.

고 말리하는 것이다. 매춘의 경우에 그것은 비인간화를 자신의 정체성 속에 적극적으로 통합시켜 그것을 삶 속에서 끌어안고, 궁극적으로는 그것을 정리하는 것을 뜻한다. 비인간화된 상이란 바로 그 속에서 자신이 달육화된 삶이 아니고 또 무엇이겠는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인다는 것, 비인간화 과정을 마치 인간의 본래적인 조건인 것처럼, 온전한 자아의 행위인 것처럼 경험한다는 것은 자아를 축이는 파편화를 마치 적극적인 선택, 충체성, 재미와 즐거움인 것처럼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비인간화를 자신에게 정리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도 정리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서 매매춘 옹호 운동이 시작되고, 푸부간 - 인간의 포르노그라피와 같은 섹스가 유효하게 되며, 레즈비언 사도마조히즘도 정리된다. 그러나 매매춘의 정리는 단지 사회적 낙인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만이 아니다. 매매춘 옹호론자들의 로비 활동은 성적 판제가 전반적으로 비인간화되는 풍토 속에서 성공 더 힘을 얻고 있는데, 나는 이것을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라고 간주한다.

매매춘을 공개적으로 옹호한다고 해서 매매춘이 정화되거나 낙인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여성을 착취하는 섹스의 사용을 공공연하게 주장하는 매매춘 옹호 운동의 정치적 맥락은 성적 권력 관계에 의해 구성된다. 매매춘의 섹스를 자신의 선택한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여성의 억압을 촉진시키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일이다. 다시 말해 여성이 매춘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선택한다는 것은, 구매자가 구매하는 비인간화되고 대상화된 섹스를 스스로 촉진시키는 것이다.

매춘을 옹호하는 여성에게 있어 매춘을 정화시키는 작업은, 매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에써 거리를 두고 자신들로부터 분리시켰던 그 모든 것들, 즉 그들이 거리 주기에서부터 탈신체화에 이르기까지 각각의 단계들을 거쳐 성장을 걸어가고 있는데, 매니저면 매춘이 점점 더 정상적인 섹스 경험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매춘 여성이 자신의 행위를 노동이라고 변호하고 정리할 때 그것은 단순히 자신에게 부과된 일탈의 딱지를 정화시킨다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들은 돈을 위한 섹스의 교환을 그저 단지 섹스로만 취급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섹스라는 명명하에 포괄되는 모든 형태의 대상화와 비인간화가 동일하게 받아들여지게 됨으로써 섹슈얼리티의 매춘화가 완성된 것이다. 이것이 바로 매매춘이 섹스가 정상화되는 방식이다.

포르노그라피의 정상화와 섹슈얼리티의 매춘화 속에서, 섹스의 경험은 실제 그렇이 있었는지 아니면 실적 비하가 있었는지를 결정하는 것과 점점 관련이 없어진다. 매매춘의 정상화는 자유 의지 또는 동의만이 강조되는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산물이다.

많은 비매춘(nonprostitute) 여성들이 매매춘 옹호론을 지지하는 이유를 섹슈얼리티의 매춘화에서 찾을 수 있다. 비매춘 여성들의 매매춘 옹호에는 매매춘의 낙인을 없애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다. 비매춘 여성들이 매매춘을 옹호하는 것은 스스로와 매춘 여성 사이의 구분을 더욱 강조할 필요성에서 오는데, 특히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로 인해 실제의 자체에서는 두 집단을 구분하기가 점점 어려워지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매매춘이라는 것이 '질서적인' 섹슈얼리티가 단지 매매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라면, 비매춘 여성들이 자신이 창녀가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특정 여성들을 매춘부라고 부르면서 성 노동자라고 부르건 간에 어쨌든 그들을 분리된 범주로 묶어 두는 것이다. 비매춘 여성들의 매매춘 옹호를 통해서, 비매춘 여성들과 매춘 여성들 사이의 분리가 유지된다. '성인들간에 동의한 섹스'의 매매-옹호자들을 하는 여성들이 '성 노동자'라고 불린다는 것을 알으로써, 일반 여성들은 자신들이 결혼, 데이트, 익명의 관계, 무불(無拂)성 관계에서 똑같은 섹스를 하더라도 창녀로 보이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된다는 것을 안다.

시 설정하였던 모든 것들을 내면화하고, 매춘에서 살아남은 여성들이 하던 것과 정반대로 매춘에서의 섹스를 그들 자신의 자발적인 경험으로 내면화하는 일이다. 매춘 여성이 매춘 행위를 하는 동안 자신의 육체에서 이탈하는 것과는 달리 그것은 매춘화된 섹스를 체화하는 일이다. 거리 주기에서 탈신체화까지 모든 것을 경험한 여성은 소수의 매춘 여성들만이 받아들이고 있는 행위를 거부하지 않는다. 매매춘은 성 차위이기 때문에, 자아에 해로우며 섹스를 통해 자아를 파괴하고 여성들을 비인간화시킨다. 즉 자신이 사용되도록 함으로써 다른 이들에게 성적 서비스 제공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곧 본래의 자아가 분리되었던 그것을 다시 체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른방식은 없을 수가 없다. 본래 본질적으로 체화된 매춘이란 존재하지 않는다. 매춘을 마치 성 차위가 아닌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곧 실적 비인간화가 본래의 인간 조건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

전형적인 예로 매매춘 옹호 로비 활동은 매매춘의 법적·사회적 수용을 정리함으로써 그것의 부정적 위상을 중화시킨다고 여겨지고 있지만, 사실은 국제적 성 산업에서 세상의 눈을 돌리는 역할을 한다. 만일 이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매춘 환동을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에 통합시키기 위해 단지 "일탈성의 중화"만이 필요한 것이라면, 그것은 매매춘이 언제 침해로서가 아니라사실상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일탈적"인 것으로 규정되었기 때문이다. 매춘 여성 조직들이 자신들에게 붙은 일탈의 딱지를 떼어내고자 하는 것은 전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매춘 여성들이 일탈자로 여겨지는 한, 대상화된 섹스를 수용하고 그것을 자신의 정체성으로 통합시키는 모든 여성들은 스스로가 매춘 여성이라는 느낌을 갖지 않도록 보호받는다는 점에서 그렇다.

여성의 성적 대상화 문제는, 누군가가 행하는 일이 사회에서 일탈적인 것으로 이해된다고 보는 "일탈성의 중화" 이론이 시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 매춘은 일탈로 여겨져 왔지만 섹슈얼리티의 매춘화를 통해 그 일탈적

성적 권력 관계

모든 성 차위를 가부장적 억압의 살아 있는 실제 경험 속에 위치시키는 일은 권력에 대해 이야기하는 일이다. 성적 권력에 대한 이론을 탐구한 푸코는 『성의 역사』(History of Sexuality)에서 상당히 가까이 다가섰다. '섹슈얼리티'라는 용어가 19세기에 형성되었음을 보여줌으로써 푸코는 성적 권력을 초역사적인 생물학의 영역이 아니라 역사 안에 위치시켰다. 그는 권력을 오직 국가나 일반적인 계급 실제 위에 있는 다시 말해 공식이고 사회적인 것으로서만 바라보려는 마르크스주의자들의 이해를 거부하였다. 푸코는 이전의 섹슈얼리티 이론가들에게서 무시되었던 사적 영역과 사회적 영역을 들어들여 이를 분석함으로써 성적 권력을 이론화하였다.

푸코가 우리에게 말한 권력으로서의 섹스는 어느 곳에서나 존재한다. 이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보는 곳에 존재하는데, "이것은 그것이 갖고한 단일성 아래 모든 것을 통합시킬 수 있는 힘을 갖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이 매순간에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기 때문이다."[110] 푸코는 성적 권력 관계를 "고유의 체계를 구성하고 작동하는 영역 안에 내재해 있는 복합적인 힘의 관계들"로 인식할 수 있는 이론적 기초를 우리에게 제공해 주었다.[111] 결과적으로 그는 섹스와 권력의 영역이 주어진 것이 아니라 구성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 〔그것은〕 예컨대 남성과 여성 사이, 신세대와 구세대 사이, 부모와 자식 사이, 교사와 학생 사이, 사제와 평신도 사이, 행정 당국과 대중 사이에서, 권력 관계를 위한 발판을 구성한다. 섹슈얼리티는 권력 관계에서 가장 다루기 힘든 요소가 아니라 최고로 다양한 전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는 폐기의

110 Foucault, op. cit., p. 103
111 Ibid., p. 92

과 우열은 목동을 위해 유용한, 참으로 대단한 도구상을 부여받은 요소 중의 하나이다.[13]

섹스가 어떻게 권력으로 구조화되는지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것의 개념의 내용물 속에서 깊은 잠지 말고 그것이 작동하는 지점으로 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푸코 이론의 문제점은, 그가 미시 영역에서의 성적 권력을 밝히느라 권력의 계급들을 만들어 내는 집단의 조건에 더 이상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다는 점이다.[14] 성적 권력은 모든 영역에서 작동한다. 이것은 개인적 커플 관계 내에서, 그리고 동시에 집단적·제도적·공적 차원의 성적 관계에서 끊임없이 재생산된다. 성적 관계에서 "권력은 어느 곳에나 있는데, 그것이 모든 것을 포괄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모든 곳에서 오기 때문이다"라는 그의 인식은 중요하다. 하지만 그는 구조를 제거하였고, 그럼으로써 권력을 무형의 것으로 만들면서 권력의 위계성을 무효화시켰다. 권력을 정의하면서 푸코는 그것을 정의할 수 없게 만들었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의 이론은 권력에 대한 책임감을 덜어냈다.

푸코의 말처럼, 성적 권력은 모든 곳에 있고 모든 곳으로부터 오지만 그것의 작용은 편재성으로 나타난다. 푸코에게 "주체란 없다." 억압의 주체는 신분과 인종을 교묘하게 피해 나간다. 권력에 대한 푸코의 정의는 성적 권력이 "권력 관계들의 다중적인" 상호 그물망 속에서 "순간순간 [끊임없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것을 포착하고 드러내는 것이 어렵다는 것을 밝힌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그러나 푸코는 권력을 전혀, 예외 없는, 구조적 불평등의 맥락 안에서 설명

13 Ibid., p. 103.

14 Nancy Hartsock, "Foucault on Power: A Theory for Women?" in Linda Nicholson, ed., Feminism/Postmodernism (New York: Routledge, Chapman & Hall, 1990), pp. 157~175에서는 푸코가 지배자를 어떻게 조망하고 있는지를 다룰하고 있다. 하트소크는 이 책의 108~109쪽에서 푸코가 개인에게 초점을 맞추느라 사회 구조의 차원을 놓쳤다고 지적한다.

로 구조화된 위계로 직접 다루지 않기 때문에, 그의 이론은 결국 그가 피하고 싶었던 그 지점에 도달하고 만다. 권력에 대한 푸코의 정의는 국가 차원의 권력을 우선적으로 고려함으로써 가부장제 권력이 개인적이고 사적인 방식으로 존재하는 것을 보지 못하게 하는 남성주의적 권력 이론을 강화시킬 뿐이다.

그러나 푸코가 권력을 가진 사람이 능동적으로 행위하고 지배자에 의해 만들어진 피지배자는 단지 수동적인 존재로 행위한다고 보는, "지배자와 피지배자 사이의 단순한 이분법적 대립"이 없다고 지적한 것은 정확하다. 권력의 관계에는 상호 작용과 상호 의존이 존재한다. 권력은 상호 작용을 통해 생산되는데, 이 상호 작용에는 시간과 역사 속에서 능동적으로 행위하는 억압된 '피지배자'와 '지배자' 양자 모두가 참여한다. 비록 지배자는 피지배자의 능동성을 인정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말이다. 상호 작용을 탐구함으로써 권력을 드러나게 할 수 있게 되는데, 성의 권력 관계에서 특히 이러한 사실은 분명하다. 여성 혐오에서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당한 학대 경험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비로소 의식이 노출되면서 이전에는 모호하던 권력 관계가 명백하게 드러나게 된다.

남성과 소년 들이 개인적으로 성적인 착취에서 제외되지 않는 것처럼, 권력은 한 성이 일방적으로 다른 성에게 배타적으로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때로는 남성과 소년 들도 성 착취를 당하기도 한다는 사실이 계급으로서의 여성 집단에 대한 성적 권력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 허위의 이분법의 대립(계급의 남성 및 소년 대 개인적 여성 및 소녀)에 대한 집착은 대립(남성들과 소년들이 당하는 폭력은 여성이 당하는 폭력과 같은 것이 아니라는)을 낳고 이것은 소년에 대한 성 착취를 가해의 예의 조항으로 만든다.

그러나 푸코가 주장하는 이분법적 대립의 거부는 내가 여기서 제시하는 것처럼 성적 권력 관계의 복잡성을 이해하기 위해 대립 너머의 것을 보려는 여성주의 이론과 같은 관계에 근거하지 않는다. 푸코와 그의 지지자들에게

있어 이분법적 대립을 거부하는 일은 사회적으로 지배가 생산되고 유지되어 성적 권력 관계가 형성되는 커플 문화로부터 사람들의 시선을 이탈시키는 기회를 만들어 준다. 권력을 해체시키는 과정에서 푸코는 권력의 주체를 미가시화시키기 때문에 권력 관계를 사라지게 만든다. 섹스와 권력을 연관 지으려는 노력 속에서, 푸코는 성적인 인간 관계가 변증법적으로 위계화된 성적 권력 관계로 변하는 커플 제도를 폭로한다. 그러나 이론가가 현실을 부정한다고 해서 그 현실이 바뀌는 것은 아니다. 단지 현실을 숨길 뿐이다. 사회로부터 그 자체를 구성하고 있는 제도적·개별적 권력 구조를 제거할 수는 없는 법이다. 권력에 대한 분석을 하지 않는다면, 푸코의 '권력 관계의 다중성'은 그 자체가 덮지한 다양성의 궁지에 빠질 뿐이다. 지배는 이러한 권력의 다중성 속에서 개별화되고 결국 희미 불가능한 것이 된다. 푸코에게 있어 커플 제도 안에서 작동하는 개별화된 성적 권력 관계는 집단으로서 체계적인 지배를 가져오지 않는다. 바나하면 성적 권력에 대한 그의 정의에서 푸코는 개인간의 성별화된 권력 관계로서의 계급 조건을 제거했기 때문이다. 개인간의 성적 권력은 그것과 구분되는 그 너머의 제도적·체계적·국가적 지배가 없다면 유지될 수 없을 것이다.

푸코는 페미니즘이라는 그 작업의 성부로 상대화시켰다. 페미니즘이 "피고도 다양한 권력을 구식"하기 위해 사용되고 "피고의 도구상을 넘어만입다"는 개념은 우리를 아무것으로도 이끌어 주지 못한다. 하나의 성적 관계와 다른 성적 관계 사이에 아무런 유철이나 일관성이 존재하지 않는 것이다.

권력은 관계적이다. 이것은 억압자와 피억압자 모두를 적극적으로 연루시킨다. "권력 관계의 다중성" 안에서 권력은 계급들, 즉 경제적 계급(자본가와 노동자), 인종적 계급(백인과 유색 인종), 그리고 성 계급(남성과 여성) 사이에서 작동한다. 주인과 노예의 상호 의존에 대한 헤겔의 설명과, 자본가와 노동 계급의 경제적 관계에 대한 마르크스의 분석은, 권력 관계가 힘의 위계로

변증법적으로 구성된다고 보는데 이것은 피억압자를 착취함으로써 이익을 얻는 억압자들에 의해 유지된다. 억압은 직접적이기도 하지만 보이지 않게 퍼져 있기도 하다. 직접적인 폭력은 '다자'를 통속시키는 억압의 한 측면에 불과하다.

노동자들은 자발적으로 일터로 가서 그들 노동의 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임금을 받는다. 그들의 노동 가치와 그들이 받는 임금의 차액이 바로 자본가의 이익이 된다. 그들 사이의 권력 관계는 임금과 이윤의 차감 계산 안에서 유지된다. 이것이 바로 지배의 상호 작용의 기본이며, 억압자와 피억압자 관계의 토대이다. 권력에 대한 관계적 이론은 종속된 자들을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그들이 스스로의 종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곤 하는 방식을 보여준다. 헤겔과 마르크스의 권력 이론은 억압을 유지시키는 상호 작용적인 힘의 관계에 대한 설명을 통해 억압의 역동성을 밝혀 준다.

가부장제하에서 여성의 경제적 관계를 형성시키는 권력은 상호 작용적인 성적 관계를 성적 착취로 만든다. 이로 인해 남성 지배의 관계적 권력은 개인과 몸에 도달한다. 성 착취를 살아 있는 경험으로서 고려하고, 동의에 의한 것이건 아니건 간에 성행위 속에서 그것을 발견하고, 성 착취를 조장하는 제도, 즉 예에존기 전혀의 맥락에서 그것을 분석할 때, 억압은 성체의 맥락을 갖게 되고 성 계급이라는 조건이 드러난다.

여러 가지 지배 관계들 중에서 오직 여성의 종속만이 계급의 관계인 동시에 사적인 관계이며, 성 관계지인 온밀한 상호 작용들이 동시에 권력의 관계가 된다. 계급으로서의 남성에 의한 계급으로서의 여성에 대한 성적 착취와 성 차별주의는 개인적인 관계들을 통해 작용하는 계급 관계이다. 여성 계급의 종속에 대한 여성주의 권력 이론은 개인적 상호 작용,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차원에서 작동하는 신체적·정서적 관계들에서의 권력을 밝혀내야만 한다.

가부장제는 권력 관계의 계급적 조건들을 남녀간의 섹스/젠더 관계 위에

없어 놀음으로써 계급 관계와 성별화된 대인 관계는 거의 완벽하게 일치시킨다. 이것이 여성 억압을 특수하게 만드는데, 섹스가 연루되는 성별화된 대인 관계를 통해 구성된다는 점에서 그렇다. 이것은 고도로 공식적·가시적·구조화된 동시에 개인적이다. 즉 감추어져 있고 비밀스러우며 육체적·정서적으로 내면화되어 있다.

성 권력의 젠더 관계는 매매춘, 포르노그라피 그리고 결혼 안에서 제도화된 동시에 개인화되어 있다. 섹스는 보통 사람들의 시선으로부터 가려진 가운데 개인적으로 일어나는 인간 관계 속에서 확인되는 관계적 권력이다. 프랑스 사생활의 역사에서 섹스는 '비밀'로 지칭된다.[30] 그룹섹스 그리고/또는 집단 장관을 제외하면 성적 관계는 일반적으로 눈에 보이지 않으며 연급조차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권력 관계는 구조적으로 개인화되고 그러면서도 상업화되게 마련이다.

사적인 성적 관계에서의 권력이 비가시적이기 때문에 성 산업에서의 권력도 부인된다. 섹스가 사업과 다국적 복합 기업을 통해 산업화됨에 따라, 미국이 제3세계를 지배하는 권력 관계 안에서의 섹스의 사용도 비가시화된다. 전체적으로 성의 권력 관계에서 개인이라는 단위는 여성을 예속하고 물화하는 성 산업의 발전과 국가 정책에 의해 실현되는 동시에 유지된다.

이러한 성의 권력 관계라는 맥락에서, 즉 여성 억압의 개인적이고 성애화된 지점에서, 여성들이 (여성주의 혹은 다른 실질적 정치적 대안이 없는 상태로) 집을 떠날 때(서구에서의 가출, 제3세계에서의 이민) 그들은 거의 대부분 섹스의 공적·정치적 제도인 매매춘에 빠져든다. 또다시 유색 인종 여성들에 대한 경제적 대안을 가로막는 인종 차별의 권력 관계와 사구의 폐쇄로 인한 빈곤한 여성들을 위한 정상적인 조건으로서 매매춘을 불러들인다.

권력은 욕이 된다. 그것은 "다자"를 종속시킴으로써 지배 계급을 위한 이득과 우월의 지위를 생산한다. 성 착취는 여성에게 심각한 해를 입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남성들이 얻는 이익은 단순히 남성에게 득이 되는 것만은 아니다. 성 착취는 여성을 후퇴시키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해악 속으로 퇴락시키기 때문에 발전과 성장을 향한 여성의 성취 능력을 좌절시킨다.

여성주의 정치 의식 대 이데올로기

십 년이 넘도록 나의 책 『여성 성 노예제』에 대한 여성들의 반응에 귀기울이면서, 나는 몇몇 여성들로부터 이 책이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읽을 수가 없다"거나 "너무 기분을 처참하게 만든다"는 얘기를 듣는 한편으로, 그들의 경험이 착취와 노예 상태였음을 이 책이 폭로해 주었기 때문에 혹은 단순히 지배가 명명되고 밝혀졌기 때문에 "힘을 얻었다"는 여성들의 반응도 접했다.

이 밖의 다른 반응들 중에는 이 작업을 '피해자 페미니즘' 또는 '남성 죽이기'로 묘사하는 것도 있다. 미국에서 이것은 그저 단순한 반응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다. 해방 운동으로서의 페미니즘에 대한 폐나 시프너우먼서 안문에 의해 과대 포장된 이러한 공격은, 페미니즘의 '정치적 올바름'을 공격하는 보수주의 진영과 자유주의자들과 한통속이 된다. 그들은 여성 억압을 부인함으로써 성 차별주의와 인종 차별주의, 동성애 공포증과 환경에 대한 사회의 저항 및 정치적 각성을 침묵시킨다. 남성에 대한 여성의 변호라는 형태의 안티페미니즘이 여성 운동에서 새로운 것은 아니다. 그러나 우익과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 세력의 연합은 새로운 것이다. 캐시 로이피는 페미니즘의 정치적 올바름에 반대하는 우익 진영 및 자유주의자들과 공모한 위험한 여성 운동의 진행이다. 그녀는 자신의 자료는 전혀 제시하지 않은 채 질질 있는 언론, 여성학을 정체 배운 일부 여성들을 대표한다. 전반적으로 여성학은 페미니즘의 행동주의와 분리되면서 점차적으로 여성에 대한 비정치적 학문이 되었다. 페미니즘은 개인적인 것을 정치적인 것으로 끌어올린 의식의 고양으로부터 태동했지만, 많은 여성들이 여성주의 의식과 정치적 해방을 개인적 선택(진실한 정치적 올바름의 문제로 다시 대체시킨다. 점점 더 정치적 의식이 희박해지면서 운동은 개인적 선택의 차원으로 문제에 접근하게 되었는데, 이것은 미국 개인주의 이데올로기와 거의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는 초기 "나"(me) 세대의 유산이다. 이것은 문제가 바로 옆에 있거나 멀리 있거나 간에 어떠한 사회적 조건이나 원인으로부터도 떨어져 연관되지 않는 것처럼 다루게 만들었다. 즉 어떠한 것도 그들 자신의 마법 세계 바깥에 존재하게 한 것이다.

1990년대 현재 우리는 역사를 되풀이할 위험에 처해 있다. 1800년대에 이르자 1850년대에 시작되었던 여성 운동의 정치적 의식이 사라져 갔다. 운동은 급속도로 비정치적인 개혁으로 환원되었는데, 이것은 여권(女權)이라는 협소한 개념을 제외하면 세상이 나머지에 대해 자유적인 당시의 억압 이데올로기들을 맹목적으로 받아 주었다. 그 세대가 페미니즘의 종말을 가져왔다. 이것은 1900년대까지 6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성 차별주의에 대해 침묵하게 했다.

1990년대 중반, 여성 운동은 동일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듯이 보인다. 여러게 명명된 의식을 통해 형성된, 여성 해방에 헌신하는 페미니스트들의 고립을 강화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여성 운동의 반동의 뿌리는 무엇인가? '남성 죽이기'라는 용어는 비난 이상의 것이다. 이것은 상징적인 것이다. 첫째, 이것은 스스로를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하는 여성들과 가장 반동적인 우익, 특히 이 말을 만든 러시 림보(Rush Limbaugh)와 같은 사람들의 공모를 상징한다. 이때 우익 선동가와 성적 자유주의자들과의 반동의 계류 속에서, 일부 여성들은 그들의 여성주의가 남성들, 인종 차별주의자들, 이성애적 성 차별주의자들, 오염자들을 '죽이기'로부터 보호해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한다.

[31] See Alain Corbain, "The Secret of the Individual" and "Sexuality Reformed," in Michelle Perrot, ed., Arthur Goldhammer, trans., A History of the Private Life, Vol. IV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1990), pp. 453–543.

[32] Kate Rapke, "Date Rape's Other Victim," New York Times, June 13, 1991, p. A23.
[33] New York Times, September 19, 1991.

그 전략은 직접적이지도 솔직하지도 않다. 추측건대 성적 권력 관계가 의식화와 여타의 운동들과의 행동주의 속에서 표면화됨에 따라, 일부 남성들, 백인들, 이성애자들 그리고 환경 오염자들은 자신들의 집단과 구성원들이 점차로 부정의와 박해의 가해자로 인식되는 것에 불편해하고 있다. 이 여성들은 성적 권력에 맞서기보다는 억압을 드러내고 부정의에 대항하는 여성들에게 눈을 돌리면서 우리가 여성을 피해자로 환원시키고 있다고 비판한다. 이들의 주장은 정치적 의식이 부재하는 상황에서만 주목을 받을 수 있는데, 의식은 피해자화라는 것이 단순히 수동성을 의미한다고 보기는 힘기 때문이다. 페니스 레이븐스는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 오래 전, 페미니즘 물결이 시작되던 초기에 페미니스트들은 여성의 신체이 가부장제에 의해 구성되고, 부각 지워지고, 틈 지어지고, 손상되고, 폐쇄되고, 체현받고, 장요되고, 형성된 것이라는 데 의견의 일치를 보았다. 어느 누구도 이것이 피어난 여성의 신체이 긴장 지어됩니거나 여성이 수동적이거나 사상 상태이 무력한 피해자라는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이것은 많은 여성들이 여성의 삶을 변화시키는 페미니즘의 힘을 신뢰하고 있었기 때문이며, 분명히 가부장제의 손아귀에 있는 나군나군한 순종자이거나 사회적으로 정정된 역할 속에 있을 때는 여성들이 변화할 수 없을 거라고 믿었기 때문이다.[17]

지금의 운동은, 이러한 역사를 기억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의식이 물 불던 시기에 그곳에 없었던 여성들에 의해 갑수록 더 주도되고 있다. 수십 년간의 침묵 이래 처음으로, 여성들은 스스로를 계급으로서 바라볼 수 있는 새로운 가능성들을 만들어 내고 있다. 1960년대 말과 1970년대 초반에 여성주의 운동

[17] Janice G. Raymond, "Sexual and Reproductive Liberalism," in Drucilla Lordbolt and Janice G. Raymond, eds., *Sexual Liberals and the Attack on Feminism* (Elmsford, N. Y.: Pergamon Press, 1990), p. 103.

을 특징 지었던 권력 관계에 대한 비판은 개인의 선택을 강조하는 비정치적인 개인주의의 수렁에 빠져 그것으로 대체되었다. 이것이 바로 실라 제프리스가 정의한 성 자유주의론인데, 즉 "성적 표현은 본래적으로 해방적이며 성지어 이것이 타인에 대한 차취와 억압 상태를 수반하는 때에도 검열 없이 변성되도록 허락해야 한다는 가정에 근거한 정치적 신념과 행동의 양식"을 말한다.[18] 이제 분명한 것은 "성 자유주의"도 '반동'(backlash)도 개인적 선택이라는 물의적 이데올로기를 지칭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익과 자유주의자 둘 다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와 같은 조건하에서 일부 대여성 운동은 장단을 비난하기 위해서 강력한 물리력이 있었음을 증명해야 한다든지, 특히 성적 권력 관계가 사회에서 여성-남성의 상호 작용을 물심하면서 일상 생활에 미치 있다는 사실을 부시하도록 압력을 받는다. 강력한 물리력을 증명해야 한다는 부담감은 1970년대에 우리가 미국에서 처음으로 장간 반대 운동을 시작했던 상황이 완전히 역전된 대기인한다. 이것이 바로 레이건 행정부 초기에 사회적 서비스 삭감과 사회적 책임 운동에 대한 집열 위협 이래로 심복다에 반대하는 여성 운동이 수세적 위치에 놓이게 된 정확이다. 수많은 장간 위기 센터와 매 맞는 아내를 위한 쉼터들이 서비스 대상과 내용을 줄이기 시작했다. 사회 복지 서비스 기관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함으로써, 이 단체들은 그들이 받고 있던 얼마 되지 않지만 귀중한 지원금을 계속 받을 수 있기를 희망했다. 포이즈와 소위 '남성 죽이기' 운동으로부터 남성들을 보호하려는 여성 센터 부대는 레이건 반동 정부에 의해 촉발된 자발적인 자기 규제를 지속시키고 있고, 이것은 부시 행정부에서도 계속되고 있다. 이것은 우익, 근본주의자, 정치적으로 반동적 입장을 가진 사람들과 여성들 간의 이상하고도 위험한 충직함이다. 이들은 개인적 선택을 주장하여 장간을 정상적인 섹스로 취급하고, 포르노그라피를 장려하고, 안광

[18] Drucilla Lordbolt, "Introduction," in Lordbolt and Raymond, *ibid.*, p. 8.

3장 성적 권력 113

안정받지 못하게 된다. 예쁜 여성들은 그들이 섹스의 대가로 돈을 받는 교환 시장에 스스로 동의를 한다는 이유로, 학대와 폭력과 비인간적인 섹스를 위해 존재하는 여성, 즉 "타자"가 되기 위한 존재가 된다.

성 자유주의의 가부장적인 권력은 손상된 판단을 정상적으로 보는 사회적 맥락 안에서 협소한 의미의 동의를 구성하는 이데올로기를 전개시켰다. 가부장적인 법은 개별적으로 당하는 강제에 대해 다룰 수는 있지만, 여성들이 집단적으로 경험하는 억압에 대항하는 데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 성 착취의 경제학이 불분명하다면 그런 식으로 여성을 억압하는 것은 대단한 범죄가 아니게 된다. 그러한 법은 여성이 성적 권리에 종속되는 문제를 결코 해결하지 못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법은 모든 사례들을 개별화시킴으로써 집단적 조건을 인식할 수 없게 만드는 그 자체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도 교정할 수 없을 것이다. 오로지 억압을 분석하는 집단의 해방 운동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여성의 종속은 우리가 그것을 여성의 정치적 현실로 의식하게 되기 전까지는 침묵 속에 가려진 채 정상적으로 보이는 현실 속에 위치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우리가 극단적인 형태의 억압을 직접 경험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를 여성으로서 비인간화하고 폭력적으로 대하는 일이다.

침묵을 깨고 성 착취의 이면의 현실에 직면하기 위해서는 여성주의 정치의식화가 필요하다. 의식화는 폭력적이고 고통스러운 현실을 새로운 앎으로 변화시키서서 권리를 주장하게 하고 실천하게 한다. 성 착취에 직면하여 권력 관계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가 없는 채로 투지에서 앞으로 나아간다면, 기존의 자유주의 이데올로기 또는 고통 그 자체와 만나게 될 뿐이다. 즉 성 착취가 불가피한 것이 아니고 정치적으로 구성된 것이기 때문에 여성에 의해 해체될 수도 있는 것임을 알지 못하게 된다.

모든 성 착취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은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한 감각, 즉 여성의 정체성에 대한 분열과 절해이다.

매매춘과 근친 강간은 말등이와 같다. 양자 모두 소녀 및 여성 들을 스스로의 자아로부터 분리시키고 온전한 전체로서만 존재할 수 있는 인간 존재를 분할하면서 낳을 수 없는 것을 조장 내는 여성 종속의 대리적인 모델이다. 성 정치학에 대한 의식화는 파편화되었던 전체를 다시 복원한다. 이것은 치유 및 행동의 토대가 된다.

여성주의 정치 의식은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특수한 것과 일반적인 것, 또 우리 자신의 문화적 · 국가적인 특수성과 전세계적인 공동체 및 전지구적인 패러다임 사이에서 변증법적인 상호 작용을 하게 한다. 정치 의식화는 우리 개인의 집에서부터 공동체로, 개별 국가에서 전세계 경제로 그리고 전지구적인 정치 질서로 사회적 지형에 대한 의식을 확장시킨다. 국제적 페미니스트 행동주의는 우리를 가부장적인 권력에 대한 분석으로 이끌게 마련이다.

의식화는 섹스가 작위되는 조건을 볼 수 있는 존재가 될 것과 섹스 교환을 만들어 내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볼 것을 요구한다. 의식화는 단지 지적인 각성이 아니다. 정치적 의식화는 여성들이 개별적으로 착취당하고 억압당하는 경험을 고통스러운 종속자로서뿐 아니라 그것을 초월할 수 있는 잠재자로서 함께 해준다. 나는 여기서 초월성을 영적이거나 막연한 뜻으로 연급하는 것이 아니다. 여성주의 의식은 물질적이고 구체적인 조건들에 대한 지식인데, 폭력적인 현실을 만들어 내는 지배에 대해 이는 만큼 이들 조건들을 개혁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게 된다. 여성주의 의식은 남성 지배의 전체적 지형, 즉 억압을 인식한다. 억압에 대한 의식은 전략을 보다 명확하게 만들고, 비전을 전체적이게 하며, 행동을 보다 심화시킨다.

페미니즘에 대한 흔한 비판으로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피해자로 환원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여성들이 자신을 피해자로, '힘있는 자'로, 억압자로 그리고/또는 해방된 자로 인식하는 일은 오로지 정치적 의식화를 통해서만 현실적으로 가능해진다. 변화를 만들어 내는 의식화의 잠재력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 역동적이고 강력한 일은 '정치적 올바름'으로 축소되었다. 그러나 사실상 정치적 의식화의 힘은 가부장적 지배의 세상을 있는 그대로 볼 수 있게 해주기 때문에 개인에게 해방적이다. 의식화되지 않았거나 의식화되기 이전의 많은 개인들에게 고립된 채 경험되기 때문에 이름도 없고 말해지지도 않은 그 무엇이 된다. 말은 타자와의 상호 작용 속에서 생산되는 것이기 때문에 고립은 말을 상대화시켜 개인 내부의 심리적 조건으로 규정해 버린다. 페미니즘이 여성들을 피해자로 환원시킨다는 비난을 받는 동안, 지배로 인한 여성들의 고립되고 억제된 분노와 고통은 임상적 조건들, 즉 고통의 물리적 근원으로 환원된다. 객관적인 지식은 자아의 안과 밖에 위치하고 있다. 이것은 억압의 경우에서처럼 자아를 외적으로 결정하는 기능을 할 수도 있고, 의식화의 경우에서처럼 집단적 행동의 토대로서 기능할 수도 있다.

객관적 지배를 극복하는 것을 의지의 행동으로서, 심리적 상태로서 다루는 개인적 힘의 배양empowerment은 억압에 대한 지식을 개별화된 개인 감정과 반응 안에 빠뜨리는 이상주의적 접근이다.

의식화는 객관적 조건들을 정치적인 조건으로 인식함으로써 이것들에 대한 개인화되고 고립된 지식을 재구성한다. 지식을 재구성하는 것은 피해자화를 재정의하는 것인데, 이것은 더 이상 개인 내부의 경험으로서 인식되지 않으므로 개인의 의지나 동의의 문제가 아니게 된다.

따라서 여성들에 대한 최악의 가부장적 지배를 아는 것과 관련한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여성 억압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에 달려 있다. 내가 논의하고 있는 의식화란 개인적 현실에 대한 정치적인 앎이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을 말하는데, 여기서 행동은 현실에 대해 저항할 뿐만 아니라 현실을 바꿀 수 있다는바람 것이라는/바꿔야 한다는 앎과 확신을 포함한다. 이러한 적극적인 앎은 집단 행동을 통해 만들어지고 그 안에서 발견될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새로운 현실을 상상하고 그 가능성을 알게 될 가능성에 대한 가부장적인 제한을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거나 미리 만들어진 정치적 분석을 하게 한다.

이처럼 의식화는 일상의 현실을 관계 전체로 파악함으로써 당연하게 여기고 있던 구조화된 권력을 보고 규명할 수 있게 해준다. 의식화는 매일 일상 속의 권력과 지배와 종속을 드러내 주는 비판적인 사유를 통해 접근할 수 있다. 페미니즘은 국가 내에서만이 아니라 가족 내에서, 공식적인 것에서만이 아니라 침대 안에서 지배 이데올로기들에 저항해야 한다. 서구에서 페미니스트들이 여성을 위한 법적인 투쟁을 할 때 시장 경제를 합리화하고 개인주의를 고무하는 법률적 자유주의가 문제시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자신은 국가와 문화의 이데올로기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여성주의 의식화의 실패가 비로소 등장한다.

개인적으로 나는 나의 직업으로부터 법률적 자유주의의 이데올로기를 덜어내기 위해서 그것의 한계와 대면해야 했던 경험이 있다. 의식은 이러한 과정중에 있다. 1983년 나는 스웨덴의 연구자 한나 올손Hanna Olsson을 만났는데, 그녀는 중요한 정부 연구물 『매매춘 보고서』(The Prostitution Report)의 책임자였다. 한나와 나는 이미 1981년에 스웨덴의 매매춘에 관한 우리의 연구에 대해 보고할 기회를 가졌었다. 우리는 지구의 다른 곳에서 창녀 시로에 대해 전혀 알고 있는 것이 없었으면서도, 똑같은 주제로 연구했고 심지어 매우 흡사한 결론을 가지고 비슷한 시기에 출판을 했다는 사실에 강한 인상을 받았다. 『매매춘 보고서』에서 한나가 "사랑 없는 남성 사회"에 대해 말하는 동안, 나는 나의 책 『여성 성 노예제』에서 포주들의 유인 전략으로서의 친절하기와 사랑하기테리적인 접촉에 대해 이야기했다. 1983년 내가 스웨덴 국제 회의의 긴급한 안건들을 뒤로 하면서 한나는 내게 솔직하게 물어 왔다. "압소사, 캐시, 네 글이 노예제라는 표현을 써야만 했고?" 매매춘이 얼마나 노예화시키는 일인지 그녀가 잘 알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질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에, 나는 마음속으로 그녀의 질문 뒤에 있는 이슈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다.

을 넘어서게 한다.

의식화는 성 착취에 대항하는 여성 운동의 행동주의, 새로운 계획, 새로운 지식과 정치적 대결의 기반이다. 그것은 성 정치학에 대한 의식화이며 지배와 억압의 사회적 · 정치적 현실에 직면하는 의식화이기 때문에, 여성들이 개인적 · 집단적으로 강간, 매춘 그리고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 치유되는 방법을 찾을 수 있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성 정치학에 대한 의식화는 여성들이 거리로부터 빠져나왔을 때, 집에서 도망쳤을 때, 그리고/또는 치료를 만으러 갈 때 만날 수 있는 지지의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의식화는 정치적인 투쟁과 앎 속에서 구성된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정치적 의식화는 다차원적이고 내포적일 때만이 여성주의적인 것이다. 그것이 전지구적이지 않다면 의식화가 아니다. 그것이 억압을 구성하는 모든 조건을 다루지 않는다면, 단지 부분 수정을 통해 가부장제를 보다 잘 작동하게 하려는 개량에 불과하다. 만약에 여성 운동이 서구에서의 로르노그라피나 제3세계의 인신 매매 문제처럼 성 착취의 모체가 되는 전체 조건들을 다루지 않고 오직 하나의 이슈에만 대항하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면 여성주의 의식은 약화될 것이다. 따라서 단일 이슈 페미니즘은 억압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과 모순된다. 제3세계 여성들을 착취하는 그것이 바로 자신들의 성 정치학에서 유래한다는 사실을 서구 여성들이 인정하지 않을 때 등장하는 계몽적 페미니즘이 그렇다. 마찬가지로, 만연해 있는 여성 미하적 이데올로기의 영향력 때문에 끔찍한 빈곤을 넘어서는 현실이 불가능하게 보이고 극심한 여성의 성예화가 현실의 전부인 것처럼 보일 때, 여성주의 의식은 이러한 현실들을 극복하는 미래의 가능성을 보아야 한다.

의식화란 정확한 정치적 분석을 하거나 정답을 안다는 뜻이 아니다. 그것은 이데올로기이다. 이데올로기는 특정 권력 배치를 정당화하는, 구조화되고 미리 만들어진 사고의 장치이다. 정치적 의식화 대신에 이데올로기는 현재 상황

그렇다. 나도 모르게 나는 여성의 선택이라는 '자유-강제' 이분법에 빠져 있었고, 어리석은 나의 생각 때문에 "여성 성 노예제"에서 매매춘을 다루기 위한 적절한 전략으로서 비범죄화를 제안하게 되었던 것이다. 그 순간, 나는 시장 교환을 장려하는 개인주의에 의해 배제되고 제한된 여성적 권리 개념과 싸워야 하는 여성적 사고의 덫이라고 이제서야 이해하게 된 그 덫 속에 내가 사로잡혀 있었다는 사실을 깨달으며 시원한 느낌을 맛보았다. 극도로 과도한 개인주의는 권리를 개인적 권리로 한정시키고 그럼으로써 권리를 도구화한다. 시장 경제를 장려하는 개인주의 아래에서, 권리는 온전한 인간적 조건을 향상시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시장 경제에 봉사하기 위한 도구적 목적으로 전락하고 결국 개인주의의 경쟁적인 측면을 촉진하게 된다. 인권을 개인의 동의로 축소시키는 것은 권리의 의미를 시장 경제에 봉사하는 것으로 도구화하는 일이다. 이렇게 도구화될 때 권리는 인간 삶의 질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지 않는다. 여성의 성 자유주의에서 극단적으로 드러나듯이, 권리는 시장 경제적 용어로 이해된다. 즉 개인의 선택과 의지가 인간 정체의 내용과 질보다 우선시되는 탈규제화된 인간 조건으로서 이해된다.

내가 이 책에서 개발하고자 하는 여성주의 인권 개념에 의하면, "동의"는 자유의 지표가 아닐 뿐더러 동의의 부재가 차위의 일차적 지표도 아니다. 자유주의적 동의 개념은 억압에 대한 여성주의 분석을 개인적인 잘못으로 협소화하고 페미니즘을 개인주의 윤리학 속으로 빠뜨린다. 이것은 섹스를 동의와 의지의 문제로 제한하는 것이고, 섹스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떻게 경험되는지, 어떻게 권력으로 구성되는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다.

개인 및 제도적 차원에서, 비인간적인 섹스의 실제 경험은 여성에게 해악이 되고 끈덕 계급을 유지시킨다. 이것은 억압이다. 억압에 동의하거나 대상화되고자 하는 '의지'를 갖는 듯이 보이는 것은 억압의 한 조건이다. 이것은 결코 자유로운 상태의 표현이 아니다. 섹 차위는 억압이다. 이 말은 섹 차위가 피억압자 집단 안에서 수용되고 심지어 장려될 것임을 못한다. 억압이란 바로 이런 것이다: 이것이 바로 모든 형태의 억압이 유지되는 방식이다. 동의를 위반하는 것은 아마도 차위의 한 측면일 수 있다. 그러나 이것이 차위를 규정하는 결정적 특징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자유가 일차원적인 동의 개념으로 한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반드시 인간의 전반적 조건, 여성의 조건에까지 확장되어야 한다. 이것은 하나의 예로서 여성에 대한 모든 차위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성폭력을 반대하는 또는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반대하는 운동은 광범위한 성적 억압(여기에는 결혼에서 여성들의 성적 종속과 데이트에서 십대들의 성적 종속이 포함되듯이 매매춘도 포함된다)의 일부분에 대한 도전에 몰두하다.

그리하여 나는 동의의 문제나 강제의 개념은 법적 차원에서 그리고 사회적 차원에서 매매춘을 강간으로부터 잘못 분리시킨다고 본다. 결혼, 데이트 그리고 강간의 경우에, 여성들이 증명해야만 하는 것은 그들이 침해당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그들이 창녀가 아니라는 사실, 즉 그들은 섹스를 위한 몸뚱이가 아니라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성폭력에 반대하는 운동들이 심심디 "싫다는 말은 싫다는 것(No means No)이라는 캠페인 수준으로 스스로를 제한하고 있는데, 이들은 강간이 섹스가 아니라 폭력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것처럼 위급하고 있다. 해방 투쟁은 이러한 얕은 수준의 요구에 머물러서는 안 될 것이다. 성적 권력에 전면적으로 대결하기 위해서는 지금까지 그래 왔듯이, 여성들이 우리의 온전한 해방을 쟁취하겠다는 결단을 내려야만 한다.

4장 성의 산업화

1970년 이래로 매매춘의 가장 극적인 변화는 매매춘이 산업화되고 정상화되었으며 전지구적으로 확산되었다는 것이다. 매매춘은 여성, 특히 신흥 개발경제 안의 여성들에게 밀려들었다. 현재 매매춘의 규모는 타이에 200만, 한국에 130만, 필리핀에 50만 명으로 추정된다. 성의 산업화는 국내와 해외의 고도로 조직화된 여성 매매와 넓리 퍼져 있는 비공식적인 알선 방식을 통해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지구적인 여성 시장을 형성한다.

산업화는 일반적으로 시장에서 교환을 위해 제조된 상품과 서비스의 대량 생산을 의미한다. 나는 이 글에서 '성의 산업화'를 상품의 생산, 즉 섹스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하고자 한다. 그것은 본래 섹스적이거나 매매될 수 없는 인간의 자아로부터 나오고 또 그 안에 있는, 원래 시장 교환을 목적으로 하지 않았던 것을 상품으로 만든다. 성의 산업화는 대규모 상품 생산이다.

매매춘의 산업화는 ① 전쟁이나 외국 점령 시기의 군대 매춘을 위한 대규모 여성 배치, ② 경제 발전을 위해 외화 소득을 올리는 관광 산업의 발전, ③ 특히 지역 산업을 지배하는 여러 가지 규제가 면제된 수출 자유 지역의 여성 노동력 착취를 통해 여성을 주변화하는 수출 지향적 경제 발전에 뒤이어 일어난다.

매매춘의 산업화는 각 단계를 거쳐 발전한다. 첫째, 성 산업은 경제가 산업화되기 이전에도 외국 군대나 사업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번성했다. 군대 매춘과 섹스 관광은 산업화의 결과이도했든 하지 않았든)라기보다는 국가의 산업 발전에 선행해서 또는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오늘날 매매춘과 이와 관련된 성 산업들, 즉 거대한 국제 호텔 체인점, 항공사, 술집, 섹스클럽, 마사지업소, 매춘업소, 매춘 알선업자 들은 모두 세계적으로 중요한 경제 세력의 하나가 되었다. 여성매매로 어린이, 남자아이와 여자아이 모두은 상품이고, 산업은 이들을 통해 섹스를 판다.

둘째, 호텔, 항공사, 관광 산업을 운영하는 다국적 거대 기업이라는 전통적 경제 구조뿐만 아니라 포주, 알선업자, 조직 범죄와 같은 대규모의 지하 경제에 의해 유지되고 있는 성 산업은 여성의 몸을 사용해 남성에게 섹스를 팔아서 막대한 수입을 얻는다. 국가의 산업화 초기 단계에 성 산업은 지방에서 도시로 이주하는 과정(3장에서 설명할 것이다)에 있는 여성을 철저히 착취한다. 경제가 발전하기 시작하고 여성이 노동 시장에 접근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성 산업은 노동 시장이 여성들에게 제공하는 것보다 더 높은 임금으로, 경제 발전의 초기 단계 매춘에서 벌 수 있던 수입보다 더 높은 수입으로 여성들을 사게 된다. 개발 경제의 국가적 - 개인적 산업 통제와 산업화 이전에 이미 가족 내에서 형성된 여성의 노동 가치에 대한 낮은 평가 때문에, 매춘은 일부 가난한 여성들에게 유일한 경제적 가능성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제 발전이 전체 사회의 물질주의적 수준 향상을 가속화시킬수록 매춘은 여성들이 산업화의 물질적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훨씬 그럴듯한 수단이 된다. 여성들은 정상화된 성 산업의 덕택 속에서 물질적인 소득을 위해 매춘을 시작한다.

그러나 매매춘 시장은 성적 서비스에 대한 구매자의 수요에 의해 굴러간다. 산업 경제 이전과 초기 산업 경제에서는 남성이 군 복무나 사업을 위해 집과 가족을 떠나 집단적으로 모여 있는 곳의 수요가 가장 컸다. 전쟁은 주로 여성과 아이들로 이루어진 난민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적 재배치를 야기한다. 전쟁중의 대규모 강간은 그로 인해 가족과 공동체의 명예를 더럽힌 여성들을 성 산업의 상품으로 생산해 낸다. 강간당한 여성과 소녀들은 포주와 조직 범죄단의 그물망에 특히 잘 걸려든다.

1992년 보스니아에서 세르비아인들이 감행한 대량 학살에서 인종 청소의 일환으로 자행된 대규모 여성 강간은 마을과 거리에서뿐 아니라 수용소에서도 일어났고, 일부 여성은 그러한 목적으로 수용되었다고 보고되었다. 유럽공동체에서 파견한 진상 조사단은 분쟁이 시작된 후 약 2만 명의 이슬람교도 여성이 강간을 당했다고 추정했다. 국제사면위원회(Amnesty International)와 같은 인권 기관에서 파견한 또 다른 진상 조사팀들도 이슬람교도 여성에 대한 대규모의 강간을 확인한 바 있다. 그러나 유엔이 1993년 보스니아에서 발생한 대량 강간을 조사하면서 그 숫자는 줄어들기 시작했다. 1993년 말까지 유엔은 신원이 확인된 800명의 희생자를 포함해서 3천 건의 보고를 받았다.

도움이 필요했던 보스니아의 여성들은 국제적인 여성 운동 덕분에 이러한 범죄에 국제적 관심을 집중시키는 수단들에 접근할 수 있었다. 그리므로 공식 집계와 추정 건수 사이의 계속적인 불일치는 더 이상 여성에게 저질러지는 잔혹 행위를 묻어 버릴 핑계가 되지 못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베트남전쟁과 한국전쟁 그리고 그 이전에 일어났던 전쟁중에 발생한 여성에 대한 대규모 강간은 전쟁의 보이지 않는 결과였다. 1993년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보스니아 인종 학살 사건을 처리하면서 대규모 강간을 하나의 특별한 사건으로 다루었다.

여성에 대한 강간은 적(남성)을 모욕하기 위한 군사 전략으로 알려져 있으나, 강간과 포르노그라피, 거기에서 파생한 매매춘은 유사과 오락(E & E)의 일종이었고 평화유지군도 분명 예외가 아니었다. 수용소에서 발생한 강간이 포르노그라피 영화로 만들어져 왔다는 보고 이후, 수용소의 군인들은 매매춘

을 위해 이러한 여성들을 이용했다. 1993년 12월 유엔사무총장 부트로스 부트로스갈리(Boutros Boutros-Ghali)는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1993년 말 소나스(Sonja)에서 이슬람교도 크로아티아 여성들을 살해한 혐의로 한 세르비아 군인이 사형 선고를 받은 사라예보의 재판에서 드러났던 혐의들을 조사하도록 했다. 사라예보에서 10킬로미터 떨어진 소나스에는 레스토랑, 펍퍼, 수용소 등으로 추측되는 것들이 있다고 알려졌다. 보도에 따르면 유엔 평화유지군이 그곳을 빈번하게 방문하는 것이 목격되었다고 한다. 1993년 11월 1일 뉴욕에서 있었던 재판에 대한 『뉴스데이』(Newsday)지의 보도에 따르면, 세르비아인들이 매춘을 위해 여자들을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동안 몇 명의 여성들이 유엔군에게 강간을 당했다고 보스니아의 세르비아계 장교 한 명이 진술했다. 강간과 매춘 사이에는 미세한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라는 것이 바로 어떤 경우에는 세르비아인이 평화유지군에게 여성을 성적으로 사용하게 해주는 대가로 돈을 받았다는 것임을 짐작할 수 있을 뿐이다.

엘살바도르 시민 전쟁 이후 수도 산살바도르의 매춘 여성 수는 군대의 대규모 수요로 1991년에 1만 9천 명으로 두 배나 증가했다.[1] 엘살바도르와 과테말라의 국가 테러리즘하에서 이루어진 정치 · 군사적 탄압에는 성 착취가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성적 학대는 국가 테러리즘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알려지지 않으며 피해자들은 이를 언급조차 할 수 없다. "어떠한 저항의 행위라도 생존의 위협이 되기 때문에" 이들은 병원 치료를 받을 수 없으며 심지어 모든 지원의 길이 막혀 있다. 이 때문에 단지 끔찍한 경험으로 시작된 일이 마지막에는 끝나지 않는 재앙이 되어 간다. 파괴적인 경험, 자아의 말살은 모두 폐허를 유발하는 보다 큰 그림 안의 하나의 세부적인 일부분으로서 존재한다.[2]

여기에는 매매춘이 포함된다. 매매춘은 여성에 대한 중층적인 고문과 억압의 드러나지 않은 측면이다. "많은 여성들이 전체 군대의 공동 재산이 되지 않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한 명의 군인에게 자신의 몸을 사유 재산으로 주는 관행이 엘살바도르 전쟁 지역에서 목격되었다."[3]

매매춘은 자발적이건 강제적이건 상관없이 전쟁과 정치적 억압과 고문의 시기에 일어나는 성 학대의 한 형태이자 결과이다. 결국 매매춘은 아프리칸느 아론과 그녀의 동료들에 의해 확인된 군대 성 학대의 공식에 잘 들어맞는다.

> 확인할 수 있는 성적 학대의 형태는 그것이 다음 중 어떤 형태에 속하는지에 따라 잘 구분된다. ① 한 여성이 구금되어 있을 때 군대의 관리 운용 절차(SOP, standard operation system, 예를 들면 고문의 구성 요소로서의 강간) ② 여성이 자택 사회에 거주할 때 관리 운용 절차에 들어 군대와의 연관으로 성적 학대를 허용받은 군인에 의한 악의적인 착취) ③ 국한적인 상황에 의해 발생하는 우발적인 학대.[4]

제3세계에 주둔하고 있는 군인들의 성적 수요는, 사업가들이나 E & E 류가 주인 군인들이 구매하는 여성들로 가득한 시장을 형성해 왔다. 매춘 알선업자들은 대도시의 버스 정류장과 기차 역에서뿐 아니라, 제3세계의 가난에 찌든 시골에서 소녀와 젊은 여성들을 손에 넣어 팔아넘고 있다. 이들은 군인과 사업가의 대규모 시장 수요에 맞추기 위해 공급을 계속하고 있다.

매매춘의 섹스 서비스를 위한 여성의 대규모 산업화와 함께 많은 여성 인구가 매춘화되었다. 필리핀이나 타이와 같은 나라에서는 어촌들이 모두 매춘 관광지로 변했다. 특히 전쟁으로 폐허가 된 한국과 베트남, 그리고 최근에야

1) "Violation of Children's Rights in El Salvador, 1989-91," Children's rights International, 1991, p. 26.
2) Adrienne Anne, Steven Cone, Andrea Parsland, Barbara Zeiser, "The Gender-specific nature of El Salvador and Guatemala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in Central American Refugee Women," Women's Studies International Forum 14, Nos. 1-2, p. 43.

3) Ibid., p. 40.
4) Ibid., p. 38.

군사 전략 기지가 된 인접 필리핀과 타이 등의 아시아 지역에서 매매춘은 중요한 산업이 되었다. 이들 나라의 여성들은 경제를 살리기 위해 아내와 매춘부로 매매되었다. 남성들은 유럽과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타이완에서 섹스 관광을 온다. 이러한 섹스 관광은 이 나라들의 주요한 외화 수입원이다.

군대를 위한 매춘 시장: 한국

전쟁중에 대규모로 이루어지는 섹스 시장에서의 여성 판매는 아시아의 많은 지역에서 경제 발전 이전부터 일어났다. 제2차 세계대전중에 한국은 일본의 식민지였고, 중국의 일부 지역은 1937년부터 1945년까지 일본에 의해 점령당했다. 전쟁중에 일본 군대는 10~20만 명에 이르는 한국 여성에게 일본군을 대상으로 매춘을 하도록 강요했다. 1944년 4월 일본 군대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마구치 사령관이 발표한 동원령에는 전쟁을 위한 노동력 동원에 "황군들에게 봉사할 자원대로 100명의 한국 여성"을 포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10] 1991년 12월 도쿄지방법원에 세 명의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제기한 소송에서 고소인 중의 한 사람은 이 '자원대'가 여성을 납치해서 만들어진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어 성 노예로 모집한 여성을 위한 한국위원회의 증언자들은 "이들 중 절반은 우물가에서 물을 긷다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납치되었거나 집에서 경찰에 체포되거나 길을 가다가 경찰서로 호송되어 강제로 모집되었다"고 증언하였다.[11]

한국과 동남아시아의 여성들은 일본군 '위안소'(미군 R&R의 일본판)에 배치되었다. 위안소는 일본군이 점령한 지역에 설치되어 있었다.[12] 위안부 출신 여성들이 낸 고소장은 모집된 여성들이 어떻게 배치되었는가를 설명해 주고 있다.

> 군 위안소는 중국, 동남아시아, 남태평양 제도, 일본 등 일본 군대가 주둔하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었다. 전쟁이 악화되어 일본 군대가 철수하게 되었을 때 군 위안부들 중 일부는 버려졌고, 일부는 일본군과 함께 명예롭게 죽도록 강요당했으며, 나머지는 살해당했다. 이런 식으로 군 위안부들은 일본 군대에 의해서 소모품으로 취급되었다.[13]

이들 군 위안부의 약 80퍼센트가 한국 출신이며, 나머지는 일본, 버마, 필리핀, 기타 아시아 국가에서 온 것으로 추정된다. 알려지지 않은 수천 명의 한국·중국 여성들이 섹스 감옥 안에서 죽어갔다.

위안소의 이용은 오직 군인들에게만 제한되어 있었고 '세카이칸'은 군사적 용병을 맡지고 있던 6연대와 9연대가 이용했다. 군인들은 위안소에 들어가기 위해 표를 사야 했다. 그들은 '사무실'에서 '이름표'를 받아들고 돈을 내고는 표와 휴지, 콘돔을 받았다. 표에는 위안부의 이름과 방 번호가 써어 있었다. 대개 군인들은 여자를 지명하거나 선택할 수 없었다. 성택의 여지 없이 그들은 배당된 여자의 방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계급에 따라 시간이 정해져 있었다. 낮에는 사병들에게, 초저녁에는 하급 장교들에게, 그리고 늦은 밤에는 고급 장교들에게 시간이 배당되었다. 규칙을 어기는 군인들은 수감되었다. 한마디로 군 위안소 이용 규칙은 군대 규율의 일부였다. 실제로 헌병은 이 시설들을 정기적으로

11) Speech of President of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Austria, June 14~25, 1993.
12) Ibid., p. 23.

순 공산주의자들을 처리했다. 그러나 어떻게 군대를 입지 않은 나머지 민간 베트남인과 이들 노랑이를 구별했겠는가? 성경이나 코코넛? 여성은 그냥 창녀였을까, 아니면 '노랑이 창녀'였을까? 전쟁, 특히 베트남전쟁에 인종 차별주의는 군인들에게 야수적인 성을 팔기 위해 성 산업이 채택한 전략의 일부였다. 처음에는 프랑스 식민주의자들, 다음에는 미군 등 침입자들과 인종이 달랐던 베트남 여성들은 베트남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침입자들의 적이었으며 동시에 돈을 주고 사서 소유할 수 있는 섹스였다.

베트남에서 매매춘은 전쟁중에 벌어졌던 베트남 여성에 대한 성 착취 중 하나였을 뿐이다. 전쟁중에 남성들은 대규모 강간을 통해서 그들의 적을 모욕했다. 아시아의 전통 사회에서는 여성이 강간을 당하면, 대개 자신의 가족에게 돌아갈 수 없거나 결혼을 할 수 없게 된다. 리 라이 헤이슬립은 전쟁중에 베트남 중부의 한 농촌 마을에 살고 있던 십대 소녀였다. 처음에는 베트공이, 그 다음에는 미군의 지원을 받는 남베트남공화국 군이 매일 마을에서 밀고 밀리는 가운데 그녀는 양편 군인들 모두에게서 강간을 당했다. 베트남전쟁에는 강간당한 여성들이 특히 폴루에스럽게 여겨졌다. 그들이 강간당한 것은 가문과 마을, 지역 전체에 먹칠을 하는 것이었다. 매춘은 헤이슬립과 같이 '결혼할 가망이 없는' 여성들에게 남겨진 유일한 길이었다.[14] 전시의 성 산업은 성폭력과 강간이라는 군사 전략을 기반으로 형성된다. 강간당한 여성은 군사 전략의 피해자였지만 매매춘의 유일한 공급원이기도 했다. 미국이 많은 군인을 베트남에 묶아 놓자 매매춘 시장의 수요가 급증하였던 것이다.

남성이 돈을 주고 매춘 여성을 살 때, 자신의 부인에게는 비밀이라는 점, 종교가 이를 금지한다는 점, 그리고 불법이라는 점이 남성들을 유혹한다. 군대 매춘의 또 다른 재미는 죄책감 하나 없이 아내과 가족을 강탈당한 다른 인종의 여성을 상징으로 비하시키는 것에 있다. 성 산업은 인종 차별적 편협함으로

13) Speech of President of Japan Federation of Bar Associations,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Austria, June 14~25, 1993.
14) Le Ly Hayslip, with Jay Wurts, When Heaven and Earth Changed Place (New York: Doubleday, 1989), p. 224.

시장을 형성한다. 그들은 다른 인종 여성의 몸을 섹스 시장 거래에 제공함으로써 '금지된 것'을 추구하는 손님의 인종 차별적 호기심을 만족시킨다. 인종·민족·문화적 차이는 금지되어 있던 성 상품화의 일부이다. 구매자가 색성의 몸을 살 때, 다른 인종의 여성들은 흥분을 고조시키며 또 하나의 경계를 형성한다.

여성 매매는 구매자에게 여성의 몸뿐 아니라 다른 인종 문화를 갖고 있는 '유색'의 몸을 제공함으로써 손님의 인종 차별주의적 욕구를 충족시킨다. 이군이 그들의 적을 노랑이라고 부르면서 대상화할 때 베트남 여성들은 실제로 구매되든 그러지 않든 창녀로 전락하였다. 베트남에서 미국 여성이라고 해서 성적으로 대상화되거나 위협받지 않은 것은 아니다. 집프전에 참여한 여군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들 또한 성적으로 대상화되고 위협받았다고 한다. 그러나 베트남에서 눈에 보이는 미국 여성들의 존재는 처음부터 창녀가 아니었다. 그들은 군사 요원, 군인의 부인 또는 관광객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이다. 즉 인종 차별주의는 피지배 인종 집단의 여성이 남성에 의해 강간이나 매춘을 통해서 성 착취를 받는 대상으로 선택될 때 지배 인종 집단의 여성(백인, 미국 여성)을 성 착취부터 보호해 주는(보호해 달라고 하지도 않았지만) 기능을 한다. 인종주의는 성 착취에서 '좋은' 여성과 '나쁜' 여성의 분리를 유지시킨다. 그러나 1992년 미 해군의 테일훅 회담(Tailhook Commission)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착대한 사건들이 드러났듯이, 특별히 인종적 차이가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나 미국 여성이 임무를 수행하고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섹스를 위한 몸살이로서의 위치를 다시 갖게 된다.

다음은 인종 해방 운동과 그 군대에 관한 이야기이다. 미군과 남베트남공화국 군과는 반대로 베트남 민족 해방군은 지역 여성에 대한 강간과 매춘을 금하는 엄격한 윤리 강령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이상이 항상 현실은 아니다. 특히 남성 주도적인 해방 운동에서 모든 군대가 여성 성 착취에 개입하고

순찰했다. 군인이 위안소에서 소란을 피울 때는 헌병에게 보고되었다.[9]

한국과 일본의 여성 단체들이 수년 동안 계속 압력을 넣은 뒤인 1992년 초, 일본은 마침내 "여성들을 강제로 군인과 성 관계 하도록 하는 데 일본 정부가 개입했다"고 인정했다.[10] 얼마 후 네 명의 중국 여성이 중국 주재 일본 대사관에 한국 여성과 함께 매춘을 강요당한 수많은 중국 여성의 일원으로서 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서한을 보냈다.[11] 일본 정부는 문서를 통해, 군대의 관행으로 허용되는 전시 강간이 일본에 대한 점령지의 저항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서 군인들이 점령 지역의 여성들을 강간하는 것을 막고자 매춘을 조직했다고 밝혔다. 한국 여성들은 일본 정부가 모든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완전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한국 여성을 일본군 위안부로 이용했던 일본군은 그 후 미군 점령기에 미군이 한국 여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일본인 기자 아요리 아츠이는 매춘이 종전 후 일본에 주둔하는 군대를 위해 준비된 조달품의 하나였다고 말한다.

> 제2차 세계대전에서 일본이 패망한 후 일본 정부는 일본 여성을 미 점령군의 위안부로 제공했다. 일본이 항복한 날로부터 6일 후인 1945년 8월 21일 개최된 각료 회의에서 당시의 후생소장관인 고노에 후미마로는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한 것으로 보도되었다. "우리는 섹스에 굶주린 미군으로부터 우리의 여성과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조치를 취해야만 한다." 3일 후에 시경국장은 매춘업을 하는 사람들을 불러모아 놓고, "우리는 4천만의 꽃과 같은 일본 여성

9) "Story of Song Sin Do, Korean Forced 'Comfort Women' Resident in Japan," statement prepared for the UN World conference on Human Rights, Vienna, Austria, June 14 – 25, 1993.
10) *New York Times*, January 14, 1993.
11) *New York Times*, August 5, 1992.

의 순결을 보호하기 위한 임시 방편으로 여러분이 미군을 위한 '위안' 시설을 만들기를 원한다"고 요청했다. 정부는 이들에게 3천만 엔(현재의 환율로 대략 3백만 달러)을 간접적으로 지원하였다고 계산했다.……

'특수위락시설설립협회'(Association for the Creation of Special Recreation Facilities, 후에 유흥오락협회(Recreation and Amusement Association, RAA)로 불린다)의 설립을 공표하는 행사가 8월 28일 미 점령군의 첫 번째 연대가 도착하는 때에 맞춰 항구 앞 광장에서 개최되었다. 곧이어 R.A.A.가 지원하는 최초의 군대 매춘업소인 고더치 가문이 도쿄의 오모리가에서 개업했다. 8월 30일 정치 매춘부였거나 "성 일본 여성 모집, 숙식 · 의복 제공"이라는 광고에 속은 약 100명의 여성들이 미군에게 몸을 바쳐야만 했다. 일본의 군 사창가는 문자 그대로 풍습으로 볼 때 버린 도쿄의 폐허 더미에서 연기가 채 사라지기도 전에 생겨나기 시작해서 3개월 만에 25곳으로 늘어났다. 한창때는 7만 명의 '위안부'들이 있었다고 집계된다.[12]

처음에는 일본군, 나중에는 미 점령군을 위해 조성된 한국의 매춘은 후에 한국에 주둔한 미군을 위한 군대 매춘으로 변했고, 그 다음에는 일본인 사업가들을 위한 섹스 관광으로 발전했다.

베트남과 전쟁

〈베트남전쟁〉에서 미군은 남베트남공화국 군과 연합해서 싸웠고 결국은 그들과 함께 패배했다. 그들의 적은 북베트남과 남베트남에 군대를 갖고 있던 베트남 공산주의자였다. 미군은 베트남의 적군을 조롱하고 대상화하여 '노랑이'(gooks, 아시아 인종을 비하하는 속어—옮긴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아마도 이들을 손쉽게 죽일 수 있도록 하려던 것 같다. 미군들에게 군복을 입은 '노랑이'

12) Yayori Hiroi, "Sexual Slavery in Korea," *Pacific: A Journal of Women's Issues* 2, no 1 (Spring 1977), pp. 27 – 28.

만 있는 것이 아니었다. 하지만 베트남전쟁 중에 미국과 남쪽의 공화국 군 지휘의 사이공에는 매매춘이 번성하고 있었던 반면, 북쪽 호치민의 민족 해방군이 통치하는 하노이에는 매매춘이 사실상 존재하지 않았다.

타이와 필리핀이 미군의 R & R 휴양지가 되었던 것처럼, 군대 매춘이 섹스 관광으로 이어지는 양상은 베트남전쟁 동안 되풀이되었고 더욱 심화되었다. 베트남전쟁에 그리고 그 후에 베트남, 타이, 필리핀 여성의 매춘이 미군을 위해 단계별로 조직되었다. 방콕의 팟퐁 거리는 성 산업의 중심지가 되었다. 「팟퐁: 방콕의 큰 골목」(*Patpong: Bangkok's Big Little Street*)이라는 책에서 전직 「방콕 포스트」(*Bangkok Post*) 기자는 "만약 전쟁이 없었다면 팟퐁 거리가 지금과 같은 부와 명성을 얻는 것이 가능했을지 회의스럽다"고 비꼬아대고 있다.[14]

1963년 남베트남에서 군대 매춘을 위한 모집은 동남아시아의 주요 문제거리가 되었다. 1963년 아와드 박사가 실시한 유엔 노예 조사는 라오스에서 여성 거래가 상당히 증가했으며 "매춘부 모집은 남베트남에서부터 타이, 라오스까지 확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15] 처음에는 술집 여성, 그 다음에는 다낭의 해군을 위한 마사지업소들, 그 뒤에는 "민간 사창가와 마사지업소, 도그레자(Doggyscha)로 알려진 미약 거래자가 차례로 기지 주변에 생겨났다."

> 1966년 중앙 고지대 안케(An Khe)의 제1기병대, 사이공에서 북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타이케(Tai Khe)의 제1보병대, 그리고 프레이쿠(Pleiku)의 제4보병대는 기지 안에 공식적으로 군대 매춘업소를 설립했다.……
>
> 전쟁중에 집과 가족을 잃은 난민과 이전에 사이공 술집과 거래한 경험이 있는 군인들이 주로 매춘업소를 만들었다.…… 베트남 민간인들에게 매춘부의 알선과 가격 조정을 떠넘기면서 손을 대지 않고 있던 미군이 직접 건강과 안전

14) Alan Dawson, *Patpong: Bangkok's Big Little Street* (Bangkok: Thai Watana Panich Press, 1980), p. 30.
15) Mahmoud Awad, *Report on Slavery* (New York: United Nations, 1966), p. 178.

을 통제하고 관리했다.[16]

결국 매춘부들은 "현지 내국인 방문객"으로서 베트남에 주둔한 미군 가치의 공식적 환영을 받았다. 사이공 근처의 롱빈(Longbinh)에서는 군인들이 군 기지 밖에서 기다리는 30~60명의 소녀들 중 아무나 현지 내국인 방문객 자격으로 기지 안으로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군대 사창가는 기지를 둘러싸고 있는 시설물 이외에서도 출입 통제 매춘 지역으로 개발되었다. 남베트남 공화국 정부는 이 지역의 매춘에서 얻어지는 수입의 30퍼센트를 가져갔다고 알려져 있다.[17]

사이공의 거리들, 몇몇의 군사 기지와 미군 주거 지역 주변 그리고 도시 외곽에 흩어져 있는 지역들은 술집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러한 술집들은 거의 전적으로 미군 남성들에게만 유흥을 제공해 주었고, 어떤 때에는 각 술집마다 고객들과 약간의 대화를 나누면서 술을 마시게 부추기는 호스티스들을 3명에서 20명까지 보유하고 있기도 했다. 이와 비슷한 술집들이 비엔호아(Bien Hoa), 농타우(Nong Tau), 나트랑(Nha Trang), 다낭(Danang)에 있었고, 미국인들이 많이 있는 곳 어디에서나 작은 규모를 이루어 나타났다.[18] 필리핀을 비롯하여 군대 매춘이 번성하는 곳이라면 어디나 마찬가지로, 매춘을 하는 대부분의 여성들은 전쟁으로 사별한 여성이거나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성 아니면 강간의 피해자들이었다. 매춘 여성들은 가족 출타의 탁으로 내몰린 여성들이었다. 봉건 제도하에서의 더욱이 여성의 지위는 전시에 전쟁으로 인한 사회 변동으로 더욱 악화된다.

종전이 되고 남베트남에서 철군할 때 많은 미군은 베트남인이 주도하는

16) Susan Brownmiller, *Against Our Will* (New York: Simon and Schuster, 1975), pp. 93 – 95.
17) Roland-Pierre Paringaux, "Vietnam, Consequence de la guerre," *Le Monde*, June 2, 1977.
18) Neil Jamieson, *Understanding Vietna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3), p. 333.

통일을 위해 밀고 들어오는 북베트남 군으로부터 남베트남의 매춘 여성들을 '구해' 내리고 했는데 이것은 여성들을 다시 매춘에 이용하기 위해서였다.

> 젊은 미국인들은 도시에 있는 거의 모든 술집과 매춘업소를 돌면서 매춘 여성들을 끌어모아 베트남 밖으로 탈출시켜 주었다. 어떤 남자는 사이공에 네 번이나 갔다 왔으며, 그때마다 다른 '아내'와 몇 명의 '처제나 처형'을 데려왔다고 말했다. 함께 떠나기를 거부했던 한 매춘 여성은 그녀의 자칭 "남편"이 호놀룰루에서 베트남인들로만 구성된 매춘업소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그녀는 그가 CIA에서 일했다고 말했다.[19]

리 라이 헤이슬립은 자서전 『하늘과 땅이 바뀔 때』(*When Heaven and Earth Changed Places*)에서 부패한 베트남인의 앞선으로 베트남 주둔 미군에게 팔리고 있는 노예 매매와 군대 매춘을 설명하고 있다. 아시 선택되기 위해 거기에 있다는 것이, 매춘은 전쟁중에 여성이 선택할 수밖에 없는 불가피한 일로 당연시되었다. 반대로 소녀들이 매매되면 임신 매매는 노예제로 간주되었다. 헤이슬립의 자서전은 그녀 자신을 비롯하여 거리에서 눈에 피는 여성들을 누구나 매춘부라고 여기는 군인들에 맞서서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헤이슬립은 대부분의 경우 매춘을 피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기까지 끈질기게 거부해야만 했다. 그녀가 거리에 나설 때마다 군인들이 그녀를 매춘부로 보았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과 자식들의 생계를 위해 미군에게 물건을 팔러 거리로 나섰을 때 그런 일이 종종 일어났다. 그녀는 베트남 여성이었기 때문에 매춘부로 여겨졌고, 심지어 아무리 강하게 거절해도 자신을 몸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미군에게 납득시키기 어려웠다. 한 번은 누군가 400달러를 주겠다고 했는데, 그 돈이면 자신과 어머니가 1년간 먹고살 수 있는 돈이어서 그녀는 매춘을 승낙하기로 했다. 그녀는 스스로에게 "그날 누워서 이 두 명의 미군을 남자가 되게 해주는 거야. 아직 겪어 보지 않았던 일을 그들이 내게 하는 것뿐이야."라고 말하면서, 애써 매춘을 별 일 아닌 것으로 생각하려고 애썼다.[20] 베트남에서의 노예 매매에 대한 헤이슬립의 묘사는 자발적 매춘과 강요된 매춘 사이의 아주 미세한 차이를 상기시켜 준다.

> 이 소녀들은 매춘부가 아니라 사골에서 벌어지는 전투를 피해 피스를 다고 도시로 나온 젊은 여성들이었으며, 일부는 아직 사춘기도 지나지 않았다. 이 소녀들은 나처럼 농촌에서의 삶 이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농부였으며, 좀더 안전하고 나은 생활을 하라고 친척들이 도시로 보낸 아이들이었다. 한 대피 피난민 버스가 도착했을 때 아주 잘 생긴 젊은 남자 두 명을 동반한 늙은 여자가 버스에 탄 사람 중에서 가정부나 보모 일을 할 사람이 있는지 물어 왔다. 이러한 일들은 소녀들이 도시로 가면 찾아보라고 할어 왔던 직업이었고, 잘 생긴 남자가 자신들에게 관심을 보이고 있었기 때문에 귀여운 어린 소녀들은 그 주변에 제법이 모여들었다. 그 여자는 좋은 가정에 편찮은 일감으로 일할 가정부 자리를 약속하고는 '그 일을 할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며칠간 자기가 사는 집으로 데려가 일하게 했다. 새로운 무리의 소녀들이 그 집에 들어오게 되면 여자는 중간 역할을 하는 사람을 찾아가 이 새로운 '상품'에 대해 설명한다. 며칠 후 소녀들을 목욕시킨 후 그녀가 찍은 몰라로이드 사진이 첨부되기도 한다. 그녀의 구매자들은 일반적으로 부패한 관료이거나 야상한 성적 취미를 가진 부자들이었다. 일부는 타이, 싱가포르, 심지어는 멀리 유럽이나 미국 등의 구매자들에게 이 소녀들을 넘기기도 했다.[21]

19) Alan Dawson, *Fifty-five Days*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977), p. 202.

20) Hayslip, *op. cit.*, p. 234.
21) *Ibid.*, pp. 233~234.

전쟁의 와중할 속에서, 악랄한 전쟁이 없었다면 일어 못했을 사이에 대한 구분과 풍물을 준다.(헤이슬립은 "정기적으로 매춘을 하는 여성은 훨씬 더 나은 생활을 했다"고 설명한다.[22] 매춘에 있어서 여성의 '선택'과 '자유 의지'에 대한 논쟁은 이러한 질망적 차이에서 나온다.) 매춘의 세계에서 "군사 시설 근처에 있는 가장 싼 매춘업소는 집 주인이 그 지역에 거주하는 군인과 정기적으로 거래를 하는 현지 소녀들에게 세를 준 작은 집이다." 거래는 때때로 술속이나 프리, 댐크, 골목길에서도 이루어진다.[23] "소녀들 중에 많은 경우는 전쟁으로 남편을 잃거나 나처럼 장간을 당해 결혼을 포기한 사람들이다."[24] 그 다음 계층이 좀더 나은 생활을 하는 매춘부인데, 그들은 바람과 매춘을 위한 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찰의 보호를 받는 매춘업소의 마담은 매춘 사회의 가장 높은 자리를 차지한다. 전쟁 피해자로 집계되지 않는 사람들 중에는, 스스로에게 "문제될 게 뭐야 안 될 이유가 뭐야"라고 하면서 적군의 매춘 요구에 응해 살아남은 많은 베트남 여성들이 있다.

1972년 베트남에서 미국이 철수하고 1975년 남과 북이 통일을 했을 때 약 50만 명의 베트남 매춘 여성들이 있었다.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은 매춘 여성들을 마약을 등에 업은 남베트남 '괴뢰' 정권의 정치적 · 사회적 · 경제적 질서의 피해자로 간주하였고, 전쟁의 종결과 함께 베트남 새 정부가 국가 재건을 위해 해결해야 할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바로 성병이라고 판단했다. 보건부 관리들은 강력한 캠페인으로도 성병을 다스리는 데 6~8년이 걸릴 것이라고 추정했다.[25] 매춘 여성의 54퍼센트가 성병에 걸려 있었다. 이들 여성들은 의료 검진과 치료를 포함한 응급 처치를 받았다. 지방 출신 매춘 여성들은 고향으로 돌아가서 일했으며, 가능한 경우 가족과 재결합했다. 원래부터 도시에 살던 여성과 소녀 들은 기숙 학교인 여성재활학교(School to Rehabilitate Women's Dignity)에 보내져서 장사를 배우고, 직업 훈련을 받고, 정치 강좌를 듣고, 문화 활동에 참여했다. 비용은 각 도시의 혁명 정부가 댔다.[26] 1970년대 말 베트남이 통일되어 사회주의 국가를 수립하게 되자 서구의 일부 인권 단체들은 정치범들, 즉 남쪽에서 미군의 후원을 받던 패망한 공화국 정부의 동조자들에 대한 처형을 우려하였다. 그들은 매춘 여성들과 함께 재교육 센터로 보내졌다. 매춘 여성을 위한 재교육 센터가 실제로 투옥된 정치범을 위한 센터와 같은 것인지도 모른다는 의혹이 있었는데, 1979년 비정부 기구인 휴에 니타스(Hunanitas)의 조사단들에 의해서 매춘 여성들이 정치범처럼 대우받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나는 1991년 1월과 1993년 1월에 베트남을 방문해 전쟁 후의 매매춘 통제와 감소 노력의 성공 여부에 대한 조사를 했다. 호치민 시의 사회학자이자 여성학과장인 부이 타 킴 꾸(Bui Thi Kim Quy) 교수의 말에 의하면 공안과 더불어 프로그램들이 성공을 거두었다고 한다. 전시에 매춘을 했던 여성의 3분의 2가 정통 사회로 돌아갔다. 그러나 가난에 허덕이고 있던 전후 베트남에서 많은 수가 다시 매매춘으로 유입되었다. 재활 프로그램과 사회주의 정부의 금지령은 매매춘을 완전히 근절시키지 못했다. 사회주의 국가의 통치하에서 포르노그라피가 사라지고 포주 행위가 통제되었으며 매매춘이 감소했지만, 시장 경제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도 남성은 계속해서 여성의 몸에 대한 수요를 생산해 냈다.

1986년 '도이모이'(개혁, 베트남식 페레스트로이카)와 함께 자유 시장 경제가 발달하기 시작하자 매매춘은 즉시 증가했다. 같은 패턴이 반복되었다. 경제 상황이 향상되고 소비가 증가하자 남성들은 무엇보다도 여성의 몸을 사는

22) Hayslip, *op. cit.*, p. 234.
23) *Ibid.*
24) *Ibid.*
25) *Le Monde*, June 3, 1993.

26) "La réhabilitation des anciennes prostituées au Sud Vietnam," *Femmes et Monde*, no. 36 (Chêne, France, 1993).

수요 논리를 통해 자신의 매춘을 정당화하려는 일본 사무직 노동자들의 말을 인용한다. "남한에는 여성들이 자신을 남성에게 완전히 바치고자 하는 정신이 아직도 뿌리 깊게 남아 있어서 이들의 훌륭한 서비스를 물리치기 어렵다."[31]

집해원은 기생 관광을 위해 한국의 제주도를 찾은 일본 관광객들의 사진을 제공했다. 관례의 주력상은 입구를 지키는 제주도의 수호신 돌하르방에서 시작하는 밤을 만하고 이국적인 경험이다. 밤을 만하고 이국적인 것이라면 음식과 술에서부터 숙소와 전통 한복을 입은 여성까지 푸엇이든지 팔린다. 여성들은 밤을 준비하기 위해 오후 4시에 도착하여 고객들이 부를 때까지 지하에서 대기를 한다. 20명의 여성들이 자신을 지목해 밤을 같이 보내게 될 10명의 일본 남성들 앞에 줄지어 서 있다. 저녁 식사 때 기생들은 자신을 선택한 일본인의 일굴과 손을 닦아 준다. 저녁 식사에는 한국의 전통 춤과 노래가 곁들여진다. 이후 남성들은 여성들을 호텔이나 나이트클럽, 기라오케로 데리고 갈 수 있다. 여성들은 다음날 7시 경에나 자신의 방으로 돌아온다.[32]

1973년에 아시아여성연합(Asian Women's Association)은 기생 관광을 중단하라는 캠페인을 벌였다. 크리스마스 날 여성 시위대는 "단체 섹스 관광이 부끄럽지도 않은가? 지옥에나 가라. 섹스 점승들!"이라고 외치면서 한국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는 날자 관광객들에 맞섰다.[33] 그러나 섹스 관광이나 다른 성 산업은 일단 한 지역에서 노출되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한다. 그 당시에 매춘 알선업자들이 상품을 팔 새로운 시장을 찾고 정부가 관광객들의 달러를 통해 외화 벌이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동남아시아에서도 섹스 관광이 싹트기 시작하고 있었다. 다른 나라 여성들과 연대한 일본 페미니스트들은 그 지역 전체의 섹스 관광에 반대하는 운동을 벌였다. 고객들을 공개한다는 공식적인 반대와 위협이 있은 후에, 1981년 "필리핀을 방문하는 일본 남성의 수는 급격히 감소해 전년도에 비해 3월에는 1만 4,699명에서 1만 1,988명으로, 4월에는 19.2의 센트, 5월에는 24.6퍼센트로 감소했다."[34] 이러한 운동의 결과로 도쿄와 마닐라 간의 운항이 상대적으로 감소했다. 그러나 그 운동의 효과는 일시적이었으며, 이 나라들에서 관광은 여전히 일본과 서구 남성들이 주를 이루었다. 여성 매매는 계속해서 점점 더 수익가 맞는 시장으로 산업을 옮겨갔다.

타이

타이에서 매춘 규모는 정간 사건 추정 건수의 폐턴을 따른다. 1993년 현재 타이에는 매춘 여성이 공식적으로 2백만 명 정도 있으며, 경제 발전은 관광으로 벌어들인 외화에 기반을 두고 있다. 매매춘은 매일 매춘 여성을 찾는 43만 명의 타이 남성들과 해마다 섹스 관광을 위해 타이를 방문하는 540만 명의 관광객을 위한 가장 큰 상품이다. 섹스 관광은 타이 관광 산업에서 외화 벌이의 주된 원천이다. 경찰은 1974년에 타이에 약 40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다고 추산했다.[35] 이 여성들은 베트남전쟁 동안 휴양과 & 30중인 미군을 위해 주로 조달되었다. 그러나 섹스 관광과 매춘 시장이 계속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타이 보건국(Thai Public Health Ministry)은 1992년에 전국적으로 단지 7만 6,863명의 매춘 여성이 있다고 집계하였다.[36]

동남아시아에서 미국 군대가 철수하기 전까지 성 산업은 타이에서 가장 큰 사업의 하나였다. 기본적으로 여성을 판매하는 데 전혀 제약이 없었던 타이에서 알선업자들은 미군에 의해서, 미군을 위해서 형성된 성 산업의 몸이

Conference, Rotterdam, Netherlands, April 6–13, 1983.
31) Ibid., p. 66.
34) Kim Hae Won, "The Analysis of Kisaeng Tourism in Cheju Island," in *Exploitation of Women and Children in Cause and Effect* (New Delhi, India: Vishwa Yuvak Kendra, 1990), pp. 147–148.
35) Meisel, "Why I Oppose Kisaeng Tours," p. 71.

36) *Diplomat*, September 17, 1981.
37) *Bangkok Globe*, November 25, 1991; Lillian S. Robinson, "Touring Thailand's Sex Industry," *Nation*, November 1, 1993, p. 494.

지나간 후에 남겨나는 매춘 여성들을 처리할 방법을 찾아나섰다. 성 산업의 피해자였던 타이 매춘 여성들은 다시 급격한 성 산업 몰락의 피해자가 되었다. 이들은 쓸모 없는 상사가 되고 이익이 될 만한 지역으로 거래되기 위한 담보물이 되었다.

경제적 조건과 자유 매춘법으로 인해 독일은 타이 여성 매매의 그럴듯한 표적이 되었다. 후에 네덜란드가 매춘을 합법화하자 필리핀이나 타이, 여타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네덜란드로 여성 매매를 확대시켰다. 1977년의 한 보고서는 프랑크푸르트의 한 집단이 타이 소녀들을 1인당 1천 달러에 구입하고, 한 달 빌려주는 데 2,200달러의 벌은 것으로 보고되었다.[37] 일부는 아무런 계약이나 위장을 통하지 않고 타이에서 독일 매춘업소로 직접 보내졌다. 1977년, 독일 거리에 버려져 있는 젊은 여성을 고국으로 데려오기 위해 그곳에 갔던 타이의 한 사회 복지사는 당시 1천 명 이상의 타이 여성들이 그곳에서 매춘부로 일하고 있다고 추정했다.[38]

1972년에 베트남에서 미군 부대가 철수한 이후, '해외 특무 관사'(Overseas Foreign Service)를 쓰고 있던 저널리스트 톰 헤버는 타이를 방문해 매춘 지역인 '십아 소녀들의 마을'(Village of Night Girls)에 남겨진 일부 매춘 여성들을 발견했다. 그의 설명에 따르면 그곳은 "미화 300달러에 농촌 출신의 젊은 처녀"를 제공하겠다는 포주들로 득실거렸다. 업시장의 운영자들은 대부분 미군의 자녀들인 버려진 고아들을 이용해 큰 사업을 벌였다. 고아들은 입양 기관을 통해 팔렸다. 헤버는 방콕의 전형적인 마사지업소에 데려고가 달라고 요청했는데, 그가 갔던 곳은 1990년대의 마사지업소와 거의 다르지 않았던 것 같다.

> 이 있다. 벽에는 옷은 벌벗이 써 있었다. 30개의 번째거리는 스포트라이트가 상품을 비춘다. 상품이란 거의 20명쯤 되는 소녀들이다. 오두 예쁘게 화장하고 밝은 색의 옷을 입고 통굽 신발을 신고 있다. 그들은 한 줄로 의자에 앉아 있어서 소녀 합창단처럼 보였다. 내가 그들 중 누가 영어를 할 줄 아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몇 명이 지목되었다.
>
> 그가 여자를 선택하고 10달러 정도를 지불하자, 어린 여성이 그를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
> 그녀는 목욕을 한 후 옷을 벗었다. 나는 그녀에게 옷을 입으라고 말했다. 그리고 우리는 남은 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다.
>
> 그녀는 치앙마이(Chiang Mai) 북동쪽의 농촌에서 자랐다. 그녀가 16살 때, 한 미국인이 그녀의 부모에게 그녀를 자신의 아내로 달라고 말했다. 그는 선물로 돈을 준 후 그녀를 미군 기지로 데려갔다.
>
> 그녀는 그들의 결혼이 영원히 계속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러나 몇이 떠나간 후 '남편'은 미국으로 귀환했고, 떠나기 직전에 그녀를 자신의 친구에게 '줘 버렸다.' 그녀는 그 후 계속해서 여러 남자를 전전했다. 지금은 더 이상 '결혼'할 미국인이 없으며, '십아 소녀들의 마을'에서 살고 있다.[40]

베트남전쟁중에 "방콕에 있던 조직적인 미국 R & R 사무소는 여행사를 경영하는 타이의 장군과 결탁하여 하룻밤에 5달러 이하의 호텔을 알선해 주었다." 이 호텔들은 "새로 조성된 페치버리(Petchburi)가의 마사지업소와 대형 술집들이 길게 늘어서 있는 거리"에서 조금 떨어져 있는 곳에 있다.[41] 호가를

38) Lloyd Shearer, "Intelligence Report," *Parade*, November 13, 1977, p. 12.
39) Brian Bade, "Package Tour That Permits a 'Wife,'" reprinted from *London Observer* in *San Francisco Chronicle*, June 9, 1977.
40) Tom Weber, *San Francisco Chronicle*, April 30, 1976.
41) Cleaver, *Purgatory Bangkok: Big Little Street*, p. 40.

받은 군인들이 그 거리를 벗어날 필요는 없다. 또 다른 지역인 팟퐁에서는 건설 노동자, 기자, 사업가 들이 전쟁에서 나오는 이익으로 술을 마시며 사업을 하고 있었다. 좀더 비싸고 수준 높은 남성들의 주무대였던 팟퐁은 베트남에서 미군이 철수하기 시작하고 나서 매춘과 섹스 관광의 중심지가 되었다. 1969년 팟퐁에서 처음 고고 바가 문을 열었다. 그 후 "1973~79년 사이에 팟퐁의 모든 상점과 사무실이 술집과 레스토랑으로 변했다."[42] 성 산업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고고 바는 실제 섹스 공연으로 변했고 작은 술집들은 대형 술집으로 확장되었다.

방콕의 마사지업소에서 일하는 여성에 대한 1982년의 한 연구에서, 저급한 마사지업소에는 임금 노동자들이 주로 방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과 소녀 들은 유리창이나 새장 안에 전시되었다.

> 소녀들은 인공 조명이 비추고 있는 새장 안에 앉아 있었다. 반대편 바깥쪽에는 희미가 막 놀여져 있어서 남자들이 앉아서 선택을 위해 고민할 수 있게 해 놓았다. 어떤 곳에는 소녀들이 고객을 볼 수 없게 만든 유리가 설치되어 있기도 했으나, 가격이 더 싼 곳에서는 이름만으로도 충분했다. 고객은 룸라우스에 붙여 있는 번호를 보고 소녀를 선택하여 새장 한 귀에 있는 계산대에 정해진 돈을 낸다.[43]

타이 북쪽에 있는 인구 25만의 도시 치앙마이에는 1991년에 약 3천 명의 매춘 여성이 있었다. 바잔카지로 대부분의 매춘업소에서 여성들은 새장 속에 한 줄로 앉아서 선택되길 기다리고 있었다. 그들은 색깔별로 정해진 가격표를 달고 있었다. "노란색은 4달러, 파란색 8달러, 붉은 색은 12달러, 투명한 것은 20달러."[44]

1980년대 초반에 타이의 섹스 산업은 불경기였다. 1981년에는 살생에 대한 두려움과 남자 혼자 가는 여행에 대한 유럽의 비판 여론 때문에 정부는 매매춘을 잠깐 단속했다.[45] 신시아 엔로에 의하면 "1986년까지 타이는 쌀과 같은 전통적인 수출 주력품의 경제 활동보다 관광을 통해 외화를 더 많이 벌어들였다."[46] 1990년까지 329만 명의 외국인 관광객들이 타이를 방문했다. 타이를 방문하는 관광객들은 매우 불균형하게도 대개 남성들이었기 때문에 관광 산업은 1992년을 이성 관광객 유치의 해로 정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은 남성을 끌어들이는 또 다른 유인책인 미스 유니버스 대회가 방콕에서 일월으로써 좌절됐다. 타이의 여성 단체인 EMPOWER에 의하면, 1993년에 매일 밤 약 30만 명의 남성들이 타이에서 섹스를 샀다.

또한 타이에는 군대 매춘이 계속되고 있다. 1992년 걸프전이 시작되자 미군 7함대는 타이의 관광지인 수비와 파타야에 정박했다. 파타야의 경제는 걸프전 동안은 침체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이 휴가를 받은 군인들을 맞을 채비를 갖추게 되자, 한 술집 주인의 말 그대로 "앞으로 4일 동안 지난 3개월의 침체를 벌충하기"를 바라고 있었다.[47] 소파온 대부분 타이 여성과 소녀들의 매춘에서 나오는 것이었다.

1990년 이후에 타이에서 에이즈가 크게 증가하면서 논의할 것임)하게 되자 버마,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출신 여성들의 매매가 증가하는 한편, 매매춘에 정부와 경찰이 연루되면서 나타난 부정 부패로 결국 어린이와 '강제적' 매매춘을 단속하게 되었다.

42) Ibid., p. 58.
43) Pasuk Phongpaichit, *From Peasant Girls to Bangkok Masseuses* (Geneva: International Labour Office, 1982), p. 9.
44) Seree Erbegen, "A Plague Awaits," *New York Times Magazine*, July 14, 1991.
45) Linda K. Richter, *The Politics of Tourism in Asi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1989), p. 99.
46) Cynthia Enloe, *Making Feminist Sense of International Politics: Bananas, Beaches, and Bases*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9), p. 37.
47) *New York Times*, March 25, 1991.

1993년 초반에 이러한 단속이 실시된 곳은 상가로서나 말레이시아인 남성들이 매춘 관광을 오는 타이의 남부 지방이었다. 1993년 현재 "매춘 운영에 관련된 사람들이 2~3년 전에 비해 보다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었다. 사업을 유지하고 번창시키기 위해 필요한 자금과 연줄을 갖추게 됨…… 남부 지역의 매춘업소들은 약 50명의 회원으로 조합을 결성했다. 이들은 각자 조합장에게 회비와 매춘부 1명당 250바트에서 700바트 정도의 돈을 낸다. 이렇게 걷힌 돈은 관련자들에게 분배된다. 북부 도시인 치앙마이에서 여성들은 매일 경찰에게 30바트의 벌금을 낸다."[48] "뇌물을 받지 말자"는 타이의 범죄안은 북부 지방에 있는 노라디바츠 숭기 콜롯(Narathiwat's Sungi Kolot) 매춘업소를 급습한 이후에 시작되었는데, 이곳에서는 18세 미만의 고된 부족 매춘 소녀들과 함께 경찰에 준 뇌물 장부가 발견되었다.[49] 이 단속이 있은 후 1992년 12월에 국회에 새로운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어린이나 매춘을 강요당한 여성과 섹스를 하는 구매자는 징역형 또는 무거운 벌금형을 받게 된다."[50]

그러나 타이에서 매춘의 80퍼센트는 외국인이 아니라 내국인에 의한 것이었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매춘 여성의 2.1퍼센트만이 강제로 매춘을 했다고 주장한다.[51] 〈유럽 국가들에서 나타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타이에서도 강제 매춘에 대한 단속은 실질적으로 성 산업을 안정적으로 옹지시켜 주는 전반적인 매매춘 정상화의 일부이다.〉

여기에는 몇 가지 힘이 작용한다. ① 여성 매매와 강제 매춘, 그리고 어린이 매매춘은 성 산업화와 분리되어 있으며, 따라서 이에 대한 단속은 성 산업을 크게 위협하지 않을 것이다. ② 매춘과 성 산업이 타이의 경제 기반을 크게 확장시켜 온 반면, 매매되어 온 외국 여성들로 인해 지역 매매춘은 위협받았는데, 이 외국 여성들은 낮은 가격을 부를 수밖에 없고 따라서 기존 성 산업의 가격 하락을 초래하였다. 이 현상은 상당히 확산되고 있고, 여성 몸의 시장 판매에서 경쟁을 위해 전통적인 노동 시장에서 여성을 사온다는 것이 이를 입증한다.

48) EMPOWER, "The Trafficking of Women and Girls for Prostitution," Thai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4.
49) *Nation* (Bangkok), January 18, 1993.
50) *Bangkok Post*, December 31, 1992.
51) Joint study of Research and Development Division of the Police Department and the Population Institute of Chulalongkorn University; *Bangkok Post*, January 3, p. 33.

필리핀

미군의 필리핀 지배 역사는 20세기 초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미군 기지가 공식화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말의 군사 기지 협정을 통해서이다. 1992년 피나투보 화산 폭발은 클라크 공군 기지에 잿더미를 쏟아 부었고 수백만 해군 기지의 일부를 파괴하여, 주지해 왔던 필리핀에서의 미군 철수를 아무리컷게 하였다.

화산 폭발 전에 앙겔레스 시는 클라크 공군 기지에 주둔하고 있던 2만 5,550명의 미군들에게 유흥을 제공해 주던 술집 거리였다. 1990년 당시 앙겔레스 시에는 1,367개의 술집, 마사지업소, 매춘업소가 등록되어 있었으며, 5,642명의 엔터테이너들이 등록되어 있었고, 미등록된 여자들이 수천 명 있었다. 수비만의 해군 기지에는 5천 명의 군 요원들이 주둔하고 있었다. 그러나 미 함대가 보수와 정비를 위해 정박할 경우, 350대의 항공기와 90척의 함선에서 쏟아지는 7만 명의 군인들은 올롱가포 시로 몰려들곤 했다. 1989년 올롱가포 시에는 1만 1,600명의 매춘 여성들이 엔터테이너로 등록되어 있었고, 6천여 명의 술집 여자들과 허가받지 않은 1만 4천 명의 거리 매춘 여성들과, 5백 개의 고고 바, 마사지업소, 매춘업소들이 중 10퍼센트의 소유주는 외국인 미군이었다.[52] 신시아 엔로는 "매년 필리핀 여자와 미군 사이에서 태어나는 3만여

52) Virginia Miralao, Celia Carlos, and Aida Fellona Santos, *Women Entertainers in Angeles and Olongapo: A Survey Report* (Manila: Women's Edu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Research Organization and KALAYAAN, 1990).

명의 어린이들 중에 1만여 명이 거리의 아이가 되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어린아이에 대한 이상 성욕을 가진 미군들에게 매춘 행위를 하고 있다"는 자료를 낸 바 있다.[39] 미군의 필리핀 철수로 술집 여자들은 그들이 낳은 혼혈 자녀들로 인해 받을 수 있었던 의료 혜택과 교육 및 양육 지원 등의 여러 가지 지원들을 받지 못하게 되었다.

올ongapo 시는 오로라 드더오스가 말한 것처럼 "전시에는 번영을 누리고 평화시에는 경제적으로 위축되는 관광 센터로서만 존재한다."[40] 매년 2백만 명의 해군과 해병대원들이 올롱가포 시에서 6,000만 달러의 휴가비를 쓴 것으로 추산된다. 드더오스는 미 해군 함대가 올롱가포 시에 도착했을 때 필리핀 여성들이 매춘부로 간주되지 않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서에서 밝혔다. 절프전이 발발하기 직전, 전쟁 태세를 갖춘 32척의 군함이 2개월간 올롱가포 시에 정박하며 대기하고 있었다.[41] 전쟁이 끝나고, 1991년 5월에 5척의 전함을 따라 선원과 해병을 태운 배 6척이 절프전에서 돌아왔다.[42] 한 어번에 7천 명의 미군들이 도착하자, 그곳에 있는 4백 명의 푸인들이 그들의 남편을 만나기 위해 나왔다.[43]

1992년 11월 24일 미군은 필리핀에서 철수했고, 이제 그 기지들은 필리핀 관리하에 있다. 거대한 성 산업이 주춤하고 있지만, 군인 구매자들을 사업가로 대체하는 관광 경제의 발전을 통해 성 산업을 재생시키고자 하는 노력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미군사 기지로 전환되면서 "수빅만 기지는 외국 투자가들을 끌어들이기 위해 또 다른 수출 가공 지역을 만들으로써 제2의 홍콩이 될 것을 예고하고 있다." 올롱가포 시의 몇몇 매춘업소들은 "가라오케 술집으로 바뀌었으며, 이제는 타이완인과 일본인들을 끌어들이고자 애쓰고 있다."[44]

타이에서와 마찬가지로 필리핀에서도 매매춘은 장상화되었다. 매매춘은 '유흥'(entertainment)으로 여겨지며, 매매춘이 국가 경제를 위해 외화를 생산해 내기 때문에 매매춘을 조장하는 어떠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법적 제한이 없다(제7장 법 부분 참조). 1970년대에 필리핀은 외화를 끌어들이는 관광 산업을 장려하기 위해 외국인들의 입국 조건을 자유화시켰다. 1976~86년 사이에 여행사는 300개에서 491개로 증가했으며, 관광 안내원과 행정 사원들이 1,350명에서 8,120명으로 늘어났다. 마닐라의 '엔터테이너'들에게 발급된 건강 증명서도 비슷한 비율로 증가했다. 1980년에 1,609개의 증명서가 발급된 데 비해, 1986년에는 7,033개가 발급되었다. 관광청에서 관광 인구의 증가를 보고했다. 관광객의 67퍼센트가 미국, 일본, 홍콩, 오스트레일리아, 타이완에서 온 남자들이다. 이들 중 72퍼센트는 휴일을 보내려고 필리핀에 온다.[45]

현재 필리핀에는 30만에서 50만 명의 매춘 여성이 있는 것으로 추산된다.[46] 필리핀 정부는 미군 철수 후 수빅만과 클라크 공군 기지의 전환 개발 계획을 추진하면서 여성 교육 · 발전 · 생산성 연구 기구(WEDPRO, Women's Edu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Research Organization)의 1992년 6월 보고서를 무시하여 매춘 여성들의 요구에 대한 고려를 거부했다.[47] 전환 계획은 자유 무역 지대와 관광 개발을 요청했다. 술집 여자들은 그 다음에 있을 외국인들의 물결(사업가들과 관광객들)을 기다리는 것 외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나는 앞절

39) Letter to Kathleen Barry from Aurora DeDios, October 20, 1992.
40) Philippine Development Plan for Women, 1989~92, p. 109.
41) Aurora Javate DeDios,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in a Crisis Situation: The Philippine Case,"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Protecting Women's Human Rights from Sexual Exploitation, Violence, and Prostitution," Stone College, Pennsylvania, April 8~10, 1991, p. 3.
42) Ibid.
43) Daily Globe (Manila), 1991.
44) New York Times, March 25, 1993.
45) Lyn Lee, "Alternative Employment, Economic Livelihood,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Wome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report by Women's Edu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Research Organization (WEDPRO), Manila, June 1992.

세스 시의 세스 산업지역 한가운데서 필리핀 관리와 관광 계획에 대해 토론하면서, 앙겔레스 시가 관광 개발을 계획하고 있다는 그의 설명을 들었다. 앙겔레스 시가 해안 도시가 아니어서 해변도 없고 다른 관광 자원도 없음을 알고, 나는 무엇으로 관광객들을 끌어들일 것이냐고 물었다. 그는 커다란 카지노를 세울 계획이라고 말했다. 관광객들이 아시아와 오스트레일리아, 유럽, 북미의 각지에서 단순히 카지노를 위해 찾아오리라고 상상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나는 카지노가 매매춘이나 '유흥업'을 계속하기 위한 은밀한 유인책에 불과한 것이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

1993년에야 올롱가포 시와 앙겔레스 시 당국은 매춘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요구 사항을 받아들이고 '전환'을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러나 군대 매춘 마을이었던 곳의 '자유방임적인' 접근과 모순되게도, 마닐라의 시장은 매춘 '관광 지대'와 마약 거래, 여타 불법 행위들을 근절시키기 위해 마닐라 내의 모든 매춘업소와 섹스 관광 사업의 폐쇄령을 내렸다.[48] 시장은 마닐라의 매춘 지역인 에르미타(Ermita)를 사업 지구로 바꾸는 계획을 세웠다. 이사지업소, 나이트클럽, 술집들, 기타 매춘업소 들은 폐쇄되었고, 창문와 문은 판자로 막혔다. 시장은 투자가들에게 새로운 사업의 시작을 돕는 여러 가지 특혜를 제공했다. 그러나 마닐라 시는 여자들에게 아무것도 제공하지 않았다. 따라서 그녀들을 위한 아무런 사회적 지원 제도가 없는 상태에서 잠재적으로 많은 것을 아우르는 개혁은 술집 여자들의 또 다른 피해를 가져올 수밖에 없었다. 여성들은 그들을 사는 남자들뿐 아니라 남자가 여자를 사는 사업을 금지시키는 정부, 양쪽 모두에게서 착취당한다.

1992~93년 사이의 필리핀의 매춘 개혁이란 마닐라와 같이 몇몇 지역에서 성 산업을 폐쇄시켜 다른 지역에서 이를 재개발시키는 계획이었음이 드러난다. 매춘 여성들의 복지와 미래, 합법적인 경제적 발전에 대한 철저히 무시는

46) Manila Bulletin, March 31, 1993.

46) Letter to Kathleen Barry from Aurora DeDios, October 20, 1992.
47) Philippine Development Plan for Women, 1989~92, p. 109.
48) Aurora Javate DeDios, "Sexual Violence and Exploitation in a Crisis Situation: The Philippine Case," paper prepared for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Protecting Women's Human Rights from Sexual Exploitation, Violence, and Prostitution," Stone College, Pennsylvania, April 8~10, 1991, p. 3.
49) Lyn Lee, "Alternative Employment, Economic Livelihood, and Human Resource Development for Women in the Entertainment Industry," report by Women's Education Development, Productivity, and Research Organization (WEDPRO), Manila, June 1992.

매매춘이 계속 확산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주었다.

필리핀에서 여자들은 외국인들에게 '잠재 피부를 가진 작은 섹스기계'라고 선전된다. WEDPRO의 1990년 연구 조사에 의하면 필리핀에는 3등급의 매매춘이 있다. 최하위 계층은 대체로 필리핀의 빈곤한 지역에서 온 이주자들인 카사(casa) 노동자로 이루어지는데 이들은 모두 식품 취급자로 등록되었다. 이들은 매춘업소에서 살고 있으며 그곳을 떠날 수 없고 구매자가 오면 누구든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다음은 술집 여자들로 이들은 정식으로 술집의 종업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월급은 받지 못한다. 이들은 술집에서 살며 남자들에게 술을 팔고 몸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다. 그 다음은 거리의 여자들로 이들은 포주의 관리를 받는다. 그들은 등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매춘 행위는 불법이다. 이들은 포주에 의존해 살면서 술집 여자들이나 카사 노동자보다 적은 시간을 일하거나 손님을 덜 받거나 더 많은 수당을 포주에게서 받는 등 다소의 이익을 얻는다.[49]

술과 마약은 매춘의 영향에 무감각하게 만든다. 필리핀의 매춘 여성에 대한 연구는 "유흥업에 만연된 술과 마약의 사용으로 응답자의 85퍼센트가 자신들과 같은 여성 접대부들이 알코올 중독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으며, 73퍼센트는 마약 중독자가 될 위험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고 밝혔다.[50]

이 여자들은 누구인가? 버지니아 미랄다오(Virginia Miralao)와 셀다 카몰로스(Celia Carlos), 아이다 풀러로스 산토스(Aida Fulleros Santos)가 올롱가포 시에서 실시한 조사는, 이곳 매춘 여성들의 43퍼센트가 겨우 10대를 넘었고 3분의 1이 21~25세 사이이며 25퍼센트가 25세 이상임을 보여주고 있다. 올롱가포에서는 매춘의 최하급인 카사(casa)의 89퍼센트가 지방에서 온 이주자들인 반면, 술집과 거리의 여자들은 도시 지역 출신이다. 대다수(70퍼센트)가 6명 이상

50) Miralao, Carlos, and Santos, op. cit., p. 35.
50) Ibid.

대가족의 중간 아이들이다. 그들은 가족 부양의 짐을 덜고자 가족들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이 조사는 전형적인 술집가로의 젊은 태춘 여성을 설명해주고 있다.

> 대가족의 셋째 아이인 그녀는 가난한 비자얀(Visayas) 마을에서 초등학교를 마치고 그곳을 떠났다. 그녀의 아버지는 목수이고 어머니는 주부였는데, 학교를 다니지 못하고 부모의 무관심 속에 있던 그녀는 일찍한 일로 결혼과 가족 문제로부터의 탈출을 약속하는 남자의 아이가 되고 말았다. 그녀는 17살에 결혼, 즉 동거를 하게 되었고, 자신이 아이와 함께 사악한 "남편"에게서 버림받았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자신과 아이를 위한 아무런 경제 지원도 없고 최소한의 정규 교육 외에는 아무런 직업 훈련도 받지 못한 그녀는 직업을 찾았다. 그러나 직업을 구하는 것과 아이를 돌보는 것을 동시에 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했다. 그래서 그녀는 직업을 구하는 동안 아이를 가족에게 맡기기로 했다.[65]

미군 기지 철수 5개월 후인 1993년에 술집가로 시와 앙겔레스 시를 찾아가 술집 여자들과 얘기를 나누면서, 나는 여자들이 계속 되풀이해서 말하는 것이 한 가지 있음을 알았다. 그것은 아이의 아버지인 미군들이 돌아와 그들을 아내로 삼아 미국으로 데려가리라는 믿음과 희망과 소망이었다. 시골에서 술집가로나 앙겔레스로 온 많은 여성들은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미군과 결혼해서 함께 미국으로 가는 것이라고 배웠다고 설명했다. 많은 사람들이 데이춘은 과도기적으로 필요하다고 믿었다. '술집 요금'을 내고 여자들을 수일간 혹은 수주일간 데리간 미군들은 이들을 여자친구처럼 대했고 그들에게 거짓 약속을 했다. 그러나 미군 철수 후 단지 몇 명의 아버지들만이 엽서라도 보냈다. 몇몇은 약간의 돈을 보내기도 했지만 대개는 최신 주소가 없어서 그들을 찾을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여자들은 '남자친구'가 돌아올 것이며 그래서 마침내 미국에서 살게 되리라는 희망에 매달려 있다. 태춘 여성들이 삶을 바꾸는 데 도움을 줄 아무런 사회적 지원이 없는 상태에서 태춘의 대안은 전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이 태춘과 가난을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희망이 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그것은 또 다른 성 산업인 우편 주문 신부의 기반이 된다.

여성 매매: 우편 주문 신부

결혼은 데이춘의 또 다른 모습이다. 태춘 여성은 대개 버림받았거나, 과부이거나, 아내 구타를 피해 다니고 있거나, 더사 데이치엠 가난한 시골에서 결혼하는 것보다 더 나은 기회를 찾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 여성들은 결혼, 특히 부유한 외국인과의 결혼을 가난과 태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고 본다. 베트남전쟁을 "베트남인과 서양인 사이의 결혼이 1963년에는 126명, 1968년에는 402명, 1971년에는 559명으로 꾸준히 증가하였다. 반면에 베트남인들끼리의 결혼은 1963년에 96퍼센트에서 1970년에 81퍼센트로 감소하였다."[66]

경제 개발 과정에서 여성이 겪는 빈곤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많은 전통 사회가 근대화 과정에서 중매혼과 일부다처제를 불법으로 규정한 반면, 서구의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은 서양 남성과 제3세계 여성 사이의 중매 결혼을 주선해 줌으로써 돈을 벌고 있다.

시리폰 스크로바네크(Siriporn Skrobanek)는 타이와 같은 나라에서 여성을 매매하는 우편 주문 신부는 부분적으로 외국인과 결혼하려는 태춘 여성들의 노력에 의해 유지되었다고 지적했다.[67] 대부분의 여성들은 태춘을 계속하기

65) Ibid.

66) Jansson, et al., p. 159.

를 원하지 않는다. 다른 대안이 거의 없는 나라에 살고 있는 이들은 외국인과 결혼하는 것을 선호한다.[68] 차이는 별로 없다. 우편 주문 신부 산업과 여성 매매는 모두 태춘 여성과 가난한 여성, 그리고 자신의 나라를 떠나 외국인과 결혼할 길을 찾고 있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다.

매매춘의 결과이자 중매혼의 또 다른 형태인 우편 주문 신부 관례는 새로운 것이 아니다. 성의 산업화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지기 수십 년 전에도 우편 주문 신부 관례는 여성 매매의 한 부분이었으며, 종종 '위장된 매매'로 불렸다. 그러나 베트남전쟁 이후부터는 중요한 성 산업이 되었다.

수많은 대행사들은 타이에서 휴가를 보내면서 신부를 살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는 '수의 섹시 관광'에 관한 광고를 유럽의 신문에 싣는다. 섹스 관광에서 첫 주는 (원한다면 몇 차례에 걸쳐서) 본인이 원하는 여자를 고르면서 보낸다. 둘째 주에는 "관광과 아자수가 물이에에 있는 낭만적 배경에서 밀어를 즐기며 최종 선택이 이루어진다. 타이식 전투 시합을 보고, 타이의 전통 음식을 먹고, 전통 춤을 본다. 셋째 주에는 관광 진행자가 결혼 준비를 하게 된다. 그리고 당신의 새로운 소유물을 출국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서류들을 준비할 것이다." 가격은 1,500—3,000달러이다.[69]

다른 보고서는 일부 대행사들이 돈을 받고도 상품을 배달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독일의 한 신문 광고에는 3주간의 타이 여행과 신부를 3천 달러에 제공한다는 내용이 실려 있다. 그러나 관광 진행자는 돈을 챙기고 결혼식을 준비해 놓고는, '신부'를 나중에 보내겠다고 거짓 약속을 했다. 이와 비슷하게 1973년에 홍콩에서 100명 이상의 남성들이 타이 출신 신부를 샀는데(어떤 이들은 1천 달러를 지불했다) 여자들이 결혼식을 한 후에 사라져 버렸다고 말국에

67) Siriporn Skrobanek, "In Pursuit of an Illusion: Thai Women in Europe," *South East Asia Chronicle* 56, pp. 7—13.
68) Thanh-Dam Truong, *Sex, Money, and Morality: Prostitution and Tourism in South-East Asia* (London: Zed, 1990), p. 187.
69) Ibid., op. cit.

70) *San Francisco Chronicle*, December 6, 1973.
71) *New Women's Time*, January 3—16, 1979.
72) Siriporn Skrobanek, "Voices of Thai Women," April 1990.

73) 같은 책.

호소했다.[70]

타이의 섹스관광 관행은 유럽의 남성 잡지에 광고된다. 1979년 노르웨이 외무부 장관인 코냐이르 프라이덴룬드(Knut Frydenlund)는 타이 정부에 이런 관광을 중단하라는 외교적 압력을 넣었다. 외무부 장관은 매매춘과 그 증개 행위, 그리고 노예 매매는 인권과 1973년 세계 여성의 해 국제대회의 결의안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하였다.[71] 1987년에 섹스 관광 대행사가 여성주의 조직을 상대로 제기한 첫 번째 법적 소송이 벌어졌을 때, 타이의 시리폰 스크로바네크는 노르웨이 여성전선과 연대하였다. 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결했다.

> 일반적으로 우리는 매매춘을 여성 착취와 여성 억압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한다. 이런 여성 억압이 제3세계에서 발생하고 산업화된 서구 산업 국가의 거대한 관광 산업에 의해 유지될 때, 종속없이 인종 차별적 요소가 성 차별주의에 더해진다.[72]

독일의 한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의 안내 책자에서는 필리핀 여성을 다음과 같이 광고하였다.

> 그들은 일상적이고 관에 박힌 직업인의 희색과 달리 짙고 매고하운 머릿결과 밤에이 반도의 매혹적인 아몬드형의 눈을 가진 눈에 띄게 아름다운 피조물이다. 그들의 매력에 빠져들어 먹이가 되어도 후회할 필요는 없다. 민속학자와 여행가, 사진 작가, 패션디자이너들은 우아하고 놀랍하며 중국의 영향을 받은 자태와 거부스레한 얼굴을 한 필리핀 여성들이 세계에서 가장 아름답고 탐나는 여자라는 사실에 모두 동의한다. 그런 피조물과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희모가 지속되는 한 소중한 것을 얻는 것이다.

위와 같은 설명이 독일 남성들을 유혹하지 못할 경우에 안내 책자는 계속해서 "필리핀 여성은 고분고분하고 순종적이며, 사랑에 빠지면 침대에서나 식탁에서 남자를 행복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말한다.

1993년까지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는 유럽, 오스트레일리아, 일본, 미국을 통해 기반을 다졌다. 어떤 대행사는 카탈로그를 제공하고, 다른 대행사들은 필리핀, 타이, 그리고 최근에는 동유럽과 러시아 여성들에 대해 상세한 내용을 담은 비디오 테이프를 제공한다. 오스트레일리아로도 신부가 배송되어 2만 건의 필리핀 여성과 오스트레일리아 남성의 결혼이 성사되었다. 1988~89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온 사람들의 84퍼센트, 타이에서 온 사람들의 83퍼센트가 여성이었다.[71]

"여성들은 남성들에게 제공된다. 이 남성들의 성 차별적 꿈은 인종 차별적이다. 아시아 여자를 신부로 사들임으로써 '해방된' 서구 여성들을 대신할 대안을 갖게 된다는 믿음이다. 이 산업은 열악한 조건 속에 있는 개발도상국의 가난한 여성들을 착취할 뿐 아니라, 여성과 평등한 관계를 맺지 못하거나 독립적인 여성과 관계를 맺지 못하는 남성들을 존속시킨다. 신부를 사는 남성들의 시장이 여성들의 경제적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정도까지 가지 않는다면, 여성을 사는 남성은 단지 가련하게 여겨졌을 것이다.

1994년에 미국 남성들은 "직업 갖기를 원치 않고, 바깥일에 관여하지 않으며, 큰 포부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서, 쓸모 있고, 내 주위에서만 맴돌아 사는 그런 신부를 원해요. 그리고 참, 그녀는 처녀여야 하죠"라는 말로 필리핀 신부를 사는 것을 정당화하면서 6천 달러를 지불했다.[72] 1970년대 중반~1980년대 중반 사이에 전세계적으로 우편 주문 신부 사업체는 12개 남짓에서 90개 이상으로 늘어났다. 이후로 그 숫자는 추정할 수 없는 정도로 늘어났다.

또한 우편 주문 신부 사업은 가사 노동자와 엔터테이너로 일하기 위한 여성들의 이민이 포함되어 있는 이민/위장 결혼의 한 형태이다. 1988~89년 사이에 필리핀에서 국제 결혼의 비율은 4,043건에서 7,759건으로 94퍼센트 증가하였다.[73] 1989년에 우편 주문을 통해 7,759명의 여성들이 필리핀을 떠났으며, 1988년 이후 94퍼센트 증가한 수치이다.

이민 당국은 법의상 필요한 서류가 구비되어 있는 한 이러한 관행을 모르는 체한다. 편의상 이러한 관행을 쉽게 만들기 위해 미국의 이민국은 약혼 비자를 제공한다. 약혼 비자는 남자가 신청서를 제출하기 전 2년 안에 미국의 신부를 만났던 경우면 발급된다. 약혼 비자가 발급되려면 적게는 3달이 걸리고, 한편 발급되면 여성은 약혼자와 함께 미국으로 여행할 수 있으나 도착 후 90일 이내에 결혼해야 한다. 결혼하지 않으면 90일이 되었을 때 미국을 떠나야 한다. 사실상 이러한 제도는 남성들에게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결혼하지 않으면 이민국에서 여자에게 떠나라고 요구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새 상품을 시험적으로 사용해 볼 수 있게 해준다.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는 그들의 고객에게 여자를 그녀의 나라로 되돌려 보내도 다른 약혼 비자로 다른 신부를 데려올 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기에 바쁘다. 그리고 많은 남성들이 바로 그렇게 한다. 내가 전국여성협회(NOW)의 마리 호세 레갈라와 함께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와 그 구매자들에 대해 반대 의사를 개진했던 한 텔레비전 프로쇼에서, 한 남자는 네 명의 여자를 데리고 온 것을 자랑하였다. 여자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는 간단히 여자를 내쫓았다.

우편 주문 신부 관에는 여성 대에의 한 형태일 뿐만 아니라, 남성들이 가사

70) Wall Street Journal, January 25, 1994.
71) DeClos, "Struggle against Sexual Exploitation and Prostitution: A Philippine Perspective," p. 125.

노동과 성적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여성을 사는 것으로 시작되는 매춘의 한 형태이기도 하다. 우편 주문 신부 중 의지 않은 사례가 고객을 만족시키지 못하고 매춘부가 되었다. 접프 지역에서 많은 여성들은 자신들이 일종의 하렘에 있음을 발견한다. 1984년에 필리핀의 한 전문직 여성은 캘리포니아의 밥 치료사의 아내로 미국에 도착한 후, 그가 이미 결혼한 사람이고 그녀를 자신의 첩으로 삼고자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1991년 또 다른 캘리포니아의 남성은 이미 자신이 사들인 필리핀 신부가 있는데도 타이 신부를 또 얻고 나서 중혼죄로 조사를 받았다. 우편 주문 신부 구입으로 초래된 마치 하렘과 같은 상황은 타이 여성이 경찰에 연락해 자신의 구매자(남편)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감금당했다고 고소함으로써 드러났다.[74]

공산주의 진영이 무너지고 소련 연방이 러시아와 그 외의 국가들로 해체되자마자, 우편 주문 신부 대행사를 통한 동유럽과 러시아 여성들의 매매가 시작되어 급증했다. 1993년 북미의 남성과 라틴아메리카의 여성들을 연결하는 일을 4년 한 이상 했던 라틴유로 소개사(LatinEuro Introductions)는 새롭게 부상하기 시작한 러시아와 동유럽 여성으로 눈을 돌렸다.

스칸나(Scanna)는 러시아 여성 2만 명의 명단을 광고하는 대행사를 통해 3천 명의 미국 남성들이 러시아 신부를 찾고 있다고 주장한다. 미-러 중매사(American Russian Matchmaking)는 일상적으로 결혼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미국의 대행사이다. 이 대행사는 1992년 33달러를 받고 남성 구매자들에게 12명의 러시아 여성들의 사진과 프로필을 제공하였다. 여성들은 프로필에 올라가기 위해 한 달 월급의 3분의 1인 80달러를 내야 한다. 이 프로필에는 얼굴 사진, 전신 사진, 몸에 치수(가슴, 허리, 엉덩이)와 자신에 대한 간단한 소개가 들어 있다.[77] 구매자는 3명의 여성들을 선택하고 나서 그들을 만나기 위해 4천~5

73) Chai Garcia, "A Report on Australia," Australian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3—4, 1993, p. 5.

천 달러가 드는 2주간의 러시아 여행을 떠난다. 대행사는 그가 최종 선택한 한 명의 여자를 위해 비자를 준비한다. 결혼이 48시간 내에 성사되면 결혼 상태를 유지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2년 유효의 조건부 비자가 발급된다. 결혼이 유지되지 않으면 그녀는 추방당한다. 이것은 자신을 산 '남편'을 안 지 며칠 되지 않은 여성이 구매된 신부로서 남편과 함께 그들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결혼 상태를 유지하도록 하는 데 효과적이다. 전국여성협회의 국제부장인 마리 호세 레갈은, 결혼 시장에서의 외국인 배우자, 결혼 대행의 경우에는 여성이 결혼 관계를 유지하지 않더라도 미국에 머무를 수 있도록 함으로써 비자상 조건부 노예의 지위를 완화하는 미국 법이 최근 통과되었다고 지적하였다. 여성이 결혼을 파기해야만 하는 상황에서 경찰에 가면 법원은 그녀의 비자에서 그 '조건'을 제거해 줄 수 있다. 그러나 결혼 대행사를 통해 모집되고 국internet에서 이루어진 매매 결혼의 상황에 놓여 있는 여성들은 이러한 정보를 접하지 못하고 있다. 미국 의회에 상정되어 있는 '1993년 여성폭력방지법'은 미국 시민의 외국인 배우자들이 이민 자격을 직접 획득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러시아와 동유럽 여성들을 비자가 필요없는 네덜란드로 매매하는 것은 더욱 쉬운 일이다. 로테르담의 경찰에 의하면 공산주의의 몰락으로 여성의 몸을 세계 시장에서 상품으로 팔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시장 수요에서의 변화, 즉 전에는 가질 수 없던 것들을 사고자 하는 남성의 욕구 변화 때문에 아시아 여성 신부나 매춘 여성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78]

우편 주문 신부 관행을 구매자의 입장에서 검토해 보면, 몇 가지 유형이 나타난다. 이 관행은 여성을 부모의 법적 소유물로 간주하며, 처분할 수 있고 남편의 법적 소유물이 될 수 있다고 여기는 종래의 관행(오늘날 세계의 여러 사회에 있는 관행이며 19세기 서구에 만연되어 있던 관행)에 모대를 두고 있다.

78) Guido de Jonge, Immigrant service liaison, appearing on "Women's Studies Live, RITNET, June 30, 1993.

우편 주문 신부를 구입한 남성은 인간을 사는 것이다. 결혼이나 약혼은 국경을 넘은 여성 매매를 보다 쉽게 만들 뿐이다. 여성은 심한 할수록에 시달리고, 집에서 나가는 것을 두려워하며, 많은 경우 "결혼"에 실망한다고 보고된다. 그러나 만족한 구입자 한 명이 실명한 것에 의하면, "그녀는 나에게 모든 관심을 쏟아 붓고, 내 손톱을 정리해 주고, 매일 샤워를 시켜 주고, 밤마다 마사지를 해주고, 구두를 닦아 주고, 옷을 벗기자마자 집어 놓죠. 그녀는 대행사의 카탈로그에 나와 있는 돈을 지불한 만한 가치가 있어요."[78]

일부 '남성의 권리' 운동들은 목적적인 서구 여성에 대한 대응으로 이 사업에 뛰어들었다. 남성권리연대의 뉴스 잡지(Men's Rights Unity News Magazine)인 『해방자』(Liberator)가 1991년 발행한 소식지는 "미국 여자들이여, 내 곁에 가까이 오지 마!"라고 경고하면서 "우편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젊고 순진한 온두라스의 소녀들"을 광고하고 있다.[79] 우편 주문 신부 매매는 아시아 지역에만 한정되는 것이 아니다. 이러한 관행들을 목도하는 아시아 여성주의 단체들의 활동 때문에, 이 지역의 문제에 관해 좀더 많이 알고 있을 뿐이다.

필리핀과 같은 국가들은 극도로 가난하기 때문에 이민 압력이 강하고, 여성들이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이 너무나 없기 때문에 일부 아시아 조직들은 소수의 여성들이나마 위험을 감수하면 삶이 향상될 수도 있기를 바라며, 이러한 형태의 이성 매매에 도전하는 것을 주저한다. 그러나 소수의 여성에게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은 심적 · 물리적으로 착대당하는 상황으로 떨어가고 매춘을 하게 되는 여성들의 수에 의해 상쇄된다. 결국 결혼을 위해서든 매매춘을 위해서든, 둘 다를 위해서든, 인간 매매는 근본적인 인권 파괴 행위이다. 이러한 맥락을 놓치고 성 착취를 정상화할 때, 여성을 소유물로 일도하는 것은 비공식적 '개방'이라는 접근으로 대체된다. 그러나 이것은 두 가지 근본적인 가정에 기반한다. 그 가정이란 ① 여성의 독립에 대한 남성의 반대와 ② 여성을 판매할 수 있는 제화로 환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여성 매매가 바로 우편 주문 신부라고 표현되기 시작한 것은 1990년 필리핀에서 시행된 새로운 법에 의해서였다.

> 법원은 필리핀 여성을 외국인에게 우편 주문을 통해 결혼을 중매하는 광범위 프로스의 전단, 기타 선전 문건의 광고, 출판, 배포를 포함하는 유사한 관행들을 위법으로 공포하고 벌금을 부과한다.(저자 강조)

이 법이 효과적으로 수행되기 위해서는 말할 것도 없이 아국, 네덜란드를 비롯하여 여성들이 아내로 수입되고 있는 모든 나라에서 유사한 법의 시행은 물론이고 이만국의 감독뿐 아니라 정책의 협조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법은 강력하지도 않고 충분하지도 않다는 비난이 필리핀 여성 단체로부터 제기되었다. 그러나 이 법이 법화(우편 주문 신부 매매는 법화이다)를 통제하는 데 효과적인가를 떠나기 이전에, 이러한 관행을 비난할 수 있는 도덕적 토대를 사회에 제공한 것은 사실이다.

> 사람들이 적절한 생활 수준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정책이다. 국가는 이러한 목표의 달성을 위해 필리핀 여성들이 경제적 성장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무시되고 착취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81]

78) John Kish, "The Blooming Business of Imported Love: Here Come de Brides," Mother Jones (Feb.-March 1990), p. 37.
80) Liberator, November 1991, 3.
81) Socialist Republic of Vietnam, Section 1, Republic Act. No. 6955.

서구 성 산업의 전개

선진 산업 국가에서 성 산업은 발전했으며, 패키지화되었고, 개발도상국에서 가능하게 된 새로운 시장을 준비했다. 내가 했다시피, 베트남이 사회주의 공화국을 고수하는 동안 시장 경제가 서서히 발전하기 시작했으며, 섹스 관광 업체들과 우편 주문 신부 판매는 그 기반을 다지고 있다. 미국이 베트남에 대한 금수 조치를 해제하고 베트남 정부가 시장 체제화를 향한 산업화 노력에 대한 통제력을 잃게 되자, 일을 꾸미는 사람들이 베트남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조만간 개방될 이 새로운 시장(베트남)을 착취할 태세를 갖추었다.

법의 조직에 의해 운영되었던 성 산업이 가장 먼저 들어와서 동유럽의 공산정권 붕괴로 만들어진 시장을 인수하였다. 구 소련에서 소비에트 마피아는 많은 사업가들에게 밤에 매춘부를 제공하는 호텔을 유지하기 위해 비스를 내놓았다고 한다.[82]

폴란드는 심지어 공산주의가 붕괴되기 이전부터 여성에 대한 성 착취를 판매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폴란드에서 포르노그라피가 처음 만들어진 것은 1988년이었으며, 이는 공산당 중앙위원회(Central Committee of the Communist party)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의해 배포되었다.[83] 부다페스트에서는 1990년 6월에 처음으로 스트립쇼가 공연되었다. 1989년에 검열법이 폐지되어 하드코어 포르노를 만들 수 있게 되었다. 처음에는 서구로부터 수입되던 포르노그라피가 거의 즉각적으로 국내에서 거대한 산업으로 발전했다. 완전 낙태를 제한하려는 계획은 추진중에 있었다.[84] 기독교민주당(Christian Democratic party)은 어린아이를 착취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포르노그라피에 반대했다. 기민당의 한 관리는 "포르노그라피는 민주주의의 일부분"이라고 주장했다.[85] 헝가리의 페미니스트들은 포르노그라피를 여성에게 모욕적인 것이라고 보고 이를 반대하는 강력한 입장을 취했다. 그러나 1989년에 헝가리에서 실시되었던 여론조사에서 75퍼센트가 매춘의 합법화에 찬성했다.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자 정부의 허가 아래 성 산업이 운영되고 있던 서독으로부터 여성 매매업자들이 쏟아져 들어왔다. 동독에서 매매춘은 사업 방문객(이들은 매매로 월보의 원천이었다)을 위해 운영되던 국영 호텔 및 군대만을 제외하고는 금지되어 있었다.[86] 라이프치히(Leipzig)는 시장 개방을 위해 서독에서 들어온 사업가들에게 매춘을 제공하기 위해 이동 주택 구역을 세운 서독의 포르노그라피업자와 알선업자로 넘쳐났다.[87]

성 산업과 조직 범죄, 서유럽의 알선업자 들이 동유럽의 여성과 소녀 들의 기난 위에서 번성할 때, 서구의 방송 매체는 구 공산주의 국가에서 매매춘의 확산을 흔히 금지주의 체도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성적 억압으로부터의 해방이라고 보도했다. 시장의 측면에서는 생활 수준의 향상으로 사람들이 소비할 돈을 벌어들이기 시작했고, 이렇게 되자 사치품 소비가 불균형적으로 증가했다. 만일 수입이 x만큼 증가했다면, 매춘과 같은 품목에 대한 지출은 불균형적으로 증가하게 될 것이다. 남자들은 처음에는 사치품을 사는 데 소득을 쓰고, 그 다음에는 재빠르게 개인적 만족과 편리을 위해 여성을 사는 데 돈을 쓴다.

산업화된 성 착취

역사적으로 매춘의 확대는 급격한 산업화의 의도하지 않은 결과로 생각되

82) Los Angeles Times, November 13, 1991.
83) San Francisco Chronicle, July 2, 1990.
84) Atlanta Journal Constitution, July 15, 1990.
85) New York Times, May 13, 1990.
86) New York Times, June 13, 1991.
87) New York Times, May 13, 1990.

었다. 산업화는 새로 개발되는 도시 경제로 밀려들어 시장의 변동을 만들어 내는 노동력의 과잉 공급과 함께 전형적으로 대규모의 이농 현상을 야기시킨다. 산업화의 첫 단계에서 여성은 가정에서 시장으로, 지방에서 도시로 이동하는 과정에서 남성에게 유리한 임금 노동으로부터 주변화된다. 일부 여성들이 산업화의 첫 단계에서 노동력으로 유입되기 시작할 때, 그들 대부분은 저임금의 하찮은 직업에 배치되며 그 결과 가난과 궁핍에 처하게 된다. 산업 노동력은 전통산업 사회의 여성 과잉노동에 대한 최저의 가치를 인정할지 못하는 결혼과 가족의 사적 영역에의 귀속에 기반을 두고 있다. 따라서 산업화는 빈곤의 성별 구조를 영속화시킨다.

수출 자유 지역(EPZs)은 외국 기업의 수출을 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제3세계 국가 내에 만들어진 지역이다. 일반적으로 규제가 풀리고, 주최국은 저비용으로 집중적인 생산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기업들은 원료와 자본금에 대한 관세를 면제받는 경우가 많다. 또한 전기료와 주택 임대료, 세금 삭감 혜택도 받는다.[89] 라틴아메리카의 일부, 멕시코와 미국의 국경 주변, 동남아시아에 있는 수출 자유 지역은 일반적으로 여성 노동력이 싸고 구하기 쉽기 때문에 이들을 모집한다. 수출 자유 지역은 경제 개발이 진행되면서 사라진다.

이농 과정에서 소녀와 여성들은 수출 자유 지역의 생산을 위해 모집되며, 이들의 노동력은 생산과 경제 발전을 가속화시킨다. 수출 자유 지역에서는 최저 임금 규정과 근로 조건을 지키지 않아도 되도록 면제되는 경우가 많다. 그 결과 이 지역이 여성들에게 시골의 가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제공해 주기는 하지만, 변변한 생활 수준을 유지하면서 살 수 있는 돈을 주지는 않는다. 일선업자들은 이러한 부분을 공략하는 것이다.

생활 수준의 향상과 더불어 매매춘의 정상화는 타이에서 내국인 구매자들의 대규모 수요를 창출했다. 약 75퍼센트의 타이 남성들이 매춘 여성과 섹스를 한 적이 있다.[90] 타이의 성 산업은 충분히 발전하여 제조업 임금 노동을 통해 벌 수 있는 것보다 더 높은 임금을 여성들에게 제공함으로써 여성들을 사들이 매춘에 종사하게 만들 수 있다. 1990년에 하루에 8~12시간 일하는 공장 노동자의 월급이 40~80달러인 반면, 동일한 시간을 일하는 마사지업소의 매춘 여성은 한 달에 200~320달러를 번다. 비숙련 고용의 저소득 계층의 경우 하루에 12~18시간 일하는 가사 노동자는 한 달에 13~20달러를 버는 반면, 동일한 시간을 일하는 상류 매춘 여성은 한 달에 40~80달러를 번다.[91]

매춘 여성에 관한 1982년의 한 연구에서는 매춘이 어느 정도로 경제 발전의 수단이 되는가가 드러났다. 인터뷰했던 대부분의 여성들은 자신을 고향인 타이 북서 지방의 시골 마을에 살고 있는 가족의 생계 부양자라고 생각하고 있었다. 이 연구에서 모든 여성들은 가족을 위해 집에 돈을 부쳤다. 약 25퍼센트가 자신이 어떻게 돈을 버는지 가족에게 말했다고 한다.[92] "소녀들 중 8명이 이미 부모를 위해 고향에 집을 지어 드렸다고 말했고, 대다수의 소녀들은 이 일을 그만두기 전에 그렇게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었다. 한 소녀는 집을 두 채 지었다. 하나는 그녀의 부모를 위해서, 그리고 다른 하나는 그녀 자신을 위해서였다. 그리고 그녀는 2년 안에 은퇴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의상실을 열기 위해 여전히 저축을 하고 있었다. 이렇게 돈을 모으는 데는 10년이 걸린다."[93]

전통적으로 매매춘은 우선적으로 남성을 발전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89) Hsin Hsin Pyne, "AIDS and Prostitution in Thailand: Case Study of Burmese Prostitutes in Ranong," Thesis May 1992.
90) Maruaimajchara Rumin, "Prostitution and Economic Empowerment of Women in Thailand: A Case Study of Alternatives in A Chiangmai Village in Northern Thailand," paper presented at the Association on Women in Development Conference, Washington, D.C., November 1989, p. 1.
91) Phongpaichit, et al., p. 22.
92) Ibid., p. 34.

개발 계획에 의해 산업화가 시작된 후에 확산된다. 그 다음에 산업화가 진행되고 여성이 더 나은 직업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 매매춘은 줄어들 것이라고 가정된다. 그러나 타이와 같은 신흥 개발도상 국가에서 매매춘은 계속 성장하고 있으며, 경제 발전과 함께 극적으로 증가해 왔다.[94] 다시 말하면 매매춘은 산업화의 결과가 아니다. 오히려 오늘날 산업화를 진행하고 있는 국가의 발전과 함께 매매춘도 산업화된다. 다국적 성 산업 기업은 자율적인 경제 세력이 되었다.

전형적으로 매매춘에 대한 연구는 여성에 대한 연구이다. 전통적으로 매매춘에 대한 설명, 즉 '남성 구매자(the customer John), '그 짓(John)'과 같은 말은 여성의 몸 위에 세워진 것이다. 수세대에 걸쳐서(수백 년이 아니라면) 매매춘의 원인과 결과는 여성에게 책임이 있었다. 그러나 수요가 없는 매매춘은 있을 수 없듯이, 상품에 대한 소비가 없는 성의 산업화란 있을 수 없다. 개발도상국 경제에서 매매춘 시장은 외국 남성들(기지에 주둔해 있거나 전쟁을 벌이고 있는 군인들, 군대 매춘이 번성할 때와 그 이후에 섹스 관광을 지속시키는 사업가들, 섹스 관광을 즐기러 오는 남성 관광객)에 의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여성에 대한 성의 산업화가 가속화되고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내국인 남성들에 의해 다국적 산업으로 발전해 나간다.

군대 매춘과 섹스 관광, 대규모 지역 매매춘의 증가와 함께 성 산업, 다국적 기업은 국제 시장을 형성하면서 자신들의 기반을 확보하고 있다. 섹스를 위해 여성의 몸을 매매하는 국제 매춘 시장은 조직 범죄에 의해 영속화되고, 여행사, 호텔 체인점, 항공사, 국제적 매매업자를 통해 작동한다. 매매춘과 국제적으로 이루어지는 여성 매매를 분석하기 위해 수집된 증거에 의하면 산업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이익을 만들어 내는 물적 기반을 확립해 가면서 매매춘은 결국 개발도상국의 내국인 남성에 의해 유지된다.

93) Bangkok Post, January 1991.

급속한 산업화 과정에서 가족 구조의 변화와 여성의 이농 현상과 같은 광대한 사회적 전환과 함께 국가, 지역 사회, 가족 경제는 섹스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의 수단으로서, 그리고 개발 경제의 노동력으로 여성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으로서 매춘 산업에 크게 의존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국가는 매매춘의 합법화를 호의적으로 바라본다. 매매춘과 성 산업이 합법화되어 유지되고 있는 서구, 특히 유럽 국가의 모델들은 합법화를 조장하는 데 기여한다. 합법화는 문자 그대로 비참한 환경에 놓인 여성을 매춘에 가두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여성의 지위'에 대해 말하는 것은 이들을 위한 물질적 기반이 없는 상황을 논의하는 것이다. 여성이 '지위'를 갖기 위해서는 여성이 사적 영역뿐 아니라 공식적 영역에서 사회적 실체, 즉 법적 실체로 드러나야 한다. 매매춘은 여성을 경제적 · 법적 계급으로 드러나지 않게 한다. 매매춘은 가부장적 가족 구조와 산업 노동력 사이에서 여성들을 쉽게 팔아치우는 포대이다. 일자리에 대한 요구를 덮고 관광을 통한 외화 획득을 장려하기 위해 국가가 매매춘을 합법화시키는 것은 어쩔 수 없이 매춘을 일종의 노동이라고 생각하게 만든다. 그 안에서 여성은 주변화되고 사회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차별받는다. 그러나 매매춘의 사회적 생산은 실제적으로는 다른 방식으로 일어난다. 여성은 (선택하건 않건) 주변화되고 매춘에 귀속된다. 이것은 인권에 대한 실패이다. 계급으로서의 여성이 차별받지 않는 조건을 보장받고, 이를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들의 존엄한 인권이 우선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 매매춘이 여성의 인권을 저당잡고 있다.

9장 인권과 전지구적인 여성주의 행동

경제가 국제화되고 여성 종속이 전세계적 차원으로 확대되면서 그것이 섹슈얼리티 매춘화의 근본이 되는 만큼, 성 착취에 대항하기 위한 접근은 전지구적이어야 하고 급진적이어야 한다. 지배가 절망을 만들어 낼 때 자유를 위한 투쟁은 희망의 행동이 된다. 희망은 지배가 불가피하다는 확신을 산산이 부서뜨리는데, 성 착취와 특히 그 중에서도 매매춘에 관한 확신을 산산조각 낸다.

내가 이 작업을 지금까지 계속 해올 수 있었던(성적어 어떤 때는 나 자신의 희지에 반하는데도) 가장 우선적인 이유는, 지배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을 가지고 그 신념에 따라 여성 종속의 실제를 정치적 투쟁과 여성들을 위한 (자기 자신과 타인에 의한) 개인적 치료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하고 있는 여성들 때문이다. 그들이야말로 내 낙관주의의 근원이다. 성 착취의 잔혹한 현실을 초월하는 희망의 근원은 전지구적 차원에서 이루지는 여성들의 활동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희망은 몇몇 지역에서 성 착취를 폭행이라고 말하기를 거부하면서 이것을 영속시키는 사람들의 강력한 질망의 장벽을 부수는 단결된 페미니스트 집단의 하나된 목소리에서 찾아볼 수 있다. 희망의 목소리는 다양하다. 하지만 그들은 단일한 소리만을 내고 있지 않다. 오히려 그들은 전지구적으로 복잡하게 일어나고 있는 모든 성 착취를 폭로하고 해결하기 위해 그들

의 다양성을 가지고 함께 모였다. 이들은 매매춘에서 시작하여 성 착취는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전세계가 성 착취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꿈 같은 인식에 보다 가까이 다가서고 있는 전지구적 페미니즘의 기본 모대이다.

서구와 제3세계 여성들은 때로 임시적인 방식으로나마 남성들이 지배를 위해 여성들이 서로 싸우도록 대립시킨 가부장적 분리를 초월하여 공동 투쟁의 기초를 찾는다. 우리가 먼저 우리 자신의 삶과 문화 그리고 각 나라들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성적 공속에 대항하는 투쟁과 지배를 이해할 때, 성 착취에 대항하는 전지구적 여성주의 행동은 서구 페미니스트들을 위한 진정한 국제적 투쟁이 된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성 착취에 대항하는 집단의 행동을 위한 공동의 모대를 찾고, 묻고, 배우고, 연대를 만드는 것은 서구 페미니스트들의 의무이다. 제3세계에 대한 서구의 성적 · 경제적 헤게모니를 통한 국제적인 여성의 산업화에 대항하기 위해 전지구적인 투쟁이 요구되는데, 이러한 서구의 지배는 남성 군인, 관광객, 사업가, 외교관 그리고 정부 관료에 의해 수행되고 여성에 대한 성 착취, 특히 매춘에서 성 착취를 영속시킨다.

국제적 페미니즘은 이제까지 이야기되지 않았던 여성에 대한 전지구적 억압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고 그것의 존재를 드러내고 있다. 여성들이 말할 수 없었던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을 거부당하는 곳, 특히 여성이 성 착취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그들의 인권을 주장하는 데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곳에서, 전지구적 페미니즘은 정치적인 억압에 의해 대장될 수도 있는 이슈들에 국제적으로 존재성을 부여하고 있다.

망각의 침묵

페미니즘이 섹스에 대해서 말하고, 여성을 비인간화하는 섹스의 사회 정치적 구조에 대해 말하는 데는 여전히 문제가 남아 있다. 잇따른 전문가 모임과 회의에서 나는 섹스 그 자체가 착취적이고 해롭고 파괴적일 때 섹스에 대해 침묵하는것의 문제점에 대해 말했다. 내가 어느 누구보다 이 문제에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직면해 있는 페미니스트들과 이 이슈를 다루기 위해 1991년 펜실베이니아 주에서 '섹슈얼리티의 정치학'이라는 회의를 조직하였을 때, 나는 심지어 그곳에서조차 섹스 그 자체가 토론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폭력으로서의 섹스는 토론되었다. 하지만 섹스 그 자체, 즉 여성성 안에서 체화되는 동시에 성 경험에서 일어나는 여성 종속의 조건은 심지어 이것을 토론의 장으로 이끄는 데 가장 공헌하고 있다는 여성주의적인 대학에서조차 침묵당하고 있었다. 섹스에 폭력을 덧붙이는 것은 성 착취를 말할 수 있게 하지만, 이것은 성 착취의 조건을 생산하는 성적 권력 관계, 즉 성적 억압에 침묵하게 한다. 사실상 '여성에 대한 폭력'과 포르노그라피에 저항하는 페미니스트 조직화에 힘쓴 2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매매춘에서 항상 전제되는 정치적 중요성이 있건 없건 간에 우리는 섹스 그 자체가 여성에 대한 폭력이라고 말할 수 있는 개념과 언어를 만들어 내지 못하고 있다. 안드레아 드워킨은 그녀의 저서 『성교』(Intercourse)에서 이 영역의 기본 모대를 부수는 작업을 시도하였다.[1]

섹스 그 자체가 착취라는 것에 대한 정치적 침묵은 결혼 내의 섹스라는 개인화된 조건에서 시작하여 매매춘의 공식적 상상화로 확대되는데, 특히 서구에서 이런 경향을 보인다. 매매춘의 상상화는 여성이 기억하지 못하도록 사회적으로 재차 확인하는 것이다. 어떤 자아가, 몸이, 그리고 개인의 경험이 굉장한 상처를 입었을 때 그 상처를 입힌 어떤 행동이 기억 속에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안다. 포르노그라피의 조장과 매매춘의 합법화는 여성의 성 착취 사실은 억압자들의 잘 알려진 전략인 '분리와 정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개인적인, 침묵되고 이야기되지 않은, 때로는 기억조차 되지 않는, 때로는 분열된 성적 경험 속에서 소녀들과 여성들은 남성의 성적 요구에 속박되는데, 이것은 여성들을 그들의 이름 없는 억압자, 확인되지 않은 폭행자에게 대항하지 못하고 다른 여성들에게 적대적이 되게 한다.

몇몇 아주 소수의(정신의 일각일 뿐인) 여성들은 기억하기 시작한다. 보다 적은 수이긴 하지만 몇몇은 감히 공개적으로 말하기도 한다. 그들은 말할 수 없었던 것을 폭로하고 알 수 없었던 것들을 삼여 내면서, 말로는 다 할 수 없고 다 알 수도 없는 폭력의 지옥을 통과하며 싸우고 있다. 이들이 때로는 인간의 상상력과 인내의 한계를 시험하기도 하는 용기를 가지고 투쟁하고 있을 때, 그들이 피거와 씨름하고 있을 때, 그들의 이러한 기억하기와 투쟁, 기억 속에서 섹스를 성 착취로 명명한 결과로 우리 여성주의 운동은 거대한 성장을 거둘 수 있었다. 성적 권력 관계는 그들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그것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있다. 성적 권력 관계는 여성의 인간 존엄성과 인권 침해를 영속화시키는 억압이다.

성 착취는 우리 몸 안에서 그리고 몸 위에서 일어나고, 이것의 가혹함은 사물화를 통해 인간의 통합성을 축소시키고 인간 기억에조차 남아 있지 못할 정도로 '몸을 벗어난' 경험을 만들면서 자아를 파편화시킨다.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폭력에 목소리와 말을 부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은 자매의 개별적인 행동이 가져오는 정신의 충격의 결과 그 이상이다. 이를 알이지 못한다는 것, 때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 종속된 성적 존재로서 살아가며 결과적으로 비인간화된다는 것은 직접적으로 섹스를 인간 경험의 일부에서 억압의 성 정치학의 초석으로 바꾸어 놓는다. 이러한 점에서 중요한 점은 일회용 계급의 여성들, 즉 착취적인 섹스를 하고 이러한 섹스의 정당화로 상징되는 매춘 여성이 양산된다는 것이다.

망각을 유지시키고 성적 억압 관계를 정치적으로 강화시킨다.

그들이 마치 인간으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말살시키기도 전에 그들의 "보호자"인 남성 어른들에 의해 성애화된, 그리고 그에 의해 기억이 너무나도 처참해서 인간의 영혼이 그것을 기억 속에 담고서는 도저히 참을 수 없기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어제까지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근친 성 학대의 피해자인 여성 인구를 생각해 보자. 만약에 아무도 그들에게 "이건 잘못된 거야. 어느 누구도, 어떤 소녀도 이런 식으로 다뤄져서는 안 돼."라고 말하지 않는다면, 강력하게 성애화된 사회 속에 묻혀 있는 그 기억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포르노그라피를 조장하고 매매춘을 옹호하거나 또는 페미니스트들이 섹스를 착취라고 부르는 것을 반대하는 여성들의 수는 헤아릴 수 없다. 이 여성들 중에 얼마나 많은 수가 그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삼촌, 아버지, 양아버지, 할아버지에게 성애화되었던 것을 아직까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는지 우리는 아마 결코 알지 못할 것이다. 적극적으로 대상화된 섹스를 추구하고, 변태적인 섹스를 조장하고, (일관적으로는 다른 여성의, 하지만 모델계는 자신 스스로의) 매춘을 장려하고, 포르노그라피를 옹호하고 부추기는 여성들이 있기도 하다. 힘하의 가부장적 관계라는 조건하에서, 그들이 마치 여성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여성들이 그들의 몸을 가지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자처럼 여겨지고 있다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다.

내 작업이 학계의 여성들에게 얼마나 많이 도전받고 좌절당해 왔는지 더 이상 셀 수조차 없다. 그들은 자신들이 궁극적으로 기억하지 못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는 감히 그들이 말할 수 없다는 사실조차 알지 못했다는 것을 나중에 내게 개인적으로 드러냈지만 곧바로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았다. 그들이 어린아이였을 때 또는 젊은 내에서나 성인에게서 겪은 성 학대의 경험은 침묵되고, 감히 이러한 침묵을 깨는 여성들에 대한 그들의 감정을 부추긴다.

여성들의 성 착취 사실은 억압자들의 잘 알려진 전략인 '분리와 정복'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1) 성 착취로서의 섹스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는, Andrea Dworkin, Intercourse (New York: Free Press, 1987)를 보라.(한국어판은 『여자는 무엇으로 사는가: 페미니스트가 말하는 여자』, 동하출판, 1990—옮긴이)

서구에서 페미니즘은 어떤 형태의 성 착취에도 폭력이 있다는 것을 확증함으로써 자신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라는 압력을 받아 왔다. 하지만 폭력은 오직 억압의 한 측면일 뿐이며, 폭력 하나만을 반대하는 것은 해방 운동의 가능성을 축소시킨다. 폭력은 페미니즘을 제한성된 성 착취 안에 머무르게 하고, 매매춘이 불가피하다는 사고를 유지시킨다. 성 착취를 폭력으로 만드는 조건으로서 힘을 강조하는 것은 성적 억압에 침묵하게 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것이 강제를 통하지 않고 매춘에 유입되어 깊은 상처를 입은 수백만의 여성들을 침묵시킨다는 것이다. 또한 이것은 자신의 성 착취 경험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그것을 기억할 수 없는, 성 착취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는 성 착취 희생자들을 침묵시킨다.

기억하기, 치료하기, 의식화

만약 우리가 인간 존재로서 여성에 대해 말하고자 한다면, 여성들은 반드시 충분한 인권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여성들의 인권 향유를 방해하는 성 상품화와 여타의 성 착취가 개인들 사이에 미치는 영향력은 반드시 밝혀져야 하고 폭로되어야 하며 맞서서 극복되어야 한다. 모든 새로운 증후군과 12단계 치료 프로그램에도 불구하고, 그 어떤 것도 개인적 치료와 집단적 투쟁에서 여성주의 의식화의 효과를 대체하거나 능가할 수 없다. 여성주의 의식화는 성적 착취로부터 여성 자신을 회복하기 위한 기초이다. 여성주의 의식은 비판적이기 때문에 개인적이고 정치적인 투쟁 모두에 여성의 적극적인 참여를 불러일으키고, 지배에 대한 우리의 지속적인 저항을 유지시키고, 혁명적인 변화의 가능성에 대한 지속적인 자각을 창조한다. 여성주의 의식화는 착취를 넘어서 삶의 가능성을 알아 가는 열쇠이다.

성적 억압 문제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화에 기반한 개인 치료는 성 착취, 특히 매매춘과 포르노그라피에 대한 정치적 - 사회적 반대와 함께 시작된다. 수년에 걸친 성적 테러뿐 아니라 국가에 종속되어 있는 여성의 조건과 난민 여성의 경험처럼 폭력이 다층화되어 있는 곳에서는, 국가 권력에 대한 의식이 성적 억압의 저variation을 지연시키며 정치적 고문으로부터 안전의 추구는 안전이 성적/신체적으로 통합된 개인의 보호를 의미한다는 인식에 앞선다. 이와 유사하게, 어머니인 여성이 성 착취를 겪는 거의 모든 사례에서 그들은 자신이 성적 종속과 타협하는 것보다 자녀의 안전을 먼저 고려한다. 여성들은 가장 먼저 착취당하면서 가장 나중에 치료받는 존재이다.

개인 치료에 중점을 두는 개별 프로그램들이 몇몇 여성들을 성적 억압 문제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로 이끌 수 있을지라도, 나는 '의식화'처럼 성적 종속에 대한 비판적인 의식이 개인적 치료의 기본 조건이라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배를 통해 부과된 고립을 깨면서 집단적인 투쟁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이다. 만약 사람들이 해악을 낳는 성적 권력 관계에 대해 먼저 '알지' 못한다면, 성 착취의 상처로부터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 인간을 단지 성적 대상으로 만들어 버리는 성 권력에 대해 아는 것은 성 착취를 거부하고, 성적 권력 관계에 대항하고, 남성 지배의 근원에 도전하는 맥락에서만 이해될 수 있다. 그러한 투쟁의 외부에서 기억하고 아는 것은 여성을 가해자에게서 보호자에게로 보내는 것에 불과하며, 여성은 결코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회복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권력 관계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은 개인적 치료와 정치적 투쟁 둘 다에서 중요하다. 아는 것은 올바른 정치적 분석을 한다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충분한 지식은 상처에 직면하고 고통의 근원에 맞서기를 요구하기 때문에, 지배의 유산은 더 이상 고통을 감수하거나 수치심을 갖게 하거나 다른 여성에게 적대감이나 화를 돌리거나 원초적인 해악에서 발생한 자기 혐오를 계속하는 형태로 다른 인간에게 권력을 행사하지 못한다.

여성주의 프로그램의 가능성과 그것이 직면하는 한계를 입증하기 위해 나는 스웨덴의 매매춘운동집단Prostitution Group, 미국의 매춘대안협회, 필리핀의 부랄로드(Buklod) 등 세 가지 프로그램을 살펴보겠다(부랄로드는 '유대'라는 의미를 가진 말로서 필리핀의 술집 여성들이 그들을 함께 모이게 했던 세미나에 붙인 이름이다.) 이 프로그램들의 공통점은 자신의 삶의 살제적인 행위자가 되기 위해서 자아를 주장하고, 여성을 치료하기 위한 모대를 의식화에 두고 있다는 점이다.

약 30만 명 규모의 도시인 스웨덴의 고텐부르크(Gothenburg)에 있는 매매춘운동집단은 4명의 사회 복지사(3명은 여성, 1명은 남성)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들은 매일 저녁 매춘 여성들을 만나기 위해 어리로 나가서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고 커피를 함께 마시거나 자신들의 활동에 참여하라고 매춘 여성들을 초대한다. 이곳의 사회 복지사들은 1만 5천~2만 5천 명의 매춘 구매자가 있는 도시에서 1년에 350~500명의 매춘 여성들을 만난다. 1982년에 이 계획이 시작된 이래 줄곧 일해 왔던 엘리자벳 페터슨(Elisabet Petersson)이 매춘을 하는 여성들과 함께하면서 발견한 중요한 사실은 "그들을 위해 거기에 있으며 그들의 얘기를 들어 준다는 것"이다. 하지만 거기에는 그 이상이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돌봄이다. "그들은 아름다운 여자들이에요. 착하기도 하구요. 너무나 착해서 그들은 손님들에게 '안 돼요'라고 말할 수 없지요." 한 여성이 거리를 떠나 이 집단에 들어오게 되면 그 여성은 특정한 사회 복지사와 작업하게 되는데, 이 사람은 그 여성들을 돌보겠다는 특별한 감정을 가진 집단의 일원이다. 매매춘운동집단은 사회 복지사가 매춘 여성들과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심을 표현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사회 복지사는 상담은 물론 직업 훈련과 사회 건강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여성들의 활동에 관여한다.

미성년 소녀들은(스웨덴에서는 20세 미만 국가의 지원에 의해 강제적으로 매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 매매춘운동집단은 소녀들을 매춘에서 빼내오기 위해 이 권위를 이용하는데, 심지어 처음에 소녀들이 떠나기를 주저할 때도 이들은 강제를 사용한다. 엘리자벳이 보고하였듯이, 매매춘운동집단에서 나온 사람은 그 십대 소녀들에게 '안 돼'라고 말한 첫 번째 사람인 경우가 많다. 이 소녀들은 그들에게 아무런 제한을 가하지 않던 가족이나 어느 누구도 "안 돼, 넌 그걸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던 곳 출신인 경우가 많다. 확고한 방향을 제시하고 개인적으로 보살피며 그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는 것은 이 소녀들을 매춘으로 돌아가지 않게 만드는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된다.

올롱가포의 부랄로드 세미나는 술집에 나가는 여성들을 위해 열린다. 세미나는 술집 주인이나 '마마상'(mama-san)이 그들의 존재 조건을 지시하기 때문에 전형적으로 자신의 삶에 대한 통제력을 상실해 버린 여성들에게 힘을 부여하는 데 의미가 있다. 부랄로드 여성들과의 만남에서, 술집 여성과 전직 매춘부 들은 내게 자신들이 처음 이 모임에 참여했을 때는 술집 주인이 하라는 대로 모든 것에 그저 "네"라고만 대답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세미나가 어느 정도 진행된 뒤에, 그들은 조금씩 그들 자신을 주장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어떤 것은 선택하고 어떤 것은 거부하기 시작했고, 술집에서 그들이 키우이고 싶은 것이 어떤 것인지를 결정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그들의 선택은 가난이 허용하는 제한적인 한계로 인해 제약을 받는다. 이 모임의 코디네이터인 에멜라 카바용(Emela Cabayong)이 설명했듯이, 부랄로드 세미나는 기억하기에서 시작한다. "우리는 그들에게 스스로의 '인생의 장'을 만들도록 항상 요구하고, 그리고 모든 여성들은 자기의 이야기를 해요." 술집에서 일하다가 부랄로드에 온 펄린(Pauline)은 세미나에 나오면 "당신은 술집에서 일하던 과거를 단지 기억하기만 하면 돼요"라고 설명했다. 여성들이 세미나에서 그들의 삶을

5) 캐나다의 증권위원회(Securities Control Commission)의 회장이자 필리핀에 5년 이상 살면서 술집과 술집 여성들의 함께 활동해 온 프랜다 스콜스루드(Brenda Scholadus)가 필리핀 여성들과 함께 조사하였다.

함께 탐구할 때, 그들은 "아주 어린 시절들에 대해 기억하기" 시작했다. 여성들은 술집에서 일하기 전의 시절을 되돌아보며 많은 눈물을 흘린다. 이렇게 적 이야기 속에는 즐거움도 있지만 근친 성 학대의 공포스러운 얘기도 나오게 된다. 펠린은 "당신은 당신 자신이 왜 술집에서 일하게 되었는지 모르기 때문에 회상할 필요가 있어요."라고 설명했다.

과거를 떠올리고, 기억하고, 얘기하고, 울고, 동감하는 것은 모두 동시에 이뤄지며 그와 함께 치료가 시작된다. "치료는 과정 안에 있다"고 에델라는 말한다. 페니하면 펠린이 말했듯이 "세미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여성들이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곳에는 수많은 세미나가 있고, 30~75명 정도의 여성들이 각 세미나에 참여하고 있는데, 일부는 새로운 사람들이고 나머지는 계속 모임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일종의 공동체 조직화가 그곳에서 이뤄지며, 여성들이 긴장을 풀고 놀담하고 게임을 하면서 서로와 관계가 돈독해짐에 따라 술집에서 그들의 상호 관계는 변하기 시작한다. 비록 많은 여성들이 치료 과정중에 있기는 하지만, 그들은 부클로드 모임에서 술집으로 돌아간다. 부클로드는 여성들에게 바느질과 다른 기술들을 가르치기 위한 훈련 프로그램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 작업들은 아직 여성들을 경제적으로 지지하는 수준까지는 발전하지 못했다.

부클로드 세미나 참석 후 무언가가 변화한다. 의식화는 무언가를 뒤집어 놓고, 여성들은 매춘을 넘어서는 관계와 삶, 시간 속에 역사를 가진 인간 존재가 되기 위해 술집 생활에서의 대상화를 넘어선다. 그들은 매춘이 만들어 낸 모습이 그들 모습의 다가 아니라는 것을 배우게 됨에 따라 스스로에 대해 알게 된다. 비록 비참한 경제적 상황 때문에 가끔 몇몇 일에 한정되기는 하지만, 그들은 "싫어요"라고 말하기 시작한다. "파파상이 나한테 바닥을 닦으라고 말했거든요. 그래서 내가 '왜 내가 그 일을 해야만 하죠?' 하고 대답했죠. 파파상은 나한테 무척 화를 냈어요." 또 다른 사례에서 한 여성은 새해 전날 술집에 나가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날을 쉬어야 하는 날이라구요"라고 그녀는 말했다. 이것은 그녀가 이전에는, 즉 자신이 '휴식할 시간'을 가져야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때는 일어날 수조차 없던 결정이자 선택이며 자기 지향적 행동이다.

술집 자매들은 여자들의 그러한 사나움에 익숙하지 않다. "전에 나와 친다는 항상 미국 남자들하고 나갔어요"라고 펠린은 말했다. 세미나에 참석한 후 그들은 그러기를 중단하였다. "최소한 당신은 자매인에게 어떻게 말해야 하는지를 알게 돼요." 여성들은 이제 손님과 나가는 대신에 술집에 남아 있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을 찾기 시작한다. 하지만 '술집에 남는 것만으로는 아이들을 양육할 충분한 돈을 벌 수 없는 제도' 때문에 여성들은 지친다. 이러한 구분들은 여성들이 다시 주장하는 자아의 고양으로부터 추론되고 성세하게 조절된다.

스웨덴의 매매춘운동집단과 달리, "우리는 여성들에게 매춘을 그만두라고 말할 수 없어요"라고 에델라는 설명했다. 왜냐하면 부클로드는 그 여성들에게 생존을 위한 경제적 수단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빈곤의 여성화는 곤궁가 파괴되고 해체되고 탈인격화되어야만 생존할 수 있는 작업을 여성에게 주고 있다. 이들에게 매춘의 딜레마는 복잡하게 다층화되어 있다. 그들은 끔찍한 가난에서부터 급속한 산업화 속에 생겨나는 새로운 물질적 이익의 한가운데로 들어온다. 그들은 어릴 적에 성 학대를 당했거나 십대에 결혼해서 자신의 아이와 함께 버려진 사람들이다. 저개발이라는 조건 아래에서 여성들은 결혼을 자신의 유일한 가능성이라 여기며, 미몰아다니게 되면 성 산업 외에는 다른 가능성이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이러한 현실은 결혼과 매춘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불러일으킨다. 이런 불가피성은 부클로드의 소책자에도 나와 있는데, "개별 여성들에게 매춘을 떠나도록 강요하거나 돕는 것은 문제를

"나는 여권을 발급받았지만, 그는 나에게 비행기 티켓을 보내주지 않아요", "나는 가끔 영사를 만나요. 아이도 6개월에 한 번……"이라는 말을 들었다. '운이 좋은 여성들은' 도움이 되는 약간의 돈을 받기도 한다. 하지만 '남자친구'가 어디에 있는지 알아 낼 방법도 없이 편지도 없는 한 봉투에 들어 있는 돈만 받는 것은 깊은 상처를 주기 때문에, 여성들은 현실을 알려고 애쓰지 않는다. 술집 체제에 경제적으로 의존하는 긴장 상태는 여성들이 독립적인 의식을 획득하는 것을 방해하고, 미군의 아내로서 미국에 가는 꿈을 계속 꾸도록 한다. 올롱가포의 술집 여성들 사이에서 "사랑은 다 헛소리야"라는 말이 통용되는 것은 그리 놀라운 일이 아니다.[1]

부클로드 이외에도, 여성 착취에 대항하는 제3세계 운동(the Third World Movement Against the Exploitation of Women)의 지도자인 솔레드 페르피난 수녀(Sister Soledad Perpinan)에 의해 조직된 몇 개의 센터가 있다. 그녀는 수빅과 마닐라, 앙겔레스에 직업 훈련 프로그램과 드롭인(drop-in) 센터(심대의 젊은이들을 위한 레크레이션, 교육, 카운슬링 프로그램이 있는 센터—옮긴이), 쉼터 등을 세웠는데 이 시설들은 이전의 클라크 공군 기지에 인접해 있다. 센터들은 쉼터, 장기간의 생활 준비, 직업 재훈련, 재봉, 타이핑, 비누 만들기 등의 자립 자활 훈련을 제공한다. 솔 수녀(Sister Sol)가 최근 마닐라에 문을 연 새로운 센터를 방문했을 때 우리는 그 집의 스페인식 안뜰을 보게 되었는데, 그녀는 이곳에 양초 공장을 세울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다. 이런 작은 활동들 속에서 매춘 여성들은 매춘에서 벌던 것보다 많이 벌지는 못하더라도, 앞으로 그들 스스로의 자아를 갖게 될 것이란 것을 깨닫는다. 여성들이 가난한 시골을 떠나 새로운 공장 체제의 착취받는 노동자가 되고 결국에는 매춘으로 보다 많은 돈을 벌 때, 자각의

1) Brenda Soloria, Karla Sevilla, and Sarah Williams, "Happiness: What Price? The U.S. Navy at Subic Bay...and the 'Women's Response,'" pamphlet (Olongapo, Philippines: Ecumenical Action, 1989)

다루는 가장 비효율적인 방식입니다. 술집에서 떠나고자 하는 모든 여성들에게는 그곳을 떠날 수 없는 적어도 다섯 가지의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이런 자조적인 성 산업이 기대하는 것이며, 매춘 옹호 운동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이런 프로그램들이 주장을 두는 것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개인적인 힘을 증대시키는 것이다.

복지 혹은 사회적 지원은 어떤가? 많은 여성들은 "정부는 우리들에게 신경도 쓰지 않아요"라고 여러 차례 말했다. 올롱가포 지역이 산업 발전을 위해 재형성되는 동안 여성들은 미군 기지와 미군을 위해 존재했던 매매춘 지역의 용도 변경 계획 속에서 자신들이 거부되고 무시되고 비가시화되는 것을 경험한다. 다른 매매춘 지역에서처럼 남성 여행대들이 군인을 대신한다면, 여성들은 계속해서 성적 서비스에 정발될 것이다.

필리핀에 머무는 동안 술집 여성과 살기 위해 '술집에 요금을 내고' 여성을 데리고 나간 미군 병사를 아버지로 둔 아이들을 위해서는 식량과 집, 그리고 어떠한 복지 제도도 없다. 술집의 요금 체계에서, 미군은 술집 여성을 데리고 나가는 시간만큼 술집에 요금을 계산한다. 술집은 주별, 월별 등으로 할인 비율을 정한다. 이 제도는 인간의 삶을 성적 자산으로 변화시킨다. 술집에 돈을 내고 생활하는 남성들은 항상 이 여성을 여자친구로 취급한다. 이 여성들은 임신하고 아이를 낳는 경우가 많다.

내가 1993년 그곳을 방문했을 때 미군은 이미 철수한 후였다. 아무도 매춘이 불가피하다는 생각에 도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성들은 여전히 아이들의 아버지인 "남자친구"가 돌아올 것이라는 믿음에 매달려 있었다. 매매춘 안에서 성 착취의 불가피성은 결혼의 불가피함 그리고 여성 종속의 영속성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 미군 기지가 주둔한 이래로 여성들에게 미국인과 결혼하는 것은 가난에서 벗어나는 한 방식으로 여겨졌다. 하지만 미군에게 떠나간 여성들은 단순히 그들이 성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그곳에 있을 뿐이다. 우리는

단계에서 그들은 권리와 함께 그들 스스로가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런 활동들은 그들이 잃어버린 것이 무엇인지를 깨우쳐 주고 그들이 그것을 되찾을 수 있다는 것을 일깨워 준다. 이런 작은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보다 큰 활동들이 개발될 것이다. 필요한 작업은 벌써 계획되고 있다. 이 계획에서 부족한 요소 한 가지는 경제적 지원이다. 현재 매춘 여성들을 위한 경제적 지원은 몇몇 배포에만 집중되고 있는데, 이것은 필요한 것보다 너무도 배에춘을 계속 영속화시킨다. 매춘이 불가피한 것, 자연스러운 것, 여성의 선택이라고 여겨지지 않는 세상에서만이 여성들은 협동 산업과 같이 일을 만들어 내는 건전한 선택을 생각해 낼 수 있다.

그러나 점점 더 매춘을 단지 노동의 또 다른 형태라고 취급하는 것은, 노예제 역시 노예가 아닌 노예 주인과 노예 제도를 지지하는 체제에서는 노동이라고 여겨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당신은 결코 단 한 번이라도 그런 학대를 받을 만했던 적이 없다." 이 말은 오리건 주의 포틀랜드에 있는 매춘대안협회가 내세운 최초의 그리고 가장 일관된 메시지이다. 이 단체의 지도자인 수잔 헌터에 따르면, 첫 번째 단계는 "매춘을 재구성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여성들은 매춘의 문에 첫발을 들여놓을 때 너무나 학대에 관대한 나머지 스스로를 그것에 맞추기 때문이다."

매춘대안협회의 프로그램은 의식화에 기초를 두고 있다. 이것은 매춘을 재구성하기 위해, 여성들이 "그들 삶의 모든 측면을 새로운 시각에서 바라봐야 한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최소의 자원을 가지고 살아남기 위해 계속해서 투쟁하는 매춘대안협회의 상황은 부룸로드와 비교해 볼 때는 부유한 편이지만, 미국의 생활 수준에 비교해서는 열악한 편에 속한다. 매춘대안협회는 매춘을 떠난 여성들이 안전하게 살 수 있도록 제공할 수 있는 13-20세의 아파트를 갖고 있다. 이 아파트들은 대부분 부양 아동 원조 가금(Aid to Dependent Children)의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독신 매춘 여성들이 사용한다.

매춘대안협회는 자니가 있는 여성들이 복지 기관에 등록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들이 최초로 직면하는 문제 중 하나는 복지 기관에서 매춘을 폭력이나 학대가 아니라 직업의 하나로 대한다는 것이다. 만약 그들의 시도가 성공한다면, 복지 제도에서 이들에 대한 복지 수당의 지급을 삭감할 수도 있고 매춘에서의 수입을 근거로 연금 지급을 완전히 없앨 수도 있다.

필리핀의 필핀과 에델라의 목소리에 호응하여, 수잔 헌터는 "단순히 보다 많은 서비스가 이 여성들에게 제공된다면 그들은 떠나서 매춘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부룸로드가 여성들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사회 보장 자원에 의지할 수 없는 반면, 매춘대안협회는 이 단체의 프로그램에 완전히 몸이은 여성들에게 항상 그들을 다시 받아들기는 매춘의 세계와 단절하라고 주장할 수 있다. 매춘대안협회는 매춘의 안과 밖을 계속 오가는 여성들과 작업하는 동시에, 영구적으로 매춘을 떠날 준비가 된 여성들을 위해서 그들이 동의할 계약서를 작성한다.

> 나에게 정신적, 육체적 또는 성적으로 해를 끼칠 만한 어느 누구와도 접촉하지 않는다.
> 만약 내가 알코올이나 중독 문제가 있다면, 알코올이나 치료 프로그램에 참가한다.
> 나의 욕구를 충족시킬 만한 계획을 만들고 나의 개인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내가 세운 계획에 대한 약속을 철저히 지킨다.[4]

의식화는 여성들이 자신의 건강과 직업 생활과 사회 생활을 재구성하기 시작할 때 개인 상담과 집단 상담을 통해 계속된다.

4) Council for Prostitution Alternatives, Participation Agreement and Grievance Procedure, Portland, Oregon.

시난 2년 동안 매춘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들이 전세계에 확산되어 왔다. 브라질 북부에 있는 벨렘으로아와 매춘여성그룹(Women Prostitutes of Belem do Para) 대표인 마리아 로데스 바레토는 "우리는 여성들이 매춘부가 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 하지만 우리는 매춘을 하는 여성들이 자율성과 모든할 권리와 그들의 문제를 풀 권리와 그들이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단호하게 말한다.[3] 그녀는 현재 매춘 여성들의 시민권을 위해 싸우고 있다.

미국에서 매춘 여성들로부터 발전된 비판적 페미니스트 의식화는 에블리나 기요브가 'WHISPER라는 조직을 창립하였을 때 시작되었다. 'WHISPER는 현재 미네소타에 근거지를 두고 매매춘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과 매춘 여성들을 위한 지지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지난 십 년간 아동진 법률과 직업 재훈련을 통해 매춘 여성이 매춘을 떠날 수 있게 하는 프로젝트들이 미국에서는 새로운 것이지만, 세계 다른 지역에서 이 프로그램들은 보다 긴 역사를 가지고 있다. 프랑스에서 매춘 반대 행동 모임(Bloque d'Action Contre le Proxenetisme)과 동지(Le Nid) 그리고 희망(Le Cri)은 개별 여성에게 지원을 제공해 줄 뿐 아니라 매매춘이 인권을 심해한다는 전제하에 매매춘에 대항하는 운동적인 국제폐지주의연합(International Abolitionist Federation)의 대표로 적극적인 활동을 해왔다. 제3세계에서는 여성들이 매춘을 벗어날 수 있게 도와 주는 수백 개의 프로젝트들 중에서도 타이의 EMPOWER와 페루의 엘 포소(El Pozo)가 잘 알려져 있다. 1992년 여름 레누 레이반다리(Renu Rajbhandari) 박사는 네팔의 카투만두에서 전직 매춘부 여성들을 대나무 기능공으로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레누 박사가 조직한 여성재활센터(Women's Rehabilitation Centre)에서는 여성들에게 AIDS와 성병에 대한 교육을 시키는 동시에 그들이 스스로의 생활비를 벌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기술도 가르쳤다. 45일간의 훈련 후에, "그들 중 몇몇은 시커센사(Sikarteras)의 월급 수준으로 일하고 있고, 또 다른 몇몇은 훈련 센터에서 다른 여성들을 훈련시키고 있다."[5]

지난 십 년간 여성에게 행해지는 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남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남성들에 의한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비록 아직까지 남성이 여성을 사는 것을 실질적으로 막는 작업을 하는 양심적인 남성들을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한 행동을 위해 기초를 닦는 많은 프로그램들이 있다. EMERGE는 남성들에 의해 조직된 보스턴 지역의 상담 프로그램으로 여성주의 관점에서 남성의 여성 구타를 막기 위해 활동한다. Common Purpose는 주로 보스턴 지역의 아프리카계 미국인과 남미계 남성들과 함께 작업하는 상담 프로그램이다. 그들은 '안전한 행동 계획'(Safe Behavior plan)의 개발에 참여하고 있고, "구타자들에게 책임을 지도록 하기 위해" 사회 기관들과 함께 작업한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점을 둔 성 차별에 반대하는 남성들을 위한 전국 조직의 남성폭력근절특별위원회(Ending Men's Violence Task Group of the National Organization for Men Against Sexism)는 "친페미니스트(pro-feminist) 프로젝트들과 남성의 폭력을 근절시키기 위해 일하는 남성들과 함께 하는 개인들을 위한 활동가 네트워크"이다. 이들은 남성 구타자, 강간범, 포르노그라피를 사는 남성들을 대상으로 활동한다. 브루클린에 본부를 둔 포르노그라피를 반대하는 남성들(Men Against Pornography)은 "포르노그라피와 매매춘 옹호론을 반대하는 친페미니스트 시각을 가진 남성 활동"의 책임을 제기하여 왔다. 아오리 마츠이에 따르면, 일본의 일부 남성들은 일본인 남성들의 섹스 착취자 이미지, 특히 섹스 관광에서의 그러한 이미지에 반대하고 있다고 한다. 1989년 '아시아의 매매춘에 반대하는 남성 조직'(Men's Group Against Prostitution in Asia)은 남성들의 의식화를 위해

3) Maria Lourdes Barreto, "Everybody Stand Up, We Speak Up," in Women Wrecked and Wronged Gather, Penn Latin American Commission for the Defense of Women's Rights, 1993, p. 203.

5) Independent (Kathmandu, Nepal), September 2, 1992.

조직되었다. 이 단체는 회보를 발간하고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아시아의 매매춘과 일본인 남성"에 대한 슬라이드 쇼를 만들었다. 1991년 남성해방연구집단(Men's Lib Study Group)이 오사카에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남성의 섹슈얼리티와 매매춘을 다루는 데 관심을 두었다.[7]

이러한 남성들의 연대망은 지난 십 년간 발전하고 확장되었으며, 비록 작은 수지만 이 모임들에 참여하는 남성들은 여성에 대한 성 착취에서 남성들이 개인적 · 집단적으로 얻는 권력을 의식적으로 기꺼이 버리는 몇 안 되는 사람들이다.

심리 치료: 개인적 접근

페미니즘은 억압과 착취로부터, 폭력과 학대로부터 여성들을 위한 탈출과 출구와 대안을 주장하는 해방을 향한 여성들의 지속적인 운동이다. 25년 동안 페미니즘은 두 가지 상호 의존적인 프로젝트(변화를 지향하는 사회 행동에 대한 개인적/정치적 참여라는 의미에서), 즉 의식화와 안전 공간의 확보를 선도해 왔다. 의식화는 개인을 개별적 고립에서 밖으로 끌어내어 정치적으로 각성하도록 그리고 억압에 대해 분석할 수 있도록 이끌었다. 안전 공간은 위기 프로그램이나 쉼터, 그 밖에 여성들이 학대에서 피할 수 있거나 또는 단지 자기 자신일 수 있는 환경을 찾아, 자신이 누구이며 무엇을 원하는지를 탐구하고 가부장적 지배가 여성의 삶에 야기시켰던 고통이 한계점에 도달했을 때 의식화에 참여하도록 하는 집단 프로젝트의 형태를 취한다. 나아가 의식화와 안전 공간은 여성을 가장 직접적인 억압 경험의 뒤에 서 있을 수 있게 하고 자기 자신의 삶과 집단으로서의 여성을 위한 다른 가능성들을 개인적 · 집단적으로 고려할 수 있도록 하는 대안을 구축한다.

의식화와 안전 공간에 대한 여성주의 운동 프로젝트들은, 특별히 성 착취가 여성에게 미친 해악을 다루기 위해 개발된 심리 치료로 개별화되고 있다. 근친 장간 피해자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와 치료, 사회 행동은 매춘을 미나는 여성들에게 제공되는 의식화와 상담에서 보다 공식적이고 치료적이며 개별화된 접근이다. 이러한 이중의 여성주의 프로젝트는 쉽게 의식화에서 개인적 치료로 전락할 수 있고 사회 서비스가 억압의 조건에서 분리될 수 있다는 것을 서구 사회 여성들, 특히 개인주의를 강하게 강조하는 미국 사회의 여성들에게 경고하고 있다.

나아가 '중후군'의 증식과 다양한 12단계 프로그램들은, 비록 이것들이 비가시적이었던 상태에 이름을 붙이는 데는 효과적이기는 했지만, 그 변화가 가해자, 즉 여성의 성 착취를 영속시키는 개인들과 제도들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개별 피해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피해자 비난하기'의 경향을 보인다. 여성의 착취 경험을 중후군화하는 과정에서 피해자 비난하기는 궁극적으로 착취를 생물학적인 것으로 귀속시킨다. 의식화와 안전 공간이 탈정치화될 때, 그 목표와 효과는 여성의 자율성과 다른 여성들과의 연대를 발달시키는 것에서 여성의 기분을 나아지게 만드는 것으로 변질된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의 기분이 나아지기 시작함에 따라, 만약 거기에 자신의 경험에 대한 정치적 의식화의 개발이 없다면, 그들은 자신이 새롭게 발견한 분노를 다른 여성들에게 돌리게 된다. 이것이야말로 물정치적인 치료가 어떻게 성 식민지화에 의해 야기된 여성간의 분리를 영속화시키는지 보여준다.

주디스 허만(Judith Herman)은 페미니스트 의식화와 안전 공간 확보 작업에 토대를 둔 치료법 개발로 개인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의 연결을 유지시키고 있는 여성주의 심리학자이다. 허만의 작업은 개인적 치료가 성 정치 의식화에서 시부터 형성되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녀는 여성들이 "오랜 기간 동안 인격주의적 분석의 시대"에 출현하는 상황을 포함시키기 위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ost-traumatic stress disorder)라는 개념을 확장시켰다. 복합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그녀의 확인은 여성들이 결혼, 가족, 매춘에서 직면하고 있는 조건들에 이름을 붙인다.

여성주의 의식화는 허만에 의해 확인된 안전함, 기억과 애도, 재연결이라는 회복의 세 단계에서 분명해진다. 그녀의 작업은 다중 인격 장애가, 특히 그것이 근친 성 학대의 산물인 경우에 끼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뿐 아니라, 19세기의 히스테리 회복의 단계를 확인하는 데서부터 전쟁 충격에 대한 보다 최근의 작업, 그리고 복합적인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에 대한 집중으로 발전되었다.[8]

첫 단계, 안전함은 자신의 신체와 환경에 대한 통제를 획득하는 것과 자기 자신을 돌볼 수 있도록 나아가는 것을 포함한다. 이것은 안전한 곳을 되찾는 것을 의미한다. 두 번째 단계인 기억과 애도의 단계에서 "생존자는 상처에 대해 이야기한다. 그녀는 그 경험을 심도 깊고 세부적으로 완전하게 말한다. 재구성 작업은 충격적인 기억을 실제로 변화시키는데, 그럼으로써 이것은 생존자의 삶으로 통합될 수 있다."[9]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그것을 안전하고 위험이 없으며 지지받는 맥락의 언어로 진술 · 표현하는 것은 "충격적인 기억에 대한 비정상적인 과정 안에서 실제로 변화를 만들어 낼 수 있다."[10] 수많은 근친 성 학대의 피해자들에게 이것은 인간의 기억 속에 포함되지 않았던 것을 실제로 기억해 내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허만은 기억을 재구성하는 것이 단지 정신적인 활동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한다. "생존자는 사고의 훈련만으로 의미에 대한 의식을 재구성할 수 없습니다. 불의에 대한 치료는 역시 행동을 요구합니다. 생존자는 반드시 무엇을 해야할지 결정해야 합니다."[11]

허만의 세 번째 단계에서 "생존자는 그녀 자신의 세계를 다시 주장한다."[12] 근친 강간의 생존자에게 있어 이것은 가족 관계의 붕괴를 의미한다. 그녀는 새로운 관계를 개발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힘을 얻는 것을 배운다. 그녀의 욕구와 장의력이 활동하기 시작한다.[13] 그녀는 근친 성 학대나 다른 성 착취에 종속되었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배웠기 때문에, 더 이상 타인을 기쁘게 하기 위한 삶을 살지 않는다.

근친 성 학대에 대한 여성주의 연구와 치료는 성 착취가 여성에게 야기시키는 해로움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이것은 여성들이 성 착취의 피해자화가 자신들의 삶에 설정해 놓은 한계를 뛰어넘어 자율성을 획득하고, 실제 개인적인 욕망을 느끼고 진정한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구성하는 것을 배우도록 가능하게 한 선도적인 접근이다.

이제까지 우리가 근친 강간 피해자의 생존에서 배운 것을 통해, 우리는 그들과 매춘 여성의 유사성과 차이점이 무엇인지에 보다 분명하게 초점을 맞출 수 있게 되었다. 매매춘은 성 착취의 가부장적 모델이라는 전제하에서, 여기에서 살아남은 여성은 성 착취의 광범위한 해악을 폭로한다. 매춘을 떠나고 자신의 삶을 다시 세우기 시작하는 여성들에게, 사회는 매춘을 하였다고 그녀를 비난하거나 매춘을 노동으로 합법화시키려고 한다. 이런 환경에서 어떻게 그녀가 성 착취로 인한 충격을 충격으로서 직면할 수 있겠는가? 살아남기 위해서 그리고 치료에 참여하기 위해서 매춘 여성들은 사회가 인정하기를 거부해 온 방식으로 자신의 경험을 이해하는 것을 배워야 하며, 반드시 매매춘 그 자체가 학대라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 매춘대안협의회는 "장기간의 안정화와 여성들이 매매춘을 학대의 경험으로 재구조화하는 것을 배우는 재

7) Yayoi Masui, "Trafficking in Women and Prostitution in Japan," Japanese country paper prepared for the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4, 1993, p. 6.

8) Judith Herman, *Trauma and Recovery: The Aftermath of Violence from Domestic Abuse to Political Terror* (New York: Basic, 1992), p. 124.
9) *Ibid.*, p. 175.
10) *Ibid.*, p. 183.
11) *Ibid.*, p. 178.
12) *Ibid.*, p. 196.
13) *Ibid.*, p. 202.

교육, 그리고 그들의 치료와 회복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에게 끌어올 뒀다.[16] 매춘 여성에게 이것은 그녀의 모든 경험과 그녀가 매춘 세계에서 알던 모든 사람으로부터 그녀 자신을 완전히 떼어 놓는 것을 의미한다. 근친 장간 피해자가 아버지와 함어버지, 기타 친밀한 가족 구성원들과의 관계를 끊어야만 하는 것과 달리, 매춘 여성은 그녀가 다시 매춘으로 돌아가지 않을 새로운 삶을 추구한다면 사회 세계와의 모든 유대를 끊어야 한다. 더구나 아무런 수입원도 없이 매춘을 그만두는 여성은 매매춘이 불법인 곳에서 아마도 매춘 그 자체에 대한 형사상의 고소 또는/그리고 매매춘자의 관계에 대한 고소에 직면할 수도 있다. 매춘대안협회는 매춘 여성들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는 것은 주택과 지지 집단을 제공하는 것뿐 아니라 고소에 대해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 법원을 찾아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것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17] 매춘을 그만두려는 여성들은, 법관의 사회 복지사 앞에 서서, 자비를 최구하는 범죄자로서나 합법화를 추구하는 "노동자"로서가 아니라 정화(person)를 요구해야 한다.

심리 치료의 정치학은 무엇인가?

개인 내부에 대한 심리적 접근은 서구 사회의 개인주의적 가치와 경향을 반영한다. 페미니즘은 정치적 행동이 심원한 개인적 · 개별적 변화의 근원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밝혀 왔다. 여성주의 심리학자들은 내부에서 외부로, 개별적인 것에서 사회로, 개인적 변화에서 정치적 행동으로 접근한다.

여성주의 심리학의 입장에서, 사회 운동은 치료 과정의 최고 단계이며 개인적 · 소그룹 상담보다 성장한 것으로 여겨진다. "생존자들은 사회적 행동을 위한 포대로서 자신의 비극을 다룸으로써 개인적 비극의 의미를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라고 허먼은 지적한다. "사회 운동은

16) Ibid., p. 207.
17) Ibid., p. 215.

장간으로부터 스스로를 회복하도록 지원함으로써 많은 것을 일궈 낸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는, 경제적 교환에서 여성들의 성적 대상화를 합법화시키며 매춘을 여성의 선택으로 취급하는 바로 그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다. 여성주의 운동에서 낙관적이기란 전지구적인 매매춘과 포르노그라피의 정상화, 즉 집에서, 대학에서, 매춘업소에서, 거리에서 여성을 창녀로 취급하는 전세계적인 움직임을 계속해서 보아야 하는 어려움 이상이다. 매매춘의 전지구적인 정상화 속에서, 성 산업은 정부가 여성들이 매춘을 떠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지원을 거의 또는 전혀 제공하지 않는 개발도상국 여성들에게 가장 가혹한 영향을 미친다. 지구의 일부 지역에서 매매춘을 위한 거대한 여성 산업화를 볼 때, 변화는 오직 개인적 치료를 통해 일어나고 이것이 결국 사회 운동을 이끌 것이라는 가정은 변화의 가능성에 불필한 기운을 드리운다. 이러한 절망은 많은 프로그램들이 매춘 여성의 삶을 보다 쉽고 안전하게 만들려고 노력하기는 하지만, 성 산업이 너무나 거대하고 매매춘은 불가피하기 때문에 매춘을 하는 것밖고는 다른 대안이 없다는 신념을 가지고 있다는 한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할 수만 있다면 매춘을 떠날 수많은 매춘 여성들뿐 아니라 인권과 여성 권리의 옹호자들도 점점 더 매춘을 '성 노동' 또는 '성적 노동'이라고 부른다. '성 노동'은 매춘 그 자체가 정상적 · 합법적 활동으로서 수용되지 않는 한 매춘 여성이 결코 어떠한 존엄성도 획득하지 못할 것이라는 신념을 기반으로 하여, 매춘 정상화를 목적으로 도입된 새로운 용어이다. 이것은 또한 매춘을 하나의 노동으로서 추구하거나 성적 학대로서의 매춘에서 회복되기 위해 개인적 심리 치료를 찾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조건(서로 동일한 행동이 이렇게 다른 두 가지 의미를 모두 가질 수 있는 것처럼)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는 개인주의의 언어이다.

떠날 수만 있다면 매춘을 떠날 매춘 여성이 매춘을 '성 노동'이라고 지칭할

그녀 자신의 창의력과 힘, 자원의 풍부함을 끌어낼 수 있는 힘의 근원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이러한 자질들을 그녀 자신의 능력 이상으로 확대시킨다."[18] 이것은 성 착취로부터의 회복에서 나아가 다른 여성들을 돕기 위해 기획된 프로젝트의 활동가나 상담가가 된 많은 여성들에게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사회 운동, 즉 여성주의 정치 투쟁은 '나는 혼자가 아니라는 발견'에서 시작된 새로운 유대감을 지속시키면서, 개별 상담으로 시작한 개인 치료가 "복잡한 거울에 비춰보기 과정"으로 넘어가는데, 이 과정에서 "각 참여자들은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확장시킴으로써 다른 사람들이 주어야 하는 축복을 보다 잘 받아들일 수 있게 된다."[19] 사회학적으로 사회는 사회적 상호 작용을 통해 구성되는데, 이것의 의미는 인간으로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우리 자신을 구성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여성들이 그들의 삶을 재구성한다는 것이다. 외부에서 내부로, 사회에서 자아로의 사회학적 분석의 방향은 내가 제시하고 있는 여성주의 분석의 기초이다. 이것은 전지구적 페미니즘과 성 착취, 특히 매매춘에서 여성의 개인적 생존을 연결한다. 전지구적인 페미니즘이 사회 운동의 힘에 시작될 때, 여성들은 그들 자신의 성 착취 경험에 직면할 생각을 할 수 있는 용사에 궁극적으로 매매춘과 포르노그라피에서 성 착취의 제도화에 직면하는 것이 가능하다. 모든 것이 직접로 한꺼번에 되는 것은 아니다. 개별적인 심리 치료로 시작하는 것은 정치적 의식화와 사회 운동으로 이어지지 않는다.

급진적 개혁

여성들이게도 여성에게 개인적 치료를 가능하게 하고, 성적 학대 특히 군인

18) Council for Prostitution Alternatives' Annual Report, July 1990/June 1991, Portland, Oregon, p. 3.
19) Council for Prostitution Alternatives Handbook, Portland Oregon, p. 29.

때, 그 용어는 그들의 절망을 보여주는 지표가 된다. '성 노동'은 이 여성들이 매춘을 정리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착취를 정상화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어떤 방법으로도 매춘 여성들의 존엄성과 존중을 인식시키기가 불가능해 보이기 때문에 절망에서 탈출하기 위한 용어로 채택되고 있다. 많은 제3세계 국가에서 이러한 희망 없음과 절망은 그 국가의 서구에 대한 경제적 의존성 때문에 더욱 강화된다. 서구의 섹계모니는 여성들의 빈곤을 착취하면서 매춘을 장려한다. 서구 국가들이 제3세계 여성에게 돈돌 제공을 지원하는 것은 매매춘이 지속될 것이라는 전제 위에서 진행된다. 서구의 성 자유주의와 '성 노동'으로서의 매춘 합리화는, 여성들이 매춘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는 데 쓸 수 있는 기금을 오히려 여성을 매춘에 가둠으로써 매춘 여성의 성 착취를 더욱 악화시키는, 서구의 제3세계 매춘 여성 지원의 이데올로기적 맥락을 설명해 준다. 대조적으로 여성들이 자주 요청한다고 말해진, 여성들에게 보다 나은 노동을 제공해 줄 수 있는 프로젝트들은 매춘 여성에게 관심을 두지 않는다. 이런 프로젝트들은 여성들로 하여금 매춘에서 떠날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매춘 여성의 미래를 위해 투자하라고 정부에 요구할 수도 있다. 하지만 서구에서 나오는 기금들은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방식의 재원으로는 거의 지원되지 않고 있다. 따라서 매춘말고는 여성들이 가난에 대응할 어떤 대안도 없다는 절망은 이러한 지원 프로그램들에 의해 유지된다.

페미니즘은 매춘에서 개별 여성의 경험이 낳은, 그리고 거대한 성 산업화에 의해 부과되어 명백히 불가피해 보이는 매춘의 결과물인 여성들의 절망을 재구성한다. 이 새로운 여성주의 작업은 지난 십 년간 매춘 여성들이 그들 자신이 처한 상황에 직면해 왔기 때문에 가능해졌다. 그들은 새로운 희망의 목소리이고 새로운 운동의 근원이다. 그들은 매춘을 떠나고 삶을 재구성했을 뿐 아니라, 매춘에 대항하는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그 속에서의 경험을 폭로하고 매춘의 착취성에 맞섰으며 다른 여성들이 매춘을 떠나도록 도왔다.

1980년 프랑스의 그레노블에서는 4명의 매춘 여성들이 17명의 포주들로 이뤄진 갱단을 해체시키는 재판에서 용감하게 포주들과 맞섰으며 유리한 판결을 얻어 냈다. 많은 나라에서 여성의 프로젝트들은 매춘 여성들이 간절히 바라는 지원을 해줌으로써 여성들이 매춘을 떠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 미국에서 에플리나 기요브는 매매춘 그 자체는 반드시 소멸되어야 하고 그럴 수 있다는 확신 속에서 WITNESS를 창설했다. 성 산업을 반대하는 전지구적 여성주의 운동의 첫걸음은 여성들과 매춘부, 자아와 타자라는 가부장적 이분법을 여성들이 해체시키기 시작하는 것이다. 나아가 서구 여성들의 진정한 국제적 페미니스트 투쟁은 반드시 서구에서의 여성 착취와 제3세계에서 서구에 의한 여성의 성적 식민주의 메커니즘에 대응해야 한다. 서구는 매매춘을 통해 여성의 착취를 조장했을 뿐 아니라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데 싸이 탈 지원을 거의 남겨 놓지 않음으로써 그들의 지원을 악달한다. 매매춘은 불가피한 것이 아니며 성 착취는 관대히 여겨져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유기될 수 없다는, 확신은 급진적 개혁의 토대이다.

1970년대 후반 여성 운동이 매매춘에 대응을 시작하기 전에 나는 『여성 성 노예제』를 쓰면서 여성의 성적 노예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절한 법적 전략으로서 비범죄화를 제안했다. 매매춘이 범죄시되고 있는 조건하에서 경찰에 의한 여성들의 피해와 매매춘에서 여성을 노예화하고 있는 포주 행위에 관심을 가지면서, 나는 폐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그러나 관리주의자들처럼 매매춘을 조장하지 않는 맥락에서, 매춘 여성에게서 법을 떼어내는 것이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러나 그때 당시 매매춘의 비범죄화에 대한 나의 주장은 압력적으로 여성의 몸을 사는 남성들에 대한 비범죄화도 의미하였다. 비범죄화를 둘러싼 이 제안에서의 오류는 이것이 매춘 여성들뿐 아니라 매춘 구매자들, 단순히 구매자 이상인 성 착취의 직접적인 가해자들을 비범죄화하며 실질적으로 인가한다는 것이다.

1980년 유네스코가 소집한 한 회의에서 매매춘을 여성에 대한 성 착취의 모델로 상정하면서 나는 매춘 여성들이 비범죄화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구매자가 성 착취의 피해자로서 인식되어야 한다는 것을 제안했다. 구매자가 여성의 몸을 사는 것이 법적으로 확인되고 제재되고 벌금을 물고 공개적으로 노출될 때, 그들이 사는 섹스는 여성의 동의가 있건 없건 여성에 대한 폭력과 공격의 행위로서 간주될 것이다. 구매자를 처벌하는 것은 모든 매매춘을 범법적인 것으로 만들지만, 매춘부들을 범죄자로 만들지는 않는다. 이러한 접근은 금지주의자의 것도 폐지주의자의 것도 아니다. 이것은 매매춘을 여타의 여성에 대한 성 착취와 분리시키지 않는 여성주의적인 인권에 대한 접근이다.

필요한 법적 변화를 확인하는 것은 새로운 여성주의 기준 설정을 가능하게 하지만, 그 착취의 경험들과 재판적 현실을 바꾸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사실상 구매자들을 처벌하는 법을 제정하게 되면 즉각적으로 매춘 여성들의 수입은 감소하거나 소멸된다. 매춘 여성들이 자신의 삶을 바꾸기 시작했을 때 사회 복지 지원을 받거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직업을 구할 가능성이 있는 서구에서 여성들의 매춘 수입이 막히는 것은, 사회 복지나 사회적으로 아무런 지원이 없는 국가들에서 매춘 여성의 수입이 감소되는 것과 매우 다른 의미를 갖는다. 끔찍하게 가혹한 빈곤의 여성화 속에서 매춘은 많은 여성들에게 유일한 소득원일 것이다. 이 말은 곧 매춘 여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경제 개발 프로그램과 지원 서비스가 반드시 경제적 대안 전략과 지원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절망적인 상황에 대안을 제공한다는 것이 그들을 범죄으로 정당화한다는 것은 아니다. 게다가 매매춘이 여성에게 폭력적이고 해를 끼친다는 인식을 기반으로 구매자들을 범죄화하는 법적 제안은 반드시 사회적 서비스, 건강과 상담, 직업 재훈련 프로그램을 포함시키는 방식으로 개발되어야 한다. 만약 구매자들이 범죄자가 되면 국가는 매춘업소들을 폐쇄할 것이고, 이점에 매매춘 근절을 위한 이 계획은 매춘 여성들의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매춘 여성들의 미래와 복지에 대한 책임을 사회주의 정부에 부여한다. 1994년 초에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 관계 정상화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돈이 부어지면 경제적 재원들은 여성들을 위한 일자리 창출로 향할 것이다. 해방된 미래에 대한 상상은 그것을 주장하고자 하는 의지를 불러일으킨다.

너무 이상적이라고? 너무 비현실적이라고?

1993년 1월 29일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 정부는 "매매춘의 비참한 사회적 결과와 해로운 영향력"을 인식하여 매매춘을 정부가 가장 먼저 다루어야 할 10가지 우선 과제 중 하나로 지정하면서, 베트남에서의 매매춘 금지와 예방 결의안 30Decision 5 on the Prevention and Restriction of Prostitution in Vietnam)을 발표하였다.[10]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시작한다. "매매춘은 그 형태가 어떠하든지 근절될 수 있고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 프로그램은 젊은이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기 위해 언론과 방송 매체를 이용한 교육 캠페인을 포함하고 있다.(이것은 미국의 마약 반대 언론 캠페인이나 스웨덴의 알코 프로젝트에서 매매춘을 다루면서 성공적으로 언론 캠페인을 사용한 것과 같다.) 기금이 포주들과 단신 매매범, 그리고 "모든 종류의 매춘업소 주인들"을 처벌하는 프로그램들을 지원하는 데 쓰일 뿐 아니라, 정부는 특별히 "공무원들 중에서 매춘 여성을 상대한 남성은 반드시 처벌하고 그들의 이름을 관련 당국에 알리며 언론 매체에 신문을 공표하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매춘 여성을 구매하는 어느 누구라도 지역 당국에 보고될 것이다.

매춘 여성을 지원하기 위한 베트남식의 수단은 이제까지 정부 기관에 의해 검토되어 왔던 어떤 것보다도 획기적이었다. 매매춘 소멸 전략은 베트남 전쟁 후, 그리고 1994년에서야 비로소 해제된 미국의 통상 금지 조치가 시작된 지 19년간 매우 극심한 가난의 한가운데서 개척되었다. 1980년대 후반까지 이러한 전략은 소비에트 영향권 내의 나라들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명성을 얻었는데, 이로 인해 베트남의 경제 발전은 심각하게 손상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음과 같은 프로그램을 시작하고 있다.

> 거리의 정상적인 생활을 이끌고자 원하는 매춘부들은 새로운 시작을 위해 국가로부터 일정한 돈을 받게 될 것이다. 어떤 기업이라도(민간이거나 공공 기업이거나) 매춘부들에게 고용을 제안하는 기업들은 모든 구체적 사례마다 그에 맞는 기금을 할당받을 것이다. 생산적인 노동을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개혁 센터에는 신용 대부금을 줄 수 있다.

나아가 성병에 감염된 매춘부들은 그들이 완전히 회복될 때까지 음식과 숙소와 의료 서비스를 제공받을 것이다. 그리고 "생필품이 부족한 가난한 가족 출신의 매춘부들을 위해 3개월 동안 생계 보조금을 제공할 수 있다."[11]

베트남은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에서조차 모든 여성이 가난 때문에 매춘을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따라서 이 새로운 법은 졸업 후 여성들에게 유용한 '재교육'과 같은 종류의 프로그램을 제공할 것이다. 정부의 금지나 매춘을 떠날 수 있도록 제공되는 지원과 각종 지원에도 불구하고 매춘에 남아 있는 여성들은 "최소 6개월 동안 특별 개혁 센터에 수감된다."

매매춘에 대한 사회주의적 접근과 함께 젠더 이슈들에 대한 여성들의 의식화는 직접적으로 이 새로운 사회적 정책 개발을 이끌었다.[12] 매매춘 근절을 위한 이 계획은 매춘 여성들의 피해 결과에 대한 책임을 여성들에게 부과하지 않고, 매춘 여성들의 미래와 복지에 대한 책임을 사회주의 정부에 부여한다. 1994년 초에 미국과 베트남 사이의 경제 관계 정상화는 베트남의 경제 성장을

---

10) 1993년 1월 내가 베트남 여성들과 함께 조직한 작업 세미나에서, 나는 결의안 3의 일부 기초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유엔 성 착취 반대 협약(UN Convention Against Sexual Exploitation)의 내용을 발표하였다.

11) Le Thi Quy, "Social Policy on Prevention and Restriction of Prostitution in Vietnam," Vietnamese country paper prepared for Coalition Against the Trafficking in Women-Asia Conference, Manila, Philippines, April 2–6, 1994, pp. 5–6.

12) A Swedish seminar in Hanoi introduced gender theory in 1991. Press Issue Seminar on Women and the Family, 1993.

악화하였지만, 이와 함께 매매춘도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베트남 정부는 '결의안 5'를 이행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하였고, 매춘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교육과 훈련 센터를 개설하였다. '매매춘을 근절시키기 위한' 적극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은, 만약 매춘을 떠나는 여성들을 지원하기 위한 자원 마련이 매매춘을 조장하는 구매자들과 성 산업에 대한 처벌과 함께 이루어진다면, 산업화 속에서 여성을 상품화하는 경향을 바꿀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직면하여 매춘 여성들에 대한 혁신적 보호책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어느 곳에서도 꿈꾸지 못했던 최초의 진보를 이룬 것이다.

유엔: 여성 인권의 가능성?

전지구적인 여성 성 착취에 맞서기 위해 나는 "인류의 양심에 어긋나는 야만적 행위로 여겨지는 인권에 대한 멸시"를 비난한 세계인권장전(Universal Bill of Human Rights)에 관심을 두었는데, 이것은 성 착취가 인권에 대한 모욕이며 야만적인 행위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요구하기 위해서이다. 인권이라는 도구는 "모두가 인간의 가장 고귀한 염원"이라고 여기는 "인간이 표현과 신념의 자유를 누리고, 공포와 빈곤에서 벗어날 수 있는 세계의 도래"라는 유토피아적 전망에 기초를 둔다. 인권의 철학은 인간을 파괴하는 어떠한 행위, 인간의 상황을 비인간적으로 만드는 어떠한 것도 야만적 행위로 여긴다는 점에서 급진적 페미니스트의 도덕적 분노와 잘 어울린다.

정의와 평등에 대한 기계적인 고수를 넘어서, 유엔 협약(UN convention)에 표현되어 있는 인권 철학은 인간과 인간을 둘러싼 조건 두 가지 모두의 비인간화에 반대하는 도덕적 분노를 표현한다. 이것은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해지는 폭력뿐 아니라 인류에 대한 억압도 포함한다. 마르크스주의 학자들은 인권을 자본주의의 개인주의 이데올로기라고 비판해 왔다. 인권이 자유주의적 개인주의의 틀 안에서, 특히 미국과 같은 나라에서 협소하게 해석되고 배타적으로 적용되어 온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인권은 식민주의, 인종 차별주의 이데올로기 그리고 전체주의 정권 내에서 희생당하는 사람들이 저항을 드러내고 대항하는 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인권을 자각하고 보호하는 목적은 존엄성과 자유 속에서 풍부하고 완전한 삶의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다."[31] "인권은 인간 삶의 법적 표현이다."[32]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제1조는 "모든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자유롭고 존엄성과 권리에 있어서 평등하다"고 단언한다. 인권선언은 노예제를 금지하면서 동시에 "어떤 인간도 고문을 당하거나, 잔인하고 비인간적이고 모욕적인 대우나 처벌을 받아서는 안 된다"(5조)라고 규정하여 좀더 적극적으로 인권을 보호하고 있다.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회 구조와 제도적 현실, 계급적 조건과 분리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인식 속에, 인권은 집단적 조건과 개인의 비분리성을 주장한다. 그러므로 인권은 인간 존재와 인간의 사회적 조건 모두에서 양도할 수 없는 것이다. 유엔헌장(Charter of the United Nations)에서 "인간은 존엄성과 가치를 지닌 존재이기에 남성과 여성, 큰 국가와 작은 국가는 모두 평등하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인권에 대한 책임은 개인과 국가 양쪽 모두에 있다.[33] 인권은 모든 인간에게서 떼어낼 수 없는 것이며, 특정 계급이나 집단, 타인을 지배하는 국가 권력에 특권이 주어져서는 안 된다. 더욱이 인권은 인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있는 것으로 다른 정당화가 필요하지 않다. 다른 어떤 집단보다도 여성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고 있으며 인권을 보장받기 위해 실질

31) Hanna Gros Espiell, "Human Rights and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Bulletin of Human Rights* 91, no. 1 (New York: United Nations, 1992), p. 16.
32) Ibid.
33) Erica-Irene Daes, "Freedom of the Individual under Law: An Analysis of Article 29 of the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 (New York: United Nations, 1993), p. 3.

적인 장애물을 넘어야 한다는 사실은, 가부장제 안에서 다음과 같은 질문을 던지게 한다. "여성은 인간인가?"

페미니즘과 여성의 권리를 존엄성에 응용하여, 인권의 보편성은 여성의 억압이라는 공통 역사를 기반으로 한 전지구적인 페미니스트 투쟁의 토대가 된다. 인권이 분리될 수도 양도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간 존엄성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인식은, 성 착취가 평등권의 위반과는 다르고 평등권 외부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로 취급될 때 파괴되는 법적 평등에 대한 투쟁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한다.

가부장적 억압, 특히 성 착취가 자매의 일반적 조건일 때 페미니즘과 인권은 아주 이상적으로 잘 어울린다. 페미니즘의 실제에 기반한 여성을 위한 국제적 인권과 여성의 해방을 위한 전지구적인 운동은 국경과 계급과 인종과 민족을 뛰어넘는 여성 상황의 공통성 위에 세워진다. 페미니즘은 아직까지 여성이 그들의 개인성이나 인종, 문화에 따라 다양하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여성을 각각의 일반화된 존재로 환원하는 것을 거부하고, 자신의 몸에 대한 여성들의 통제권을 주장하면서 개인의 양도 불가능성을 지지한다. 인권의 보편성은 성 착취에서 개별 남성이 얻는 권력은 오로지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여성을 성적으로 이용하면서 이득과 출세를 취하는 계급적 조건 때문에 가능하다는 인식을 하게 하는 잠재력을 지니고 있다. 페미니스트들이 입증하는 것처럼, 만약 집단으로서의 남성이 여성 개인과 집단에게 성 착취를 하지 않는다면 성 착취는 여성 개인에게는 해롭고 파괴적일 테지만 계급으로서의 여성을 종속시킬 수는 없을 것이다.

페미니스트가 주장하는 새로운 인권

나의 작업은 급진적 페미니즘 정치학과 인권의 기본적 원칙들을 결합시키는 것에 초점을 맞춰 왔는데, 이것은 전지구적으로 거대한 매매춘의 확산, 특히 여성 매매의 국적인 증가에 대항하고 이러한 성 착취가 매매춘과 포르노그라피의 합법화를 조장하는 성 산업에 의해 영속된다는 사실을 알려내기 위해서이다.

1991년 여성매매반대연맹(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유엔 경제사회이사회의 자문을 맡고 있는 민간 기구)의 대표로서, 나는 유네스코의 파실라 탐잘리와의 협력 아래 펜실베이니아 주립대학에서 1949년의 인신 매매와 매매춘에서 타인에 대한 착취 근절 협약을 분석하고 전지구적인 성 착취의 현대적 내용을 고려해 보기 위한 운동 단체 회의를 소집하였다. 이 운동 단체는 전세계적인 성 착취가 매매춘, 포르노그라피, 모든 형태의 성적 학대와 폭력 안에서 이뤄지는 여성 인권 침해의 토대가 된다고 결론지었다. 이 회의로부터 국제 인권 문서인 성 착취 반대 협약이 발전되었다.

이 회의에 이어서, 여성매매반대연맹과 유네스코는 새로운 인권 문서를 개발하고 이것을 성 착취에 반대하는 새로운 협약으로 공표하도록 유엔 상임 이사국(the Secretary General of the United Nations)에 제안하기 위해 일련의 회의들을 후원하였다(전문은 부록 참조). 여성매매반대연맹에서 도로젤 라이프홀프와 함께 활동하면서, 우리는 문서를 정교히 다듬기 위한 상담, 정보 수집, 추천, 교정을 위해 풀뿌리 여성 운동에 눈을 돌렸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협약이 각 지역 여성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었다.

펜실베이니아 회의에서 형성된 "새로운 협약의 내용"에서 성 착취가 인간 존엄성의 침해로 간주됨에 따라, "모든 형태의 성 착취로부터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인 권리이다."[34] 또한 펜실베이니아 회의에서 우리는 성 착취를 "특정인(들)에 다른 사람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평등, 자율성, 정신적 · 육

34) *Penn State Report, International Meeting of Experts on Sexual Exploitation, Violence, and Prostitution* (Penn College, Pennsylvania, April 1992), Report published by UNESCO and the Coalition against Trafficking in Women, p. 7.

의의 복지를 파기하는 성적 학대를 통해 성적 만족이나 경제적 이익, 그리고 출세를 얻는 행위"로 규정하였다.[7] 영국 버밍검 대학의 수잔 에드워드(Susan Edwards) 교수에 의해 구성된 이 개념은, 성적 권리의 포대를 경제적 이익처럼 명확하게 물질적이고 성적 만족처럼 구체적인 이득이라고 규정한다. 이 협약은 "어떤 여성에 대한 성 착취라도 이것은 모든 여성에 대한 성적 비하"이며, 성 착취가 여성에게서 이동의 자유를 박탈하고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여 성적 테러리즘의 조건을 발생시킨다고 선언하면서 계급 조건이자 개인적 폭력으로 다룬다. 이처럼 성 착취는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대우를 야기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평등권을 침해한다.

몇 달에 걸친 수차례의 회의를 통해 이 협약은 발전되었고, 아시아, 라틴아메리카, 유럽, 북아메리카 여성 단체를 비롯한 여성주의 프로젝트와 유엔 인간 기구의 협의를 통해 정교화되었다. 전세계 풀뿌리 페미니즘의 성과로서, 이 협약은 성 착취가 어떤 식으로 현존하는 불평등의 피해를 악화시키며 때로 성적 노예제나 고문, 절단, 죽음의 형태를 띠게 되는지 밝히기 위해 구성되었다. 제안된 협약은 성 착취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당하는 아내/파루 살해, 여성 구타, 포르노그라피, 매매춘, 생식기 절단, 여성 폐기, 지참금, 신부값, 성희롱, 강간, 성 학대, 고문을 비롯한 각종 가학적 · 폭손의 행위와 여아 살해, 여성 살인을 통해 생명을 부정하는 형태를 띤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다. 따라서 협약은 모든 성 착취의 가해자들을 처벌하고 민 · 형사상, 노동법과 행정상의 승인을 통해 잘못 처리된 피해자의 상황을 처리하기 위해 정부 당국의 참여를 요청한다. 성 착취를 규정하는 데 있어서 정부는 그것이 악화된 상황이며 가해자가 남편, 아버지, 다른 친척 또는 피해자의 고용주라고 해서 성 착취에 대한 변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만 한다.

제안된 협약은 매매춘이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 가치에 위배된다"고 밝힌 1949년 유엔협약의 국제인권법에 기초한다. 세계인권선언에 따르면(제30조), "이 선언의 어떤 조항도, 특정 국가, 집단 또는 개인이 이 선언에서 규정한 어떠한 권리와 자유라도 파괴하려는 목적을 지닌 활동에 종사하거나 또는 그와 같은 행위를 행할 수 있는 그 어떠한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도 해석되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매춘부를 위한 권리'도 없다.

제안된 협약은 매매춘을 합법화한다는 이유로 '자유' 매매춘과 '강제된' 매매춘의 구분을 거부함으로써, 매매춘이라는 행위를 매춘업소, 군대 매춘, 포르노그라피, 섹스 관광, 우편 주문 신부 시장뿐 아니라 일상적이거나 '임시적인' 경우를 비롯하여 항상 돈을 위한 것은 아니더라도 여성의 몸을 사고 팔고 교환되는 상품으로서 사용하는 행위로 인식한다. 협약은 매춘 여성을 어떠한 형태로도 처벌하는 것은 반대하지만, 구매자들은 범죄를 저지른 가해자로 취급하여 처벌하도록 정부들에 요청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남자나 여자, 어른이나 아이, 소위 제1세계와 제3세계의 어떤 매춘이라도 합법화시키는 법과 정책, 그리고 자유 매매춘과 강제 매매춘을 구분하고 매매춘을 하나의 직업으로 관리하거나 인정하는 법과 정책을 거부하는 데 동의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포르노그라피 산업이 성 착취에 대한 요구를 조장하고 확대시키며, 사실상 직접적으로 개입되어 있다는 인식 속에, 정부는 포르노그라피의 제작자와 배급자를 처리할 규제법을 제정하라는 요구를 받는다.

전지구적인 매매춘 산업화는 성 차별적인 경제 발전 정책의 결과이자 몇몇 지역의 비공식적 경제 발전의 기초이다. 협약은 이제까지 존재해 온 여성들의 전통적 경제 기반을 침식시키면서 여성을 성 착취 상황으로 끌어넣는 경제 개발 정책과 관습들을 거부하라고 정부들에 요청한다. 정부의 경제 발전 정책은, 성 착취 목적 매매춘을 통해 경제적 발전 기회를 박탈당해 왔던 여성들을 비참할 만큼 낮은 수준의 임금 노동에 포함시킴으로써 여성들의 풍부한 경제 발전을 위해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정부는 섹스 관광을 금지시켜야 하고, 관광객의 나라와 섹스 관광이 이뤄지는 나라 모두에서 섹스 관광을 조직하는 중개인, 소개인, 포주 모두를 처벌해야 한다.

더 나아가 우편 주문으로 외국에 여성을 결혼시키는 사업(우편 주문 신부 매매)과 관련되었거나 거기에서 이익을 얻고 그것을 조장하는 개인과 기업을 금지해야 한다. 군 기지 안과 그 주변의 매매춘에서 성 착취를 방지하기 위해 군속들은 기지촌 여성들과 아이들의 매매춘에 개입하는 것이 금지될 것이다. 피난민 캠프에서 일어나는 여성과 아이들에 대한 성 착취를 막기 위해 특별 감시단이 선정될 것이고, 민족간 전쟁, 내란, 외국의 침입 등을 포함한 전시 성 착취로부터 여성들을 보호하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특별 계획이 고안될 것이다.

이민 과정에는 가사 노동이나 항락업처럼 특정한 형태의 직업들이 있는데, 이 직업들은 성 착취에 어버지하고 여성들을 매춘으로 이끈다. 조약은 정부 당국에 매매춘과 인신 매매 피해자들에게 피난처와 보호를 제공하고, 본국 송환을 원하는 여성들을 송환하기 위해 모든 적절한 수단을 제공할 것을 요구할 것이다. 이민 과정에서 여성을 성적으로 착취한 고용주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성 착취에 종속된 여성들은 대부분 탈출해도 돌아갈 집이 없거나 무국적 상태이다. 그들은 가부장제의 '망명자들'로서 남편에 의해서도 매춘업소에 의해서도 통제받지 않으며 집도 국적도 없는 사람들로, 그들의 인권은 그들이 팔려간 나라에서 인정되지 않는다. 협약하에서는, 도피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국가에 합법적으로 들어갔건 불법적으로 들어갔건 모두 성 착취의 피해자로 취급되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법적으로 확실하게 문서화된 계약서로 계약을 맺도록 보장하고 이 계약 조항들을 검토해야 한다. 제안된 협약에 따르면, 정부는 여성들이 매춘으로 팔리거나 타인에 의해 성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막는 데 도움이 되는 여행 서류들과 자신의 여권을 지닌 모든 여성들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성 착취가 여성들의 신체적 · 정신적 건강과 복지를 해치는 중대한 여성 건강 문제라는 인식 속에서, 협약의 적용을 받는 국가들은 특화된 건강 서비스를 제공하리라고 기대하며, 자발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매춘 대안 생활에 대한 기금 지원, STDs와 HIV 등 성병 검진과 치료 제공, 마약 남용 재활 센터, 상담, 탁아 시설, 주택, 경제적 지원, 소규모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유효적인 신용 대출, 기술 훈련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리라고 기대한다. 여성들이 착취의 경험이 있는 여성들과 함께 새로운 대안 제공을 위해 일하고 있는 쉼터 등에 대한 지원이 매매춘을 포함한 성 착취 피해자들에 대한 서비스 마련을 위해 제공될 것이다.

유엔에 의해 어떤 협약이 채택될 때, 각 국가들은 그 비준을 권고받는다. 비준에는 앞으로 그들이 자국 내의 모든 법과 관행에서 이 협약을 준수할 것이라는 전제가 따른다. 이 협약을 이행하기 위해 유엔은 성 착취 반대 위원회를 설치할 것인데, 이 위원회는 위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체계적인 성 착취에 대해 확실히 보고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조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필요법상으로 해결하기 위해 관련 국가에 제시할 수 있는 권위를 부여받을 것이다. 위원회는 성 착취 피해자로부터 개별적인 불만 사항들을 접수 · 검토하여 관련 국가의 주목을 끌어낼 것이다. 해당 국가는 6개월 안에 제기된 질문에 답해야 한다.

여성은 인간인가?

협약은 국제 조약이다. 이번에 제안된 성 착취 반대 협약은 명백하게 여성의 권리를 다룬 최초의 유엔 협약이 아니다. 여성의 정치적 권리에 관한 협약(The Convention on the Political Rights of Women)이 1952년에 채택되었고, 그 이전에

매매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prostitution, 1949)이 채택되었다. 이를 이후에도 몇몇 협약들이 제정되었고, 결혼에서의 여성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공식적인 유엔 선언문(1957)과 전쟁에서 여성과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한 선언문(1974)이 뒤따랐다.

나아가 1960년대 중반의 국제 조약들은 유럽의 식민지로부터 해방을 위해 투쟁하는 제3세계의 투쟁에 대한 응답으로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자기 결정권을 향한 인간 권리 증진 규약(Advance the right of people to self-determination in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1966)과 시민적 · 정치적 권리 규약(Civil and Political Rights, 1966)이 공표되었다. 이 두 규약은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여타의 신념, 국가 또는 사회적 출신이나 재산, 출생이나 기타 지위에 관계없이" 여성들이 명백하게 강압적 위치에 있는 한에서 여성의 권리를 인식한다.

여성들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성문화된 권리에 여성을 첨가하는 것이, 곧 여성들이 실질적으로 이 권리로 보호받고 장려받는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다. 여성의 권리를 성문화시키려는 길고도 힘들었지만 대부분 유엔에 의해 무시되었던 역사와 함께 이러한 현실 때문에, 우리 중 많은 이들이 1979년에 채택되고 유엔 회원국들에 의해 비준되어 1980년부터 발효된 여성에 대한 모든 형태의 차별 철폐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the Elimination of All Forms of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CEDAW)에 그토록 많은 희망을 걸었던 것이다.

하지만 범죄이 간혹 여성들을 향해 돌아설 때는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 있다. 이러한 상실의 첫 번째 증거를 여성에 대한 폭력에 저항하는 도덕적 분노의 절여에서 볼 수 있다. 여성 몸의 오랜 성적 식민화와 성 자유주의자들에 의한 이민화의 옹호, 성 산업에 의한 그 제도화의 결과로 많은 여성들이 성적 비인간화에 대해 우리의 권리인 분노를 거의 느끼지 않게 되었다. 유엔이 여성들에게 시선을 돌릴 때, 인권에 대한 강조는 협소해지고 인권의 수행은 어이없이 끝나버리는 것처럼 보인다. 인권 수행의 맥락에서 CEDAW는 모든 형태의 인종 차별 폐지를 다루는 강력한 국제 협약에 필적할 만한 것이 못 되는데, 인종 차별을 다루는 협약은 "인종적 장벽의 존재는 이상적인 인간 사회상에 모순"되며, 따라서 "인종 차별에 기반한 어떠한 정책의 우월성도 사회적으로 부당하고 위험하며, 도덕적으로 비난받아야 하고, 과학적으로 거짓이기 때문에 이론적으로나 실제로나 어느 곳에서도 인종 차별은 정당화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와 대조적으로 성 차별주의는 "성에 기반한 구분, 배제, 제한을 의미하는 여성에 대한 차별"일 뿐이다(제1조) 억압에 대항하는 여러의 투쟁들에서 찾아볼 수 있는 몰의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없는 이유는 성 차별주의가 억압이 아니라 불평등의 조건 중 하나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이다. 더욱 불투하고 미묘하고 깊이 있는 인권의 의미는, 재조정이 필요한 법적 차별이나 기계적인 불평등으로 축소된다. 분리된 사람들에 대한 집단적 차별의 벽하이 제거될 때, 여성의 상황이나 착취에 대한 도덕적 분노는 가려졌고 개인적인 폭력의 문제로 축소된다. 이것은 여성에 대한 착취가 "성에 기반한 어떤 구분, 배제, 제한"에 관한 기계적 평등의 문제로 복귀하는 것이다. 범위를 넓혀 인권의 일반적 "인간"에서 거의 사라질 뻔했던 여성들을 위해 희미 있는 무엇인가를 얻는다 하더라도, 이 협약은 인권의 풍부한 의미를 실질적으로 달성하는 지점에는 이르지 못할 것이다. 놀라울 것도 없지만, 유엔에서 '여성의 권리'는 '인권'과는 다른 위치 속에서 전혀 별개의 내용을 가진 동떨어진 영역으로 다뤄진다.

성폭력과 성 착취를 주된 이슈로 제기했던 세계 여성 운동의 흐름 속에 채택된 CEDAW에서 여성들이 얻은 것은, 이 협약이 성 착취와 관련하여 여성들에 대한 폭력을 다루거나 포함시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또한 이 협약은, 1890년에 공포되었다면 유용했겠지만 1980년대에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는 성 산업과 매매춘의 정상화에는 더 이상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1949년 매매

춘에 대한 협약을 단순히 계획인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은 새롭고 잠재적으로 중요한 1990년대의 작업인 유엔의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선언(U.N. Declaration on the Elimination of Violence Against Women)을 이끌었는데, 이 선언은 CEDAW의 제한적인 범위가 확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선언은 여성에 대한 폭력의 정의를 "여성에게 신체적 · 성적 또는 정신적 해를 주거나 고통을 낳는, 또는 이와 유사한 결과를 낳는 어떠한 행위"도 포함하여 넓게 규정하고 있다(제1조) 하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은 가부장제 억압의 맥락에서 발생하며, 성폭력은 넓은 의미에서 성 착취의 한 영역이다. 이 새로운 선언에 대한 글과 보도 중에는 남성 권력과 여성 종속에 관한 급진적인 선언이 있지만, 이것을 공식적 유엔 선언문에 포함시킬 방도는 찾지 못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점은 포르노그라피와 매매춘이 포함된 광범위한 성 착취 개념이 누락되었다는 것이다. 수천이 아니라 수백만 여성들이 전생애에 걸쳐 매일 매순간 성 착취에 종속되고 있지만, 여성들이 감사해하는 여성에 대한 폭력 반대 선언에서는 배제되어 있다. 이 선언의 초고를 승인한 유엔 여성지위위원회의 모비 활동, 특히 네덜란드정부 대표단의 강도 높은 모비 활동은 매매춘과 포르노그라피를 성 착취의 형태로 삼입하는 것을 방해했고, 심지어 후에 이것이 비정부 기구 단체에 의해 제출되었을 때도 방해하였다.

이 누락은 실수가 아니었다. 이 선언은 새로운 성 착취 반대 협약의 내용이 만들어진 이후에 초안된 것으로, 유엔 인권 비정부 기구(Human Rights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에 소개되어 1993년 6월 빈에서 열릴 예정이던 세계 인권 회의에서 검토하기 위해 제네바 유엔 인권센터로 미리 보내져 1991년 유네스코와 연합으로 출판되었던 것이다. 몇 달 후 콴살롸이나아 주에서 열린 전문가 회의에서 성 착취 반대 협약의 내용이 발표된 후에, 여성에 대한 폭력 근절 선언의 초안 작성을 위한 모임이 빈에서 열렸다. 유엔 여성발전국(U.N.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이 개최한 것이기 때문에, 제안된 성 착취 반대 협약이 논의된 초기에는 유네스코 대표단도 비정부 기구 단체들도 개입하지 않았다. 있을 것 같지 않은 일수의 가능성을 고려하면서, 빈 회의 직후에 나는 제안되었던 협약과 선언문 초안에서 발생한 누락의 문제를 다루기 위해 빈 회의에 참여했던 몇 명의 여성 인권 단체들과 인권 기구 담당자들을 만났다. 어떤 사람은 매매춘은 인권과 무관한 것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사람은 매매춘이 여성 착취의 기본 토대라는 것은 인정하지만 "우리는 그걸 건드릴 수가 없어요."라고 말했다.

매매춘과 성 착취의 정상화가 인권 침해라는 것이 잊혀진 것은 유엔 내에서 비단 여성발전국만의 문제가 아니다. 세계보건기구(WHO)에서는 이미 이 기구의 매매춘과 에이즈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매매춘 옹호론자들의 로비 활동으로 인해 친매매춘 정책이 수립되고 있고, 이러한 세계보건기구의 정책이 매매춘에서의 에이즈 문제를 폰듬의 배급을 통해서만 다룸으로써 결과적으로 매매춘을 장려하고 있는 현실은 놀라운 일도 아니다. 새로운 유럽공동체를 위해 1991년 열린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에서는 네덜란드의 매매춘 옹호 정책에 호의적으로 제기된 안건을 다루는 세미나가 열렸다.

유엔의 이러한 역사와 여성 인권에 대한 유엔의 관심은 유엔 세계 인권 회의와의 관련성에 대한 재고 없이는 불완전하다. 계획의 초기 단계에서 인권센터는 1993년 세계 회의에 비정부 기구가 참여하는 데 대해서 생각조차 하지 않았다. 인권센터가 최종적으로 비정부 기구 단체들과 인권 변호사들에게 세계 회의의 참가를 허가하였을 때, 비정부 기구 활동가들이 세계 인권 회의의 결과물을 결정 짓는 데 어떤 식으로도 직접적인 개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실히 하기 위해 공식적인 정부 대표단 회의 접근이 차단되었다. 여성들, 토착인들, 여타의 억압받는 사람들이 비정부 기구 모임에 들어올 수 있도록 쉽게 허가될 때, 그들 대부분은 자신들의 인권이 어떻게 침해당하고 있으며

침묵되고 있는지 공식적인 국제 회의에서 얘기할 수 있다는 것에 너무나 고마워했다. 하지만 이러한 내용들은 공식적인 정부 회의에서는 눈에 띄지도 않은 채 안전으로조차 제택되고 있지 않다. 이런저런 유엔 세계 회의들에 참석하면서 나는, 과거에는 유엔 자문 기관의 위치로서 정부 대표단의 회의에도 일부 참가하고 개입할 수 있었던 비정부 기구 단체들에 대한 유엔의 정책에 변화가 있다는 것을 예민하게 포착하였다. 이전과는 달리 꽉 짜여진 회의 프로그램 속에서 세계 회의의 최종 보고서 초안은 회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완성되었다.

성 착취 반대 협약은 유엔 회의에 수차례나 제출되었고 비정부 기구 자문단은 이것을 세계 인권 회의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했지만, 선언에서 성 착취 반대 협약은 배제되었다. 사실상 전지구적으로 여성들이 겪고 있는 학대에 대해 참가자들을 교육시키기 위해 여성들이 비정부 기구의 내용을 사용하는 동안에도 새로운 형태의 보호나 추가적인 보호가 유엔에 청원되지 않았다. 유엔이 우리의 인권 침해 현실을 폭로할 수 있도록 여성들에게 허락한 것은 대체적으로 대중 매체의 보도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유엔은 여성들을 위해 어떤 행동을 취하라는 요구를 받지는 않고 있다. 제안된 성 착취 반대 협약이 유엔의 조약에 포함되어 회원국들에게 인권 침해를 감시하고 이러한 행위에 반대하는 행동과 여성들을 위해 실질적인 도움을 주라고 요구하기는 했지만, 여성에 대한 폭력을 불법화하려는 교육 캠페인은 유엔 여성발전국이 가고 싶어하는 방향과 거리가 멀다는 사실이 분명해졌다. 1995년 유엔 여성발전국의 참고 자료 보고서는 여성에 대한 폭력의 불법화를 바라보는 입장을 개괄하였다. 이 보고서는 가족 내에서의 폭력과 공동체 내에서의 폭력을 구분하면서 법으로써 가족 내 폭력을 통제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결론 지었다. "정부가 가족 생활에 어느 정도까지 끼어들지 혹은 심지어 끼어들 수 있기나 한 것인지, 합법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습니다…… 폭력을 행사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는 것이 효과적인 억제책인지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20] 따라서

개인화된 권력 관계를 보호하기 위해 근친 강간자나 아내 구타자에 대한 처벌을 회피하는 것과 같은 입장에서, 공공 영역에서의 폭력과 성희롱도 다뤄진다. 공동체 내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와 처벌은 폭력의 불법성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선호하는 가운데 거부되는데, 이것은 성 학대나 성희롱의 입증에 관한 다음과 같은 이유 때문이다. "사건에 관련된 양자의 인식 차이는 사건을 모호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녀는 저렇게 말하는' 문제는 이쪽에서 성희롱이라고 인식하는 것이 상대방에게는 악의 없는 농담이라고 인식되기 때문에 판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그리고 공동체에서 발생한 사건의 결론은 개인적인 영역에서 일어날 때와 똑같이 나타난다. "이러한 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법적인 처리보다도 이에 대한 교육과 인감성을 기르는 일이 요구된다."[21] 마찬가지로 형법만큼이나 민법도 이러한 접근 방식에서 효과를 얻지 못한다.

1970년대 초기에 우리가 처음으로 강간법에 대해 보다 가혹한 처벌과 이를 위한 새로운 법을 요구하였을 때나, 그리고 그 이후로 성 착취에 반대하는 개별 캠페인을 벌일 때나, 이러한 반反)자유주의가 미국에서 여성 운동에 대항하는 전략으로서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데이춘, 포르노그라피, 강간, 아내 구타 가해자 등을 처벌하기 위해 법을 이용하는 것은 "권력을 국가의 손에 쥐어주는 것"이라는 경고가 수반된다. 억압받는 사람들이 권력을 국가의 손에 쥐어준 적은 한 번도 없다. 때로 억압받는 사람들이 권력을 그들을 보호하는 데 쓰라고 국가에 거대한 압력을 가하기도 하지만, 국가가 그들이 요구하는 정의를 궁극적으로 만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전복되고 만 사례가 많이 있다. 이것은 오랜 투쟁에서 어떻게 권력이 재정의되는가를 보여주는 것이며,

20) "Perspectives on Violence Against Women," background paper prepared by the Division for the Advancement of Women, Department for Policy Coordination and Sustainable Development, United Nations ESA/DPCSD/1, 27 September, 1995, p. 8.
21) Ibid., p. 9.

한 가지 예로 현재 남아프리카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유엔도 국제 인권 단체들도 흑인 인종 차별 정책 또는 식민주의나 인종 차별의 피해자들에게 법원에 정의와 보호를 구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고, 법의 손을 강제로 이끌어 피해자의 이익을 위해 일하라고 요구한 적이 없다. 이것이 현재 유엔이 여성들에게 보이는 모습이다. 여성에게 적대적인 범죄에 대한 반反)자유주의적 접근은 타이 여성의 목소리(Voice of Thai Women)의 연합 행동,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데이춘에서 여성만을 비난하는 데이춘금지법Prostitution Suppression Act을 폐지하라고 정부에 요구하도록 연합 행동을 이끈 여성재단Foundation for Women)과 매우 대조적이다. "만약 남성 구매자들이 없다면 매춘부들이 할 일도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그들은 "육체 매매의 지지자인 매춘업소 담골들"을 처벌하는 행동을 취하라고 요구한다. 다른 여러 보호 조치 중에서도 이것이 성 착취 반대 협약이 전지구적으로 성취하려는 것이다.

여성에 대한 폭력을 다루는 새로운 유엔 선언의 이면에는 자매에 저항하는 투쟁을 벌이는 여성들의 행동에 대한, 그리고 "남성의 권력 · 특권 · 통제"라는 효정적 수사학에 가려진 전지구적인 여성들의 욕지에 대한 냉담한 무시가 있다. 최종 분석에서 수사학의 업데기가 제거되었을 때 남는 것이라곤, 아마도 하나 내지는 몇 안 되는 국가에서 남성들에게 권력과 특권, 이득을 얻는 일을 그만두라고 교육하여 여성에 대한 구타, 강간, 성 착취를 막겠다는 시도에 불과한, 아무런 재정 지원도 없는 교육 캠페인뿐이다.

폭력과 착취에 대한 누구의 정의가 유력할지 결정하는 데 권력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명백한 것은 서구, 주로 미국에 기반을 둔 여권 · 인권 단체들과 유엔, 특히 여성발전국 사이의 그릇된 공모이다. 이것은 여성들, 특히 제3세계 여성들 위에 군림하는 가장 새로운 헤게모니이다. 이 헤게모니는 세계 경제에서 자신의 지배를 위하여 전지구의 인권을 교묘히 조작하는 미국에 의해 매개된다. 미국이 다른 국가들을 조공하고 통제하기 위해 국제 인권을 사용하는 것은 카터 대통령 때 시작되었지만, 레이건 시기에 그 전략이 강화되었다. 레이건은 전지구적으로 인권을 조작하면서 복지권을 후퇴시키고, 식량 배급과 적극적 조치, 시민권을 후퇴시키고, 인간 특히 미국 여성들의 빈곤함을 더욱 악화시킨 데 책임을 져야 한다.

미국은 점차적으로 정부 차원에서 국제 인권의 장으로 진입을 확대하며, '일할 권리'와 개인의 권리를 요구하는 사람들의 집단적 권리, 특별히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권리의 보호에서 인권 장전을 축소시키기 위해 로비해 왔다. 이것이 바로 가해자를 처벌하라고 정부에 요구하지 않고, 하나의 계급으로서 그들(인간으로서의 여성의 자기 결정권에 대한 여성들의 주장을 축소시키고, 심지어 보호조차 되지 않는 개인적 권리의 수사학으로 이루어진 교육 캠페인을 접근 방식으로 채택하는 CEDAW를 미국 정부가 지지하는 이유이며 미국에 기반한 인권 단체들과 합예하는 이유이다.

한편 제안된 성 착취 반대 협약은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 승인 · 지지를 요구하면서 개인적 · 집단적 여성들을 대표한다. 이것이 우리가 바라는 최소한의 것이다.

참을 수 없음

데이춘이 없는 세상……

데이춘이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1820년대에 노예제 없는 미국을 상상하는 일과 같다. 미국에서 노예제가 한창일 때, 소수를 제외한 모든 사람들은 노예제가 사라질 수 있다고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런 생각을 품은 예외자들에서 소수는 단호하고 열렬한 노예 폐지주의자였고, 대다수는 노예제가 불가피하다는 일상에 만연한 이데올로기의 인정을 거부하는 페미니스트들이었다. 그들은 노예제가 역사 초기부터 있어 왔다는 주장에 조설되거나 피해하

기를 거부했다. 노예 폐지주의는 어떤 시기에는 전위적인 운동으로 여겨졌고, 또 다른 시기에는 사회의 다른 곳에서는 적응할 수 없는 괴상한 사람들과 노예제를 합리화하는 상상한 미국 헌법에 항의하는 기이한 사람들로 구성된 희생적인 운동으로 인식되었다. 단호한 폐지주의 핵심 그룹은 그들의 주장이 대중적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주장을 밀고 나갔다.

이것은 전지구적인 양식이 되어 갔다. 1927년에 노예 제도에 대한 국제 협약(International Slavery Convention)은 한 세기 전만 하더라도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을 선언하기 시작했다. "아프리카인 노예 매매를 말살시키려는 확고한 의지"를 선언하였으며, 나아가 "이것을 이루기 위해 점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빨리 모든 형태의 노예제 폐지를 달성할 것이다"고도라고 선언했다.

매매춘 없는 세상을 상상하는 것은 모든 여성에 대한 성 착취의 근절을 상상하는 것이다. 우리가 그 길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강간 위기 센터 활동과 학대받는 여성들에 대한 보호는 단지 내가 '에비앙 해결법'이라고 부르는, 즉 가뭄으로 고통받는 사막에 에비앙 물 한 상자를 보내는 일처럼 우리의 활동을 물 한 양동이에 물방울 하나를 더하는 것으로 축소시키는 것이다.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나, 새로운 법률은 적극적인 활동을 대신할 수 없다. 하지만 법은 여성의 자유를 위한 기반과 기준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전략의 하나이다. 법적인 변화는 항상 페미니스트 요구에 미달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결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면서 그것을 추구해야 한다. 여성주의 의식화는 이 지구상에서 성 착취와 함께 존재하는 것에 대한 여성들의 거부를 드러낼 수밖에 없는 것이므로, 행동주의는 반드시 지배에 대한 여성주의 의식화로부터 형성되어야 한다.

매매춘은 모든 여성들을 취약하게 만들고, 위험에 노출시켰으며, 공격받기 쉽게 만들었다. 사전적 정의에 의하면 취약하다는 것은 "상처입고, 부상당하고, 다칠 수 있는 상태"를 말한다. 이러한 취약성은 공식적으로 성 착취를 제도화시킨다. 성 착취는 결혼에서 개인적으로 제도화된다.

요점은 성 착취에 대한 여성의 취약성이 제도화된 사회 체계라는 것이다. 거리 투기에서 분리에 이르기까지 여성들은 그들 자신을 목적적인, 독특하고 자율적인 존재로 정체화시키는 경계를 잃는다. 대신에 살아남기 위해 그들은 반드시 자신을 분열시켜야 하고, 자신의 내부에 인간의 자아를 파괴시키는 경계를 설정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최악의 경우 다중 인격 장애가 발생한다. 이것은 개인적으로 자아라고 인식하는 인간이 취약한 상황에 처했을 때 자아 밖의 세계와 엉키게 되는 것이다. 나는 여기서 여성 심리학에서 인기 있는 주제인, 무엇이 여성을 '관계적'으로 만드는지에 관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나는 경계가 없는 자아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이다. 무방비 상태로 노출되어 아무런 보호도 없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지속 방문한 경험이 박탈당하고, 그 결과로서의 선택은 비인간화된 상황에서 생존을 그럭저럭 꾸려 나아가기 위한 것으로 축소된다.

여성들의 취약성이 개인적인 것만은 아니다. 사회 안의 포르노그라피와 여성의 성애화는 집단적인 것이며, 여성이 사회적으로 취약하고 성적 공격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으며 성적으로 살해당하거나 부상당할 수 있는 존재로 보이는 곳에서 나타나는 여성 취약성의 사회계급적 상징이다.

취약성은 억압의 조건, 즉 여성에 대한 성 착취로 촉진되는 여성 자아 파괴의 작동적 상태로 이용되어 왔다. 억압자들은 (다양하더라도) 결속된 하나의 계급으로서 취약성을 만드는 데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취약한 존재가 되지 않도록 열렬하게 보호된다.

매일의 성적 관계 경험에서 '연약하다'는 것이 공정적인 태도이 되고 있다는 것은 아이러니라는 말보다 훨씬 더 나쁘다. "성 혁명"과 『성적 음모이 가진 힘』(*The Power of Sexual Surrender*)과 같은 1960년대의 지침서들은 "약한 존재가 되는 것"이 성적 관계에서 기대되는 것인 양 만들고 있다. "약한 존재가 되기"

는 '취약성'이라는 말의 의미에서 해로운이라는 점신을 제거해 버리고, 약한 인간에 대한 보호를 요구하는 일련 의식 없이 개방적으로 되는 것을 의미한다.

페미니스트의 도전은, 여성의 약함과 굴욕에 대한 무방비를 옹지하라고 제도적으로 장려하는 것에 대한 것이 아니라 점차 섹스가 폭력으로 쉬급되는 성 착취에 대한 것이다. 이러한 맥락 안에서 섹스는 비인간화되고 섹스의 사용은 인권을 침해한다. 페미니스트들의 도전은 인론이 선전하는 것과는 반대로 가시적인 성 착취 이미지의 무효화를 요구하고, 악명의 창부 이미지가 아닌 인간으로서 여성의 사회적 이미지를 회복하기 위한 것이다. 페미니스트의 도전은 매매춘, 그리고 개인화된 가정 · 커플 · 결혼 안에 있다고 알려진 모든 제도화된 성 착취에 대항하려는 것이다.

만약 성적 관계의 평등에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면 무엇이 상 평등인가? 개방성이 인간 경험으로서의 섹스를 이끌고 상호 작용이 상실함을 자신 열정으로 여기지게 하는 성적 친밀함을 위해 가장 중요하고 첫째 되는 조건은 바로 성 평등이다.

개인적인 것이 정치적일 수 있는 가장 심도 깊은 이 지점에 여성들은 기준을 둘 것이다. 우리는 그 기준을 통해 자기 자신을 경험할 것이고, 그 기준을 통해 개방될 수 있고 개방될 것이며, 그 기준을 통해 자신이 개방되어 있으며 욕망을 가진 성적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러한 생각 속에서 내가 상상하는 것은, 만약 우리가 그때까지 현재의 불행한 상태를 계속 지니고 있다면 그것을 완전히 끝장내고 최후의 변화를 가할 것을 약속해 주는 마지막 혁명으로 끝날 그런 정치적 투쟁이 아니다. 내가 상상하는 것은, 개인의 변화가 수차례 반복되면 집단적 행동이 자연스럽게 이끌어질 것이라는 거짓된 추측 속에 개인이 한 단계에서 다음 단계를 통해 나아간다는 심리적 변화의 연속으로 그 '희망'을 축소시켜 버리는 혁명도 아니다.

나에게 있어 비타협적이며 변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는 가부장제 지배 상황을 넘어서는 현실을 상상하는 것은, 다른 가능성의 세계를 상상하면서 이 세계에 발을 딛고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실제적이고 구체적이고 착취적이지 않을 가능성, 그리고 우리가 도달할 수 있고 이미 시작된 가능성을 염두에 두면서 여성들의 (집단적) 경험 안에 존재해야 한다. 이 가능성은 전세계적인 여성주의 운동과 수많은 프로젝트 속에서 이미 움직이기 시작했으나 아직까지는 이 프로젝트들에 참여하고 있는 대부분의 여성들이 충분하게 대답한 것 이상으로는 변화의 잠재력을 획득하지 못한 가능성으로, 지배에 대항하고 해방을 향해 나아가는 페미니스트의 투쟁을 의미한다. 여성에게 또는 소녀에게 분명히 매매춘과 근친 강간, 강간, 결혼 안의 성 착취와는 다른 세상, 다른 종류의 삶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려 주고, 주택과 같이 물질적인 것과 건강 관리, 돈, 직업, 상담과 집단 의식 개발, 그리고 사랑을 제공해 주는 일들은 이미 다른 새로운 세상을 예고하고 있다.

녹대를 타고 달리는 여자들과 함께

정다혜

"네 하필 녹대야? 세상에 타고 다닐 게 없어서 말은대?" 젠소 문학의 상상력이 부족하다는 사실을 잘못 숨기며 살고 있는 나는 클라리사 에스테스의 소설 『녹대와 함께 달리는 여인들』을 보면서, 여성의 메말지 않은 야성과 자유를 상징하는 이 제목을 편지 좀 못 마땅해 하며 궁시렁거렸다. 시와 소설에서 운유로 등장하는 녹대나 빗자루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보다는 「앨리아와 루이스」에서처럼 잘 빠진 '오픈 카'를 타고 달리는 여성에 대한 동일시가 내겐 훨씬 익숙한 것이고 세법 그럴싸해 보였기 때문이다. 게다가 다른 짐승도 아닌 녹대를 타고 다닌다니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몇 시간이 지난 뒤에 나는 전혀 다른 의미에서 이 비유가 그 동안의 내 작업을 설명하는 데 꽤 적절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여성들이 그 위험스런 녹대의 등에서 어서 빨리 내려서길 간절히 바라고 있었다. 녹대들이 우글거리는 세상에서 녹대를 타는 것은 가장 손쉬워 보일 수 있지만 물 사에 고달픈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굳이 녹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 달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었다. 나는 그들에 대해 알고 싶었다. 하여 나는 녹대를 타고 달리는 여성들과 함께 달리기 시작했다. 달리다가 넘어져 무릎이 깨지기도 하고, 녹대들에게 물릴 뻔한 적도 있으며, 녹대로부터 여성을 구

추하는 여성이나 늑대를 좀더 안전하게 타는 방법을 알려 주는 여성들과 만나기도 했다. 그러다 자칫하면 주의깊은 채 늑대를 타지 않고도 달릴 수 있는 더 많은 방법들을 고안했을는지 모른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내가 받아들여야 했던 것은 늑대를 탄 여성들이 자신의 자유와 행복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는 사람들이었다는 점이다. 스포츠카를 타거나 달구지,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처럼 말이다.

지난 몇 년 동안 내 자신을 반추해 볼 시간도 없이, 나는 달리는 여성들과 함께 달리는 데 급급해 있었다. 열심히 따라 달리지 않으면 저만큼 멀어지기 때문이다. 외계인을 관찰하듯이 그들의 말투, 좋아하는 음식에서 질곡 같은 내면의 역사까지 함께 달리면서 받아 적고 엿보고 녹음하고 기록하였다. 그들을 관찰하면 어떤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러나 굴드너(Gouldner)[1]의 말대로 어떤 현상이나 세계를 알게 된다는 것은 단순한 외적 발견이나 관찰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했다. 결국 나의 인식 속에 거주하고 있는 숱한 편견들과 직면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사실에 대한 인식은 불가능하며, 그로 인해 삶과 앎의 괴리는 더욱 커질 것이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서 삶을 파는 여성들과 '만난다'는 것은 외부 세계와의 만남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내 안의 경험과 편견들, 그리고 내 안의 힘과 무기력 등과 끊임없이 만나고 싸우고 소통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연구자인 내가 나의 인식과 고민의 과정들을 열어 보이는 것은, 단순히 기존의 관점과 연구 방법의 한계를 드러내고 이를 극복할 방안을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연구 대상뿐 아니라 연구자의 인식 과정 자체가 분석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성매매와 여성의 삶에 대한 이해의 지평을 더욱 확장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어리한 맥락에서 이 글은 일인칭인 '나'를 중심으로 짜여진다. 성매매 연구자로서 나의 경험, 내가 직면해야 했던 고민들과 그 동안 싸워지지 못했던 내면의 목소리를 드러낼 것이다. 성매매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은 과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어떻게 만나고, 어떤 관계를 맺고, 무엇을 고민하고, 어떻게 읽고, 해석하고, 다시 쓰고 반추하게 되었는가의 과정우리에 해당된다. 여기에 싸여지는 이야기들은 1995년부터 최근까지, 혹은 더 오래된 기억들을 소재로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경험에 대한 기억은 고정된 사실이라기보다는 현재적인 시점을 갖는 나로부터 재해석한 '이야기'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고민과 만나다: 성매매 연구로의 유입 동기

만남의 출발: 친구 예진

그날은 내가 대학원에서 첫 수업을 받기 전 날, 입학식이었다. 친구 정혼식에서 중학교 동창인 예진을 만난다. 고등학교에 입학하면서 서로 멀어져 지내다가 간혹 예진이가 가출을 했다, 술집에 나간다는 등의 이야기를 동창들에게서 소문처럼 듣곤 했을 뿐이었다. 우리는 식장에서 나와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었는데, 예진이 카페에서 앉아 이야기하기를 너무 힘들어했기 때문에 우리의 이야기는 후미진 여관방에서 계속 되었다. 그는 친구들 몰래 다방 과 나이트 클럽에서 일을 했었던가 보다. 그리고 '보도방'이나 '퇴폐 다방'을 운영하면서 몇 년 동안 살았던 것 같다. 고등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새엄마와 엄마가 다른 형제들과 함께 사는 것이 사춘기였던

1) 프순정, "여성학의 발전과 한국 사회학의 변화," 『여성학 논집』 제9집, 이화여자대학교 여성학

2) 이 글을 집필하는 과제는 이 책의 공동 저자들뿐 아니라, 김미혜, 김혜정, 조혜진, 정유주에의 도움과정에 힘입은 바 크다.

예진에게는 힘이 들었나 보다. 오랜 꿈 없었던 친구는 가출 이후에 세상을 천진하게 겪게 된 이야기의 끝을 "죄짓다"는 표현으로 귀결시키곤 했다.

예진이는 그날 결혼식을 치른 친구 신영이가 고등학교에 진학하지 않았기 때문에 또래친구가 없을 것 같아서 일부러 지방에서 올라온 것이라고 했다. 예진이의 말대로 결혼식장에 또래친구로 온 사람은 우리 둘뿐이었다.

나의 친구 예진이는 시를 쓴다. 중학교 때부터 시를 썼고, 지금도 시를 쓰고 있다. 예진이네는 오락실을 경영했었는데, 여름 방학 동안 내가 아르바이트하는 조립 공장 앞에 예진이네 오락실이 있어서 점심 시간과 퇴근 시간에 공짜로 '갤러그'(일명 똥팡)를 하게 해준 인연으로 친해지게 되었다. 나는 오락을 너무 못해서 나심하곤 했는데, 어느 날부터 갤러그를 너무나 잘하는 사람이 되었다. 아마도 예진이가 내가 앉을 게임기를 미리 쉽게 조작해 놓았던 것 같다. 덕분에 내 게임 실력은 나날이 향상되고, 하루 열 시간 조립 공장에서 일어 뻣뻣해진 목과 어깨를 게임으로 풀어줄 수 있었다. 중학교 때 나는 반장이었지만 어리가 썩 좋지는 않았던 반면, 그는 전교에서 아이큐가 두 번째로 좋은 학생이었다. 그러나 공부에 별 관심이 없었던 예진이는 실기표를 만들 때마다 담임 선생님께 "머리 좋은 너석이 왜 이렇게 공부를 못하는지 연구 대상"이라며 술석부로 머리를 얻어맞기 일쑤였다. 우리는 국어 선생님을 무지무지 또 경멸하듯이 싸사당했고, 서로의 시(詩)(라는) 노트를 돌려보기도 했다. 나는 그다지 머리가 좋지 않은 '보범생'으로, 내 친구는 머리가 좋은 '꼴찌' 학생으로 함께 중학교 시절을 보냈다.

예진이를 다시 만난 이후 우리는 거의 매일 전화 통화를 했다. 예진이와 전화를 끊고 나면, 나는 그가 경험했던 '일'을 무엇이라 부를지 몰라 당황스러웠다. "그러니까 그 예쁜부들이? 그러니깐 그 예쁜 아십들이? 그 술집 여자들이? 그 윤락녀들이? 그 갈보들이? 그 창녀들이?" 그와, 그의 친구들을 지칭할 때 우선 명칭을 달 수 있을까? 당시 법의 용어에 따르자면, 나의 친구를 '윤락녀'라고 해야 할 판이었다. 하지만 그 친구의 역사에서 어느 한 부분을 떼어냈던 나로서는 "스스로 타락해서 몸을 망친 여자, 도덕적으로 타락한 여자"라 부를 수 없었다. 나로서는 그런 도덕적 관점만으로는 읽을 수 없는 내 친구의 삶이 있었다. 그런 이름 붙이기는 내 친구의 현재에 또는 총체적인 삶에 다가서는 데 어떤 도구도 제공하지 못했다. 한편 나는 괴로웠다. 내 안에 어떤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감지할 수 있었다.

무기력과의 싸움

누군가와 만난다는 것은 그 만남으로 하여 자신 안에 있는 무엇이 자라되고 커내지고 그것과 직면하게 되는, 그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또 다른 내면의 공간을 만들어 내는 과정인가 보다. 내게 있어 예진이와의 만남은 그러했다. 만남의 과정은 내 안에 다른 세계를 들여오는 것이었고 그 공간에서 나는 표류하고 있는 내 안의 감정들과 감각들을 만나야 했다.

예진이와의 만남이 여러 가지 빌미를 가짐에도 불구하고, 가장 정면으로 마주해야 했던 것은 '무력감'이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통제할 수도 없는, 알 수도 없는, 심지어는 짐작할 수조차 없는, 무언가 있는데 보여지는 않는 느낌들로 만들어진 벽, 소통되지 않는 공간. 예진이를 위해 무엇인가를 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수록 더욱 강한 무력감이 밀려들었다. 내 안에 무엇과 무엇이 충돌하고 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상태로 내면의 공간은 더 확대되고 있었다. 내게는 조금 힘겨운 과정이었지만 소통의 기대를 버리지 못했던 것은 예진이와 내가 지속적으로 만난다는 사실에 있었다.

우리가 만나는 동안 예진이는 자신이 몸담고 있던 세계로부터 빠져나오기 위해 많은 시도를 했다. 이미 그러한 시도와 실패들을 증명하듯 그는 혼잣말처럼 말하는 몇 개의 자해흉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건강이 매우 좋지

없다는 이유로 위축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살임을 짐무어 이동 도서관, 만화 카페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다 다시 예진이는 보도방이나 티켓 다방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사실, 당시 내가 예진이에게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맷 가족들을 다음으며 예진이에게 있는 또 다른 힘과 가능성을 자극하는 정도였다. 누군가의 곁에서 지켜만 보는 존재, 별로 쓸모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 중 하나였다.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예진이가 '그곳'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그 모든 경험으로부터 '탈출'되길 원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나의 무력감은 더욱 커졌다. 가족이나 사회적 기반이 없는 20대 후반의 여자들이 자신의 생계와 성취를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기 어렵듯이 말이다. 예진이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대학원생으로 있는 나의 위치가 매우 불편했다. 예진이의 삶이 바뀌어지길 기대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가진 것들을 보태로 살면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든가 어떤 형태의 삶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나는 내가 가진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예진이에게 있어 다른 방식의 삶을 시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수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더 큰 무력감은 예진이의 정황을 '느낄 수 없다'는 보다 근본적인 것에 있었다. 예진이의 맘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사연과 사실 이전의 상황을 공유하지 못한 나로서는 예진이의 정황을 짐작할 수 없었다. '왜 예진이와 그 친구들은 제 몸뚱을 갖고 자해를 할까,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약을 먹나, 왜 남자에게 목을 매나……'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아니, 느껴지지가 않았다. 제 멋대로 갈아놓은 라디오 소리가 귀를 스쳐 가듯이 말이다. 존재하는 정황, 고통, 즐거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짐작할 수 없다는 것은 여성의 정황을 이해하고 싶은 내게 참으로 큰 숙제였다.

'왜'라는 질문으로 압축되는 관계: 첫 그물질

나는 알고 싶었다. 느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그 바탕으로 나는 예진이에게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도 전화를 하다가도 나는 "왜?"를 말하고 있다. 왜 그일을 그만두기 힘든 거야? 왜 자살을 하려고 해? 왜 그렇게 술을 먹어? 왜 도박을 해? 왜 돈을 못 모아? 왜 남자 없인 못 살아? 왜 그게 재미있었어? 왜 그렇게 비싼 옷을 사 입어? ……왜? 타인에게 여과 없이 발사되는 '왜'라는 물음은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고 답답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질문 방식이다.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다그치는 것 같기도 하고 거리감을 만들 수도 있다. 나의 거친 질문들은 당시 예진이나 그의 동료들에게는 치가운 이물질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예진이와 그의 친구들로부터 비껴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진이도 거리감을 느꼈던지 언젠가 물어왔다.

그들은 아이도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왜 응답되었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과거와 현재의 삶 등에 대해…… 후에 안 사실이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서로에게 서로의 과거에 대해 잘 묻으려 하지 않는다. 질적의 삶, 누군가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꼬치꼬치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사는 데 그렇게 많은 질문과 대답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다.

예나는 질문은 사유의 출발이고 다가서기 위해 알고자 하는 것은 의어가 될 수 있는 내 '삶'을 되찾기 위해서도 일단은 '앎'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상대에와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고, 수업 시간에 던지는 질문들에 성예에 문제를 투영시켜 고민해 보았지만 지갑(blank)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성예에 지역을 답사하겠다는 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은 내가 성예에를 연구하는 것, 그리고 성예에 지역에 가는 것 자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였다. 성예에 지역에는 안신 예에와 조직 폭력배가 끌어하다는 통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내 방목을 걱정하고 만류했다. 책을 통해서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굳이 가려면 남자들과 함께 동행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처음에 나는 좀 실망스러웠다. 나에게 있어 중요한 시도를, 사람들은 "그 위험스러움에 비해 별대없는 일"로 치부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심하라를 가르쳐 주지 않고, 가는 것 자체를 만류하고 있었다.

예진이와 그의 친구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우려의 필요한 설득은 나를 점점 더 큰 공포로 몰아갔다. 성예에 지역을 찾아가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나는 종종 폭력배들에게 쫓기거나 감금되거나 테러되는 악몽을 꾸기도 하였다. 나는 조금씩 위축되어 갔다. 자연스러운 일이 점점 더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하는 일로 나를 압박했다.

그러나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어머니의 태도는 담담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모르는 너를 어떡해야 하겠니? 그 대신 항상 조심해. 강물사에 먼저 알리고 돌아다니든지, 혼자 다니진 말고……" 하시며 나를 독려해 주기까지 하셨다. "언제나 그렇듯이 엄만 정말 이상한 엄마야!" 내 맘이 생긴 것이 기뻤다. 유일하게 나를 지지해 준 한 친구는 이런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일단은 달아볼 필요가 있다. 예진이에게 친구로서 세다로 대화할 수 있는 내 '삶'을 되찾기 위해서도 일단은 '앎'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상예에와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고, 수업 시간에 던지는 질문들에 성예에 문제를 투영시켜 고민해 보았지만 지갑(blank)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성예에 지역을 답사하겠다는 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은 내가 성예에를 연구하는 것, 그리고 성예에 지역에 가는 것 자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였다. 성예에 지역에는 안신 예에와 조직 폭력배가 끌어하다는 통념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내 방목을 걱정하고 만류했다. 책을 통해서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굳이 가려면 남자들과 함께 동행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처음에 나는 좀 실망스러웠다. 나에게 있어 중요한 시도를, 사람들은 "그 위험스러움에 비해 별대없는 일"로 치부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 구체적으로 이렇게 조심하라를 가르쳐 주지 않고, 가는 것 자체를 만류하고 있었다.

예진이와 그의 친구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걱정하는 우려의 필요한 설득은 나를 점점 더 큰 공포로 몰아갔다. 성예에 지역을 찾아가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나는 종종 폭력배들에게 쫓기거나 감금되거나 테러되는 악몽을 꾸기도 하였다. 나는 조금씩 위축되어 갔다. 자연스러운 일이 점점 더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하는 일로 나를 압박했다.

그러나 주변의 우려와는 달리 오히려 어머니의 태도는 담담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모르는 너를 어떡해야 하겠니? 그 대신 항상 조심해. 강물사에 먼저 알리고 돌아다니든지, 혼자 다니진 말고……" 하시며 나를 독려해 주기까지 하셨다. "언제나 그렇듯이 엄만 정말 이상한 엄마야!" 내 맘이 생긴 것이 기뻤다. 유일하게 나를 지지해 준 한 친구는 이런 말을

없을 수도 있지만, 그것이 거친 화살처럼 타인에게 향하는 물음일 필요는 없을 것이다. 계다가 나는 "왜?"라는 질문을 남발하고 있는 나를 향해 왜 그런 질문을 하는가를 의심하지 않았다. 나는 나에게 왜 그것을 느낄 수 없는지, 이해할 수 없는지를 묻지 않았다. 나는 '나'에게 힘의를 두기보다는 내가 느낄 수 없는 정황을 하고 있는 '그들'을 의심했다. 그것은 내 이해 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왜'라는 질문에 묻어온 답은 먼 그물을 건어올리는 듯 기대를 채워 주지 못했다. 답답함이 먼 바다의 수평선까지 차올랐다. '왜'라는 경험의 장벽을 넘기 위해 나는 무언가를 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공간으로 들어가다: 금 밟고 들어가 보기

"정답해 해서도 안 되고, 비웃어서도 안 되며, 필요해서도 안 된다. 오직 이해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스피노자

첫 만남: 금 밟기: 공포와 단류

존재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 나는 알고 싶었다. 몇 개월 동안 친구 예진이와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 나는 일종의 '촌적' 같은 것을 엿볼 수 있었을 뿐이다. 내가 알고 싶은, 아니 알고 있는 성예에는 무엇이 보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의 역동적인 삶에서 대상화된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정황과 몸에 각인되어 있는 문제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조합하여 대상화된 '문제'를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계다가 다면적인 한 개인의 정황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무엇이 옳고 그른 혼적인지 더욱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과 삶이 하나 되는 여성학'이라는 슬로건은 무엇을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나에게 부집고 버거운 것

없다는 이유도 뒤적하는 것을 두려워했고, 자살임을 짐작해 이동 도서관, 만화 가게 등을 시도하였다. 그러다 다시 예진이는 보도방이나 티켓 다방으로 돌아가기도 했다. 사실, 당시 내가 예진아에게 해줄 수 있는 실질적인 것이란 아무것도 없었다. 몇 가력들을 더듬으며 예진이에게 있는 또 다른 힘과 가능성을 자극하는 정도였다. 누군가의 곁에서 지켜만 보는 존재, 별로 쓸모 없는 존재가 된다는 것은 당시로서는 견디기 힘든 일 중 하나였다.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았지만 나는 예진이가 '그곳'에서 벗어나길 원했고, 그 모든 경험으로부터 '단절' 되길 원했다. 기대가 크면 클수록 나의 무력감은 더욱 커졌다. 가족이나 사회적 기반이 없는 20대 후반의 여자들이 자신의 생계와 성취를 위해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란 생각보다 많지 않았다.

누구나 자신이 속해 있던 세계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쉽지 않을 것이다. 내가 살아왔던 삶의 패턴을 바꾸기 어렵듯이 말이다. 예진이가 자신의 삶을 바꾸기 위해 애를 쓰는 동안 대학원생으로 있는 나의 위치가 매우 불편했다. 예진이의 삶이 바뀌어지길 기대하면서 정작 내 자신은 내가 살아왔던 방식, 내가 가진 것들을 토대로 살면 되는 존재였기 때문이다. 내 삶의 어떤 부분이 잘못되었다든가 어떤 형태의 삶이 바람직하다는 이유로 나는 내가 가진 경제적인 부분을 포기할 필요가 없었다. 그러나 예진아에게 있어 다른 방아의 삶을 시도한다는 것은 자신의 경제적인 수익을 완전히 포기하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나에게 다가오는 더 큰 무력감은 예진이의 경험을 '느낄 수 없다'는 보다 근본적인 것에 있었다. 예진이의 말을 이해하고 싶었지만 한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었다. 사진과 사실 이전의 상황을 공유하지 못한 나로서는 예진이의 경험을 실감할 수 없었다. '왜 예진이와 그 친구들은 제 팔목을 긋고 자해를 할까, 왜 그렇게 술을 마시고 약을 먹나, 왜 남자에게 목을 매나……' 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듣고는 있지만 그것을 있는 그대로 이해하기 힘들었다. 아니, 느껴지지가 않았다. 저 안의 깊어놓은 다다오 소리가 귀를 스쳐 가듯이 말이다. 존재하는 경험, 고통, 즐거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짐감할 수 없다는 것은 여성의 경험을 이해하고 싶은 내게 참으로 큰 숙제였다.

'왜'라는 질문으로 얽혀지는 관계: 첫 그물질

나는 알고 싶었다. 느낄 수 없는 것들에 대해, 그 바탕으로 나는 예진이에게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반복하고 있었다. 함께 술을 마시다가도, 전화를 하다가도 나는 "왜?"를 떨어 댔다. 왜 그 일을 그만두기 힘든 거야? 왜 자살을 하려고 해? 왜 그렇게 술을 먹어? 왜 도박을 해? 왜 돈을 못 모아? 왜 남자 없인 못 살아? 왜 그게 제어되었어? 왜 그렇게 바란 못을 사 입어? ……왜? 타인에게 여과 없이 발사되는 '왜'라는 물음은 상대방을 당황스럽게 할 수 있고 당돌하게 느낄 수 있게 하는 질문 방식이다. '왜'라는 질문은 상대방에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다그치는 것 같기도 하고 거리감을 만들 수도 있다. 나의 거친 질문들은 당시 예진이나 그의 동료들에게는 치가운 이물질 같은 것이었을 것이다. 그때마다 나는 예진이와 그의 친구들로부터 버려져 나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예진이도 거리감을 느꼈던지 언젠가 웃해졌다.

그들은 아이도,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왜'라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왜 올림되었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과거와 현재의 삶 등에 대해…… 후에 안 사실이지만 신기하게도 그들은 서로에게 서로의 과거에 대해 잘 물으려 하지 않는다. 질곡의 삶, 누군가 자신의 삶의 태도에 대해 꼬치꼬치 그 이유를 묻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편하겠는가. 사는 데 그렇게 많은 질문과 대답이 필요한 것은 아닐 수도 있는데 말이다.

매너는 질문은 사유의 출발이고 다가서기 위해 알고자 하는 것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일단은 닫아둘 필요가 있다. 예진이에게 친구로서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 내 '삶'을 되찾기 위해서도 일단은 '앎'이 있어야 했다. 그러나 상대에와 관련된 책을 열심히 읽고, 수업 시간에 던지는 질문들에 상대에 문제를 투영시켜 고민해 보았지만 지감(知感) 온도가 높아지는 것 같지는 않았다.

이런 과정에서 상대에 지역을 답사하겠다는 결심은 자연스러운 것이었다. 그러나 주변 사람은 내가 상대에를 연구하는 것, 그리고 상대에 지역에 가는 것 자체를 만류하는 태도를 보였다. 상대에 지역에는 인신 매매와 조직 폭력배가 출몰하다는 풍설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은 내 안목을 걱정하고 안전함을 빌다. 책을 통해서도 연구가 가능하다는 것과 굳이 가려면 남자들과 함께 동행하라고 권유하기도 하였다. 처음에 나는 좀 실망스러웠다. 나에게 있어 중요한 시도를, 사람들은 "그 위험스러움에 비해 별대없는 일"로 치부하는 느낌이 들었기 때문이다. 아무도 내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심하라를 가르쳐 주지 않고, 가는 것 자체를 만류하고 있었다.

예진이와 그의 친구들과의 자연스런 만남에도 불구하고, 주변 사람들이 쏟아내는 우려와 필요한 설득은 나를 점점 더 큰 공포로 몰아갔다. 상대에 지역을 찾아가는 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를 각오해야 하는 것이 되어 버렸다. 나는 공공 폭력배들에게 붙기거나 감금되거나 매매되는 악몽을 꾸기도 하였다. 나는 조급해 위축되어 갔다. 자연스러운 일이 점점 더 대단한 각오를 해야 하는 일로 나를 압박했다.

그러나 주변의 우려하는 말과 오히려 어머니의 태도는 답답했다. "거기도 사람 사는 곳인데…… 모르는 너를 어떡해야 하겠니? 그 대신 항상 조심해. 경찰서에 먼저 알리고 들어가니든지, 혼자 다니진 말고……" 하시며 나를 독려해 주기까지 하셨다. "언제나 그렇듯이 엄만 정말 이상한 엄마야!" 내 편이 생긴 것이 기뻤다. 유일하게 나를 지지해 준 한 친구는 이런 말을

그 공간으로 들어가다: 금 밟고 들어가 보기

> "장난해 해서도 안 되고, 비웃어서도 안 되며, 힘으로서도 안 된다. 오직 이해하는 것만이 필요하다." —스피노자

첫 만남 금 밟기: 공포와 안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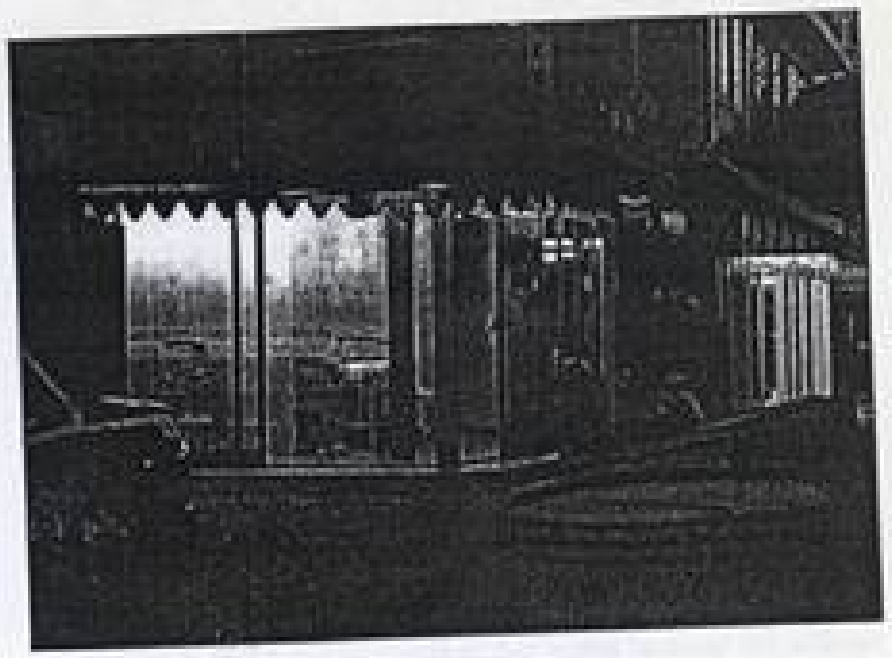
존재하지만 내가 알 수 없는 세계에 대해 나는 알고 싶었다. 몇 개월 동안 친구 예진이와의 만남과 이야기를 통해 나는 일종의 '혼적' 같은 것을 엿볼 수 있었을 뿐이다. 내가 알고 싶은, 아니 알고 있는 상대에는 무엇이 보이지 않았다. 어떤 사람의 역동적인 삶에서 대상화된 문제를 발견한다는 것, 그리고 그의 경험과 몸에 각인되어 있는 문제들을 수집하고 그것을 조합하여 대상화된 '문제'를 규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다. 게다가 다면적인 한 개인의 경험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무엇이 옳고 그른 혼적인지 더욱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말과 삶이 하나 되는 여성학'이라는 슬로건은 무엇을 무엇이라 이름 붙일 수 있는지 알 수 없는 나에게 무겁고 버거운 것

해주었다. "너에게 이 경험은 네가 성장하는 데 아주 중요한 경험이 될 거야. 그리고 언젠가 …… 설령 푸른 안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것은 네가 이 문제를 풀어 나아가는 데 또는 앞으로 살아갈 날에 꼭 필요한 경험이 될 거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네가 힘들어질 땐 …… 내가 있잖아. 그리고 나는 어떤 경험이는 그것을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야." 친구는 앞날을 위해 고민하며 이 말과 같은 대사를 머리 속에서 떠올 때고 가슴으로 와닿게 했을 터였다. "어, 너 정말 멋있어. 너 말이 맞아! 내가 무슨 걱정하에 나가는 건호한이냐?" 속으로만 한마디로 일축해 버렸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내가 극복하지 못할 것은 없고, 아무리 힘든 경험이라 할지라도 그 과정이 나를 성장시킨다는 것, 그리고 이를 지켜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은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내 삶에서 큰 힘이 되었다. "그래, 기기도 사람 사는 곳이야!"

진입을 위해 해야 할 일: "우리, 꼭 이렇게 역사해야 되나?"

주변의 만류 또는 몇몇 지지를 받으며 조금은 호들갑스럽게 담사를 결정하고 나니, 어떻게 만날 것인가가 난감한 문제로 다가왔다. 1995년 당시 나는 연구물을 써내야 하는 연구자도 아니었으며, 심에에 현장과 꼭 만나야 한다는 의지만 있었을 뿐 출발은 막연했다. 게다가 당시까지 대부분의 심에에 연구물들은 이론적으로 이루어졌거나, 손님으로 접근이 가능한 남성들에 의해 써어졌기 때문에, 여성 연구자로서 진입했던 앞선 이의 경험이나 지침도를 얻을 수가 없었다.

첫 번째 담사지로 택한 S 기지촌은 대학을 다니면서 정서 자원 활동을 한 지역이어서 조금은 익숙했다. 대학 동창 세 명과 함께 나섰다. 우리는 여관 딸 하나를 잡아 낮에는 지역 활동가, 경찰서와 관공서를 방문하여 S 지역에 대한 기초적인 정보를 얻었고, 캠프 주변 클럽에 대한 대략적인 지도도 그렸다. 그리고 밤이 되면서 업소로 진입하기 위해 분장을 하기 시작했다. 미



그들은 어머도 사회로부터 끊임없이 '왜 너는 질문을 받았을 것이다. 왜 유입되었는지, 왜 그 일을 하는지, 과거와 현재의 삶 등에 대해……

끗 한 클럽에 한국인은 미군 동반 없이 들어갈 수 없었던 만큼, 여자들은 어느 정도 출입이 허용되기도 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출입의 허용은 성적 대상으로서 가능한 지위라 할 수 있다. 게다가 그 여성들에게 너와 같은 이방인의 존재는 동물원을 구경 온 사람처럼 불쾌감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 섬을 팔 수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고서 업에에 현장에 들어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분장. 그것도 생각보다 쉬운 일은 아니었을 뿐 아니라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옷 입기, 화장하기 등 개인적인 취향이나 선호처럼 보이는 치장이 사실은 우리 안에 있는 어떠한 경계 내에서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이런 차림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었다. 우리 사회에서 대부분의 여성들은 옷을 입고 화장을 할 때,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정녀'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 긴장한다. 이러한 경계 속에서 오랜 동안 살아온 내가 금기시되어 왔던 경계 밖의 여성으로 변장을 한다는 것은 스스로 비하적인 존재, 낙인찍히는 존재가 됨을 의미하였다.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야하게 입거나 치장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매우 서툴렀고 어색함을 느꼈으며, 한 친구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며 투덜거리기도 했다.

마침내 야하게 치장한 우리는 서로의 모습을 보며 깔깔거리기 시작했다. 우리의 모습이 아주 우스광스럽다고 느꼈다. 그것이 왜 우습게 느껴졌을까? 우리의 옷을 속에는 분명 비하적인 코드가 내재되어 있었던 것 같다. 비하나 낙인은 심각하고 지루스러운 취급을 당하는 것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표준'이라는 사회 중심적인 기준의 저에 사무리, 복한 말이나 연변 총각 말투를 비하적이고 우스광스러운 것으로 취급해 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라 할 수 있다. 그 여성들이 자신의 일터에서 입는 옷과 치장이 우스광스러울 까닭은 없지 않는가. 음식점에서 일

하는 아줌마들, 식당 주방에서 일하는 요리사처럼, 아무도 웃을 입지 않는 독특한 업에에서 매일이 아줌마의 독특한 속옷 패션처럼 말이다. 그것은 어떤 공간에서 배우 자연스러운 것이다. 문제는 그렇게 입지 말아야 할 사회적 제약을 내면화한 우리 들(여대생들)이 그렇게 입었다는 것이었다. 우리의 옷을 내면에는 마치 서울 사람이 사투리를 통내 내면서 말하려는 비하적인 측면과 더불어, 어떤 면에서 여성들의 금기와 이분법적인 터부를 깨는 일종의 해방감을 포함하기도 했던 것 같다.

여성의 여성에게 힘을 건다는 것: "레즈비언은 여자라!"

몇 군데 클럽에서 세계를 당하기도 했지만, 미군 없이 우리끼리 클럽에 들어가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우리는 클럽에 앉아, 댄서들의 춤을 아주 유심히 보았다. 아니, 거의 넋을 놓고 몰어지게 쳐다보았다. 그리고 그들이 무대에서 내리오게 되면 "언니 여기 좀 해요" 하고 우리의 테이블로 불러 이야기를 했다. 클럽에서 댄서들은 손님이 시켜 주는 주스나 술을 마시며 함께 이야기하는 것이 수입에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과 접촉하는 것은 그다지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우리는 먼저 친해지는 것에 목적을 두었기 때문에 대화는 이방인의 티가 나지 않는 일상적인 주제로 이끌어 갔다. 우리는 그 여성들이 우리를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노는 애들 정도로 봐주길 바랬던 것 같다. 오간에는 무엇을 하면서 지내는지, 집은 어딘지 등을 여러 농담과 함께 물었고,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을 노골적으로 표현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긴장하고 있었지만, 되도록 자연스럽게 행동하기 위해 애를 썼고, 지나치게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탐색하는 행동은 자제했다.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우리 테이블을 예의주시하는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여러 가지 면에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생각이 든다. 가시적인 문제는 우리의 미숙한 치장 때문이었는데, 화장은 혼스러웠

고, 우리 안에 거의 완전에 가깝다고 생각했던 섹시한 우의 그곳에서는 눈에 띄게 평범한 사람에 불과했다. 가발은 자꾸 벗겨지기 일쑤였으며, 검을 때우다 줌이 깊은 구두는 자꾸 발으로 떼어져서 덜렁거리며 걷을 수밖에 없었다. 단단해 입아 주위를 둘러보면 우리가 생각해도 우리가 가장 돋었다.

게다가 우리는 아란 옷차림에도 불구하고 아예 결혼은 행동을 할 수가 없었다. 미군들이 말을 붙이거나 부킹이 들어오면 처음에는 정중히 거절했고, 두 번째로 말을 걸면 바쁜 데 일을 방해한다는 식으로 노려보았고, 계속 다가오면 매우 화를 냈기 때문이다. 그에 비해 우리는 댄서들과 이야기하는 것에 지나치게 집중했다. 우리의 눈동자는 진지했고 유난히 반짝거렸다. 반짝거림은 긴장과 초기심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것이었다. 우리는 남성을 위한 공간인 클럽에서 '여자 들에게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여자 들이었다.

상황은 점점 심각해졌다. 미군들의 눈초리가 살벌해지더니, 어떤 미군은 화장실까지 쫓아와 문을 두드리며 "레즈비언은 비켜라!" 욕을 하며 위협하기도 했다. '나는 레즈비언이 아니야. I am not a……너는 내 그렇게 생각했니? What made you……(사역 동사가 들어간 4형식 문장으로)' 심각한 위협 속에서도 실실하기만 했던 내가, 화장실에 앉아서 대답할 영어 문장을 연습하는 동안 성질 급한 미군은 기 머리고 없었지만, 당시 내가 레즈비언이 아니라는 사실을 설명해야 할 필요는 없었을 것이다. 그 공간에서 우리가 레즈비언이는 아니는 그것은 중요한 논점은 아니었을 테니 말이다. 그 이름은 남성 중심적인 공간에서 자라야 할 감기를 낸 여성들을 '추방 시킬 근거였을 뿐이다. 이란 처벌에도 불구하고 남성에게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 여성이 여성에게 관심을 보이는 것 그리고 말을 거는 것, 그것이 위배되는 행동이었다는 것을 새삼스럽게 느꼈다. 실제로 외국의 현장 활동가 중에는 여성들을 구출하기 위해 남장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럴 때에는 차라리 남장을 하고 다니는 게 더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클럽에서 만해진 몇몇 여성들 덕분에 낮 시간에 클럽에 들어가 이것저것을 살펴는 것이 가능해졌다. 예를 들어 클럽의 내서장에 미군들이 그려 놓은 작은 한면도 지도 위에 십조기를 단 큰 당나귀가 오줌을 누고 있는 그림 아니다가, 말씀의 남녀 그림, 여성 비하적인 그림과 글…… 등. 그리고 얼마 안심이나 웃음 띠고 있소 주인가 문에하는지, 요금 손님들은 어떤지, 실명 검진은 어떤지, 미군 비상 근무시에 댄요 부대 이야기 등도 들을 수 있었다. 이러도 당시 클럽의 언니들은 내가 허락을 원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다. "자금은 맷날만큼 돈벌이가 안 돼" 하면서 내가 기지촌에 흘러들어 오는 것을 우려하기도 했지만, 어쨌거나 물음에 대답해 주었다. 지금 생각해도 이상한 것은 나에게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를 묻는 사람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 방법은 피상적인 '관찰 만을 가능하게 했다. 클럽 여성들을 대상으로 참사를 해보는 것은 어떨까 등의 방법도 생각해 보았지만, 그것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었다. 내가 입소에 취직하지 않은 다음에야 이런 과정을 거쳐서 여성들과 인터뷰를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그리고 아무리 예에도 내 자신이 그곳에서 뛰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불은 안어부터 달랐지만, 무엇보다도 '몸'이 많은 부분을 표현해 주고 있었다. 나는 일단 얼굴, 손, 차아 몸이 너무 예뻤다. 많은 여성들의 몸이나 손에는 문신이나 자살 할림 및 게는 그어져 있고, 숨 · 담배 - 아물로 인해 얼굴색이나 치아의 색도 변해 있는 경우가 많았던 반면 당시 내 얼굴은 너무 싱싱했다.

그럴게S 지역에서 세 번 정도의 답사를 시도하였다. 그러나 신분을 밝히지 않은 상태에서 접근하는 것은 명백한 한계를 드러냈다. 내 생일 파티를 해줄 정도로 몇몇 여성들과는 친해지기도 하였지만, 내가 누구이고 무슨 이유로 그들 안에 있는 이야기를 듣고 하고 싶어하는지를 밝히지 않는 한, 그들 내면에 있는 이야기를 끌어내는 것은 불가능했다. 당시 나는 그들의 일상의 체험을 알기 위해서는 그렇게 연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최대한 자연스럽게 그들 속에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한시적인 방법으로는 표면적인 그들의 일상을 엿보고 표면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을 뿐이었다.

다시 들어가다: '기동시방'을 들어서

다시 어떻게 만날 것인가를 고민해야 했다. 몇 개월이 지나고, 나는 두 번째 방법을 시도하였고, 본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기로 작정하였다. 성매매에 대해 관심이 생기면서 현장 활동가를 알게 되었지만, 현장 활동가를 통해 인터뷰 대상자를 소개받고 싶은 생각은 없었다. 이미 성매매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인터뷰할 생각도 없었을 뿐 아니라 그런 일로 현장 활동가들을 귀찮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는 대학원 동료와 함께 S 기지촌으로 다시 갔다. 두 번째 시도가 그 전과 다른 점이 있다면 신분을 노출시킨다는 것이었다. 이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연구자임을 밝히고 인터뷰 대상을 구하기로 작심을 했지만,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할지 역시 난감한 문제였다. 낮 시간 동안 한산한 거리는 기운 거렸다. S 지역의 노점들은 위치를 파는 곳이 많은데, 보통 위치 크기의 3분의 1 정도로 작게 만들어서 소금을 무의 준다. 크기가 작아서 갈아다니면서도 먹을 수 있고 무점한 양에 가격도 싸서 S 지역에 올 때마다 위치으로 끼니를 때우곤 했었다. 우리는 좀 노련해 보이는 위집 노점상에게 다가가 위집을 사 먹으며 장사가 잘 되는지, 요즘 여기 경기는 어떤지 등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리고 나와 내 동료를 소개했고, 우리가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를 절실한 눈빛으로 물었다. 노점 상인은 거리에서 사람들과 매기하고 있는 20대 중반의 남자에게 우리를 데리고 갔다. 우리의 옷차림과 말

투는 아주 순진한 대학생다웠다. "대학생들인데 알고 있은 게 낫대. 자기가 여기 대빵 아니야? 좀 도와라. 몇 시간씩 갈거리를 해대고 다닌대……" 노점 상인은 약간 멍청해 보이는 그를 설득하였다. 그는 지금은 바쁜 일이 있어 조금 곤란하지만 나중에 우리를 도와주겠다고 했다. 그는 자기가 아는 여자 친구들을 소개시켜 주기도 했고, 나와 동료는 커피숍에서 그를 기다리기로 했다.

그를 기다리며 우리는 전략을 세워야 했다. 별로 악의가 없어 보이기는 하지만 그 젊은 남성은 틀림없이 이 지역의 조직 폭력배 내지는 기동시방일 것이 분명했다. 그런 사람에게 '만남의 운명'을 알려야 한다는 것은 좀 불안한 일이었다. "그 사람이 폭력배거나 기동시방이면 그 사람에게 매여 있는 여자는 보여줄 수 있는 것만을 이야기하지 않겠어?" 어떤 매개자를 통해 만나는 것은 연구 대상과 연구자 사이에 한계를 갖게 하기 때문에 만남을 취소해 버릴까를 결정해야 했다. "너무 기대는 하지 말고 한번 만나보자. 그 사람 자체를 인터뷰하는 것도 재밌을 것 같으니깐." 우리는 여기저 많은 대상에게 물어야 할 질문 내용을 열심히 작성했고, 그는 클럽이 하나 둘 문을 여는 밤이 되어서야 나타났다.

우리는 그의 가의 여섯 시간 정도 긴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가 소개시키는 여자 친구들이 일이 끝나는 시간까지 기다려야 했기 때문이다. 그는 "근데, 대학생들이 이런 곳의 얘기를 왜 알고 싶어하는 거죠?" 처음에는 좀 어물거리며, 우리의 질문에 간략하게만 대답했다. 언제나 긴장감을 푸는 것이 첫 번째 과제였다. 특히 우리의 신분을 노출시켰을 때는 더욱더 그랬다. 우리가 물대잡는 수다와 농담을 늘어놓고, 공부하기 싫어 죽겠다는 둥, 부모님이 자꾸 속을 썩인다는 둥 우리 이야기를 잔뜩 풀어놓으며, "성일(기생) 씨의 경우는 어때요?" 하며 조언을 구하곤 했더니, 그는 약간 긴장을 푸는 것 같았다.

승일의 가족사를 통해 그의 누나들의 클럽 생활과 결혼, 미국 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들을 수 있었다. 그의 누나 둘은 모두 기지촌의 클럽 여성들이었으며, 두 명 모두 동거하던 미군과 하나 현재 미국에서 살고 있다고 했다. "한국 남자들은 이런 데서 생활하던 여자들을 이해하지 못하지요. 우리 누나들도 여기 출신이어서 다 이해하지만, 나 같은 사람도 이런 여자들하고는 살 수 없죠……." 그런데 왜 동거를 하느냐고 물었다. "그거야, 제가 하도 잘해 주니깐. 그냥 사는 거죠. 제가 어제를 다녀서 좀 이르거든요. 그래도 마사(거멀)는 남자가 기죽으면 안 된다고 빚을 얻어서 용돈을 주고 그래요. 근데 미자말고도 저는 여자 친구가 아주 많거든요." 그는 자신의 여자 친구가 많다는 것을 아주 강조했다.

그날 밤 그의 소개로 만난 세 명의 클럽 여성과 늦은 식사와 술을 마시며 새벽 3시까지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은 이후의 인터뷰를 허락하였다. 그 중에는 적극적으로 인터뷰를 원하는 사람도 있었다.

그들과 첫 만남 이후, 낮 시간 동안 어르바이트를 하는 클럽으로 찾아갔다. 클럽은 한가했다. 우리가 클럽에 들어섰을 때 미자는 읽고 있던 책을 내려놓았다. 그 책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였다. 우리는 먼저 의사를 하며, 수다를 떨다가 클럽 한 구석에서 한 사람씩 인터뷰를 시작했다. 먼저 학생증을 보여주었다. 첫 번째 답사 때와는 달리 그들의 삶을 진정성을 가지고 경청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신분과 인터뷰 목적을 명확히 알아주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동일한 대상에 대한 인터뷰는 약 3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세 사람이 자신의 처지와 경험에 대해 이야기하는 방식은 매우 달랐다. 우리는 무엇이 같고 무엇이 다른지를, 무엇이 그런 차이를 만들어 내는지를 포착하는 데 집중해야 했다.

몇 가지 문제들: 신뢰와 개입

인터뷰는 되도록 편안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장이나 카페, 빌라 등 일상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인터뷰를 하는 동안 녹음이나 기록은 되도록 자제하였다. 녹음이 필요할 때는 감추고 하거나 이야기 중간에 잠시 화장실에 가서 기록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그들이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지나치게 연구자를 의식하면 그들은 연구자의 구미에 맞게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었다.

내면적인 이야기를 끌어내는 데 있어 친밀감을 형성하는 것은 중요한 요소이지만, 어느 경우에는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하는 것이 방해가 되기도 한다. 나의 경우 친밀감을 형성하기 위한 노력이 연구 대상자와 연구자간의 '신뢰'를 형성하는 데 있어 몇 가지 문제를 만들기도 했기 때문이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면 일하는 클럽에 놀러 가거나 그들이 비번인 날엔 다른 클럽에 가서 노는 경우도 있었다. 나는 그 시간이 속한 세계에 자연스럽게 녹아들고 싶었다. 그런데 어느 한 시점을 지나서 그 여성들을 당황하게 만들기도 했다. 나는 그들이 사용하는 속어를 곧잘 구사할 줄도 알았고, 언제나 그들이 좋아하는 음식을 시켰으며(빨리 말할 때 종종 그들의 언어 습관을 따라 문장을 사용하기보다는 아주 본질적인 단어들을 사용하며 말을 했다. 그것은 내가 집에 돌아와 영상의 연속을 글로 옮겨 가면 좋겠다고 늘 다짐하는 것이기도 한 것 같다. 함께 클럽에 놀러 가면 좋겠다고도. "술 어떻게 해 봐요? 대학원생 아니죠? 이렇게 술 잘 마시고, 잘 노는 대학생은 처음 봐요"라는 말을 듣곤 하였다. 그들의 말이 진심으로 놀라기보다는 약간의 불안감을 담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에 대해 많은 이야기들을 털어놓았기 때문이다. 자신의 가족사, 성폭력 경험, 과거와 개인적인 성생활 등 하기 어

려운 이야기를 말하고자 했던 그들에게 조심스럽게 행동했어야 했다는 생각이 든다.

이제 생각하면 당시 나는 '그들의 방식대로 존재하기'라는 '그들의 방식'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었던 것 같다. 지나치게 진지하기보다는 가볍게 다가서기, 그들이 내게서 '다름'을 느끼지 않도록 하겠다는 기대가 나의 신분을 의심하게 했던 것이다. 어떤 측면에서 그들은 나보다 삶에 대해 더욱 진지한 사람들이고, 더 건강하고 더 수줍은 사람들이었다. 이어 '그들의 방식대로 행동하려는 나의 태도에는 편견이 숨어 있었던 것이다.

또 다른 과제는 '개입'의 문제였다. 그들의 삶에 어느 정도 개입할 것인가의 문제였다. 예를 들어 승일과 미자를 각각 만나면서 서로 다른 상황을 접했다. 미자는 동거남인 승일과 곧 결혼할 것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었다. 그는 살 나가는 댄서로 일하던 클럽 생활을 정리하고 마에서 어르바이트를 하고 있었으며, 가정 주부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고, 게다가 동거남인 승일을 위해 계속 밥을 짓고 있었다. 알서 이야기했듯이 승일은 전혀 그럴 생각이 없다는 것을, 게다가 그에게는 또 다른 여자 관계가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었다.

함께 인터뷰를 진행한 동료와 나는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였다. 얼마만큼 개입할 것인가 혹은 개입하지 말아야 하는가. 전통적인 방법으로라면 연구자가 대상자에게 개입하는 것은 금물이었기 때문이다. "이건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연애 문제야, 감 놔라 대추 놔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왜 이 일이 그렇게 개인적인 문제라고 생각해? 그 남자가 미자의 돈을 가로채고 계속 빚을 지게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런 관계가 한 둘이 아니었을 테고, 앞으로도 그럴 텐데. 미자는 그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잖아. 여기 여자들이 왜 희생하는데, 희생하고 왜 계속 여기에 머물게 되는데? 그는 막막 포주보다 더한 철거미 같은 존재야. 그게 개인적인 사생활의 문제야?" 그런 구조적인 거야. 그렇게 보는 것을 개인적인 것이라고 생각하면 도대체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왜 아무런 간섭도 해서는 안 되는 거야?" "아무리 그래도 연구하는 사람이 연구 대상자의 말을 옮길 수는 없어." 우리는 토론과 고민을 거듭했다. 그리고 우리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아주 소극적인 개입을 하기로 결정하였다.

승일에게는 왜 일을 하지 않는지, 미자와의 결혼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지를 추궁했으며, 그런 이으로 미자에게 접근하면 가만히 안 두겠다는 협박(?) 취업 충고도 했다. 그러나 미자에게는 기다리는 결혼이 파기될 경우 다른 계획이 있는지 등 여러 가지 우회적인 질문을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가능성을 의식할 수 있게 유도하는 정도였다. "혹시라도 그런 일은 없어요. 말이 씨가 된다는데, 그런 말은 하지도 말아요." 나와 내 동료는 미자가 좀더 자신의 삶에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에 없는 여러 가지 소재들을 찾아보려 노력했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란 고작해야 혹시라도 닥치게 될 파일을 위해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일러주는 정도였다. 그는 잃는 것 하는 동행자인 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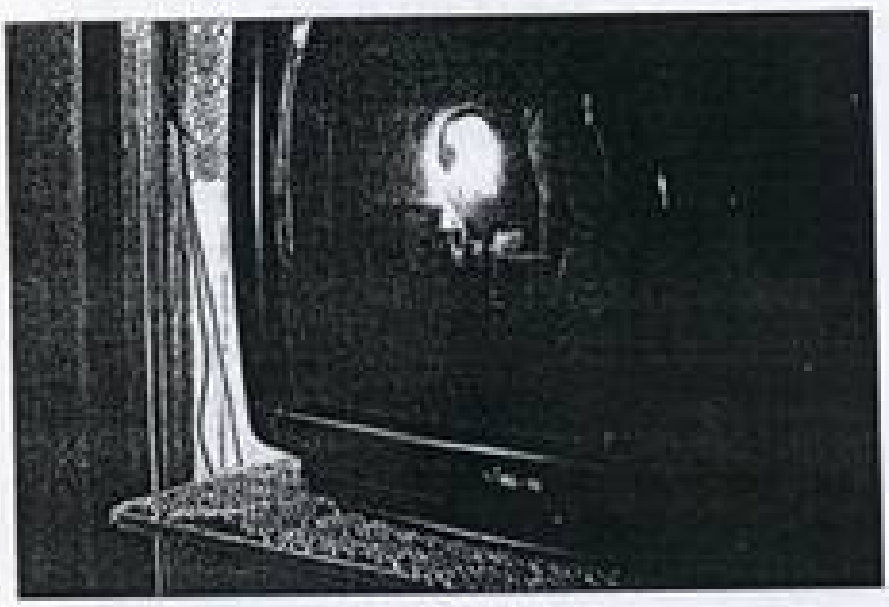
나는 인터뷰 과정에서 끌임없이 크고 작은 개입의 문제들과 직면해야 했다. 상호 작용이라는 큰 틀에서 볼 때 연구자가 지나치게 객관적인 자세를 취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가령 삶내 여성들과 만날 때 그들에게 안전한 성 관계나 성 지식에 대한 정보를 주기 위해 노력할 수도 있다. 자신의 생각을 강요해서는 안 되지만 어떤 문제에 대해 의도적으로 토론을 벌일 수도 있고, 연구자의 의도를 적극적으로 드러냄으로써 그 피드백을 얻을 수도 있다. 그러나 인터뷰 과정에서 연구자의 적극적인 개입을 통한 자료 수집은 대상자의 반응을 유도함으로써 다양한 측면 중 한 단면을 보기 위한 방법에 불과하며, 이보다 더 중요시되어야 할 것은 대상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충분히 말하고 이를 경청하는 방법일 것이다.

관점, 가설, 해석 가능성: '사실'과 '이야기' 사이에서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경험 속에서 성애에의 본질(?)을 찾고자 했던 나는 그들의 경험이 성애에를 말해 줄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다. 이러한 고정된 확신으로 인해 나는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 일차적으로 그것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놓치 버리곤 했다. 내 고정 관념대로라면 그것은 '사실'이어야 했다. 그러나 그것은 이야기이며, 이야기는 현재, 미래에 대한 기대 등에 따라 재구성되는 것이었다. 인터뷰에서 들어와 이야기를 들어보면 도무지 맥이 맞지 않은 사실들이 많았다. 그것은 어떤 이유에서든 상애에로부터 벗어난 여성들과 상애에에 머물고 있는 여성들에게서 매우 다른 대이터를 얻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내가 그들의 경험이 '이야기'로 구성된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그리고 이야기로부터 어떤 사실에 근접하고자 했다면 나는 더 충분한 이야기를 듣고자 노력했을 것이다. 대상자의 말을 충분히 듣고 다양한 해석 가능성을 충분히 열어두는 것이 '이야기'를 해석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일 것이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나는 너무나 많은 질문을 가지고 인터뷰에 들어갔다. 첫 만남에서부터 나는 나와 연구 대상자 사이에 흐르는 침묵을 견디 했으며, 말해이 경주하듯이 말꼬리를 잡으며 질문을 해댔다. 침묵을 견디는 방법을 알았더라면, 백백한 질문지로 머릿속에 가득 메우고 가지 않았더라면, 더 풍부하게 그들이 하고 살어하는 이야기를 경청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해독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인터뷰 대상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듯이, 연구자인 나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떤 질문들을 가지고 접근하는가에 따라 보이는 것을 다르게 만든다. 가령 내가 기지촌에 갔을 때 한 클럽 여성은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를 읽고 있었는데, 물리적으로 사선에 들어왔음에도 나는 그 사실을 중



인터뷰 대상자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을 보여주려는 경향이 있듯이, 연구자인 나도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요하게 보려 하지 않았다. 그 소설을 이대생이나 사무직 여성들이 읽고 있었다면 나를 그것을 아주 유심히 관찰하고 질문했을 것이다. 그러나 나는 그 여성들의 경험에서 억압적 측면만을 들고자 했었고, 그들의 기대와 자신에 대한 인식들은 대부분 허위라고 해석해 버리는 폭력을 저질렀다.

일상적으로 일어났던 어떤 경험이 너무나 억압적이었다거나 너무나 좋은 경험이었다는 이야기는 '여자라서 행복해요'라는 냉장고 광고처럼 거짓일 수도 있고 참일 수도 있다. 이야기 속에서 그 의미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 말의 맥락을 읽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다차원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그리고 다차원적인 해석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연구 대상자의 상황뿐 아니라 연구자에 대한 분석도 있어야 한다. 그것을 해석하는 연구자 또한 자신의 가족 관계, 대인 관계, 경제 상태 등의 경험과 심지어는 자신의 연애 상태, 자신이 최근에 읽고 있는 책이나 연속극 등에서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어떤 종류의 관점과 가설을 설정하고 연구에 임하는 것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겠지만, 대상자의 목소리를 더 잘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언제나 자신을 의심해야 하며, 연구 대상뿐 아니라 연구자 자신 그리고 이 둘의 상호적 관계에 대한 통찰과 분석이 필요하리라 생각한다.

계속된 시도들

상애에에 관심을 갖게 한 유인 동기는 예전이처의 만남을 통한 것이었지만, 이 문제를 나의 연구 주제로 가지기에 된 직접적인 원동력은 '경기도여자기술학원' 화재 사건으로 40여 명의 여성들이 감금된 채 목숨을 잃은 사건 때문이었다.

나는 기지촌인 S 지역을 시발점으로 D 지역, 서울의 상애에 밀집 지역인 C 지역, CH 지역, M 지역, W 지역, 몸살동, 단란주점 등으로 연구 공간을 점차 확대해 갔다. 상애에 밀집 지역의 포장마차와 간이 찻집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면 아담들하고도 낯을 익힐 수 있다. 덕분에 업소 안의 폭행에 들어가 보거나 날짜다 업까지 얻어지는 그 지역의 일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인터뷰 대상도 현재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에서부터 에이즈에 걸린 여성, 감금되었다가 달출한 여성, 성애에로부터 벗어나 결혼한 여성, 포주가 된 여성, 현지처가 된 여성, 단체 활동가가 된 여성 등으로 다양해졌다. 대상이 다양해진 만큼 그들이 기술하는 성애에의 어떤 부분은 더욱 선명해지기도 했지만, 반대로 더욱 복잡해지고 잡히지 않는 부분들이 생겨나게 되었다.

그리고 당시 나는 성을 파는 여성들의 '삶'을 찾기보다는 성애에 '문제'를 찾아다녔기 때문에 '여성 들의 경험만으로 성애에를 읽어내는 것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다. 좀더 구조적으로 볼 수 있기 위해 결혼 상담소, 주변 기계, 업소 주인, 포주, 바나, 이혼 주인, 남성 손님, 경찰, 정치가, 보건소장, 포르노 영화 감독 등과 만나게 되었고, 성애에 지역 발전을 위한 지역 정치 모임에 참석하기도 하였다. 특히 여성들의 탈(脫) 성애에를 지원하는 현장 활동가들은 성애에에 대한 지형도를 그려 주었고, 심리적으로도 많은 에너지를 실어 주었다. 성애에 영역에 더 넓게 다가서면서 나는 어떤 면에서는 여유를 얻어지고, 어떤 면에서는 더욱 초조해졌으며, 어떤 경우에는 데이터를 얻기 위해 의도적인 트러블을 만들기도 했다. 개인적으로 충당해야 하는 연구 비용 또한 만만치가 않았다. 연구비가 확보될 수 있었다면, 동료들과 함께 전국을 돌며, 전국 성애에 지도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기대도 품게 되었다.

내가 성애에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게 되면서 예전이와 나는 오히려 편안하게 만날 수 있게 되었다. 때때로 내가 직면한 연구 과정상의 문제들에 대해, 전구 예전이와 기나긴 토론을 벌이기도 하고 그의 조언을 듣기도 했다.

그는 신생아처럼 연예인 나의 부모뻘인 생물학을 나무라기도 하고 소심한 부분에 대해서는 용기를 불어넣어 주기도 하면서 내 행동을 조절해 주었다. 내가 어림해 공들여 수집한 인터뷰 자료들에 대해서도 예민하게 거침없이 간섭을 하기도 했다. "그 여자가 말한 건 순 거짓말이야! 그것도 몰라?" "그게 왜 거짓말이란 거야?" 때론 싸울 정도로 논쟁을 벌이기도 했지만, 예전이와의 대화는 보이지 않는 상대에의 구석구석까지 나를 안내해 주었다. 그런 환상적인 지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에 담사나 인터뷰에서 돌아오면 나는 여전히 앓곤 하였다.

내가 위급되는 방식: 경계 안으로 또는 밖으로

상대에 연구자가 된다는 것은 의도하는 의도하지 않든 간에 사람들의 비난을 경험해야 하는 일이다. 보이지는 않지만 사회적으로 용인되지 않는 금을 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금들은 굵고 확실한 단선이기보다는 그래프 용지처럼 다양한 방과 같아서, 나는 어떤 집점에서는 성을 파는 여성들과 동일시되어 위급되기도 하였고, 어떤 점에서는 아무런 범죄도 갖지 못하고 그들로부터 분리되어 위급되기도 하였다. 복잡한 함수 그래프의 경계 안팎을 어떻게 오가면서 내가 일지의 어딘에 머무러 있을 때 볼 수 있었다. 제다가 수 없었던, 나와 허성 차이 놓인 지점들과 접촉하게 되었다.

파출소에서의 참여 토론회

상대에 지역 답사를 마치고 나올 때면, 가끔씩 이전에 경험해 보지 못한 '놔와 충동' 같은 기분에 사로잡히곤 한다. 그것은 자기 정체성에 대한 분열이라고 할 수 있으며,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여지로 산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x 같은 느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대에 공간에서 몇

거나지 않고 관찰자로 머물기 위해서는 아무리 아니오는 상황에 부딪치더라도 그곳에서 통용되는 일정한 태도를 유지해야 한다. 그런 모습으로 돌아보기를 하다가 '일반인'이 사는 태로변으로 나올 때면 무언가가 울컥 치밀어 오르곤 했다. 어느 날 나는 상대에 멀리지인 M 지역 답사를 마치고 돌아오다가 사소한 사비로 싸움을 하게 되었다. 사실 그럴게 몽싸움을 할 만한 필연적인 이유는 없었다. 그 덕분에 연행되어 동행했던 사람들과 함께 파출소에서 날을 새웠다.

사비를 건 것은 상대방이었지만, 상대 남살이 다칠기 때문에 우리 일행은 무말 할 나위도 없이 가해자가 되어 버렸다. 우리는 경찰로부터 여자들이 왜 그 늦은 시간에 성매매 지역에 들어갔었는지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을 받았다. 당시 나와 동행한 미라(가명)라는 한 여성은 M 지역 근처에서 성매매로부터 맛어난 여성들과 함께 살면서 달라고 따뜻하게 많은 일들을 해내고 있었고, 싸움이 있었던 그 날도 나의 답사에 동행해 주었었다. 그러나 그의 활동이 파출소 책상에서는 메아리처럼 울어졌다. 아무리 설명을 해도 경찰들의 머릿속에서는 '이상한 여자들'로만 독해되는 듯이 보였다. 처음에 나는 그 여성과 같은 위치에서 함께 위급되길 원했기 때문에 내 신분을 밝히지 않으려고 했다. 그러나 사건이 점차 '형사 입건' 될 수 있는 상황으로 번져서, 비세서야 더럽 복은 머리에이 했다.

신분 사회는 아니지만 '직업'은 매우 중요한 모로 장착업다. 그 동안 M 지역을 파악하기 위해 시/구 의원 등 지역 주민들과 함께 하는 모임에 참석하여 전문을 가진 탓에 관계된 사람들이 도움을 주이고 파출소로 왔다. 내가 모 대학원생이라고 신분을 밝히자 경찰들의 태도는 매우 공손해졌다. 특히 '인터뷰'라는 울어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 같았다. 경찰들은 자신들도 인터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일선 경찰로서 성매매에 대한 의견 한 말을, 내가 찍고 있던 비디오에 그들의 얼굴이 클로즈업되었다. 경찰은 M 지

역의 수호자로서 갈아한 홍보를 준비해기도 하였다. 이 지역에는 자발적인 성매매밖에 없다, 외국인의 관광지로 유명하다, 여느 문호의 말대로 성매매는 인권침해이다 등…… 나는 이 사이에 앉아 : 1 경찰은 보던 사람들이 된 마디에 기겁하기 시작했다. 경찰을 하는 시의원으로서 외국인을 상대해야 할 때 세련하게 되는 성매매의 필요성, 외국인 수녀(천주 교회)들의 반박 논리, 다른 회복으로 불들리 밤을 새고 있는 사람까지 합세해 토론은 새벽이 되도록 계속되었고, 교대로 온 경찰은 자연스럽게 아침까지 토론을 이어갔다. 한밤의 토크쇼에 초대된 게스트처럼, 누가 피해자인지, 누가 가해자인지, 누가 경찰인지, 어떤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여기에 다들 모여 있는지를 잊어버린 듯이, 모두들 성매매에 대해 한 수 가르쳐 주려는 사람들처럼 자신들의 의견과 경험담을 열정적으로 풀어놓았다.

우리는 피해자와 합의를 보고 늦은 아침이 되어서야 풀려났다. 그날의 자료는 예상하지 못한 흥미로운 자료임에 틀림없다. 토론은 너무나 흥미로운 과정이었다. 그럼에도 나는 아주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파출소에서 맛어나면서부터 나는 조금씩 앓고 있었다. 주변 다른에 앉아 커피 한 잔을 마시고, 집에 돌아오게 된 때까지 엉뚱한 생각이 머릿속을 가득 메웠다. '결혼하고 싶다, 누구라도 좋다, 여기서 나가면 언니와 결혼을 하고 말 테다, 아니, 아무하고는 아니고, 선분이 가장 확실한 사람과……' 최종으로 결혼이란 단어를 내 몸에 투척시켜 생각해 보았다. 집에 돌아와서 어머니와 언니에게 전날 밤의 이야기를 한참 늘어놓았다. 나는 좀 떨고 있었고 몰아몰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웃기만 하셨다. "얘야, 왜 그 사람만 다치게 했니, 너두 좀 상처를 낼 걸 그랬나 보다. 말으로는 싸울 일이 있을 땐 어떻게 하는지 좀 배웠겠지?" 아무 상처 없이 돌아온 나에 대해 안심을 하셨는지 대수롭지 않게 웃으셨고, 나는 그런 어머니의 목소리를 들고서야 조금씩 쇼크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무겁던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음에도 나는 며칠

을 앓았다.

어머니가 내가 겪은 일들을 심각한 경험으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고 "그런 경험을 해냈다"며 조리 없이 위로해 준 덕분으로, 나는 멍랑 만화에서처럼 다시 일어났고, 다시 육체활동해졌으며, 인터뷰를 다닐 수 있게 되었다. 그 이후에도 '별 만 같이스러운 상황에 놀일 뻔한 적은 있었지만, 하여도 파출소에 잡혀가는 일은 없었다. 나는 나를 통제하는 법, 폭력에 노출되었을 때 나를 방어하는 법을 조금 배운 것 같다.

한참이 지난 후에야 내가 왜 그때 히스테리컬하게 '결혼'에 집착했는지를 알 수 있었다. 경찰에게서 조여 오는 '신분 없음'에 대한 추궁과 그에 대한 반항이었으리라. 우리에게 폭아된 경찰들의 질책은 폭력 사건 자체가 아니었다. 직업가가 지난 여자가 '남편 없음'으로 하여 보호자 없는 '거리의 여자'로 취급되었고, 그들은 노골적으로 우리를 함부로 대했다. 수년간을 학생 신분으로만 살아온 내게 그러한 대우는 당황스럽고 황당하고 일종의 쇼크를 유발시키는 매우 색다른 경험이었다. 취조가 끝난 뒤로는 인터뷰를 하는다고 정신이 없어서 잊지 않고 있었지만, 돌아나면서 뒤늦게 하락 검을 먹은 것이었다.

우리의 날일하은 무이셨고 초라하게 만그러졌다. 내가 나를 무엇이라 생각하고 하여금 무어하는지 간에 나를 규정하는 사회의 벽은 높았다. 그것은 마치 아무리 날랑한 레즈비언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남성들에게서 성폭력과 성희롱을 당할 수 있는 조건에 놓여 있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원인이야 어떻든 간에 결과적으로 위법한 행동을 한 상대에서는 더욱이 그러했다. 게다가 나는 그 시간에 달려와서 손을 써 줄 빵빵한 가족을 가진 것도 아니었고, 동행했던 여성 또한 그러했다. 무기력함이 선명하게 나를 짓으로 자극했다. 그러나 서장 출신의 경찰, 시의원이 오고, 동네 유지가 오고, 함께 동행했던 청년의 가족들이 오고, 외국인 수녀가 오면서 경찰들의 태도는 빠르

제 먼저 갔다. 눈앞에 또렷이 보이기 시작했다. '겁증과 인욕.' 그리고 예림의 일상에서 겪고 맞부딪쳐야 하는 '전문 업종'에 대한 확인. 거리의 여자로 취급된다는 것은 그런 것일 수 있다. 우리 사회에서 위험한 존재인 그 여성들에게는 더욱더 그러할 것이다. 이 장면으로 하여 나는 성 판매 여성들이 왜 그토록 남자에게 목숨을 거는지, 왜 착취적인 관계를 인식하지 못하는지, 포주나 기둥서방에게 애정을 느끼게 되는지에 대한 구조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팔, 여자, 택시: "내가 술집 아가씨면 아가씨지, 아저씨한테 왜 돈을 더 내야 해요?"

시흥 성매매 집결지 주변, 자정이 넘으면 택시가 줄비하게 손님을 기다리는 곳이 많다. 새벽이 되어 그 피어에서 택시를 타고 오게 되는데, 지친 몸으로 택시에 오르면 새로운 '투쟁의 시간'이 시작되곤 했다. 거기서 택시를 탈 때마다 나는 부당하게 돈을 더 요구받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때문이다. 내비게이션에 찍어 있는 대로 요금을 지불하면 서너너은 얼굴로 표정 혹은 비아냥 섞인 웃는 얼굴로, "아가씨도 그렇고 우리 같은 사람도 다 아는 처지인데……" 하면서 웃돈을 요구했다. 어떤 기사의 경우에는 아예 미터기를 켜지 않고 주행하려는 경우도 있었고, 요금을 거슬러 주려 하지 않는 택시 기사들도 있었다. 어떤 기사들은 나를 태우고 가면서 집거라에서 택시를 잡는 여성들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욕을 하면서 나를 위협하기도 하고, 어떤 이들은 요즘 어디가 물이 좋다 어느 업소에 돈 있는 손님들이 모인다 등의 정보를 주면서 슬쩍 수작을 걸기도 했다.

처음엔 너무 어처구니가 없어서 "내가 술집 아가씨면 아가씨지, 아저씨한테 왜 돈을 더 내야 해요? 세금이라서 할증료 더 내잖아요?" 하며 따지고 차 번호를 적어 신고를 하기도 했다. 점차 그들의 반응 또한 중요한 데이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택시 안에서 무작대고 대들기보다는 그들이 실컷 이야기를 할 수 있도록 내버려두고, 일단 택시를 내리고 나서 미지거나 택시 비를 흥정하고 신고하는 순서를 밟는 '야간택시 타기 노하우'를 터득하게 되었다.

일반적으로 성매매 집결지뿐 아니라 성적 서비스를 하는 여성들이 모여 사는 동네의 임대료와 물가가 다른 곳보다 비싸다. 도둑이 많아진다든지 자녀 교육을 해친다든지 하는 이유를 대지만, 구멍가게의 라면 값까지 비싸야 할 이유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오버 차지는 금기를 묵인한 대가 같은 것이다. 내가 정립한 부당한 택시 요금도 마찬가지이다. 그들은 '우리'(나를 포함한 그런 여자)를 쓰레기같이 대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생각했다. 그들은 여성에게 부과된 금기, 방심을 다니고 야한 옷차림을 한 '공공의 성적 대상'에게 성과 서비스를 제공한 자신의 '선의'와 '자존심'에 대한 대가를 당연히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이러한 요금을 받을 때 나는 똑똑한 척하면서 악착같이 따지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평소에 소심한 편이고 큰 언어든 작은 언어든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을 너무나 귀찮아하는 생각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내게 있어 작고도 중요한 '싸움'이기 때문이다. 싸움은 포주나 업주에만 국한되어 있지 않고 일상적인 구석구석까지 구조화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적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많은 여성들이 자신에게 주어지는 부당한 오버 차지를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거나 피하는 경우가 많다. 게다가 그 여성들은 경제적인 문제로 세세하게 따지는 것을 '쩨쩨하고 쪼잔한' 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들을 더욱 만만하게 보는 것 같다. "개한테도 한번 물려봐야 다시는 발로 차지 않는다"는 신념으로 나는 이 '쩨쩨하고도 쪼잔한' 투쟁에 나서곤 했다.

총·칼 대신 카메라 기록한 교육장에서: "찍지 마세요!"

2000년 어느 날 나는 성을 파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참관자로 초대되었다. 약 500명 정도의 여성들이 모여 있었고 강단 앞에 이 역사적인 행사를 목격할 내빈석이 따로 마련되어 있었다. 나를 초대한 생활 관계자는 내빈석에 앉을 것을 기대했겠지만, 내가 그곳에 앉을 이유는 없었고 나를 알아보는 사람도 없었다. 나는 그날도 아한 차림을 하고 있는 상태였고, 집을 나설 때부터 그리고 전철과 거리에서 나를 굉범하지 않은 여자로 쳐다보는 시선을 받았다. 강의실에 도착하자 자연스럽게 그 여성들의 자리에 합석 줄자이 앉았다. 그곳에 앉아 있는 여성들처럼 나도 어깨의 고개를 푹 숙이고 마치 사슴에 묶인 노예가 가롭의 마사를 보는 것처럼 움찍하지 않고 있었다. 그도 그럴 것이 결혼식장처럼 외에는 각종 신문사와 방송사에서 온 기자들의 카메라와 비디오가 분주히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얼굴이 공개되는 것은 그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것이고, 카메라는 위악이나 위협과 같은 것이다. 그나마 교육 내용은 그 여성들에게도 유용할 수 있는 것이었다. 성매매로 인한 폭력 관계는 무효라는 정보를 인권 변해된 적이 있는 여성의 증언과 변호사를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었다.

그런데 느닷없이 K 방송사 기자가 카메라를 들고 앞으로 나와 정면으로 여성들을 찍으려 했고, 앞을 서둘이 고개를 숙이고 있던 여성들이 술렁거리기 시작했다. 앞에 앉은 여자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찍지 마세요, 찍지 마세요" 했다. 여자들은 더욱 깊이 고개를 가슴까지 숙이고 흐느낀 채 신음 소리를 내고 있었다. 나는 찍지 말라고 머릭 고함을 쳤다. 우르르 여자들이 일제히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강단 앞까지 나온 기자는 변호사와 정말 그리고 여성들을 향해 당당하게 소리를 쳤다. "뭐 어떤 게 다 있어. 막말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그렇구 그런 사람들 아니야, 다 번한 인간들 아니냐구? (이런 사람들을) 찍지 말라고 하다니, 그러면 기자는 내 몰았어, 헤!" 강단에 선 여성 변호사가 계속 찍을 경우 초상권 침해 소송을 하겠다고 단호히 말하자 그는 물러났지만, 나는 그의 얼굴에서 선명하게 발기된 '증오'를 보았다. 이익 자유를 위해 거리로 나온 시민처럼 그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너무나 순수하고 정열적으로 힘오하고 증오하는 마음을 전달하고 있었다. 생생하게 살아 있는 힘오, 물론 나를 포함하여 객석의 빌레같이 무그리고 앉아 있는 인간에에 대한 것이겠지만, 집단에 속한 나를 누가 저렇게까지 증오할 수 있다는 사실은 새삼스런 놀라움이었다.

카메라를 들이대는 것은 총과 칼을 거누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다. 카메라만 아니었어도 그렇게 죄인처럼 몸을 굽히고 있지 않았을 텐데 말이다. 기자들은 훌륭한 명사들 같았고, 객석에 앉아 있는 '우리'는 집단 강간을 위협받는 시간에 갇힌 포로들 같았다. 그 기자는 어쩌면 룸살롱이나 사창가에서 신나게 놀았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은 다만 욕화였을 것이다. 개인의 욕화와 집단적 힘오의 대상, 무엇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것인지, 무엇이 몇백 명이 넘는 청중들에게 손가락질까지 해가며 저주스런 소리를 내뱉을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인지, 기자들은 냉혈하다고 하지만 대통령과 장관들 앞에서 "그렇구 그런 인간들……"을 혼문하며 그런 행동을 보일 리는 만무하다. 그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물어볼 걸 그랬나 보다. "당신이 말한 우리를 힘오할 수 있는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나와 내 동료들은 K 방송국에 항의서를 준비했다.

괴로움과 분열: 같음과 다름 사이에서

성매매 연구 경험은 내게 있어, 오래 전부터 존재해 왔던 대상화된 문제에 피와 살을 붙이고 체온을 부여하게 한 경험이었다. 만남은 내 삶과 그들의 삶의 접촉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조신한' 여성으로 그리고 학생

신분으로, 수십 년을 살았던 자기 정체성의 분열 과정이었고, 보이지 않던 경계를 발견하는 과정이었다. 한때 나는 이러한 분열을 어떤 원칙이나 당위로 극복하기 위해 노력하기도 했다. 그러나 원칙만으로 내 분열은 쉽게 극복되지 않았으며, 원칙은 또 다른 분열을 만들어 내곤 했다.

어느 날 일기에 이렇게 썼다. "글을 쓸아 보니 별거 아니었다. 돌이가 보니 다를 것도 없었다. 우리 시대의 여성의 삶의 모습 그대로이다." 어떤 날은 이렇게도 썼다. "이것은 전혀 다른 세계, 지명적으로 다른 경험이다." 심에에 지역 답사와 인터뷰를 마치고 돌아오면 분열적인 느낌 때문에 며칠 동안 멍한 상태로 지내는 경우가 많았다. 나는 생을 팔지 않아도 되는 세계에서 새 제기되는 "내 굳이 성을 파는가?"라는 질문과 성을 팔고 있는 세계에서의 "내 팔면 안 되는가?"의 반문 사이에서 만들어진 좁고 답답한 공간에 갇혀 있는 듯했다. 어느 세계에서도 시원스런 답을 찾을 수가 없었다.

이런저런 생각으로 잠이 들면 고만들은 꿈속의 언어로 다시 개입을 하곤 했다. 어느 날 밤 심에에 여성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위해서는 최소한 심에를 합법화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잠이 들었다. 꿈속으로 들어가니 내가 다니는 대학교가 은통 공창 지역으로 바뀌어 있었다. 입소의 아가씨들이 장의 동을 해우고 있고, 강의실 문 앞에다 간이용 의자에 앉아 다리를 꼰 채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대학 안에 더 이상 수업이 없다는 것을 안 나는 실망스럽고 놀란 얼굴로 그 여성들이 앉아 있는 복이 좁은 통로를 지나쳐 갔는데, 나는 그 세계로부터 완전히 소외된 듯한 느낌을 받았다. 내 꿈은 강간 신화의 전형을 이용하여 성에에 광고물을 만들어 내기도 했다. 어떤 여자가 잔뜩 겁을 먹은 채 밤길을 걷고 있었다. 뒤를 따라오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뒤를 돌아보는 것은 더욱 두려운 일이므로 여자는 더욱 속력을 냈다. 소나기처럼 더욱 빠르게 걷지만 조여 오는 어둠 속의 두려움으로 몸은 점점 움직이기 어려워졌다. 급기야 여자를 덮쳐오던 남자의 손이 그의 어깨를 덮쳤다. 이쯤 되면 '전형적인' 성폭력의 한 장면임을 직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이 모든 장면은 영점 영영일 초 사이에 펼쳐지면 화면 속으로 들어가고, 공포에 떨던 주인공은 클로즈업된 내 화면 가득 환한 미소를 보내며 이렇게 말한다. "어머, 마아리가 있잖아요!"(마아리, 마아리 에로 음성 가득) 잠시 후 남자 상우의 목소리. "마아리로 오세요. 당신의 고민을 해결해 드립니다." 여자 상우는 "밤길도 무섭지 않아요." 그리면서 다가는 끝이 난다.

이러한 꿈들을 통해 나는 내가 심에에에 대해 매우 통상적인 장막 관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내 안의 이데올로기는 여성의 성 노동을 인정하는 것은 강간 신화를 합목적으로 인정하는 것이고, 모든 여성이 사회적 지위를 얻는 것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이며, 결국 더 많은 여성이 성적 착취에 놓이게 될 것이라는 과상적인 두려움이다. 강간 신화가 팽배한 사회에서 이를 대신할 어떤 종류의 대상화와 착취를 인정하는 것은 분명 잘못된 것이다. 그러나 심에에와 착취는 동기물이 아니며 반드시 동일선상에 놓여 있는 것도 아니다.

내가 심에에를 연구하고 여성들의 삶과 조우한다는 것은 내 주변과 그 여성들의 삶 사이에서 끊임없이 '소통' 구조를 만들어 내야 한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러나 구체적인 '그들'의 이해 관계와 얼마만큼 일치되어 있는가, 나는 진정으로 그들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가는 늘 숙제로 남았다. 이것은 심에에 반대를 목적으로 구상한 논문을 쓰고 난 뒤 깊은 죄책감 같은 것을 만들어 냈다. 어떤 경우 질단이나 당위는 서로가 가진 차이를 존중하지 못하게 하고, 상호적이기보다는 일방적인 이해나 오해를 불러오기 때문이다.

처음에 시작한 심에에 연구는 예간이와의 만남으로부터 출발한 것이었고, 나는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에게 투과된 낙인이나 여성들을 이분화

하는 이중 규범을 탈피하고자 여성들이 다르지 않다는 것을 내심 강조했었다. 사실 큰 틀에서 본다면 내가 만난 여성들의 문제는 다른 여성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다. 이런 시각에서 다름을 만드는 것은 사회적 낙인과 위가 이었을 뿐이다. 그것은 오히려 선명한 것이었고 단선적으로 보였다. 여성을 이중 규범으로 이분화하지 않는다는 것, 같음, 동일성을 중요시하는 것은 내게 있어 일종의 '결단'의 문제였으며, 그러한 결단은 내게 에너지를 주고 분열적인 상황을 헤쳐 나가고 한계를 극복하는 데 어느 정도 도움을 주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일상에서 같음과 다름, 동일시와 분리의 지점은 혼재되어 있고 다만 교차점에서의 만남이 있을 뿐이었다. 일상적인 공간에서 그러한 결단만으로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이 있었고, 이런 측면들은 당위의 시각에서는 몸몸하게 독해되기 힘들었다. 심에에 공간에서조차 여성의 경험은 동일하지도 않을 뿐더러 정체성이 고정되어 있지도 않은 듯이 보였다. 그녀는 지위를 당하는 여성들이었다가, 조직 폭력배의 애인이었다가, 포주였다가, 마담이었다가, 운전마였다가, 마리마였다가, 속임수에 능란한 사기꾼이었다가…… 그들의 생애에 여러 가지의 입장이 삽입되어 나타나곤 했다. 어떤 지점의 특수한 경험만을 가리키며 '이것이 성을 파는 여성의 경험'이라고 명하기는 어려웠다. 심에에에 유입된 여성들의 대부분이 성폭력 경험이 있다는 사실도 동일성을 만드는 데는 역부족이었다. 성폭력을 당한 여성 모두가 심에에에 유입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상혼(傷痕)도 모두에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조건들에 의해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게다가 정치적으로 타음을 만들어 내려는 노력들이 사실은 차이에 기반한 정체들에 폭력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다르지 않다는 당위가 차별적인 차이를 만들어 낼 수도 있는 것이다. 특히 같음을 강조하는 접근으로 다른 경험을 하는 여성들의 선택과 경험을 존중한다는 것은 너무

나 어려운 과제였다.

그들과의 만남에서 가장 힘든 것은 가난하고 일이 보이지 않는 '계급'의 문제와 직면해야 하는 것이었다. 심에에에 오래 남아 있는 여성들은 너무나 멀악한 개인사를 가지고 있었다. 그런 그들 입에 올라온 성, 인격의 성을 논하기 전에 그들에게 있어 심에에는 경제적인 일이었다. 착취와 통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들에게 있어 '일'이었다. 내가 아무리 심에에로부터 그들이 단절되길 갈망한다 해도, 오늘 하루 돈 많이 벌기를, '건상'을 만나지 않기를, 장사가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내 분열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일 수도 있다.

나의 분열은 태석과 집필 과정에서도 발생하였다. 특히 나는 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갖는 즐거움들을 해석해 내기 힘들었다. 어떤 경우에 그들은 심에에를 '재고는 빨 보 고사하기도 하고, 남성이나 포주를 잘 다루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단순히 '허위'라고 부를 수 있는지 의심스러웠다. 나는 이 모든 분열에도 불구하고 심에에의 '통제와 착취' 구조에 대한 논문을 썼다. 그러나 나는 내가 인터뷰한 성 산업 종사자 누구에게도 내 논문을 보여줄 수가 없었다. '나는 무엇을 위해서 논문을 썼을까?' 연구 과정에서의 긴밀한 상호작용도 불구하고 내 논문이야말로 연구 대상을 소외시킨 대표적인 결과물이라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다. 성에에와 관련된 어떤 글도 더 이상 쓸 수 없었다. 나는 '배은계'를 미나기로 작심하고 한동안 잠복해 있었다.

복행하게도 논문을 쓰고 난 몇 년 후에야 나는 다시 묻는 일, 나의 경험을 뒤집어 보는 일, 학산에 대한 회의를 거듭하는 일을 계을리 하지 말아야 함을 깨달았다. 그리고 나의 연구가 내 삶의 일부이며, 절라라기보다는 하나의 '과정'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나의 기억들을 반추할 수 있게 되고

다른 의미에서 성 산업 종사자들을 만날 수 있게 되면서 나는 완전해지기 시작했다. 성을 판매하는 여성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하게 되고, 피로연스를 하고, 현장 활동가들과 더욱 긴밀한 관계망을 형성해 가면서 언제부터인가 나에게 상담해는 지연스러운 주제가 되었다. '지연스럽다'는 것은 익숙해졌다는 것을 의미하며, 또한 면죽거리고 분열적인 삶의 지점들이 출발하는 것을 염두고 내 안에 균형을 잡아 가고 있다는 하이기도 하다.

예예고 "저는 여성학을 공부하는 사람이에요"라고 말하면 그 여성들은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다. 교회나 쉼터에서뿐 아니라 여행중에도, 카페에서도, 작은 모임이나, 심지어는 본서로에서도 나는 우연치 않게 그러한 만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아마도 여성학을 한다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기대하는 바가 있는 것 같았다.

2002년 2월 일본 여행중에 우연히 만난 한 여성은 이런 말을 했다. "혜주리 예기다 하시 않는 거야? 여기(일본 술집) 있는 애들 다 예국자들이야. 필리핀 예국자들이라구. IMF 때 자들은 다 빚지고 힘들었지만, 어떻게든 달러를 만들어서 한국에 보냈어. 다 효녀들이야. 자들 못 먹으면서 못 입으면서 집에 돈 보내는 애들이라구. 좋은 음식점, 술집에 한번 못 와 보는 애들이 대부분이야." 그는 자신과 동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했다. 지금도 심예해질 정형한 많은 여성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지면에 채우고 있을지 모른다. 나는 그들의 목소리가 드러날 수 있기를, 기록되고 평가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내 안의 기억들을 들여다보게 되다: 내가 만난 힘과 즐거움

내 인생의 화두하도 같은 '성예에 로부터 도망치고 난 후에야 나는 나의 기억과 경험, 어머니, 그리고 주변 사람들의 경험을 바울릴 수 있게 되었다.

어머니는 어른이 된 여자는 모두 다 빌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그게 괴부 속 깊이 숨겨져 있다가 마음이 아프면 몸이나 입굴에 불쑥 나타나는 것뿐인데, 그럴 때는 절대 당황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나를 변추해 볼 시간도 없이 무작정 '그들'을 파악하기 위해 따어들었던 내가, 진작에 내 안의 경험을 되짚는 일을 중요시했다면 상예에 공간에서 더욱 많은 것들을 볼 수 있었으리라, 그리고 그렇게 쉽게 지쳐 버리지 않았으리라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나는 내 안에 있는 울퉁불퉁하고 울어거리는 분열들을 보다 더 편안하고 힘있게 삶의 일부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어른의 한남: "하, 그때 그랬었지……"

어린을 적 어머니는 서울에서 미장원을 경영하고 계셨다. 어머니의 손님 중 일부는 '술집 여자'들이었던 것 같다. 미장원에 놀러 가면 그 언니들을 만날 수 있었다. 그곳에서 언니들은 내게 정말로 어리운 것을 묻거나 무슨 시시껍정한 질문을 늘어놓는 법이 없었다. 언니들 중에는 엄마 몰래 내게 백 원 버리를 몇 번 쥐어 주는 이도 있었는데, 부의 내성적인 내에도 그것은 신나는 일이었다. 그 시절 그들은 내가 좋아하는 몇 안 되는 부류의 사람들이었다. 잘 웃는 낯과 싹싹한 목소리의 언니들도 있었고, 천사같이 어른 언니들도 있었다. 유난히 몸집이 작았던 나는 미장원 구석에 앉아 그 어른 언니들을 올고라이 쳐다보는 것을 좋아했다. 그 중 한 언니에게는 내가 그린 그림이나 쓴 돌시를 기꺼이 보여주기도 했다.

초등학교 3학년 어느 날엔가 나는 어른 언니의 하얀 뺨에 멍이 들어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있었다. 너무 놀라하는 나에게 어머니는 어른이 된 여자는 모두 다 멍을 가지고 있다고 했다. 어머니도 그렇고, 이모들도 그렇고, 집게리를 갈아기는 아줌마들도…… 어른이 된 모든 여자들은 다 속에 피란 자국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놀랄 일이 아니라고, 그게 괴부 속 깊이 숨겨져 있다가 마음이 아프면 몸이나 얼굴에 불쑥 나타나는 것뿐인데, 그럴 때는 절대 당황하면 안 된다고 하셨다. 당황하게 되면 온몸에 피란 멍이 퍼

다. "별들의 고향」을 보며 그 주인공과 나를 동일시하면서 또는 객관시하기나 경쟁하면서 말이다. 나의 어릴 적 정체들은 생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에 대해 매우 복잡한 감정을 갖게 만들었다. 한동안 나는 고등학교 시절 보인 단 대도기에 대해 일종의 피해감을 갖기도 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인터뷰나 답사를 나설 때 나에게는 미신에 가까운 믿음이 있었는데, 그것은 내게 무슨 일이 생기도 싫을 좌는 여성들이 나를 지켜 줄 것이라는 막연한 주술(呪術) 같은 것이었다. 아마도 그러한 믿음은 어린 시절 그 여성들과 맺은 친계로부터 생성된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

비밀을 주안: "내 논문에 의하면 업소는 성매매를 조장하는 악의 사슬이야."

미장원을 했던 어머니의 경험을 나는 것은 예적하게도 내가 성매매 논문을 쓴 되였다. 어머니의 무용담은 나를 흥분시키고 격려하였다. 어머니는 그 '술집 아가씨'들이 도망치는 것을 여러 차례 도와주기도 하였고, 다시 집에 온 여성을 구출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과 구출 작전을 펴기도 했던 것이다.

예전에는 가정 주부들이 거의 1년에 한 번 머리를 했기 때문에 미장원의 손님은 대부분 '술집 아가씨'였다고 한다. 한번은 옛날 아이 둠이 구석 업소의 갑시 속에서 어머니의 미장원을 찾아왔다. 업소측의 요구는 불량청한 단발머리 소녀들을 나이 먹어 보이게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 다른 미용사가 ('후카시'를 많이 넣은) 머리를 해준 뒤 성인들이 입는 저고리를 입힌다. 그러자 소녀는 거울을 보면서 하염없이 울더라는 것이다. 어머니가 몇 살이냐고 물으니 열 여섯 살이라고 했다. 어떻게 여기에 오게 되었느냐며, 서울에서 서울에 취직하러 무작정 올라와 직업 소개소에서 취직되기를 기다렸단다. 소개업자가 내일 당장 일자리가 생길 것처럼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갈 곳 없는 그들은 직업 소개소에서 숙식을 하며 취직이 되기를 기다렸다고 한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난 뒤 소개업자는 그들이 방 값과 먹은 음식 값을 갚아야 하며, 그것은 빚을 얻어 빌려 준 것이므로 이자를 물어야 한다고 했다. 처음에는 속임에서 정식 일을 하도록 하였으나, 어가버릴이 모자란다는 핑계를 대면서 술시중을 들게 했고, 이왕 이렇게 된 것 조금 더 본격적으로 일을 해서 빨리 빚을 갚으라고 했다는 것이었다.

열 여섯 살 여성은 계속 거울을 보며 울고 있었고, 업소에서 감시를 나온 사람들은 손님이 많은 관계로 잠시 있다 오겠다며 먼저 나갔다. 어머니는 그 틈을 타 부엌에 있는 큰 고무대야에 소녀들을 숨기 놓고, 다시 업소 사람들이 오자 "그 손님들은 바로 나갔는데요"라고 둘러댔다. 업소 사람들이 주변에 흩어져 소녀들을 찾는 것이 보였고, 다시 몇 번씩 미장원에 들어와 수색을 하기도 했다. 초마조마한 시간이 지나 밤이 되고 새벽이 되었다. 어머니는 퇴근하지 못한 채 그들과 어두운 미장원에 남아 있었다. 그들이 지금 탈출을 한다고 해도 대부분은 다시 잡혀 올 것이 뻔했다. 업소측은 대단한 조직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머니가 지키는 사람들이 포진해 있었다.

어머니의 이야기는 밤 새 시간 동안 그리고 며칠 동안 계속되었다. 벌써 30여 년이 지난 이야기인데, 내가 최근에 인터뷰한 사례들의 스토리와 별반 다른 게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는 가끔 그때 만났던 이 하는 곳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곳인지 들려주기도 했다. 몇몇 포주와 업주들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라고도 했다. 하루에 담배는 20개 이상의 손님을 받아야 하는 그들로서는 약을 먹지 않고는 버틸 수 없는 실정이라고도 했다. 어머니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과 절망의 구조적 메커니즘을 주로 말씀해 주셨는데, 어머니는 계속해서 그 여성들의 '어쩔 수 없는' 구조를 강조하셨다. 어머니가 이닌 한 여성으로서 그들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방식이 흥미롭다고 생각했는데, 이야기 곳곳에 등장하는 '어쩔 수 없다'란 표현이 힘겨웠던 어머니 세대를 대표하는 정합인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한 활동을 하는 것이지 않은 여성들을 만나면서 처보 열화를 방불케 하는 구출 작전이 수십 년간 여성들을 통해 이루어져 왔음을 알게 되었다. 아니 어쩌면 기록되거나 해석되지 않았을 뿐 성매매의 역사와 함께 오래 전부터 그런 활동이 있어 왔는지도 모른다. 이 지점은 성매매를 다루는 데 있어 과충우물하는 나에게 역사성을 부여해 주는 것이었다. 그 여성들은 그 활동의 성격으로 인해 사회에 얼굴을 내밀지는 못하지만 나 자신의 고민의 과정을 풍부하게 해주어 왔던 사람들이다.

내가 만난 몇몇 현장 활동가들은 정열적이고 편안하다고 그 느낌을 표약할 수 있을 것이다. 그들의 활동은 대단한 거동력과 순발력 그리고 지속성과 인내 등 매우 많은 분노와 평정심을 동시에 요구한다. 아무도 보아주지 않는 곳에서, 변죽거리는 한 개인에게 일어난 온갖 일에 관심과 정열을 집중시키기란 아무래도 쉬운 일처럼 보이지 않는다. 그럼에도 그들은 수십 년째 그 일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여성들이 그 일을 시작하러 들어온다.

나는 종종 현장 활동가들의 말과 행동에서 '날개' 같은 것을 발견하곤 한다. 언어의 정보적인 측면에서는 거의 아무런 의미도 없는 농담 한마디, 표정 하나가 해열제처럼 그 사람의 상처로 곧장 녹아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다. 상처받은 여성에게 사랑과 내리없는 그들의 말과 행동은 너무나 적절하고 핵심적이라는 생각이 들곤 하는데, 아마도 그것은 그들이 갖는 삶의 관점과 태도로부터 나오는 것이리라 생각한다.

한때 나는 그들을 '소모적인 것에 생을 바치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한 적도 있다.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으면 그 문제는 계속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내가 구조적인 문제에 천착해 있는 동안에도 개인은 계속해서 소외되게 마련이다. 사람들은 어떤 부분의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만을 생각하게 되고, 그 부분의 통증이 완화되면 병을 다 고쳤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오랫동안 다리가 아픈 내 친구에게 "다리는 어때?"라고 묻

현장 주변에서 만난 사람들

여성이 여성에게 힘을 실어 주는 이야기, 내가 처음 어떤 계기를 통해 만난 이야기는 E대 여학생들이 전국을 다니며 만신 메에된 여성들을 구출하는 장면이었다. 아슬아슬한 장면마다 여성으로서 어떻게 그런 활동을 할 수 있었는지, 처음에는 과장된 이야기일 수 있다는 생각을 했다. 그러나 점차

자 그 친구가 '내 다리가 아픈 게 아니고 내 가 아픈 거야'라고 말한 것을 기억한다. 여성들을 구출하고 치유하는 쉼터의 활동가들에게 상례여라는 이슈는 작은 현상에 불과할지도 모른다. 쉼터의 활동가들이 궁극적으로 집중하는 것은 상례로 인한 상처와 상흔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총체적으로 힘을 얻을 수 있도록 그들의 옆에서 그들을 지지해 주는 것이다. 쉼터에서 그들의 보살핌과 관심이 일방적이지 않다는 사실을 보고 나는 놀랐다. 활동가들이 하는 일은 쉼터를 찾아온 이들에게 그들이 새 자리를 당당하게 차지하도록 하려하는 것이다. 쉼터에서조차 일거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 그들의 일이다. 한 개인에 대해 문제 중심적이기보다는 총체적으로 다가서는 현장 활동가들의 태도는 언제나 나를 되돌아보게 한다.

사람들은 성을 파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현장 단체들에 대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화살이다"라는 말을 하곤 한다. 여전히 열악하기는 마찬가지지만 많은 사람들이 쉼터에 관여하면서 이들을 지원하고 있다. 어떤 쉼터에선 포주와 업주도 인신 매매된 여성을 구출하는 일 등 크고 작은 쉼터 일을 돕는 데 힘을 쏟는다. 그들도 여성이며, 많은 경우 상례에를 생업으로 살았던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경찰의 이미지와는 사뭇 다른 어떤 여경은 교묘한 단속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상례에 공간으로 들어가 여성들을 만나고 이들의 탈출을 지원한다. 탈출시킨 여성들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자신의 일을 상부에 보고하지 않는 경우도 허다하다. 탈출한 상례에 생존자들 얘기에 따르면 이들은 상례에 공간에서 유일하게 믿을 수 있는 사람이다. 어느 퇴직 여경의 경우에는 퇴직 후 다른 사업을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경들을 도와 성 산업에서 여성들의 탈출을 돕는 일을 계속하고 있다. 쉼터를 가족삼아 살았던 전직 성 판매 여성 중에는 대학을 나와 꽤 유망한 직종의 최고 경영자(CEO)가 된 경우도 있다. 아직 우리 사회가 그들의 과거를 노출시킬 만큼 허용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의 실명(Role Model)이 드러나기는 어렵지만, 그들은 다른 여성들의 탈 상례에를 지원하기 위해 쉼터를 물심 양면으로 돕고 있다.

몇몇 젊은 현장 활동가들은 여성들의 삶을 기록하는 일을 하고 있다. 대부분 고통이나 질곡의 이야기들이지만 그들은 고통에만 천착하지 않는다. '어떤 경우에도 삶을 팔아서는 안 된다'는 절대 원칙에 메이지 않는 쉼터들의 경우 더 많은 일들을 해내는 모습을 본다. 그것은 삶을 팔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삶을 팔지 않아도 되는 상황에 있는 사람과 같은 것을 요구해서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며, 삶을 파는 여성들이 놓인 열악한 현실에서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 또한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이다. 손님이나 업주의 협상하는 방법, 보다 안전한 성 거래 방법, 자신을 보호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 돈 모으는 법, 미용이나 약물, 건강, 법적 문제, 자녀 양육 문제 등, 특히 전적 성 판매 여성들이 의식 활동에 참여하는 쉼터들은 그들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개인에게 총체적으로 접근하는 태도가 형성되면서 그 힘들이 더욱 빛을 발한다. 그들에게 있어 성을 파는 여성들은 '불쌍한' 여성이기보다는 '열심히 살아가는' 한 여성으로 이해된다. 그들의 '상대로 활동가나 후원자는 선생님이거나 교주가 아니라 그저 '누님' 일 따름이다. 함께 살아간다는 인식, 그것이 활동가와 후원자들이 열악한 환경에서도 버티며 이 일들을 계속하게 하는 힘이 아닌가 한다.

처음에는 달위로서 시작했던 젊은 자원 봉사자들도 점차 그 태도가 변화되면서 자기 자신에게 귀기울이고 타인에게 풍요롭게 자신을 열어 가는 모습을 보이곤 한다. 나 역시도 진정으로 여성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정성을 다하는 현장 활동가들의 삶의 태도를 보면서 변화되어 왔다. 가끔 내가 근무하는 학교에 쉼터의 여성이 놀러 오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젊은 여성은 "돈이 없이도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라는 말을 남겼다. 무엇이 여성들을 강하고 행복하게 만드는지, 나는 현장 활동가들이 가진 힘을 늘 배우고 싶다. 그리고 이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다.

내가 여성의 삶을 이해하는 데 있어 아직까지 많은 부분 오해를 걷어 내지 못하고 있다 할지라도, 쉼터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전해 주고 나로 하여금 반추하게 하는 연구 예전이와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 나를 지원해 주고 격려해 주는 어머니와 현장 활동가들, 여성들에게 힘이 되어 주는 드러나지 않는 여성들의 존재는 내 안에 힘을 불어넣어 준다. 이들은 모두 힘겨운 가부장제 사회에서 자신과 타인의 행복과 자유를 위해 살아가는 '용감한 여성들'이며, 그들 곁에 선 나 또한 그러하리라 생각한다.

더 넓은 만남을 기대하며

광활한 우주 속에서 새로운 별이 발견되었다. 그것은 수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 왔던 것이었을 터이고, 발견이란 행위만으로 현재의 세상이 더 밝아졌거나 어두워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연구자는 그 별이 움직이는 법칙을 찾기 위해 자세한 관찰의 과정에 몰두할 것이며, 어떤 연구자는 단순한 관찰이나 발견을 넘어 저기 하늘에 떠 있는 별과 세상과의 관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 고심할 것이다. 대상은 저 멀리에 있고 그는 어떠한 정복을 꿈꿀지도 모른다. 세상의 밝기를 조절하기 위해, 로케트나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조명을 설치하거나, 별을 폭파하거나, 아니면 도달할 수 없는 대상에 대해 포기하거나, 그도 저도 안 되면 어린 왕자를 동경시켜 별에 '나만의 꽃'을 심는 등 대상에 대한 일방적인 관계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연구'라는 것이 '고정된 대상'에 대한 객관적 관찰이나 발견이라는 행위로 비유될 수 있거나 그와 유사한 관점으로 접근될 때,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직업"인 성을 파는 여성의 이야기가 새로울 것은 없으며, 수천만 년 전부터 존재해 온 별이 발견된 것처럼 세상이 더 밝아지거나 더 어두워질 이유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내게 있어 성매매 연구는 고정된 실체에 대한 관찰이나 발견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상과의 끊임없는 상호 작용과의 소통의 '과정'이었으며, 그 과정 안에서 문제들을 새롭게 발견하고 해결하고자 노력하면서 세상은 어두워지기도 하고 또 밝아지기도 하였다.

어떤 연구자든 연구 대상에 대한 '대상화'를 완벽하게 극복하기란 어려운 일일 것이다. 특히 주변적 집단들이 안고 있는 '문제들'을 해소하려는 목적이 강할수록 대상화의 함정은 더욱 깊어지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려 할 때조차도 거기에는 먼저 이해가 바탕되어야 한다. 이해가 바탕되지 않는 문제의 해결은 종종 그 안의 사람들을 소외시키고 더욱 열악한 환경으로 내몰며, 어떤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강화하는 데 기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자의 중요한 의무 중 하나는 세상과 연구 대상 사이에 소통 구조를 만드는 것이며, 소통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는 바로 '이해'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한 개인과 그가 가진 문제를 100퍼센트 총체적으로 이해하기는 불가능하다 할지라도, 연구자 자신의 대상에 대한 이해가 얼마나 총체적인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중심성을 언제나 의심하면서 접근해 가야 한다. 왜냐하면 어느 누구도 자신이 어떤 특정한 정체성만으로 규정되거나 특정한 방식으로 취급되면서 차별받기를 원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흔히 쉽게 이름 붙이는 '매춘 여성'도 더 이상 사랑가에만 머물지 않으며, 한 정체성으로만 고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그들은 아내이기도 하고 업주나 포주이기도 하다. 가정 주부이기도 하고, 학생이기도 하며, 레이트리스이고, 연예인이며, 댄서이고, 누구의 애인이며, 어

1) "새로운 별이 발견됐다/ 알아보니 우측했던 별이 날아났다는 것/ 바라봐지는 별들아." 함민복, 「모래알갱이가 있는 풍경」, 이해할 줄은 (문학동네, 1997).

어니, 한 집안의 가장(家長)이기도 하다.

나는 성매매 연구를 통해 모든 '진실'은 부분적이고 맥락적이며 상황적이라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다. 사실 한동안 나는 '성매매는 반대해야 한다'라는 당위 속에 매몰되어 있었다. 여성학을 하는 사람이 성매매를 연구한다는 것은 특정한 '답'을 증명하기 위해 도구적으로 여성의 경험과 삶을 가위 맞추거나 통계 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고 역동적인 현실에서 보다 정교한 질문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나는 성매매 반대 논리를 세우는 데 급급해했고, 보고싶은 것만을 보려하였으며, 내 논리 밖의 현실은 '예외적인 것'으로 취급하려 했다. 그러한 당위와 관점이 진적으로 옳은지 그른지를 떠나서, '성매매 근절'이라는 당위가 놓쳐 버린 것은 결국 현재를 살아가는 여성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이었다.

여성의 삶은 어느 지점에 고착되어 있지 않다. 결혼에서의 여성의 삶이 너무나 다양하듯이 성매매에서도 그러하다. 다양한 여성의 삶을 카오지로는 교차점들이 있을 뿐이다. 사회 운동은 주어진 상황에서 그때마다 어떤 이슈와 전략을 선택할 것인지를 결정하면서 문제들을 바깥기하고 실천의 세 판을 짜 나아간다. 거기서 다양한 차이들이 어떤 이슈나 전략에 맞춰 연대하거나 타협할 수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삶에 모델을 둔 사회 운동이 그 모순적이고 복합적인 현실과 조우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삶의 지점들과 만날 수 있으며 또 '삶의 여성학'이 될 수 있겠는가? 삶의 여성학이란 함께 공존해야 하는 갈등 구조 속에서, 갈등과 다툼의 만남과 부딪힘 속에서 모색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어떤 문제의 해결은 반복적인 부딪침을 통해 모색되는 것이지 단언과 선언으로 주어지는 것은 아닐 것이다.

성매매가 가진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부분의 진실들만이 있을 뿐이기 때문에, 억압의 기제를 공격하는 것 또한 부분적일 수밖에 없다. 어떤 금지법과 질서이 성매매를 근절할 수 있겠는가? 또 어떤 합법화라고 해서 삶을 파는 여성의 지위를 완전히 향상시킬 수 있겠는가? 일관적이고 단선적인 전략이 존재할 수는 없으며 다양한 '상황의 전략들' 만이 있을 뿐이다. 결혼 제도를 인정하는 것이 그 안에서의 폭력과 착취를 인정하는 것은 아니듯이 성매매도 마찬가지이다. 성매매에서 일어나는 폭력의 연속성 역시 다양하다. 모든 형태의 성매매가 그 자체로 착취와 폭력의 뒷가림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성매매가 사회적으로 지탄될 수 있는 바람직한 성은 아닐지라도 성 판매자들에게 그것은 '일'로 인식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인 가치 지향이나 대의명분으로 인해 여성들이 다양하고 구체적인 자신들의 경험을 말할 수 없게 되고 어떤 현실의 해결책에도 접근할 수 없게 된다면, 나는 그것을 '억압적'이라고 말하겠다. 그리고 어떤 대의(大義)를 위해 어떤 종류의 여성을 역사 속에서 배제·누락시키고, 그 존재를 인정하지 않거나 보려 하지 않으면서 뒤로 미뤄 두는 행위는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다.

여성은 더 이상 단순히 희생자로서가 아니라 자신의 일과 즐거움, 그리고 억압과 질곡을 걷어 내는 당당한 주체로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나는 성 산업에 종사하는 여성들의 목소리가—어떤 면에서는 단일하고, 어떤 면에서는 단일하지 않은—직접 드러날 수 있기를 고대한다. 그리고 우리 사회가 더 이상 듣고 싶은 것만을 듣고 보고싶은 것만을 보는 것이 아니라, 풍부한 해석의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그 만남을 기대한다. 이제 소외되어 온 그 여성들 자신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내적 외적 조건들을 조성해 나아가야 한다.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듯이 다른 여성의 삶의 방식을 존중하고, 다양한 즐거움과 다양한 억압에 귀기울이는 것을 출발점으로 하면서 말이다.

'갈보' 혹은 '성 노동자'의 인권론

엄상미

이 이야기는 한 여성의 경험과 생각에 관한 것이다. 나는 여기서 함께 이야기 나눌 여성이 어떤 삶은 시절을 보냈는지 여러 경로를 통해 이미 알고 있다. 하지만 이 글에서는 이 여성의 살아온 이야기를 하지 않기로 한다. 살아온 연혁이 중요하지 않다거나, 어미 많은 사람에게 한 여성이 '나쁜 여성'의 되기까지의 과정이 그저 그런 신파에 지나지 않기 때문은 아니다. 날 시작의 살아온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성매매를 이해하는 데 주된 요인으로 작용되지 않기를 바라는 나름의 생각에서이다. 또한 그의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할 것이며, 그가 일하고 있는 지역이나 정확한 정보에 대해서 세세하게 밝히지 않기로 한다.

인권에 관심 많은 여자

나는 여러 번 말씀인 끝에 그에게 의논하고 싶은 게 있다고 했다. 그는 딱 한 번 약속을 옮겼을 뿐, 의논하고 싶은 게 있다는 나의 말을 잊지 않고 있었다. 처음에 그는 내게 전화를 걸어 나와 한 약속을 미루었으면 좋겠다고 했다. 그의 목소리는 피곤에 지쳐 있는 듯했다. 설령 만난다고 하더라도 그런 고민주(아님, 47세, 미혼) 씨를 아주 대하고 마음속에 담아둔 제안을 설사리 꺼낼 수 있을 것 같지는 않았다. 그래서 나는 언제고 괜찮을 때에 내게 다시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과 숱하게 많은 약속을 하지만, 나는 그때마다 체념하는 버릇을 익히곤 한다.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 경우는 허다하다. 모두가 약속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것은 아니지만, 누군가와 만날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 마음을 쓰고 몸을 통제한다는 일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기 때문이다. '몸 파는 생활을 오래하며 익힌 습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여성들의 처지에서 그다지 반론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그것은 여성들이 성매매로 얻게 된 빚과 병을 비롯해 자신도 모르는 사이 쌓게 된 시간의 산물일지도 모른다. 성매매 체제 안에서 버텨 내기 위해 그렇듯 자신을 길들여 가는 것에는 함부로 가늠할 수 없는 그들만의 고단함이 배어 있다.

어느 날엔가 그는 나에게 전화를 걸어 다짜고짜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라고 했다. 오늘은 영업을 하지 않기 때문에 술과 약에 취하지 않을 것이며, 그래서 하루를 즉 쉬고 싶은 날이라고 했다. 그런 날을 나와의 약속을 지키는 것으로 보내겠다는 그의 마음씀이 고맙게 느껴졌다.

내가 그의 집으로 가겠다고 하는데도 그는 굳이 내가 있는 곳으로 왔다. 그날 나는 이 작업을 함께 해보자고 제안을 했고, 그 뒤로 우리는 오롯이 이 작업만을 위한 만남을 갖기 시작하였다.

우리가 만들고 있는 책에 대해 이야기해 주고 인터뷰 제안을 했을 때, 그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던 나와는 달리 아주 흔쾌히 이 제안을 받아들였다.

"나도 인권에 관심이 많지."

'인권'이라는 이야기가 나왔을 때 연주 씨는 단연에 그렇게 말했다. 하지

만 얼굴은 약간 수줍음을 타고 있는 듯 보였다. 사실 나는 이 인터뷰 제안을 어떻게 거절해야 할지 혼자서 여러 번 생각을 했던 터였다. 그의 입을 통해 어쩌면 내가 이미 알고 있을 그의 아픈 경험을 다시 들고, 거기에 얽힌 그의 생각을 들어야 하는 일은 그리 단순한 것이 아니다. 그로 인해 연주 씨가 그 시절의 경험을 다시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 나로 하여금 제안을 머뭇거리게 한 가장 큰 망설 중의 하나였다.

마흔 일곱 살의 연주 씨는 대화가 잘 통하는 사람이다. 다른 이의 이야기를 잘 경청하는 장점을 갖고 있으며, 때론 어눌한 어조로 때론 속사포처럼 빠른 말투로 자신의 의견을 스스럼없이 드러낸다. 그렇다고 나서거나 말에 사족을 달지도 않는다. 이야기를 나누는 동안 그의 말본새가 참 소박하다는 느낌을 자주 받곤 한다. 연주 씨는 말할 때 상대방에게 눈을 맞추며 말끝을 살짝 올리는 버릇이 있는데 마치 수줍게 동의를 구하는 듯 느껴지기도 한다. 한데 몹 이상하게도 그런 말버릇은 나로 하여금 오직 그의 얘기만을 주의 깊게 들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장치처럼 작용하는 것 같았다.

몸에 남겨지는 것과 마음에 새겨지는 것

"오늘 아침 뉴스에서 천호동 사창가 여자들의 인권위가 머시긴가에 몰려가서 막 뭐 하더라. 이렇게 마스크 쓰고, 뭐시냐, 그, 모자이크 처리는 했지만, 나는 그거 보고 어서 가슴이 벌렁벌렁 뛰는 거야. 눈이 안 떠어지더라고."

연주 씨는 서울의 천호동 지역에서 일어났던 여성들의 집단 행동에 대한 이야기를 꺼냈다. 그곳은 오래 전부터 대표적인 단속을 펼쳐 자금은 그 규모가 전에 비해 크게 줄어든, 오래된 성매매 지역 중의 하나이다. 그 지역 여성들은 지난 1월, 단속 과정에서 경찰들에게 성희롱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으로 진정서를 제출했다. 천호동 여성들의 이 같은 움직임은 당시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았다. 나는 연주 씨에게 그 뉴스 기사를 봤을 때 가장 처음으로 들었던 생각이 뭐였느냐고 물었다.

"그거 보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는 거지. 우리 같은 여자들이 저렇게 목소리를 낼 수 있구나. 그 전에는 응?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여자들보고 손가락질하고 억울한 일 당해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나 할 수 있었다니? 난 그거 보고 좀 흥분했어. 내가 막 천호동에 가 보고 싶더라고. 가서 뭘 할 수 있는 것도 아니면서 말이야."

천호동 이야기는 자연스럽게 연주 씨의 일을 묻게 된다. 천호동 여성들에 관한 기사가 보도되었을 때 나는 몇 명의 여성들로부터 그와 비슷한 얘기를 들었던 터였다. 이들은 모두 경찰들이 행한 성희롱 이부보다도 당시 여성들이 목소리를 내고 함께 움직였다는 것에 무척 큰 관심을 보였다. 어떤 과정으로 그 여성들이 집단 행동을 할 수 있었는지 궁금해 했다. 누구로부터 그 집단 행동이 시작되었는지 의문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었다. 그 의문 속에는 그것이 어쩌면 여성들 내부에서 제기된 것이 아닌, 또 다른 권력에 의해 제기되었을 수도 있다는 의혹이 내재하여 있었다. 하지만 그것은 쉽사리 확인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었다. 보도를 본,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성들이라면 자신의 경험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느낄 수 있는 문제이기도 했다. 여성들은 누구에 의해서건 자신들 안에서만 회자되던 부당한 일들이 그 여성들의 입을 통해 표출되고 알려졌다는 점에 큰 흥미를 보이는 것 같았다.

연주 씨는 내 질문이 시작되기도 전에 자신의 경험을 꺼내 놓았다.

"나도 단속 자주 걸리잖아. 자금은 그렇게 보하게 하지만 전에는 단속 걸리면 구류 살면 편잡은 사람들은 몸태들에 담배도 과우게 해주고 그랬거든. 거기 있을 때 가만 보니까 남자들이 어디 문을 열고 나오면 거기서 담배 냄새 확 밀려 나오곤 해. 그래서 거기가 담배 피우는 덴가 보구나, 하고 알 수 있는 정도란데, 아씨(아저씨) 나 담배 하나 피우게 해줄래요? 그러면 신핫 그러라고 하더라고. 근데 한 사십대쯤 돼 보이는 남잔데, 나한테 담배 주고 불도 붙여 주고 그러면서 힘찬히 피우고 나가. 응? 하면서 내 빳 가슴을 만지는 거야. 이렇게 여기를. 기분이 좋지 않지."

나는 연주 씨의 이야기를 듣던 중 성희롱이라는 낱말을 끄집어 낸다.

"그래, 그게 보니까, 그런 게 성희롱이더라고. 나는 그런 것도 성희롱이라는 걸 요즘에야 알았어. 뭐 인제는 직장에서 상사가 어떻게 해도 그게 성희롱이라며 교육도 시키고 그런다데?"

물론 모든 경찰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연주 씨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경찰에 의한 성희롱 기억을 갖고 있는 경우는 무척 많다. 그 과정에서 여성들은 굴욕감이나 수치심 따위의 느낌을 경험한다. 하지만 그것이 성희롱이라는 낱말로 정의되는 것인지를 몰랐으며, 심지어 성희롱은 남편나고 하니더도 감히 나서서 어찌해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라며 쉽고 굳게 체념해 왔을 뿐이다.

"나? 그냥 만지나 보다, 하고 있어야지, 어떻게 하겠어. 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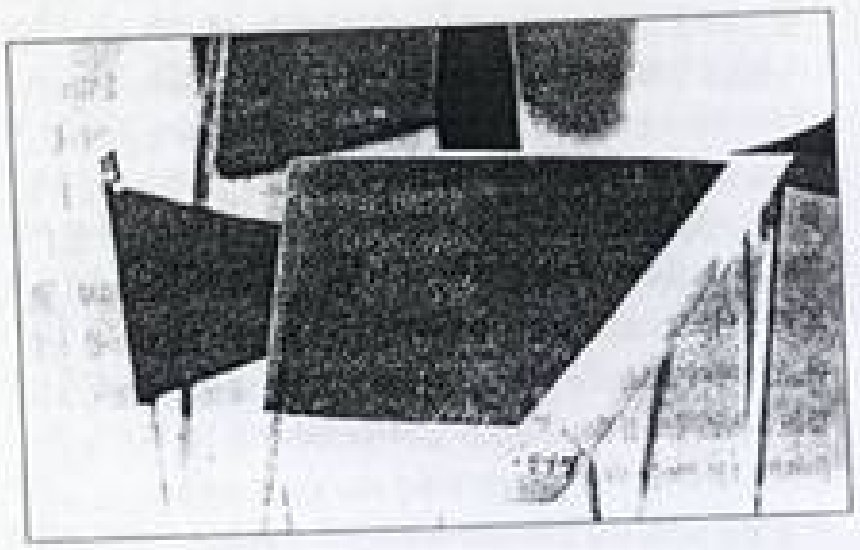
연주 씨는 그때의 경험을 그리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하는 것 같다. 만일 천호동 사건이 화제로 오르지 않았다면 떠올리지 않았을 만한 그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 듯 비춰졌다. 하지만 나는 경찰에게 당한 그런 정도의 성희롱은 쉽게 체념하면서도, 사람들이 자신들을 거냥해 내뱉은 말 몇 마디는 두고두고 기억해 내는 걸 여러 번 보았다. 연주 씨의 경우도 그랬다.

연주 씨는 영업을 하는 날과 하지 않는 날을 정확히 구분해서 생활한다. 영업을 하지 않는 날은 약(환각제)도 먹지 않으며 단골손님이 찾아와도 절대로 응하지 않는다. 요일을 정해서 쉬는 것은 아니었으며, 그저 자신의 몸이나 기분 상태에 따라 쉬는 날을 정한다. 그 쉬움이 멈추어진 날은 오지랖 떤 업 먹고 위기로 됐던 날이었다.

여성들 사이에는 서로간의 구역이 엄격히 구분되어 있다. 눈에 보이는 선으로 그어 놓는 것은 아니었지만 각자가 영업을 하기로 정한 구역에 대해서는 서로간에 침범하지 않는 것이 나름대로의 '예의'이다. 이것을 어겨 여성들 사이에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종종 있는 일이었다. 길거리에서 호객 행위 하는 여성들이 지나가는 남자의 특징, 예를 들면 '군인', '대머리', '가방', '안경', 이런 식으로 지나가는 남자의 특징을 나름의 표현으로 '공표'하면 어느덧 남자는 그같이 공표한 여성의 호객 행위 대상으로 삼아지며, 주변의 여성들은 그 남자를 자신의 호객 행위 대상에서 제외시킨다. 그것은 그 지역에서 일종의 불문율 통용되고는 했다.

마흔 일곱 살의 연주 씨처럼 나이가 많은 여성들은 인근의 쇼핑도에 있는 젊은 여성들에 비해 대목 손님에 대한 욕심 내지 않고, 요령도의 젊은 여성들이 상대하기를 꺼리는 '없어 보이는' 허름한 손님들을 주로 상대했다. 연주 씨가 살고 있는 곳의 주변은 대부분 그와 몇 나이가 많은 여성들이 서로간의 구역을 정해 영업을 했다.

일업을 하지 않던 어느 날, 누군가에 술자리를 가진 뒤 집으로 가던 연주 씨에게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이 자판기 커피를 뽑아 건넸다. 그리고 어떤 여성이 다가와 제 자기 구역에 들어와 영업을 하느냐고 따지자 이내 시비가 붙었다. 그곳은 그 여성의 영업 구역으로서 연주 씨의 집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이었다. 연주 씨는 영업을 하기 위해 서성였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그 여성은 막무가내로 따지고 들었다. 그런 게 아니라고 연주 씨도 지지 않고 설명했지만 어느새 그 여성 주변에는 함께 생활하는 같은 업소 여성들이 모여들었다. 사소한 시비는 어느새 싸움으로 이어졌고, 혼자 몰아붙였던 연주 씨가 여러 명의 여성들에게 일방적으로 폭행을 당하게 되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여자들보고 손가락질하고
어쩌다 실수 좀 해도 어디 가서 말 한마디나
할 수 있었다나? 난 그거 보고 꼭 공부했어.
내가 딱 천호동에 가 보고 싶더라고.

지하던 그였다. 그런 연주 씨가 공어여 '갈보'라는 말을 들었던 경험을 얘기할 때는 눈물까지 글썽였다. 30년 가까이 싱을 팔아 온 여성이 그것 말 한 마디에 받은 감정을 그토록 긴 시간이 지난 후에도 털어 내지 못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그리 판단한 질문이 아니라는 걸 알면서도, 몸과 맞어 준 상처의 차이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더 솔직히 표현하자면, 몸으로 당한 성희롱의 기억보다 말로 당한 성희롱이 더 큰 상처가 되었는지를 물어보았다.

"그런 것 같아. 우리들은 어떻게 응? 몸으로 응, 그리잖아. 그리니까 경찰들이 내 잣을 만져도 속으로는 그래도, 그냥, 아씨(아저씨) 빼 이래요, 하면서 넘어갈 뿐이지. 한데 그때, 갈보라는 말 들었을 때는 좀 다르더라구. 얼마나 속이 상하던지. 그런 일 있구 나서 누가 도와 줘 가지고 내가 진정서까지 썼어. 그게 결국 뭐 흐지부지되고 말았지만. 하여튼 그때, 다른 것 같아. 다르더라구."

목소리에 힘을 주어 '다르다'고 말하는 연주 씨의 얼굴은 마치 무언가를 결심이라도 한 사람처럼 결연해 보이기까지 했다.

연주 씨는 그 일을 "정말 많이 속상했던" 기억으로 떠올렸다. 그는 무언가를 표현할 때 좋은 것은 좋은 것으로, 싫은 것은 싫은 것으로, 그리운 것은 그리운 것으로 굳이다기 표현 없이 소탈하게 드러내는 사람이다. 따라서 연주 씨가 '갈보'에 얽힌 속상했던 기억을 떠올리는 일은 결코 그저 그런 일상 중의 한 토막에 지나는 것은 아니었다.

몇 년 전, 내가 아는 여성 한 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 구류 판정을 받고 경찰서 유치장 신세를 졌던 일이 있다. 서울의 오래된 상매에 익역 중의 한 곳인 C 지역에서 일하는 그는 당시 인생 과정에서 경찰로부터 "이런 패밀리 잡아넣"라는 말을 들었다. 경찰이 단속 나왔는데도 다른 여성들처럼 도망가지 않았다는 의미였다. 하지만 유치장에서 그 여성이 경찰에게 들었던

몸이 얼얼이 된 연주 씨는 분을 삭이지 못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신고를 당한 여성들은 업주를 끼고 영업을 하는 처지였는데, 이런 경우 혼자인 연주 씨가 상대적으로 져야 하는 심리적 위축감은 당연했다. 그런 차지는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불이익을 당해야 하는 빌미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쪽은 주인하지 몰려와서 뭔다갔다하고, 맞어 다친 사람은 나였는데. 그때 내가 맞어 맞아서 허리를 다쳤거든, 응? 근데 내가 경찰한테 그런 얘기를 했더니 선부터 허리 디스크 있던 거 아니냐고 그런 말하나 하고. 나한테는 뭘 어디만 물어보고, 응? 신고한 사람은 나였는데. 나보고 진단서 끊어 오라면 끊어 오라고, 말하서 하라는 식으로 틱 말하더라고. 내가 좀 울분이 났었어."

업주가 맞어서 좋은 점은 그럴 때였다. 단속이 시작될 때 미리 정보를 알고 대처한다든가, 아웃과 싸움이 났을 때 몰래리가 되어 준다든가. 하지만 연주 씨에게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모든 상황이 연주 씨를 우울하게 했는데,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연주 씨는 오래도록 지워지지 않는 상처를 받았다고 말했다.

"난 그때 얼마나 비참했는지 몰라. 세상 사람들이 우리 같은 여자들을 그렇게, 응, 그렇게 좋게 보지 않는 건 사실이지만. 이제는 뭐 냄비, 응? 업창이나 갈보 이런 말은 잘 안 쓰잖나. 응? 처라리 윤락녀나 매춘, 매춘 여성, 뭐 그런 말로 하기도 하고 그러잖나. 그래, 역시 내가 매춘 여성인 건 맞어. 맞지만 민중의 지팡이라는 경찰이 응? 처라리 억 말에서 왔다든가, 그렇게 말하면 그 동네 사람들은 다 알아먹는데, 근데 경찰들이 나보고, 아침부터 갈보년들이 와서 귀찮이라고. 나 그때 정말 비참했어."

연주 씨는 눈물을 글썽였다. 좀 전에 경찰서에서 당한 성희롱에 대해 이야기할 때는 담담하게 그저 대수로울 것 없는 일상 중의 한 토막 정도로 얘

맞은 폭행죄를 들먹이던 말보다 더 깊은 모욕감을 안겨 주었다. 경찰은 그에게 "몸 파는 주제", "개만도 못한 인간"이라는 식의 말을 해댔고, 그 여성은 "개한테 온 말이라는 나에도 개 같은 존재"라여 있었다.

그 여성에게는 경찰이 던진 비하의 말들이 단지 말로 그치지 않았다. 여전히 혼돈스러운 자기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사회적 린전의 확인, 그로 인한 좌절을 동반하기 때문이었다. 경찰로부터 귀는 "우리 같은 여자들"에 대한 비하는 몸에 상처를 남기지 않으면서도 산명하게 그들의 심리를 파고들어 그럴듯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딸이곤 했다.

그 여성은 직원들이며 수갑지들이 온통 남자뿐이던 그곳에서 분을 삭이지 못해 입고 있던 옷을 모두 벗어 버린 채 항의를 했다. 주변에서 구경하고 있었을 남자들에게 조롱과 뜨악함을 동시에 맡으며 이른바 나체 시위를 벌인 것이다. 경찰 중 한 명이 공무 집행 방해에 대한 증거로 남기겠다면서 비디오를 들고 나와 나체로 버티고 있는 그 여성을 촬영했다. 여성은 제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죽지 가 될아 이런 사실을 기자와 여성 단체에 다 알릴 테니 두고 보라며 끝임없이 더욱 악을 쓰고 불문을 두드렸다. 그러자 경찰들은 아내 시과를 하였고 여성은 옥방으로 옮겨졌다. 혼자 남겨진 여성은 사흘 동안 단식을 하며 그 비디오 테이프를 폐기하라고 요구했다. 결국 여성의 요구에 따라 촬영된 비디오 테이프는 지워졌다. 며칠 뒤 여성은 구류 기간을 마치고 밖으로 나왔지만, 그에게 남겨진 모욕감은 쉽게 회복되지 않고 있다.

나는 자기 스스로의 잘셈을 '잘 잃는 것 아니고 했던 연주 씨의 말이 떠올랐다. 그는 스스로를 힘들게 하는 나쁜 기억, 슬픈 기억들을 머리 속에서 잘 몰아낸다고 했다. 어느 때이던가, 희정부에서 나와 인연을 맺었던 나이 많은 여성 한 명은 '손님'을 받을 때 당시 유행했던 코미디 배우의 대사를 떠올리고 있다 보면 남자들의 씩씩거리는 소리와 행위에 조금은 무감해질

수 있다며 헛웃음을 흘려 보이곤 했던 것도 마음탔다. 그와 처지가 크게 다를 것 없는 연주 씨는 정작 그 '갈보'라는 말 한마디, 경찰서에서 물었던 자기와 같은 처지의 여성들을 지칭하는 그 말 한마디를 지금껏 지워 내지 못하고 있었다.

몸에 남겨지는 상처와 마음에 남겨지는 상처는 분명 깊이가 다를 터이다. 몸은 따로 떨어뜨려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닐 수도 있겠지만, 연주 씨는 어쩔 수 없는 흘러가고 있는 시간 탓에 몸에 남겨지는 상처에는 어느 정도 무감해지고, 더러는 떨쳐낼 수 있게 되었다.

'갈보', '년', '썹창'. 오랜 세월 성매매 여성을 올타리상아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말은 아주 익숙한 말이면서도 또한 낯선 말이다. 여성들이 스스로를 지칭하는 표현에 대해도 저항감을 표출하는 것에는 필시 어떤 배경이 있을 것이다. 몸은 체념했으나 마음은 아직도 그 날말과 생각에 순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가 미처 다 느끼지 못한 그들 스스로의 마음에 고스란히 살아 있는 일종의 자존감일 수 있다.

주변에서 중심으로: '성 노동자', 그 날말이 던져 준 자극

연주 씨가 그린 자신의 처지를 적극적으로 돌아볼 수 있게 된 것은 2000년 1월, 우연한 기회로 홍콩에서 열린 어느 국제 회의에 참여하면서부터였다. 중국, 한국, 필리핀, 일본 등에서 성매매와 관련된 일을 하고 있는 여성, 정확히 말하자면 '성 노동자'들과 관련 NGO 활동가들이 모였던 그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었다. 하여 여기에 그 내용을 다 소개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것은 한국을 제외한 다른 나라의 회의 참가자들 대부분은 '매춘 근절'을 논하러 모인 것이 아니라 '성 노동자의 권리'를 논하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이다.

"그 회의는 나한테 충격을 줬어. 엄청난 충격이었어. 그렇다고 그 담부터 내가 뭐 으쌰으쌰 하고 다니는 건 물론 아니었지만, 그, 그 성 노동자라는 말, 나는 그 말에 충격을 받았어."

연주 씨는 성희롱이 일상적으로 존재함에도 그것이 성희롱인지 몰랐듯이, '성 노동자'라는 말, '성 노동'이라는 개념조차 알지 못했다. 하긴 사회에서는 수시로 성매매는 노동도 뭣도 아닌 범스런 범죄라고 인식시켜 주었으므로, 자신들이 일상적으로 하고 있는 그 행위, 혹은 일상적으로 당하고 있는 일련의 행위들에 대해 새삼 돌아보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

"여자들이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 우리 나라랑 상황은 다 다르지만, 응? 그 여자들이 자기네 권리를 얘기하고, 토론하고, 난 입잡아. 우리? 우리라고 말 못해. 사회 사람들은 우리를 그렇게 보고, 하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그런 줄 알고 살고. 된호동 여자들이야 어쨌든 자기들 목소리를 내지만, 우리야 무슨 일을 당해도 그냥 체념하는 거지, 응? 근데 그 여자들은 권리를 얘기하더라고. 우리도 엄연히 노동을 하는 거라고 그러면서. 그래, 그런 것도 같더라. 우리가 하는 게 노동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말이야."

그 말을 하는 연주 씨의 얼굴은 흥분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나는 그 시절의 연주 씨에 대해서 어림풋 알고 있었다. 회의를 다녀온 뒤, 이웃에 사는 다른 여성들에게 "우리는 성 노동자이"라며 자신의 생각과 회의에서의 경험을 소리 높여 얘기하곤 했다. 물론 여성들 중에는 "이 언니가 날마다 무슨 소리여?" 싶은 사람도 많았지만, 다들는 고개를 끄덕이며 동수하곤 했다. 생각어는 연주 씨가 갖고 온 회의 자료들을 복사해 읽고 지금까지 보관하고 있는 여성도 있었다.

나는 연주 씨가 스스로의 행위를 '성 노동'으로 규정하고 있는지,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성 노동자'로 규정하고 있는지는 그리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어쩌면 그에게는 성매매를 '성 노동'으로 규정함으로써 주변을

정치의 의미 혹은 사회의 파장 따위는 별로 중요하지 않았는지도 모른다. 적어도 '갈보'보다는 듣기 좋은 말이 아닌가. 온갖 사회의 더러움은 그 한 날말에 다 응축해 놓은 듯한 '갈보', '성 노동자'라는 날말의 대생이야 학계든 아니든 간에 어쨌든 그곳에 모인 여성들 스스로 선택하고, 그들의 언어로 다시 정의 내린 말이기에 연주 씨는 그토록 큰 충격을 받았던 것이다. 만일 연주 씨가 그 회의에서 만난 사람이, 같은 처지의 여성들이 아니라 학자이거나 유명한 활동가들 뿐이었다면 그 날말을 받아들이는 데 보인 심리의 깊이는 분명 똑같지 않았을 것이다.

난 그 회의 때 거기 홍콩의 사창가에도 가 봤거든. 나 혼자 간 건 아니고 몇 명이서 같이 가는 거였는데, 어휴, 그때 열 일곱 살 먹다 여자애를 만났잖아. 걔는 혼자서 영업하면서 살고 있더라구. 근데 얼마나 불쌍하던지 내가 돌아서는데 눈물이 나더라니까. 그냥 여기 반도 안 되는(자기 팔을 들어보며) 팔에서 에프리스 하나 딸아 놓고 영업을 하고 있는 거야."

연주 씨는 그 여성을 보고 '불쌍해서' 울었다고 했다. 나는 뭐가 불쌍해서 울었느냐고 되물었다. 열 일곱 살의 여자애가 하고많은 일 놔두고 결국 예는 몸 파는 일에까지 내몰린 사연이 불쌍해서였는지, 아니면 그렇 가난하게 사는 게 불쌍했는지. 나는 어이진 연주 씨의 이야기에서 그가 '성 노동자'라는 날말을 알게 되고, 새로운 자극에 흥분되어 있었으면서도 여전히 풀리지 않는, 그가 당시 직면한 혼돈스러움의 단서를 찾아내고 싶었던 건지도 모르겠다.

"너무 가난하게 사는 것 같아서, 모르지. 그날 영업하는 데만 그런 거였는지, 딴 데 뭐가 또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본 모습은 너무 불쌍했어. 내가 말도 안 통하는데 그 애 손을 잡고 응? 내가, 응? 이러면서 뭐라고 뭐라고 얘기를 다 했어."

나는 그 말을 듣고 처음에는 연주 씨가 느낀 감정이 아마도 동류 의식일

거라고 미루어 짐작했다. 자신과 그리 처지가 다르지 않은 낯선 타국의 어린 여성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반추하며 갖게 되는 동류 의식. '성 노동자'라는 날말에서 느낀 희열은 자기 스스로 지니고 있는 모순의 또 다른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나는 몇 번이고 망명 돌려 가며 그것에 대해 질문했다. 하지만 연주 씨는 번번이 "가난하니까 불쌍하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가난한 타국 여성에게 느끼는 그 감정을 단순히 연민 그 자체의 감정으로 느끼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 말에서 애써 무언가를 끄집어 내기 위해, 논리를 관철시키려던 나의 초라한 교묘함이 부끄럽게 느껴졌다.

연주 씨는 이 회의에서 한 가지 문제 의식을 느꼈다고 했다. 당시 회국인 통역자 한 명과 NGO 활동가 한 명이 함께 동행했었는데, 국가별 보고 등 굵직한 발표는 그 NGO 활동가가 준비했다. 출국 전에 통역을 맡은 외국인 여성과 몇 번이나 만나 서로의 의사 소통 방법과 정서 등을 익힐 기회를 갖기도 했다. 그것은 다옥 원활하게 자기 역할을 수행하고 싶은 그 통역자의 제안에서 비롯되었다. 하지만 연주 씨는 연구 작업에 참여하거나 한국 상황에 관한 발표문을 함께 작성할 수 있는 기회는 갖지 못했다.

연주 씨는 그 회의에서 발표된 한국 보고서에 동의할 수가 없었다고 말했다.

"난 정말 섭섭 놀랐어. 그 애가 내 그럴게만 말할까, 다른 나라 여자들은 자기네 권리, 응? 그런 거에 대해서 발표하고 그러는데 이건 아니다라고. 도대체 왜 그랬는지, 난 거기 가서 처음 알았어. 전에 그런 보고서를 같이 본 적도 없어. 숙소에 들어가서 그 애랑 얼마나 오랫동안 토론했는지 모른다, 너."

연주 씨는 '토론'이라는 표현에 애써 힘주어 말했다. 그에게 익숙한 말이 아닌 토론이라는 생경스러운 말을 했을 정도로 그에게 이 일은 사적인 일이 아니었다. 따라서 그는 자신이 보고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데 참여할

기회가 없었다는 점 이상하게 여겼다.

사실 지금까지 국제적으로 열리는 성매매 관련 회의에 많은 여성들이 참여하시도 못했지만, 참여한다 하더라도 '증언자', '희생 당한 여성', '선의 베푼 여성'으로 참여해 왔을 뿐이다. '증언'은 삶의 과정, 즉 얼마나 어려운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어떻게 성매매로 유입되었으며 또한 현재는 어떤 불이익을 겪고 있는지 등의 내용으로 채워지곤 했다.

나는 가끔 이제 더 이상의 증언은 사족에 불과할지 모른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지금까지 경험에 비추어보면 증언은 그 유효학을 인정받지 못해서인지 증언하는 이의 지구력을 필요로 할 만큼 여러 분야에서 제계 없이 되풀이되어 왔다. 더러는 증언하는 과정에서 증언자 스스로 모멸감과 심리적 손상감을 입기도 했다. 또한 그들의 눈에는 증언의 대가로 보여지야 할 '변화'가 쉽게 감지되지 않기에 과정이 끝나면 증언자가 제공했던 감정들은 오롯이 스스로의 몫으로 남을 뿐이었다. 2001년 말에 한 기지촌 여성 운동 단체가 다른 몇몇 기관과 공동으로 성매매 방지를 위한 연구 작업을 진행하며 여성들이 증언자가 아니라 '연구자'로 참여하는 걸 보았다. 물론 실어의 적이 어느 정도였는지는 알 수 없으나 그런 시도는 매우 바람직한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 여성에 대한 뿌리 깊은 편견이 존재하는 한국에서 스스로의 삶을 사회에 드러낸다는 것은 대단히 용기가 필요한 일이다. 이들이 그런 용기를 보일 수 있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개인과 단체들이 도움을 주었으며, 또한 연복적으로 용기를 북돋워 주었기 때문이다. '나 같은 여자'에게 보인 관심과 실질적인 도움에 대한 일종의 답례 정도로 시작되었을 수도 있다.

배경에 어떤 심리 기제가 작용되었다 하더라도 그들 모두의 마음속에는 '제발 어제는 좀 떠귀있으면' 하는 바람들이 존재한다. 물론 각각의 바람은 조금씩 차이가 있겠으나, 삶을 파는 여성에 대한 편견이 걸어들고, 성매매

보존 유 없었던 것이다.

모순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젯밤은 경찰에 의한 성희롱 기억을 떠올리며 여 자기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 대해 얘기했는데, 이제는 또 모두가 다 그런 건 아니라고 말했다. 그것은 연주 씨의 편견 없는 마음이기도 하며, 또는 스스로 정리되지 않는 혼란스러운 과정의 표출이기도 했다. 분명한 것은, 그것이 편견 없는 마음이든 혼란의 표출이든 간에, 지금껏 우리가 상대해를 논할 때 그렇듯 한 가지 시각만 고집했다는 사실이다.

기지촌 여성으로서의 삶을 적극적으로 증언해 온 한 여성은 이처럼 여성들의 상황을 획일화된 시각에서 이해하려는 것에 거의 분노에 가까운 표출을 보였던 적이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그런 여성'들이 지니고 있는 거친 기질의 하나, 굴곡 있는 감정 변화의 한 토막 정도로 생각을 하기도 했다. 그는 당시 관련 NGO 단체들 속에 만연해 있던 '미군은 나쁘다', '기지촌 여성은 불쌍하다'는 이분법적인 기존의 시각에 제동을 걸었다. 어쩌면 연주 씨 역시 당시 그 여성의 분제 제기와 비슷한 의견이었으나 그것이 미처 언어로 정리되어 표현되지 못했던 것이다.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사회에서는 성매매에 대한 논의가 '합법화' 같 단순한 논쟁으로 불거지는 경향이 있다. 연주 씨의 국제 회의 참여 경험은 비공개라는 제한점이 있기는 했지만, 실제 그 회의에서 논의된 '성 노동자들의 권리'에 대한 내용이 사회 일반에 공개된다 하더라도 그것은 위험한 행위로 치부될지 모른다. 성을 파는 여성들의 인권을 논한다는 것은 어지없어 논쟁에 임하는 어느 한 부류의 손을 들어주는 행위가 되어 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깊은 모순은 연주 씨 역시 회의에서 보고된 한국 상황에 대해 무엇이 반론할 여지가 그리 많지 않음을 알고 있다는 것이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존재한다. 그런 상황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은 상황이 존재한다. 그러나 그 중 어느 부류는

현장에서 느끼는 무당한 여러 가지 것들이 떠뀌며, 더러는 상대에가 아닌 다른 삶의 모습을 가질 수 있게 되는 등의 변화를 염두에 둔다. 하지만 세상은 가진 기구의 새로운 모델이 개발되듯 그렇게 빠른 속도로 변하지 않는다. 스스로가 인생을 걸고 하는 증언의 대가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분명 개인적인 바람에서 출발하는 것이지만 그것은 결코 개인적인 것에 그치지 않는다. 그들이 지니고 있는 개인적인 욕구와 바람은 또한 지극히 사회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 이제 필요한 것은 증언이 아니라 자유로운 '말'이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할 수 있는 통로와 말을 하고 싶어하는 그들 스스로의 욕구이며, 그 말을 들을 수 있는 주변의 자세인 것이다.

연주 씨는 다른 나라 여성들의 모습을 보며 자신이 증언자로서가 아니라 회의자로 참여했음을 인식하기 시작했고, 따라서 그런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주변인으로 밀려나 있는 것을 이해할 수 없었다.

"참 이상했어. 한국 여자들은 다 불쌍하고, 다 성 노예로 팔려 다니고, 맞고 죽은 여자가 있다 그러고. 몇몇 죽은 여자가 왜 없겠어? 불쌍한 여자도 있고, 진짜, 응? 팔려 다니는 여자도 있지. 그치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 모든 집안이 다 나쁜 게 아니고, 모든 남자가 다 나쁜 게 아니고, 모든 포주가 다 나쁜 게 아니야. 난 지금이야 이렇게 혼자서 프, 프, 프리랜서, 응? 프리랜서로 일하지만 집에 주인 집에서 일했을 때도 그런 거 없었어. 밥 때 되면 같이 밥 먹고, 혼날 나가면 정해진 대로 갈라서 갖고, 그냥 남들 하는 대로 하고, 난 그거 참 이상하다고 생각했어."

그 자리에서 연주 씨는 한국 상황에 대한 보고 내용을 처음으로 들으며 이해할 수 없음과 수치스러움을 동시에 느꼈다. '다 그런 건 아닌데'라는 생각에서 그 내용을 수긍할 수 없었고, '다른 나라 여자들은 당당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나라만 저런 얘기를 할까' 하는 데서 오는 수치스러움이 교차했다. 그런 까닭으로 연주 씨는 그 NGO 활동가와 그토록 한참 동안이나

최소한의 권리마저 상실당한 채 살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을 그 역시 모르지 않고 있었다.

1퍼센트의 절망과 희망

연주 씨는 스스로 밝혔듯이 업주의 힘을 빌리지 않고 혼자서 생활하며 일한다. 업주에게 속해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여러 가지 문제를 혼자서 감당해야 한다. 단속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통로가 없기도 하지만, 단속에 걸리도 속수무책일 수밖에 없다. 종종 어떠도는 화투판에서 사소한 시비라도 붙을라치면 '주인' 없고 남편 없는 자신이 일방적으로 당해야 하는 경우도 있었다.

연주 씨는 화투판의 사소한 시비 끝에 흥한 무릎이 맞았던 적이 있다. 술과 약에 취한, 유독 작은 체구의 연주 씨가 몇 마디 대응하자 그 업주와 함께 살고 있던 젊은 남자가 나서서 때리기 시작했다. 그때 참 많이도 맞았다고 했다. 연주 씨에게 그런 일은 가끔 벌어졌다. 자신도 원하지 않았던 일이, 어느 순간 그안감에서 밀어져 있고는 했다. 그런 상황의 한가운데를 지키다 보면 죽고 싶은 마음을 더 이상 누르고 있지 못하게 될 때도 더러 있었다. 또한 '손님'의 처지로 '연예' 상대자가 되는 남자들에게서 달랠지도 모를 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는 것은 혼자서 생활하는 여성들에게 치명적인 두려움을 주기도 한다. 연주 씨의 경우는 그것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마음먹으면 숨어지는 기억을 여러에서 몰아낼 수 있다는 그의 특기도, 그 같은 두려움 앞에서는 한없이 허물어지고 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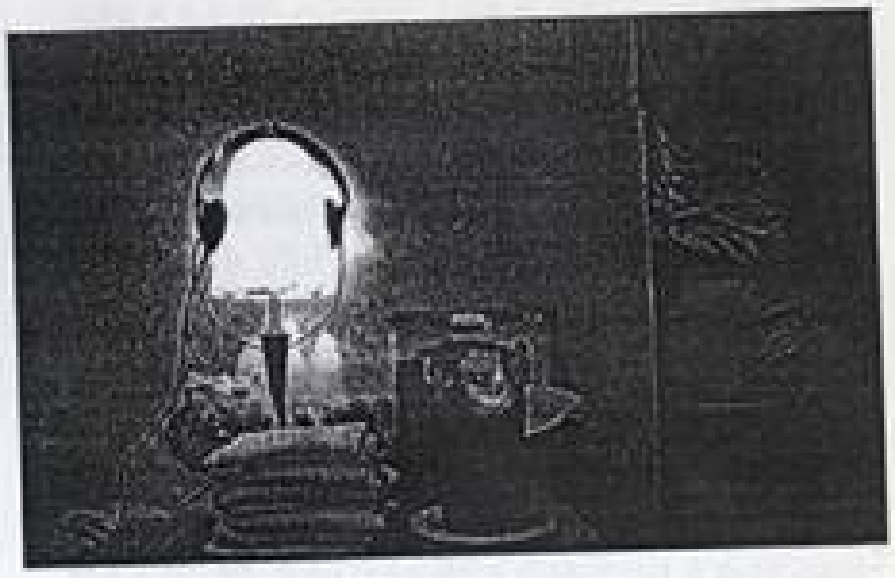
2000년 9월 어느 날, 새벽 4시경에 연주 씨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영업을 하고 있었다. 이제 몇 시간만 있으면 들어가서 자도 되겠다는 생각을 떠올릴 수도 있는 시간이었다. 그 즈음 한 남자와 간단히 흥정을 마치고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그때의 룸살 가격은 1만 원이었다.

남자답 방으로 안내하지마자 남자는 무작대고 연주 씨의 얼굴에 주먹질을 하고 바닥에 쓰러뜨렸다. 그러곤 문을 닫아 잠갔고, 옷부터 벗으라고 했다. 이날 김우연 씨는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전 알고 있다. 그래, 차라리 빨리 면해 버리고 돌아가려! 생각하며 얼른 자리에서 일어나 시키는 대로 옷을 벗었다. 남자는 연주 씨를 침대에 쓰러뜨린 뒤 상체에 이불을 덮고 어퍼컷다. 남자는 연주 씨가 집 곳곳에 놓아 둔 남자 구두를 보고는 집에 다른 사람이 살고 있다고 생각을 한 모양이었다. 필소 연주 씨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부러 남자 구두를 몇 켤레 서너가 집안 곳곳에 놓아두고 지낸다. 남자의 폭력과 '면해될 돈 연주 씨의 벗거진 아랫도리를 참해 쉬지 않고 이어졌다. 그런 상황은 아침 9시까지 계속 이어졌다. 그날 연주 씨가 겪은 사건은 이웃의 여성들에게도 많은 충격을 주었고, 연주 씨는 이 일로 오랫동안 멀쩡 신세를 지이만 했다.

나는 당시, 연주 씨가 병원에 입원한 다음 날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으로 왕아갔다. 그의 얼굴은 처아 똑바로 쳐다볼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 되어 있었다. 거의 시커멓게 피멍이 들어 있는 연주 씨의 얼굴은 짓이겨졌다는 표현이 맞을 정도로 만신창이가 되어 있었다. 이 사람이 내가 알고 있는, 사랑스럽게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았던 그 연주 씨의 얼굴인지 믿어지지 않았다.

난 그랬어. 내가 죽지 않았구나, 이 생각만 들더라고. 그냥 그랬어. 내가 살았구나, 그 생각. 참 이상해. 옛날에는 응? 죽으려고 많이 그랬어. 임잡아. 그게 언제더라? 그 화두란에서 싸움 나고 살핏 두들겨 맞은 다음이었을 거야, 아마. 내 짐물들, 봉상들 여기 이 자리에(화장대를 가리키며) 다 모아 놓고, 여기 앞쪽 주어나에 봉알(한다에) 잔뜩 넣어 가지고 한강에 갔던 거. 난 그때 정말 결심하고 간 거였는데, 이제는 내가 그렇게 하지 않지. 살고 죽는



"내 옵션에 죄가 없지. 약 먹는 거, 어떤 때는 내 위에서 선호를 보내는 것 같아. 그러면서 또 먹지. 안 먹고도 나가 봤는데 못하겠어. 습관이 무서워. 그런 것도 죄지."

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그때가 죽으려고 한참 갔다 온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생긴 일인데, 딱 그 생각 들더라. 내가 살았구나. 딴 생각은 없지도 않았어."

연주 씨는 이때의 기억을 떠올리면서 남자에 대한 자신의 감정을 그리 많이 얘기하지 않았다. 아니 거의 하지 않았다.

"그냥 그때 그러더라구. 나보고, 나중에 내가 병원비 물어 줄 테니까 오늘은 네가 나한테 좀 맞아라, 그러더라구."

오늘은 내가 나한테 좀 맞아라. 연주 씨는 이 말을 선명하게 기억하고 있었다. 다섯 시간 동안 남자가 내뱉은 말 중 기억나는 것이라고는 욕설을 제외하고 그 말이 전부였다. 오늘은 내가 나한테 좀 맞아라.

연주 씨는 오히려 자신을 폭행한 그 남자에게 우리가 모르는 그만의 특별한 사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남자들이 그런 게 있어. 여기 뭐 면해하고 싶어서, 그 상처를 못 참으니까 오는 것도 있겠지만 뭐랄까, 좀, 내가 이런 생활하면서 느낀 건, 음? 이런 데 오면 우리 같은 여자들, 음? 좀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음? 사회에서 그런 풀만 같은 거, 이렇게 딱 말해 있는 게 있으니까 그러는 거 같기도 하고."

남자가 내뱉었다는 그 말에 대해 다시 질문했을 때, 연주 씨는 직접적인 대답 대신 그곳에서 오랜 동안 생활하면서 갖게 된 생각 하나를 말했다. 나는 이어서 "좀 그렇게 할 수 있는" 남자들의 무언가가 대체 무엇인지에 대해 다시 물었다.

"그런 거, 집에서는 못하는 그런 거, 뭐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나보다 아무리 나이가 어려도 야, 너, 뭐 욕하기도 하고. 가끔음? 이상한 사람 걸리면 음? 좀 심하게도 하고. 나도 잘은 모르지만, 그런 게 있는가봐, 남자들은. 그 남자에도 제네 아버지가 군인이래, 그러니까, 좀, 그랬을 거야. 응, 그랬

었지."

다섯 시간 동안 남자는 때리고, 욕하고, 면해하고, 또 때리고, 욕하고, 면해하기를 되풀이했다. 나는 연주 씨의 시간을 처음 들었을 때 성폭행이라는 낱말이 떠올랐다. 그건 성을 파는 여성들에게 행해지는 성폭행인 게 분명했지만, 나는 그런 나의 생각을 내색하지는 않았다.

연주 씨는 그녀가 자기 상체에 이불이 덮여져 있었기에 상처가 그만 했을 거라고 했다. 그는 자기가 생활하는 방과 손님 받는 방을 엄격히 구분했는데, 그 방에는 전화기가 없었기에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없었다. 아마 전화기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런 상황에서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었을 것이다.

"어휴, 나중에는 정신이 하나도 없는 거야. 너, 출근할 때 안 됐냐? 출근해야지, 그럼, 출근은 해야지, 이렇게 꼬드겼어. 아침 9시가 넘었을 거야, 그때가, 음? 그 남자가 언제 가더라고, 나는 그 남자가 가는 게 너무 고마워서 계단 입구까지 따라 나갔어. 그냥 정신은 하나도 없으면서도, 응? 이렇게 딱? 아침 햇살이 조금 들어오는데, 글로 나가는 그 남자가 그렇게 고맙더라구."

남자는 나가면서 연주 씨의 얼굴을 보았다. 일그러진 그의 얼굴을 보고는 "나중에 내가 병원비 갚다 줄게"라는 말을 남긴 채 계단으로 올라섰다. 그때, 건물 입구에서는 같은 건물에서 칠물점을 운영하는 아저씨의 얼굴이 보였다. 다행히 그도 연주 씨를 보았다. 한눈에 연주 씨의 얼굴이 엉망이 되어 있는 걸 알아본 그는 앞서 나가고 있는 남자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큰소리로 "연주야! 너 무슨 일이야! 얼굴이 왜 그 모양이야!"라고 다그쳐 물었다. 연주 씨는 그 소리에 정신이 번쩍 들어서 그제야 "오빠! 나 좀 살려 줘! 이 사람이야, 이 사람이 그랬어!"라며 소리를 질렀다. 남자는 곧바로 칠물점 아저씨의 손에 잡혔고 그렇게 해서 경찰에 넘기지게 되었다. 그 남자는 인

근 저녁의 직장에 다니고 있던 스물 여섯 살의 평범한 젊은이였다.

파출소에서 연주 씨는 자신이 겪은 상황을 그대로 얘기했다. 연주 씨의 이야기를 토대로, 그 남자는 손님으로 들었던 사람이며, 그에게 다섯 시간 동안 폭행을 당했다는 내용이 조서로 꾸며졌다. 이웃의 아는 언니 한 명이 소식을 듣고 급히 파출소로 달려왔는데, 만신창이가 된 연주 씨의 얼굴을 보고 기가 막혔던지, "어떻게 약한 여자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느냐?"고 남자에게 따졌다. 그러자 남자는 "세상자는 몸전하시 무슨 얘기 하는 거냐"며 오히려 큰소리를 쳤다. 그 말에 연주 씨와 일행은 더욱 화가 났고, 그래서 이 사건은 정식으로 경찰서까지 올라가 조사를 받게 되었다.

경찰서에서 또다시 조사를 받게 된 연주 씨는 파출소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했던 말을 번복했다. 자신은 "그런 여자가 아니며, 따라서 그 남자와 윤락 행위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 그 남자는 문이 열리는 틈을 타 몰래 들어와서는 무작정 옷을 벗기고 폭행한 것이다."라는 새로운 말을 했다.

연주 씨는 그 말이 '거짓말'이었다고 표현했다. 처음에 나는 그 상황을 제대로 어필하지 못했는데, 자신이 돌려 준 그 상황을 내가 '명확한 거짓말'로 어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안타까워하며 재차 설명해 주었다.

"그때 내가 거짓말을 한 거라니까. 응?" 남들이, 나를 아는 사람들이 이걸 봤을 때 연주 지년이 꼬시고 데려갔으면서 윤락 행위 안 한 거라고 거짓말을 하는 거다, 아니면 안 되잖아. 응? 그 남자가 뭐를 좋아하는 사람이어서 이 옷을 본 수도 있겠는데, 그럼 이 아줌마가 거짓말한다. 응? 그럼 거 아냐. 니가 내 얘기를 뭐으로 쓰는 것은 자유지만 어쨌든 거짓말이야."

연주 씨는 거짓말이라는 말에 힘을 주어 말 면이고 되풀이했다. 그 거짓말의 배경은 이러했다.

"그때 한 여섯 시간 동안 조사를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코뼈까지 멍멍이 되고 머리는 헤멀지, 거기에 윤락행위법(윤락행위등방지법)까지 보태지면

돼가 달라진다고 그러더라고. 난 그런 상태에서 또 그 몸을 해갖고 들어가서 구류를 살아야 되는 거야. 응? 그래서 경찰서에 가서는 그 남자가 그냥 들어온 거라고 우겼어. 거짓말을 한 거지. 사실은 내가 데리고 들어간 건데. 내가 데리고 가기는 했고. 응? 임팔적으로 맞기는 했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어. 그 윤락행위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비단 연주 씨만의 겪는 문제가 아니었다. 여성들이 '손님'에게 부당한 일을 당하거나 폭행 등 치명적인 일을 당해도 스스로 경찰에 신고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었다. 달랑에 직면한 문제가 폭행이나 그에 일어난 사건이라 해도 그것이 성매매 관계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게 밝혀지면 남자와 여자 둘 다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었다. 이른바 쌍벌죄가 적용되는 것이었다. 연주 씨도 그걸 알고 있었기에 파출소에서의 진술 내용을 번복한 것이며, 그것에 대해 지금까지도 도덕적으로 떳떳하지 못했다며 자조하곤 했다.

파출소에서의 내용이 번복되자 경찰서에서의 조사 과정은 더욱 길어졌다.

"경찰서에서 내가 하도 일관되게 말하니까, 응? 그럼 뭐 먹고 사냐고 묻더라고. 나는 내 집 얻어서 살고 있는데, 엄마 권까지 아가씨들을 대리고 있었다. 지금은 다 나가고 없어서 가끔 펨프 일을 보며 소개만 시켜 줄 뿐이다, 먹고살라고 그러는 거다, 하지만 그날은 그냥 아는 사람 만나러 나갔다 들어오는 길이었다, 이렇게 돌려댔어. 물론 펨프도 그 윤락행위법에 걸리는 거 나도 알고 있어, 하지만, 응? 내가 직접 윤락 행위를 했다고는 절대로 안 했어."

경찰들도 연주 씨의 말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조사를 하던 담당 경찰이나 주위의 몇몇 경찰은 이미 상해에 현장의 연주 씨를 알고 있는 이들이었다. 하지만 워낙 연주 씨가 당한 폭행의 정도가 심했기에 사건

은 일단락될 기미가 보였다. 더욱이 그 남자 역시 술에 많이 취해 있던 상태였기 때문에 스스로도 제대로 확신해 내지 못했다. 결국 연주 씨의 집 팀세계약서와 사건을 담당해 조사 과정은 일단락되었고, 연주 씨는 명확에 인위했으며, 합의를 통해 사건은 종결이 났다.

그리고 1년 뒤, 연주 씨는 같은 공간에서 낯모르는 남자에게 또다시 폭행을 당했다. 지난 번 그 사건이 일어났던 때와 같은 계절 4시쯤이었다. 어떤 면에도 그날과 같은 상황이었다. 연주 씨는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제 앞에 선 남자에게 4만 원의 화대 값을 '악속' 받고 방으로 함께 갔다. 연주 씨 손에 이끌려 들어간 남자는 방으로 들어서자마자 무작정 여자를 때리기 시작했다. 꼭 1년 전과 비슷했다. 폭행은 한 시간 남짓 계속 이어졌다. 그 순간 연주 씨는 '내가 어떻게 죽는 거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

"근데, 이건 좀 그렇더라구. 내가 뱀에 든 것도 아니고, 차 사고도 아니고, 그냥 그렇게 죽는다는 건 너무 서글퍼. 그리, 난 인간이야. 1년 전에 그 사건이 났을 때도 응? 그 상황을 원망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남자를 미워하는 마음을 갖지도 않았는데, 근데 나중에 정신 들고 보니까 내가 안 죽고 살아 있더라구. 난 그게 고마운 거야."

이유 없는 매질이 이어지는 동안 연주 씨는 언뜻언뜻 스스로를 탓했다. 악에 정고, 흥정하던 남자의 얼굴을 제대로 보지 못했으며, 또다시 부주의했던 자신을.

남자가 메리기를 멈추고 밖으로 나가자 비로소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 남자는 곧 다시 들어와 방금 전처럼 다시 환풍을 때린 후에야 나갔다. 그때 연주 씨는 그가 1년 전의 그 남자라는 걸 느꼈다. 남자가 문을 열고 다시 내어왔을 때, 거리의 불빛 및 자태도 남자와 함께 밀치고 들어왔었다. 그때 남자의 모습이 열쇳 및 사이로 비춰졌다. 1년 전 그 남자 정도의 키, 그 정도의 실루엣이 느낌으로 살아오는 것 같았다. 연주 씨는 그가 1년

전의 그 남자라는 생각이 들자 걷잡을 수 없는 공포감에 사로잡혔다. 그리곤 기억이 나지 않았다. 그 이후의 시간들이.

부엌식탁에 주변에 맞어져 있는 핸드폰을 집어들고 어딘가로 전화를 건 뒤 의식을 잃었다. 그리고 눈을 떠보니 병원이었다. 연주 씨의 전화를 받은 건 생소그여 전 알고 지내는 이웃의 분 임주입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폐 그 언니한테 전화를 했는지 모르겠어. 경찰도 있고, 119도 있는데 말이야. 그치? 내가 정신이 없던 상태에서도 그 언니를 제일 먼저 찾았다라고."

그 업주는 전화를 끊자마자 다른 여성 한 명과 함께 연주 씨의 집으로 가 달려져 있는 상황을 보고는 자기도 모르게 두 눈을 휘끔 감아 버렸다고 했다. 피비린내가 올라 넘칠 정도로 연주 씨가 쓰러져 있는 복도에는 온통 피투성이였다. 그래서 곧바로 119에 연락해 병원으로 옮긴 뒤 경찰에 신고를 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연주 씨는 1년 전에도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사고를 당한 적이 있다는 말을 했다. 물론 연주 씨 가슴속에서는 '그 남자 같아요, 맞아요, 그 남자인가봐요'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그를 비웃거는 것만으로도 연주 씨의 가슴은 터져 버릴 것 같았다. 경찰은 연주 씨가 입원해 있는 동안 1년 전의 남자를 소환해 심문을 했지만 별다른 단서를 찾아내지 못해 돌려보냈고, 결국 연주 씨를 폭행한 남자는 찾지 못한 채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두 달이 지난 어느 날, 연주 씨는 경찰로부터 1년 전의 그 남자와 대질 심문을 해야 하니 급히 나와 달라는 연락을 받았다. 연주 씨는 떨리는 마음으로 그 남자와 마주 대하고 앉게 되었다.

"어휴, 가슴이 막 얼마나 콩닥거렸는지 몰라. 그래도 그 남자 얼굴을 똑바로 봤어. 그 남자는 이렇게 눈을 내리깔고 절대로 나한테 눈을 못 맞추더라

고, 난 그 남자라고 99퍼센트 확신했어. 하지만, 난? 솔? 1퍼센트를 확신할 수가 없었어. 왜냐하면 내가 얼굴을 똑바로 봤던 것은 아니니까. 솔? 내가 또 착각 하게 했었을 거고. 난 지금도 그때 거의 나 아닐게 싶을에 떠올리면 그 남자의 체구며, 느낌, 그런 것, 많이 축소했지만, 그 1퍼센트 때문에 그가 아니면 멀쩡한 사람을 고생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정말한테 아닙니다. 100퍼센트 장담할 수가 없네요. 그리고 됐어. 그때 내가 얼마나 멀었는지 몰라. 부끄럽지, 다시 본다는 게."

대질 심문을 마친 뒤 연주 씨는 그 일을 빨리 잊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하지만 그것은 마음처럼 되지 않았다. 또다시 누군가가 불쑥 나타나 자신에게 아무 말도 없이 해칠을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가시질 않았다. 그 일이 있은 뒤 연주 씨는 혼자 있는 날이 정말 많아졌다.

연주 씨는 두 남자가 혹은 그 남자가 왜 자신을 폭행했는지 여전히 그 까닭을 모르고 있다. 하지만 그는 단 한 번도 그들에 대한 혹은 그에 대한 분노를 드러내 놓고 표현한 적이 없다. 오히려 그 사건은 자신의 실수에서 비롯된 거라며 몹시도 괴로워 했다. 그날은 어느 남과 마찬가지로 약을 한 상태였고, 게다가 술에지 마셨으며, 전에 그런 사고를 당한 적이 있으면서도 조심하지 못한 자신 탓으로 돌렸다. 연주 씨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쉽게 화를 내거나 공격하게 행동하는 법이 없었다. 의성 회가 난다 싶다가도 얼마든지 대화가 가능하고, 설득과 이해라는 말이 통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연주 씨이기는 하지만 정말로 분노가 없을까. 그는 나와 만나 이야기 나누는 동안 지나가는 말로라도 원망을 하거나 분노를 표현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었다.

나는 궁금했다. 그 사고는 아무리 애를 써도 흘러간 기억 속에서 지워지지 않으리만큼 큰 충격으로 남았다. 그런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도 여전히 '성 노동자'라는 낱말을 처음 알게 되면서 느꼈던 화멸과 위안이 연주 씨에게 존재하고 있는지 궁금했던 것이다.

"그럼, 그 일은 나한테 안 잊혀지, 솔직 같은 거, 응? 그런 것처럼 말이야. "그런 사람도 있네."

연주 씨는 주저없이 "그렇다"고 했다. 이전까지 자기가 '몸 파는 여자'이기에 겪게 된 가슴 아픈 기억을 떠올리며 깊은 한숨을 토해 내던 그였다. 한때 '성 노동자'라는 낱말을 알게 된 자신의 정체은 예전의 그 어떤 경우라도 쉽게 잊혀지지 않을 거라고 단호하게 말했다. 오히려 다른 여성들과 달리 자신이 그 희의에 참여하게 된 것이나, 그런 계기를 통해 자신이 '성 노동자'로서 자각할 수 있었던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연주 씨는 누가 보더라도 위험한 상황에 놓여 있는 대표적인 경우이다. 가족이나 업주라는 보호막이 없으며, 몸을 무기삼아 한 세월 아슬아슬 지내 보기에는 이미 중년의 나이가 되었다. 연주 씨는 위에서 설명한 그 일련의 사건들처럼 생명에 위협받을 수 있는 경우에도 쉽게 노출되어 있다. 그 걸 스스로도 알고 있다.

어르고 꼬셔야 지켜지는 '권리'

나는 언젠가 연주 씨에게 '인권'에 대해 질문한 적이 있다. 그가 생각하는 인권의 의미가 무엇일지 궁금하기도 했지만, 정작 나 스스로도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인권, 사람의 권리, 우리들의 권리. 되새기면 되새길수록 가슴에 실린 무게를 쉽게 떨쳐 내지 못하고 있었다.

"인권? 그래, 뉴스에 나왔던 한호동 여자들처럼 응? 이렇게 머리끄덩이 잡고, 나는 나다! 라고 소리 지르는 거, 그런 건가? 이렇게 어깨에다 뽁뽁 이런 것도 메고 오빠으빠 하는 거, 그런 거? 아휴, 난 배운 게 없어서 잘 모르겠다. 하이튼 인권은……"

연주 씨는 내 질문을 어떻게 받아들였다. 한참 동안이나 생각을 하고, 입사귀 만을 잇지 못한 채 더듬더듬 그렇게 말했을 뿐이다.

그래서 나는 다시 질문했다. 연주 씨의 처지에서 어떤 것이 스스로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이다. 이를테면 싫을 말고, 결혼을 하지 않은 채 혼자 살고 있으며, 그의 표현처럼 '프리랜서'로 일하고 있는 유난히 작은 체구의 그가 자기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할 수 있는 방법에 무엇이 있느냐고.

"응, 그런 거, 예를 들면, 응? 여자가 연애하면 이렇게 놀잖아. 근데 하에서 해달라는 남자들도 많이 있어. 옛날에는 내가 그렇게도 많이 해주고 그랬는데 지금은 내가 지난 번에 다리 다치고 난 뒤에 그렇게 못해 줘. 그래서 그런 남자 들어오면 다시 폰 4만 원이나 얼마 주면서 미안하다고, 내가 이러니까 그거 못한다고, 딴 집 가라고 돌려보내. 어떤 때는 응? 좀 이상하다 싶으면, 오빠, 아씨 하면서 살살 달래고 꼬셔서 내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지. 그런 것도 권리인가?"

그 방에도 경찰 단속에 걸려 연행되어 갈 때 제발 묵인속하고 갈 수 있는 시간이라도 주었으면 하고 바라는 것도 자신이 생각하는 인권 중의 하나라는 말도 덧붙였다. 막히 뭐라고 보잡아 말할 수는 없지만 연주 씨의 얘기는 참 의질하다는 느낌이 들었다.

인권이 있다면 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행하는 몇 가지 방법이 있을 것이다. 연주 씨는 이미 그 방법을 세 가지나 얘기한 셈이다. "나는 나다!"라고 목소리 내는 것,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에게 돈 줘서 돌려보내는 것, 감당하기 힘든 손님은 살살 달래고 꼬셔서 내보내는 것. 이 세 가지 중 그나마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방법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지를 되물었다. 또한 어떤 방법을 썼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는지도.

"나? 꼬시는 거 하하하."

연주 씨는 누 가지 물음에 한 가지 대답을 했다. 그 대답이 나란을 때 대답한 이나 질문한 이나 누가 먼저랄 것도 없이 웃음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연주 씨는 웃음기를 싸악하게 간직한 채 또다시 한호동 여자들의 이야기를 꺼냈다. 자기는 비록 배운 게 하여 그럴 뿐이지만 그렇게 여자들이 제 목소리를 내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는 말에 유난히 힘을 주었다.

나로서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한 세 가지 방법에 대해 말한 연주 씨의 아이디가 다소 충격적이기도 했다. 대낮에 찾아오는 단골손님, 약에 취하지 않은 시간에 찾아오는 손님, 난폭한 손님, 무리한 요구를 하는 손님 등 자신이 감당하기 힘든 손님은 돈 줘서 돌려보내는 것이나 살살 달래서 딴 여자에게 보내는 것이 그나마 자기 권리를 지키는 방법이라고 말하는 이 여자. 도무지 3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그 '바닥'에서 버텨 낸 사람이라고는 믿겨지지 않을 만큼 분노가 없는 연주 씨는 그렇게 자신의 인권론을 풀어냈다.

"나 같은 여자들이 언제까지 일을지는 모르겠지만, 응? 이런 것도 인권의 하나인지는 모르겠다만, 그런 것이 쉽게 바뀌는 것은 아니야. 뭐든지 그런 것 같아. 나를 아버는 것은 없을 거야. 내가 앞으로 이런 일 그만두고, 어쩌면 계속할지도 모르지만, 응? 그래도 이런 여성들 중에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잖아. 사로, 그 지로하다고나 할까. 이런 여자들 중에서 배운 사람도 있겠지만 이게 인권이다, 그러면 오히려 모기하는 경우가 많아. 몰라서 모기하는 것도 있지."

연주 씨는 자신을 피가 많은 사람이라고 했다. 자신을 왜 이렇게 키가 작게 낳았느냐고 부모님께 '꿀통'부렸던 일, 마상년과 신분으로 성매매 지역으로 들어가 일을 시작해 부모님에게 자기 있는 곳으로 와 보게 했던 일, 다른 사람이 자신에게 말어놓은 비밀 얘기를 지켜 주지 못했던 일 등이

그 물만 자신이 자은 죄라고 했다. 또한 그는 스스로에게도 죄를 지었다고 했다.

"나한테도 죄가 많지. 내가 정말로 이렇게 못 살겠으면 어디 가서 뭘 할 수도 있는데, 내가 그러지 못하고 여태 이러고 있는 건 내 합리화일 수도 있잖아. 이것도 죄지. 응? 그리고 내 몸에 대해서…… 내 몸한테 죄가 많지. 약 먹는 거, 어떤 때는 내 위에서 신호를 보내는 것 같아. 이제 약 좀 그만 주라고, 제발 약 좀 그만 들여보내시오, 이러고. 근데 나는 약 안 먹으면 밥 장사에 영업 못한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그러면서 또 먹지. 안 먹고도 나가 팔는데 못하냐, 습관이 무서워, 그런 것도 죄지."

영업 을 하지 않는 날 약간 무색무석해 보이기는 하지만 항공 세수를 마치고 로산을 떨라 맨들맨들해 보이는 그의 얼굴에서 평화를 느낄 때가 있다. 영업 하는 날, 가끔은 술과 약에 취해 가만히 내 손을 쥐어 보며 아무 말 없이 눈물방울을 떨어뜨리는 그를 보며 막막함을 느낄 때도 있다.

약에 취하지 않고서는, 만이 아니고서는 손님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에게 '성 노동자'라는 말은 분명 요원한 말에 지나지 않는다. 하지만 그에게는 스스로도 느끼고 있는 혼란스러움을 다독여 줄 수 있는 그 무언가가 필요했던 것이다. 이름, 자신의 이름말이다. 지칭됨으로써 스스로도 분득 분득 미움러지는 혼란스러운 의미들이 조금씩이나마 정리될 수 있는 그런 이름이.

나는, 연주 씨가 '성 노동자'라는 낯말을 알게 된 그 통분의 여파를 몰아 불여 '규제적 합법화'에 대한 현직 여성의 의견을 들어볼 수 있었을 것이다. 스물 여섯 살 젊은 남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의 그에게 그래서 상에게는 결국 근절되어야 할 사회 문제가 아니냐며 교묘히 다그치고 그것의 단서를 찾아낼 수도 있었을 것이다. 도통 분노라고는 모르는 그에게 자신을 폭행한 남자와 우리 사회에 욕지거리를 실컷 내뱉어 보라고 소리 질여 부추기고 싶

었다.

"내가 이런 생활을 얼아나 하다가 그만둘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는 조금 욕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 나는 응? 너 같은 사람이랑 안면이 돼서 오히려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내가 너한테 얘기해 준 내 살림이 그래도 조금, 응? 어디에 남겨진다면 나중에 이런 생활하는 여자들한테, 응? 좀…… 아이고 내가 말주변이 없어서 말을 잘 못하겠다. 그래, 내 생각은."

연주 씨는 특히 남자에게 당한 폭행의 기억에 대해 지금껏 두려움을 갖고 있었는데 혹시 이 글로 인해 자신에게 또 다른 어려움이 닥치는 것은 아닌가, 라는 말씀 아주 어렵게, 조심스럽게 얘기하기도 했다. 그러면서도 자신을 폭행했던 남자가 혹시라도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언젠가 내게 했던 그 말을 또다시 언급하며 자기 같은 처지의 여성들 중에서 책 읽는 걸 좋아하는 여자들이 있으면 좋겠다는 말도 덧붙였다. 연주 씨는 혼잣말처럼 그렇게 되뇌었다.

오래 전 나는 그의 집 화장실 한편에 최명희의 소설 『혼불 1』이 놓여지 있는 걸 보았다. 그리고 2년쯤 지나 함께 이 작업을 하는 동안 다시 그 집을 들락거리며 이제는 그 자리에 『혼불 5』이 놓여져 있는 걸 보았다. 분하도 없고, 앉으면 책 자는 좁디좁은 화장실에 쪼그리고 앉아 연주 씨가 읽다 놓아 둔 그 책을 뒤적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유독 '김보'라는 말 한마디에 그토록 깊은 한숨을 토해 내고 스스로 지은 죄가 많다며 씁쓸히 되뇌는 연주 씨. '김보' 혹은 '네온 여성'의 또 다른 이름에 논리 없이 매료되는 것은 그가 아직도 자신을 많이 사랑하고 있다는 그만의 반증이 아닐까? 지난 시간 동안 '김보'로 살며 숱한 삶의 어려움을 감내해야 했던 연주 씨가 '성 노동자'라는 낯말에 유달리 위안을 삼는 이유은 여전히 무언가를 찾아내려는, 어쨌든 제 삶의 정체성을 찾아내야 한다는 희미한 그만의 의지일

지도 모른다.

연주 씨의 이 작업은 무척 진지했고 나 자신에게 많은 생각을 던져 주는 경험이었다. 나는 살해를 돌이켜고 지금껏 내부 많은 단서와 조건들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조금씩 인정해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것은 어느 한쪽만을 거냥하는 제언이 아니다. 이제는, 연주 씨가 내보이고 있는 그 희미한 의지에서 단서를 찾고 새로운 조건을 만들어 지금껏 존재했던 삶에 제세 인과 밖의 새로운 넘나들을 시도하면 좋겠다. 한 발자국씩 내딛으며 과감히 모험 담안을 걸어 버리면 함께 둘러볼 수 있는 더욱 다양한 시도들이 보일 것이기 때문이다.

넘나들며 찾는 새로운 단서

나는 연주 씨에게 처음 이 인터뷰를 제안할 때와 마찬가지로 주저하는 마음과 미안함으로 이 원고의 초안을 건넸다. 그에게 원고를 건낸 뒤 언제고 나와 이야기하고 싶을 때 내게 전화해 달라고 부탁했다. 어떤 경우, 내 마음이 그다 편하지 않게 마련인데, 그것은 자신의 이야기를 가감 없이 읽으며 당사자가 느끼게 될 여러 감정들이 염려되었기 때문이다. 연주 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내게 전화를 했는데, 내 염려와는 달리 꾸밈 없는 목소리였다. 우리는 원고 몇 자를 놓고 다시 만났다.

오히려 연주 씨는 자신이 메끄럽게 말하지 못하고, 세밀하게 마음속에 담긴 생각과 느낌을 다 표현해 주지 못한 것을 미안해 했다. 또한 내게 몇 가지에 대해 다시 꼼꼼히 설명해 주었다. 주로 상황에 대한 사실성을 재차 언급함으로써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에 대해 설명했다. 그런 설명은 큰 도움이 되었다.

자신의 삶이 불행했노라고 말하거나, 자신의 생각이나 주장에 어떤 미사여구도 다는 법이 없던 그는 그 동안 함께 진행한 이 작업에 대해 이렇게 말

어떤 역사

상계동 지역 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회

김정미

개나리회를 찾아서

나는 지난 10년 동안 상계동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여러 지역의 여성들로부터 자신들의 자치 조직이 존재했다는 말을 들어 왔다.[1] 하지만 그 조직은 사회 일반에 드러나지 않았고, 자료적 가치를 지닌 기록을 남긴 예도 극히 드물다. 다만 상계동과 연관된 삶의 길이가 제법 긴 여성들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지며 그들만의 문화된 역사로 존재할 뿐이다.

오래 전부터 전국 곳곳에 존재했던 여성들의 자치 조직에 관해 알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기록으로 남겨 놓지 못했던 것은 어디까지나 나의 짧은 문제의식 때문이었다. 인연을 맺었던 여성들로부터 자치 조직에 관해 적극적으로 취재할 수 있었던 오래 전에는 나 스스로 그것이 지니는 의미를 제대로 알지 못했다. 나는 주로 여성들 개개인의 생애사적 이야기에 비중을 두어 면담하거나 기록으로 남겨 왔을 뿐이다. 그 동안의 작업, 여성들의 살아온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기는 일에는 상계동로 유입될 수밖에 없었던 근거와 그 안에서 발생했던 수많은 크고 작은 상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내가 여성들의 일상 자체에 의미를 두고 접근하기 시작한 것은 불과 몇 년 전부터였다.

이 글은 서울 동산 지역에서 1981년부터 1983년까지 활동했던 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회'에 관한 이야기이다. 내가 개나리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던 것은 이 글을 쓰기 3년 전쯤부터이다. 이 이야기를 더욱 자세하게 취재하기로 하고 당시 개나리회 활동에 참여한 여성 네 명을 찾고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물론 그들 중에는 마음과 달리 연이은 개인 상황의 변화 때문에 약속을 미루는 경우가 있긴 했지만 누구 하나 흔쾌히 응하지 않은 사람이 없었다. 그 시절을 어떤 기억보다도 긍정적이고 당당한 시절로 떠올리고 있기 때문이었다.

이 작업을 함께한 네 사람은 모두 40, 50대를 살고 있는 중년 여성들이다. 10대 후반, 혹은 20대 초반에 상계동 지역으로 유입되어 일을 시작해 개나리회 조직에 관여했으며,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모두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여성들이다. 이 작업에서 가장 큰 어려움은 개나리회의 취지와 활동 내용을 간략한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것말고는 어떤 자료도 기록으로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이었다. 하물며 사진 한 장, 신문 기사 하나 남아 있지 않았다. 따라서 기록의 대부분을 인터뷰에 응해 준 여성들의 이야기에 의존해야 했는데, 이들 네 사람의 이야기를 종합하여 대략의 상황을 유추해 보는 수밖에 없었다. 우리는 인터뷰 중 서로가 살아온 내력과 최근의 생활에 대해서도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지만, 여기에서는 개인의 삶보다도 개나리회의 결성 배경과 3년 동안 진행된 활동 내용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또 인터뷰에 응해 준 여성들의 이름은 그들의 요청에 따라 모두 가명으로 쓴다.

여기서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자신들의 현실을 스스로 극복해 보려

1) 이곳 주민 지역인 하월곡, 공산, 동방의 자치회와 속칭 '500'로 불리는 정릉의 지역에서의 자치회 정릉서, 그리하다. 지역은 정확 정책의 하나로 만들어진 지역은 지역의 자치회는 교양 강좌와 정기적 정보 공인을 제공하는 정도에 그친 경우가 많았다. '진짜'로 구분되는 오래된 상계의 지역에서의 자치회도 활동 양상이 그리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고 했던 여성들의 노력이다. 이것이 여성들 안에 존재했던, 지금껏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던 '스스로의 힘'의 근거가 될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다. 다만 지금껏 여러 연구와 NGO의 보고서에서 밝힌 바 있는 여러 대안이나 상매매를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에 앞서, 여성들 스스로가 현실적으로 느끼던 삶의 문제가 무엇이었는지를 돌아보고 싶은 것이다. 이런 취지으로 나는 여성들의 자치 조직 개나리회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기 시작했다.

소집

1980년대 초반, 전두환 정권은 대대적인 사회 정화 운동을 벌이기 시작했다. 말 그대로 사회를 깨끗이 만든다는 의미의 '운동'이다. 하지만 사실 그 운동의 내부를 들춰보면 단지 더러워 보이는 부분을 그럴싸하게 감추고 정비하는 것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었다. 정권의 사회 정화 대상은 무장인, 건달을 비롯해 성매매 지역의 여성들까지 포함되어 있는 듯 보이는데, 그 과정을 보면 근본적 해결책 없이 일시적인 '청소'의 의미가 강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당시 사회 정화 운동의 정당성은 제대로 성립하기도 어려울 뿐 아니라 그 실효성에 대해서도 매우 비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다.

오히려 전두환 정권의 대대적인 사회 정화 운동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도 그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을 자아냈으며, 실제로 사람들에게 커다란 위축감을 가져다주었다. 특히 성매매 지역에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처지가 당시자 여성이든 '가동서방'이든 '포주'[1]든 간에 구분 없이 모두 다 이러한 두려움을 갖게 되었다. 1980년에는 삼청교육대 소문을 듣

1) 일부 동네에 대해 작업에 참여한 여성들의 포함을 따라 쓰므로 한다. 이를테면 '포주'(업주), '가동서방', '아가씨', '종업'(종업원) 등의 용어가 그러하다.

고 자신이 그 소집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 피신하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이로 인한 소요는 울산 지역도 예외가 아니었다. 1981년 5월 무렵, 당시도 상매매 밀집 지역으로 잘 알려져 있던 울산 지역에서는 몇몇 유지를 주축으로 이른바 '사회정화위원회'라는 것이 결성되었다. 주축이 된 유지들 대부분이 '아가씨 장사'를 하고 있거나 그것으로 부를 축적하고 지역의 유지로 행세하게 된 사람들이었다. 이들의 자체적 움직임은 정부에 의해 행해질지도 모르는 '불이익'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따라서 이들이 사회정화위원회를 결성하며 내세웠던 활동 내용은 상매매 지역의 '질서 감기'가 가장 중심이었다.

어느 날부터인가 울산의 상매매 거리에서도 '사회정화위원'이라는 완장을 찬 남자들이 보이기 시작했다.

"우스운 일이었지. 온 몸무 갔다 주면 입이 벌어지던 정철들이 단속일에 마면서 왔다갔다하는 것하고 정화위원이라고 거들먹거리는 사람들이 뭐가 달라. 내 생각에는 정화 교육 받아야 할 사람들은 오히려 포주들이었다구. 그 사람들의 작업이나, 사생활, 태도 어느 모로 보나 지역 사람들의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아니지. 지역 정화 하기 전에 우선 그 사람들 가정부터 정화해야 하는 거였어."(성은이, 가명, 당시 36세)

그 지역에서 오랫동안 일해 온 성은이 씨에 의하면 사회정화위원회 자체에 대한 불신도 높았지만, 위원직을 차지하게 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거의 신뢰가 없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다.

사회정화위원들은 정기적으로 모여 회의를 하고 또 정기적으로 지역을

1) 오래된 상매매 밀집 지역에서 흔히 사용되는 이 말은 상을 파는 행위 혹은 상을 팔도록 종용하는 행위에 대한 부정적 의미가 담겨 있다. 경우에 따라 업주 자신에게만 다욱 큰 이득이 되는 행동을 의미하는 경우이기도 하다.

순회하기도 하였다. 이들이 '질서 감기'를 위해 내건 표어이란, 여성들이 역 광장이나 큰 도로변까지 나가지 않고 제한된 공간에서만 영업하도록 통제하는 것이었다. 사회정화위원회에서는 영업에 나서는 여성들에게 자신들이 배부한 표를 반드시 달도록 했으며, 그 표를 단 여성들에 한해서만 '히빠리'[1]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업소당 한 명씩 교대로 히빠리를 하도록 했는데, 먼저 나가 있던 여성이 손님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간 것을 확인한 뒤에야 다른 여성이 교대로 나와 호객 행위를 하자는 것이었다. 이상의 것들은 정화위원회에서 일종의 규정으로 만든 사항인데, 만일 가슴에 표를 달지 않은 채로 영업을 하면 이들이 정한 규정을 어기는 것이 되었다. 사회정화위원회의 실제 역할이란 자체 단속이었던 것인데, 이는 경찰과 협의한 과정을 거쳐 논의되거나 시행된 것은 아니었다.

이 같은 자체 단속을 위해서는 각 업소의 모든 여성이 주민등록증과 증명사진을 사회정화위원회에 제출하여 등록을 해야 했는데, 여기에 반발해 등록하지 않는 여성도 더러 있었다.

"나는 절대로 본명을 쓰지 않았거든. 나만 그런 건 아니고 대개 다 그랬지. 근데 거기에 등록을 하려면 내 주민등록증이며 뭐며 다 갖다 내야 할 텐데, 하기 싫은 거야. 업에 아가씨들이나 포주들도 헤 나보고 등록 안 하냐고 그러는데, 나는 내 맵 내가 파는데 지들이 무슨 상관이냐 그랬지."(성은이)

여성들은 사회정화위원회 자체에 대한 불신은 있었지만 사실상 경찰들에게 규제의 대상이 되는 것보다는 나을 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았다. 내부 단속을 통해 경찰로부터 당할 수 있는 일련의 조치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것은 지역 여성이나 업주의 처지에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그래서 여성들은 정화위원회의 지침대로 그들이 배부한 표를 가슴에 달고 영

1) '히빠리'는 히이의 일본어에서 파생된 말로, 가게에서 직접 상대 남성을 호객하여 업을 하는 여성들을 지칭하는 용어이다.

업을 나가야 했다. 그 표에는 경찰들의 단속을 피해 갈 수 있다는 안도감과 일종의 '주홍 글씨' 같은 의미가 동시에 담겨지는 것이었다. 그 '주홍 글씨'에는 여성들이 자신의 존재를 드러냄으로써 가질 수 있는 굴욕감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렇다고 해서 그 표로 여성들이 염려하는 단속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되는 것은 아니었다.

그런 지침이 시행된 첫 날, 표를 달고 영업을 나가 히빠리를 하던 여성 중 한 명이 경찰의 단속에 걸려 연행되는 일이 일어났다. 그 여성은 경찰차에 실려 연행되어 가던 중 차에서 뛰어내려 머리를 크게 다치고 병원으로 실려 갔다.

"경화위원들이 시키는 대로 하면 달연히 단속에서 제외될 수 있으니까 그 말만 믿고 방심하다가 생긴 사고였지. 아가씨들이야 당연했고, 특히 포주들까지 아우성을 쳤어."(성은이)

평소였다면 그리 특별할 것도 없는 일이었지만, 빌었던 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반발은 더욱 거셌다. 성은이 씨와 주변 여성들은 그 당시 경찰의 단속은 분명 사회정화위원회에 '본때'를 보여주려는 일종의 할장이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왜냐하면 경찰과 어떤 협의도 이루어지지 않은 규정이었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당시 경찰의 큰 부수입이었을 '상납'의 빌미가 사라지게 되기 때문이었다.

그 사건으로 인한 지역의 반응은 생각보다 거셌다. 특히 업주들은 사회정화위원들에 대한 불신과 원망의 목소리가 컸다. 결국 처음부터 별다른 소명감으로 구성된 것이 아니었던 정화위원들은 몇 명만 남겨두고 모두 사퇴했다. 남은 정화위원 중 누군가에 의해 차라리 여성들 스스로 자체적인 정화를 해보는 게 좋지 않느냐는 의견이 제안되었다.

"그때, 제일 먼저 아가씨 중에서는 나한테 찾아와서 의논을 했지. 조용히 벌어먹으면 단속이 없을 거 아니냐, 그거였어. 한 여자랑 나랑 둘이 뭉 몸생

했는데 개는 포주니까 제외됐고 나한테 온 거지."(고수희, 가명, 당시 50세)

1974년부터 울산 지역에 정착해 생활하던 고수희 씨는 여성들 사이에서 '꿀통 짓' 부위기로 소문난 사람이었는데, 그의 '꿀통 짓'은 주로 업주나 경찰을 향한 것이었다. 정화위원들이 고수희 씨를 제일 먼저 찾아가 이야기를 꺼낸 것은 그가 여성들 사이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에서였다.

얼마 후 그들은 성매매가 이루어지는 각 골목을 대표할 만한 여성들을 한 자리에 모이게 했다. 그 자리에 불려 나간 여성들은 동네에서도 '한 가닥 한다는', '만만치 않은' 부류들이었다. 이 의미는 손님에게건 업주에게건 고분고분하지 않은 여성을 뜻했다. 정화위원들은 자신들이 모임을 주최한 의도를 얘기했다. 그들은 여성들이라 자체적으로 '정화'를 위해 활동해 보라고 제안하면서, 그러려면 이를 이끌 사람이 필요하니 이 문제에 대해서도 의논을 해보자고 했다.

"나는 성은아를 추천했어. 나랑 별로 친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제일 나았어. 그 당시 그 사람말고 할 사람이 없었어."(고수희)

고수희 씨가 말하는 '제일 나았다'는 말이 무엇을 기준으로 이르는 것인지 궁금했다. 어떤 사람이 회장이 되느냐에 따라 여성들의 자치회 성격이 판가름 날 것이기 때문이었다.

"학벌, 마음 씀씀이, 인정, 똑똑하고, 세고. 우선 세다는 거, 세지 않으면 못해. 친달들 있고 그런데 어떻게 버티 내나. 그리고 고지식하고, 개짓이 없었고. 제가 이 일에 대해서 처음에는 힘들더라도 이끌어 나갈 것 같았어, 내 짐작이."(고수희)

고수희 씨가 그를 처음 추천한 것은 정화위원이 자신을 찾아왔을 때부터였는데, 정작 성은아 씨는 그런 사실을 전혀 모른 채 모임에 참석했다.

"난 처음에 내가 정화위원회에 등록하지 않아서 나를 부르는 건 줄 알았어. 그래서 속으로 등록하지 않았다고 지랄하면 어디 해라, 어디 한번 정면으로 부딪쳐서 얘기 해보자, 그런 심산이었지. 사무실에 가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 글쎄, 한 스무 명 정도가 먼저 와서 모여 있던데, 아는 아가씨 얼굴도 있고, 정화위원 하던 남자 중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 한 명 있었는데 그 사람이 나를 따로 불러내서는 부탁이 있다고, 아가씨들 권익을 위해 함께 일해 보지 않겠냐는 거야. 난 너무 갑작스럽게 당한 일이라 대답을 못하고 있는데, 거기 있던 다른 사람들도 다 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거야. 하지만 난 나서서 한다는 게 너무 두렵더라구."(성은아)

1980년 초 삼청교육대에 소집될 것을 우려해 몸표 몇 명과 인근 지역으로 도피한 경험이 있는 성은아 씨는 자신에게 그런 제안이 들어온 것이,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늘상 '꿀통 짓'만 하던 자신의 '정다구' 때문이었을 거라고 했다. 하지만 주변 여성들에 의하면 성은아 씨는 당시 여성들이 겪어야 하는 상황에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으며 자신의 주장을 똑바로 내세우는 여성이었다. 더러는 업주나 펨프와의 마찰도 심심찮게 일어났는데, 그런 경험이 거듭될수록 '함부로 건드리면 안 될 여자'로 인식되었다. 하지만 업주들과는 반대로 몸표 여성들이 보내는 성은아 씨에 대한 신뢰는 두터 깊었다.

성은아 씨는 그날의 분위기를 "무척 진지했다"고 표현했다. 제안을 받은 자신이나 제안을 한 주변 사람들, 정화위원직을 시퍼하지 않은 업주와 몸표 여성 모두가 그러했다고 한다. 그는 무엇보다도 여성들의 권익을 위해 자치 조직을 만들자는 것에 깊이 공감했다. 하지만 자신이 나서서 무슨 '회를' 맡아 이끈다는 것이 내키지 않았다. 성은아 씨는 거기에 동하고 싶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다.

정화위원들이나 여성들 사이에서 한참 동안 이런저런 말이 오가더니 누군가가 투표를 하자고 제안했다. "회장단만큼은 우리 손으로 직접 뽑겠다"

는 의도였다. 즉석에서 후보를 추천받았는데 성은아 씨 외에도 다른 몇 명의 여성이 더 거명되었다. 성은아 씨는 끝끝내 거절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말깨나 한다는 아가씨들 스무 명이 모여서 투표를 했어. 그때 딴 여자들도 회장으로 추천했는데 질관에 정교(?)가 써 가면서 뽑았어. 한 명씩 나와서 자기가 회장이 되면 어떻게 하겠다, 뭐, 이런 거 발표도 하고. 나는 절대로 회장은 안 하겠다, 했으니까. 회장 한 명 뽑았고, 내가 다른 여자 한 명이랑 부회장을 하고, 총무 한 명, 각 구역 대표도 뽑았지."(성은아)

그렇게 결성된 임원단은 그 자리에서 회의를 열어 자치회의 이름을 '계나리회'라고 짓고 활동 내용에 대해서도 의논을 했다. '계나리회'라는 이름은 성은아 씨가 제안한 것이었다.

"계나리가 된 뜻이냐면, 겨울 지나고 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 개나리잖아. 그러니까 희망 이런 것도 떠올려지고, 추위 속에서 제일 먼저 피니까 강하기도 하고, 여자들 처지랑 비슷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강하게 희망을 가져 보자는 거였지. 그러니까 말 그대로 아가씨들의 자치회야."(성은아)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자치회 역시 '민들레회', '꿀벌회' 등 꽃과 관련된 이름이었던 게 떠올랐다. 고수희 씨는 그것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꽃! 이런 아가씨들의 희망이. 아가씨, 뭐, 여자, 그러면 꽃이잖아."(고수희)

계나리회 회원의 자격은 이들이 표현한 것처럼 '아가씨'에게만 가능했다. 여기서 흔히 표현되는 '아가씨'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듯 '처녀나 젊은 여자의 높임말'의 의미가 아니라 그 지역에 머물며 직접 성을 파는 모든 여성을 지칭하는 것이다.

위에서 언급되었듯이 계나리회 활동을 지원해 주는 업주가 일부 있고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펨프들도 있기는 했지만, 계나리회는 성매매 지역에서 가장 당사자적인 여성들이 그 중심 대상이었다. 나는 그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이 특히 펨프와 여자 업주에게 언민의 감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다. 물론 모든 펨프와 포주에게 그런 감정을 갖는 것은 아니었으며, 자신들처럼 긴 세월 '아가씨' 생활을 해온 사람들의 경우에게는 더욱 그러했다. 자신들 역시 더 나이가 들면 펨프가 될 수 있으며, 펨프가 된 많은 이들 가운데는 중년의 나이를 무릅쓰고 다시 직접 몸을 파는 경우도 있었다. 또한 이 생활을 벗어나지 않는 한, 어쨌든 지금보다 더 나은 상황이 된다면 아가씨들을 몰래 두면서 자신이 직접 '포주'가 될 수도 있는 일이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포주, 펨프=나쁜 사람'이라는 단순한 공식보다는 '악덕 포주=나쁜 사람'이라는 공식이 더 맞는 셈이었다.

계나리회는 바로 그 다음 날부터 상담, 회원증 발급 등과 같은 활동을 시작했다. 계나리회는 정화위원회가 만들어질 때와 달리 여성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는데, 그것은 업주가 아닌 자신과 같은 처지의 여성에 의해 구성되었다는 것이 큰 이유였다. 그런 배경에는 당시 여성들이 겪고 있는 생활이 가장 큰 몫을 차지했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자신들만이 겪어야 하는 불이익에 대해 누구보다도 절실히 문제 의식을 느끼고 있었으면서도 아무런 대항도 할 수 없는 처지에 대해 목소리를 높였다.

정숙자(가명, 당시 34세) 씨는 '악'한 자신들의 처지에서 당해야 하는 불이익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술 먹고 싸우고, 여성들이 폭행당하고. 경찰서나 파출소에 가다 보면 무조건 우리가 악하니까 우리만 나쁘다고 해서 수용소 같은 데 막 보내니까. 폐해지는 우리인데도 일단 연행이 되면 벌금을 물든가 수용소에 가야 했잖아. 벌금도 그 당시 몇만 원이라고 한다면 지금으로 치면 몇십만 원이지에 해당하는 돈을 내야 했는데, 그건 말할 것도 없었지."(정숙자)

그 무렵 성매매 지역에서 일한 많은 여성들은 특히 단속과 수용소 경험에

대해 한결같이 부정적으로 회상했다. 성은아 씨는 단속에 걸리시만이 아니라 '불똥 좃 을 부리는 통에 경찰들에게 입보여 수용소에 입소했던 경험도 있다고 말했다. 당시에는 윤락행위등방지법에 의해 단속에 걸린 여성들을 부녀보호소에 입소시켜 직업 교육을 받게 했다. 하지만 그곳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여성들이 '감옥 같은 곳 이라 부를 만큼 그곳은 '재활' 보다는 수용의 기능이 더 컸다. 따라서 많은 여성들이 자라리 경찰에게 돈을 주면 된지 수용소는 절대로 갈 곳이 아니라는 생각을 했다. 그런 상황은 1980년대 내내 성을 파는 여성들이 직면해야 하는 현실적인 문제로 작용하였다.

도전

개나리회 임원진이 회의를 거듭할수록 회장에 대한 불신이 커져 갔다. 그러던 중 첫날 회장으로 선출된 여성이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며 사퇴를 하자 부회장으로 활동하던 성은아 씨가 다시 회장 후보로 거명되었다. 결국 그는 회장직을 맡기로 하고 본격적으로 활동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임원 회의를 소집하면 목소리 큰 사람들만 중구난방으로 떠들다가 돌아갔는데, 나중에는 제법 회의가 됐지. 그때 목적, 사업 내용 이런 걸 정했어. 내가 생각한 게 몇 가지를 적어 가서 설명해 줘고, 그런 식으로 회의를 했는데, 첫째가 권익 옹호를 위해 일을 해보자는 게 제일 컸어."(성은아)

개나리회 임원들은 나름대로 회의 체계를 잡고 개나리회의 목적과 구체적인 활동 내용을 정했다. 거기에는 회장 성은아 씨가 제안한 내용들이 크게 중심을 이루었다.

나는 그가 개인적으로 보관하던, 당시 개나리회의 목적과 활동 내용이 적힌 간략한 문서를 건네받았다. 지금은 거의 사용되지 않는 수동 타자기로 작성된 이 문서에는 누군가 드문드문 괄호를 치고 뭔가를 보충하느라 고적거린 흔적들이 남아 있었다. 나는 이 문서를 건네받고 적잖이 놀랐다. 이 문서가 지금껏 보관되고 있었다는 것, 또 한 번도 공개되지 않은 자료였다는 점 때문만은 아니었다. 20년 전에 그들이 자신들 자치 조직의 구성 목적과 활동 내용으로 명시해 놓은 사항들 때문이었다. 우선, 그 내용의 전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개나리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

목적
1. 자체 정화: 정부의 사회 정화 사업에 동참
2. 회원의 권익 보장
—포주, 벨프, 기둥서방, 공무원으로부터의 착취 방지
—업주에서의 해방
3. 회원간의 친목 도모
—불우한 동료나 약한 자를 돕는다
4. 빠른 자립(직업 선환)
5. 건강 관리(성병, 지나친 출연, 술주 또는 환각에 복용에서 오는 정신 착란증)
6. 관(정부)으로부터의 독인(보호나 인정이 아님)

활동 사항
1. 1인 1통장 갖기 운동(자립을 하기 위한 가장 첫째 조건)
2. 건강 관리
3. 기둥서방 없애기, 벨프 손님 안 받기
4. 상습 도박 퇴치 운동
5. 지나친 음주 또는 환각제 복용 안 하기
6. 고운말 쓰기, 손님에 대한 서비스 개선

개나리회 홍보 활동
1. 철도 이용객 식수 제공(식수 시설이 없다. 3등 열차이기 때문에) (오후 1시~8시까지/ 보리차)
2. 조기 청소(새벽 4시 역 광장과 7, 8등 전지역)
3. 불우 이웃 돕기

기타
불우 동료 돕기
위급 환자 병원 알선 수술
결혼식 주선(동기 동료들)
장례식 위로(그의 동료 방문 및 위로)
정신질환자 또는 무직정 상경자 귀향, 선도
취업 알선

임원: 회장 1명, 부회장 2명, 총무 1명, 감사 2명, 감찰 8명
후원: 동산구 보건소, 서울시 부녀청소년과, 용산지역 사회정화위원회
기타: 신상 카드 작성, 회원증 발급, 성병 검진 패스 발급

여기에 적힌 내용들은 거의 파격에 가까웠다. 그 지역 사람들 사이에서 공공연하게 사용되는 몇 가지 지칭, 이를테면 '포주', '기둥서방', '벨프' 등의 말이 명시되었을 뿐만 아니라, '착취', '억압', '해방' 등의 표현이 거침없이 표현되어 있었다. 그런 용어들의 차용은 분명 그에 기인하는 배경, 즉 여성들 스스로가 절감하고 있던 문제 의식의 표출이었을 것이다. 내가 정말로 놀랐던 이유는 바로 그 때문이었다. 내부적인, 표출되지 않았던 문제 의식이 자치 조직 결성을 계기로 서로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며 비로소 그들만의 생각, 입장, 주장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은 당시 사회의 정치적 분위기를 상기한다면 얼마나 큰 파격에 가까운지를 알 수 있다.

이들이 자치회를 조직할 당시에 정화위원들 외에 누군가의 지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약간의 의혹이 들기도 했다. 아니면 다른 누군가가 이 문서 작성을 도와 준 것은 아닌지 하는 궁금증도 생겼다. 어쩌면 여성들 스스로가 자신들만의 언어로 토론했을 조직 목적을 누군가가 또 다른 수준의 언어로 정리해 준 것은 아닌가 하는 짐작이기도 했다.

나는 이 문서를 인터뷰에 응해 준 다른 두 명의 여성에게 보여주며 궁금한 것들을 물어보았다. 그들은 이 문서를 주의 깊게 살펴봤는데, 정숙자 씨는 "그래, 맞아. 이거였어"라며 이 문서가 당시에 기록된 게 맞다고 했다.

자체 정화, 회원의 권익 보장, 회원간의 친목 도모, 빠른 자립, 건강 관리, 관(정부)으로부터의 독인 등 개나리회가 목적으로 정한 이 여섯 가지 사항이 지니는 의미에 대해 그들 스스로의 의견을 들어보았다.

"착취당하지 않기 위해 악덕 포주의 횡포에서 벗어나고, 기둥서방을 없애고, 벨프가 데려다 주는 손님 안 받고, 뭐 그런 운동을 벌이기로 했어. 그리고 우리보다 더 불우한 사람들 돕기 위해서 일 년에 두 번 이상 자원 봉사도 하자고 했고, 회하에서 그런 걸 정하고 나오는데 엣날에 느껴 보지 못한 희열 같은 거, 뿌듯하고 뭔가 충족되는 것 같은 그런 심정이 들었어. 뭐랄까, 내가 중요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고, 말으로 다질 일이 무지무지 중요하고 어려움이 따르겠다는 생각이 들더라. 아직 내가 무슨 부사라도 된 듯한 기분이었어."(성은아)

당시 감찰이라는 직함을 갖고 적극적으로 활동했던 정숙자 씨는 자신들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랐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

와 여성, 여성과 손님, 여성과 가동시방, 여성과 지역 주민 관계에서 온갖 모순이 존재하는 곳이 바로 사창가이다. 하지만 그곳이기에 그나마 두려움을 감수내며 생활할 수 있다는 여성들의 목소리도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그것은 아마도 직면하기에는 너무도 무오한, 여성들이 최악 직면하기를 꺼려했던 수많은 경계선들이 높고 두텁게 쳐져 있었기 때문이리라.

나는 특히 "회원의 권익 보장—업주, 펨프, 가동시방, 공무원으로부터의 착취 방지, 억압에서의 해방"이라는 문구에 주목하였다. 더군다나 개나리회의 태생이 당시 정부의 정책에 뿌리를 두던 정화위원회에 기인한다고 본다면, 이 문구는 가히 파격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는 셈이었다. 그럼에도 도움을 준 업주들이 있었다는 사실도 나로서는 언뜻 이해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동료 여성을 위한 활동 내용에 여러 사항을 포함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자치회가 이미 태생적 한계를 충분히 떠어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단지 앞선 위원회의 과행을 포장하기 위해, 정화위원회의 연장 선상에서 만들어졌다고 생각한 부류, 특히 업주들에게는 이 개나리회가 품고 있던 목적과 활동 내용이 거의 도전에 가까운 것이었다. 따라서 개나리회와 업주, 펨프, 가동시방 사이에서는 이미 적잖은 마찰이 예견되고 있었다.

이러한 사업 목적과 활동 내용을 정한 개나리회는 1981년 7월 22일, 인근에 있는 용산카바레에서 발족식을 가졌다. 임원들은 개나리꽃을 상징하는 샛노란 티셔츠를 단체로 맞춰 입고 행사장으로 참했다.

"너게 많이 모였지. 그때는 업주들이랑 그렇게 사이가 나빠지기 전이었으니까 자기네 아가씨들 다 동원해서 오고 그랬어."(상은이)

발족식에서는 의례적인 인사말과 개나리회의 취지 등이 발표되었다. 이때, 임원단이 한 가지 제안을 했는데, 장애인으로서 외할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료를 도와 주자는 것이었다. 그 여성에 대해서는 대부분 사연을 알고

이 그와 같은 목적에 쉽게 합의할 수 있었던 까닭을 이렇게 표현했다.

"막말로 '날 떠고 꿀 떠는 현실이니까. 만약에 내가 손님에게 타임으로 만 원을 받으면 오천 원은 포주에게 줘야 돼. 포주는 집 제공하는 것밖에 없지만 그래면 안 되지. 명업하려니까, 여자는 옷 사고, 집값 내고, 다 하는데, 그걸 이중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권익을 찾자는 거였지."(정숙자)

정숙자 씨의 경우, 열 여덟 살에 상계에 자력으로 유입된 이래로 전국 곳곳을 전전하다 용산에 정착한 지 1년 되던 해에 개나리회 조직에 참여하였다. 그로서는 이미 삶에 넌 동안 상계에 체제 안에 살아온 셈이었다. 그는 자신들이 개나리회를 결성하며 남다른 호응을 보였던 배경을 업주와 정부 포주의 불이익뿐 아니라 자신들이 겪어야 하는 심리적인 상황에도 연결시켰다.

"우리 같은 사람은 정말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랐어.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 정말 이 현실이 내 현실이 아니어야 하는데 이게 현실이니까 그게 비애였지. 우울증 환자처럼 술 안 먹으면 못 견디겠고, 정체적인 여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으니까. 그 당시에는 왜 그랬는지 몰라. 이 용산에서 벗어나기만 하면 어떻게 되는 줄 알고. 매일이 똑같은 일상인데, 달라지지도 않고. 밤에 일을 하고 낮에 자는데 그렇게 하다 보면 건강상에 어려운 점이 많고 하니까 뭔가 삶의 활력소라고 할까. 하지는, 우리가 비록 힘하게, 오늘이 오늘이 아니길 바라면서 하루를 살지만 그래도 뭔가 하루 생활의 보람을 찾아야 한다, 그게 취지지."(정숙자)

정숙자 씨는 자신들이 용산역을 벗어나는 것을 그토록 두려워한 것은 곧 사회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었다고 했다. 왜냐고 되묻는 내 질문에 "우리들의 은연한 희부를 드러내는 것"이기 때문이었을 거라고 말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몰린 끝에 이른바 '사창가'에 모여든 여성들은 그곳에서 세상을 배우면서도 한편으로는 그 어느 곳보다도 편안함을 느낀다. 업주

있었다. 여성들 사이에서도 그의 딱한 처지는 늘 책끝을 차게 할 정도로 안타까운 상황이었다. 임원단의 그 제안은 축식에서 성금을 걷어 함께 발족식에 참여해 있던 그 여성에게 성금을 전달하는 대하여 속도감 있게 진행되었다.

이 날의 일은 이후 개나리회 활동의 핵심 활동 중 하나가 되었다. 이들이 개나리회를 구성하며 가장 크게 염두에 두었던 것은 업주, 경찰, 가동시방, 펨프 등으로부터 자신들의 권익을 지키는 것과 어려운 처지에 있는 동료 여성을 돕고, 소외 계층을 위해 자원 봉사를 하는 것이었다.

견제와 대항

개나리회는 발족식을 가진 사흘 뒤인 7월 25일부터 사업 내용으로 정한 것들을 실행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첫 사업은 용산역 광장에서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역 이용자들에게 얼음 넣은 시원한 보리차를 제공하는 일이었다. 그 시절 용산역은 식수 시설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많은 사람들이 불편을 겪던 터였다. 또한 오가는 여행객들이 남긴 쓰레기와 갈 곳 없는 노숙자들이 쏟아낸 혼적들로 늘상 지저분했다. 여성들은 새벽마다 용산역과 인근 거리 청소하는 일도 시작했다.

밤생 영업을 한 여성들로서는 자신들의 수면 시간을 온전히 그 일에 투자하는 것이었는데도 참여율이 무척 높았다. 용산역에는 개나리회의 이름이 적힌 현수막이 매일같이 걸렸다. 초창기 이런 과정에 필요한 비용은 회원들에게 한 원씩 걷은 것으로 충당했다. 이 일에는 업주들도 여럿 참여했는데, 여성들에게 수고한다면서 음료수를 사 주기도 했다. 몇몇 업주의 참여는 여성들의 사기를 더 북돋워 주었다.

"다들 상글벙글이었어. 업주들이 자기 주머니를 털어서 우유나 요구르

드를 사 주기도 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그런 건달이 아니더라고. 그야말로 정화위원들다웠어. 연세 지긋한 정화위원이나 다른 사람들이 배웠어도 그 사람들은 끝까지 개나리회를 도와 줬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성은이)

하지만 나는 좀 의아스러웠다. 일부 업주들의 말에도 그랬지만, 그들이 초창기 사업 내용으로 정한 것이 왜 하필 대민 사업이었을까? 그들이 편의를 제공하는 낯모를 사람들은 지금껏 자신들 같은 여성에게 곱지 않은 눈길을 보내던 이들이 아닌가. 정숙자 씨와 인터뷰 도중 나는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었다. 잠잘 시간 줄여 가며 음료수를 나눠 주고 청소를 한 것은 당신들을 손가락질했던 사회와 사람들을 위한 것인데, 정작 당신들에게는 사회와 사람들에 대한 미움이 없었느냐고 말이다.

"글쎄. 우리들의 계달음이었을까? 그다지 뭐 적대감일까 그런 건 별로. 평범한 일상 생활…… 축복받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냥 그런 거지."(정숙자)

이 의도된 질문에 정숙자 씨는 그저 나이든 사람들이 흔히 그렇게 말하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건 다 그렇고 그런 것'이라는 듯 고개를 주억거렸다. 이 적당한 체념과 적당한 관조, 적당한 편안함이 나는 그리 싫지 않게 느껴졌다.

이들은 자의반 타의반으로 자기가 속한 테두리 밖과의 단절을 '선택'한 여성들이었다. 행여나 자신을 알아보는 이가 있으면 어쩌나 염려하는 순간들이 있었으며, 누군가의 기억 속에 자신의 이름이 남겨질까봐 거짓 이름을 사용했다. 그런 세월이 길면 길수록 자신조차 제 본디 이름을 잊어버리는 수도 있었다. 이렇듯 그곳에서의 세월이 하루하루 보태질수록 체념이지도 별스럽지 않은 일로 넘겨 버릴 수 있게 된 그들이 그러한 활동을 계획한 것은 뜻밖의 일이었다. 나는 똑같은 질문을 성은아 씨에게도 던졌다.

"그렇지 않았어. 누가 알아봐야 모자 푹 눌러 쓰고 했지만 그런 생각은 없었어. 우리도 선행을 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강했지. 사람들이 얼마나 자랑을 많이 했는데. 용산에 가면 우리처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이야. 택시 기사들도 우리가 시원한 음료수 나눠 주면 그게 뭔가 아니면서 아, 정말 수고한다고 그러고, 근데 사람들이 행수마보고 저 개나리회가 뭐하는 데냐고 물어 보면 그냥 지역 봉사회라고 얼버무리곤 했어."(성은이)

처음에는 자신들이 '그런 여자들'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았다. 어느 순간 이후 단절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의식이 교차하는 그들로서는 자신들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 자신의 존재를 여전히 가슴속에 품고 있을 가족과 지난 날 잘못을 함께 장식했던, 어느 순간 이후 단절된 가까운 이들에게 향하는 심리는 낯모르는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작동하였다. 그렇듯 주변 사람들에게 향하는, 드러내고 싶지 않은 마음은 그들 모두가 거의 비슷했다. 혹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알려지지는 않으려나, 혹시 저 사람이 내가 어젯밤 상대했던 손님은 아닐까, 내 배우자가 '그런 여자'와 딸 를 내는 것은 아닐까? 그런 염려는 어느덧 사회 전반에 대한 두려움이 되기도 했으며, 그 두려움의 두께만큼 사회에 대한 반감도 키웠다. 이런 여성들이 스스로 '종동가'가 아닌 또 다른 거리를 향해 나간 것이다.

개나리회 활동이 여성들에게 더욱 긍정적인 이미지로 다가갈 수 있었던 것은 발족식 때 어려운 처지의 동료 여성을 도왔던 것을 시작으로 꾸준히 동료들에 대한 관심을 보였기 때문이었다. 이런 자세는 발족식 이후에도 한결같이 지속되었다.

"아픈 아가씨들 입원시키고, 집집마다 돈 걷어서 도와 주고. 아가씨들 아프면, 개나리회 회원 아니라도 아프면 다 했어. 또 아가씨 두들겨 패면 우리

가 거기 가서 막 뛰라고 하고, 업주들하고 싸움도 많이 했어. 누가 맞았다, 그러면 와서 얘기했어. 독한 업주들은 그래서 우리를 싫어했어. 수해 났을 때 모금하러 다니면 돈도 안 내주고."(고수희)

전에 없이 경조사를 챙기고, 서로간의 신상에 어려움이 생길 때마다 도움을 주는 것은 여성들에게 자신을 위해 누군가 애써 준다는 안상을 심어 주기에 충분했다. 고수희 씨가 말한 것처럼 서로의 처지를 돕는 것은 동료 의식의 가장 기본이기도 했다. 개나리회의 동료 의식은 다양한 방법으로 표출되었는데, 그것은 다분히 저항적이었으며 표면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기도 했다.

"그 회가 생기고 나서 여자들이 단속에 걸리면 우리가 다 파출소에 피들어가서 영란을 냈어. 하여튼 무슨 일이 있어서 여자가 불들려 갔다 그러면 무조건 가는 거야. 잘 아는 여자는 아니어도 개나리회 회원이면 무조건 가는 거야. 가서 빵개빗기도 하고 오줌도 싸 놓고 똥도 싸 놓고. 말도 아니었어. 그러면 경찰들이 감구지를 못했어. 백차가 막 오지? 우리는 그 앞에 막 들어가 버려. 데리고 가려면 가라, 버티는 거야. 사람이 차 앞에 들어가 있는데 어떻게 하겠어. 우리 요구 사항은 여자 돌려보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인질극이지. 좋게 말하면 시위고 하늘고 말하면 인질극. 그게 성공한 적이 많아. 그렇게 실제로 여자를 빼낸 경험이 여러 번 있어."(정숙자)

여성들은 이 과정에서 자신들에게 익숙한 방법을 썼다. 그들은 사회에서 자신들에게 던지고 있던 편견을 모르지 않았다. 게으르며 거칠고 상소리를 잘한다는 등의 사소한 편견들. 그와 같은 인식에 쉽게 동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런 순간에는 오히려 그들만의 익숙한 방법을 활용함으로써 자신들에게 던져지는 편견을 조롱이라도 하듯 그대로 내보였다. 이런 방법은 비단 경찰들에게만 쓴 것은 아니다.

"뭉치면 힘이 되잖아. 나 역시 자부심이 많았지만 다른 사람들도 그랬을 것 같아. 경찰뿐 아니라 손님이나 업주, 기둥, 업주와의 관계에서 그런 적도 많지. 손님들 중에 나쁜 놈이 좀 많아? 얼마나 비참한 줄 알아? 남자들이 들어오면 타임 같이 얼마나 된다고, 여자들 가지고 놀다가 자기네가 클라이맥스가 돼서 사정을 해야 하는데 그게 안 되면 돈을 다시 달래. 남자들이 딱 가지고 놀고 주물러 터뜨리면 여자들이 얼마나 힘들어. 집중도 아닌데. 그렇게 괴롭히고 그러면 싸우게 된다고. 사정 못했으니까 돈 달라고 그러면 기가 막히니까 안 싸울 수가 있니? 살인이라도 나야지. 그럼 신고가 들어가. 만만한 게 여자들이지. 몸뚱이 대신 사람은 얼마나 억울해. 그럼 딱 쳐들어가서 영란 놓은 적도 있어."(정숙자)

이런 방법은 개나리회 동료들을 빼내 오기 위한 적극적인 활동의 하나이기는 했지만, 동시에 그 동안 여성들 내부에 존재하던 분노의 표출이기도 하였다. 또한 개나리회라는 이름으로 단결을 경험한 여성들의 자기 과시의 하나이기도 했다. "그래, 나는 불통이다!"라는 개인적 분출 외에 자신이 어딘가에 소속되어 있고, 자신이 소속된 이 모임이 결코 만만치 않은 존재라는 걸 과시하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이다.

개나리회 활동이 여성들의 호응을 많이 받고 꾸준히 지속되자 주변의 견제 역시 만만치 않았다. 물론 그들의 주된 견제 대상은 업주인데, 그것은 일상적으로 감당해야 할 일 중의 하나였다. 누구보다도 최장 성은아 씨가 감당해야 하는 부담이 가장 컸을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업주와 경찰로부터 던져지는 비난의 한가운데에 놓여 있다는 것은 심리적으로 일어나는 '폭발한 지역'에서 심리적인 부담뿐 아니라 '발업 행위'에 대한 현실적인 어려움까지도 감당해야 하는 것이었다.

누가 보더라도 업주와 경찰은 그 지역에서 일종의 권력을 쥐고 있는 부류들이었다. 한때 개나리회가 집단 행동을 하고 자기 목소리를 내려고 하며 여성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는 것이었다. 이는 분명 경계할 만한 일이

었다.

"낸 자꾸에는 말이 세었대, 하면서도 계속 말이 싸우고. 회장이 욕을 다 먹었지. 그러면서도 한 번도 굽히지 않고 계속 설득하고. 진달이면 진달, 업주면 업주, 끝까지 설득하고. 그러니까 안 좋아할 사람이 없었지. 의리파니까."(은소영, 가명, 당시 23세)

은소영 씨는 이미 개나리회가 어느 정도 활동을 시작하고 난 뒤, 같은 업소에 있는 친구의 소개로 개나리회를 알게 된, 그의 표현에 의하면 '뜻에 동조' 하였기에 함께 활동을 시작한 여성이었다. 그는 성은아 씨나 정숙자 씨와 달리 아무런 직책도 맡지 않았으며 활동 경력도 6개월로 두세 번째였다. 그저 평범한 회원으로서 개나리회 활동에 참여하였고, 이후 활동을 그만두고 나서도 집에서 그 활동을 관심 있게 지켜본 사람이었다. 은소영 씨는 업주들로부터 쥐는 불만할 때문에 개나리회 활동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했다.

"업원들이 동네에 나타나면 여자들이 벌써 표정부터 딱 달라져. 벌써 피해, 도망가. 같이 대화도 안 하려고 했어. 업주들이 뭐라고 하고 못하게 했으니까. 업주들이 쳐다보지도 못하게 하고 말도 못하게 했어. 그래서 아가씨들이 도망가고 숨고 그랬어. 내가 알기로는 초창기나 그후에도 거의 쉽든 가는 하란가지였다고 봐. 근데 아가씨들끼리 모여 있으면 다 개나리회 잘 한다고. 근데 업원들 얼굴만 보면 딱 언제 그랬냐며 안면 까. 업주들이 하도 그러니까."(은소영)

업원들이 쥐는 불이익은 심리적인 위협뿐 아니라 물리적인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칼도 아, 칼침 맞을 정도였어. 어지간했으면 밖에 나가는 게 다 무서웠겠어, 업주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지. 오죽했으면 아바리라고 소문난 회장이 밖에 나가는 걸 무서워한 적이 있었겠어. 하지만 도움을 준 업주도 있어. 인간적인 거지. 세파에 억눌려 살다 보니까 그 환경이 성격을 형성하잖아.

모순이지. 약간 모순이 아니라 상당히 모순이지. 그런 업주들도 우리를 도와 줬다기도 밤에는 아가씨들 거느리고 영업을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마음 약한 사람은 업주도 못해."(정숙자)

전체의 중심 대상이었던 회장 성은아 씨는 업주들의 횡포에 대해 이렇게 이야기했다.

"다리 분지른다, 목을 비튼다, 백돌로 뒤돌수를 친다, 수용소에 처넣겠다, 뭐 별별 협박 소리가 다 들렸어. 애들이 막 맞고 돌아오기도 했어. 울면서 들어와서 누구네 집 업주가 그랬다고 하면서. 그럼 내가 곧바로 찾아가지. 처음에는 목갑이 그랬지만 나중에는 나도 이제 그냥 부딪치기만 해서 될 게 아니니까 말을 하지."(성은아)

그와 같은 견제는 비단 업주나 기둥서방에 의한 것만은 아니었다. 성은아 씨는 관할 구청과 파출소에 불려 가는 일도 종종 생겼다.

"윤락 여성들은 그런 단체를 조직할 수 없다며 나에게 훈계를 하더라고. 윤락 행위 자체가 위법이기 때문이라는 거지. 거기다 대고 내가 우리 모임의 뜻을 설명하고 도와 달라고 해보기도 했지만 헌법 사전을 들춰 보이며 업포를 놓는 거야."(성은아)

당시 구청이나 파출소 직원들이 들춰 보이던 헌법 책이 아니더라도 그 시절의 냉랭했던 사회 분위기로 보아서는 주변의 경계가 충분히 짐작하고도 남을 일이다. 그런 시절에 감히 '억압으로부터의 해방', '착취 반지' 등의 문구를 내걸다니. 나는 정숙자 씨와의 인터뷰 도중 나의 어린 생각을 드러낸 적이 있다. 그는 개나리회가 '빨갱이' 처럼 보였을 것이 당연했지만 자신들 동지적는 그 사람들이 '진짜 빨갱이' 가 아니니며 오히려 내게 반문했다.

만일 이 조직이, 사실상 결성 배경에 결정적인 역할을 차지한 사회정화위원회의 작품이라는 데 충실했다면 이 여성들이 주변으로부터 위협이나 견제를 받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만일 그랬다면 '그들의' 편리한 하수 관계에

놓이거나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일종의 역할 분담 내지는 하청으로 주어지는 일들을 처리하는 데 그쳤을 것이다. 다른 지역에 존재했던 여러 자치회들이 이 같은 공생 관계를 유지하며 나름의 공간을 배분받았던 것과 비교되지 않을 수 없다. 개나리회 역시 여성들에게 인식되기를 업주나 경찰보다는 막하나 여전히 자신들에게 힘을 자랑하는 권력의 파편 조각 정도로 남았다면, 그러한 견제는 아예 발생하지도 않았을 것이다.

나의 권리, 몸

개나리회에서는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주도하기도 했는데, 이는 개나리회 활동을 지지해 주던 당시 용산구 보건소 소장의 역할이 크게 작용했다. 보건소 소장은 개나리회가 결성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자신이 먼저 사무실로 찾아갔는데, 이 자리에서 여성들의 성병 검진 실시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그들 사이에서 성병 검진에 대한 의논이 오갈 수 있었던 것은 이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성병 감염 위험에 놓여 있었을 뿐 아니라 의정부 · 동두천 등 기지촌 지역에서 정부 시책에 따라 정기적인 성병 검진을 시행한 경험이 보건소 소장에게 있었기 때문이었다.

"사실 우리는 성병에 대해서 늘 걱정을 하고 살아야 했으니까 아주 절실했지. 그런 우선 여자들이 먼저 얘기하는 수밖에 없어. 나는 처음부터 콘돔을 쓰게 했거든."(성은아)

"보건소 소장의 힘이 컸지. 당시에는 검진이라는 게 없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꼭 보건증을 발급받아야 된다는 얘기가 돌기는 했지만 우리는 별로 해당이 되지 않았어. 어떻게 해볼 길이 없었는데, 어느 시기엔가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그 사람이 보건소 소장으로 와서 관심을 가지고 같이 한 거지. 검진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반드시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었어. 콘돔 거부

만을 가진 애들도 있었는데 그런 애들은 안 가는 거고, 어쨌든 자발적이어, 다들 해야 한다고 생각했어."(정숙자)

여성들이 먼저 성병 검진을 원하고 자체적으로 그것을 제도화한 것은 주목할 만한 일이다. 이 성병 검진은 원하는 사람에 한해서 진행했으며, 검진이 있는 날이면 개나리회 임원들이 집집이 다니며 홍보를 하고 다녔다.

"나도 그때 검진하러 다녔어. 그냥 가고 싶은 애들 가는 건데, 내 건강을 지켜 주는 거잖아. 나도 되도록 콘돔을 쓰라고 했지만 개중에 감각이 다르다고 해서 안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 당시에는 콘돔 사용하는 사람들이 별로 없었지."(은소영)

보건소에서는 균이 발견되면 약과 주사로 처방을 했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은 한결같이 "용산은 성병에 대해서 전국에서도 자신이 있을 만큼" 성병 발병률이 낮았다는 말을 했다. 성은아 씨의 말에 의하면 업아 뒤 사을 한 남동에 성병검진소가 새로 개설했는데, 그것은 순전히 용산과 이태원 상에에 지역 때문에 만들어진 거라고 했다. 용산 지역 보건소에 있던 소장이 한남동 성병검진소 업무를 보게 되자 자신들도 그곳으로 검진을 받으러 다녔으며, 균이 발견된 여성 중 특별한 치료 과정을 거쳐야 하는 여성은 그곳에서 여질정 입원 치료를 받았다고 했다.[9]

당시 미군 부대 주둔지의 기지촌 클럽 종사 여성들에게는 성병 검진이 의무였는데, 이에 대한 여성들의 문제 의식은 무척 깊었다. 기지촌 지역에서의 성병 검진은 1970년대 초반, 박정희 정권에 의한 기지촌 정화 캠페인에 그 맥을 두고 있었다. 이 캠페인은 미군들로 하여금 "기지촌과 한국에 대해 더 매끈한 인상을 주기 위한" 캠페인에 지나지 않는다.[10] 기지촌 생활을 중

9) 은소영 씨도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곳이 낙성대 수용소인지를 묻자 그렇다고 했다. 하지만 성은아 씨는 낙성대 수용소는 아니었으며 보건소 같은 곳이라고 말했다.
10) 캐서린 문, 「한 · 미 관계에 있어서 기지촌 여성의 문제 생산화된 역사」, 일해진 집 · 최철웅 편저, 『아웃팔린 아침』(삼인, 2001).

안한 여성 역시 이 캠페인에 대해 "미군에게 깨끗한 한국 여성을 공급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이를 적절히 비난했다.[7] 그 시기 미군 클럽에서 일하며 정기적 성병 검진을 받아야 했던 여성의 대부분은 산책이 아니라 의무였던 그 제도 자체에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만일 성병 검진에서 보균자로 판명이 나면 낙검자 수용에 보내져 일정 기간을 보내야 했다.

관련 여성 단체에서 수집한 여성들의 증언에서는 성병 검진 제도는 여성들에게 의무적으로 행해졌으며 그 자체로서 충분히 인권 유린이었다고 밝히고 있다. 많은 여성들 역시 의무적인 성병 검진을 "몸 파는 여성으로 벌 수 없이 당해야 하는 수모"라고 여기는 경우가 많았다. 이런 배경을 기억하는 나로서는 개나리회가 자신들의 활동 내용 중 하나로 정한 성병 검진 사업에 선뜻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

정숙자 씨와의 인터뷰 도중 내가 이런 문제를 제기하자, 그는 "우리끼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랐으며 도무지 방법이 없었다"는 말로 대답을 대신했다. 그에 따르면 성병은 많은 여성이 피해 갈 수 없는 일상적인 문제 중 하나였는데, 개인적으로 해결하기에는 너무 큰 문제였다는 것이다. 콘돔을 써야 하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지만 그러려면 어지간한 여자들이 아니고서는 남자들에게 요구할 수 없었으며, 설령 요구한다고 하더라도 남자들 스스로가 그걸 원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이다. 많은 여성들이 심각한 증상이 발전되기까지는 자신이 성병에 감염되었는지조차 모르는 경우가 허다했으며,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자신들의 경제적 부담하에 매미다 병원에 가서 검진을 받거나 치료를 받기란 힘든 일이었다고 한다.

나는 서울과 경기 지역의 성매매 밀집 지역 세 군데를 정해 아웃리치 프로그램을 기획했던 적이 있다.[8] 이때 우리가 방한 아웃리치는 성매매에 대

7) 내게 서울으로 여성들의 자서 조사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준 여성이 자서전(미출판물) 집필 작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기한 의견이다.

해 소리 높여 얘기하는 것과 달리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의식에서 비롯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성매매에 관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여성들이 겪고 있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적극적인 대안은 별로 없었다. 의지를 갖고 스스로 정보를 찾아 여성 단체에서 상담을 받고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와 해당 지역의 여성 단체나 선교 단체와 관련을 맺고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면 방법을 찾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나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지역은 폐쇄적인 인식으로 인해 근접 자체가 불가능했다. 물론 이러한 폐쇄적 의식은 업주나 경찰, 여성 모두가 공통적으로 지니고 있는 것이었다.

당시 아웃리치 프로그램은 기업과 기관의 후원을 받아 성매매 밀집 지역의 여성들에게 여성용품과 상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때 우리가 준비한 여성용품은 생리대와 콘돔 등이었는데, 한 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의 능력만으로는 그 진행 자체가 불가능했다. 관공서와 지역 내 업주 및 명을 사전에 설득하여 함께 진행하는 방식으로 했는데, 떨어질지도 모를 약간의 마찰과 냉소적일 수도 있는 여성들의 반응에 대해 걱정이 앞서했던 것이 사실이다. 여성들은 우리가 준비해 간 것들 중에서도 유독 콘돔에 관심을 보였다. 외부에서 온 낯선 사람들이 콘돔을 전해 주는 것이 뜨악스럽고 민망한 일이기도 했지만, 우선 콘돔은 그들에게 현실적으로 반드시 필요한 물품 중 하나였던 것이다. 그 유통성의 여부는 개인적으로 조금 차이가 있겠으나, 우선은 갖추어 두어야 할 물품이 아닐 수 없었다. 콘돔기의 쇼윈도에 있는 젊은 아상에서부터 눈에 잘 띄지 않는 뒷골목에서 펨프나 히빠리를 하는 나이든 여성에 이르기까지 콘돔을 비롯 우리가 준비해 간 물품을 거부하는 이는 한 명도 없었다. 오히려 더 줄 수는 없는지, 장기적으로 나와 줄 수는

8) 아웃리치 진행을 위한 펀드레이저가 주최하여 1999년에 이루어졌다.

없는지를 묻는 경우도 더러 있었다. 그로 인해 여성들이 지니고 있었을 우리에 대한 배타적 심리가 노골적으로 표출되는 일은 이미 차단되었다. 하지만 그 밖의 상담 정보에 대해 더 자세한 문의를 해오는 여성은 거의 없었다.

일부에서는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여성에게 콘돔을 나눠 주는 것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말하곤 했다. 하지만 이런 활동을 단지 성매매를 인정하는가 혹은 성매매를 장려하는가 하는 문제로 해석하는 것은 이분법적인 발상이다. 문턱 높은 사회적 자원을 이용하는 것보다는 당장 오늘밤에 활용할 수 있는 콘돔이 더욱 현실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현실을 여성들의 이기성으로 몰아붙여서도 곤란하다. 그것은 지금껏 성을 파는 여성을 위한 사회 복지 개념조차 변변히 마련되지 않은 우리 사회의 현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개나리회는 건강 관리 차원의 성병 검진을 정기적으로 펼치는 한편, 손님들에게 콘돔 착용을 요구하자는 활동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를 위해 개나리회에서는 실제로 여성들에게 콘돔을 나눠 주며 홍보하는 적극성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여성들의 호응은 무척 높았다. 하지만 그런 요구를 '남성 고객'들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보건소와 공동으로 비정기적인 '교양 강좌'를 몇 차례 개최하기도 했다. 그 내용은 주로 성병 예방 교육에 관한 것이었는데, 당시 조금씩 언급되곤 하던 에이즈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졌다.

여성들이 성병 관리를 하는 것은 업주 처지에서도 그리 나쁜 일은 아니었다. 그들 표현을 빌자면 "깨끗한 년"를 공급하는 것이 고객 관리 차원에서도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그들은 개나리회의 성병 검진 활동을 거세게 반대하고 나섰다. 그것은 아마도 성병 검진 자체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여성들의 집단적 움직임에 대한 견제였을 것이다. 이러한 견제는 개나리회뿐만 아니라 이들의 활동을 전폭적으로 지지하던 보건소 소장에게까지 확대되었으며, 급기야는 성병 검진을 홍보하러 다니던 일원들에게 야유와 함께 폭행을 가하는 형태로 나타나기도 했다.

선언에서 일상으로

활동이 안정되면서 이들의 관심은 여성의 일상 생활에서 더욱 필요한 문제들로 영역을 넓히기 시작했다. 이들의 활동 영역은 역 광장과 성매매 거리뿐 아니라 여성들이 겪는 하루하루의 생활로 옮겨갔으며, 대항하고 부딪치는 것보다는 돌보 화석을 키우며 서로간에 실제적인 변화를 만들어 가는 쪽으로 점점 바뀌어 갔다. 경조사 챙기기, 물건 싸게 팔고 싸게 사기, 계산 절해서 팔기, 1인 1품장 갖기, 학 줄이기, 서비스 개선하기, 고운말 쓰기, 놀음 화투 줄이기[9] 등의 항목은 당시 여성들의 생활상을 그대로 반영하는 것들이었다.

"우리는 순 깡다구로 뭉친 여자들이었지만, 역전에서 보리차도 나눠 주고 그러다 보니까 시각적으로 바라보는 눈길이, 이게 살아가는 이웃의 정이 로구나 했지, 초상 나면 열 일을 제쳐놓고 와 주고, 무슨 날 챙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활동이었지. 그러니까 처음에는 대단한 악압에 대한 대항 그런 거였지만 점점 보편적인 것로 바뀌어 간 거야."(정숙자)

정숙자 씨의 표현처럼 개나리회 활동은 "억압에 대한 대항에서 보편적인 것으로" 바뀌어 갔는데, 이는 "선언적인 것에서 일상적인 것으로" 변모해 갔다는 의미이다.

회원들의 경조사를 챙겨 주는 일은 결속력을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 대부분의 여성이 자신의 생일조차 잊고 사는 경우가 허다하였다. 어떤 여성

9) 「개나리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에는 '남을 도와 목사 로 개나리어 입장.

들에게 미역국을 대접하며 생일을 기억하게 하고 아플 때 찾아가 위로하는 일은 매우 중요했다. 손소영 씨는 이 일에 대해 깊은 안상을 간직하고 있었다. 그는 활동을 주도하는 임원들이 자신들과 같은 처지인 '아가씨'에 대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고 말했다.

물건 싸게 팔고 싸게 사기

개나리회 임원들은 지약, 수건, 속옷, 비누 등 생활용품을 도매값에 떼어다가 지역 내 감화원보다 훨씬 싼 가격으로 여성들에게 팔았다. 이때 남은 이익은 개나리회의 재정으로 관리하며, 다시 여성들의 경조사 챙기기와 같은 활동에 필요한 경비로 썼다. 얼른 상인들의 반발도 있었지만 나중에는 아예 개나리회 활동의 하나로 인식하게 되었다.

"지약, 비누, 그런 거 가지고 다니면서 싸게 팔았어. 빨래비누, 세숫비누 그런 건 꼭 필요하니까. 싸니까 사기도 했지만 개나리회에서 파는 거니까, 조금이라도 마음이, 도움되라고 그걸 샀지."(손소영)

성매매가 집중적으로 일어나는 이른바 '사창가' 지역은 물건값이 비싸다. 그 지역의 경제는 성매매로 인해 활성화되면서도 정작 그 중심에서 일하는 여성들이 일상적으로 직면하는 물가는 일반 주거 지역에 비해 더없이 비싸다. 그것은 여성들이 다른 지역에 나가 교류할 수 없다는 점, 여성들이 도망가는 것을 막기 위해 업주들의 감시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악이용한 현상이기도 하다. 여성들 역시 그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알면서도 뾰족한 방법을 찾지 못한다. 그런 지역에는 오래 보따리 장사들이 다니는데 그들이 파는 물건은 '홀복'을 비롯해 속옷, 신발 등 일상에 필요한 온갖 생활용품이다. 이 역시 여성들이 밖으로 쉽게 나가지 않는(혹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인데, 외상이 가능하기 때문에 여성들로 하여금 필요 이상의 소비를 하게 만들기도 했다. 보따리 장수들이 돌고 다니는 품목이 조금 바뀌었을지는 모르겠으나 그런 상황은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

계산 잘해서 받기

개나리회는 특히 여성들이 '화대', 즉 성매매 대가로 받는 돈을 제대로 생기지 못하는 것에 큰 문제 의식을 갖고 있었다. 이들이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을 벌인 것은 손님뿐 아니라 일부 업주를 겨냥한 것이기도 했다. 손님에게 애초에 흥정된 '가격'을 받아내지 못하는 경우만 있는 게 아니라 업주로부터 거나하게 많은 액수를 제한 뒤 셈해 받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했기 때문이었다. 셈에 느리거나 자기 몫을 제대로 챙겨 받지 못하는 경우는 그만큼 흔했던 것이다. 여성들 중에는 개나리회에 그런 문제를 호소해 오는 이들이 많았다.

"그런 일이 많이 생겼지. 주로 주인하고 싸우고 화대 계산 안 해준 거, 그런 거 받아 주고. 회장이 해줬지. 지금은 일반이지. 지금은 애들이 똑똑하잖아. 옛날에는 노골적으로, 질문이들만 왔지, 시골에서 배우지도 못하고 먹을 것도 없으니까 몸팔어리나 팔고, 밥이나 먹고, 밥도 제대로 안 해줬어. 계산 안 해주는 사람들 많았지. 그걸 어떻게 따졌겠냐? 제다가 그때는 업주가 빽이 셌대. 옛날에 수용소에 집어넣어 버린다고 하면 그럴 수 있나? 가만히 있는 거지. 그럼 가서 막 따지고,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 하고, 회장이 알장서서 했지. 그럼 해줘야지 어떻게 할 거야. 동네에서 그런 경우가 없었어. 우리 개나리회가 해낸 거지."(고수희)

처음에는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이 직접 해당 업주를 찾아가 담판을 지어 계산을 받아내는 방식으로 진행되던 것이 점점 더욱 적극적인 방법으로 진행되었다.

"당시에는 업주랑 한 달에 한 번씩 계산을 보는 경우가 많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얼만큼을 떼어먹어도 아가씨들이 그걸 몰라. 계산 본 걸 받

아도 그걸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몰라서 다시 업주한테 말기기도 하고. 그리고 업주가 딴 데로 옮겨가면 말할 날리는 거야. 계산을 똑똑하게 하는 몇 명 애들 빼고는 많이들 그랬어. 실컷 고생해 놓고 몸은 상하지, 수중에 남는 돈도 없지. 그래서 개나리회에서는 일 주일에 한 번씩 계산을 보라고 가게마다 다니면서 홍보했어. 아침마다 계산을 보는 게 제일 좋기는 하지만서도."(성은이)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에 대한 여성들의 호응은 무척 높았다. 자신들이 셈에 느린 경우는 개나리회를 찾아와 도움을 청하기도 했으며, 처음에는 아랑곳하지 않던 업주들도 점점 일 주일 단위로 계산을 해주기 시작했다. 이 활동은 뒤에 1인 1통장 갖기 운동과 더불어 더욱 적극적인 형태로 진행되었다.

1인 1통장 갖기

개나리회 임원들은 특히 1인 1통장 갖기 운동에 남다른 의미를 부여하고 또 자부심도 갖고 있었다. 이 활동은 "저항을 준비하고, 업주와 기둥서방으로부터의 착취에 반대하자"는 그들 스스로의 취지를 살린 운동이었다. 계산 잘해서 받기와 함께 성매매 공간에서 스스로를 위한 경제적 관리를 시도해 본다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여성들이 제 통장을 개설하고, '화대'를 꼬박꼬박 저금하는 것, 당시로서는 발상을 뒤엎는 시도이기도 했다.

정숙자 씨는 개나리회의 1인 1통장 갖기 운동 배경은 당시 기둥서방들에 의한 착취에 있었다고 말했다.

"화류계 생활하는 여자들이 사치, 손님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 화장도 하고 옷도 사고 머리도 안 하면 안 하고, 술이나 환각제로 남비하는 돈도 많지만, 기둥서방에게 주는 액들도 많으니까. 예를 들어 지금 내가 내 상대라

면, 내가 기둥이고 네가 아가씨면 이 기둥은 일시적일 뿐이야. 지금은 못써 멍 보이고 돈을 버니까 붙어 있는 거야. 영업 장소에서 손님에게 폭행을 당할 때, 못된 사람들도 있거든. 남자가 지나가는데 놀다 가요, 이러면 이 씨발년이 이러면서 뿌리치고, 그러다가 이 개새끼 안 가면 안 가서 패 때리, 대들다 여자가 몽예당하고, 그런 경우에 기둥이 도와주는 건 사랑해서가 아니라 자기 역할을 하기 위해서일 뿐이야. 상하일체라고나 할까? 아가씨, 업주, 기둥간의 상하일체, 공생공존하는 거니까. 아가씨는 정말 자기네가 몸을 팔고 있음지라도 정에 굶주린 사람들이니까. 집에 들어가면 '이 씨발년아, 너 돼 아가씨에 몸 팔었어, 내가 노력했으면 많이 벌었을 거 아냐' 그런 경우도 있서, 그렇게 때리다가도 아플 때는 또 기둥자게 잘 해줘. 그러니까 가능하면 기둥이 모르게 자기 통장을 관리하는 거지. 그들에게 착취당하지 않게."(정숙자)

처음에는 그다지 공개적으로 진행되었던 것 같지는 않다. 정숙자 씨가 말했던 것처럼, 이는 기둥서방들이 경계적으로 관여하는 것에 대해 그들만의 대책으로 나온 안이었던 셈이다. 자연 이 과정에는 그들만이 알 수 있는 묘한 연대감 같은 것이 바탕에 깔려 있었다. 하지만 이 운동의 시작이 꼭 업주와 기둥서방으로부터의 착취를 의식해서 비롯된 것만은 아니었다.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과 더불어 이 운동은 당장 눈에 보이는 수익이 생긴 여성들이 그 돈을 저금하고 계획을 세워 보는 나름대로의 훈련 과정이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 당시에 통장 하나 갖고 있는 애들이 극히 드물었어. 하루에 천 원이라든가, 한 달에 만 원이라든가 예금하고. 그때 통장은 활동 그만두면서 별로 안 하게 됐어. 만일 개나리회 활동을 계속 했다면 달라지기도 했겠지. 그때는 가질도 가난했으니까 내 통장 만든다는 건 생각도 못했어. 집에 돈 갖다 주고, 내 동생 가르쳐면서 그랬으니까."(손소영)

은소영 씨 말에 의하면 성병 검진을 받기 위해 나갔다가 임원들의 제안으로 태어나 생전 처음 자기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게 되었다고 했다. 비단 은소영 씨뿐만 아니라 이 운동에 참여한 대부분의 여성이 비슷한 처지였다. 1인 1통장 갖기 운동은 주로 매주 정기적인 형태로 진행되던 성병 검진일을 이용해 자유롭게 진행되었다.

지역 내에서 개나리회가 계산 성매매 반기와 1인 1통장 갖기 운동을 주도하는 것이 공공연한 사실이 되고 회원들의 호응이 높아지면서 이는 더욱 적극적인 형태를 띠기 시작했다. 개나리회는 지역 마을 금고와 협의를 통해 일 주일에 한 번씩 정기적인 예금일을 정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에는 개나리회 활동에 그다지 배타적이지 않았던 당시 사회정화위원 중 한 사람이 그 마을 금고의 이사였던 것도 한몫 차지했다. 마을 금고에서는 일 주일에 한 번씩 개나리회 사무실로 직원을 파견했으며, 여성들은 전보다 더 적극적으로 예금 활동을 했다. 비공개적이던 1인 1통장 갖기 운동이 집단적인 형태로 진행되기 시작한 것이다. 이 운동의 가장 큰 의미는 이제는 우리도 스스로의 삶을 준비해 보자는, 그들 스스로의 노력이 처음으로 표면화되었다는 점이다.

"모이는 액수, 통장에 대한 자부심 같은 게 대단했지. 서로 보이려 가면서, 1인 1통장 갖기, 이거는 정장히 적극적이었어."(정숙자)

그런 활동이 2001년 십대 성매매 근절 이슈를 불러일으키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 당시 서울 종암경찰서 서장 김강자 총경(현 경찰청 여성청소년과)에 의해 미아리 지역에서 시도된 일이 있었다. 이 사실을 예기하자 정숙자 씨와 성은아 씨는 자신들도 들어서 알고 있다며 "우리는 이미 20년 전에 했다"고 말했다.

김강자 씨가 미아리 성매매 밀집 지역 일대에서 그런 활동을 벌일 때 언론에서는 큰 관심을 갖고 이를 다루며 긍정적으로 보도했다. 김강자 씨는 당시 한 월간지와의 이슈 대담에서 "통금 통장 만들어 주게 한 후 매월 점검하고, 정기적으로 검진받게 하고, 그게 바로 내가 주장하는 공창제의 핵심"이라고 말했다.[10] 하지만 비슷한 시기, 지방의 한 성매매업소에서 발생한 집성회(가명, 당시 26세)[11] 씨는 그것은 단지 보여주기에 지나지 않는다고 단언하였다. 김강자 씨의 그런 활동이 언론에 소개되자 자신이 속한 업소뿐 아니라 인근 업소에서도 여성을 이름으로 된 통장을 만들었지만, 그 통장은 경찰들이 단속 나온 그날 단 하루만 자신들 손에 쥐어질 뿐이며 경찰들이 돌아가면 다시 업주의 손에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결국 김강자 씨가 공창경찰서를 떠난 뒤, 미아리에서의 보여주기의 통장 관리도 유야무야되고 말았다. 개나리회에서 주도했던 그 활동은 미아리에서의 그것과 달랐다. 그들의 1인 1통장 갖기 운동은 그들 내부에서 제기되어 시도되었으며 또한 일상 속에서 관리되었던 까닭이다.

약 올리기 운동

환각제를 끊어 보자는 활동은 그 어떤 활동보다도 여성들로부터 큰 공감을 얻었다. 이 지역 여성들의 경우 이른바 '몽달' 혹은 '옥순이'(윤락여성)로 불리는 환각제를 많이 복용했다. 현재는 특별한 경로를 통해서 구입할 수 있지만 예전에는 성매매 지역 내의 약국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을 정도로 일상화되어 있었다.

"나도 한 서른부터 약을 먹었지. 창피해서 말을 못하니까. 그 당시 우리 집 아가씨 열 두 명이 다 약을 먹었어. 아가씨들이 밤낮 쓰러지고 병원에 실려 가고, 몸이 망가지니까, 지네에 나오면 다 이렇게 덜덜덜 떨고 있는 애들뿐이었어. 제정신 가진 사람이 없었다니까. 다 약에 쩔어서. 그 당시 거기는

10) 월간 『여성동아』, 2001년 8월호.
11) 인터넷 뉴스 사이트 Ohmynews 기사 중 인터뷰 도중, 2001년 7월.

시장 있고, 양아치들도 많았고, 고속버스 터미널도 있었고, 거기에 완행 기차도 섰어. 완전 시장통 같았어. 그러니까 돈이 많이 몰렸지. 제일는 게 손님이었고. 손님 한 서넛만 하고 나면 딸이 아프고 부어. 그런데도 손님을 받아야 하니까 약을 먹는 거야."(은소영)

복용하지 않는 사람 수를 손에 꼽아도 될 정도로 많은 여성들이 환각제를 이용했다. 영업 나갈 용기를 얻기 위해 한 알 두 알 먹던 '몽달'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수가 늘어났다. 영업 준비를 위해 털어 넣고, 방금 받은 손님이 힘들게 해서 털어 넣고, 새 손님 받아야 하니까 털어 넣고, 배가 아파서 털어 넣고, 머리가 아파서 털어 넣고, 업주에게 기분 나쁜 말을 들어서 털어 넣는 그런 식이었다.

"위안이 되는 거라곤 오직 몽달뿐이었지 뭐. 약에 취해 있을 때는 외로움도 모르고 절박한 것도 모르니까. 하루에 오십 개도 좋고 육십 개를 먹을 때도 있었어. 몽달처럼 좋은 게 없다고 생각했지. 술 냄새는 손님이 싫어하니까 술 대신 약을 먹는 거야. 술 먹는 애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어. 그때는 뭐, 사는 게 사는 게 아니었지. 눈뜨면 손님 받고, 조금 한가하면 다시 몽달 먹고, 약 기운으로 기분이 좋아지면 또 손님 받고."(성은아)

그렇게 털어 넣는 '몽달'이 하룻밤에도 수십 알을 넘는 날이 허다했다. 중독성이 강한 환각제를 끊어보자는 것은 실제로 단기간에 큰 성과를 보이기는 힘들었다. 그런 까닭에 '끊자'는 제안은 어쩔 수 없이 지나지 않으며, 만일 그런 목소리를 낸다 하더라도 회원들의 호응은 얻지 못했을 것이다.

"그 당시는 다 약쟁이들이었어. 누구였더라, 약을 하도 먹어서 누구 하나가 머리가 좀 이상해졌어. 정신 뭐, 그런 일으켰어. 옛날에는 아예 주인이 그걸 먹으라고 먼저 줬어. 영업 시간이다, 영업시키려고 하는 거지. 그런 집들도 있었지. 그래 무슨 진통제래, 뭘 수 있으면 먹지 말자고, 조금이라도 덜 먹어 보자고 한 거지."(고수희)

성은아 씨는 여성들이 환각제를 복용함으로써 얻는 것은 몸의 병뿐이 아니었다고 말했다.

"내 그렇게 악어구리를 얼마에 샀는지 몰라. 이불도 좋고 사롱도 좋은 거야. 그냥 팔팔 날 때까지 써줬다니까. 아예 머리 안 뽑히려고 골드크림을 바르든가, 남계란을 깨서 바르고 나가서 싸우기도 했을 정도니까. 무슨 원한이 있다고 그렇게 싸워댔는지 도무지 모르겠어. 약 빨고 술 빨고 나면 별 것도 아닌 걸로 싸운 걸 우리도 알지. 그럼 서로 파스 사다 붙여 주고 피식 웃으면 그만이었어. 그렇게 살다 죽으면 그만인 걸 아등바등대며 산다는 게 우습게 느껴지는 거야. 그게 제일 무서웠어."(성은아)

성은아 씨는 '몽달'로 인한 물리적인 손상뿐 아니라 더욱 쉽게 체념을 익히게 되는 심리적 손상이 더 두려웠다고 했다. 그것은 성은아 씨 스스로에게 갖고 있는 염려이기도 했다.

처음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약을 조금이라도 줄여 보자며 '밥'로 시작한 활동이 점점 직접적인 판매처를 상대로 발전했다. 개나리회 임원들은 여성에게 약을 판매한다고 공공연하게 알려져 있는 지역 내 약국마다 들어다니며 약을 끊지 말 것을 당부하였다. 하지만 그런 효과는 그리 높지 않았다. 그러자 자세를 바꾸어 해당 약국에 "한 알 약을 계속 판매하면 신고를 하겠다"고 협박을 하기 시작했다. 기획 도전적인 방법이 아닐 수 없었다.

"처음에야 코빵귀도 안 뀌지. 우리가 이거 불법이라고, 계속 약 팔면 경찰에 신고해 버릴 거라고 하니까, 나중에는 좀 겁을 먹더라구. 딱 한 군데에서만 우리 몰래 약을 팔았어."(성은아)

이들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이를테면 이미 약에 취한 상태로 영업을 나와 있는 회원들에게 몸에 해롭지 않은 영양제 약을 주는 것이다. 물론 이 방법은 그리 효과가 높지 않았지만 그만큼 이들에게는 자기 스스로의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가꾸어 보려는 의지가 강했다.

개나리회에 부정적인 인식이 작용한 일부 업주들에게까지도 호응을 얻었던 이 활동은 다음의 방식까지도 동원되었다.

"주인들이 우리 취지를 인정했을 때, 그럼 영업은 해야 되니까, 약이 없으면 안 되는 때들이 있잖아. 주인이 갖고 있다가 주는 거야. 아이들이 갖고 있지 못하게 뺏어서, 먹더라도 조금만 먹으라고. 열 개 먹을 거 일곱 개만 먹게 한다든가, 일곱 개 먹을 거 다섯 개만 먹게 한다든가." (정숙자)

표면상으로는 업주들이 여성들에게 성매매 행위를 강요하기 위해 건네주던 것과 별 차이가 없지만, 개나리회에서 약 줄이기를 제기한 뒤의 그것은 분명 차이가 있다. 개중에는 약을 찾는 여성들에게 "내가 너한테 약을 많이 주면 개나리회가 지랄한다"며 달래는 업주가 있을 정도였다.

정숙자 씨는 이 운동을 "겉이 먹던 사람들이 줄이려고 노력도 하고, 실제로 변화도 있었다"고 평가했다. 약 줄이기 운동은 그 지역 누구나 심각하게 인식하는 문제 중 하나인 윤락제 과다 복용에 대해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이를 통해 여성들은 약에 절어 가누지 못하던 자신의 몸과 마음을 처음으로 절실하게 인식하게 되었다.

개나리회는 이 밖에 놀음, 화투 줄이기를 비롯해 고운말 쓰기, 서비스 개선 등 자신들이 성을 파는 행위와 직접 관련 있는 몇 가지 활동도 펼쳤다. 이런 활동은 거의 대부분 성매매에 개입되어 있는 자신들의 처지에서 기인한 것이었는데, 업주나 일을 부리는 처지에서 보아도 그리 나쁠 것 없는, 그 지역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쉽게 공감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었다.

고운말 쓰기는 비단 손님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은 아니었다. 여성들 관계를 더욱 돈독하게 다지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기도 했다. 술과 약으로 얼룩지는 생활 속에서 쉽게 망소리를 내뱉는 것은 다반사였고, 급기야는 싸움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허다했기 때문이었다.

설은아 씨와 정숙자 씨는 이러한 활동이 성매매 공간에서의 직접적인 행

이들의 활동 영역은 역 광장과 성매매 거리뿐 아니라 여성들이 쉬는 하루하루의 생활로 옮기었다.

위들과 변관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이들은 특히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 1인 1통장 갖기 운동, 약 줄이기 운동에 대해 남다른 애정과 자부심을 갖고 있었다. 개나리회가 기획하여 벌인 이 활동은 성매매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공간에서 살아야 하는 여성으로서 갖는 공통점에서 출발한 것이다. 이는 개나리회라는 그룹의 특이성과 정통성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현실적인 근거들인 셈이다. 이 일련의 활동이 실제로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 계량화할 수는 없다. 하지만 화투가 아닌 자신들 스스로에게서 처음 제기되고 시도되었다는 것만으로도 큰 의미를 지녔다. 스스로와 이웃의 여성에게 새로운 삶의 자극을 주기에 충분했기 때문이다.

외출

개나리회 회원들은 자신들의 활동 중에서도 유독 자원 봉사의 경험에 열린 호응을 보이며 이야기했다. 다른 어떤 활동에 비해서도 눈에 드러나는 움직임이던 자원 봉사 활동은 여성들에게 큰 경험으로 자리잡았을 뿐만 아니라 그들이 정한 활동 내용 중의 하나인 놀음 화투 줄이기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다. 설은아 씨나 임원들 역시 사람들과 어울려 화투치는 것으로 시간을 때우는 적이 많았는데, 주변의 여러 사람들이 이로 인해 또다시 큰 빚을 지게 되거나 다른 지역으로 팔려 가는 경우를 종종 보고는 했다. 하지만 화투는 성매매 집중 지역에서 여성들에게 베풀 수 없는 중요한 취미 생활이기도 했으므로, 임원들이 "줄이자, 줄이자"해도 이를 위한 현실적인 방법은 찾기 어려웠다. 이런 놀음 화투가 줄어든 것은 개나리회가 정기적인 자원 봉사 활동을 벌이면서부터였다.

이들이 주로 자원 봉사를 했던 곳은 고아원이나 양로원, 나환자촌 등이었다. 개나리회 활동과 관련된 유일한 문서인 「개나리회의 구성 목적 및 활동 사항」이라는 짧은 문서에는 자신들의 사회 봉사 활동 목록이 아래와 같이 적혀 있다.

불우 이웃 돕기

- 삶의 의욕을 잃고 자학에 빠진 회원들에게 생에 대한 의욕을 불어넣어 주고 우리도 남을 돕고 살 수 있다는 자부심 내지 긍지를 심어 주기 위한 방법
- 고아원 및 양로원 방문(연말 연시 생필품 또는 어버이날 등: 떡, 장갑, 목도리, 양말, 고기 및 기타 선물 준비)
- 만남 실 내자로 마음 방문(겨울 앨범 만들기, 표목 심기, 환자 가제 접기, 오락 등으로 환자 위문)
- 경기도 광주시의 산성의 집(지체장애자 공동체)(모내기, 밭 매기, 벼 베기, 김장, 땔감해 주기)
- 사랑의 선교회 위문 잔치(식사 제공)(걸인, 노동자, 청소부 대상)
- 결핵 환자 돕기 밀알 잣집
- 수재민 돕기 헌옷 수집(이불, 헌옷, 라면 등 방송국에 전달)
- 무료 급식소 식당 봉사(김치 담그기, 식사 준비)

처음에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동료 여성들로부터 시작된 불우 이웃 돕기 활동은 점차 사회적인 것으로까지 관심의 영역을 넓혀 갔다. 애초에 연 2회로 계획되었던 자원 봉사는 그들이 흔히 알고 있듯 선행적인 노력 봉사로 시작되었다. 그런데 그것이 비록 자원 봉사이기는 하지만 자신들이 속해 있는 테두리 밖으로 나가는 것은 새로운 시도에 가까웠다. 그 두렵지 않은 경계선을 한 발짝 넘어 보는 경험은 그들에게 이전에 느껴 보지 않았던 여러 가지 감정을 갖게 했다. 이런 경험이 이어지면서 여성들은 활동 영역을 더

정했으며, 회상의 리더십이 자신들의 활동에 가장 핵심적인 바탕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회장이 아주 잘했어. 통솔력도 있었고, 정이 많은 사람이지. 회장도 물불 무릅쓰면서 그런 사람인데 자기 먼저 솔선수범을 하고 변하는 걸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이끌린 거지." (정숙자)

"사람들이 말을 잘 따랐어. 그 말이라면 껌뻑 갔으니까. 옛날에는 굉장한, 뭐 정월서에 가서 자기 할 정도로 정해 갔었대. 그런데 완전 불똥이 아니고 의리파 불똥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다 따른 거야. 여자들이 싫어하는 사람이 없었어. 왜냐면 정당하게 옳은 일로 울분해서 불똥 부리는 거니까 다 좋아했지." (손소영)

"어유, 개나리 그만큼까지 갔던 거지. 노력을 정말 많이 했지. 아픈 애들 있으면 다 찾아다니고, 자네 집 대하다 놓고 밥해 먹이기도 하고. 밥 한 끼라도 풍족하게 하고, 모이면 재밌는 얘기 해주고, 엄청 노력했지. 내가 사람을 제대로 봤었다니까. 걘 내가 발탁한 거야." (고수희)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는 성은아 씨는 개나리회 회장으로 활동하면서 스스로를 '책임 맡은 사람'이라고 인식하며 업주나 기둥서방, 정부과의 관계에서도 더욱 여유 있는 자세를 보이기 위해 노력했다.

"개나리회 말아서 할 때는 옛날의 내가 아니지. 구청이나 파출소에서 불러다 혼계하고 그러면 속에서는 끓지만 꾹꾹 눌러야지. 적어도 200명 넘는 회원들을 이끌어야 된가 달라도 달라야지. 생각하면 그땐 화 참는 건 어렵지 않았어. 그 사람들이 아무리 우리 활동을 중지시키려 해도 그게 우리 몇 명이서 정한 거였나? 회원들이 모여서 결정한 거고, 그거 결정하던 날 우리나 회원들이 모두 얼마나 좋아했는데. 그 맛을 알아 버려서, 정고 몇 아니에 그만 둘 거면 시작도 안 했을 거야." (성은아)

나 역시 성은아 씨뿐만 아니라 주변 여성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사실 그의 리더십이 아니었더면 개나리회가 그 숱한 난관을 이겨내며 꿋꿋이 활동해 내기는 힘들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별들

개나리회의 활동이 안정되어 가고, 여성들 스스로 '우리들의 회'라는 인식이 커지 참여도가 높아지자 일부 언론에서 이런 개나리회의 활동을 취재하여 소개하기도 하였다. 언론에 소개되는 일은 여성들에게 몇 가지 의미가 있다. 이전에 자신이 속해 있던 모든 걸 버린 여성들로 하여금 자신의 존재가 알려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주기도 했으며, 그럴 수밖에 없었던 자신들이 사회로부터 외면받고 혼혼한 미담의 주인공으로 알려지는 데 대한 자긍심이 함께 교차했다.

이들의 활동이 언론에 알려지며 개나리회에 관심을 갖고 찾아오는 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찾아왔다. 언론인, 작가, 종교인, 대학생 등이었는데, 이런 과정은 결코 유쾌한 기억으로만 남아 있지는 않았다.

"나중에는 사람들이 제법 찾아왔어. 기념품 같은 거 몇 상자 갖고 와서 사진 찍자고 그러고, 누가 그걸 좋아해? 그런 내가, 딴 애들은 절대로 그런 데 안 나설 때니까, 대신 내가 억지로 끌어 가면서 사진 찍고, 애들한테는 다 좋은 말만 전하고 그랬지. 지금도 기억나는 건 자기가 무슨 전도사라며 찾아온 남자가 우리 앞에서 큰소리로 기도를 하며 막 울더라고. 우리가 무슨 희인이라면서 이들을 용서해 달라는 거야. 정말 가증스러웠지." (성은아)

성은아 씨는 당시 자신들은 '악지 못했다'고 했다. 신문기자나 작가 혹은 종교인이 찾아오면 그저 순수한 마음에서 그들을 맞았다. 지금이야 상대에

문제가 자주 언론 매체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당시는 그저 특별한 화젯거리에 불과했다. 그 뒤의 세월을 거치며 언론에 소개되는 것이 자신들이 원하는 내용만 소개되는 것이 아니며 더러 왜곡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만 당시는 달랐다. 그렇듯 찾아오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선행에 동감하기 때문이라고 여겼으며, 또 그런 일로 소개되는 것 자체가 그들로서는 새로운 경험이기도 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을 보인 것은 그들이 '특별한 여성'이었기 때문이었다. 신문기자나 작가에게는 그 여성들이 하나의 소재가 되었으며, 기독교인에게는 선교의 대상이었다. 단순한 호기심에서 비롯되었을지도 모를 못 사람들의 방문은 여성들에게 상반된 감정을 경험하게 했다. 성은아 씨의 표현처럼 자신들을 희인이라 부른 일부 기독교인에게 가증스러움을 느꼈는가 하면, 단지 "힘내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기 위해서 먼 길 마다 않고 와 준 사람들에게는 고마운 감정을 느꼈다. 이런 과정들은 이들에게 다시 세상과 교류하는 끈으로 작용된 것이 분명했다.

그러던 중 개나리회는 인근 지역의 어느 청년회 회원들의 방문을 받았다. 이들과의 만남은 개나리회가 새로운 활동을 경험하게 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개네들하는 대단한 인연이었지. 우리들 개인이었다면 그렇게 안면이 별 어전을까? 하여튼 잘 달랐어." (정숙자)

그 청년회도 종교적인 모임이기는 했지만, 개나리회 회원들에게 단 한 번도 선교하려는 기색을 보인 적이 없었다. 다만 개나리회 자원 봉사 활동에 꾸준히 참석하며 서로간에 신뢰를 쌓아 갔을 뿐이다.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사는 이야기 나눌 기회도 많이 가졌다. 저마다 다른 삶의 이력을 지닌 이들이 만나 서로의 정서와 문화와 삶을 이야기하며 서로간에 갖고 있는 편견의 벽을 허무는 경험을 하기 시작한 것이다. 개나리회 회원들은 엇비슷한 연배이거나 동생뻘인 그들과 스스럼없이 교류하며 이 낯선 젊은이들이 어느 사람들과 다르다고 느꼈다. 이때의 만남은 분명 이들에게 많은 경험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개나리회로서는 치명적인 위해의 계기가 되었다.

1983년 5월 23일, 개나리회와 청년회는 서울에서 그리 멀지 않은 경기도 장흥으로 야유회를 갔다. 개나리회 회원은 40명 정도가 참여했는데, 오랜 만에 놀러 가는 것이어서 다들 들떠 있었다. 회장 성은아 씨로서는 행여 자신들이 괜스레 하룻 기분에 취해 한 잔 두 잔 마신 술로 싸움이라도 벌어지지 않을까 사소한 문제까지도 염려해야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자신들 사이에서야 그런 것이 특별한 일이 아니었지만, 자기 같은 처지가 아닌 사람들과 함께 어떤 행사를 가져 본 적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다행히 행사가 다칠나도록 그런 일은 생기지 않았다. 사고는 행사를 다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생겼다.

돌아올 때 기차를 이용해 모두가 함께 움직였는데, 막상 기차에 오르고 보니 개나리회 회원 두 명이 보이지 않았다. 걱정하던 차에 용산에 도착해 보니 불길한 소식이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다.

"전에도 놀러 간 적은 있지만 애먼 술에 취하고 악에 취하고 하다 보니까 별일도 아닌데 뒤엉켜서 싸우다 떨어졌은 했어. 근데 이 날은 재밌도 하고 아주 재밌었거든. 싸움도 없었고. 용산역에 도착해서 아무 일도 없어서 다 됐다 싶었는데 딱 그 소식을 들은 거야." (성은아)

회원 두 명이 기차를 타려 가던 중 청년상아 지나가던 오토바이를 얻어 타게 되었다. 장숙자 씨는 그것을 "술 한 잔 들어가니 화류계 기질이 발동했던 것"이라며 씁쓸히 말했다. 그 오토바이로 오던 중 사고가 났는데 두 명 중 한 명이 뇌를 심하게 다쳐 병원으로 옮겼으나 살해가 위독해 급히 수술을 받아야 했다. 병원으로 실려 간 사람은 봉사 활동 때 한 번도 힘든 내색을 하지 않고 가장 열심히 일하던, 나이가 제일 어려 '막내'로 불리던 조영

숙이라는 여성이었다.

소식을 들은 성은아 씨는 자기 방에 들어가 손에 잡히는 대로 돈을 챙겨 회원들과 함께 병원으로 갔다. 기가 막힌 소식이 아닐 수 없었다. 지금까지 업주와 경찰, 그리고 동료 여성 내부에서 순탄치 않은 순간은 많았지만 이런 사고는 처음이었다. 성은아 씨는 마음속으로 '제발 죽지만 말아 달라'고 빌고 또 빌었다.

병원에서는 수술을 하기는 했지만 별다른 기대는 하지 말라고 했다. 임원들은 그 여성의 주민등록증에 있는 주소지를 수소문해 그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얼마 뒤 가족이 병원에 도착했지만, 결국 그 여성은 수술받은 지 사흘 만에 저 세상으로 떠났다.

가족들은 개나리회에서 장례 절차를 맡아 치러 달라고 부탁했다. 하지만 정작 그 여성의 장례식은 거의 한 달이 다 되어서야 치를 수가 있었다.

"그때 장례 과정이 또 얼마나 예절했는지 알아? 화두저간 해결이 안 돼 가지고 한 달인지 50일 가까이 엄청나게 길었어."(정숙자)

성은아 씨는 그때 장례를 치르지 못한 것은 사고를 낸 측과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였기도 하지만 당장 장례 치를 비용조차 없어서였다고 말했다. 사고를 낸 측은 동대문시장에서 운반 일을 하는 남자였는데 아무런 보상도 해줄 수 없는 사람이었다.

곧바로 장례식을 치러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막상 돈이 없어 여기저기 돈을 마련하러 다니며 영안실을 지켰다. 일반 주택을 개조해서 만든 영안실은 죽은 조영숙 씨의 가족과 개나리회와 청년회 회원들로 매일같이 붐볐다.

"문상 정도가 아니라 출퇴근을 했어. 아예, 영업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 마음이 몸밖에 가 있으니까 업주들한테 욕을 되게 먹었지. 영업이 문제였지, 우리가 불통들이기는 했지만, 하여튼 인간적인 면에서는 좋았어. 말하자면 의협심이랄까? 동료 의식……"(정숙자)

그들은 병원 영안실을 지키는 한편으로 장례를 돌아다니면서 병원에 지불해야 할 돈과 장례 절차에 필요한 돈을 모금했다. 그리고 그 동안 물건을 팔아 모은 개나리회의 공금도 모두 털었다. 하지만 이것으로는 그 동안의 경비를 충당하는 것조차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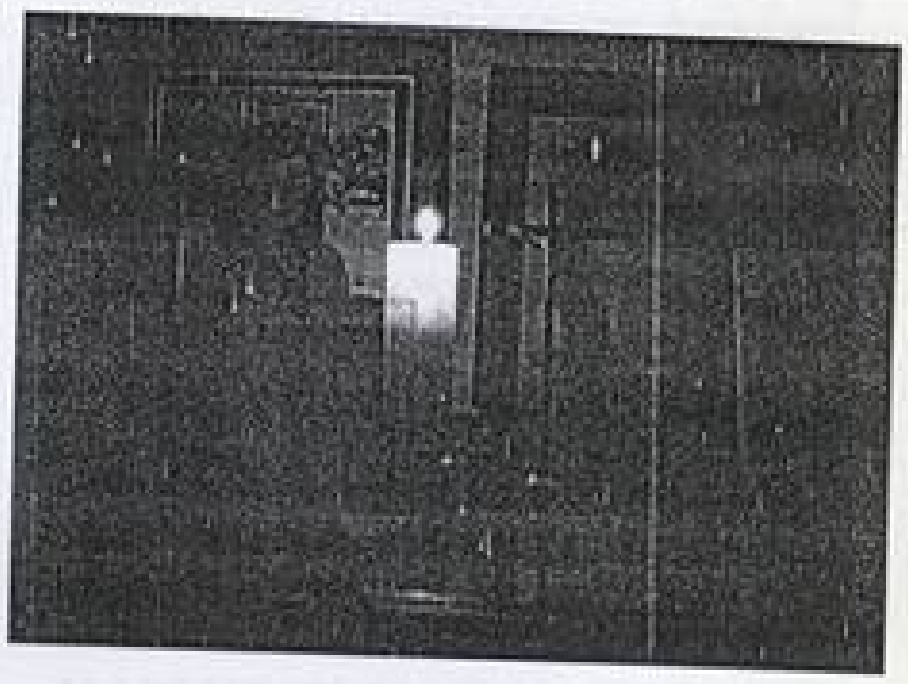
"회원들 중에 어떤 애는 영안실 청소를 해주고 다른 유족들이 사용하다 남은 초하고 향을 얻어다 우리가 쓰기도 했어. 남들이 먹다 남은 찌꺼기 그런 걸로 밥해 먹고, 나중에 장례를 치르기는 했어. 하여튼 우리는 그 당시에 청년회 회원들하고 최선을 다했어."(정숙자)

개나리회 회원들이 매일같이 병원으로 가 영업에 지장이 생기자 업주들은 아예 병원 출입을 못하게 막았다. 그러자 여성들은 자기 돈으로 긴 밥 최대 몇 업주에게 지불하며 또다시 병원으로 나와 밤을 지새기 일쑤였다. 더러는 빚을 내어 자신의 긴 밥 최대만큼의 액수를 업주에게 지불하는 경우도 있었다. 청년회 회원들은 그들대로 회사를 마친 뒤 병원으로 퇴근을 했고, 아침이면 밤을 꼬박 새운 뒤 병원에서 출근을 했다.

그렇게 계속 시간이 흘러가자 병원측에서는 시체를 실험용으로 팔겠다고 옥박질렀다. 그때의 심정을 회장 성은아 씨는 이렇게 말했다.

"그럴 수는 없었지. 짧은 인생이기는 했지만 제대로 사랑받고 살지도 못한 아인데, 시체마저 남의 집에 팔기면 그걸 어떻게 봐. 나는 그 동생에서 살면서 콩알 많이 먹어서 죽고, 연탄 가스 마셔서 죽고, 병으로 죽고, 그러는 거 많이 봤어. 비참하잖아. 하여 영숙이만은 그렇게 가게 할 수는 없더라고."(성은아)

그 동안의 병원비에 대해 청년회 회원 한 명과 성은아 씨가 연대 보증을 서고 나서야 장례식을 치르기로 했다. 개나리회 회원들은 각자 모은 돈들을 내놓았고, 청년회 회원들은 적금을 해약하거나 퇴직 봉투를 들고 오기도 했다. 그렇게 돈이 모이자 조영숙 씨가 죽은 지 거의 한 달이 만에 비로소 장



"개나리회 한 사람이, 몸 파는 년이라고
손가락질당하던 한 아가씨가 그렇게
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

례식을 치를 수 있게 되었다.

"사람이 죽은 건 안타까운 일이지만, 그런 죽음이 없을 거야. 화려한 죽음이지."(정숙자)

"다들 부러운 듯이 말했어. 평생 쪼들리 취급당하면서 살았더라도, 내가 죽고 나서도 누군가가 저렇게 해준다면 지금 당장 숨이 끊어져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으니까. 그때 용산에서 지키지던 마음 하나가 생긴 거지."(성은아)

성은아 씨가 말한 용산에서의 마음이란, 시체를 본다거나 시체 가족에게 가면 부정을 다 재수가 없다는, 그들 사이의 부정의 통념이었다. 해서 아무리 가까운 사람이 죽어도 절대로 상가에도 가지는 않아 왔다. 한데 그런 여성들이 17일 동안 영안실을 지키고 일다투어 장지까지 따라간 것이다. 성은아 씨는 그때를 '사람이 마음을 이기는 현장'같았다고 말했다.

장례가 끝나 용산에 돌아온 성은아 씨는 동료로부터 업주 중 한 사람이 '회장이 무슨 죄가 있다고 그 빚을 다 지느냐?'며 돈을 모아 주라고 제안했다는 얘기를 들었다.

"그 사람은 정말 소문난 악질 업주였거든. 그러니까 눈물이 나더라고. 고맙기도 하고. 그 빚을 치러낸 것도 스스로 대견했지만, 개나리회 한 사람이, 몸 파는 년이라고 손가락질당하던 한 아가씨가 그렇게 제대로 갔다고 생각을 하니까."(성은아)

장례가 끝나고 여성들은 두고두고 그때의 이야기를 하며 지냈다. 사람이 죽은 안타까운 심정보다도 그 장례를 치러낸 개나리회와 청년회의 회원에 대해, 그리고 '몸 파는 여성' 한 명의 죽음에 그렇듯 구름처럼 모여든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놀라워했다. 하지만 이 일은 개나리회가 활동을 결정되는 결정적인 계기로 작용하였다.

조영숙 씨의 장례 과정은 개나리회 회원들이 이전에 경험한 것 이상의 자

"많이 고민했지. 그랬기 때문에 서로 많이들 자극을 주었지. 결혼도 하고 결사도 하고, 싸, 회장도 얼마나 노력을 했어. 후회를 해도 되돌릴 수는 없지만, 당시에는 여기 용산에 오기 전에 전국을 돌아다녔지만 왜 용산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다고 생각을 했는지. 시계가 멈추어 버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여기에 이 곳로 있어야 될 사람처럼 생각을 했던 거야."(정숙자)

정숙자 씨의 답에는 이제 자신은 용산이 아니어도 살고 있지 않느냐는, 내 삶에 대한 자평의 의미도 숨어 있었다. 그들도 잘 알고 있었다. 사실 자신들이 염두에 두었던 '빠른 자립'(작업 전환)이라는 말이 얼마나 요원한 것인지를 말이다. 하지만 그들은 시도했다. 그들이 시도했던 것은 생계에서 벗어나거나 직업을 바꾸는 단순한 시도가 아니었다. 성매매 체제 안에서 맺어진 자조와 체념, 주변으로부터 가해지는 여러 굴레로부터의 자립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것은 단편의 의미에서의 재활 혹은 전업의 의미로 국한 지을 수 없으며 또 그렇게 간주되어서도 안 된다. 자립은 성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성매매 공간을 벗어나는 것만이 자립은 아니다. 따라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지금까지 우리 사회가 그들에게 흔히 요구했던 단순한 의미의 전업을 염두에 두었을지도 모르는 내 질문은 무물이었던 셈이다.

나는 자신들이 했던 활동의 세목을 얘기해 줄 때마다 무슨 운동, 무슨 운동이라고 했던 그들의 표현이 무척 흥미롭게 느껴졌던 터였다. 처음 그 문건을 건네받았을 때는 나도 모르게 설핏 웃음을 흘리기까지 했다. 사실 그 말은 생경스러울 수 있다. 기둥서방 없애기, 빼프 손님 안 받기, 고운말 쓰기, 계산 잘해서 받기 운동; 1인 1통장 갖기 운동, 약 줄이기 운동, 놀음 화투 줄이기 운동 등. 하지만 그들에게는 그것 자체가 이미 일상 곳곳에서 자립을 시도하는 데 필요한 단편적인, 그러나 절실한 근거들이었다. 만나고 얘기 듣기를 무수히 되풀이하고 나서야 나는 비로소 알 수 있었다. 그들이 그 대단하지 않은 문구들에 왜 꼬박꼬박 운동이라는 표현을 달았는지를 말

이년 경험은 결국 없다. 이는 정책과 시행상의 부족함에서 기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여성들의 피해 상황을 밝혀 왔고, 그들을 합부로 재단하지 않으며 노력했던 부류들조차 간과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는지 모른다. 일상을 인정하고, 일상에서 출발하여, 일상에서 함께 꿈틀거리는 것일이다.

그 3년에서 오늘을 보며

우리는 여성들의 자치 조직에 관한 경험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든 일상 속의 긍정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을 여성들이 겪는 피해 현실과 맞먹는 의미로 여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러 연구물과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 온 이슈는 지금껏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어 왔다. 특히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여성 NGO에서는 성을 파는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과 인권 유린 현실을 알리기 위해 주력해 왔으며, 몇몇 여성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물론 여성들이 성매매와 관련된 체제 안에 편입된 그 순간부터 불평등한 관계로 인한 억압적 상황에 연루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하지만 나는 그 동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어느 만큼을 들으려 하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해 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여성들과의 교류가 '일'이 아니라 '생활'로 다가올수록 그것은 내게 쉽게 멀쳐낼 수 없는 하나의 의문이 되어 갔다. 비참한 현실의 또 다른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웃기고, 재미있는 일상'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수많은 갈등을 갖게 만들곤 했다. 여성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힘과 희망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되뇌어 왔음에도, 나는 그것의 근거가 바로 내 곁에 존재했다는 것

이다. 하지만 당시 용산역에서 일하던 여성의 수가 250명, 그 중에서 입원의 직책을 맡아 적극적으로 활동한 여성의 수는 고작해야 십여 명이었다. 개나리회를 보람과 자긍심으로 추억해 내는 이들에게 나는 그것이 '그들만의 조직'이 아니었느냐는 의심을 담아 보았다.

"그래, 주예님께 무슨 고마운, 앙로받을 돌려가고, 무슨 운동을 한다고 그러고, 사회 차원적으로 보면 우스광스러운 일이었을지 모르지만, 우리에게는 고향을 떠난 사람이 다시 돌아가면 푸근함을 느끼는 그런 거, 외출했다 돌아오면 내가 소속되어 있다는 그런 느낌, 안정감 같은 거, 용산에 와서 전철역에 딱 내리면 아, 우리 동네에 왔구나 하는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어. 하여튼 제있었어. 우리도 정말 속수무책인 사람들이 아니라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거. 물론 250명이 다 함께 한 것은 아니지, 하지만 그 절반만 동조를 한다 해도 의미 있는 거지."(정숙자)

정숙자 씨는 두려움과 막연함으로 마냥 주저앉아 있었던 용산이 개나리회 활동을 거치며 어느덧 푸근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공간이 되었다고 했다. 대비되는 이 말은 언뜻 모순처럼 느껴졌다. '사는 게 사는 게 아닌' 일상 속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고 되뇌던 시절, 그때는 용산이 갈해졌다. 하지만 소속감과 자부심을 갖게 된 또 다른 일상 속에서는 푸근함과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고향이 되어 있었다. 그에게는 밀어다 낯선 사내에게 몸을 내주어야 했던 용산이 개나리회 활동을 통해 그토록 다른 의미로 여겨졌던 것이다.

나는 유독 '절반의 동조'라는 말에 집주던 정숙자 씨의 이야기가 오래도록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았다. 그것이 비록 절반에 그쳤다 해도, 자신들은 그 절반의 동조를 얻어내지 않았느냐고 그는 단호히 말했다. 반론의 여지가 없는 말이었다. 성매매와 관련된 정책과 시행, 이를 둘러싼 무수히 많은 논쟁의 말, 그리고 몇몇 NGO로부터 시작된 여러 시도들에서 그만 동조를 얻

어낸 경험은 결국 없다. 이는 정책과 시행상의 부족함에서 기인하는 것은 결코 아닐 것이다. 여성들의 피해 상황을 밝혀 왔고, 그들을 합부로 재단하지 않으며 노력했던 부류들조차 간과했던 것은 바로 이 점이었는지 모른다. 일상을 인정하고, 일상에서 출발하여, 일상에서 함께 꿈틀거리는 것일이다.

그 3년에서 오늘을 보며

우리는 여성들의 자치 조직에 관한 경험뿐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만든 일상 속의 긍정적인 경험들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그것을 여성들이 겪는 피해 현실과 맞먹는 의미로 여기지 못했던 것도 사실이다.

여러 연구물과 언론 매체에서 다루어 온 이슈는 지금껏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에 대한 내용들이 주류를 이어 왔다. 특히 관련된 활동을 하는 여성 NGO에서는 성을 파는 여성들의 억압적 상황과 인권 유린 현실을 알리기 위해 주력해 왔으며, 몇몇 여성이 그러한 사실에 대해 증언하기도 했다. 물론 여성들이 성매매와 관련된 체제 안에 편입된 그 순간부터 불평등한 관계로 인한 억압적 상황에 연루되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현실이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들이 겪었던 혹은 겪고 있는 인권 유린 상황은 많은 사람들이 짐작하는 것 이상으로 심각하다. 하지만 나는 그 동안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어느 만큼을 들으려 하고 또 그들에게 그렇게 요구해 왔던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이 들기 시작했다. 여성들과의 교류가 '일'이 아니라 '생활'로 다가올수록 그것은 내게 쉽게 멀쳐낼 수 없는 하나의 의문이 되어 갔다. 비참한 현실의 또 다른 삶의 구석구석에 스며 있는 '웃기고, 재미있는 일상'을 발견하면 할수록 그것은 나 스스로에게 수많은 갈등을 갖게 만들곤 했다. 여성들 스스로가 지니고 있는 힘과 희망을 인정해야 한다며 공식적인 되뇌어 왔음에도, 나는 그것의 근거가 바로 내 곁에 존재했다는 것을 미처 깨닫지 못했던 것이다.

어떤 부류의 사람들은 이것이 성매매를 인정하는 몇몇 나라의 '성 노동자 노동조합'에 관한 경험과 흡사하지 않는가 하고 그 공통점을 찾고 싶어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좀 단언하기 힘들다. 한국에 존재했던 자치회의 경험이 다른 나라들의 여성 노조가 지니고 있는 배경과 어떻게 다르고 같은지를 섬사리 평가하기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성들이 스스로의 자치 조직에 대해 지니고 있었을지도 모를 혹은 배제했을지도 모를 정치적 성격에 대한 언급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어쩌면 미처 자각하지 못했을 여러 가지 의미가 숨어 있기도 할 것이다. 다만 분명한 것은 다른 나라의 경험이나 한국에서 찾을 수 있는 여성 자치 조직이 보여주는 공통점 하나는 그것이 자생적 움직임이라는 것이다.

나는 이 작업을 하면서 그 어떤 경우보다도 즐거운 경험을 하였다. 여성들은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 즐거쁘게 많은 얘기를 토해 냈다. 여성들을 만나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대부분 자신이 겪은 억압 상황과 지난한 세월에 대해 이야기하는 데 반해, 이런 경우는 여성들 당시자의 자부심과 긍정적인 경험에 대해 주로 들려 주었다. 아쉽게도 이런 여성은 자신의 당시 직책마저도 기억하고 있지 못할 정도로 정확한 정보에 대해 확신이 없어 했지만, 활동할 때 들었던 심정이라든가 개나리회가 개입된 일화에 대해서는 주저 없이 이야기했다. 특히 자신들의 집단 행동이나 스스로가 인정할 수 있는 긍정적인 변화에 대해서는 눈빛을 반짝이며 최고한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한숨과 눈물보다도 자부심과 즐거움으로 회상될 수 있는 기억을 지닌 여성들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개나리회가 활동한 3년이라는 시간은 아직 아주 짧시 동안의 꿈처럼 뭅기 그지없다. 당시 활동했던 회원들의 '네춘 경력'이나 용산 성매매 지역이 존재해 온 역사에 비하더라도 그 3년이라는 시간은 굳색하리만치 짧다. 하

지만 여성들 사이에서 존재했던 자치 조직의 경험을 구하는 데 있어서 그 3년은 결코 짧지만은 않다. 개나리회는 '감히' 그 시절에 자신들의 처지와 바람을 선언했고, 비참하다고 판단하기만 했던 스스로의 삶에 비로소 용기를 부여 보았으며, '함께' 자신들만의 일상을 꾸려나는 것으로 진정한 의미의 자립을 시도했다.

이는 비단 이 개나리회의 이야기만은 아닐 것이다. 발굴되지 않은 또 다른 자치 조직과 알려지지 않은 소규모 자생적인 움직임과 목소리 내기는 우리 사회 곳곳에서 존재했을 것이며 지금 이 순간도 진행되고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에서 여기에 소개한 개나리회 이야기는 단지 그들만의 역사에 머물지 않는다.

개나리회가 지금 이 시기에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했던 바가 무엇인지 귀기울여 보는 시도에는 적지 않은 용기가 필요하다. 어쩌면 낯설고 생경한 이 기록이 지금껏 우리가 지니고 있던 관념들에 혼란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3년의 경험이 심상찮은 사유의 빌미를 제공한 것이라면, 그들이 용기를 부렸듯 우리도, 우리 사회도, 다시 그들 스스로도 새로운 지점을 향해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필자 및 엮은이 소개

윤미혜

「한국 사회의 매춘 여성에 대한 통제의 작위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일본의 공창 제도 연구」(아시아여성학센터, 2000),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회 대안 사례 연구」(여성부, 2001) 등을 진행했다. 1998년부터 한국여성연구원 전임연구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공저로 『섹슈얼리티 강의』(동녘, 1999)가 있다. wonmadam@dreamwiz.com

엄상희

1995년부터 1999년까지 기지촌 현장 단체를 거쳐 매매춘 근절을 위한 한소리회에서 활동했다. 다큐멘터리 「성매매 거리에서 온 편에 관한 보고서」와 「가출 이해하: 밀리오레에서 길을 잃다」를 기획했으며, 공저 『딱딸해나, 딱 달래나』(이마서원, 2000) 등이 있다. 여성들의 삶(일상)을 기록으로 남기는 일을 하고 있다. oecha@dreamwiz.com

박재희

「외국 여성의 한국 성산업 유입에 관한 연구: 기지촌의 필리핀 여성을 중심으로」(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0), 「성 산업으로 유입된 외국인 여성에 관한 현장 실태 조사 연구」(한국교회여성연합회, 1999),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회 대안 사례 연구」(여성부, 2001) 등을 진행했다. 마당리 복지 시설의 운영 재원을 마련하는 일을 하고 있다. bjaehee@dreamwiz.com

이효희

「실태 여성의 성적 서비스 경험에 관한 연구」(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실태 여성의 성산업 유입 실태 및 방지 대책 연구」(여성특별위원회, 1999), 「성매매 방지를 위한 국회 대안 사례 연구」(여성부, 2001)를 진행했다. 1997년부터 청소년 성적 프로젝트 기획자로 일하고 있다. sim252@hanbox.com